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0. 8.



제1부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동향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3

 1. 중소기업 일반현황 3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7

제2장 중소기업 경기동향 9

 1. 업종별 동향 9

 가. 제조업 9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7

 2. 분야별 동향 19

 가. 창업 및 부도 19

 나. 수출 20

 다. 금융 22

 라. 인력 22

 마. 기술 24

제2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29

 제1절 민간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29

 1. 신설법인 현황 29

 2. 창업저변 확대 31

 가. 창업교육 31

 나. 기업가정신 확산 32

 다. 도전 K-스타트업 35

 라.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36

 3. 기술 창업 활성화 37

 가. 청년창업사관학교 37

 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39

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46
라. 예비창업패키지	48
마. 초기창업패키지	49
바. 창업도약패키지	51
사.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52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54
가.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54
나. 창업보육센터(BI) 운영	55
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57
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59
마. 메이커 활성화 지원	63
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64
5. 1인 창조기업 활성화	66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66
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67
제2절 벤처열기 확산을 통한 혁신벤처국가 실현	68
1.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	68
가. 벤처기업 성과	69
나. 벤처기업 지원현황	70
2. 벤처투자 현황	73
3. 벤처투자 확대	75
가. 모태펀드 운영	75
나. 엔젤투자 활성화	76
4. 회수시장 활성화	79
제3절 재도전 환경 조성	82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82
가. 재창업교육	83
나.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83
다. 경영위기기업의 발굴 및 회생 지원	85
라.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FTA 피해기업 구제	86

2. 재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90
가.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부담 완화	90
나. 신속한 회생 지원	91
다. 신용회복 및 부정적 신용정보 관리 체계 개선	92
제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촉진	94
1. 근로자 임금상승 및 근로환경 개선	94
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	94
나. 성과공유제 도입 및 확산	96
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97
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98
2.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100
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100
나. 기술사관 육성	101
다.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102
라.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103
마.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104
바. 국립 공업고등학교 육성	105
사.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107
아. 중소기업 인식개선	107
자.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108
제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109
1절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109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109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114
3.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	136
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136
나. 소재·부품·장비 상생협의회 출범(상생모델 발굴)	137

4. 스마트 공장 확산	138
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138
나.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38
다.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39
라.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140
5.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141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확대	141
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144
다. 뿌리중소기업 육성	146
6.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151
가. 중기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151
나.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156
제2절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158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시정	158
2. 정책자금 지원	160
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의 및 운영 현황	160
나. 2019년 정책자금 운용성과	161
3. 신용보증 공급	164
가. 보증지원 규모 확대	164
나.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	166
4. 매출채권보험 운용	168
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168
나. 고객 중심의 제도 혁신	169
다. 보험사업 역할 강화	169
제3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170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70
2.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국내 판로 촉진	172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173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175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176

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조합참여 허용	177
마. 직접생산확인제도	178
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178
사.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	179
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180
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182
차.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183
카.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및 모니터링	183
3.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185
가. 온라인시장진출	185
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186
다.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187
라. 공영홈쇼핑(채널명 : 공영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189
제4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190
1. 수출 현황	190
2.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192
가. 수출지원기반활용	192
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196
3. 수출기업 지원 및 해외교류 인프라 확충	201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201
나.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202
4. 국제협력 추진	205
가. 양자협력 활동	205
나. 다자협력 활동	208
제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213
제1절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상생협력 촉진	213
1. 대·중소기업 간 경영현황	213
2.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215
가.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결제 현황	215
나.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217

3.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220
가. 대·중기간 상생협력 추진 배경 및 경과	220
나.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주요 실적 및 성과	221
제2절 협업을 통한 혁신역량 발전	234
1. 중소기업 간 협업 유도	234
가. 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	234
나. 기술혁신센터 지원	237
2. 포용적 동반성장 확대	238
가. 여성기업 육성 정책	238
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241
제3절 지역 중소기업 육성	248
1. 지역 중소기업 현황	248
가. 지역 경제동향	248
나. 지역 중소기업 현황	250
2.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257
가. 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	257
나. 규제자유특구 시행시 기대효과	259
다.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260
라. 향후 계획	260
3. 지역 특화산업 육성	261
가. 지역특화산업육성(R&D)	263
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264
4.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	266
5. 국가융복합단지연계 지역기업상용화(R&D)	268
6.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270
7. 지역특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272
가. 지역특구 지정절차	272
나.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현황	272
다.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활성화	273
8.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274

제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276
제1절 소상공인지역업 활력 생태계 촉진	276
1. 소상공인 현황	276
2. 준비된 창업 유도	281
가. 소상공인 정보제공	281
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87
다.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288
라.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289
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289
바. 소상공인 보증 지원	290
3.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298
가. 희망리턴패키지	298
나. 재창업패키지	299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299
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00
제2절 소상공인지역업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302
1. 소상공인 성장 지원	302
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302
나. 소상공인 경영교육	303
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304
라.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304
마.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	307
바.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308
사.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310
아. 백년가게 육성	311
2.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317
제3절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321
1. 전통시장 현황	321
2. 특성화 시장 육성	323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30
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30
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31
4. 시장경영혁신 지원	333
가. 시장경영bauer처지원	333
나.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334
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산	337
라. 전통시장홍보	338
5. 상권 활성화	341
제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344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344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347
3. 적극행정	348
4.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350
가.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인 '기업마당'	350
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353
다.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354
5.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357
6.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359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1장 기획재정부	363
제2장 교육부	366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0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377
제5장 농림축산식품부	381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383
제7장 보건복지부	389
제8장 환경부	391
제9장 고용노동부	395
제10장 국토교통부	400
제11장 해양수산부	402
제12장 방송통신위원회	406
제13장 식품의약품안전처	408
제14장 공정거래위원회	410
제15장 금융위원회	412
제16장 국세청	414
제17장 관세청	417
제18장 조달청	419
제19장 병무청	421
제20장 방위사업청	422
제21장 농촌진흥청	426
제22장 특허청	428
제23장 기상청	431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37
제2장 기술보증기금	470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85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27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48
제6장 창업진흥원	560
제7장 한국벤처투자(주)	584
제8장 중소기업유통센터	593
제9장 (재)중소기업연구원	603
제10장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612
제11장 (주)공영홈쇼핑	619
제12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27
제13장 중소기업중앙회	635
제14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664
제15장 신용보증기금	676
제16장 금융감독원	684
제17장 대한상공회의소	687
제18장 중소기업은행	694
제19장 한국수출입은행	711
제20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17
제21장 한국무역보험공사	748
제22장 한국무역협회	756
제23장 한국생산성본부	780
제24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87
제25장 산업연구원	798
제26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08
제27장 한국디자인진흥원	822
제28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829
제29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859
제30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869
제31장 한국인터넷진흥원	884

표 1-1-1-1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3
표 1-1-1-2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2018년 기준)	4
표 1-1-1-3 기업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4
표 1-1-1-4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추이	5
표 1-1-1-5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5
표 1-1-1-6 지역별 소상공인의 사업체수 현황	6
표 1-1-1-7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6
표 1-1-1-8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6
표 1-1-1-9 중소기업 종사자수 추이	7
표 1-1-1-10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및 기여율	7
표 1-1-1-11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8
표 1-2-1-1 연도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9
표 1-2-1-2 2019년 월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9
표 1-2-1-3 중소제조업 평균기동률 추이	10
표 1-2-1-4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증감 추이	10
표 1-2-1-5 중소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추이(5~299인)	10
표 1-2-1-6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률, 실업률 현황	11
표 1-2-1-7 원자재 구매액 및 원산지별 구매액 구성비	11
표 1-2-1-8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상황	12
표 1-2-1-9 원자재 구매대금의 어음 지급기일	12
표 1-2-1-10 판매형태별 제품판매액 구성비	13
표 1-2-1-11 제품판매대금 결제상황	13
표 1-2-1-12 제품판매대금의 어음 수취기일	14
표 1-2-1-13 성장성 지표	14
표 1-2-1-14 수익성 지표	15
표 1-2-1-15 안정성 지표	16
표 1-2-1-16 생산성 지표	17
표 1-2-1-17 소상공인 경기동향 BSI (Business Survey Index)	17
표 1-2-1-18 전통시장 경기동향 BSI (Business Survey Index)	18
표 1-2-1-19 신설법인수(전국 기준)	19
표 1-2-1-20 창업기업수(전국 기준)	19
표 1-2-1-21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20
표 1-2-1-22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20

표 I-2-1-23 국가별 수출액 및 증감현황	21
표 I-2-1-24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21
표 I-2-1-25 기업 대출잔액 현황	22
표 I-2-1-26 기업대출 연체율 현황	22
표 I-2-1-27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	23
표 I-2-1-28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2018년)	23
표 I-2-1-29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23
표 I-2-1-30 R&D 수행 중소기업체 추이('12~'14 : 5,200인 '15: 5인 이상 '16: 5억원 초과)	24
표 I-2-1-31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24
표 I-2-1-32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25
표 I-2-1-33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25
표 II-1-1-1 연도별 신설법인수	29
표 II-1-1-2 업종별 신설법인수	29
표 II-1-1-3 연령별 신설법인수	30
표 II-1-1-4 성별 신설법인수	30
표 II-1-1-5 창업에듀 성과현황	31
표 II-1-1-6 실전창업교육 지원체계	32
표 II-1-1-7 비즈쿨 운영실적	33
표 II-1-1-8 대학기업가센터 연도별 지원성과	33
표 II-1-1-9 도전! K-스타트업 주요 추진 성과	36
표 II-1-1-10 2019년 지원대상 선정절차	36
표 II-1-1-11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개요	38
표 II-1-1-12 청년 CEO 양성 규모	39
표 II-1-1-13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39
표 II-1-1-14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41
표 II-1-1-15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47
표 II-1-1-16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성과	48
표 II-1-1-17 예비창업패키지 주요실적 및 성과	49
표 II-1-1-18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53개)	50
표 II-1-1-19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유형	50
표 II-1-1-20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사업화 기준)	51
표 II-1-1-21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52
표 II-1-1-22 2019년 사내벤처 운영기업 및 창업팀(기업) 현황	53
표 II-1-1-23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54

표 II-1-1-24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이용현황	55
표 II-1-1-25 최근 5년간 창업보육센터 사업 운영현황	55
표 II-1-1-26 창업보육센터 주체별 지정 현황	56
표 II-1-1-27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56
표 II-1-1-28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현황	56
표 II-1-1-29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	57
표 II-1-1-30 지식산업센터 운영현황(2020.6)	58
표 II-1-1-31 건립중인 지식산업센터 현황	58
표 II-1-1-32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주요기능	60
표 II-1-1-33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19.12월 말, 누적)	62
표 II-1-1-34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9년말)	63
표 II-1-1-35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19)	65
표 II-1-1-36 2019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66
표 II-1-1-37 비즈니스센터 주요 지원 내용	66
표 II-1-1-38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67
표 II-1-1-39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67
표 II-1-2-1 유형별 벤처기업수(2019년)	69
표 II-1-2-2 벤처기업 성과('18년 기준)	69
표 II-1-2-3 연도별 벤처천역기업 현황	70
표 II-1-2-4 연도별 신규 벤처캐피탈투자(VC) 규모	73
표 II-1-2-5 미국-한국의 엔젤투자 규모 비교(2018년 기준)	74
표 II-1-2-6 모태조합 조성 및 운용 현황	75
표 II-1-2-7 모태조합 자조합 결성 및 투자 현황('19년 말 기준)	76
표 II-1-2-8 엔젤투자 소득공제 현황	77
표 II-1-2-9 지역별 액셀러레이터 등록 현황	78
표 II-1-2-10 연도별 액셀러레이터 투자현황	78
표 II-1-2-11 엔젤투자 실적(신규)	78
표 II-1-2-12 벤처투자 회수 규모(2019년)	79
표 II-1-2-13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80
표 II-1-3-1 실패·패자부활에 대한 청년층 인식조사(오픈서베이, '18.1)	82
표 II-1-3-2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IBK경제연구소, '17.7)	83
표 II-1-3-3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요	84
표 II-1-3-4 재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실적	84
표 II-1-3-5 사업전환의 유형	87

표 II-1-3-6 사업전환 지원 추진실적	87
표 II-1-3-7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융자지원 실적	89
표 II-1-3-8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경과	90
표 II-1-3-9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	91
표 II-1-3-10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내용	92
표 II-2-1-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수준	94
표 II-2-1-2 채용지원사업 경쟁률 현황	98
표 II-2-1-3 우선공급 절차	99
표 II-2-1-4 연도별 추천실적	99
표 II-2-1-5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지원 현황	100
표 II-2-1-6 중소기업특성화고 맞춤형 취업률	101
표 II-2-1-7 기술사관 육성사업 추진현황	102
표 II-2-1-8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추진 현황	103
표 II-2-1-9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사업 추진 현황	104
표 II-2-1-10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현황	105
표 II-2-1-11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일반현황	105
표 II-2-1-12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육성 예산	106
표 II-2-1-13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취업률	106
표 II-3-1-1 R&D 수행 중소기업체 추이('16부터 종사자수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	109
표 II-3-1-2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109
표 II-3-1-3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110
표 II-3-1-4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110
표 II-3-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 현황	111
표 II-3-1-6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111
표 II-3-1-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지정 현황	112
표 II-3-1-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113
표 II-3-1-9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115
표 II-3-1-10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116
표 II-3-1-11 2019년 공학컨설팅센터별 지원실적	117
표 II-3-1-12 2019년 지역별 지원실적	118
표 II-3-1-13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19
표 II-3-1-14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120
표 II-3-1-15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121

표 II-3-1-16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현황	122
표 II-3-1-17 업종별 분포현황	123
표 II-3-1-18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의 성과	124
표 II-3-1-19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25
표 II-3-1-2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126
표 II-3-1-21 연도별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127
표 II-3-1-22 연도별 도약협력사업 추진실적	127
표 II-3-1-23 연도별 전략협력사업 추진실적	128
표 II-3-1-24 연도별 연구장비공동활용 추진실적	129
표 II-3-1-25 2019년 산학연collabo R&D 사업 지원 실적	129
표 II-3-1-26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원실적	130
표 II-3-1-27 산학연협력 신사업R&D바우처 지원현황	131
표 II-3-1-28 2019년 연구기반 활용사업 지원실적	131
표 II-3-1-29 지원 조건	132
표 II-3-1-3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경과	132
표 II-3-1-3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133
표 II-3-1-32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현황(누계)	133
표 II-3-1-33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업체(2019년)	134
표 II-3-1-34 지원 조건	135
표 II-3-1-35 지원 조건	135
표 II-3-1-36 기술전문기업 지정 현황	135
표 II-3-1-37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1차 선정(55개사) 지역별 분포 현황	136
표 II-3-1-38 민간·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현황	138
표 II-3-1-39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중소벤처기업부)	139
표 II-3-1-40 스마트공장 지원 성과(5,003개, '18년 기준)	140
표 II-3-1-41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141
표 II-3-1-4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142
표 II-3-1-43 KOSBIR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추이	143
표 II-3-1-44 KOSBIR 시행기관별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143
표 II-3-1-45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경과	145
표 II-3-1-46 기술로드맵 전략기술 도출현황	146
표 II-3-1-47 6대 뿌리산업 종사자 규모별 현황	147
표 II-3-1-48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현황	148
표 II-3-1-49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정현황	148

표 II-3-1-50 뿌리산업 지역별 지정현황	148
표 II-3-1-51 2019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원현황	150
표 II-3-1-52 2019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원성과	150
표 II-3-1-53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19.12월말 기준)	155
표 II-3-1-54 중소기업 분야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2019년)	156
표 II-3-1-55 연도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156
표 II-3-1-56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실적	157
표 II-3-2-1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대출금리(한국은행, 2019년)	158
표 II-3-2-2 2019 기업 규모별 자금조달 현황(금융감독원)	159
표 II-3-2-3 2019 중소기업 경제변동 실적 SBH(Small Business Health Index)(중기중앙회)	159
표 II-3-2-4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60
표 II-3-2-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2019년)	163
표 II-3-2-6 연도별·기관별 보증 지원실적	165
표 II-3-2-7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현황	165
표 II-3-2-8 연도별 보증 사고율 등 추이	166
표 II-3-2-9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점분야 지원실적	167
표 II-3-2-10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 현황	168
표 II-3-3-1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70
표 II-3-3-2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현황	170
표 II-3-3-3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71
표 II-3-3-4 연도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71
표 II-3-3-5 공공구매제도 도입 경과	173
표 II-3-3-6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추진경과	174
표 II-3-3-7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175
표 II-3-3-8 2020년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	175
표 II-3-3-9 연도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	176
표 II-3-3-10 중기간 경쟁제품의 독과점 현황	176
표 II-3-3-11 연도별 적격조합 현황	177
표 II-3-3-12 연도별 직접생산 확인 현황	178
표 II-3-3-13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현황	179
표 II-3-3-14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추진 경과	180
표 II-3-3-15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현황	181
표 II-3-3-16 성능인증 발급 현황	182
표 II-3-3-17 성능보험 계약 현황	182

표 II-3-3-18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 현황	182
표 II-3-3-19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자 현황	183
표 II-3-3-20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184
표 II-3-3-21 연도별 공공구매제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	184
표 II-3-3-22 온라인 시장진출 실적('19.12말기준)	186
표 II-3-3-23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아임쇼핑) 운영현황('19년 말 기준)	187
표 II-3-3-24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추진경과	188
표 II-3-3-25 중소기업 공동A/S 지원실적	188
표 II-3-3-26 공영홈쇼핑 판로지원 실적	189
표 II-3-4-1 2019년 수출바우처사업 개편현황	193
표 II-3-4-2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194
표 II-3-4-3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195
표 II-3-4-4 수출컨소시엄 파견실적	196
표 II-3-4-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	197
표 II-3-4-6 온라인쇼핑몰 판매실적 현황	198
표 II-3-4-7 자사몰 판매실적 현황	199
표 II-3-4-8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현황	200
표 II-3-4-9 수출지원센터 인력 현황('19.12)	201
표 II-3-4-10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202
표 II-3-4-11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현황	202
표 II-3-4-12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현황	203
표 II-3-4-13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실적	204
표 II-4-1-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비교	213
표 II-4-1-2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비교	214
표 II-4-1-3 위탁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 비중	215
표 II-4-1-4 연도별 어음 납품대금 평균 결제기일	216
표 II-4-1-5 수·위탁거래 실태조사결과 법령위반기업 현황	217
표 II-4-1-6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05~2019)	218
표 II-4-1-7 자상한 기업 협약체결 현황(2019.12월말 기준)	222
표 II-4-1-8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223
표 II-4-1-9 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224
표 II-4-1-10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226
표 II-4-1-11 2019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	228
표 II-4-1-12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 ('18.12월말 기준)	229

표 Ⅱ-4-1-13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	230
표 Ⅱ-4-1-14 상생결제제도 기업 규모별 실적현황	230
표 Ⅱ-4-1-15 사업조정 처리 현황('09.1.~'19.12.)	231
표 Ⅱ-4-1-16 연도별 사업조정 처리현황(신청일 기준)	231
표 Ⅱ-4-2-1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235
표 Ⅱ-4-2-2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235
표 Ⅱ-4-2-3 기업지원 사업내용 및 '19년 실적	236
표 Ⅱ-4-2-4 협력 R&D 연계지원 실적	237
표 Ⅱ-4-2-5 교류 프로그램 운영실적	237
표 Ⅱ-4-2-6 여성기업 현황	238
표 Ⅱ-4-2-7 여성기업 주요 업종별 현황(2017년)	238
표 Ⅱ-4-2-8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239
표 Ⅱ-4-2-9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240
표 Ⅱ-4-2-10 여성기업 R&D, 정책자금, 보증 지원 현황	241
표 Ⅱ-4-2-11 연도별 장애인 현황	241
표 Ⅱ-4-2-12 장애인 경제활동 동향	242
표 Ⅱ-4-2-13 장애인기업 업종별 분포	242
표 Ⅱ-4-2-14 장애인 고용률 현황	242
표 Ⅱ-4-2-15 연도별 장애인 창업지원 현황	244
표 Ⅱ-4-2-16 창업점포지원 사업수혜업체와 일반사업체 비교	244
표 Ⅱ-4-2-17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245
표 Ⅱ-4-2-18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현황	245
표 Ⅱ-4-2-19 연도별 장애인기업 확인현황	246
표 Ⅱ-4-2-20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246
표 Ⅱ-4-3-1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 명목)	248
표 Ⅱ-4-3-2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249
표 Ⅱ-4-3-3 지역별 실업률	250
표 Ⅱ-4-3-4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251
표 Ⅱ-4-3-5 지역별 중소기업 종사자수	252
표 Ⅱ-4-3-6 지역별 신설법인 수	253
표 Ⅱ-4-3-7 지역별 벤처기업 수	254
표 Ⅱ-4-3-8 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255
표 Ⅱ-4-3-9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액	256
표 Ⅱ-4-3-10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261

표 II-4-3-11 지역주력산업현황	262
표 II-4-3-12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내역사업별 추진내용	263
표 II-4-3-1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성과현황	264
표 II-4-3-14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내역사업별 추진내용	265
표 II-4-3-15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성과현황	265
표 II-4-3-16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현황	266
표 II-4-3-17 지역스타기업 특성화조건	267
표 II-4-3-18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지역간 비교	268
표 II-4-3-19 14개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현황	269
표 II-4-3-20 개방형혁신 바우처 지원유형	270
표 II-4-3-21 지역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272
표 II-4-3-22 연도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273
표 II-4-3-23 지역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273
표 II-4-3-24 '19년 지원기업 수행 프로그램	275
표 II-4-3-25 '19년 사업성과	275
표 II-4-3-26 '20년 사업신청 및 사업다각화 지원 선정기업 현황('20.7월 기준)	275
표 II-5-1-1 연도별 소상공인 추이	276
표 II-5-1-2 2018년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277
표 II-5-1-3 주요국의 소상공인 현황	277
표 II-5-1-4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종사자수 현황	278
표 II-5-1-5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279
표 II-5-1-6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280
표 II-5-1-7 소상공인방송 실시간방송 송출 현황	281
표 II-5-1-8 소상공인방송 연도별 IPTV 일평균 시청 가구수 추이	282
표 II-5-1-9 2019년 소상공인방송 신규 제작 프로그램	283
표 II-5-1-10 소상공인방송 VOD 이용 현황(유튜브, 네이버TV)	284
표 II-5-1-11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285
표 II-5-1-12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285
표 II-5-1-13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287
표 II-5-1-1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점포 현황('19.12월 기준)	288
표 II-5-1-15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실적	289
표 II-5-1-16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 보증현황	290
표 II-5-1-17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290
표 II-5-1-18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291
표 II-5-2-1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예산 및 실적	304

표 II-5-2-2 연도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추진현황	305
표 II-5-2-3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현황(2019.12월말 기준)	306
표 II-5-2-4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 실적	307
표 II-5-2-5 나들가게 선도지역 선정현황	307
표 II-5-2-6 수준평가 연계지원 내용	309
표 II-5-2-7 시도별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2019.12)	310
표 II-5-2-8 건립중인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	310
표 II-2-5-9 시도별 백년가게 선정현황(2019.12)	311
표 II-2-5-10 전국 백년가게 지정점포(2019.12)	312
표 II-5-2-11 소공인 제품 판로촉진 지원내역(2019.12월말 기준, 중복제외)	318
표 II-5-2-1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현황(2019.12월말 기준)	318
표 II-5-2-13 공동기반시설 연계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2019.12월말 기준)	319
표 II-5-2-14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현황(2019.12월말 기준)	320
표 II-5-3-1 연도별 시장수·점포수·상인수 비교	321
표 II-5-3-2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2017년)	322
표 II-5-3-3 2019년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 육성시장 현황(2019.12월 말 기준)	324
표 II-5-3-4 2019년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 육성시장 현황(2019.12월 말 기준)	327
표 II-5-3-5 2019년 첫걸음시장 육성시장 현황(2019.12월 말 기준)	328
표 II-5-3-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지원 현황	330
표 II-5-3-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성과 평가(2019.12월)	332
표 II-5-3-8 시장경영혁신지원 예산	333
표 II-5-3-9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예산	334
표 II-5-3-10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335
표 II-5-3-11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335
표 II-5-3-12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336
표 II-5-3-13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현황	336
표 II-5-3-14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336
표 II-5-3-15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337
표 II-5-3-16 2019년도 온누리상품권 주체별 구매비율	338
표 II-5-3-17 연도별 지원실적	339
표 II-5-3-18 상권활성화 지원 현황(2016년)	342
표 II-5-3-19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2019년)	343
표 II-6-1-1 연도별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실적	345
표 II-6-1-2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표사례	346

표 II-6-1-3 중소기업정책정보전달시스템(기업마당) 정보제공 현황	352
표 II-6-1-4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시스템(기업마당) 이용 현황	352
표 II-6-1-5 1357 중소기업 콜센터 상담 현황	354
표 II-6-1-6 비즈니스지원단 현황('19)	355
표 II-6-1-7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실적	355
표 II-6-1-8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실적	356
표 II-6-1-9 규제애로 분야별 발굴 현황	358
표 II-6-1-10 규제애로 유형별 처리 현황	358
표 II-6-1-11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실적	359
표 II-6-1-12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업과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체와의 경영성과 비교	360
표 III-7-1-1 2019년도 실용화 성과	389
표 III-19-1-1 '19년 중소기업 배정/편입인원	421
표 III-20-1-1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현황('19.12월 기준)	423
표 IV-1-1-1 창업기업지원자금 집행실적(2019년)	438
표 IV-1-1-2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2019년)	439
표 IV-1-1-3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2018년)	439
표 IV-1-1-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19년)	440
표 IV-1-1-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19년)	440
표 IV-1-1-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실적(2019년)	441
표 IV-1-1-7 재도약지원자금 지원실적(2019년)	441
표 IV-1-1-8 재기지원 상담실적(2019년)	442
표 IV-1-1-9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상담 및 수출계약 실적(2019년)	443
표 IV-1-1-10 수출바우처사업 수출 성과(2019년)	444
표 IV-1-1-11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2019년)	445
표 IV-1-1-12 해외협력기반 실적(2019년)	445
표 IV-1-1-13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지원실적(2019년)	446
표 IV-1-1-14 해외기술교류단 운영실적(2019년)	447
표 IV-1-1-15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지원실적(2019년)	448
표 IV-1-1-16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 사례(2019년)	449
표 IV-1-1-17 중진공 인력양성사업 분야(2019년)	449
표 IV-1-1-18 연수실적(2019년)	450
표 IV-1-1-19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체계도	453
표 IV-1-1-20 이관 전·후 주요 개선 실적	454
표 IV-1-1-21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2019년)	454

표 IV-1-1-22 공제가입실적(2019년)	456
표 IV-1-1-23 공기업·지자체와 내일채움공제 간 연계 협업 실적(2019년, 누적)	457
표 IV-1-1-24 중소벤처기업 구인수요 발굴 및 취업매칭 실적(2019년)	458
표 IV-1-1-25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2019년)	461
표 IV-1-1-26 진로제시컨설팅 처방 현황(2019년)	462
표 IV-1-1-27 화생컨설팅 지원실적(2013~2019년)	462
표 IV-2-1-1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471
표 IV-2-1-2 혁신성장산업 보증지원 현황	473
표 IV-2-1-3 신규보증의 기업 당 평균 연대보증인 수	474
표 IV-2-1-4 기술평가의 범위	476
표 IV-2-1-5 기술평가의 종류	476
표 IV-2-1-6 기술평가 운용 조직체계	476
표 IV-2-1-7 기술평가 인력현황	477
표 IV-2-1-8 지식재산(IP) 관련 보증지원 실적	478
표 IV-2-1-9 R&D 보증공급 실적	480
표 IV-2-1-10 기술거래, IP인수보증 실적	480
표 IV-2-1-11 기술거래, IP인수보증 실적	481
표 IV-2-1-12 R&D 보증공급 실적	481
표 IV-2-1-13 보증연계투자 주요내용	482
표 IV-2-1-14 R&D 보증공급 실적	483
표 IV-2-1-15 투자연계보증 개요	483
표 IV-2-1-16 기보벤처창업교실 추진현황	484
표 IV-2-1-17 청년·기술창업교실 추진현황	484
표 IV-3-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점포 현황('19.12월 기준)	486
표 IV-3-1-2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489
표 IV-3-1-3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489
표 IV-3-1-4 소상공인컨설팅 제도 도입 경과	491
표 IV-3-1-5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491
표 IV-3-1-6 연도별 지원성과	492
표 IV-3-1-7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492
표 IV-3-1-8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인프라 구축 지원현황	493
표 IV-3-1-9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495
표 IV-3-1-10 연도별 지역별 나들가게 전환 지원실적	495
표 IV-3-1-1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통합 정보시스템 보급 실적	496

표 IV-3-1-12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499
표 IV-3-1-13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499
표 IV-3-1-14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01
표 IV-3-1-15 2015년~2017년 구축 공동인프라 현황(10개소)	502
표 IV-3-1-16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23곳)	503
표 IV-3-1-17 연도별 지원실적	507
표 IV-3-1-18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08
표 IV-3-1-19 전통시장 실태조사 연도별 일반 현황	509
표 IV-3-1-2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	509
표 IV-3-1-21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510
표 IV-3-1-22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513
표 IV-3-1-23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514
표 IV-3-1-24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515
표 IV-3-1-25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515
표 IV-3-1-26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516
표 IV-3-1-27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516
표 IV-3-1-28 연도별 지원실적	517
표 IV-3-1-29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 선정시장	518
표 IV-3-1-30 연도별 지원실적	519
표 IV-3-1-31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점지원사항 변경내역	519
표 IV-3-1-32 연도별 지원실적	520
표 IV-3-1-33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521
표 IV-3-1-34 기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표본수 변화	523
표 IV-3-1-35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추이	523
표 IV-3-1-36 연도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실적	524
표 IV-3-1-37 2019년 성장기반자금 집행실적	525
표 IV-3-1-38 2019년 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	526
표 IV-4-1-1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529
표 IV-4-1-2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529
표 IV-4-1-3 2019년 공학컨설팅센터별 지원실적	530
표 IV-4-1-4 연도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531
표 IV-4-1-5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532
표 IV-4-1-6 연도별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533
표 IV-4-1-7 연도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실적	534

표 IV-4-1-8 연도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535
표 IV-4-1-9 연도별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536
표 IV-4-1-10 연도별 도약협력사업 추진실적	537
표 IV-4-1-11 연도별 전략협력사업 추진실적	538
표 IV-4-1-12 2019년 산학연collabo R&D 사업 지원 실적	538
표 IV-4-1-13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원실적	539
표 IV-4-1-14 산학연협력 신사업R&D바우처 지원현황	539
표 IV-4-1-15 2019년 연구기반 활용사업 지원실적	540
표 IV-4-1-16 2019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사업 지원실적	541
표 IV-4-1-17 연도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542
표 IV-4-1-18 연도별 재도전기술품개발 사업 지원실적	543
표 IV-4-1-19 연도별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사업 지원실적	544
표 IV-4-1-20 연도별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지원사업 지원현황	544
표 IV-4-1-21 2019년 유틸리티성 자원공유지원사업 지원현황	545
표 IV-4-1-22 연도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현황	546
표 IV-4-1-23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추이	547
표 IV-5-1-1 연도별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보증 현황	549
표 IV-5-1-2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550
표 IV-5-1-3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550
표 IV-5-1-4 기업규모별 보증공급금액	550
표 IV-5-1-5 지역재단의 지점수 현황('20.3월 기준)	558
표 IV-5-1-6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558
표 IV-5-1-7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	559
표 IV-6-1-1 비즈쿨 운영실적	561
표 IV-6-1-2 대학기업가센터 연도별 지원성과	562
표 IV-6-1-3 실전창업교육 주관기관 현황	562
표 IV-6-1-4 창업에듀 성과현황	563
표 IV-6-1-5 창업에듀 강좌 구성(예시)	564
표 IV-6-1-6 도전! K-스타트업 주요 추진 성과	565
표 IV-6-1-7 행사 참가규모(최근 3년)	565
표 IV-6-1-8 창업조사·연구 연도별 운영실적	566
표 IV-6-1-9 최근 3년간 K-스타트업 이용실적	567
표 IV-6-1-10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567
표 IV-6-1-11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현황	568

표 IV-6-1-12 2019년 지원대상 선정절차	569
표 IV-6-1-13 예비창업패키지 단계별 창업교육 내용	570
표 IV-6-1-14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지정현황(19년 기준)	570
표 IV-6-1-15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53개)	571
표 IV-6-1-16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유형	572
표 IV-6-1-17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573
표 IV-6-1-18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574
표 IV-6-1-19 민·관광동창업자 발굴 육성 지원현황	575
표 IV-6-1-20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현황(19.12)	576
표 IV-6-1-21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9년말)	578
표 IV-6-1-2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19년)	579
표 IV-6-1-23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580
표 IV-6-1-24 2019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581
표 IV-6-1-25 비즈니스센터 주요 지원 내용	581
표 IV-6-1-26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582
표 IV-6-1-27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582
표 IV-7-1-1 모태조합 운영 체계	585
표 IV-7-1-2 모태조합 조성규모	585
표 IV-7-1-3 신규벤처펀드 조성액	586
표 IV-7-1-4 모태조합 출자 계정별 자조합 결성 현황	587
표 IV-7-1-5 신규벤처투자액	587
표 IV-7-1-6 모태조합 취약분야 지원 현황	588
표 IV-7-1-7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현황	590
표 IV-7-1-8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현황	591
표 IV-7-1-9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 집행현황	591
표 IV-7-1-10 엔젤투자자 및 전문엔젤 수 누적 현황	592
표 IV-7-1-11 엔젤투자 현황(소득공제 기준)	592
표 IV-8-1-1 백화점(목동판매장) 판매지원 현황	595
표 IV-8-1-2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IM Shopping) 운영 현황 (2019년)	595
표 IV-8-1-3 홈쇼핑사업 판매지원 현황	596
표 IV-8-1-4 마케팅 판로지원사업별 주요 지원현황 (2019년)	598
표 IV-8-1-5 공공구매지원제도 제도별 주요 지원현황 (2019년)	599
표 IV-8-1-6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사업 별 주요 지원현황 (2019년)	602
표 IV-9-1-1 2019년 정책연구 추진 현황	605

표 IV-9-1-2 2019년 『중소기업 포커스』 발간 현황	606
표 IV-9-1-3 2019년 『중소기업 정책연구』 주제 및 논문 구성 현황	607
표 IV-9-1-4 2019년 학술세미나 수행 실적	609
표 IV-9-1-5 통합관리시스템 정책정보 제공건수/페이지뷰 및 기업마당 활용 현황	610
표 IV-10-1-1 연구기반활용사업 실적 현황(2019년)	614
표 IV-10-1-2 2019년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실적	615
표 IV-10-1-3 2019년도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 운영현황	616
표 IV-10-1-4 2019년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운영현황	617
표 IV-10-1-5 2019년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시험현황	617
표 IV-10-1-6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개최 실적	618
표 IV-11-1-1 공영쇼핑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620
표 IV-11-1-2 창의혁신 제품 판매지원 현황	621
표 IV-11-1-3 판매지원 중인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창의혁신 상품들	621
표 IV-11-1-4 우수상품 판매지원·육성 현황	622
표 IV-11-1-5 온라인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622
표 IV-11-1-6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현황	623
표 IV-11-1-7 고정 판매방송 프로그램 운영 현황('19년 생방송 기준)	624
표 IV-12-1-1 연도별 창업교육 수료생 수	628
표 IV-12-1-2 '19년 혁신성장 선도사업 기술교육 현황	628
표 IV-12-1-3 창업보육실 현황	631
표 IV-12-1-4 장애인기업 등록절차	634
표 IV-12-1-5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634
표 IV-12-1-6 등록 장애인기업 현황	634
표 IV-13-1-1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636
표 IV-13-1-2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지원 현황	637
표 IV-13-1-3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자금) 추천 현황	637
표 IV-13-1-4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특징	638
표 IV-13-1-5 단체표준 등록 및 인증현황('19년 12월말 기준)	639
표 IV-13-1-6 주요 정책건의 반영 현황	643
표 IV-13-1-7 산업위원회 현황	648
표 IV-13-1-8 공제사업기금 조성내역	652
표 IV-13-1-9 공제사업기금 대출 현황	653
표 IV-13-1-10 연도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건수 및 부금조성 현황(누계기준)	654
표 IV-13-1-11 중소기업보증공제 운영현황(2019.12.31., 누계기준)	654

표 IV-13-1-12 연도별 손해공제 가입 현황	655
표 IV-13-1-13 연도별 유효계약 보유 현황	655
표 IV-13-1-14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교육운영 현황	656
표 IV-13-1-15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657
표 IV-13-1-16 구매정보망 등록 현황	658
표 IV-13-1-17 공공구매론 이용 실적	658
표 IV-13-1-18 직접생산확인 주요연혁	659
표 IV-13-1-19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현황	659
표 IV-14-1-1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	665
표 IV-14-1-2 해외동반진출 지원 현황(2019년도 말 기준)	666
표 IV-14-1-3 사내벤처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 선정 현황(2019년도 말 기준)	666
표 IV-14-1-4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사업 참여 현황(2019년도 말 기준)	667
표 IV-14-1-5 성과공유 확인제 현황 (2019년도 말 기준)	668
표 IV-14-1-6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668
표 IV-14-1-7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연도별 지원 현황	669
표 IV-14-1-8 지원 범위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19.12월말 기준)	669
표 IV-14-1-9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19.12월말 기준)	670
표 IV-14-1-10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	671
표 IV-14-1-11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	671
표 IV-14-1-12 연도별 동반성장 주간 개최 현황(최근 5개년)	672
표 IV-14-1-1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시상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실적(2019년도 말 기준)	672
표 IV-14-1-14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19년도 말 기준)	673
표 IV-14-1-15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지원현황(2019년도 말 기준)	674
표 IV-14-1-16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권고 현황(2019년도 말 기준)	674
표 IV-14-1-17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현황(2019년도 말 기준)	675
표 IV-14-1-18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지원현황(2019년도 말 기준)	675
표 IV-15-1-1 최근 3년간 신용보증 현황	677
표 IV-15-1-2 신용보험 보험 인수 및 보험금지급 현황	681
표 IV-15-1-3 보증승인 현황	682
표 IV-15-1-4 장르별 문화산업완성보증 신규보증 지원 현황	683
표 IV-16-1-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현황	685
표 IV-18-1-1 자금조달 현황	695
표 IV-18-1-2 자금공급 실적	696

표 IV-18-1-3 지원대상별 대출실적	696
표 IV-18-1-4 자원별 대출실적	697
표 IV-18-1-5 금융자금 대출실적	697
표 IV-18-1-6 용도별 대출실적	698
표 IV-18-1-7 산업별 대출실적	699
표 IV-18-1-8 투자실적	700
표 IV-18-1-9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	701
표 IV-18-1-10 온렌딩자금 지원실적	701
표 IV-18-1-1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실적	702
표 IV-18-1-12 2019년 동반자금융 주요 추진 실적	703
표 IV-18-1-13 일자리창출 사업 실적	707
표 IV-19-1-1 중소·중견기업 여신지원 규모	712
표 IV-19-1-2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현황	713
표 IV-19-1-3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 지원현황	714
표 IV-19-1-4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현황	714
표 IV-20-1-1 지사화사업 연도별 주요실적	718
표 IV-20-1-2 해외 공동물류센터 연도별 주요실적	719
표 IV-20-1-3 buyKOREA.or.kr의 서비스 제공 내용	719
표 IV-20-1-4 바이코리아 사이트 운영실적	720
표 IV-20-1-5 해외 마케팅 추진성과	720
표 IV-20-1-6 무역사절단 최근 추진성과	721
표 IV-20-1-7 전시회 한국관 참가 현황	721
표 IV-20-1-8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지원 사업 결과	722
표 IV-20-1-9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제공 건수	722
표 IV-20-1-10 해외비즈니스출장 사업 제공건수	722
표 IV-20-1-11 개별 방한 바이어 지원 현황	723
표 IV-20-1-12 GP사업 계량 실적 현황	728
표 IV-20-1-13 글로벌 역량진단(GCL테스트) 제공 건수	729
표 IV-20-1-14 이동 KOTRA 서비스 제공 건수	729
표 IV-20-1-15 온오프라인 무역투자상담 서비스 제공 건수	729
표 IV-20-1-16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 업체 지원현황	730
표 IV-20-1-17 로드맵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유형	731
표 IV-20-1-18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유형	734
표 IV-20-1-19 글로벌 M&A 지원사업 절차	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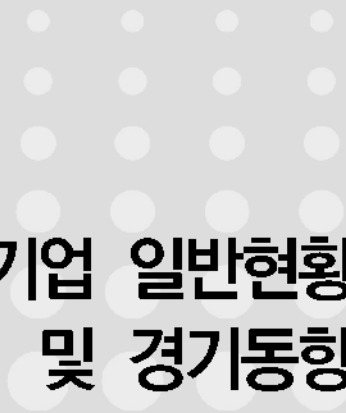
표 IV-20-1-20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역	736
표 IV-20-1-21 교육과정 운영 현황(2019년 기준)	738
표 IV-20-1-22 연도별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현황	740
표 IV-20-1-23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유형별 동향(5개년)	741
표 IV-20-1-24 투자종합상담실 종합행정지원서비스	742
표 IV-20-1-25 IKP 인큐베이터 이용실적	742
표 IV-20-1-26 글로벌 인재 유치지원 절차	744
표 IV-20-1-27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744
표 IV-20-1-28 국내인력 해외취업 지원 절차	744
표 IV-20-1-29 주요 사업내용 및 '19년 실적	746
표 IV-20-1-30 2019년 KOTRA KSP 사업 주요국 수행내역	747
표 IV-21-1-1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749
표 IV-21-1-2 무역보험 아카데미 운영 내역	750
표 IV-21-1-3 보험(증)료 지원 운영내역(서울시 및 무역협회)	751
표 IV-21-1-4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및 환치손 보험금 지급내역	753
표 IV-23-1-1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현황	781
표 IV-23-1-2 생산성 통계 발간 현황	782
표 IV-23-1-3 생산성경영체제 보급 현황	783
표 IV-23-1-4 컨설팅 지원 현황	785
표 IV-23-1-5 교육 및 훈련실적	785
표 IV-23-1-6 세미나 개최실적	786
표 IV-23-1-7 정보기술자격인증 실적	786
표 IV-24-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파트너기업 운영 현황	790
표 IV-24-1-2 맞춤형(기술지도/상담) 지원 실적	792
표 IV-24-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R&D지원 사업 현황	792
표 IV-24-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기술 현황	792
표 IV-24-1-5 공공연 연구인력 지원 실적	793
표 IV-24-1-6 기업현장출장 지원 실적	794
표 IV-24-1-7 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 현황	794
표 IV-24-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방형 실험실 현황(44개)	795
표 IV-24-1-9 개방형실험실 장비활용 실적	796
표 IV-24-1-10 기술이전 실적	796
표 IV-24-1-11 기술커뮤니티 운영 현황	797
표 IV-26-1-1 KISTI 정보서비스 보유자원 현황	809

표 IV-26-1-2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주요 제공 연구데이터 (2019.12.31. 기준)	811
표 IV-26-1-3 NDSL 정보 제공 유형별 서비스 내용	812
표 IV-26-1-4 NTIS 주요 제공 정보	814
표 IV-26-1-5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사업 현황	819
표 IV-26-1-6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사업 현황	820
표 IV-27-1-1 연도별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실적	823
표 IV-27-1-2 연도별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 선정실적	824
표 IV-27-1-3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현황	827
표 IV-27-1-4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출품 및 선정 현황	828
표 IV-28-1-1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831
표 IV-28-1-2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831
표 IV-28-1-3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2019년도)	832
표 IV-28-1-4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832
표 IV-28-1-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833
표 IV-28-1-6 센터의 창업보육실 입주프로세스	833
표 IV-28-1-7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현황	834
표 IV-28-1-8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835
표 IV-28-1-9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835
표 IV-28-1-10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836
표 IV-28-1-11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요	837
표 IV-28-1-12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최 현황	838
표 IV-28-1-13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838
표 IV-28-1-14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성과	839
표 IV-28-1-15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840
표 IV-28-1-16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840
표 IV-28-1-17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개요	841
표 IV-28-1-18 수출기업화 사업	841
표 IV-28-1-19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개요	842
표 IV-28-1-20 수출교육 개요	842
표 IV-28-1-21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 목록	843
표 IV-28-1-22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844
표 IV-28-1-23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844
표 IV-28-1-24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845
표 IV-28-1-25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846

표 IV-28-1-2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846
표 IV-28-1-27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개요	847
표 IV-28-1-28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성과	848
표 IV-28-1-29 인증브랜드 여움 운영 추진내용	848
표 IV-28-1-30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850
표 IV-28-1-31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850
표 IV-28-1-32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851
표 IV-28-1-33 여성경제인 DESK 신청 및 상담 분야	851
표 IV-28-1-34 연도별 여성경제인 DESK 상담실적	852
표 IV-28-1-35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개요	853
표 IV-28-1-36 2019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성과	855
표 IV-28-1-37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856
표 IV-28-1-38 여성기업 여성경제연구소 운영	858
표 IV-28-1-39 여성경제연구소 실적	858
표 IV-29-1-1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현황	860
표 IV-29-1-2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860
표 IV-29-1-3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860
표 IV-29-1-4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현황	862
표 IV-29-1-5 기업지원 사업내용 및 '19년 실적	863
표 IV-29-1-6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지원 현황	864
표 IV-29-1-7 네트워크 기획지원 프로그램 구성	865
표 IV-29-1-8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18~'19년)	867
표 IV-30-1-1 2019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주요 결과	871
표 IV-30-1-2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운영 실적('14년~'19년)	873
표 IV-30-1-3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의 지원 실적('17년~'19년)	874
표 IV-30-1-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6년~'19년)	875
표 IV-30-1-5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8년~'19년)	876
표 IV-30-1-6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실적('17~'19년)	877
표 IV-30-1-7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실적('13년~'19년)	878
표 IV-30-1-8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17~'19년)	878
표 IV-30-1-9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실적 ('14년~'19년)	880
표 IV-30-1-10 해외전시회 이노비즈 공동관 지원 실적('19년)	882

그림 1 2020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현황	37
그림 2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40
그림 3 국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기업 및 특화기능 현황	60
그림 4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68
그림 5 미국의 벤처투자 성공사례 : 페이스북	73
그림 6 내일채움공제	96
그림 7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점수(중소벤처기업부, 2019)	151
그림 8 2015~2019년 중소기업 수출 현황	190
그림 9 2019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현황	191
그림 10 2019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현황	191
그림 11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	225
그림 12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227
그림 13 중앙회의 구성 및 현황	234
그림 14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262
그림 15 소상공인마당 기능 개선	286
그림 16 희망리턴패키지	298
그림 17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301
그림 18 유통형태별 매출 추이	322
그림 19 기업마당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화면	351
그림 20 1357 중소기업 콜센터(중소기업종합상담)	353
그림 21 One Call 통합 상담 서비스	354
그림 22 소공인특화센터 우수사례(문래동 소공인특화센터)	501
그림 23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573
그림 24 모의크라우드 펀딩 자료	629
그림 25 창업지원 프로세스	630
그림 26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19.3월)	702
그림 27 IBK동반자금융	703
그림 28 IBK BOX	704
그림 29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점유비	704
그림 30 IBK기업은행 중기대출 비중	704
그림 31 IBK창공 주요 서비스	706
그림 32 IBK 컨설팅 지원 분야	709
그림 33 e-branch VINA	710

그림 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 연혁	787
그림 3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역할	788
그림 36 제조·지역·기업·시장혁신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강화	789
그림 37 파트너기업 선정절차 및 내용	791
그림 38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 지원 절차	791
그림 3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조직 및 기술분야 현황	793
그림 40 기업현장출장 신청절차 및 내용	794
그림 41 기술커뮤니티 지원	797
그림 42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서비스 개념도	810
그림 43 ScienceON 서비스 개념도	811
그림 44 NTIS 서비스 개념도	814
그림 45 2019 디자인코리아 전시장 전경	825
그림 46 2019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전시장면 (2019. 11. 06)	826
그림 47 2019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주요성과	827
그림 48 우수디자인상품선정 &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시상식 및 전시 (2019. 11. 22)	828
그림 49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836
그림 50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프로세스	838
그림 51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840
그림 52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프로세스	843
그림 53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844
그림 54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845
그림 55 TV홈쇼핑 입점 지원 프로세스	847
그림 56 인증브랜드 선정절차	849
그림 57 여성경제인 DESK 프로세스	852
그림 58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개념도	854
그림 59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855
그림 60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856
그림 61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협력 유형	864
그림 62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화면	872
그림 63 2019년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주요 스틸 컷	873
그림 64 한-러 혁신플랫폼 우수사례	881
그림 65 글로벌 연수사업 및 중국 동북3성 정책관리자 초청	883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동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부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제2장 중소기업 경기동향

제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통계분석과 고건호

1

중소기업 현황

2018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3,814천개, 종사자수는 15,883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사업체수는 76천개, 종사자수는 355천명이 증가하였다.

표 | -1-1-1 |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단위 : 개,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체	전체	3,676,499	3,737,465	3,813,723
	중소기업	3,672,327	3,732,997	3,809,011
	비중	(99.9)	(99.9)	(99.9)
종사자	전체	17,051,453	17,294,316	17,711,917
	중소기업	15,392,246	15,527,605	15,882,760
	비중	(90.3)	(89.8)	(89.7)

주 : 20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변경(종사자→매출액)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재편·가공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6.1%), 숙박 및 음식점업(20.0%), 제조업(11.3%), 운수 및 창고업(10.4%) 순으로 사업체수 비중이 높고,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제조업(20.2%), 도매 및 소매업(19.1%), 숙박 및 음식점업(14.4%)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중소기업 비중은 한국 및 영국이 99.9%, 미국, 일본이 97.7%, 대만이 9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비중은 한국 89.7%, 대만 78.4%, 일본 68.8%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미국 및 영국은 각각 47.3%와 60.5%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 -1-1-2 |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2018년 기준)

구 분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한국	3,809	99.9	15,882	89.7
일본	3,578	99.7	32,201	68.8
대만	1,466	97.6	8,965	78.4
미국	5,934	99.7	59,915	47.3
영국	5,860	99.9	16,631	60.5

주 : ① 국가별 기준연도(일본 2016년, 대만 2017년, 미국 2016년, 영국 2019년) ② 한국은 매출액 기준, 일본·대만·영국·미국은 종사자 기준 ③ 한국은 사업체 기준, 일본·대만·미국·영국은 기업체 기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중소기업통계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전체 사업체수의 96.9%(3,622천개)와 전체 종사자수의 65.7%(11,632천명)를 차지하였으며, 중기업은 각각 3.1%(119천개)와 23.8%(4,251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표 | -1-1-3 | 기업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천개, 천명)

구분	전 체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소 계		
사업 체수	2017년	3,737,465 (100.0)	3,188,006 (85.3)	3,621,635 (96.9)	111,362 (3.0)	3,732,997 (99.9)	4,468 (0.1)
	2018년	3,813,723 (100.0)	3,236,238 (84.9)	3,690,297 (96.8)	118,714 (3.1)	3,809,011 (99.9)	4,712 (0.1)
종사 자수	2017년	17,294,316 (100.0)	6,365,094 (36.8)	11,404,265 (65.9)	4,123,340 (23.8)	15,527,605 (89.8)	1,766,711 (10.2)
	2018년	17,711,917 (100.0)	6,424,490 (36.3)	11,631,540 (65.7)	4,251,220 (24.0)	15,882,760 (89.7)	1,829,157 (10.3)

주 : 1.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계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합계임

2.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재편·가공

201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사업체수의 47.8%(1,822천개)를 차지하고, 영남권은 26.8%, 중부권은 10.5%, 호남권은 10.0%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로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3.5%(9,471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24.3%, 중부권은 10.2%, 호남권은 8.4%를 차지하고 있다.

표 | -1-1-4 | 지역별 중소기업 현황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1,758,553 (47.9)	1,785,662 (47.8)	1,821,823 (47.8)	8,018,404 (52.1)	8,104,239 (52.2)	9,471,160 (53.5)
영남권	990,755 (27.0)	1,005,324 (26.9)	1,023,192 (26.8)	3,905,038 (25.4)	3,895,993 (25.1)	4,295,748 (24.3)
중부권	376,709 (10.3)	385,384 (10.3)	398,803 (10.5)	1,532,195 (10.0)	1,565,928 (10.1)	1,807,871 (10.2)
호남권	370,549 (10.1)	375,661 (10.1)	382,969 (10.0)	1,347,172 (8.8)	1,357,336 (8.7)	1,491,917 (8.4)
기 타 (강원, 제주)	175,761 (4.8)	180,966 (4.8)	186,936 (4.9)	589,437 (3.8)	604,109 (3.9)	645,221 (3.6)

주 : ()안은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재편·가공

소상공인은 2018년 기준으로 사업체수가 324개(총사업체의 85.3%)이며, 그 중 46.4%는 수도권(서울 19.7%, 경기 21.7% 인천 5.0%)에 위치하고 있다.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642만 명(36.3%)이다.

표 | -1-1-5 |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 분	전 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업체	3,813,723	3,236,238	84.9	3,690,297	96.8	118,714	3.1	3,809,011	99.9
종사자	17,711,917	6,424,490	36.3	11,631,540	65.7	4,251,220	24.0	15,882,760	89.7

자료 : 통계청,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재편·가공

표 | -1-1-6 | 지역별 소상공인의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체	636,666	232,209	173,751	160,833	94,191	92,991	68,989	11,61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02,964	114,821	102,956	135,388	118,300	123,337	188,733	228,635	49,855

자료 : 통계청,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재편·가공

한편, 소상공인 사업체는 도·소매업(26.7%)과 숙박·음식점업(20.0%)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생활밀집형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표 | -1-1-7 |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사, 명, %)

구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총) 산업	3,236,238	100.0	6,424,490	100.0
도·소매업	880,521	27.2	1,590,481	24.8
숙박·음식점업	654,097	20.2	1,365,751	21.3
운수·창고업	383,109	11.8	461,347	7.2
제조업	363,374	11.2	1,177,194	18.3
기타	955,137	29.5	1,829,717	28.5

자료 : 통계청,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재편·가공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자영업자¹⁾는 2년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해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표 | -1-1-8 |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취업자수	전체 자영업자 (a+b)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a)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b)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2015년	26,178	5,622	△1.7	1,609	1.8	4,013	△3.0
2016년	26,409	5,614	△0.1	1,584	△1.6	4,030	0.4
2017년	26,725	5,682	1.2	1,608	1.5	4,074	1.1
2018년	26,822	5,638	△0.8	1,651	2.7	3,987	△2.1
2019년	27,123	5,606	△0.6	1,538	△6.9	4,068	2.0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1)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거나,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2018년 중소기업 고용은 전체 사업체 고용(17,712천명)의 89.7%에 해당하는 15,883천명을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 -1-1-9 | 중소기업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사업체(A)	15,962,745	16,774,948	17,051,453	17,294,316	17,711,917
중소기업(B)	14,027,636	15,127,047	15,392,246	15,527,605	15,882,760
비중(B/A)	87.9	90.2	90.3	89.8	89.7

주 : 20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종사자→매출액)되어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주의필요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재편·가공

우리나라 종사자수 10인 이상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여율을 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이 전체 증가분의 25.1%를 차지하였다.

표 | -1-1-10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및 기여율

(단위 : 조원, %)

구 분	2015년	2016년 (a)	2017년 (b)	2018년 (c)	증감액(2018-2015년) (a+b+c)
전체 증감액	11.3	6.9	38.8	21.5	67.2
- 중소기업	15.1	3.9	9.9	3.0	16.9
(기여율)	133.4	57.0	25.6	13.9	25.1
- 대기업	△3.8	3.0	28.8	18.5	50.4
(기여율)	△33.4	43.0	74.4	86.1	74.9

주 : 1. 중소기업 기준(종사자 10~299인), 대기업 기준(종사자 300인 이상)

2. (a),(b),(c)는 직전년도 대비 증감액임

3. 2016~8년은 10차 산업분류 결과에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제외하여 작성

4. 기여율은 전체 부가가치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경제총조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연대별로 비교해 보면, 1970년대에는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성장정책으로 고용, 부가가치 증가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담당했다.

그러나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기여율이 82.0%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부가가치 기여율이 처음으로 대기업을 앞서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기여율은 2000년대 118.3%, 2010년 이후 79.4%로 나타나 고용 증가의 중심축에 중소기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가가치 기여율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기여율이 63.1%로 대기업을 앞서고 있다.

표 1-1-11 | 제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제발전 기여율

(단위 : %)

구 분			1970년대 (73~79)	1980년대 (80~89)	1990년대 (90~99)	2000년대 (00~09)	2010년 이후 (10~18)
사업 체수	기 여 율	중소기업	95.2	99.3	160.9	101.6	98.4
		대 기 업	4.8	0.7	△60.9	△1.6	1.6
종사 자수	기 여 율	중소기업	49.4	82.0	△26.3	118.3	79.4
		대 기 업	50.6	18.0	△73.7	△18.3	20.6
부가 가치	기 여 율	중소기업	34.0	46.7	47.9	48.2	63.1
		대 기 업	66.0	53.3	52.1	51.8	36.9

- 주 : 1. 중소기업 기준(종사자 10~299인), 대기업 기준(종사자 300인 이상)
 2. 1973~1999년은 광·제조업 결과(8차 산업분류), 1980~2018년은 제조업 결과(9차 산업분류)
 3. 2016~8년은 10차 산업분류 결과에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제외하여 작성
 4.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경제총조사)

제2장

중소기업 경기현황

통계분석과 고건호

1

업종별 동향

가. 제조업

1) 생산

2019년 중소제조업 연간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4.4% 감소한 98.9로 나타났다.

표 | -2-1-1 | 연도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2015=100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지수	103.2	106.2	103.4	98.9
전년대비 증감률	3.1	2.9	△2.6	△4.4

주 :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2019년 중소제조업 월별 생산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표 | -2-1-2 | 2019년 월별 중소제조업 생산 추이

(2015=100기준)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지수	100.4	83.9	102.3	103.8	102.8	98.1	100.7	93.0	92.6	102.4	100.2	107.1
전년동월 대비증감률	△1.4	△6.5	△5.2	△2.2	△4.5	△7.2	△3.1	△7.6	△4.8	△6.1	△5.8	2.3

주 :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한편 2019년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3%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다.

표 | -2-1-3 |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4	2/4	3/4	4/4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73.3	73.1	73.0	73.2	73.9	72.9	73.2	73.3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2019년 전체 제조업 및 중소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각각 0.6%, 4.1% 감소하였다.

표 | -2-1-4 |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증감 추이

(2015=100기준)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4	2/4	3/4	4/4	
전 체	101.5 (1.5)	102.4 (0.9)	102.2 (△0.2)	96.9 (△1.3)	102.6 (△1.3)	101.7 (△0.0)	106.2 (△0.3)	101.8 (△0.6)
중소기업	103.5 (3.5)	106.0 (2.4)	103.1 (△2.7)	95.1 (△3.7)	101.9 (△4.2)	95.5 (△4.9)	103.2 (△3.3)	98.9 (△4.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고용

2019년 중소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561천원이며,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다.

2019년 중소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79.6시간으로 전년 대비 1.4시간 감소하였다.

표 | -2-1-5 | 중소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추이(5~299인)

(단위 : 천원, 시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소제조업 전체임금총액	3,160	3,290	3,435	3,561
중소제조업 전체근로시간	186.8	183.7	181.0	179.6

주 : 조사대상이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18.6)되었으나 시계열 유지를 위해 5~299인 자료 기재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년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는 24,529천명으로 전년대비 230천명이 증가하였다. 2019년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다.

표 | -2-1-6 |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률, 실업률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업자수(300인 미만)	23,933	24,251	24,299	24,529
고용률	66.1	66.6	66.6	66.8
실업률	3.7	3.7	3.8	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원자재 구매 및 제품 판매

가) 원자재 구매

2018년 중소제조업의 원자재 구매는 292조원으로, 구매처별 원·부자재 구매비율은 국내구매가 89.2%, 해외구매가 10.8%로 나타났다.

표 | -2-1-7 | 원자재 구매액 및 원산지별 구매액 구성비

(단위 : 억원, %, %P)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률
중소제조업	2,582,909	2,909,423	2,916,754	0.3
- 국 내 산	88.2%	90.3%	89.2%	△1.1
- 외 국 산	11.8%	9.7%	10.8%	1.1

주 : 국내에서 1차 가공된 수입원자재는 국내산으로 봄

자료 : 2016~2018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8년 중소제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은 현금이 96.4%, 어음이 3.6%로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지급 비중이 전년(93.3%)대비 3.1%p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현금 97.0%, 어음 3.0%로 나타났으며, 중기업은 현금 88.6%, 어음 11.4%로 소기업이 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8 |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상황

(단위 : %)

구 분	현 금			어 음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 소 제 조 업	93.7	93.3	96.4	6.3	6.7	3.6
- 소 기 업	94.4	93.8	97.0	5.6	6.2	3.0
- 중 기 업	85.2	87.0	88.6	14.8	13.0	11.4

주 : 1. 기업체당 구매총액 대비 지급금액 비율(%)임.
2. 현금지급에는 순수현금결제와 어음대체용 현금성 결제가 포함됨.

자료 : 2016~2018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8년 중소제조업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어음으로 구매한 경우 구매대금의 어음 평균 지급기일은 34.7일, 결제기일은 74.6일, 지급기일과 결제기일을 합한 총 지급기일은 109.3일로 전년(102.9일)대비 6.4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별 구매대금 어음 총 지급기일은 소기업이 7.8일, 중기업이 0.7일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9 | 원자재 구매대금의 어음 지급기일

(단위 : 일)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증 감
총 지급 기 일(1+2)	108.1	102.9	109.3	6.4
· 지 급 기 일(1)	33.9	33.0	34.7	1.7
· 결 제 기 일(2)	74.2	69.9	74.6	4.7
- 소 기 업	107.8	102.7	110.5	7.8
- 중 기 업	109.6	104.3	105.0	0.7

주 : 1. 지급기일은 원자재를 구매한(납품받은) 날로부터 어음을 지급한 날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2. 결제기일은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3. 총지급기일은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과 지급어음의 평균 결제기일을 합한 총 기일.

자료 : 2016~2018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나) 제품 판매

2018년 중소기업의 제품판매총액은 598조원으로 나타났다.

판매액 중 내수 비중은 89.4% (17)에서 89.6%로 0.2%p 증가했으며, 수출 비중은 10.6%(17)에서 10.4%로 감소했다.

표 | -2-1-10 | 판매형태별 제품판매액 구성비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소제조업 (전년비 증감률)	5,406,657 (△13.6%)	5,862,531 (8.4%)	5,980,457 (2.0%)
- 수출	11.4	10.6	10.4
- 내수	88.6	89.4	89.6

자료 : 2016~2018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8년 중소기업 판매대금의 결제는 현금성 결제가 88.8%, 어음 결제가 11.2%로 나타났으며, 현금성 결제는 전년(84.5%)대비 4.3%p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현금성 결제가 89.3%, 어음결제가 10.7%로 나타났으며, 중기업은 현금성 결제 82.9%, 어음결제 17.1%로 나타나 중기업의 현금결제 비중이 소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11 | 제품판매대금 결제상황

(단위 : %)

구 분	현금			어음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소제조업	83.2	84.5	88.8	16.8	15.5	11.2
- 소기업	83.9	85.1	89.3	16.2	14.9	10.7
- 중기업	75.3	78.2	82.9	24.8	21.8	17.1

주 : 1. 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비율(%)임

2. 현금은 순수현금결제이외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성결제 포함됨

자료 : 2016~2018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8년 중 중소기업이 제품판매 후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하는데 소요된 기일과 어음 결제기일을 합한 총 수취기일은 107.4일로 전년(105.7일)대비 1.7일 증가했다. 이를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로 구분하면 수취기일은 전년대비 0.4일 감소했고, 결제기일은 2.1일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전년대비 2.6일 증가했고, 중기업은 5.6일 감소했다.

표 | -2-1-12 | 제품판매대금의 어음 수취기일

(단위 : 일)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수취기일(1+2)	114.8	105.7	107.4
· 수취기일(1)	36.9	32.9	32.5
· 결제기일(2)	77.8	72.8	74.9
- 소 기 업	115.4	105.2	107.8
- 중 기 업	108.9	109.4	103.8

- 주 : 1. 수취기일은 제품을 판매한(납품한) 날로부터 어음을 받은 날까지 평균 소요기일
 2. 결제기일은 받은 어음의 현금화(결제일)까지의 평균 소요기일
 3. 총수취기일은 어음의 평균 수취기일과 수취어음의 평균 결제기일을 합한 총기일

자료 : 2016~2018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4) 재무구조

가) 성장성

2018년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2.92%)은 전년대비 2.97%p 하락하였다.

반면, 유형자산 증가율(5.14%), 총자산 증가율(6.00%), 유동자산 증가율(6.20%) 자기자본 증가율(8.93%)은 전년대비(△0.57%p, △0.49%p, △0.61%p, △0.27%p) 하락하였다.

표 | -2-1-13 | 성장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 출 액 증 가 율	1.72	3.83	3.01	5.89	2.92
유 형 자 산 증 가 율	8.85	7.73	6.77	5.71	5.14
총 자 산 증 가 율	7.82	7.85	7.92	6.49	6.00
유 동 자 산 증 가 율	6.46	7.18	8.46	6.81	6.20
자 기 자 본 증 가 율	9.54	11.11	10.72	9.20	8.93

주 : 2016년 이후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 2014~2018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나) 수익성

2018년 중소기업의 총자산세전순이익률은 4.43%, 총자산순이익률은 3.82%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7년 373.72%에서 326.34%로 47.38%p 하락했다.

한편, 금융비용 대비 대출액 비율은 2017년에서 1.43%에서 2018년 1.58%로 상승했다.

표 | -2-1-14 |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자산 세 전 순 이 익 률	4.74	4.97	4.92	4.48	4.43
총 자 산 순 이 익 률	4.09	4.36	4.20	3.87	3.82
자 기 자 본 세 전 순 이 익 률	12.33	12.72	11.99	10.79	10.61
매 출 액 영 업 이 익 률	5.18	5.23	5.54	5.35	5.16
매 출 액 세 전 순 이 익 률	4.21	4.51	4.94	4.36	4.46
매 출 액 순 이 익 률	3.64	3.95	4.22	3.76	3.85
이 자 보 상 비 율	294.36	336.43	364.61	373.72	326.34
금융비용 대비 대출액 비율	1.76	1.56	1.52	1.43	1.58
차 입 금 평 균 이 자 율	4.90	4.18	3.84	3.78	3.99

- 주 : 1. 2016년 이후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총자산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총자산 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총자산)×100, 3.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4. 자기자본 세전이익률 = (세전순이익/자기자본)×100, 5.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6.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매출액)×100, 7.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매출액)×100
 8.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100, 9. 금융비용 대 대출액비율 = (이자비용/매출액)×100
 10. 차입금 평균이자율 = (이자비용/차입금(장·단기 차입금+회사채))×100

자료 : 2014~2018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다) 안정성

2018년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2017년 137.72%에서 136.60%로 하락했으며, 비유동비율(비유동자산/자기자본)은 2017년 126.02%에서 126.42%,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은 2017년 42.07%에서 42.27%로 각각 상승했다.

또한,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도 2017년 142.76%에서 145.93%로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장·단기차입금+회사채)/총자산> 도 2017년 38.60%에서 39.06%로 상승했다.

표 | -2-1-15 | 안정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	동	129.81	137.44	138.22	142.76	145.93
비	율	134.45	132.53	128.79	126.02	126.42
자	기	38.69	39.67	41.55	42.07	42.27
부	채	158.46	152.09	140.65	137.72	136.60
차	입	40.62	41.00	38.78	38.60	39.06
금	의					
존	도					

주 : 1. 2016년 이후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3. 비유동비율 = (비유동자산/자기자본)×100

4.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5.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100

6.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장·단기 차입금+회사채)/총자산)×100

자료 : 2018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라) 생산성

2018년 중소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자본생산성)은 2017년 27.37%에서 2018년 27.13%로 하락했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은 2017년 63.19%에서 2017년 63.45%로 전년대비 0.26%p 증가했다.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도 2017년 26.64%에서 27.33%로 상승했다.

표 | -2-1-16 | 생산성 지표

(단위 :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자 본 투 자 효 율	28.35	29.12	27.16	27.37	27.13
부 가 가 치 율	25.23	26.43	27.24	26.64	27.33
노 동 소 득 분 배 율	61.32	62.72	61.85	63.19	63.45

주 : 1. 2016년 이후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총자본 투자효율(자본생산성) = (부가가치/총자본)×100

3.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매출액)×100, 4. 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부가가치)×100

자료 : 2014~2018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1) 소상공인 경기동향

2019년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9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 -2-1-17 | 소상공인 경기동향 BSI (Business Survey Index)

구 분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감경기	58.8	61.7	73.3	69.8	69.7	65.6	61.1	59.1	76.4	74.9	69.1	66.4
예상경기	80.6	81.4	96.0	95.3	87.0	82.1	80.7	77.4	92.0	96.2	94.2	85.8

구 분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출	58.5	61.8	73.3	69.4	69.5	65.8	61.0	59.1	76.5	75.0	68.8	64.8
영업이익	58.4	61.7	73.2	69.2	69.2	65.7	60.8	59.1	76.5	74.9	68.4	64.8
자금사정	60.3	64.5	73.6	69.6	70.7	65.8	61.5	59.2	76.9	75.1	70.5	66.8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 전통시장 경기동향

2019년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며, 9월에 추석 명절을 맞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무더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여름에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 -2-1-18 | 전통시장 경기동향 BSI (Business Survey Index)

구 분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감경기	50.7	59.5	62.4	58.1	64.6	57.0	48.4	42.0	84.6	68.7	76.5	65.4
예상경기	82.3	88.0	91.3	91.7	84.5	80.0	73.8	79.2	102.3	93.1	99.8	85.3

*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2

분야별 동향

가. 창업 및 부도

2019년 신설법인 수(전국 기준)는 108,874개로 2018년(102,042개) 대비 6.7% (6,832개) 증가하였고, 부도법인수 대비 신설법인수를 나타내는 창업배율은 부도 법인이 감소하고 신설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341.3배를 기록하였다.

표 | -2-1-19 | 신설법인수(전국 기준)

(단위 : 개, 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4	2/4	3/4	4/4	
신설법인수	96,155	98,330	102,042	26,951	26,950	26,160	28,813	108,874
부도법인수	433	379	350	92	83	76	68	319
창업배율	222.1	259.4	291.5	292.9	324.7	344.2	423.7	341.3

자료 : 법원행정처 및 한국은행, 창업배율 =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

2019년 창업기업 수(전국 기준)는 128.5만개로 2018년(134.4만개) 대비 4.4% (5.9만개) 감소하였고, 그 중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22.1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17.2%를 차지하였다.

표 | -2-1-20 | 창업기업수(전국 기준)

(단위 : 만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4	2/4	3/4	4/4		
창업기업수	125.6	134.4	32.2	32.1	30.3	34.0	128.5	
형태별	법인	9.8	10.2	2.7	2.7	2.7	2.8	11.0
	개인	115.9	124.2	29.5	29.3	27.6	31.2	117.6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수	19.9	21.2	5.9	5.5	5.3	5.4	22.1	
형태별	법인	3.8	4.0	1.1	1.0	1.0	1.1	4.1
	개인	16.1	17.2	4.8	4.5	4.3	4.4	18.0

자료 : 통계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나.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15년 962억불(18.3%), 2016년 995억불(20.1%), 2017년 1,032억불(18.0%), 2018년 1,052억불(17.4%), 2019년은 전년 대비 4.1% 하락한 1,009억불(18.6%)을 기록하였다.

수출중소기업은 2015년 89.4천개, 2016년 91.9천개, 2017년은 92.3천개, 2018년은 94.2천개, 2019년은 95.2천개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표 | -2-1-21 |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개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수출액	526,757	495,426	573,694	604,860	542,233
중소기업수출액	96,227	99,524	103,209	105,196	100,928
(비중)	(18.3)	(20.1)	(18.0)	(17.4)	(18.6)
수출기업수	89,364	91,855	92,287	94,162	95,229

2018년과 2019년의 기업 규모별 수출을 보면, 모든 기업의 수출이 감소했으며, 2019년에는 중소기업 4.1%, 중견기업 7.7%, 대기업 12.7% 감소하였다.

표 | -2-1-22 |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개사, %)

구분	2018년				2019년						
	업체수	비중	수출액	비중	업체수	비중	증감률	수출액	비중	증감률	
중소기업	94,162	96.7	105,196	17.4	95,229	96.6	1.1	100,928	18.6	-4.1	
중견기업	2,355	2.4	101,033	16.7	2,371	2.4	0.7	93,218	17.2	-7.7	
대 기 업	877	0.9	397,407	65.7	984	1.0	12.2	347,089	64.0	-12.7	
전 체	97,394	100.0	604,860	100.0	98,584	100.0	1.2	542,233	100.0	-10.4	

* 전체 수출액은 기타(비영리법인, 개인, 단체 등)를 포함하였으며, 전체 수출업체수는 기타 제외

2019년 주요 수출국의 중소기업 수출액은 2018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적 요인의 악재가 겹쳐 전체적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국가별로는 기존 주력 시장(중·비·일) 지역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EU 지역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표 | -2-1-23 | 국가별 수출액 및 증감현황

(단위 : 개사, 백만불, %)

구분	2018년		2019년			
	업체수	수출액	업체수	증감	수출액	증감
중국	31,740	24,780	31,702	△0.1	23,248	△6.2
미국	19,952	12,094	20,403	2.3	11,861	△1.9
베트남	18,377	10,488	19,366	5.4	10,328	△1.5
일본	19,606	10,015	19,509	△0.5	10,002	△0.1
아세안	38,761	20,586	39,347	1.5	20,139	△2.2
EU	17,638	8,937	17,670	0.2	9,402	5.2

2019년도 주요 수출 품목은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이며, 상위 10대 품목 중 자동차(21.4%), 기타기계류(11.9%), 자동차부품(6.3%)등 4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이 32.1%를 차지하였다.

표 | -2-1-24 |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18년			2019년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감
1	플라스틱제품	5,069	4.8	플라스틱제품	5,189	5.1	2.4
2	화장품	4,648	4.4	화장품	4,593	4.6	△1.2
3	자동차부품	4,097	3.9	자동차부품	4,354	4.3	6.3
4	합성수지	3,568	3.4	합성수지	3,083	3.1	△13.6
5	반도체제조용장비	2,917	2.8	기타기계류	3,058	3.0	11.9
6	평판DP제조용장비	2,799	2.7	반도체제조용장비	2,890	2.9	△0.9
7	기타기계류	2,732	2.6	철강판	2,461	2.4	△5.1
8	반도체	2,683	2.6	계측제어분석기	2,389	2.4	△6.6
9	철강판	2,593	2.5	반도체	2,222	2.2	△17.2
10	계측제어분석기	2,558	2.4	자동차	2,185	2.2	21.4

주 : 증감은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MTI 3단위 기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다. 금융

2019년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716.7조원으로 2018년 말 대비 47.3조원(7.1%) 증가하였다.

표 | -2-1-25 | 기업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			
			1/4 (3월말)	2/4 (6월말)	3/4 (9월말)	4/4 (12월말)
기업대출	781.4	824.1	837.2	851.9	861.8	869.0
대기업	149.6	154.7	155.5	155.5	152.6	152.3
중소기업	631.8	669.4	681.7	696.4	709.2	716.7

자료 : 한국은행

2019년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44%)은 2018년 말(0.49%) 대비 0.05%p 하락하였으며, 대기업 대출 연체율(0.50%)도 2018년 말(0.73%)에 비해 0.23%p 하락하였다.

표 | -2-1-26 | 기업대출 연체율 현황

(단위 : %)

구 분	'18	'19.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기업	0.73	0.71	0.75	0.74	0.73	0.67	0.66	0.67	0.68	0.64	0.71	0.66	0.50
중소기업	0.49	0.57	0.66	0.56	0.62	0.65	0.49	0.57	0.64	0.56	0.58	0.62	0.44

자료 : 금융감독원

라. 인력

2018년 중소기업 인력실태를 살펴보면, 현 인원은 232만 명으로 직종별 인력은 생산직 60.3%, 사무·관리직 25.0%, 기술·연구직 8.8%, 판매·마케팅직 4.7%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 -2-1-27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명, %)

중소제조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 인원	2,375,864	2,430,320	2,198,734	2,331,536	2,315,755
부족인원	38,210	59,311	69,402	57,073	50,996
부족률	1.58	2.38	3.06	2.39	2.15

주 : 1.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2.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현인원 + 부족인원) * 100

자료 : 2014~2018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한편,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생산직이 2.72%로 가장 높고, 기술·연구직 2.26%, 판매·마케팅직 1.61%, 사무·관리직 0.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 -2-1-28 |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2018년)

구 분	전 체	사 무 관리직	기 술 연구직	생산직	판 매 마케팅직	기 타 종사자
부족인원(명)	50,996	5,190	4,731	39,023	1,778	274
부 족 률(%)	2.15	0.89	2.26	2.72	1.61	1.17

자료 : 2018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일수록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 기업규모와 인력부족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29 |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기업	2.05	2.94	3.22	2.88	2.30
중기업	0.68	1.15	2.71	1.89	1.82

주 :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 2018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마. 기술

2018년 기준 매출액 5억 원 초과 중소기업체의 35.4%가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30 | R&D 수행 중소기업체 추이('12~'14 : 5~299인, '15 : 5인 이상, '16 : 5억원 초과)

(단위 : 개,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R&D수행 중소기업체	37,823	45,307	40,588	45,320	48,961
중소기업체수 대비 비중	30.0	33.6	31.4	33.5	35.4

주 : 2016년 기준 조사결과는 모집단 구축기준(종사자수→매출액)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모집단 : 5억원 초과 중소기업체 139,936개, 표본수 : 7,500개)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2019년 38,887개사로 2013년 27,154개에 비해 1만 1천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소속 연구원 수도 3.6만 명이상 증가하여, 2019년에 19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31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7,154	30,478	33,647	36,026	37,696	38,734	38,887
소속 연구원수	155,580	163,887	176,084	184,998	190,686	193,724	192,420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9.12)

이와 같은 저변확대에 힘입어 2018년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약 15.4조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 85.7조원의 18.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2-1-32 |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 공 연 구 기 관	64,418	69,503	72,607	81,127	88,241	91,132	95,432	98,439
대 학	50,338	52,769	54,803	57,670	59,989	63,399	66,825	70,504
기 업	381,833	432,229	465,599	498,545	511,364	539,525	625,634	688,344
- 대 기 업	283,462	320,709	357,781	386,177	389,303	330,642	398,038	438,236
- 중 견 기 업							90,687	95,954
- 중 소 기 업	98,371	111,520	107,818	112,367	122,061	131,738	136,909	154,154
합 계 (국가 R&D 규모)	498,904	554,501	593,009	637,341	659,594	694,055	787,891	857,287

*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그러나 중소기업 R&D의 저변확대와 투자증가 등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7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 -2-1-33 |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100.0,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술능력 수준	75.6	77.1	74.3	75.6	77.3	75.4

자료 : 2019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중소기업 육성시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2부

제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제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제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제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제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제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제절 민간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1

신설법인 현황

▪ 통계분석과 고건호

2019년 연간 신설법인 수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108,874개로 통계 작성(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표 II-1-1-1 | 연도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법인수	84,697	93,768	96,155	98,330	102,042	108,874

업종별로는 농·임·어업 및 광업(68.6%, 1,050개), 제조업(3.1%, 593개)과 서비스업(11.8%, 7,778개)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표 II-1-1-2 | 업종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연도	농·임·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계
2016년	2,391 (2.5)	19,037 (19.8)	11,313 (11.8)	63,414 (65.9)	96,155 (100.0)
2017년	2,559 (2.6)	20,629 (21.0)	14,662 (14.9)	60,480 (61.5)	98,330 (100.0)
2018년	1,531 (1.5)	18,954 (18.6)	15,451 (15.1)	66,106 (64.8)	102,042 (100.0)
2019년	2,581 (2.4)	19,547 (18.0)	12,862 (11.8)	73,884 (67.9)	108,874 (100.0)

연령별로는 40대(37,164개, 34.1%), 50대(28,560개, 26.2%), 30대(22,929개, 21.1%)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특히 30세 미만(전년 대비 9.4%)과 60세 이상(전년 대비 10.7%)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표 II-1-1-3 | 연령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구 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증감수	증감률
30세미만	6,837	6.7	7,480	6.9	643	9.4
30~39세	21,605	21.2	22,929	21.1	1,324	6.1
40~49세	35,342	34.6	37,164	34.1	1,822	5.2
50~59세	27,052	26.5	28,560	26.2	1,508	5.6
60세이상	10,962	10.7	12,471	11.5	1,509	13.8
기 타	244	0.2	270	0.2	26	10.7
총 계	102,042	100.0	108,874	100.0	2,175	6.7

성별로는 여성(12.8%)과 남성(4.6%) 모두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2018년 대비 1.4%p 증가하였다.

표 II-1-1-4 | 성별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여 성	25,899 (25.4)	29,225 (26.8)	12.8
남 성	76,143 (74.6)	79,649 (73.2)	4.6
계	102,042 (100.0)	108,874 (100.0)	6.7

2

창업저변 확대

- 창업촉진과 신 우 진
- 기술창업과 김 도 연
- 창업촉진과 고 종 현

가. 창업교육

1) 창업에듀

예비창업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지원하는 창업에듀는 '09년 구축되어 '10년도부터 운영되어온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이다.

'16년 온라인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창업과 관련한 핵심 이론 및 실사례를 중심으로 핵심내용만 짧게 구성하는 강의로 신규 개편하고 스마트 기기 등에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창업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강생들이 필요한 주제별 강좌를 개발 또는 외부 기관과 제휴하였고,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 등의 주제 강좌 305개를 운영하고 있다.

표 II-1-1-5 | 창업에듀 성과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회원	19,198	14,531	3,620	7,496	8,246	8,021	11,073	10,913	12,347	15,501
방문건수	91,414	70,740	108,601	147,716	178,480	212,693	252,775	186,932	225,683	272,916
수료생 수	3,075	17,017	34,170	54,979	56,143	27,881	40,968	161,192	303,126	360,658

개편 전('10~'16년) 평균 33,462명이던 교육 수료생이 개편 후 '18년 303,126명, '19년 360,658명(개편 전 대비 약 10배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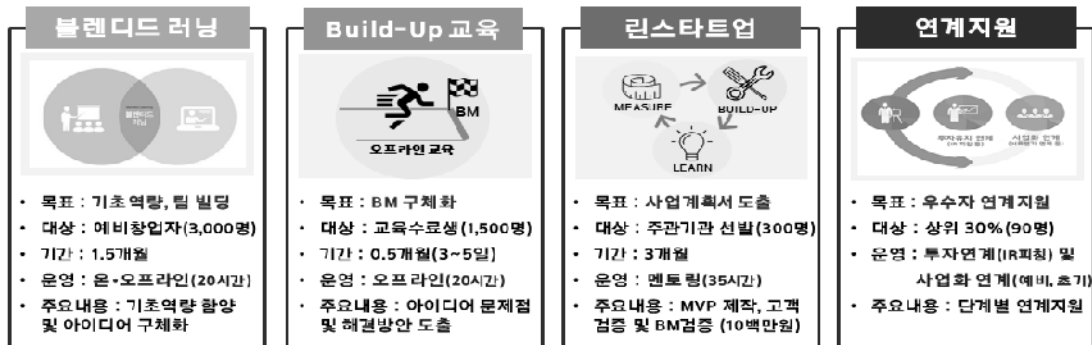
특히, 개편 시 도입된 기관별 맞춤형 교육서비스인 '패키지 과정'은 첫째 신청 기관이 18개 기관(25개 과정)에서 '19년 95개 기관(154개 과정)으로 약 5.3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2) 실전창업교육

실전창업교육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사업계획 도출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자 2019년 신설되었다.

‘아이디어 개발 → 비즈니스모델 수립 → 린스타트업’ 단계별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구체화와 피보팅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BM 구성요소들을 수립 및 변경해 가며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 하였다. 린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교육생 비즈니스모델의 핵심 기능만 최소한으로 구현하고, 잠재고객과 시장 대상으로 반응을 조사하여 사업계획 피보팅을 지원하였다.

표 II-1-1-6 | 실전창업교육 지원체계



나. 기업가정신 확산

1)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표적 사업인 비즈쿨(Bizcool)은 학교(School)내에서 경영(Business)을 배운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 센터 등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2002년부터 시작하여 17년 동안 3,791개교, 2,055천명을 지원하였다.

특히 평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를 위해 2019년에는 초·중·고·학교 밖 비즈쿨 지정학교(센터) 495개 지원하였고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표 II-1-1-7 | 비즈쿨 운영실적

구 분	'02~'12	'13	'14	'15	'16	'17	'18	'19
지원예산(A)	216.1억원	45억원	50억원	60억원	83억원	76.65억원	76.65억원	76.65억원
비즈쿨학교(B)	1,027개교	135개교	200개교	412개교	448개교	513개교	561개교	495개교
참여학생수	582천명	116천명	133천명	190천명	247천명	262천명	283천명	242천명
비즈쿨캠프	89회, 8,850명	22회, 1,808명	15회, 1,035명	11회, 585명	19회, 989명	9회, 469명	9회, 417명	6회, 283명
창업동아리	4,622개	830개	1,053개	1,329개	2,092개	2,781개	2,803개	2,468개



청소년비즈쿨 국내캠프



청소년비즈쿨 해외캠프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2) 대학기업가센터

미래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융합 실전형 창업교육(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전국에 9개 대학기업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기업가센터에서는 창업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수한 창업전공강좌를 운영하여 대학생의 창업수요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고 있다.

표 II-1-1-8 | 대학기업가센터 연도별 지원성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공강좌 수(개)	183	235	264	296	312
강좌수강생(명)	7,614	13,273	17,959	17,255	17,926
창업네트워킹(건)	243	337	558	571	496
콘텐츠제작(건)	69	68	62	58	77

3) 기업가정신기반 구축 및 확산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112억 원을 조성하여 2011년 3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하였다. 대학생, 예비창업자, 청년기업가뿐만 아니라 전세대가 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 및 체험 기회로 개인적 측면에서의 기업가적 마인드 확립과 전사회적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운영한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은 5년간 2,587명의 기업가정신 교육자를 양성하여 기업가정신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국적 확산에 집중하였으며, 향후에는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콘텐츠 다각화로 현장 중심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가정신 인식개선을 위한 가족단위 체험중심 교육 '기업가정신 가족캠프', 세대군인과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맞춤형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으로 전주기적 기업가정신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글로벌 기업가정신 조사연구(GEM)를 실시하여 국내 기업가정신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있다. 그 결과 '19년도에는 전체 50개 참여국 가운데 총 초기 창업기업활동지수(TEA)가 14위로 영국, 스웨덴, 독일,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가정신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는 개인 12,004명의 기업가적 역량, 태도와 인식을 비롯하여 기업 3,085개사를 대상으로 조직내 혁신문화와 환경 등 기업가정신 활동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도 통계청의 자체 통계품질진단 결과 '우수'를 획득하여 2년 연속 고품질의 기업가정신 통계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그 밖에도 경제발전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써 기업가정신의 확산방안을 논의하는 기업가정신 포럼을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정책교류회 및 기업가정신 기획연구로 시의성 있는 이슈를 발굴하여 기업가정신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전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 세계기업가정신주간 한국행사(내년 11월 셋째주), 기업가정신 관련 정보가 축적된 기업가정신 포털(eship.or.kr) 등 기업가적 문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19.8.28-29)

기업가정신 포럼
('19.5.3)

세계기업가정신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19,
'19.11.12)

다. 도전 K-스타트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이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창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창업을 테마로 한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4개 부처(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통합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각 부처별 특성을 살린 예선을 통해 "도전 K-스타트업" 본선 대회 진출팀을 선발하고, 부처별 우수팀이 모여 공개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왕중왕전 수상팀을 선발하여 시상 및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2019년에도 부처 통합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부처별 예선을 통해 본선 대회 진출 152팀을 선발하였고, 공개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왕중왕 20개 팀을 선발하였다.

- * 예선대회 : 혁신창업리그(중기부), 학생리그(교육부,과기부), 국방리그(국방부), 타부처·민간, 지자체리그(중기부)
- * 총 접수건수 (3,894건) : 혁신창업리그(2,406건), 학생리그(738건), 국방리그(521건), 타부처·민간, 지자체리그(229건)

또한 대회 참가자 및 수상자를 주인공으로한 다큐 제작·방송, 네이버 브랜드 웹툰(가우스전자 작가 광백수) 제작을 통해 국민들에게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과 창업열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 * 방송 : 다큐세상 (KBS1, '20.1.24(금))

아울러 후속연계 프로그램으로 본선대회 진출자 및 수상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보호, 예비·초기·도약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직접(서면평가 면제) 연계를 통한 창업 사업 기반마련을 지원하였다.

표 II-1-1-9 | 도전! K-스타트업 주요 추진 성과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참가자 수(팀)	6,545	4,055	5,770	3,894	20,264
수상자 수(팀)	10	10	10	20	50
경쟁률 (%)	654:1	405:1	577:1	195:1	405:1



도전! K-스타트업 방송



브랜드 웹툰



왕중왕전·시상식

라.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재무 상황이 열악한 초기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자의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청년 일자리 대책(18.3)」의 일환으로 '18년 신설되었다.

세무·회계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2개 주관기관(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에 총 14,874개사를 지원하였다.

표 II-1-1-10 | 2019년 지원대상 선정절차

모집공고	요건 검토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K-startup 신청	자격, 기타 요건 등 검토	우선 신청자 순으로 확정	3차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

지원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의 바우처를 연 100만원 한도(최대 2년)로 지원하며, 세무·회계 부문은 기장대행 수수료 및 결산·조정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술보호 부문은 기술임치 계약(갱신)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18년에 8,698개사를 지원한 이후 '19년에는 14,874개사로 확대하였고 세무회계와 기술임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바우처 한도(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3

기술 창업 활성화

- 글로벌성장정책과 김 해 인
- 기술창업과 김 창 호, 손 희 찬,
- 기술창업과 김 도 연, 원 미 연, 이 윤 호
- 창업생태계조성과 이 화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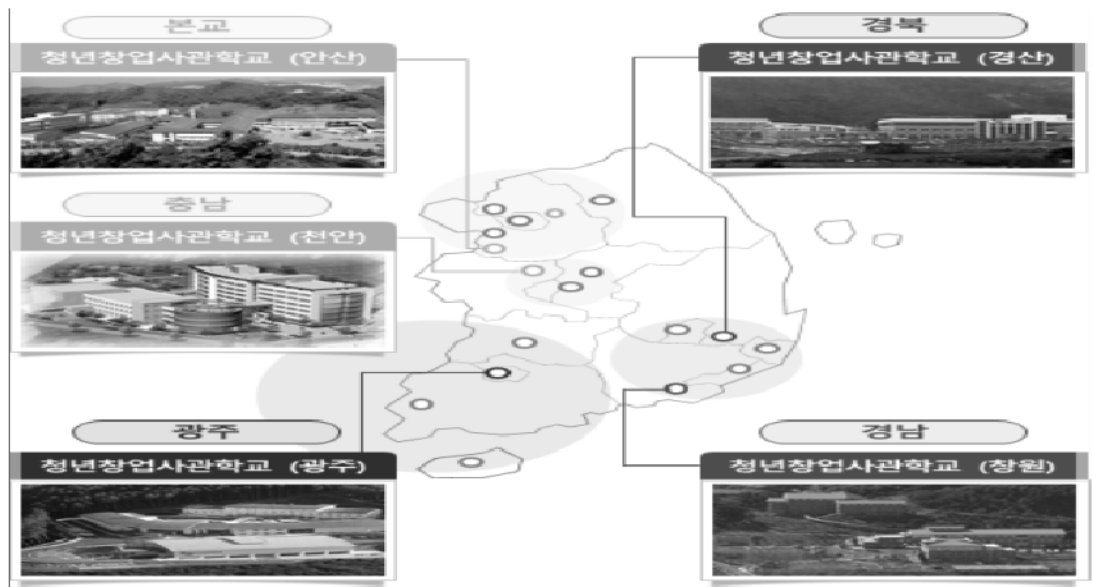
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대상으로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소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창업준비)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 (창업실행) 창업사업화 → (창업성장)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R&D, 투자지원, BI 등

2011년 경기도 안산에 최초 개소하였고, 2012년 광주, 경북(경산), 경남(창원), 2014년 충남(전안)으로 확대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역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12개 광역시도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확대 개소하여 현재 전국 1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그림 1 | 2020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현황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CEO를 양성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 도전정신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입교생에게는 기업가정신 등 기본 소양교육과 함께 맞춤형 전문 교육을 연간 80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창업 전문인력을 1 : 1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창업의 전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



2017년부터는 초기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전 교육 및 코칭 등을 지원하는 "Pre-School 과정"과 졸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정책자금, 마케팅, 수출 등 성장 단계별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표 II-1-1-11 |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개요

단계별	창업준비	창업실행	성장단계	안정화단계
사업단계	프리스쿨	청년창업사관학교	5년간 후속 연계지원	
주요내용	교육·사업계획검증	사업화 지원	정책사업연계지원	사후관리

* 정책사업 연계지원 : 정책자금, R&D연계, 보육코칭, 마케팅수출, 투자유치 등

또한, 우수창업자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불성실자, 수행능력 미달자를 중간에 탈락시키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청년창업가를 배출하고 있다.

표 II-1-1-12 | 청년 CEO 양성 규모

(단위 : 명)

구분	선발	퇴교	졸업	비고
2011년 1기	241	△29	212	졸업('12. 2월)
2012년 2기	229	△16	213	졸업('13. 2월)
2013년 3기	301	△47	254	졸업('14. 2월)
2014년 4기	307	△23	284	졸업('15. 3월)
2015년 5기	278	△26	252	졸업('16. 2월)
2016년 6기	324	△24	300	졸업('17.2월)
2017년 7기	500	△27	473	졸업('18. 2월)
2018년 8기	1,000	△110	890	졸업('19. 3월)
2019년 9기	1,000	△63	937	졸업('20 .2월)

'19년까지 우수 청년 CEO 3,815명을 양성하여 누적매출 3조 2,412억원, 고용 창출 10,312명의 성과와 직방(1기), 토스(2기),뱅크샐러드(2기) 등 우수기업 매출 지원성과를 창출, 청년기술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II-1-1-13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구분	'11 (1기)	'12 (2기)	'13 (3기)	'14 (4기)	'15 (5기)	'16 (6기)	'17 (7기)	'18 (8기)	'19 (9기)	합계
졸업기업	212	213	254	284	252	300	473	890	937	3,815
매출액	6,002	7,150	3,248	5,018	2,489	1,772	2,126	2,119	2,488	32,412
고용인원	423	591	516	984	698	886	1,367	2,535	2,312	10,312
지재권	314	677	789	1,280	898	1,019	1,624	1,647	1,915	10,163

* 조사기준 : (1~3기) '18년 말, (4기~8기) '19년 6월, (9기) '19년말

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TIPS'는 민간투자자와 매칭하여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의 유망 기술창업팀 선별 및 보육역량을 활용하여 초기 기술창업기업에게 필요한 멘토링, 후속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성공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창업 육성 플랫폼이다.

그림 2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사업 구조(TIPS)

인큐베이터 운영사 선정	창업팀 선정	보육/멘토링	졸업/후속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 입찰방식 - 사업자선정 : 5~10개(매년) · 액셀러레이터 주도 (법인엔젤, 재단, 초기VC 등) · 운영기간: 6년 (3년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팀 선정 - 1차 : 운영사(인큐베이터) 자체심사(12~15배수) - 2차 : 정부심사 (1배수) - 수시(년 7회 내외) 계속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기간 : 2+1년 · 투자 지원 - 운영사 : 1~2억원 내의 (창업팀 지분 60% 이상, 운영사 지분 30% 이하) - 정부 : R&D지원(5억원) (추가연계 포함 최대 9억원) · 마일스톤 관리, 적극적인 멘토링, 엔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투자 20억원 이상, M&A연계, IPO(보넥스프린),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연 수출 50만불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 성공시 기술료 상환 · 포스트립스 등 후속지원연계

* 성공판정 시 정부 R&D지원금의 최대 20%(경상기술료) 상한

TIPS에서는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중 투자, 보육, 멘토링 역량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를 TIPS 운영사²⁾(최초 지정 3년 후 중간평가를 통하여 3년 연장 가능)로 선정하고 창업팀 추천권(T/O)을 부여한 후, 운영사가 투자 및 추천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정부가 선정평가를 통하여 TIPS 창업팀을 최종 선정한다.

운영사는 유망한 기술창업팀을 발굴하고 부여받은 창업팀 추천권 내에서 2억원 내외의 선투자³⁾ 후 정부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창업팀은 운영사의 보육공간(BI)에 입주하여, 밀착보육 및 성공사업화를 위한 멘토링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선정된 TIPS 창업팀을 대상으로 R&D자금(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팀의 필요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창업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 해외마케팅(최대 1억 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이는 초기자본은 없으나 혁신기술로 무장한 유망 창업팀에게 과감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상하반기 운영사 선정을 통하여 총 17개의 운영사를 신규로 선정되어, 2019년 12월말 기준 56개 운영사, 934개 창업팀이 선정되어 엔젤투자 1,985억 원, 정부 R&D 3,405억 원, 창업사업화 455억 원, 해외마케팅 368억 원이 투자지원되었다. '김기사

2) 성공벤처인 등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 및 엔젤투자회사(법인엔젤), 엔젤투자재단, 초기전문 VC 등(연구중심대학, 기술지주사, 출연연,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등 컨소시엄 포함)

3) '투자확약'도 추천 가능하다. 협약단계 이전 투자계약 및 투자금입금이 완료되어야 최종 협약이 진행됨(미이행 시, 협약 취소)

(어플)의 성공 회수자금으로 설립한 액셀러레이터 ‘김기사랩, 실리콘 밸리를 기반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인 빅베이슨캐피탈 등 다양한 유형의 운영사가 ‘19년도에 신규로 참여하여, 팀스 창업팀의 성공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지방 소재 운영사 5개 기관이 참여⁴⁾함에 따라 지방 기술창업팀의 팀스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회사(재단) 21개, 초기전문VC 17개 등으로 구성⁵⁾된 TIPS운영사는 성공창업인, 엔젤투자전문가, 보육멘토링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어, 성공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창업팀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II-1-1-14 | 운영사 및 보육공간 현황

구분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1차 (‘13년 6월)	카이트창업재단	김철환	김철환(이미지앤머티리얼스) + KAIST	KAIST TIP스타운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김범수(카카오) + 서울대기술지주사BI	서울대기술지주 TIP스타운
2차 (‘14년 2월)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강석훈	장병규(네오위즈) +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TIP스타운
	더벤처스	호창성	호창성,문지원(Viki) + 더벤처스 스타트업센터	자체 BI
	퓨처플레이	류중희	류중희(올라웍스)+ KETI(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TIP스타운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권혁태	BootstrapLabs(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 광주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TIP스타운
3차 (‘14년 7월)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이상진	한국과학기술지주사(17개 출연연 지주사) + 벤처스퀘어 + BNH	서울대기술지주 TIP스타운
	엔텔스	심재희	심재희(엔텔스), 네이블 커뮤니케이션	TIP스타운
	액트너랩	조인제	Lab IX(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 + 인텔 + SK텔레콤	TIP스타운
	포스코	최정우	포스코 계열사 +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창조경제 혁신센터

4) (대전) 미래과학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지주, 대덕벤처파트너스, (부산)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강원) 더존윙딩스
5) 엔젤투자회사 21개, 초기전문VC 17개, 선도벤처 7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개, 대기업 2개, 혁신센터 1개, 글로벌투자보육기관 3개로 구성

구분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4차 (15년 3월)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이용관(플라즈마트) + 미래과학기술지주 + 생명공학연구원 + 스테이션니오	KAIST 스테이션니오 생명공학연구원
	BSK 인베스트먼트	백승권	차기철(인바디) + 디지털 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 벤처기업협회SMI	벤처기업협회 SVI, TIPS타운
	현대자동차	이원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 센터, 자체 BI
5차 (15년 11월)	ETRI홀딩스 인포뱅크	윤상경 박태형	DSC인베스트먼트, + ETRI 박태형(인포뱅크) + 인텔렉추얼스톤 + 텀블러	ETRI 자체 BI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오덕환	행복나눔재단(SK) + 씨엔티테크 + 카이스트창업원 + 핀플레이 + SK사회적가치연구원	KAIST TIPS타운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오종훈	울산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 + 부산TP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BI, 울산과학기술원 울산혁신센터
	스프링캠프	최인규	-	자체 BI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지건열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캠텍종합기술원	르호봇비즈니스센 터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안태성	LG전자 + LG생활건강 + LGU+ + 충북TP +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충북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부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 청주상공회의소	자체 BI
6차 (16년 11월)	케이런벤처스	권재중	이녹스 + 테크코드엑셀러레이터 코리아 + 성균관대	성균관대
	포스텍기술지주	유주현	포항공대 + 포스텍 기업협의체 + 포스텍 엔젤클럽 +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포항공대 TIPS타운
	시너지아이비투자	정안식	요즈마그룹코리아	자체 BI, 충북혁신센터
	휴젤	손지훈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LSK인베스트먼트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강원혁신센터
7차 (17년 7월)	런드먼아시아 인베스트먼트	김진하	(中)IngDan + (中)테크코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 흥원 한국수자원공사

구분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8차 (18년 6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박기일 김세현	동국제약 + (中)SCORE CAPITAL + 진학어플라이 + 연세대	연세대
	빅뱅엔젤스	황병선	평화홀딩스 + 경북대	경북대
	아이빌트	이준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호서대 + 고려대 + 충북수출클럽 + 비피메이커스랩 + 이노보스 + HRG	자체 BI 호서대
	에버그린 투자파트너스	홍종국	아이에셋 + 비즈헬프 + 아이피텍코리아 + Excitron Partners + 송실대 + 연세대	송실대 연세대
	코맥스벤처러스	변우석	코맥스 + 와디즈	자체 BI TIPS타운
	킹슬리벤처스	이정훈	한국기술벤처재단 + 전남대기술지주 + SV101벤처파트너스 + 어썸벤처스 + 리앤목특허법인 + 케이디벤처팜 + 서울대학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자체 BI 케이디벤처팜
	KB인베스트먼트	김종필	KB금융지주 + 로아인벤션랩	자체 BI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장재수	고려대의료원 + 아이파트너즈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자체 BI 아이파트너즈
	매쉬업엔젤스	이택경	(미)빅베이스캐피탈 + 슈미트	슈미트 TIPS타운
	메디톡스벤처투자	정현호	메디톡스	자체 BI
서울대기술지주	박동원	서울대 + (미)Church and State Business Center	서울대 BI TIPS타운	
에이치지이니셔티브	정경선	드림플러스강남센터 + 루트임팩트	드림플러스 강남센터	
인라이트벤처스	김용민 박문수	대구경제혁신센터 + 광주경제혁신센터 + (프)EuraTechnologies + 와이엔아처 + 다래전략사업화센터 + 에이전트엑스	대구혁신센터광주 혁신센터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수재	한양대 창업지원단 + 한양증권 + 벤처기업협회 + 코스닥협회 + (미)Founders Space, RDK Partners + (싱가폴)Seamo Ventures, Expara Pte Ltd + (홍콩)Metta International Ltd, brinc	한양대 BI	
김기사랩	신명진	조이시티 + EST soft Inc. + 워크앤올 + 공게임즈	자체 BI	
9차 (19년 5월)	미래과학기술지주	김판건	카이스트 + WSV Capital	자체 BI KAIST

구분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빅베이스캐피탈	윤필구	송영길(NComputing) + 이택경(매쉬업엔젤스) + 신현성(TMON)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연구원	명지대 고려대
	씨엔티테크	전화성	-	자체 BI
	엔피프틴파트너스	양동민 허제 류선종	엔피프틴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세종벤처파트너스 + 아이디어벤처스 + 고려대학교크림스창업가센터 + GS칼텍스 + 마인즈랩 + Harman Connected Services + Queen Consulting Group Private Limited + CampFire + 벌트코리아	자체 BI 인천테크노파크
	플래티넘기술투자	이창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케이티 + 대광경영자문차이나 + Nautilus Venture Partners	경기혁신센터
10차 (19년 9월)	대덕벤처파트너스	이석훈	igniteXL + 컴퍼니에이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더존홀딩스	김용우	더존비즈온 + 키컴 + 강원도청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강원테크노파크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 BI
	테일리파트너스	이승호	MARSInnovation + Longlycapital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씨애치씨랩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바이오센터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창업보육센터	생명공학연구원 씨애치씨랩
	벤처스퀘어	명승은	Rehoboth Vietnam +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 본투글로벌센터	르호봇비즈니스인 큐베이터 본투글로벌센터
	부산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	김종철	Saigon Innovation Hub + Able Advisors + 비스퀘어 + 스마트파머 + 부산관광공사	비스퀘어 스마트파머
슈미트	김현준	DSC인베스트먼트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PHANTOM AI Inc. + LVIS Corporation	자체 BI	
스파크랩	김유진	아산나눔재단 + 스파크플러스 + 한양대학교기술지주회사 + Sparklabs Taipei + 스파크랩파트너스	마루180, 스파크플러스	

구분	컨소시엄 주관사	대표	성공벤처인(기업), 협력기관	보육공간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코로프라 넥스트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TIPS타운, 경기혁신센터
	프라이어	권도균	Primer Sazze GP, LLC. + 대응제약	대응제약 융인연구소
	플랜에이치벤처스	원한경	KITA Inc. + 네오위즈차이나 + 한국무역협회 + 한국수자원공사 + 네오플라이 +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 부산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울산과학기술지주 + 충남대학교창업재단	자체 BI 한국무역협회
	한국과학기술지주	강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SK Telecom Americas InnoPartners + 원익투자파트너스	대전혁신센터 TIPS타운

TIPS 창업팀은 기술분야별로 정보통신 390개, 바이오·의료 255개, 전자전자 109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창업팀 대표자 기준으로 석박사 비율은 58%이고, 삼성, 구글 등 국내외 대기업 경력자가 30%로 고급기술 인력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TIPS 창업팀의 신규고용인원은 6,569명으로 창업팀 당 7.4명의 신규고용을 창출⁶⁾하였으며, '19년 한 해 동안 M&A 8건⁷⁾을 포함하여 총 306개 창업팀이 약 1조 3천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누적 후속투자 유치금액 누적 2조 원(약 2조 4천억 원)을 돌파하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TIPS 창업팀의 창업공간으로서 2015년 7월부터 팀스타운을 조성하여 창업교육,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4개 건물(혜성빌딩, 명우빌딩, 현승빌딩, 태광빌딩) 23개층의 운영을 통해 74개사 536명이 상주하는 공간으로서 팀스창업팀, 운영사, 유관기관 등이 팀스타운이라는 하나의 밀집된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통한 교류·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운 입주사 및 팀스

6) (조사기준) '13~'19년 선정기업 890개사, (선정당시) 6,139명 및 ('19년말) 12,708명

7) 플라리먼트, 유스필, 더블러, 라프텍, 수아랩, 스페큘릭스, 맥스트팩토리, 바이시큐

창업팀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교육, 후속투자 연계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행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팀스타운을 중심으로 지자체(강남구청)에서 조성한 '강남스타트업센터'의 개관(19.12월)과 함께 민간(포스코)에서 조성하고 정부(팀스타운)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체계를 구성하게 될 '민관협력형 팀스타운'의 개관(20.7월)도 예정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창업 지원의 핵심허브로서의 '창업가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Beyond TIPS



역량강화 교육(팁스 아카데미)



후속투자 연계(팁스밋업)

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1) 국내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의 기술 기반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 창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12년 신규로 도입되었다. 해외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자가 글로벌 진출 초기단계에 해외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현지에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을 양성하고자 한다.

동 사업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직접 선발하여 해외 현지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피칭대회까지 참가 지원한다.

2012년에 미국, 중국 등 2개국을 시작으로 점차 진출 국가를 확대하여 현재 국내 창업자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6개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러시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총 491개 창업기업을 지원하였다.

8) 해외 액셀러레이터 : 해외에 거점을 두고 창업기업의 멘토링, 창업공간, 초기투자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회사 및 기관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 지원

동 사업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491개 창업기업이 1,703억 원 매출액과 1,759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521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1-1-15 |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연 도	예산	선정	현지진출*	투자유치	매출	고용
2012	31	39	10	88.3	91.4	91
2013	20	28	11	91.1	25.9	30
2014	30	56	25	170.1	260	76
2015	33	62	41	91.5	249.4	235
2016	100	113	76	707.5	296.5	579
2017	33	65	20	101.9	370.3	316
2018	38	70	12	210.9	308.9	347
2019	27.9	58	3	59.7	101.5	85
합계	312.9	491	198	1,521	1,703.9	1,759

* 현지진출유형 : 법인, 지사·사무소, 합작법인



글로벌 밀착 멘토링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 설명회 및 IR

2)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

우리나라의 창업비자제도 도입(2013년 10월)으로 우수 해외인력 유치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해외 유망 창업기업의 국내유치를 통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해외 각국에서 우수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⁹⁾를 벤치마킹하여 2016년부터 'KStartup 그랜드 챌린저'를 국내 최초 인비운드 프로그램 브랜드로 신규 추진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외국인, 귀환 유학생 또는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국내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신업의 신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국내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9) 미국: 스타트업 3.0,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칠레: 스타트업 칠레 등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총 200개 팀(44개국) 지원, 국내법인 설립 89개, 창업비자취득 교육을 통한 취득 131건, 신규고용 184명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1-1-16 | 해외 유망 창업기업 국내유치 지원성과

(단위 : 억원, 명(개), 건)

연 도	예산	선정(국가)	국내법인설립	창업준비비자	창업비자	신규 고용
2016	50	40 (21)	18	16	2	31
2017	45.8	49 (21)	23	18	8	54
2018	73.8*	73 (31)	34	39	18	70
2019	41	38 (20)	14	17	13	29
합계	213.6	200 (91)	89	90	41	184

라.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의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 초기 창업사업화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52개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일반분야(순 기술 분야)', '특화분야(4차산업혁명 등)'로 구분하여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담당한다.

특히, '특화분야'는 각 부처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관 부처가 추천하는 산하·유관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였고, 부처 협력을 통한 유망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하여 범부처 추진단*을 결성('19.4)하였다.

* 참여부처 :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산림청, 특허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화 자금과 함께 창업교육(40시간)을 제공하고, 창업·경영 전반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1:1 매칭하여 진도점검, 사업자문 등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9년초, 창업 사업화 지원체계가 '예비(예비창업자)-초기(창업 3년 이내기업)-도약(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개편되면서, 예비창업패키지는 청년 예산으로

만 편성되어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19년 추경을 통해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를 신설하여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였다.

'18년에는 1,512명을 지원하여 협약기간(10개월)동안 1,476개사 창업(창업을 97.6%), 일자리 4,299명, 매출 736억원, 투자유치 156억원의 성과를 나타내었고, '19년은 2,207명(청년 1,707명, 중장년 500명)을 지원하고 있다. (~'20.8)

표 II-1-1-17 | 예비창업패키지 주요실적 및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지원	창업	일자리	매출	투자
2018년(청년)	101,300	6,677	1,512	1,476	4,299	73,626	15,680
2019년	청년	101,050	6,624	1707			
	중장년	31,800	1,779	500			

'20.8월 지원종료 후 최종점검을 통해 성과조사

마.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초기창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초기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8년도까지 운영되던 “창업선도대학, 세대융합캠퍼스 및 장년서포터즈, 스마트벤처 캠퍼스” 사업을 초기단계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19년부터 단계별(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관기관 선정 시 권역별 1개 이상의 주관기관을 선정, 권역 내 창업기업 의무선발 비율(80% 이상)을 도입하여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협업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창업기업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한다.

표 II-1-1-18 |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53개)

수도권(23)				비수도권(30)			
서울(12)	경기(8)	인천(3)	충청권(8)	호남권(8)	동남권(7)	대경권(5)	강원권(2)
건국대	가천대	인천대	순천향대	광주대	동서대	계명대	가톨릭대
국민대	경기대	환경산업기	충남대	원광대	동아대	경북대	강원대
동국대	단국대	솔원	충북대	순천대	부경대	경일대	
서울과기대	아주대	인천TP	한국교통대	전북대	부산대	대구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밭대	전주대	울산대	경북청영센터	
성신여대	한국산기대		한남대	조선대	영산대		
송실대	수원도시재단		호서대	전북경진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연세대	디자인진흥원		대전청영센터	군산대	충원		
인덕대							
한양대							
르호봇							
고려대							

'19년도에는 1,026.8억원(추정 154억 미포함)의 예산으로 53개 주관기관을 통해 858개 기업(추정 220개 미포함)을 발굴 육성하였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하였다.

표 II-1-1-19 |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유형

특화유형	주요 내용
대학·연구소	• 교원·대학(원)생·연구원 창업자를 위한 사업화 지원 등 운영
청년	• 청년창업자 선정,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등 운영 * 청년창업자 :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창업자
중장년	• 세대융합 창업팀 운영,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세대융합 창업팀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특화유형 중 중·장년 분야를 운영하는 주관기관을 선택 ** 세대융합 창업팀 : 중장년(만 40세 이상)과 청년(만 39세 이하)으로 구성
산업	• 특성화 산업분야 사업자 선발, 관련 분야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글로벌	•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타당성 조사, 박람회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투자연계	• 투자유치 계획을 보유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및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판로연계	• 창업아이템의 판로가 필요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제조특화	• 업종이 제조업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제품개선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바.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도약단계(3~7년차)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선정된 창업자에게 사업모델(BM) 혁신, 국내외 시장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을 50억 원 규모로 '15년부터 시작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18년 800억원에서 '19년도에는 예산이 960억 원(추경포함)으로 증액되었으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뿔성부른 기업” 발굴·집중지원을 위해 사업화 지원 및 성장촉진 지원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화(최대 3억원)의 경우 R&D연계(2년간, 2+2억원)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이 가능토록 운영하였고, 성장촉진 분야는 최대 1억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수출, 상장, 판로개척 등을 통해 마이너스(-)의 현금흐름을 극복하고 빠른 수익창출과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표 II-1-1-20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사업화 기준)

(단위 : 억원, 명, 건)

구분	신청	선정	매출	일자리
2015년	513	100	1,197	944
2016년	683	160	985	755
2017년	2,524	813	9,908	6,993
2018년	1,327	441	5,399	3,808
2019년	2,613	435	-	-
합계	7,660	1,949	17,489	12,500

* '15년 : 협약 종료시점, '16년·'17년·'18년 : 연간 기준, '19년 사업 진행 중('20년 10월 최종 성과조사 예정)

'19년도에는 구글 글로벌과 연계하여 게임·앱 창업기업의 콘텐츠 완성부터 글로벌 시장 안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창업기업은 서류 → 발표 → 현장의 3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표 II-1-1-21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 지원 절차 〉

선정평가			지원내용	
[1단계] 서류평가	▶ 1.5 배수 내외	[2단계] 발표평가	▶	[3단계] 현장평가 (발표평가대 상자의 10%내외)
			▶	[사업화자금] BM혁신, 시장진입을 위한 사업화 지원 (최대 3억원)
				[성장지원] 유통·수출·상장 분야별 전문교육 및 성장지원 (최대 1억원)

사.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이 해당 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사내벤처팀과 분사 창업기업을 육성하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사 전’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과 ‘분사 후’ 사업화 및 R&D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중에 있다.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대기업 등 운영기업 19개사를 신규 선정하여 총 59개 운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업에서 추천한 45개 팀(기업)과 개방형 공고를 통해 55개 기업을 선정·지원하였다.

개방형 공고는 非 운영기업에서 육성한 분사창업기업을 추천할 수 있는 공고로써 올해 총 2회 진행, 삼성SDS, 경남은행 등의 분사창업기업 87개사가 지원하여 사내벤처 제도·지원의 확산을 유도하였다.

지원기업 중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키튼플래닛은 2019년, 약 10.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롯데액셀러레이터, 인라이트벤처스 등으로부터 약 8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

사업화 자금 지원 이외에도 창업팀(기업), 국내외 대기업, 투자사(VC), 액셀러레이터를 연결하는 K.O.I(Korea Open Innovation) 행사를 9회 진행하여 총 840여명의 창업팀(기업), 국내외 대기업, 투자사,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였다.

표 II-1-1-22 | 2019년 사내벤처 운영기업 및 창업팀(기업) 현황

구 분	운영기업명 (59개사)				
대기업 (14개사)	현대자동차(주), (주)엘지씨엔에스, 롯데액셀러레이터, 엘에스전선(주),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엘지유플러스, (주)이노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SK텔레콤(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삼성전자(주), 엘지이노텍(주), (주)우리금융지주				
중견기업 (12개사)	(주)하나금융티아이, 주식회사 코맥스, (주)코스콤, 대상주식회사, (주)휴맥스, 디와이오토, (주)한솔교육,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 (주)엔글, 보령메디앙스(주), 한솔피엔에스주식회사, (주)다날				
중소기업 (20개사)	(주)삼진엘앤디, 한솔인티큐브, (주)휴넷, (주)인바디, (주)케이엘넷, 헬스투데이(주), 주식회사 매스씨엔지, 주식회사 위치웍스튜디오, (주)프론틱, (주)엔라인, 주식회사플레이오토, 주식회사 현대포리텍, 웅진개발(주), 케이씨글라스(주), (주)에이치나인, (주)씨아이그룹, (주)에프엔가이드, (주)이투, 주식회사 티제이이노베이션, (주)버티고우게임즈				
공기업 (13개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국가스공사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합 계
운영기업수 (%)	14 (23.7%)	12 (20.3%)	20 (33.9%)	13 (22.0%)	59
창업팀(기업) (%)	20 (20.0%)	13 (13.0%)	53 (53.0%)	14 (14.0%)	100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 기술창업과 원미연
- 창업촉진과 전상우
- 지역기업육성과 김성재
-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청수, 한광석
- 창업촉진과 고종현

가.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분산되어 운영 중인 법인 설립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창업자들의 법인 설립 시 겪어왔던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해, 2010년 2월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을 개통하였다.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등기소, 지방세납부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 인터넷지로시스템, 4대사회보험 연계시스템 등을 통합·연계한 시스템으로 법인설립의 준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I-1-1-23 |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절 차	기간		절 차	기간
① 상호 검색	1	→	① 법인인감 제작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② 상호 검색 4대보험 등록 취업규칙 신고 법인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등기신청수수료	3
③ 자본금 확인	1			
④ 법인등록세 납부	1			
⑤ 법인설립등기 신청	2		③ 4대 사회보험료 납부	0
⑥ 사업자등록 신청	6		3단계	4일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1			
⑧ 취업규칙 신고	1			
8단계	14일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라 무액면 주식발행기능 추가 하였으며, 연계기관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신청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신규 프로세스 개발 등 지속적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법인설립만 지원하던 시스템을 대법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모든 유형의 법인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 이후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 총 48,062명의 창업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한해만도 9천명이 넘는 창업자가 법인설립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표 II-1-1-24 |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건)

구 분	법인설립	전화상담	방문자
2010년	1,005	18,569	206,018
2011년	1,673	35,642	216,548
2012년	2,403	51,406	262,904
2013년	3,021	51,319	322,011
2014년	4,052	58,837	585,574
2015년	5,045	60,369	584,347
2016년	6,048	61,444	565,776
2017년	7,111	48,673	522,403
2018년	8,195	49,656	538,406
2019년	9,509	64,996	993,797
합계	48,062	500,911	4,797,784

나. 창업보육센터(BI) 운영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초기(예비)창업기업에게 사업공간 및 기술·경영 등 보육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제고하기 위해 '98년부터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1-1-25 | 최근 5년간 창업보육센터 사업 운영현황

시행시기	내 용
2015년	예산(227억원), BI 지정·운영(272개 BI), 지원실적(운영비 201개 BI, 리모델링 13개 BI, 보육역량 97개 BI), BI 운영성과(6,275개 기업, 매출 1.7조원, 고용 18천명)
2016년	예산(238억원), BI 지정·운영(266개 BI), 지원실적(운영비 185개 BI, 리모델링 8개 BI, 보육역량 105개 BI), BI 운영성과(5,840개 기업, 매출 1.9조원, 고용 19천명)
2017년	예산(214억원), BI 지정·운영(262개 BI), 지원실적(운영비 181개 BI, 리모델링 15개 BI, 보육역량 80개 BI), BI 운영성과(5,907개 기업, 매출 2.1조원, 고용 19.8천명)
2018년	예산(165억원), BI 지정·운영(262개 BI), 지원실적(운영비 197개 BI, 리모델링 7개 BI, 보육역량 84개 BI), BI 운영성과(6,290개 기업, 매출 2.2조원, 고용 21.6천명)
2019년	예산(148억원), BI 지정·운영(260개 BI), 지원실적(운영비 190개 BI, 리모델링 6개 BI, 보육역량 94개 BI), BI 운영성과(6,151개 기업, 매출 2.1조원, 고용 21.9천명)

2019년 말 기준, 전국 260개 창업보육센터(대학 192, 연구소 14, 정부/지자체 11, 공공기관 11, 기타 32)가 대학·연구소(79.2%) 중심으로 지정되었고, 수도권 87개소(33.5%), 비수도권 173개소(66.5%)가 운영 중에 있다.

표 II-1-1-26 | 창업보육센터 주체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합 계	대 학	연구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기 타
260	192	14	11	11	32

표 II-1-1-27 | 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 : 개)

합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60	32	19	34	25	30	50	5	14	15	15	17	4

2019년 창업보육센터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총 148억 원이며,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등 리모델링비로 6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I-1-1-28 | 창업보육센터 보육공간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현황

(단위 : 개)

구 분		지 역	선정기관명
신규	신규지정	서울, 경북	광운대, (재)함동해산업연구원
기존 BI	일반건물 BI전환	대전	대전대
	노후시설 개선	경남 충북 인천	경남대 충북도립대 한국폴리텍2대학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경상비 등 운영비로 80억 원과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강화,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교육, 멘토링 등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47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통해 2019년도 말 기준, 전체 입주기업 매출액 2.1조원, 고용인원 2.1만 명 등의 사업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표 II-1-1-29 |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

(단위 : 개사, 억원,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입주기업 수	6,275	5,840	5,907	6,290	6,151
매출액	17,330	18,934	21,109	22,064	21,497
고용인원	18,536	18,975	19,847	21,693	21,943

앞으로도, 창업보육센터의 지속적인 운영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율성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간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의 창업혁신 주체들과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산업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교육 지원



입주기업 투자 멘토링 지원



입주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을 변경(10년)하였다.

민간의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있는 반면에 우리부의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원은 비수도권 도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등에게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에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건립비의 70% 이내로 최대 160억 원까지 국고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외 건립비와 부지대입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1,74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6개 센터(1,2차 선정)가 완공되어 운영 중이고 16개 센터는 건립중이다.

완공된 6개 센터의 입주기업은 168개사이며 입주율은 평균 88%를 나타내고 있고 고용인원은 총 1,084명이다.

표 II-1-1-30 | 지식산업센터 운영현황(2020.6)

구분	부산(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위치	금곡동 812-8	침산동 999-1	동명동 143-78
규모 (대지,연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 (9,900㎡, 16,226㎡)	지하 1층, 지상 8층 (4,600㎡, 13,479㎡)	지하 1층, 지상 6층 (5,992㎡, 11,650㎡)
공사준공일	'16. 11.	'17. 10	'16. 6.
입주기업	28개사	22개사	58개사
운영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대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광주테크노파크
구분	대구(수성)	대전(동구)	충북(청주)
위치	알파시티로 160	대동 549번지	양청리 810-13번지
규모 (대지,연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 (5,062㎡, 13,095㎡)	지하 2층, 지상 7층 (4,150㎡, 15,550.71㎡)	지하 1층, 지상 6층 (4,000.3㎡, 8,397.49㎡)
공사준공일	'19. 3.	'20. 3	'19. 12.
입주기업	32개사	13개사	31개사
운영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경제특상진흥원	한국산업진흥협회

표 II-1-1-31 | 건립중인 지식산업센터 현황

구분	2차 ('15.~'18.)	3차 ('16.~'19.)	4차 ('17.~'20.)	5차 ('18.~'21.)	6차 ('19.~'22.)
지역	대전(동구) 대구(수성구) 진주(망경동)	대구(달서구) 청주(오창읍) 전주(덕진구)	포항(북구) 울산(남구) 전주(완산구)	부산(남구)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남(고흥)	전남(나주) 전남(영광) 울산(중구) 경남(창원) 전북(남원) 강원(춘천)
진행사항	운영중/공사중	운영중/공사중	공사중	공사중	설계중

건립중인 16개 센터는 2차부터 6차까지 선정된 지자체로서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소규모 영세기업에게 장기저가로 임대해주어 입지애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통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 관련 기업에 대해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 업종을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업종별

집단화를 통해 집적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입주기업 간 또는 입주기업과 외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간 소통, 교류 등을 위한 네트워킹 및 개방형 혁신 공간 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지역의 창조경제 자원과 역량을 연계·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등 지역기업의 성장을 밀착지원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빛가람(니주), 포스코(포항) 2개 기관에서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인력은 내부직원 및 지자체, 전담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파견 나온 인력을 포함하여 평균 3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지원으로는 멘토링, 금융·법률·특허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공모전 교육·강연, 투자 설명회 등 창업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파트너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17년 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관리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되면서 지역 창업기반 마련과 혁신문화를 확산하는 등 긍정적인 시각과 정부주도 운영과 인위적 대기업과 창업기업의 연계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여 「혁신 창업 생태계조성방안」(‘17.11.2.),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18.2.7.)을 통해 혁신센터를 유지하되,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3대 원칙으로 운영하는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개편방향이 마련되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

구 분	현 행	개 선
의사결정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지원체계	대기업 경직적 매칭(일방지원)	중견·벤처, 대학 등 자율참여(상생협력)
지자체 참여	자율적 참여 부족	적극적 참여·협력
센터 기능	창업, 중기지원, 특화산업 지원 등 일률부여	초기창업 + 투자기능 집중, 센터별 특화

개편 이후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민간의 다양한 혁신주체('19.12월, 388개)들이 참여하여, 각 센터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파트너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등 지역에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간 소극적으로 참여하던 지자체들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스스로도 지역의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해 시드머니 확보, 개인투자조합 및 지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유망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등에 착수하는 등의 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림 3 | 국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기업 및 특화기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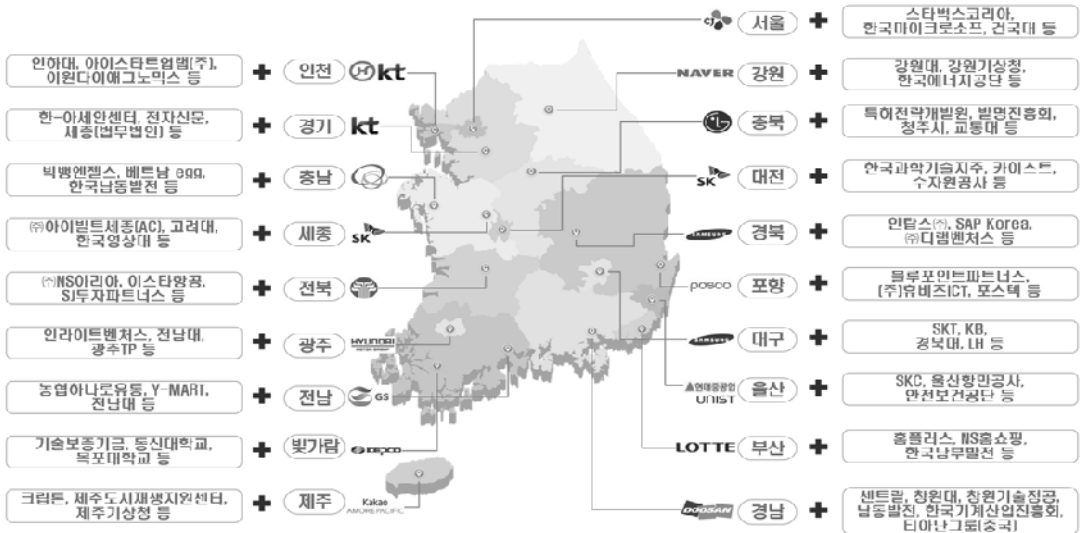


표 II-1-1-32 |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주요기능

지역 (전담기업)	출범	입지	주요 기능
1 대구 (삼성)	'14.9.15	• 북구 구삼성창조 캠퍼스	- 섬유,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 등 지역산업 지원 - 창조경제단지 등 창조경제 공간 조성 - C-lab 프로그램 등을 통 창업 지원
2 대전 (SK)	'14.10.10	• KAIST 나노팹센터	- 벤처 육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ICT·에너지·반도체 등 지역산업의 첨단화 - 출연연·대학·전담기업 보유기술 공개 및 사업화

	지역 (전담기업)	출범	입지	주요 기능
3	전북 (효성)	'14.11.24	•전주시 서광빌딩	- 탄소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 전통문화·농생명 자산 활용 창업 및 사업화 - 기술금융 종합지원 체계 구축
4	경북 (삼성)	'14.12.17	•구미 금오 테크노밸리	- 노후단지의 창조산업단지 전환 지원 - 중소기업의 신사업 영역 개척 지원 -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화 지원
5	광주 (현대차)	'15.1.27	•KDB 빌딩	- 자동차 산업 창업 중심지로 육성 - 수소경제 진입의 주도적 역할 -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 사업 추진
6	충북 (LG)	'15.2.4	•청주오송읍 SB플라자	- K-beauty, 의료기기 등 바이오 창업 지원 - 친환경 에너지사업의 산업화 - 특허지원창구 설치 및 확산
7	부산 (롯데)	'15.3.16	•해운대구 센텀그린타워	- 기획·마케팅 등 상품성 제고 및 유통판매망 지원 -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 스마트시티 연계, IoT 스타트업 육성
8	경기 (KT)	'15.3.30	•성남 판교 공공지원센터	- ICT융합 신산업 창출 - 창조경제의 글로벌 진출 허브 -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중소·벤처 육성
9	경남 (두산)	'15.4.9	•창원시 경남 과학기술진흥원	- 메카트로닉스 허브 - 대체수자원 산업 육성 -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
10	강원 (네이버)	'15.5.11	•강원대 보듬관한빛관	- 빅데이터 산업의 요람 -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구축 - 관광, 헬스케어, 농업 등 혁신 지원
11	충남 (한화)	'15.5.22	•천안아산역사, 충남TP	- 충청권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 전국 혁신센터의 무역 허브 - 농수산품의 고부가가치화, 판로 확대 지원
12	전남 (GS)	'15.6.2	•여수 GS 밸류센터	-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의 통합 거점화 - 웰빙 관광산업 육성 -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13	제주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15.6.26	•제주 벤처마루	- 문화와 SW가 융합한 창조허브 -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 에너지 신산업 육성
14	세종 (SK)	'15.6.30	•조치원을 SB플라자	- 농업+ICT '창조마을' 고도화 - 스마트 로컬푸드, 두레농장 등 도농상생 실현 - 대덕단지 협업, 스마트 농업벤처 육성

	지역 (전담기업)	출범	입지	주요 기능
15	울산 (현대중, UNIST)	'15.7.15	• 남구 벤처빌딩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재도약 - 첨단 의료자동화를 신산업으로 육성 - 지역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
16	서울 (CJ)	'15.7.17	• 용산 푸르지오써밋	- 민간 창업·혁신 네트워크 구축 - 도시 생활스타일 분야 사업화 지원 - 전국 혁신센터 연계 거점
민간	인천 (한진, KT)	'15.7.22	• 송도 미추홀타워, 남구 제물포 스마트타운	- 첨단 물류 기반 신산업 창출 - 중소·벤처 수출 물류 지원 - 중국 진출 플랫폼 구축
	포항, 광양 (포스코)	'15.1.30 (포항)	• 포스텍 제1융합관	- 에너지·환경·소재 분야 벤처 창업 및 강소기업 육성 - 에너지절감형 ECO 산업단지 조성 - 첨단소재 클러스터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15.8.25 (광양)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 광양연구소	- 첨단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 - ECO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부산물 제로화 추진
	나주 (한전)	'17.2.8	• 나주 지식산업센터	- 에너지신산업 육성 - 에너지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6:4 비율 내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9년도에는 국비 380억원, 지방비 237억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이후 기능 개편 등을 통해 창업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다양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이는 중기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가 강화되고 활성화된 결과이다.

표 II-1-1-33 |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성과('19.12월 말, 누적)

창업기업육성	신규채용	혁신센터펀드 및 투자유치	외부연계투자유치 투자유치	멘토링·법률·금융·IP 상담지원
6,413개사	17,991명	2,576건	16,878억원	68,871명

마. 메이커 활성화 지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구현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의 혁신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메이커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창업 토대 마련을 위한 혁신 성장 거점을 위해 2017년 11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을 수립·발표한 후 2018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시작하여 '19년 현재 전국에 총 126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였다.

2019년 공모를 통해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을 지원하는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60개와 전문 창작활동과 제조창업을 연계 지원하는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3개를 선정하여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시제품 제작, 양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1-1-34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9년말)

(단위 : 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전문형	3	1	-	-	1	-	-	-	1
일반형	22	19	5	5	5	2	7	6	5
구분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계
전문형	-	-	-	1	1	-	-	-	8
일반형	5	7	4	5	7	5	7	2	118

또한 '19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병행하여 메이커 문화의 사회적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메이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 강사, 교사 등 메이커 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679명에 대한 메이커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154개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메이커 동아리 지원과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 기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등 총 166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특히 태백시, 삼척시 등 탄광지역의 도시재생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 폐자원을 활용한 목공체험 등의 교육 운영, 이동형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동형 시제품 제작소” 웹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총 1,930여명에게 메이커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국·지역 단위 20개 메이커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인 메이커 운동 붐 확산을 유도하였다.



메이커 전문가 교육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메이커 밋업데이

앞으로 정부는 누구나 쉽게 메이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디지털 장비 등을 구비한 실험적 제작 교육 공간 뿐만 아니라 창의융합인재의 실전 활동과 참여자들간의 지식·정보가 선순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공간 기능을 갖춘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은 물론 메이커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혁신성장 및 창업저변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퇴직의 본격화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조기 퇴직한 중장년(4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년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창업지원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창업을 할 경우 대부분 영업부진,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생계형 자영업(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등)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이 퇴직 전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 창업 활성화 정책을

2010년부터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는 교육내용 및 사업구조를 기술창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장년 창업이 생계형 업종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성장가능성 높은 기술 창업으로 중장년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경력·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만40세 이상 중장년(예비) 창업자의 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거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장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전문가 자문·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전국에 7개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25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중장년의 전문성을 고려, 창업만이 아닌 창업생태계에 적합한 역할(기술멘토, 기술강사, 투자자 등)로 참여하고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9년 맞춤형 기술창업 교육과 입주공간 지원 및 보육을 통해 957개사 창업기업 배출을 했고, 입주공간 지원 및 보육을 통해 매출액 604억 원, 고용 437명을 달성했다. 2019년부터는 중장년(예비)퇴직자가 축적한 노하우와 역량이 창업생태계 내에서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창업뿐만 아니라 멘토, 투자자 등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표 II-1-1-35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19)

구 분	창업자수	고용인원	매출액	산업재산권 (특허등록기준)
2017년	보육 : 791명 교육 : 250명	487명	52,200백만원	196건
2018년	보육 : 741명 교육 : 412명	549명	62,084백만원	237건
2019년	보육 : 748명 교육 : 209명	437명	60,397백만원	307건



예비퇴직자 기술창업 인식교육



투자 역량 강화교육



전담인력 통합워크숍

5

1인 창조기업 활성화

▪ 창업촉진과 고 종 현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자가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대표(공동사업자)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기술지식 기반 1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1년 법을 제정하고 '19년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 센터,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 공간 제공 및 전문가 상담·교육·네트워킹 등 원활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09년 전국에 21개의 센터를 지정하였고, '19년 50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2019년 50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1,488개사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1,632건의 경영 자문과 교육 및 세미나(10,533명 참석), 네트워킹 프로그램(34,482명 참석)을 운영하였고, 708명의 고용 창출 및 1,331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II-1-1-36 | 2019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년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강원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소계
19	13	2	8	23	2	4	4	1	4	3	2	1	1	3	2	27	50

표 II-1-1-37 | 비즈니스센터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시행주체
사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데스크 (1인 전용 사무공간, 서비스드오피스) 편의시설(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프린트, 카페 등)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등, 아이템 시장 멘토링 교육, 사업 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정보제공 등 	주관기관
교육·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모델(BM) 개발 (사업계획서, 피보팅 등)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네트 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확대 1인 창조기업-우수창업기업 간, 입주-졸업기업간 	전담기관 주관기관

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1인 창조기업에게 맞춤형 마케팅 및 다각적 판로채널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 준비 지원을 위해 기업당 최대 20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마케팅 세부과제는 멀티미디어, 디자인, 광고 홍보 등 1인 창조기업들의 보유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표 II-1-1-38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구분	과제	세부 지원 분야
마케팅 지원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CM송제작
	디자인	전자·종이카탈로그, 포장·포스터·제품디자인, 브랜드개발
	광고 홍보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표 II-1-1-39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단위 : 억원, 개사, 명)

연도	예산	신청	선정	고용
2016	51.9	2,081	463	314
2017	40.0	1,829	437	752
2018	29.0	1,320	279	416
2019	15.0	1,432	150	198

또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활동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혁신제품들이 다각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상품설명회, 구매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마켓 입점 등을 통한 유통채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품설명회·구매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인도네시아, 중국)



온라인 마켓(위메프)
기획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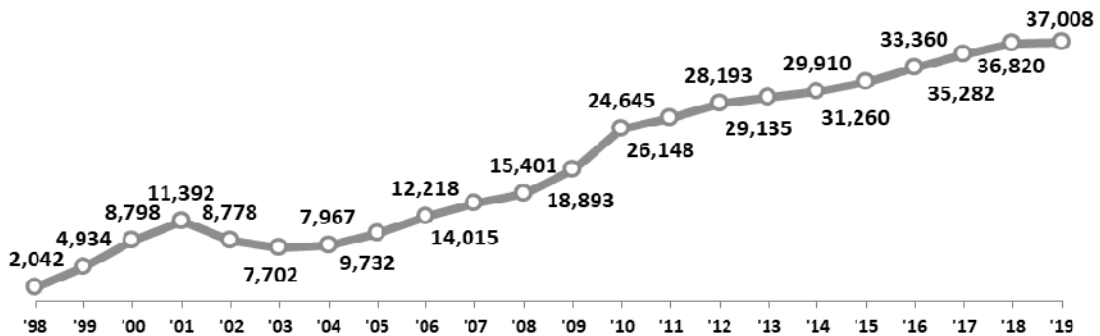
제2절 벤처열기 확산을 통한 혁신벤처국가 실현

1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

- 벤처혁신정책과 김 성 훈
- 벤처혁신정책과 성 흥 석
- 벤처혁신정책과 강 성 원
- 벤처혁신정책과 김 태 완

그동안 벤처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3만개를 돌파하였으며, 2019년 12월 말 기준 37,008개를 기록하고 있다. 벤처확인이 최초로 시작된 1998년 2,042개에 비해 18.1배로 성장하였다.

그림 4 |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단위 : 개)



벤처생태계 성숙에 따라 유니콘기업도 '17년 3개, '18년 6개에서 '19년 11개로 급증하였다.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를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아 벤처 투자를 유치한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사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고 그 금액이 자본금 대비 10%(문화컨텐츠 7%)이상 되거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상태에서 R&D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비중이 5~10% 이상이고 사업성 우수평가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8천만 원 이상 보증·대출을 받고(보증·대출 가능 결정 포함) 그 금액이 총 자산대비 5%이상이고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아야 한다.

'19년 벤처확인기업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보증과 대출을 통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각각 73.5%, 13.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II-1-2-1 | 유형별 벤처기업수(2019년)

구 분	합 계	벤처투자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연구개발	예비벤처
업체수(%)	37,008(100)	2,158(5.9)	27,193(73.5)	4,843(13.1)	2,686(7.3)	101(0.3)

가. 벤처기업 성과

벤처기업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성장률, 이익률 등의 면에서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18년도 12월 말 기준 매출액 성장률은 7.9%로 대기업(2.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로 일반중소기업(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1-2-2 | 벤처기업 성과('18년 기준)

구 분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기업수(개)	36,065	3,809,011	4,712
매출액 증가율(%)	7.9	5.9	2.7
매출액 영업이익률(%)	4.0	3.5	7.2
수출액(억불)	192	1,052	3,974
고용인원(만명)	71.5	1,588	182

또한 창업 이후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매출 1천억 원 이상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벤처출신 매출 천억 달성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74개였던 매출 1천억 원 이상 벤처천억기업은 2018년 587개로 2015년 대비 113개사 증가했다. 1조 벤처천억기업도 2015년 6개에서 2018년 11개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8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네이버(주)는 10년 연속 1조원의 매출을 유지했다. 그 외 1조 벤처천억기업은 웅진코웨이(주), 유라코퍼레이션(주), 성우하이텍(주), 엔씨소프트 등이 있다.

2018년 벤처천억기업들의 총매출액은 134조원으로 2015년 101조원에 비해 32.7% 증가하였으며, 벤처천억기업들 중에서는 매출액 1~2천억 원 미만 기업이 대다수(66.0%)를 차지하였다.

표 II-1-2-3 | 연도별 벤처천억기업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업수(개)	202	242	315	381	416	453	460	474	513	572	587
매출액(조원)	40.1	47.8	65.1	77.8	89.2	101.2	98.9	100.9	107	130	134

4차 산업 혁명 추세를 반영하고, 벤처기업 지속성장과 기업의욕 고취를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중인 벤처확인제도는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 선별방식으로 제도 안정성, 벤처기업 확산에는 기여했으나, 급격한 기술혁신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18.1월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을 통해 벤처확인 주체를 기존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하고 기술혁신성 및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벤처확인 하도록 유형을 개편하는 세부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8.11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밖에 '18.5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한 업종을 유종성·사행성 관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폐지하였고 '18.10월에는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추가하는 등 혁신기업이 벤처로 선별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나. 벤처기업 지원현황

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0.9%('18, 3.6만개/381만개)에 불과한 수준이나 전체 고용인원의 4.1%('18, 72만 명/1,771만 명), 전체 수출액의 3.2%('18, 192억불/6,050억불)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 및 사업성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평균 근로자수는 20명('18)으로 일반 중소기업(4명)

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결과, 벤처기업 평균업력은 10년이고, 기업 성장 단계는 고도성장기가 38.4%(13,84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성숙기 28.5%(10,262개), 초기성장기 26.5%(9,573개), 창업기 4.3%(1,551개), 쇠퇴기 2.3%(836개)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 및 운용 애로’가 5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판로개척 애로’ 54.7%, ‘필요인력 확보 및 유지’ 54.0%, ‘해외시장 개척’ 53.3%,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1) 벤처기업 인력지원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벤처기업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은 벤처기업들의 부정기적인 소규모 개별모집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기업별 수요를 모으고 기간을 정하여 공동으로 인재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채용기업들의 자격을 매출액, 성장률, 연봉수준이 높은 우수한 벤처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대학생 등의 관심 유도과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효과도 피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벤처기업 3,608명을 채용하여 당초 채용목표인 3,585명을 초과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축소된 예산 규모 대비 채용목표 인원을 3,490명으로 계획이다.

공동훈련 지원사업은 벤처기업 신입 직원들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이해와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총 413명을 교육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벤처기업 인력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조사한 결과 비수혜기업 대비 수혜기업의 매출증가율은 지원 당해에 5.5%, 지원 1년차 6.8%, 지원 2년차에 4.1%이며, 고용증가율 역시 지원당해 4.9%, 지원 1년차 5.6%, 2년차에 5.3%이며, 지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벤처기업 경영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벤처 활성화

여성벤처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말 기준 3,579개사로 전체(37,008개사)의 9.7% 수준에 불과하여 경쟁력 제고와 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균형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벤처CEO를 꿈꾸는 예비창업자에게 비즈플랜 캠프 → 선배 CEO 밀착코칭 → 사업화 에로해결지원 등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실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실전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이 여성벤처 선배CEO 1:1 코칭을 통해 부족한 시장정보를 얻고 사업방향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15~'19년) 총 120명(83.6%)의 창업자를 배출했으며, 특히 '17년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83.3%(20개사/24개사)로 나타나, 3년차 창업기업 평균 생존율 42.5%보다 1.9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성벤처 CEO 및 인직원 대상의 혁신아카데미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기술 및 경영관련 정보 등을 제공,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총 776명이 참가했다.

2020년에는 비즈플랜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여성벤처 선배CEO와 매칭 사전 네트워크 미팅을 통해 창업자에 적합한 선배CEO와의 매칭 및 선배 CEO의 노하우 전수와 시장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등의 밀착 코칭을 지원하고, 여성벤처기업 혁신을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변화 트렌드에 맞춰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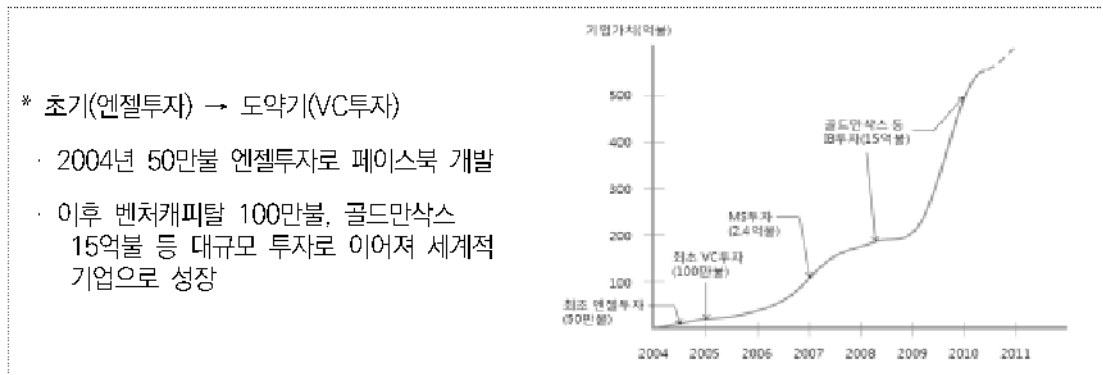
벤처투자 현황

- 투자회수관리과 신 규 호
- 투자회수관리과 윤 원 민

벤처투자는 담보나 상환부담이 없고 성공시의 이익뿐만 아니라 실패시의 책임도 투자자와 함께 공유하는 특성이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에게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중 가장 유용한 자금이다.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투자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5 | 미국의 벤처투자 성공사례 : 페이스북



2019년 우리나라의 신규 벤처펀드¹⁰⁾ 조성 규모는 4조 1,105억 원으로 전년 4조 8,208억 원 대비 14.7% 감소하였으나, 신규 투자 금액은 2019년 4조 2,777억 원으로 전년 3조 4,249억 원 대비 24.9%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벤처투자 시장 활황은 이어지고 있다.

표 II-1-2-4 | 연도별 신규 벤처캐피탈투자(VC) 규모

(단위 : 개사,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투자업체수	613	688	755	901	1,045	1,191	1,266	1,399	1,608
투자금액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34,249	42,777

10) 벤처펀드 규모 및 신규투자 집계는 중기부에 등록하는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준임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소기업 용자 잔액 716.7조원('19년 말 기준, 한국은행) 대비 벤처투자 잔액은 1.7%수준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16%로 미국 0.62%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엔젤투자¹¹⁾의 경우 2018년 투자규모는 제1 벤처붐 시절인 2000년 5,493억 원 수준에 가까운 5,464억 원으로 2010년 341억 원 수준보다 약 16배이상 증가하였다.

표 II-1-2-5 | 미국-한국의 엔젤투자 규모 비교(2018년 기준)

구 분	미 국	한국
엔젤투자	83,858억원	5,464억원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엔젤투자협회, 2019yearbook NVCA(미국벤처캐피탈협회)

* 환율 : 1,118.1원/\$ 기준 (한국은행, 2018년말 종가기준)

11)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의 직접투자 및 개인투자조합 투자 기준

3

벤처투자 확대

- 벤처투자과 이 권 재
- 투자회수관리과 서 정 남
- 벤처투자과 이 주 창

가. 모태펀드 운영

정부는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중소기업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2019년까지 총 4조 5,217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2조 9,891억 원을 출자하여 66.0%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1-2-6 | 모태조합 조성 및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중진기금	8,351	320	700	800	1,000	2,020	1,000	8,300	4,500	2,900	29,891
문산기금	2,700	120	-	-	200	541	360	530	540	630	5,621
영화기금	110	460	450	400	100	100	100	180	100	80	2,080
관광기금	-	-	-	-	-	130	100	150	170	130	680
체육기금	-	-	-	-	-	200	200	70	100	100	670
특허회계	1,430	-	-	-	-	170	-	-	200	100	1,900
방발기금	100	-	-	-	500	500	370	200	150	150	1,970
고용노동	-	25	25	25	25	-	-	-	75	-	175
보건회계	-	-	-	200	300	300	-	-	-	-	800
환경회계	-	-	-	-	-	-	-	200	130	280	610
교육회계	-	-	-	-	-	-	-	120	150	150	420
주택기금	-	-	-	-	-	-	-	-	-	200	200
해양회계	-	-	-	-	-	-	-	-	-	200	200
계	12,691	925	1,175	1,425	2,125	3,961	2,130	9,750	6,115	4,920	45,217
누 계	12,691	13,616	14,791	16,216	18,341	22,302	24,432	34,182	40,297	45,217	

그간 모태조합을 통해 조성된 자펀드는 765개, 총 24조 8,617억 원 조성('05.6~'19.12월, 누계)이며, 총 6,035개사 중소·벤처기업에 18조 1,753억 원을 투자하였다.

2018년에는 모태조합에서 85개 벤처펀드에 9,978억 원을 출자하여 민간제안 펀드 6,800억 원 및 창업초기 4,400억 원 등 총 3조 32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였으며, 모태조합이 출자하여 조성한 펀드를 통해 1,523개사에 2조 4,34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하였다.

표 II-1-2-7 | 모태조합 자조합 결성 및 투자 현황('19년 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결성	55	21,576 (3,980)	68	21,056 (6,907)	70	26,121 (8,310)	98	34,402 (11,809)	86	31,455 (10,378)	93	26,909 (10,879)
투자	1,169	19,581	1,361	18,577	1,271	19,158	1,632	23,384	1,005	15,546	263	3,668

* () 안은 모태조합 약정 금액

2019년 신규 벤처투자액은 전년(3조 4,249억 원) 대비 24.9% 증가한 4조 2,777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5년 연속 투자금액이 증가된 수치이다.

이러한 실적 달성에는 모태조합의 역할이 컸다. 모태조합은 2019년 1조 879억 원을 출자하여 2조 6,909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는 2019년 전체 벤처펀드 조성액 4조 1,105억 원의 65.5%에 달하는 수치이다.

나. 엔젤투자 활성화

엔젤투자는 제1벤처붐 시절인 2000년에 5,493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전 세계적으로 IT 버블이 꺼지면서 엔젤투자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341억 원 까지 급감하였다.

이에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2017년 11월에 수립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라 엔젤투자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확대됐으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0%에서 70%로 확대됐다.

표 II-1-2-8 | 엔젤투자 소득공제 현황

기 존		현 행 ('18년 시행)	
1500만원 이하	100%	→ 3,000만원 이하	100%
1,500~5,000만원	50%	→ 3,000~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공제 대상기업도 기존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창업초기기업에서 연구개발비 3천만 원 이상 지출 창업초기기업,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을 추가하는 등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

2019년 3월에 수립한 「제2벤처분 확산전략」에서는 엔젤투자 확충을 위해 엔젤투자 연계보증제도를 시행하였고 엔젤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 대폭 확대 및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지분 인수시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선투자 후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는 2017년까지 1,920억 원을 조성하여 2019년 말까지 767건의 910억원 매칭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은 기업은 VC 후속투자까지 연결되며 성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19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로부터 투자 받은 기업의 약 29.8%가 벤처캐피탈로부터 총 3,383억 원의 후속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엔젤투자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가 발굴을 위해 전문엔젤제도를 2014년 7월에 도입 후, 2019년 말까지 143명을 발굴하여 창업초기기업 투자를 주도하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투자정보망을 개설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정보망을 통해 기업의 IR자료를 소개하고 투자자는 투자 대상기업을 손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엔젤리더스 포럼, 엔젤투자마트 등 오프라인을 통한 지원도 추진하였다.

또한, 엔젤투자 활성화 추진에 따라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 수는 2019년에 3,318명이 증가하여 총 21,175명에 이르렀으며, 엔젤클럽도 15개가 신규 결성되어 총 230개의 엔젤클럽이 활동 중이다.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전문 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5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하여 액셀러레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2017년 1호 등록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2019년 말에는 214개사가 등록하였고 수도권 등록 비중은 66.4%이다.

표 II-1-2-9 | 지역별 액셀러레이터 등록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전북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강원	제주	합계
기업	113	20	9	11	8	18	5	2.0	4.0	2.0	4	6.0	3.0	3.0	3.0	3.0	214
비율 (%)	52.8	9.3	4.2	5.1	3.7	8.4	2.3	0.9	1.9	0.9	1.9	2.8	1.4	1.4	1.4	1.4	100
	66.4														100		
				33.6													

* 년도별 등록현황 : '17년도 53개사, '18년도 80개사, '19년도 81개사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금액은 2017년 163억원, 2018년 491억원, 2019년 725억원으로 매년 투자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재원은 본계정 투자에서 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다.

표 II-1-2-10 | 연도별 액셀러레이터 투자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본계정	조합	소계	본계정	조합	소계	본계정	조합	소계
금액 (억원)	103 (63.2%)	59 (36.8%)	163 (100%)	211 (42.6%)	284 (57.4%)	495 (100%)	208 (28.7%)	517 (71.3%)	725 (100%)
기업 (개사)	83 (62.4%)	50 (37.6%)	133 (100%)	186 (45.8%)	220 (54.2%)	406 (100%)	186 (35.4%)	340 (64.6%)	526 (10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2018년 엔젤투자금액은 5,464억원으로 18년 만에 제1벤처붐 시절(00)에 근접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부터 시행된 세제 혜택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쳤고 전문엔젤과 액셀러레이터 등 전문투자가 그룹이 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표 II-1-2-11 | 엔젤투자 실적(신규)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투자자	28,875	674	542	889	1,147	2,641	4,450	6,699	10,978	4,539
투자건수	-	874	1,132	1,014	1,322	3,020	5,529	8,639	15,794	7,476
금액	5,493	459	580	617	989	2,053	2,585	3,230	5,464	2,220

4

회수시장 활성화

▪ 벤처투자과 이 주 창

2019년 글로벌 M&A 시장은 하반기에 저조한 그대로 인해 거래규모 기준, 전반기 대비 24.2% 감소하며, 전년도 대비 6.9%가 감소한 3조 3,300억 달러(약 3,948조원)를 기록하였다

국내 M&A 시장의 경우 거래건수는 456건으로 지난해 455건과 비슷했으며, 거래대금의 경우 2018년 527억 달러(약 63조원) 대비 14% 증가한 600억 달러(약 72조원)를 기록하였다.(출처 : Mergermarket (M&A 전문 분석업체))

벤처투자 회수는 전년(2조 6,780억원) 대비 약 13.3% 감소한 2조 3,222억 원이었으며, M&A를 통한 회수금액은 123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II-1-2-12 | 벤처투자 회수 규모(2019년)

(단위 :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벤처투자	17,965	26,780	23,222
M&A	573	670	123

*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는 사인 간의 거래로 거래추진 및 계약정보 공유를 절차상 정부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간 정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 인식개선 활동 및 지원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도입(13.5) 및 대상 확대(14.3),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에 따른 계열사 편입 유예 7년으로 확대(15.7), 벤처기업 재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및 창업·벤처기업 전용 PEF(사모펀드) 설립근거 마련(16.7)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을 통해 대기업이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M&A시 인수·합병대가로 50%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M&A에 대한 걸림돌을 완화하고 세제혜택 등 지원도 강화하였다.

2018년 2월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통해 기술자료 거래 시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을 의무화 하고, 기술 임치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공정위와 함께 M&A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12월에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하였고,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2019년 3월에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통해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20년 0.4조원 규모의 M&A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창업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공급중이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표 II-1-2-13 |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선안
< 설립요건 > ■ 자산규모 기준 ■ 벤처지주회사 범위	■ 5000억원 이상 ■ 벤처기업만 포함	■ 300억원 이상 ■ R&D 5% 이상 중소기업도 포함
< 행위제한 규제 > ■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 손자회사로 벤처지주설립시 증손회사 요건	■ 지분 5% 이내 ■ 증손회사의 지분 100% 보유 의무	■ 폐지 ■ 기존 증손회사 지분보유 특례(50%) 적용
< 인센티브 >	-	■ 대기업 편입유예 확대(7→10년)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M&A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現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삼일회계법인, 벤처기업협회 등 4개 기관을 M&A 지원센터로 공식 지정하여 M&A 관련 상담, 교육 과정 운영, 설명회 개최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4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5년 신용보증기금, 2016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은행, 한국M&A협회를 M&A 지원센터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자금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2개 기관이 지정 취소가 되어 7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M&A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M&A 거래소 역할이 가능한 전문 자문기관 간 거래 플랫폼인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을 2012년 7월에 오픈하여 본격 운영 중이다. M&A 거래정보망에는 벤처캐피탈·회계법인·법무법인·소형 M&A자문사 등 72개의 M&A 전문 자문기관이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M&A를 희망하는 매도·매수기업 5,489건이 등록되어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2019년 말 기준)

2012년 이후 491건의 M&A가 성사되는 등 M&A 거래정보망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거래정보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019년 말 기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M&A를 통한 신기술 획득 등 성장동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를 통해 2004년 이후 39개 조합 17,120억 원 규모의 M&A펀드가 결성되어 2019년 6월말까지 246개 기업에 12,307억원이 투자되었다.

이렇게 M&A는 기업입장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여 신속하게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압축 성장을 실현할 수 있고, 창업가의 원활한 회수를 통한 재도전과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촉진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제3절 재도전 환경 조성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 재도약정책과 박 정 은
- 재도약정책과 엄 충 섭
- 재도약정책과 김 현 희
- 재도약정책과 안 병 철

조사기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창업 후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인식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인재가 위험부담이 높은 기술창업에 나서기 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표 II-1-3-1 | 실패·패자부활에 대한 청년층 인식조사(오픈서베이, '18.1)

구 분	조사결과
창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	1. 적성이 아니라서(39.9%) 2.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서 (33.6%)

* 오픈서베이 만 19~34세 남녀 300명 조사

실패에 따른 재기가 어려운 환경의 원인으로 실패에 따른 과중한 채무, 신용등급 회복의 장기화, 후속 지원 프로그램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은 연대보증채무와 조세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재창업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활동도 제약되는 것이 현실로 폐업시 평균부채는 3.6억 원이고 평균체납액은 38백만 원에 달한다.(창업진흥원 조사, '17.1)

이러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소중한 사업 노하우와 실패 경험이 다시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창업 실패 이후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의 현황을 조사해 보면, 평균 창업 횟수는 2.47회, 평균나이 51세로 재기기업인의 40%이상이 차명으로 재창업하며, 사업정리부터 재도전까지 평균 5~6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재창업자금 지원기업 대상 조사, 2018년 증진공)

이는, 과거의 실패 기록으로 인한 제도적 장벽과 재창업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 정리부터 재창업까지 기간 중 상당기간이 과거 정리에 소요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으로 본인명의의 재창업보다 타인 명의를 활용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표 II-1-3-2 |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IBK경제연구소, '17.7)

구 분	조사결과
① 재창업 시 어려움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곤란(58.9%),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 불가(23.2%)
② 재창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사업자금 지원(36.8%),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22.6%) 조세지원(17.2%), 교육·상담(14.8%)

이에 따라 정부는 재기기업인의 실패부담을 완화하고 혁신 재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2019년 9월)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가. 재창업 교육

재도전 기업인들이 재도전 의욕을 고취하고, 과거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성공적 재창업을 될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재창업 교육은 2019년 사업연계형과 역량강화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연계형은 실패원인 분석과 사업계획 고도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역량강화형은 재창업자 특성을 고려한 심리치유와 힐링캠프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역량강화형은 재도전 기업인에게 심리치유를 통해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가 정신 등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재창업 교육은 2019년까지 총 1,27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나.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은 재도전 희망 기업인이 재기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재창업자금을 도입 운영 중이다.

이는 과거 실패 기록으로 인해, 민간금융 이용이 제한적인 재기기업의 애로를 감안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재도전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2019년도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1,20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사업성·기술성 등을 평가하고 업체당 최고 60억 원(운전자금 5억 원) 이내로 재창업 시 소요되는 시설(10년 이내) 및 운전자금(6년 이내)을 융자 지원한다.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지만 민간금융 및 일반 정책자금의 활용이 어려운 재도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표 II-1-3-3 |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재창업자,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자 -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은 자 	직접 대출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 10년(4년거치 6년상환) - 운전자금 : 6년(3년거치 3년상환)

재창업자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4,184개사에 총 6,3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창업자금 상담, 교육, 멘토링 등 연계지원을 통하여 재창업 자금 지원기업의 3년차 생존율이 2015년 50.0%, 2016년 61.5%, 2017년 71.9%, 2018년 75.1%, 2019년 74.9%로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창업자금 규모 확대 및 연계지원 강화를 통해 재도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1-3-4 | 재창업자금 연도별 지원 실적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지원기업수(개사)	15	90	131	263	376	502	576	710	708	813	4,184
지원금액(억원)	15	124	202	406	513	700	1,000	1,000	1,200	1,200	6,360

변화된 기업 환경에 맞춰, 재창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R&D 사업도 2013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3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27개사를 선정·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사업

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과제당 1.5억 원을 한도로 총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하였다.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우수 재창업자를 발굴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2015년도에 신설하여 35억 원으로 59개시를, 2016년도에는 53억 원으로 98개시를, 2017년에는 150억 원으로 298개시를, 2018년에는 150억 원으로 284개시를, 2019년에는 178억 원으로 297개시를 지원하였다. 예비재창업자나 재창업 3년 이내(투자연계형은 재창업 7년 이내)인 재기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75%(최대 1억 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재창업 전용 보육공간(R-Camp)을 6개 주관기관에 신설하여 멘토링과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재창업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 확장되는 시전에는 재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재창업에 성공하더라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다만, 이 시전에도 신용등급의 상향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민간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14년 169억 원, 2015년 150억 원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였다. 조성된 펀드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재도전기업에게 적극 투자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추경으로 조성한 3,305억 원 재기지원펀드도 11개 운용사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경영위기기업의 발굴 및 회생 지원

건강관리 시스템과 진로제시·회생컨설팅 등을 운영하여,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사전발굴 및 치유 등을 지원하고 있다.

1) 진로제시·회생컨설팅 및 구조개선계획수립 운영

연간 370개사 내외의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심층진단하고, 회생 또는 청산 등 향후 진로를 제시하는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회생컨설팅’을 통해 법적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구조개선 및 회생 또는 사업전환, 폐업 등의 적절한 진로를 적시에 제공한다.

2019년에는 총 27억 원, 95개사를 지원하였으며, 구조개선전용자금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회생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조개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을 신규로 30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완료했으며, 해당사업은 사업구조개선, 생산구조개선, 재무구조개선, 조직구조개선 등의 구체적 계획수립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컨설팅 비용 최대 3천만 원 지원)

아울러,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2014년 서울에 첫 설치 이후 2015년 부산, 대전에, 2016년 인천, 대구, 광주, 경남에, 2017년 경기, 서울서부, 2018년 전북, 강원, 울산, 경기북부에, 2019년 충북, 경북, 제주, 전남, 충남 추가 개소하여 전국에 총 18개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도전 기업인에게 재기 상담부터 신용회복, 컨설팅, 회생, 사업정리, 재창업 등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기능보강 및 홍보강화를 통해 재도전지원정책의 허브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2)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

300억 원 규모의 구조개선 전용자금을 신설(2015년)하여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강도 높은 자체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低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 금융권에서 사실상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경영 정상화를 돕고 있다.

라.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FTA 피해기업 구제

1)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2006년 3월 제정하여 같은 해 9월에 시행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외부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존 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컨설팅·유희설비 유통지원·세제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지원은 사업전환컨설팅 후 사업전환계획 승인, 정책 자금 융자의 구조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1-3-5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사 업 전 환 내 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00% 완전전환
업종추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신규 업종 매출액 또는 상시 종업원 수 30% 이상 전환

*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 제2조)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사업전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총 10개사에 사업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총 100개사에 대해 사업전환 계획을 신규로 승인하였다.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2019년 총 221개사에 사업전환자금 973억 원을 지원 하였다. 사업전환계획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승인업체 100개사 중 업종 추가가 97.0%인 97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업종전환이 3%인 3개사이다.

표 II-1-3-6 | 사업전환 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 분	계획승인	자금융자		컨설팅		R&D	
		기업수	지원액	기업수	지원액	기업수	지원액
2006년	104	62	300	39	3.8	-	-
2007년	173	177	1,090	88	11.5	41	30
2008년	237	230	1,148	152	23.1	31	28
2009년	211	280	1,470	60	7.1	30	25
2010년	184	265	1,467	27	4.7	-	-
2011년	179	249	1,473	46	6.5	-	-
2012년	179	297	1,635	46	4.0	-	-
2013년	163	324	1,617	50	6.6	-	-
2014년	200	317	1,596	52	6.8	-	-
2015년	99	225	1,026	57	7.7	-	-
2016년	169	273	1,158	11	1.4	-	-
2017년	125	242	1,148	13	1.9	-	-
2018년	107	248	1,208	8	1.1	6	7.8
2019년	100	221	973	10	1.3	6	7.2

2018년 사업전환 종료기업 104개사(2015년 4/4분기~2016년 3/4분기 사업전환 승인기업 중 정상 추진기업)를 대상으로 3년간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사업전환 전보다 총매출액은 15.2%, 고용은 8.3%, 수출은 7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전환사업은 총 매출액의 28.1%, 수출액의 9.6%, 고용·인력의 36.2%를 차지하는 등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시적 경영성과를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가 기업이 외부의 환경변화 분석과 자사의 핵심역량을 진단하여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선제적인 위기관리에 매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자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과 신산업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업종의 매출액 비율(30% 이상)에 관계없이 사업전환 신청이 가능(운영요령 개정, '19.10)

2) FTA 피해기업 구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FTA 등 무역환경의 개방 확대로 많이 변화되고 있으며, 2007년에 무역조정지원사업을 도입하여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내수기업의 신속한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센터는 중진공에 설치되어, 2007년 4월 사업 개시 이후 2019년까지 211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약 724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FTA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엄격한 지정요건, 홍보 부족 등으로 사업초기에는 중소기업의 활용이 저조하였으나, FTA피해기업이 동 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라디오광고와 인쇄대체, 우수사례집 제작 등 종합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무역조정지원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제도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더불어 '19년에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고객으로 관리를 실시하였다. FTA 활용 기업간담회(2회) 개최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파악 및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표 II-1-3-7 |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용자지원 실적

(단위: 업체수, 백만원)

구분	2008~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기업 지정	39	26	17	24	39	28	38	211
용자 지원	11,534	10,320	9,360	9,120	10,130	9,204	12,740	72,408

최근 5년간 무역조정지원 수혜기업을 대상(2014년~2018년 지정기업)으로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정연도 대비 2019년도 매출액이 평균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FTA 무역피해 기업 지원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 기업금융과 윤성웅
- 재도약정책과 안병철
- 재도약정책과 김현희
- 재도약정책과 엄충섭

가.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부담 완화

연대보증 폐지는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이로요인으로 제기되어 왔다. 연대보증은 부족한 담보력을 신용으로 메우으로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 실패 시 부담해야 할 과도한 채무는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을 2012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이를 통해 개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폐지 하였으며,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최대주주 등 공식적 지위에 있는 책임자 1인만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

이후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전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7년 8월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는 업력에 관계없이 신규 융자·보증 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2018년 9월부터는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추어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표 II-1-3-8 |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경과

주요 내용	시 기
제3자 연대보증 제도 전면 폐지	제1금융권('12.5), 제2금융권('13.7)
우수기술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정책금융기관('14), 18개 민간은행('14.8)
평가 우수기업 연대보증 면제	중진공('15.1)
창업 5년까지 연대보증 면제	신·기보('16.2)
창업 7년까지 연대보증 면제	중진공, 신·기보, 지역신보('17.8)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II-1-3-9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면제제도 활용 실적

구 분	실 적
중진공	(‘17) 7,924억원 → (‘18) 21,235억원 → (‘19) 24,999억원
신보	(‘17) 11,644억원 → (‘18) 55,855억원 → (‘19) 77,831억원
기보	(‘17) 9,625억원 → (‘18) 35,661억원 → (‘19) 39,473억원
지역신보	(‘17) 7억원 → (‘18) 6,493억원 → (‘19) 9,094억원
소진공	(‘17) 0억원 → (‘18) 814억원 → (‘19) 1,809억원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정책금융기관(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조5천억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1조원을 기관별로 관리종결(소각) 하였다.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30~90%까지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중소기업인은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향후 기존 연대보증의 단계적 폐지의 차질 없는 진행과 부실채권의 적기 정리 등을 통해 실패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신속한 회생 지원

경영위기가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 법적인 제도인 회생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제도 활용기업의 대부분(93%, '13년 기준)이 중소기업인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려 중소기업의 이리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 회생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13년 10월)에서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사위원을 기존 회계법인에서 법원사무관 등으로 대체하는 간이조사 위원 제도 적용, 회생계획안을 의결권 총액의 50%(기존 66%)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시 의결토록 해주는 등 간이회생제도 시행으로, 전반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간이회생제도 시행으로 종전에는 회생인가까지 평균 8.6개월 걸린 기간은 80~100일로, 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법원 예납금 또한 1,500만원 내외에서 300만원으로 기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하였다.

아울러 기존 개인 회생 시 채무 변제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법률이 2017년 12월 12일자로 개정되어, 사업실패 이후에도 빠르게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다. 신용회복 및 부정적 신용정보 관리 체계 개선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실패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시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용회복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중인 중소기업인이 신용회복을 신청할 경우 도덕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채무를 조정(이자 : 전액, 상각채권 원금 : 최대 70% 감면, 정책금융기관은 최대 75% 감면,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하고 있다.

표 II-1-3-10 |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내용

대 상	지원 내용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30억원 이하 채무 보유 중소기업인	이자 전액, 상각채권 최대 70% 이내에서 원금감면 (정책금융기관 최대 75%)	조정 후 채무 기준 - 2억원 이하 : 최장 3년 - 2억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기간 중 무이자)	조정 후 채무 기준 - 2억원 이하 : 최장 8년 - 2억원 초과 : 최장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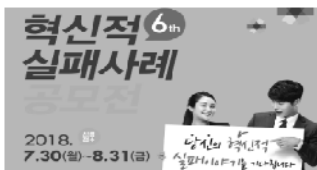
재창업지원위원회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는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을 통해 30억 원 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1월부터는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재창업기업은 정부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을 인정받은 점을 감안, 과거 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재기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신용정보와 연체기록 삭제를 확대 적용하여 신용등급 개선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세의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유예 제도를 시행하여,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애로를 해소하고, 상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 각각 9개월, 12개월인데 비해 재기기업인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산이 없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2017년도 말 이전에 폐업을 하고 2018년도에 재창업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체납 조세를 소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었다.

또한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고 성실한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시행중이다. 다만 아주 오래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17년 10월말부터는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혁신적 실패사례공모(19.7.30~8.31)



실패박람회(19.9.20~9.22)



재도전의 날(19.11.30)

제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촉진

1

근로자 임금상승 및 근로환경 개선

- 인력육성과 여 운 상
- 일자리정책과 최 승
- 인력육성과 황 진 아
- 일자리정책과 장 상 만

그 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하면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과 노동자 등에게 성장의 과실이 전달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 하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 보다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선진 외국 등에서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 아래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2-1-1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수준

구분	1997	2007	2015	2016	2017	2018
중소기업(천원)	1,344	2,426	3,110	3,228	3,350	3,494
대기업(천원)	1,739	3,744	5,017	5,131	5,145	5,474
대기업 대비 중기 임금수준(%)	77.3	64.8	62.0	62.9	65.1	63.8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1:2 비율(핵심인력 720만원, 기업 1,500만원)로 5년 동안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공동 적립금 2천만 원 이상을 성과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동 사업은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된 지 6년째로 중소기업 18,858 개사, 핵심인력 근로자 47,510명이 가입('19.12월 기준, 누계)하였다.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15~34세 이하) 등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개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등이 추진되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체제로 기업(월 20만원, 5년), 근로자(월 12만원, 5년), 정부(1,080만원, 3년)가 공동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만기 시(5년) 청년근로자에게 전액(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다.

〈 적립구조 〉

(단위 : 만원)

구 분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본인납입	720	매월 12 × 60개월 = 720								
기업적립	1,200	매월 20 × 60개월 = 1,200								
정부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유입, 우수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의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가 기업과 핵심인력 근로자간 적립을 하는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적립금(1,080만원)이 추가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중소기업 26,052개사, 청년근로자 73,389명이 가입('19.12월 기준, 누계)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술력 및 노하우 축적, 기술전수를 취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공제기간 5년)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6년부터 만 34세 미만의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3백만 원, 기업 4백만 원, 정부 9백만 원의 적립으로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던 2년 만기형 청년내일채움공제(1,600만원)를 다양화하여, '18년에는 기업·근로자(600만 원), 정부(1,800만 원)가 공동 적립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11.6만여 개사에 청년근로자 25만 명 이상이 가입('19.12월 기준, 누계)하고 있다.

그림 6 | 내일채움공제



나. 성과공유제 도입 및 확산

청년층 등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단기간 내에 시장 시스템을 통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차이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대기업 100, 고용부, '19년): 정액급여 73.0%, 특별급여 24.5%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18년부터 본격 도입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18.6월)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미래성과공유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정의하고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우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 유형 정의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가 ‘18.9월에 제정되었다.

〈 성과공유 유형 〉

구분	성과공유 유형
성과급	①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약정 (현금) 성과공유 상여금 (주식) 우리사주
성과보상공제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임금수준의 상승	③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연도 평균 임금증가율 보다 높을 것
우리사주 제도 운영	④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복지기금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⑦기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한편, ‘18년부터 성과공유 교육, 성과공유 도입 컨설팅, 유형별 표준안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19.2월 제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성과공유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로 법인세 10%,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2018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체 기술개발 애로요인의 하나로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및 잦은 이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인력확보에 필요한 자금, 즉 인건비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 애로요인: 기술개발 자금부족(36.6),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및 잦은 이직(18.3), 기술정보 부족 및 획득 어려움(14.3) 순 ('18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 정부가 중점 지원해야 할 기술인력 정책: 중소기업현장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20.7%), 전문 기술인력 양성 후 중소기업 파견 지원(19.4%) 순으로 확인 ('18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동 사업을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에 공공연 연구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업이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3년간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석·박사급 신규 연구 인력은 기준연봉(석사 4천, 박사 5천) 이상으로 계약할 경우에만 인건비 보조가 가능하다. 이처럼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 인력의 임금상승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동 사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신청자 수가 전년 1,323명 대비 급격히 증가(90% ↑)하였으며, 2,527명 신청자 중 428명이 선정되어 높은 경쟁률(5.9:1)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원인력을 활용한 기업은 기술개발 건수 및 R&D 투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기술경쟁력이 향상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 II-2-1-2 | 채용지원사업 경쟁률 현황

구 분	신진 석박사 채용			고경력 채용			합계		
	신청	지원	경쟁률	신청	지원	경쟁률	신청	지원	경쟁률
2016	534	317	1.7	459	123	3.7	993	440	2.3
2017	682	150	4.5	263	65	4.0	945	215	4.4
2018	824	437	1.9	499	41	12.2	1,323	478	2.8
2019	1,316	343	3.8	1,211	85	14.2	2,527	428	5.9

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 및 복지가 열악하다. 그로 인해 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체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 임금격차 : 대기업의 53%(월 임금기준, '1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 복지격차 : 대기업의 43%(월 복지비용기준, '18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결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여건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04년부터 주택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근로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표 II-2-1-3 | 우선공급 절차

주택확보	모집공고	추천신청	추천(확인)	입주자선정
사업주체	지방중기청	중소 근로자	지방중기청	사업주체

19년 10월부터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주택특별공급 공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mss.go.kr>, '19.10 구축)

동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장기근속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원활하게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표 II-2-1-4 | 연도별 추천실적

(단위 : 호)

구 분	계	추 천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임대	분양	임대
2017년	2,266	74	244	1,948	-
2018년	1,547	33	234	1,277	3
2019년	1,330	83	176	1,062	9

* '18년 4월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배정된 전체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추천 실적이며, '18년 5월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따로 구분하여 배정 및 추천

사업주체는 총 건설물량의 10% 범위내에서 국민주택 및 85㎡이하 민영주택을 기관별로 배정*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업을 추진하여 중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2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인력육성과 김 총 길
- 인력육성과 김 정 대
- 인력육성과 황 진 아
- 인력육성과 이 은 숙
- 일자리정책과 최 승
- 인력육성과 황 진 아

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정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육성계획(2007년, 교과부)에 따라 2008년부터 교과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¹²⁾(66개 전문계고)을 이관 받아 중소기업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산업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기술을 겸비한 중소기업 기술·기능 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2-1-5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개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2019
지원 예산	28,600	30,640	30,640	33,856	33,856
지원 학교	162	181	181	200	199

동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 인력공급의 주요 원천이었던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학생들의 기술·기능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산업분야와 연계한 예비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유입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부터 업종별 협·단체가 특성화고와 협력하여 공동교육·채용 행사를 실시하고 회원사 등으로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구인정보를 발굴하여 특성화고에 실시간 연계하여 취업매칭 하는 등 중소기업 구인수요와 특성화고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마련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인력양성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 특성화고 육성사업은 기존 교육당국에 의한 일괄관리·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2008년부터 업종별 인력수요 부처(국방부,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부, 특허청 등)가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 중

중소기업특성화고는 중소기업과 학교 간 산학협약 후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산학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업과 학생(교사)이 공동과제를 발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1팀 1기업프로젝트' 등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부진,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편(17.8)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다.

표 II-2-1-6 | 중소기업특성화고 맞춤형 취업률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취업률	88.9	95.6	82.8	76.3	68.8

이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실습 참여기업 감소 및 취업률 하락 최소화를 위해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19.1월)하여 추진 중이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적으로도 기업의 인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나. 기술사관 육성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을 연계한 4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규과정 외에 방과 후나 방학을 활용한 특약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높아진 기술수준에 맞는 숙련된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동 사업은 특성화고-전문대-중소기업 3자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단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특성화고(2년)는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실습, 기초 및 전공 소양을, 전문대학(2년)은 기술능력 강화를 위한 이론 및 기술심화 과정으로 운영하며, 동 사업을 통해서 참여 사업단(특성화고+전문대)에 학생연수비, 학생활동지원비, 강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내칭되어 교육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Uni-Tech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어 2018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신규 참여학생 선발을 중단하고 2022년까지 기존 참여 학생만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용부 Uni-Tech사업이 자체 중단함('17.9월)에 따라 사업간 유사중복 등이 해소되어, 2019년 국회 예산 심의('18.12월)시 '19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신규선발 등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어 사업이 재추진 되었다.

2019년도 졸업학년 참여 학생 316명 중 218명이 협약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며(취업률 69.0%, '19.2월말 기준), 219명이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취득률 69.3%, '19.2월말 기준)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 산업기사 취득률(%) : ('16) 55.6% → ('17) 66.2% → ('18) 62.2% → ('19) 69.3%

** 산업기능요원 복무비율(%) : ('15) 36.7% → ('16) 21.7% → ('17) 40.6% → ('18) 55.9%

표 II-2-1-7 | 기술사관 육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구 분	2014	2015	2016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	7,400	5,600	5,700	5,076	3,850	3,858	
지원 실적	학교	전문대 17 + 특성화고 35	전문대 17 + 특성화고 33	전문대 16 + 특성화고 28	전문대 15 + 특성화고 24	전문대 13 + 특성화고 23	전문대 12 + 특성화고 17
	학생	2,260	2,295	2,267	2,147	1,565	1,481
	업체	821	908	904	962	904	938

*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합한 금액

다.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을 연계, 산학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적합한 기술인재 양성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불일치를 완화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산학협력 지원 인프라 조성이 우수하고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있는 학생이 참여 가능한 전문대학을 선정하고, 중소기업-대학(졸업예정) 간 산학협력 운영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5개의 전문대학으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12개의 전문대학 참여하였으며, 2015년에는 15개의 전문대학이, 2016년~2018년에는 14개의 전문대학이, 그리고 2019년에는 22개의 전문대학이 참여하여 총 6,074명의 현장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였다.

2019년에는 현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 내칭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취업률이 감소하였으나, 참여 중소기업 및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대학연계 인력양성사업 만족도(’20.2월, 중소기업연구원) : 참여학생은 96%가, 참여기업은 99%가 동 사업에 만족

표 II-2-1-8 |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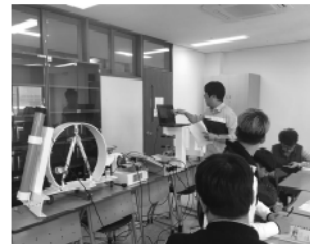
구분	예산	참여대학	협·단체	중소기업	양성학생	취업학생	취업률
2014년	2,500	12	46	745	830	613	73.9
2015년	3,000	15	30	756	820	604	73.7
2016년	2,800	14	26	756	776	580	74.7
2017년	2,800	14	37	709	778	638	82.0
2018년	2,800	14	36	933	838	697	83.2
2019년	5,760	22	38	1,551	1,705	1,198	70.3



전공동아리 활동 (특성학교)



협약업체 교육 (기술사관)



맞춤교육 (산학맞춤)

라.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대학원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현장중심의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석·박사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불일치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학원-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하는 현장실습,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인력양성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20억을 투입하여 7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2015년, 2016년에는 매년 40억을 투입하여 신규 5개 대학을 포함한 총 12개 대학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39억을 투입하여 11개 대학, 2018년에는 37억, 2019년에는 30억을 투입하여 10개 대학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까지 총 1,137명의 R&D 석·박사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였다.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을 통한 석·박사 연구인력의 취업률은 평균 약 88%를 달성하였고,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R&D 연구인력에 대한 인재 수급난에 큰 역할을 하였다.

표 II-2-1-9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

구분	예산	참여대학	참여기업	양성학생	취업률
2015년	4,000	12	57	230	90.4
2016년	4,000	12	57	233	91.0
2017년	3,900	11	57	200	88.0
2018년	3,790	10	54	200	83.6
2019년	3,000	10	95	146	-

* 2019년도 취업률 조사예정('20년 12월 말)

마.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이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정부가 산업체 수요를 고려하여 학과(대학)를 선정하여 개설하면 중소기업의 대표는 소속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학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재직 여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과 졸업 후 채용을 약정하고 참여하는 '채용조건형'이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의 65~100%를 지원하는데, 재교육형 석·박사 과정은 65%, 재교육형 학사·전문학사 과정은 85%, 채용조건형은 학위와 상관없이 100%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 외 나머지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 부담한다.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소속 기업에서 1~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2010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은 2019년도에 70개 학과를 통해 1,868명을 지원하였다. 2020년도에도 69개 학과를 지원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신산업 분야의 지원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표 II-2-1-10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현황

연 도	예산	지원학과	제 도 개 선
2014년	76억원	44개 학과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유형 신설
2015년	92억원	48개 학과	■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2016년	104억원	65개 학과	■ 지역특화산업 관련 계약학과 확충(16개)
2017년	103억원	69개 학과	■ 학위연계형 계약학과 운영
2018년	114억원	69개 학과	■ 영마이스터 학과(채용조건형) 선정
2019년	114억원	70개 학과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확대

바. 국립 공업고등학교 육성

고등학교 및 재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 취업보다는 진학 선호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특성화고의 취업 선도모델로서 ‘한국형 마이스터고¹³⁾ 육성 기본계획’(2008.7월)을 수립하고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3월)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급당 20명의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전면 자율화하였으며, 교장 자격이 없는 산업계 인사의 교장 인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의 마이스터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입학전형을 시행한다.

표 II-2-1-11 |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일반현황

구 분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학교설립	1954년	1967년	1974년
마이스터고 지정	2008.10월	2009.2월	2009.2월
마이스터고 개교		2010.3월	

13) 초·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구 분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학과명 (학급수)		전자회로설계전공(4학급) 전자시스템제어전공(4학급) 자동화시스템전공(4학급) 로봇제어전공(2학급)	정밀기계전공(3학급) 폴리메카닉스전공(3학급) 산업설비전공(3학급) 로봇제어전공(2학급) 메카트로닉스전공(2학급) 전기전공(2학급)	폴리메카닉스과(3학급) 금형설계제작과(4학급) 로봇자동화과(3학급) 메카트로닉스과(3학급)
학급 (학생 정원)	1학년	14학급(280명)	15학급(306명)	13학급(260명)
	2학년	14학급(275명)	15학급(302명)	13학급(260명)
	3학년	14학급(267명)	15학급(297명)	13학급(260명)
	계	42학급(827명)	45학급(905명)	39학급(780명)
위치 및 부지		경북 구미시 223천㎡(6.7만평)	부산 해운대구 142천㎡(4.3만평)	전북 익산시 77천㎡(2.3만평)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3개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산업분야별 현장 수요에 맞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이스터 육성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비부터 급식비,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공사비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2-1-12 |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육성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예산
합 계	14,725	15,459	14,656	19,466	26,399
직업교육체제 혁신	9,805	8,805	8,505	7,679	12,032
시설확충	4,920	6,654	6,151	12,137	14,367

3개 국립공고는 마이스터고로 전환 이후 취업률 등에서 월등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2019학년 졸업생 취업률은 91.1%로 전년대비 1.1%p 상승하였으며, 2019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3개 학교 합산 금 4개·은 7개·동 6개를 수상하고 부산기계공고는 종합 1위를 달성했다.

표 II-2-1-13 |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취업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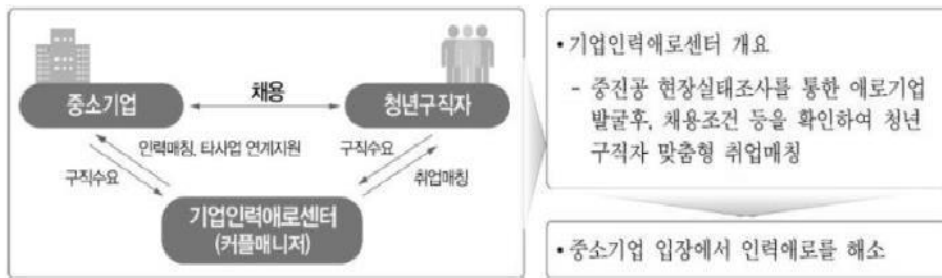
구 분	'16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구미전자공고	100.0	98.5	95.2	95.1
부산기계공고	92.1	84.0	81.5	86.5
전북기계공고	91.2	95.2	93.1	92.2
평 균	94.3	92.3	90.0	91.1

사.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시작되어 2019년 현재 16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이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 이노비즈협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유관기관이 현장실태조사 등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통해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적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특성화고·대학·직업훈련기관 졸업생 및 비취업 청년 구직자를 내칭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방부와 협업하여 구직자 대상을 군 청년장병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에 필요한 직무교육 및 취업상담·내칭 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협력사인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청년 구직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매칭을 진행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2019년 구인기업 8,513개사를 발굴하였으며, 3,520명이 취업으로 이어졌다. 향후 지속적인 우수 구인기업 발굴을 통해 중소기업 채용·내칭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 중소기업 인식개선

정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취업자와 일반국민에게 바로 알림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¹⁴⁾을

14)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확산)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⁵⁾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의 가능성과 비전을 바로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년에는 468백만원의 예산으로 특성화고생 등에게 중소기업 CEO 교육 등의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제작·활용하여 청년층에 균형 잡힌 중소기업 인식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였다.

자.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1982년 중소벤처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재직자 전문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총 149만여 명 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50,344명의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18,857명, 지방 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 리더십)은 13,831명, 온라인 연수 17,656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교육 과정을 확대·개편하여 2019년 기준 11,046명의 스마트공장 제조분야 전문인력(국정과제)을 양성하였다. 2019년 스마트공장 실습인프라인 '스마트공장 배움터' (안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신규 2개소를 구축(전주, 창원)하였다.

또한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조현장을 진단하고, 기업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출,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연수를 실시(2019년 3,207명)하였다.

구 분	개원	위치	특화분야	연수인원 (2019, 명)
중소벤처기업연수원	'82.10	경기 안산	뿌리기술, 스마트팩토리	36,513
호남연수원	'01.09	광주	철강, 조선, 산업기계	2,672
대구경북연수원	'03.11	경북 경산	자동차 특화	4,670
부산경남연수원	'04.10	경남 창원	공학설계, 현장기술 S/W	4,569
글로벌리더십연수원	'14.09	강원 태백	CEO, 리더십, 식품	1,920
충청연수원	'21.3 예정	충남 천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창업	-

15) 중소기업 부족인원 : 21.1만명, 부족률 : 2.2% (출처 : '고용부, 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제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제절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 기술정책과 정진관
- 기술정책과 차석규

2018년 R&D 수행 중소기업체는 49,961개사로 전체 중소기업체 139,936개사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6년 전인 2013년의 31.6%에 비해 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1-1 | R&D 수행 중소기업체 추이('16부터 증사자수에서 매출액기준으로 변경)

(단위 : 개사,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R&D수행 중소기업체	38,531	37,823	45,307	40,588	45,320	49,961
중소기업체 대비 비중	31.6	30.0	33.6	31.4	33.5	35.4

* 자료 : 2019년 중소기업실태조사

* 모집단 : 5억원 초과 중소기업체 139,936개, 표본수 : 7,500개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2019년 38,887개사로 2013년 27,154개에 비해 1만 1천개 이상 증가하였으며, 소속 연구원 수도 3.6만 명이상 증가하여, 2019년에 19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2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수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7,154	30,478	33,647	36,026	37,696	38,734	38,887
소속 연구원수	155,580	163,887	176,084	184,998	190,686	193,724	192,420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9)

이와 같은 저변확대에 힘입어 2018년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약 13.7조 원으로 국가 전체 R&D 투자 78.8조원의 17.4%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3 | 중소기업의 R&D 투자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 공 연 구 기 관	64,418	69,503	72,607	81,127	88,241	91,132	95,432	98,439
대 학	50,338	52,769	54,803	57,670	59,989	63,399	66,825	70,504
기 업	381,833	432,229	465,599	498,545	511,364	539,525	625,634	688,344
- 대 기 업	283,462	320,709	357,781	386,177	389,303	407,787	398,038	438,236
- 중 견 기 업							90,687	95,954
- 중 소 기 업	98,371	111,520	107,818	112,367	122,061	131,738	136,909	154,154
합 계 (국가 R&D 규모)	498,904	554,501	593,009	637,341	659,594	694,055	787,891	857,287

*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그러나 중소기업 R&D의 저변확대와 투자증가 등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75%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II-3-1-4 |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 수준

(세계최고수준=100.0, 단위 : %)

구 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술능력 수준	74.8	75.6	77.1	74.3	75.6	77.3	75.4

자료 : 2019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은 OECD가 1993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술혁신평가 매뉴얼인 '오슬로 매뉴얼'을 기초로 개발한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1,000점)와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 지표(10등급)를 적용하여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전수가 700점 이상이고 개별 기술수준 평가결과가 B등급(6등급에 해당)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업은 재선정 하고, 미흡한 기업은 선정을 취소함으로써 제도의 대외 신뢰성 유지 및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2001년 이노비즈 선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9년 현재 18,345개사가 유지되고 있다.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5년부터 기술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소폭 증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18,000개사를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II-3-1-5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정 현황

(단위 : 개)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업체수	17,080	16,878	17,472	17,708	18,091	18,093	18,34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기술지원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하는 한편 자금, 판로, 인력, 정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은행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 평가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3-1-6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건/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372	67,359	8,289	69,635	8,309	67,697	8,154	64,103	7,824	59,542

2019년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은 157.6억 원이고, 수출기업 비중은 55.7%, 평균 수출액은 77.7억 원(직접 64.9억 원+간접 12.8억 원 추정), 전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20%이상 매출액이 증가한 고성장기업은 2,972개로 전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1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제조기업의 핵심기술을 지속·유지를 위한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혁신은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이외의 요소인 경영혁신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의 경쟁력이 반드시 기술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고객 서비스 등에서도 혁신적인 역량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벤처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로는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 활동을 통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포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하반기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9년 말 현재 18,017개사가 활동 중이다.

2011년 17,558개사로 정점을 찍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은,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9년 정밀실태조사 결과 평균 매출액은 2016년 134.0억 원, 2017년 147.8억 원, 2018년은 152.8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1-7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제 조 업	7,302	7,664	7,662	8,175	8,705
비 제 조 업	6,596	7,177	7,568	8,558	9,312
· R & D 서비스	1,006	1,605	2,474	2,826	27
· 건 설 운 수	1,656	1,676	1,694	1,898	2,491
· 도 소 매 업	3,239	3,378	3,257	3,771	4,195
· 기 타	695	518	143	63	2,599
총 합 계	13,898	14,841	15,230	16,733	18,01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R&D, 금융 및 보증, 판로·수출 등 시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농협,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과 금융협약을 체결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료 감면, 여신한도 확대, 금리우대,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및 육성시책 발굴, 확인업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정보망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9월부터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9년에는 총 25,040건 87,624억 원을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협약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3-1-8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296	92,157	18,803	72,072	13,990	51,910	25,040	87,624



중소기업 경영·영업전략 교육



메인비즈 제도 설명회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과 황 조 인
- 기술개발과 정 해 진
- 기술개발과 조 무 근
- 기술정책과 이 태 민
- 기술개발과 오 보 연
- 기술개발과 김 범 철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1)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R&D 기획역량 및 자체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R&D 기획역량강화교육, 기획지원 및 외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R&D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R&D 기획지원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이해결 및 기술혁신 R&D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18년도 목적예비비로 신규 추진되었다.

① R&D 기획지원사업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성공 가능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사전에 충분한 R&D기획 없이 기술개발에 착수한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동 사업은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제에 대해 기획 전문기관과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을 분석·진단 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R&D기획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 쏠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구분된다.

R&D기획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7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53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수행 결과 우수과제는 R&D 사업으로 연계(선정)지원, 2017년부터는 희망하는 R&D 사업 신청 시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8년 342개 중 104개, 2019년에는 308개 중 97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대상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 가능한 사업(기술 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일부(제품개선))에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하여 서면평가 면제 또는 가점 등으로 우대한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이나 융자·보증신청, 기업 IR 등 다양한 분야에 R&D 기획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020년에는 지원대상 조정 및 지정 기획기관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R&D 기획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외지역 및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교육·코칭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표 II-3-1-9 |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2~2007	2008~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획지원	과제수	1,406	560	153	169	154	204	178	179	342	308
	금액	215	165	35	35	40	50	45	50	45	46
R&D사업연계	과제수	-	338	85	98	92	82	85	108	104	97
	금액	-	1,080	252	337	311	263	245	-	-	-

* '16년까지는 R&D사업으로 연계(선정), '17년부터는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

한편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2014년 시행이후 2019년까지 총 17,595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87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4,389명(온라인 교육 : 2,565명 포함)이 수료하였다.

2019년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자 만족도 조사결과, 추천 의향도는 86.3점, 전반적인 만족도는 88.0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84.9점, 전반적인 만족도는 86.7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3-1-10 |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교육과정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회수	수료 인원	회수	수료 인원	회수	수료 인원	회수	수료 인원	회수	수료 인원
정규	23	981	29	1,248	26	957	77	1,502	155	4,688
방문형	10	385	6	301	5	194	4	114	25	994
협약설명회	-	-	-	-	4	320	4	165	8	485
IP역량강화	-	-	-	-	2	75	2	43	4	118
세미나	-	-	-	-	1	57	-	-	1	57
온라인	-	1,479	-	2,097	-	2,533	상시	2,565	-	8674
계	33	2,845	35	3,646	38	4,136	87	4,389	193	15,016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소기업은 자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기술애로 해결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외부 고급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박사급 고급 연구개발 인력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분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의 기술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 등 산학연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공학컨설팅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에 국·공립대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학컨설팅센터를 2018년도에는 우수 사립대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기술애로 지원을 강화하였고, 특히, 2019년에는 9개의 공학컨설팅센터(대학 8개, 출연연 1개)로 확대하고 지정범위를 출연연까지 넓힘으로써, 더욱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현장중심의 기술애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II-3-1-11 | 2019년 공학건설특성별 지원실적

(단위 : 건, %)

구분	기술어로 해결의뢰서		기술어로 해결계획서		선정과제		
	접수	비율	접수	비율	선정	비율	
서울/경기/강원	인천대	96	12.9	65	12.9	18	10.7
	한성대	53	7.1	28	5.6	16	9.5
	가천대	69	9.3	46	9.2	18	10.7
대구/경북	금오공대	130	17.5	95	18.9	25	14.9
	대구대	48	6.5	35	7.0	18	10.7
부산/울산/경남	창원대	99	13.3	66	13.1	25	14.9
대전/충청	한밭대	97	13.1	63	12.5	18	10.7
호남/제주	전북대	126	17.0	86	17.1	20	11.9
출연연	에너지기술연구원	25	3.4	18	3.6	10	6.0
총계		743	100.0	502	100.0	168	100.0

③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조선 산업 및 자동차 산업의 경기침체가 본격화·장기화 되면서 동 산업 거점지역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 고용위기 및 지역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위기지역(6개) :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경남) 거제시/창원시 진해구/통영시·고성군, (울산) 동구

동 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 및 해당 시도 내의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포항시(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기술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혁신 또는 사업다각화를 도모하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지역혁신기관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기술협력을 통한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위기지역 소재 5개 테크노파크(경남, 울산, 전남, 전북, 포항)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를 관리기관으로 지정

하여, 지역기업의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지역현장에 필요한 Scale-up R&D 과제 선정·지원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현장수요형 R&D 심층과제 74개, 단기과제 39개 등 총 113개를 지원하였고, Scale-up R&D 과제는 31개를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현장수요형 R&D 과제 166개를 지원하였고, Scale-up R&D 과제는 137개를 지원하였다.

표 II-3-1-12 | 2019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경남	울산	전남	전북	포항	합계
현장수요형 R&D	과제수	46	36	34	32	18	166
	금 액	175	127	127	122	63	614
Scale-up R&D	과제수	43	32	27	26	9	137
	금 액	4,180	2,640	2,640	2,540	900	12,900
총 계	과제수	89	68	61	58	27	303
	금 액	4,355	2,767	2,767	2,662	963	13,514

2)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지원

지금까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선도 사업이면서 해외수요 확보 및 외화가득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고 실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50%이상으로 추정되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주력산업의 침체, 제조업의 투자 부진, 산업화 진전에 따른 국가 간 기술격차 감소 등 제품생산역량만으로는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등 스마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 산업의 서비스화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차별화가 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07년부터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상승과 신규 고용 촉진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나, 타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제품 개발 R&D과제가 다수 포함되는 등 서비스 R&D 특성에 적합한 지원이 미흡했다.

이에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비스R&D만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업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제품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① 제조업이 생산하는 제조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지원하는 제품서비스화과제, ② 서비스업의 기존 서비스의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신규서비스창출 과제, ③ 동일한 서비스 업종에 공통 적용 가능한 업종공동서비스 과제를 최대 1년에 2.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대응과 기술창업이 활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5대 중소기업 전략분야(미디어, 레저, 디지털헬스케어, 전문직, 스마트 금융)를 중점 지원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서비스화 역량 및 서비스 업종 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획지원의 범위도 쏠 세부과제로 확대하여 총 45개 과제에 83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및 서비스기업의 新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였다.

표 II-3-1-13 |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지원금액	58	83	117	258
지원업체수	38	45	74	157

2019년에는 중소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성과 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5대 서비스 전략분야와 4차산업혁명 분야 위주로 과제를 선정(74개 과제, 117억원)하여 전략성을 강화하였으며,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BM, UX/UI 및 디자인 특허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IP전략수립을 지원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산업간, 이종기술간 융합, 다양한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여 혁신적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였다.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장 및 위상 제고 뒤에는 1997년부터 한결같이 함께 헤오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있다.

수출기업과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중소기업 전용 핵심 기술개발사업이다.

①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6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②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과 VC 투자기업 대상으로 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년간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표 II-3-1-14 | 기술혁신개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금액	2,325	2,448	2,470	2,620	2,260	2,394	2,269	1,193
지원업체수	1,053	1,081	1,087	1,107	1,029	1,147	1,384	1,085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8,973개 과제에 1조 7,979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종료 과제 중 성공판정 받은 수행기업(2,294개)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한 결과, 非 지원기업 대비 수출액 6배, 매출액 1.4배 등 동 사업 지원을 통해 높은 지원성과를 달성하였다.

2020년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도약과제가 신설되었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을 발굴 및 집중 지원(153개 과제, 210억원)을 통해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하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장사다리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단계별 R&D지원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을 도모 하도록 전략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

창업기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력 및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기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의 원동력인 기술개발 투자에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시 수반되는 위험과 실패에 대한 부담을 흡수·완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내,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의 창업기업에게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디딤돌 창업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여성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하는데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년간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략형 창업과제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서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4억원을 지원하여 고급기술 창업을 유도한다.

TIPS과제는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가 선별, 투자한 창업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2년간 5억 원까지 지원한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211개 과제에 17,035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소규모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II-3-1-15 |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지원 과제수	90	86*	598	1,331	856	1,102	1,230	1,332	1,364	2,256	2,966	13,211
지원 예산	100	100	950	1,136	1,314	1,414	1,624	1,888	1,976	2,800	3,733	17,035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포함

2012년부터 2017년까지 R&D과제 종료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정부출연금 1억 원 당 평균 9.8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기술적 성과로 세계최고수준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자립도는 각각 33.4%p, 34.8%p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출연금 1억 원 당 신규 고용 인력은 6.0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한국형 뉴딜·비대면·일본 수출규제 등 新패러다임에 따라 시장선점형·선도형 창업 정책이 요구되는 혁신 주도 창업 지원 필요, 개별기업 지원 중심에서 여성창업·소셜벤처·고도기술·유망기술 분야 등 업종·분야를 구분한 과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창업→혁신형→중견) 구축의 첫 단계인 창업기업의 R&D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시장 주도형 R&D 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 유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5)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World Class 기업(세계적 수준의 기업) :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을 확대하여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

2010년 3월, 제51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적인 전문·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년 2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30개 기업을 처음으로 선정하였다.

표 II-3-1-16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선정기업	313	30	37	33	56	30	50	36	41
선정취소	27	3	3	6	10	2	2	1	-
누계	286	27	34	27	46	28	48	35	41

이에 따라 매년 30~50개사를 선정하여 2020년 7월 현재 286개사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400억 원 이상 1조원 미만(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이다.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요건 심사 → 분야평가 → 현장실사 → 종합평가 등 4단계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현재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을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이 135개사 중견기업이 151개사이고, 수출비중(수출액/매출액)이 58% 이며 기술개발 투자비중(연구개발비/매출액)이 5%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통신,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의료·광학기기, 섬유, 의약품 등 주력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표 II-3-1-17 | 업종별 분포현황

(단위: 개사)

선정 년도	전자 부품 통신	기계· 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 화학	SW	금속	의료· 광학기기	섬유	농· 식품	의약품	전기 장비	운송 장비	지식 서비스	계
11년	10	3	3	2	3	3	3	0	0	0	0	0	0	27
12년	10	7	3	5	2	1	1	1	0	1	2	1	0	34
13년	9	2	6	1	1	2	3	1	1	0	0	0	1	27
14년	14	5	8	2	6	3	2	1	0	2	2	0	1	46
15년	11	4	4	2	0	0	4	1	0	2	0	0	0	28
16년	10	10	11	6	1	4	4	1	0	1	0	0	0	48
17년	9	8	6	4	1	2	1	0	0	1	0	0	3	35
18년	5	11	9	2	4	2	5	0	0	0	2	0	1	41
계	78	50	50	24	18	17	23	5	1	7	6	1	6	286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업의 향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간 75억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에서 현지진출까지 해외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간 총 3.8억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특허전략개발원,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기업별 성장전략 이행전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기업의 성장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과 더불어 기업 스스로의 성장 노력으로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은 '11~'18년간 선정전 대비 매출액은 24.8%, 수출액은 27.8%, 고용인원은 20.1%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3-1-18 |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의 성과

기업수	평균 매출액(억원)			평균 수출액(억원)			평균 고용인원(명)		
	선정전	'18년	증가	선정전	'18년	증가	선정전	'18년	증가
286	1,478	1,853	25.4%	836	1,077	28.8%	334	401	20.1%

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

중소기업이 시장 다변화 및 소비자 기호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개선을 통한 신속한 시장 대응이 필수적이나, 다수 중소기업은 자금·인력·설비 등의 부족으로 시장변화에 말빠르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등의 기술개발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단기간(1년 이하)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공정개선은 공정기술개발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며, 제품개선은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전유율 제고를 지원하고, 총사업비의 75%이내를 지원한다.

2015년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대상 전용 R&D를 신설하여,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 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의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조선·IT 등 他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는 뿌리산업은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로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I-3-1-19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	41,503	30,003	31,160	37,714	36,035	44,383	44,383
지원과제수	674	611	594	680	838	811	791

향후 제품의 품질향상,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존 제품 및 공정에 대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주력 산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이 확보되고, 전기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기기, 로봇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이 글로벌 시장선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인력·장비·기술 등)를 활용한 공동R&D를 통해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R&D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2013년)을 실시한 결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통합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는 첫걸음 R&D와 연구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R&D사업이 신설되었다.

2017년에는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전략 협력사업을 신설하고, 내역사업 개편으로 기존 도약협력의 산연전용, 연구마을과제를

전략협력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을 동 사업 내역사업으로 편입하였다.

2018년에는 사업비 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지정회계기관 운영을 통해 사업비 정산 및 사용의 투명성·전문성을 높여 사업관리를 강화하였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2019년 일몰되어, '19년부터는 계속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계속과제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3-1-20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93-'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예산	9,458	1,389	1,458	1,520	1,382	1,308	1,395	417	18,327
참여기업	36,250	2,041	1,865	2,179	2,082	3,457	4,034	883	52,791

* 2017~2018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과제(수혜기업) 포함

① 첫걸음협력

R&D 초보기업이 산학연협력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활용 하고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정부 R&D를 한 번도 수행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걸음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소기업이 R&D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원하는 사업화 방향으로 R&D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R&D 주관기관을 대학·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하고, 대학·연구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R&D 수행 전반에 걸쳐 에로해결 및 조연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2017년부터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공동R&D를 수행 할 대학·연구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에로를 해결하고자 복수의 기술매칭기관('17년 : 한국산학연협회, 대학산업기술지원단, '18년 : 한국산학연협회, 기술보충기금)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전문가를 복수로 추천하면 기업이 원하는 전문가를 선택한 후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사업일몰에 따른 계속과제 347개 100억을 지원하였다.

표 II-3-1-21 | 연도별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과제수	898	1,029	902	840	1,048	347
금 액	447	532	461	365	387	100

② 도약협력

도약협력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과제수행 조건이 있는 첫 걸음협력과 달리 전국에 소재한 대학·연구기관과 협력수행이 가능하며, 매출액 5억 이상 또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면 참여 할 수 있어 산학연협력으로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사업일몰에 따른 계속과제 181개 67억을 지원하였다.

표 II-3-1-22 | 연도별 도약협력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비 고
지원 과제수	915	769	893	478	574	181	'17년 연구마을, 산연전용과제 전략협력으로 편입
금 액	745	665	819	303	308	67	

③ 전략협력

전략협력은 산학연협력이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산연전용, 연구마을과제)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사업이다.

특히 2014년에는 국가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산업별로 특화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산연전용과제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832억 원, 712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통해 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성과위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체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집적하는 형태의 연구마을 사업을 2013년 시범운영하여 현재까지 754억 원, 948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한 30개 거점형 연구마을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R&D특성화를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유망 중소기업과제를 신설하였고, 지역별 산업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과제 공고부터 선정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일괄 진행하도록 하였다. 2017년 11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35개 기업에 42억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3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49개 지역 중소기업에게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1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79개 중소기업에게 57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표 II-3-1-23 | 연도별 전략협력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지원	과제수	490	669	355	'17년 연구마을, 산연전용과제 전략협력으로 편입
	금 액	443	594	234	

④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의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입되어 중소기업의 장비부족문제를 적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743개 기업에 10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일몰에 따라 2019년부터 신규 연구기반활용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3-1-24 | 연도별 연구장비공동활용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지원	참여기업	1,459	1,374	1,231	1,649	1,743	'17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으로 편입
	금 액	165	165	187	153	106	

8) 산학연 Collabo R&D 지원사업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학의 연구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 지원하는 산학협력R&D,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지원하는 산연협력R&D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여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1단계(예비연구)를 도입하여 아이디어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R&D를 지원하는 2단계(사업화R&D)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우수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1단계(예비연구) 250개 과제(산학175개, 산연75개)를 지원하여 예비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표 II-3-1-25 | 2019년 산학연collabo R&D 사업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123	250
1단계	산학협력	86
	산연협력	37

* 2단계의 경우 2020년 1단계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 후 지원예정

9)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전주기 R&D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도연구기관이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상담과 진단을 지원하고 지원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R&D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사업화R&D 지원의 총 3단계 프로세스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문역량을 가진 3개의 선도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127개 기업진단 후 36개 기업의 R&D과제수행을 지원하였다.

표Ⅱ-3-1-26 |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98.8	163
1단계(기업진단)	1.8	127
2단계(산연협력R&D)	97	36

* 3단계의 경우 2020년 2단계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 후 지원예정

10) 산학연협력 신사업R&D 바우처 지원사업

산학연협력 신사업R&D바우처 사업은 새로운 시장 확대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산학연협력 R&D를 통해 신사업 분야의 기술획득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업력 10년 이상이거나 매출액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분야 외에 새로운 업종이나 분야로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대학·연구기관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 250억원의 예산으로, 126개 기업의 새로운 분야 진출을 위한 R&D수행을 지원하였다.

표II-3-1-27 | 산학연협력 신사업R&D바우처 지원현황

(단위 : 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부산 울 산	경남	전북	충북	세종	계
2019년	16	41	2	1	24	6	10	9	6	6	4	1	126

11) 연구기반 활용사업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및 장비전문인력과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유확산형, 연구집중형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공유확산형은 중소기업이 쉽게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하고, 연구집중형은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까지 최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학·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1,888개 기업에(공유확산1,355개, 연구집중533개) 장비이용 및 장비전문인력을 지원하였다.

표II-3-1-28 | 2019년 연구기반 활용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125	1,888
공유확산형	24	1,355
연구집중형	101	533

12)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

2002년부터 기술개발 단계부터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요처 특성에 따라 국내수요처과제(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 해외수요처과제(외국정부, 해외기업 등) 및 민·관공동투자과제(R&D투자협약기업)로 구분되며, 국내·해외수요처과제는 2년 이내, 5억 원 한도, 민·관공동투자과제는 2년 이내, 10억 원 한도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처(투자기업)에서 일정 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표 II-3-1-29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최대2년, 5억원 이내	60%(국내수요처) 65%(해외수요처)	지정공모 /자유응모
민관공동투자	최대 2년, 10억원 이내(투자금 포함)	37.5% 이내(대기업·공공) 45% 이내(중견기업)	

국방 과제(13개)를 시범사업으로 2002년 시작한 동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제5조, 제8조에 따라서 추진되었다.

표 II-3-1-30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경과

- (2002년) 중기청-국방부간 「국방기술개발협약」 체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범실시
- (2005년) 사업영역(수요처)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대기업 7개사 참여)
- (200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내에 「민·관 R&D 협력펀드 과제」를 신설
- (2009년) 해외 우수기업 및 바이어 등을 수요처로 한 해외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
- (2011년) 「민·관R&D 협력펀드 과제」를 확대 개편하여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신설
- (2014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 (2019년)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의 「맞춤형 R&D사업」의 세부추진 과제로 추진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수요처는 총 1,093개에 이르며, 그간 총 1조 3,909억 원을 투자하여 총 5,432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R&D 평균 사업화율(50.5%) 및 과제 매출액(9.5)에 비해 높은 동 사업의 사업화율(63.6%) 및 과제 매출액(20.5) 수치는, 동 사업이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를 넘어 중소기업의 매출발생이라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3-1-31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실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예산(억원)	1,386	1,420	1,436	1,438	1,668
지원과제수 (개)	510	565	560	385	519

성과조사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화성공률(%)	77.0	81.6	79.0	79.4	74.4
매출액 (과제당, 억원)	6.7	26.9	21.2	18	20.5

② 민·관 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확대

2008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관공동R&D 투자협약 과제'를 신설한 이후, 그 재원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민·관공동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총 11개사(신규참여 7개사, 추가조성 4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까지 총 77개 투자기업과 6,533억 원을 조성하였고, 총 946개 과제에 4,571억 원을 지원을 결정하였다.

표 II-3-1-32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현황(누계)

(단위: 억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조성기업(개)	22	38	53	57	62	65	70	77
조성금액(억원)	4,380	5,508	6,314	6,814	6,004.40	6,285	6,461.8	6,533
정부	2,350.3	2,936.2	3,374	3,656.40	3,292.60	3,455	3,524.4	3,530
투자기업	2,029.7	2,571.8	2,940	3,157.60	2,711.80	2,830	2,937.4	3,003
대기업	1,584	1,873	1,888	1,888	1,135.20	1,101	1,290.3	1,393
중견기업	115.7	303.8	521	678.6	845.6	933	801.1	679
공공기관	330	395	531	591	731	796	846.0	931

표 II-3-1-33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업체(2019년)

구 분	협력펀드	투자기업명
민 간 (56)	4,671억원	포스코,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템코, 현대홈쇼핑, 롯데마트, NS홈쇼핑,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LS엠트론, SK텔레콤, 포스코에너지, 인켈, 네이버, 한솔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크루셜텍, 경창산업, 동양물산기업, 휴맥스, 오택캐리어, 아진산업, 대동공업, 디아이씨, 토탉, 국제종합기계, 세하, 아이즈비전, SFA반도체, 대상,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한국항공우주산업, 다산네트웍스, 파워로직스, 케이엠더블유, 대교, 미래노텍, 루멘스, 이엘케이, 웅진에너지, 용산, 이래에이엠에스, 에스에너지, 렉스코, 뉴프렉스, 필옵틱스, 엠씨넥스, 진영지엔티, 성림첨단산업, 한백종합건설
공 공 (21)	1,862억원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수요처에 대한 구매실적 권리 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상용화율을 제고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혁신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및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술개발환경의 대형화·복합화·고비용화 및 기술수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단독 R&D 수행이 가지는 부담과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으로 혁신역량의 상호 보완을 통한 환경변화 대응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나, 중소기업은 아직 폐쇄형 기술개발에 치우치고 있어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R&D를 통한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R&D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의 기획지원 단계에서는 공동개발기관 매칭, 사업화 전략수립, 상호협력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협력체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을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하여 네트워크 협력체가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33개 과제, 2019년 62개 과제에 대해서 기획지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 24개 과제, 2019년 36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1-34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획 지원	최대 6개월, 3천만원	90%	자유응모
R&BD 지원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동 사업은 기술개발의 전주기(기획기술개발-사업화)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유망 과제 발굴 및 지원방식의 다각화로 개방형 산·산 협력 R&D 환경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④ 기술전문기업(K-ESP) 협력기술개발

2017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여, 기술개발을 글로벌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전문기업과의 협력 R&D를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정부의 연구개발전문기업 육성계획(2016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따라 수립되었고, 중소기업의 R&D 취약분야 및 사업화성과제고를 위해 R&D 단계별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시장중심 협력R&D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017년에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설계해석, 디자인 등 6개 서비스분야 별 기술전문기업 106개사를 선정하였고, 총 106.5억 원을 투자하여 138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I-3-1-35 | 지원 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ESP	최대 1년, 1억원 이내	65%	자유응모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량 있는 기술전문기업 추가 확보를 통한 R&D성과제고를 위해 2018년 60개의 기술전문기업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2018년 83개, 2019년 61개 과제를 선정하여 협력R&D를 지원하였다.

표 II-3-1-36 | 기술전문기업 지정 현황

(단위 : 개사, 건)

기술전문기업 선정	설계·해석	시험·분석	디자인	연구개발	임상시험	시제품제작	전 체
2017	10	12	31	34	0	5	92
2018	2	4	22	13	4	15	60
계	12	16	53	47	4	20	152
	(7.9)	(10.5)	(34.9)	(30.9)	(2.6)	(13.2)	(100.0)

3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

- 기술개발과 조 무 근
- 상생협력정책과 강 민 수

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정부는 '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9.8.5) 및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19.8.28)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31)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소재부품장비 전문 '스타트업 → 강소기업 → 특화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통해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9.12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대표 기업 55개사를 선정하였고, '20년에는 45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표 II-3-1-37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1차 선정(55개사)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 개)

계	경기	서울	충남	대구	대전	부산	인천
55	23	3	4	3	5	4	3
경북	충북	광주	전북	경남	울산	전남·강원·세종	
4	3	2	-	-	1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대표 강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시 우선 지원하고, '21년부터는 소재부품장비 전용 R&D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최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일반기업의 경우 중복이 불가능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복 보증도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등 사업화 지원도 우대한다. 강소기업의 공정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로봇 생산공정 도입도 지원한다.

나. 소재부품장비 상생협의회 출범(상생모델 발굴)

정부는 '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9.8.5)을 발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위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구성하고 공식 출범(19.10.16)을 하였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운영 및 상생모델 발굴을 위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31)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상생협의회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 수요·공급기업 간 유기적 상생모델 발굴 및 성공사례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상생모델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이 가능하면서 중소제품의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일정부분 보장되는 품목이다. 상생모델 발굴은 중기부·대중소재단과 함께 수요·공급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상생협의회 의결 및 관계부처에 지원 협의 건트를 거친다. 이후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을 거치게 된다.

소부장 상생협의회 2회 개최(19.10.16, 19.11.7)를 통해 상생모델 추천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상생모델 발굴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피칭데이 개최(19.10.16)를 개최하였고 소재·부품·장비 기술구매 상담회를 2회 개최(19.11.6, 12.19) 하였다. 향후 매년 10개 이상의 상생모델 발굴이 목표이다.



피칭데이



1차기술구매상담회



2차기술구매상담회

4

스마트공장 확산

- 제조혁신지원과 염정수
- 제조혁신지원과 신정대
- 제조혁신지원과 조영미
- 제조혁신지원과 송대근
- 제조혁신지원과 장재환

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은 크게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자금으로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사업과, 정부예산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한 정부주도 사업으로 나뉜다.

‘18년부터는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사업을 추진 하면서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확대되었으며, 정부 지원 기업수도 ‘18년도 2,221개 지원에서 ‘19년도 2,820개 지원으로 27%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I-3-1-38 | 민간·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합계
민간	133	304	546	525	679	1,937	4,124
정부	144	659	1,014	1,678	2,221	2,820	8,536
합계	277	963	1,560	2,203	2,900	4,757	12,660

나.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민간주도의 대표적인 사업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으로서 삼성 전자, 현대자동차 등 10개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총 213억 원을 출연하여 1,023개 (민간사업의 53%, 전체 보급수의 약 22%)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년부터는 민간의 자발적 스마트공장 구축을 유도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준확인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6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914개(민간사업의 47%, 전체 보급수의 약 19%)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하였다.

다.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정부주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02년부터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14년~)과 지역특화산업육성('15년~)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였다.('17.7)

'19년도는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2,820개를 보급하였다.

표 II-3-1-39 |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중소벤처기업부)

(단위 :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개)	-	308	649	1,218	2,127	2,820
생산현장디지털화(개)	144	137	147	193	-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개)	-	37	58	46	94	-

*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은 '18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은 '19년부터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통합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신규구축과 고도화로 구분되며, 신규구축은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을 지원하고 고도화 사업은 기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은 현장자동화(센서, 컨트롤러 등),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 제조현장운영시스템), 제품개발(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수요예측, 생산계획수립 등), 기업자원 관리(ERP) 등으로 구분된다.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신규 구축은 최대 1억 원, 고도화 과제는 최대 1.5억 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운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지도·상담도 지원한다.

라.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산성은 30.0% 향상되었고, 불량률은 43.5% 감소, 원가는 15.9% 절감, 납기는 15.5% 단축되었다.

표 II-3-1-40 | 스마트공장 지원 성과(5,003개, '18년 기준)

(단위 : %)

지 표	생산성	불량률	원가	납기	매출	고용
성 과	30.0%↑	43.5%↓	15.9%↓	15.5%↑	7.7%↑	3명↑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매출이 7.7% 증가하면서 고용도 평균 3명이 증가하여 제조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산업재해율도 18.3%가 감소하는 등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엑스포(코엑스)



우수사례(삼천산업)



스마트공장 상생협약

5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 기술정책과 최 성 환
- 기술정책과 조 범 주
- 제조혁신지원과 신 정 대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확대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2019년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규모는 약 3.2조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 20.6조원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6년간(2014~2019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전체 정부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 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약 15.7%이다.

표 II-3-1-41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정부R&D 예산(a)	177,358	188,747	190,044	193,927	197,759	206,254	3.1
중소벤처기업부R&D 예산(b)	8,185	8,717	8,532	9,259	11,036	11,011	6.1
정부기관(c)	17,266	19,248	20,386	21,737	20,981	21,021	4.0
KOSBIR (중기부外) 공공기관	111	119	317	361	387	387	28.4
소계	17,377	19,367	20,703	22,097	21,368	21,408	4.3
정부기관 합계(d=b+c)	25,451	27,965	28,918	30,996	32,404	32,419	5.0
비중(d/a)	14.4	14.8	15.2	15.98	16.39	15.71	

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은 2014년 8,185억 원에서 2019년 11,011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정부 중소기업 R&D지원 증가율 4.0%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3-1-4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R&D기획역량제고	55	55	55	106	108	2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470	2,620	2,260	2,394	2,269	1,272
창업성장기술개발	1,414	1,624	1,888	1,976	2,800	3,73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336	1,586	1,420	1,561	1,702	1,947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		200				
공정품질기술개발	300	312	377	360	444	444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840	685	906	506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165	165	187			
산학연공동기술개발	1,458	1,520	1,382	1,308	1,395	426
시장창출형기술개발	41	60	57			
기술개발인력 활용	105	90				
제품서비스기술개발				58	83	121
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 지원				701	653	626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39	38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250	294	344
연구기반활용						136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기술개발						37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106
산학연신사업R&D바우처						250
산학연 Collabo R&D						128
지역특화산업육성					1,105	473
융복합단지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123
지역기업개방형혁신바우처						210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						300
재도전기술개발					46	46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					14	15
융복합기술교류촉진					21	23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46	43
혁신형일자리선도사업					18	
합 계	8,185	8,717	8,532	9,259	11,036	11,011

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 및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함)¹⁶⁾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가 2014년 1조 7,377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2조 1,408억 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연 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9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 1,659억 원을 지원하여 전체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예산의 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50억 원(13.3%), 방위사업청 1,968억 원(9.2%), 국토교통부 1,349억 원(6.3%)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 R&D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3-1-43 | KOSBIR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행기관 R&D예산(a)	149,308	158,879	168,538	172,129	171,451	179,844
중기 지원(b)	17,377	19,367	20,703	22,097	21,368	21,408
지원 비율(b/a)	11.6	12.2	12.3	12.8	12.5	11.9

표 II-3-1-44 | KOSBIR 시행기관별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29	2,769	2,944	3,378	3,386	2,850
산업통상자원부	11,612	11,618	12,076	11,984	11,371	11,659
방위사업청	1,217	1,320	1,383	2,253	1,734	1,968
국토교통부	1,056	1,249	1,222	1,305	1,297	1,349
환경부	530	747	811	728	840	837
농림축산식품부	481	459	529	614	689	649

16) KOSBIR 시행기관 : (정부부처 1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안전부, 특허청, (공공기관 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기 관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건복지부	297	323	363	401	487	498
문화체육관광부	271	342	356	328	334	317
해양수산부	155	176	213	237	277	315
농촌진흥청	161	177	181	196	227	236
기상청	46	54	61	48	49	41
산림청	9.9	12	19	24	38	41
문화재청	1.1	3	-	-	-	-
행정안전부	-	-	119	111	102	100
특허청	-	-	109	130	147	162
한국전력공사	31	33	180	218	237	223
한국가스공사	31	34	20	32	34	35
한국도로공사	28	19	19	18	19	22
한국토지주택공사	8.1	13	16	-	-	-
한국수자원공사	6.5	8	7	8	10	9
한국철도공사	6.9	12	-	-	-	-
한국수력원자력	-	-	73	75	77	85
한국전력기술	-	-	2	6	8	8
한전KPS	-	-	-	3	3	5
합 계	17,377	19,367	20,703	22,097	21,368	21,408

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9년 녹색기술·첨단융합·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를 수립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중장기적 기간 설정, 산·학·연 혁신주체 포괄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기술전략은 중소기업 지원 시 해당 분야를 직접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있었으며, 중소기업들도 거시적 로드맵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 운영방향을 직접적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정부의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0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은 국가 전반의 산업전략과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 발표되었던 정부 중점 육성분야와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제조기반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존 문헌 및 시장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유망기술을 좁혀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성장기반 3분야로 구분하여 전략분야와 제품을 선정하여 핵심기술을 검토하였고 중소기업 기술 수요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II-3-1-45 |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추진경과

- (2010년) 녹색, 융합, 제조기반의 3대 분야로부터 풍력, 수소연료 전지 등 26개 전략분야를 도출하고 112개 전략제품, 1,050개 핵심기술로 구체화
- (2011년) 전년도 로드맵 업데이트를 통해 17개 전략분야, 138개 전략제품, 1,090개 핵심기술 지정하고 각 단계마다 무역현황 등의 분석지표를 추가
- (2012년) 녹색분야 재정지, 서비스분야 신설 등을 추진하고 16개 전략분야, 133개 전략제품, 1,005개 핵심기술을 지정
- (2013년) 수송기계, 안전보안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181개 전략제품, 1,404개 핵심기술을 도출
- (201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smroadmap.smtech.go.kr) 구축을 통해 접근성 향상. 우주항공 분야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215개 전략제품, 1,720개 핵심기술 도출
- (2015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ICT융합 분야 등을 추가하여 20대 전략분야, 233개 전략제품, 1,847개 핵심기술 도출
- (2016년) 기존 20대 전략분야를 신성장동력 40대 분야로 확대·재편. R&D사업과의 연계성 강화하였고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266개 전략제품, 1,569개 핵심기술 도출
-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으로 재편하여 236개 전략제품, 1,671개 핵심기술 도출
- (2018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분야별 산업별 구조분석을 강화하였고, 블록체인, 핀테크 등 신성장분야 추가하여 224개 전략제품, 1,610개 핵심기술 도출
- (2019년) 특허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핵심기술 도출방식을 고도화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추가하여 208개 전략제품, 1,351개 핵심기술 도출

기술로드맵은 단순히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R&D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표 II-3-1-46 | 기술로드맵 전략기술 도출현황

구분	전략 기술
4차 산업혁명 분야 (16대)	①인공지능 ②빅데이터 ③IoT ④5G+ ⑤스마트 제조 ⑥지능형로봇 ⑦시스템반도체 ⑧미래자동차 ⑨바이오헬스 ⑩스마트시티 ⑪서비스플랫폼 ⑫실감형콘텐츠 ⑬블록체인 ⑭드론 ⑮신재생에너지 ⑯배터리
소재·부품·장비 분야 (2대)	⑰첨단·전자 소재 ⑱전자부품장비
중소기업 성장 분야 (9대)	⑲정밀기계 ⑳일반기계 ㉑유기화학 ㉒무기화학 ㉓금속 ㉔조선 ㉕광/LED ㉖식품 ㉗섬유/의류

창업성장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대해 기술로드맵 전략기술을 지원하는 전용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를 해나갈 계획이다.

다. 뿌리중소기업 육성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사업으로 자동차, 로봇, 드론, IT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의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구현하는 초정밀·고도 공정이자,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이다.

뿌리기술은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되고 전수되기에, 개도국이 단기간에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역역이며,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해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제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프리미엄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되고 전수되기에, 개도국이 단기간에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역역이며,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해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제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프리미엄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근로환경 개선(공정 자동화, 안전, 친환경,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한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표 II-3-1-47 | 6대 뿌리산업 종사자 규모별 현황

구 분	업체 (개)	비중(%)
1~9인	21,108	64.74
10~19인	4,684	14.36
20~49인	4,648	14.25
50~199인	1,914	5.87
200~299인	122	0.37
300인 이상	131	0.40
합 계	32,606	100

자료 : 2020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정부는 2010년 제 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와 2011년 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뿌리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13~17)’을 통해 뿌리기업의 기술 및 공정개선, 인력수급, 시설지원 등 수요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을 수행하였다면,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18~22)’은 뿌리기술의 고부가가치화, 공정 혁신(스마트화, 친환경화), 일자리 생태계 구축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2년 12월 지정요건 및 요령 등을 고시하여 우수 뿌리기업 발굴하고 중점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뿌리산업 중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평가요건을 3부문(기술, 경영, 품질수준)에서 2부문(기술수준, 경영역량)으로 개편하여 2019년까지 총 1,005개사를 지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문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2013년 시작)

* 뿌리기술(6분야) 중 기술/경제적 가치,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뿌리기술로 산업부에서 지정고시한 286개 세부 기술 : 주조(49), 금형(47), 소성가공(49), 용접(50), 표면처리(51), 열처리(40)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기술 및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을 위한 리포트 제작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 선정시 전문기업 우선 지원을 통해 전문기업 우대사항과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II-3-1-48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 산(백만원)	300	400	396	396	412	760	413	396	396
지 정 수(개사)	-	-	29	114	195	158	135	144	230

표 II-3-1-49 |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정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전 체
2013	9	5	6	4	3	2	29
2014	21	24	22	12	25	10	114
2015	22	43	47	37	32	14	195
2016	23	37	44	23	24	7	158
2017	21	18	39	24	27	6	135
2018	17	31	25	32	34	5	144
2019	30	47	20	46	53	34	230
계	113	158	183	132	145	44	1,005

표 II-3-1-50 | 뿌리산업 지역별 지정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울산	계
2013	0	3	6	0	5	6	1	0	0	3	5	0	29
2014	2	12	19	2	5	35	15	1	4	5	14	0	114
2015	2	21	20	17	11	65	15	2	5	8	26	3	195
2016	0	11	22	11	14	61	12	0	3	2	18	4	158
2017	1	7	24	8	15	46	11	0	3	2	17	1	135
2018	3	10	15	6	8	60	10	0	8	4	19	1	144
2019	1	16	34	7	80	23	19	0	12	3	28	7	230
계	9	80	140	51	138	296	83	3	35	27	127	16	1,005

2)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뿌리기업 전문가 지원을 위해 일본의 모노즈쿠리 및 독일, 미국, 스위스 등 뿌리 선진기술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일본, 독일, 미국, 스위스 4개국에 303명을 대상으로 뿌리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은 ICT융합 과정을 신설 하여 394명, 2016년에는 423명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지원하였다.

2017년은 뿌리기업 맞춤형 코칭지원으로 64개사, 34개 학교를 지원하였고, 강한 현장 육성사업으로 15회 현장지도를 통해 38개사 310명의 재직자를 지원하였다.

2018년은 뿌리기업 맞춤형 코칭지원으로 92개사, 31개 학교를 지원하였고, 강한 현장 육성사업으로 282명의 재직자에게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개선을 위한 진단지도 및 사후관리는 50개사 지원하였다. 또한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코칭과 함께 전문가 Pool 확대, 재직자 중심의 뿌리기술 교육 지원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현장 중심형 교육사업으로 뿌리기업의 현안과 수요를 반영한 뿌리기술 Academy 교육을 추진하여 뿌리기업의 숙련된 기술·기능 인력양성을 진행하였다. 뿌리산업 중 4개 업종에 대해 재직자 1,228명 이수, 업종별 재직자 중심의 초·중급 교재 18종 개발을 완료하였다.

* 세부인원: 주조 300명, 금형 210명, 용접 434명, 표면처리 284명

** 교재개발: 주조(4), 금형(6), 용접(4), 표면처리(2), 열처리(2)_총18개

전통 제조업에 기반을 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산업인 뿌리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기술, 자금, 인력, 정보화, 품질혁신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뿌리기술 자동화·첨단화

3)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

뿌리기업의 공정혁신을 통해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 환경을 개선을 지원하는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사업을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10개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화 사업(ICT 도입을 통해 공정 제어, 통신, DB구축, 등 공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다.

국가 주요산업의 필수 기반인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뿌리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통해 180개사를 지원(19년 기준)하였다.

또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진행한 결과 생산성 향상(50%), 불량률 개선(55%), 작업시간 단축(35%) 등 대부분의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에는 뿌리기업 공정혁신 지원강화(31개사)와 기존에 수행한 우수한 자동화 설비 사례의 발굴을 통해 유시공정을 보유한 기업에 보급·확산(4개사)을 지원하였다.

표 II-3-1-51 | 2019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원현황

구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전체
2016	예 산(백만원)	751	468	808	660	842	471	4,000
	자동화	6	3	4	2	5	3	23
	스마트화	1	1	2	3	2	1	10
2017	예 산(백만원)	647	390	906	856	943	308	4,050
	자동화	6	4	10	10	10	4	44
2018	예 산(백만원)	350	180	512	346	247	120	1,755
	자동화	3	2	4	3	2	2	16
	보급·확산	1	0	3	1	1	0	6
2019	예 산(백만원)	348	174	770	753	502	204	2,751
	자동화	4	2	8	9	5	3	31
	보급·확산	0	0	2	0	2	0	4

표 II-3-1-52 | 2019년 뿌리산업 6대 업종별 지원성과

구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평균
생산성 향상(%)	24	26	62	126	22	40	50
불량률 개선(%)	27	25	73	80	53	75	55
작업시간 단축(%)	11	35	41	51	25	48	3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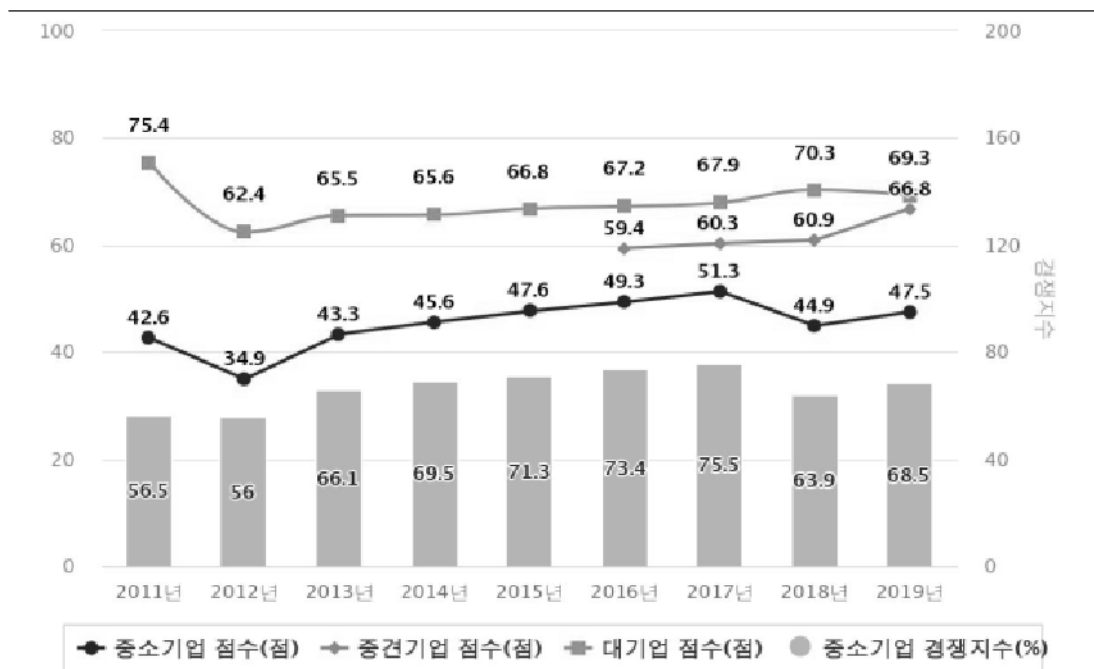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 기술보호과 이행로
- 기술보호과 정세환
- 기술보호과 김혜규
- 제조혁신지원과 권태용

가. 中企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수준은 대기업대비 68.5%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점수(중소벤처기업부, 2019)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14년 11월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추진, 기술보호 기반

확충,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설치·운영 등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동법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4.12.22),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등 관련 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고자 법 시행과 동시에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간 업무협력 MOU를 체결('14.12.18)하여 기관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 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소관 정책 정보를 직접 등록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처별(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로 운영되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개소('16.1.28)하여 산업기술유출, 특허침해, 기술유용·유출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중소기업 자체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보호 종합대책('16.4)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시고 대응 핫라인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제보 접수기능을 추가하여 체계를 강화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정협의를('17.12, '18.2)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2.12)을 마련·발표하였으며 대책 후속 이행과제로 '기술보호 범무지원단('18.6)과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18.5)' 발족, 기술탈취 근절 TF 운영('18.5)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현장작동 가능한 예방수단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18.6.12)하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시행일('18.12.13)부터 중기부 공무원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가능토록 하였다.

기술자료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자료를 주고받은 정황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19년 2월부터 구축·운영 중이고 비밀유지협약

(NDA) 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2개에 NDA를 의무화(19.11) 하였다. 또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상생조정위원회’를 출범(19.6.27)하여 기술침해·불공정 사건의 신속한 사건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수단으로 기술보호 진단·자문 및 기술자료 인치, 기술지킴서비스(24시 보안관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 CEO·인직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1)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보안 취약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3일간 사전 진단 및 보안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가 발견되거나 기술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최대 7일까지 심화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2) 기술자료 임치

분쟁발생 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하고 거래기업 간에는 안정적인 기술사용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임치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이다. 201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R&D 성과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임치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 중이며, 2018년 5월부터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기업이 보유한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치수수료의 1/3을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임치한 핵심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을 위해 2015년부터 임치기술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여 임치기술 175건에 대하여, 총 38,284백만 원('15~'19년)의 대출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 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인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TRS)’을 '19.1월부터 시행하여 '19년 총 272건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을 지원하였다.

3) 기술지킴서비스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사이버 침해 등 온라인을 통한 중요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무료 보안관제를 제공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의 보안 환경에 적합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4)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 운영

조정·중재제도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1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휘하며,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19년 한해 동안 21건의 신청을 받아 9개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2건의 조정 성립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5)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제도는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구제방안으로 마련되어 있는 민·형사·특허소송이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18.12월에 도입되었는데, 중기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결과를 '기술침해자문단'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을 위해 운영되는 규제기관의 행정조사제도와 달리 조정·중재 성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18.12월 법 시행 이후 '19년 말까지 신고된 16건의 사건 가운데 3건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조정절차로 연계되었다.

6)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전 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18.6.11)하고 법무지원단 전문가풀을 구축하였다.

법무지원단은 법무팀을 운영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법무역량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법률자문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1 전문가 매칭을 통해 연간 최대 30시간 내에서 법률자문, 컨설팅, 서면작성 등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년 한 해 동안 47개사의 기술유출 예방 및 분쟁대응 관련 심층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

7) 기술보호지원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책임관과 보안·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발족('18.5.10)하여 전국적인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기술보호 관련 제도를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보호에 관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유출이나 분쟁사건 발생 시에는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초동상담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다양한 지원사업 및 제도를 연계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3-1-53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19.12월말 기준)

(단위 : 개사,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술보호 진단·자문	-	43	387	206	517	898	1,000	617	737	801	821	620
기술자료임치	26	120	307	618	2,706	5,685	7,161	8,562	9,467	9,216	9,522	10,415
지킴서비스	-	-	-	253	268	498	1,528	2,467	1,076	919	1,056	955
보안시스템 구축	26	27	-	-	-	27	27	43	44	34	46	55
법무지원단											60	47
기술분쟁 조정·중재								22	17	19	19	21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기술보호 안전장치를 지원하여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위, 특허청 등과 법무처 협업체계를 확립하여 조정·중재, 공동조사, 침해 기술 판단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나.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2017년 발표된 ICT 발전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76개국 중 2위(아이슬란드 1위, 미국 16위, 일본 10위)를 기록하였고,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에서는 2016년 조사대상 139개국 중 13위(싱가포르 1위, 미국 5위, 일본 10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IT 인프라의 보급 및 구축 수준에 비해 IT 활용 및 이를 통한 효과나 성과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에 대한 접근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잘 갖춰진 IT 인프라를 경제발전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조사를 실시해 왔다.

2019년에는 총 4,300개 기업(중소기업 3,700개, 대기업 300개, 지원기업 30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은 68.73점(100점 만점)으로 대기업(77.37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 공통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분야에서는 '구축활용'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고, '전략 수립'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대기업과의 격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54 | 중소기업 분야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2019년)

구 분	정보화수준	전략수립	추진환경	구축활용
대 기 업	77.37 (기업간협력)	88.38	72.35	70.02
중소기업	68.73 (기업간협력)	79.84	63.67	61.97

* 정보화 발전단계 : 정보화 도입 → 단위 정보화 → 기업 내 통합 → 기업 간 협력 → 전략적 혁신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표 II-3-1-55 | 연도별 정보화 수준(100점 기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 기 업	71.08	72.78	72.92	75.48	77.37
중소기업	55.95	59.97	61.05	67.15	68.73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1년부터 경영·생산 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다양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사업은 특정 업종이나 단체별로 공동사용이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과 다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발굴·개발하여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초기 정보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정보화비용 감축 효과 달성은 물론, 시공간에 자유로운 접근성,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대·중소기업간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68개의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 대기업과의 정보화 격차를 줄여 나가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 정보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3-1-56 |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실적

(단위 : 개사, 명,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경영혁신플랫폼구축(건)	-	-	-	7	14	7	4	10	14	12



경영혁신플랫폼



기술지킴센터

제2절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 기업금융과 최효성
- 기업금융과 윤성웅

2019년 국내 금융시장에 있어 국고채(3년)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그에 따른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관련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8월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미·중 무역협상 진전, 향후 채권공급 확대 우려, 낮은 금리수준에 대한 부담 등으로 반등하였으나 11월 중순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지속 기대 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대출이 직접금융시장(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의 영향으로 소폭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 노력,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큰 폭 증가하여, 2019년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18년에 비해 49.5조원이 증가한 742.7조원으로 확대되었다.

표 II-3-2-1 |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대출금리(한국은행, 2019년)

(단위 : 조원)

지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출 잔액	중소 기업	697.7	702.2	705.6	710.0	716.1	719.7	722.6	727.4	732.4	740.4	745.3	742.7
	대기업	170.6	170.6	168.1	169.8	170.4	168.6	166.2	164.9	165.1	166.7	167.9	166.0
대출 금리	중소 기업	4.00	3.93	3.84	3.83	3.79	3.71	3.66	3.45	3.50	3.39	3.45	3.50
	대기업	3.58	3.56	3.50	3.53	3.47	3.38	3.31	3.11	3.30	3.13	3.05	3.17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대비 13.6% 증가한 50조 6,234억원을 형성하였다, 대기업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47조 5,585억원을 조달하여 전년도 증가율 5.3%를 크게 상회하였다.

중소기업의 조달규모는 3조 649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고, 주식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시장으로부터 전년 대비 3.2% 감소한 2조 8,399억원을 조달하였다. 반면 회사채 발행금액은 전년대비 73.1% 증가한 2,250억 원으로 주식시장의 조달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3-2-2 | 2019 기업 규모별 자금조달 현황(금융감독원)

(단위 : 억원, %)

구분 계	18년	19년	증가율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
전체	445,549	506,234	13.6
대기업	414,909	475,585	14.6
중소기업	30,640	30,649	0
주식	88,959	53,172	△40.2
대기업	59,619	24,773	△58.4
중소기업	29,340	28,399	△3.2
회사채(일반)	356,590	453,062	27.1
대기업	355,290	450,812	26.9
중소기업	1,300	2,250	73.1

* 금융채, ABS제외

2019년 중소기업의 내수·수출·영업이익은 상반기에 고점과 저점을 기록한 뒤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주었고, 자금사정은 2월에 70.2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후 하반기로 갈수록 소폭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3-2-3 | 2019 중소기업 경기변동 실적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중기중앙회)

지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수판매	74.4	68.4	81.2	82.2	80.6	79.1	77.0	74.4	77.0	80.2	80.5	
수출	80.4	75.9	86.8	91.0	87.4	82.9	85.5	80.6	82.5	82.9	86.6	
영업이익	72.9	67.2	77.0	78.0	78.7	76.3	75.3	71.4	75.0	77.5	77.5	
자금사정	73.7	70.2	76.0	77.7	77.8	76.2	74.8	73.1	75.5	76.0	77.9	76.9

2

정책자금 지원

▪ 기업금융과 윤성웅

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의 및 운영 현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발굴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자금이다. 또한, 정책자금은 창업기업, 소기업, 경영 에로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2019년에는 비·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등을 위해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당초 예산 36,700억원 대비 6,880억원(19.8% ↑)을 증액한 43,580억원*을 편성·지원하였으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및 대일 의존도 극복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내수경기 진작을 유도하는 등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II-3-2-4 |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창업기업지원	15,000	17,500	20,500	20,460	22,000
투융자복합금융	1,000	1,500	1,500	1,700	2,000
신시장진출지원	3,500	3,500	5,750	5,900	2,800
신성장기반	11,270	13,950	12,300	10,800	12,100
재도약지원	2,120	2,550	2,550	2,790	2,600
긴급경영안정	6,000	6,100	3,750	2,500	2,080
합 계	38,890	45,100	46,350	44,150	43,580

* 당초 예산 36,700억원, 증액 6,880억원, 총 43,580억원 집행

나. 2019년 정책자금 운용성과

1) 혁신성장 유망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동력 확보

ICT 기반 융복합 등 기술 변화로 전통적 사업영역의 붕괴와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에 창업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자금을 집중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이 선도할 수 있고 연관 산업효과가 높은 DNA(Data, Network, AI) 분야에 1,700억원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등 파급효과가 큰 BIG3 분야에 5,760억원을 지원하여 조기 성과 창출에 집중하였다. 또한 신산업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미래유망 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성장 창업기업 4,316개사에 총 10,695억원을 지원하였다. 스마트산단(반월·시화, 창원 등)을 조성하고 제조현장을 스마트화하는데 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존 전통산업의 스마트화로 생산성을 혁신하고 원가를 절감하여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혁신기업이 민간자본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적극적인 선투자를 지원하는 체계(스케일업 금융, 성장공유형 자금 등)를 구축하여 총 176개사에 민간자본 2,536억원 포함, 총 4,316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스케일업을 강화하였다.

2) 일자리 중심 지원으로 혁신적 일자리 창출 주도

상생형 일자리 모델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하고, 일자리 성과를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가동이 중단되고 한국GM 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수평적 상생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개발하였다. 특히,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투자 및 고용 효과를 극대화한 결과 2022년까지 1,902명의 직접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고용데이터를 확보하고 고용증가 기업을 발굴, 선제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일자리 하이패스 심시를 적용하였다. 또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일자리 평가모형을

개선하여 15,847건 평가에 활용하는 등 우선 지원을 강화하였다. 정책자금 지원 후에는 추가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 성과가 있는 기업에 이자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강화하여 지원기업 1,478개사를 대상으로 32억원을 환급하여 고용창출로 인한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4,230명의 고용성적을 달성하였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존경받는 기업인, 성과공유 기업 등 '기업-근로자 상생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수출,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컨설팅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도록 제도를 다양화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이직률을 낮추고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연계지원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일자리 중심 지원 결과 전년 동분기(18년 3분기) 대비 지원기업의 평균연봉은 2.33% 상승하였으며, 퇴직률은 2.98% 하락하여 일자리 질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3) 위기에 대응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예산 5,580억원을 편성하고 패스트트랙 평가를 활용한 신속 지원,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자금 1,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으로 사업전환 성공률을 70.2% 이상 달성할 수 있었으며, 사업전환 기업은 매출액 20%, 수출 75.1%, 고용 54.1%의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민간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19년 277개사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전년(188개사) 대비 47.3% 증가였으며, 금리를 0.1%p 우대하고 전용 진단 모형을 개발하여 니즈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평균매출액 증가율은 25%, 신규 일자리창출 증가율은 17.3% 달성하여 경제적·사회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였다.

표 II-3-2-5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2019년)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용 자 조 건		
		용자한도	용자기간	지 원 기 준
창업기업지원	22,000	잔액 6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청년전용 1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기준금리 Δ 0.3%p 업력 7년미만, 예비창업자
투융자복합금융	2,000	이익공유:20억원 (운전 5억원) 성장공유:60억원	5년 이내	금리 : 별도금리 적용 미래성장성이 큰 기업
신시장진출지원	2,800	내수기업 : 5억원 수출기업 : 20억원 (운전 10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기준금리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수출 유망기업
신성장기반	12,100	잔액 6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기준금리+0.5%p 업력 7년이상, 시설투자기업
재도약지원	2,600	잔액 6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10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기준금리 사업전환 승인, 재창업 등
긴급경영안정	2,080	연간 10억원 (3년간 10억원)	5년 이내	금리 : 기준금리+0.5%p *재해기업 : 1.9% 고정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등

3

신용보증 공금

- 기업금융과 최 호 성
- 벤처혁신정책과 여 현 구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위년제 등 신용보증 운영에 소요 되는 재원을 출연하고 있다.

가. 보증지원 규모 확대

신용보증 지원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되어 2005년 6월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후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으나, 대외 경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위기상황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 확대 기조를 지속하여 유지하게 되었다.

보증지원 규모는 2008년 44.3조원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에 64.1조원으로 대폭 확대(19.8조원 증가)하였고, 그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2019년에는 2008년보다 28.6조원 증가한 72.9조원으로 확대하였다.

보증기관별로는 2019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이 2008년보다 20.5조원이 확대된 52.2조원을, 기술보증기금이 2008년보다 9.5조원이 확대된 22.1조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표 II-3-2-6 | 연도별·기관별 보증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08년 (A)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증감 (B-A)	
보증규모(잔액기준)	44.3	67.2	68.6	69.9	70.7	72.7	72.9	74.3	30.0	(67.7%)
신용보증기금	31.7	47.4	48.5	49.2	49.5	50.8	50.5	52.2	20.5	(64.7%)
기술보증기금	12.6	19.7	20.2	20.7	21.2	21.9	22.4	22.1	9.5	(75.4%)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8년 2,500억 원을 출연했던 정부는 2009년 본예산에서 전년대비 8,500억 원 증액한 1조 1,000억 원을 출연했고, 다시 추경을 통해 1조 6,000억 원이 증액된 2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고율을 유지 하였으며, 금융기관의 협약 출연금 증가 등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 출연 없이도 안정적인 운용배수를 유지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신·기보 설립 이래 최초로 여유재원 중 5,000억 원 (신보 3,500억 원, 기보 1,500억 원)을 정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

표 II-3-2-7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10년~ '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본예산	추경	계									
합 계	11,000	16,000	27,000	0	45,000	1,300	1,500	1,700	2,900	2,349	2,017	2,540
신용보증기금	9,000	10,800	19,800	0	43,500	700	1,000	1,300	2,100	1,841	1,417	1,510
기술보증기금	2,000	5,200	7,200	0	41,500	600	500	400	800	508	600	1,030

2019년에는 본예산 400억 원과 추경을 통해 66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01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II-3-2-8 | 연도별 보증 사고율 등 추이

(단위 : %, 억원, 배)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증 사고율	신용보증기금	4.0	3.9	3.5	3.6	3.3
	기술보증기금	4.2	4.5	4.4	4.5	4.5
기본재산	신용보증기금	42,182	42,871	43,852	43,115	44,099
	기술보증기금	21,052	20,207	18,397	15,579	15,570
운용배수	신용보증기금	9.4	9.8	10.1	10.6	10.7
	기술보증기금	9.4	10.2	11.6	14.1	14.0

다음으로 보증지원 규모 확대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기 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재정투입규모 대비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보증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짧은 기간에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하므로 재정투입 효과성이 융자나 직접 대출보다 매우 높은 편

보증기관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도덕적 헤이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11.5배 수준의 안정적인 보증운용배수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짧은 기간에 대폭 확대된 보증규모는 경제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나.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

2019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점지원분야에 2008년 대비 약 420% 증가한 71.3조원을 지원하였다.

표 II-3-2-9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중점분야 지원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2008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6.9	53.8	67.3	68.3	71.3
창업 + 기술창업	11.6	21.5	26.2	27.4	27.4
수출기업	5.3	14.1	14.2	14.6	15.9
신성장동력산업	-	14.3	17.0	15.5	17.1
고용창출기업	-	6.9	9.9	10.8	10.9

이를 통해 혁신창업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니감으로써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일자리창출 및 미래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성장기업 데모데이
WENICORN'S DAYU-CONNECT
2019 FINAL 개최소상공인지영업자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4.0창업경진대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협약식

서울회생법원 업무협약식

4

매출채권보험 운용

▪ 기업금융과 최 호 성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보험 인수를 통해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어음보험제도의 도입(1997년) 이후 보험대상을 외상매출채권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취급하기 시작(2004년)하였으며, 보험 수요에 따라 전진적으로 인수규모가 증가하면서 2019년까지 총 165조 7,180억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하였다.

표 II-3-2-10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수총액	162,764	179,873	196,977	201,605	201,442
보험금지급	561	732	574	786	765
정부출연	685	1,198	1,200	-	-
기본재산	3,521	4,120	4,943	4,480	3,895
운용배수	10.4	9.7	8.6	10.5	12.9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업무 개시 이후 2019년까지 총 8,77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정부는 보험인수 재원으로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조 1,118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다.

2020년에는 20.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며, 향후 경제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인수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고객 중심의 제도 혁신

2019년에는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모든 중견기업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기업수요에 부응하여 계약자 보험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매출액 규모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험한도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보험 약관 내용을 표준화, 일반화하여 고객의 약관 이해도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보험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요 업무를 온라인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다. 보험사업 역할 강화

비대면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종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3종으로 다양화(심플, 다이렉트보험 추가)하여 고객의 보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여 은행을 통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B2B Plus+보험을 출시하였다.

한편, 기업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험료 지원 협약보험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부담으로 경영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제3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 판로정책과 김 태 선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2006년)된 이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94.0조원이고, 구매율(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은 76.2%로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표 II-3-3-1 |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구매실적(조원)	66.9	67.7	72.0	78.8	78	85.5	86.1	92.2	94.0	105.0
구매율(%)	64.1	67.8	67.7	69.7	70.0	71.7	73.7	74.8	76.2	77.8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인 구매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자,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2016년부터 도입된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제품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5.35조원으로 전년도('18년, 4.53조원)와 비교할 때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구매율은 법정기준보다 여전히 높은 14.5%를 기록하였다.

표 II-3-3-2 |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구매실적(조원)	1.37	1.68	2.11	2.54	2.62	3.11	3.70	4.52	4.53	5.35
구매율(%)	7.5	8.4	9.2	9.1	9.4	10.2	11.9	13.7	13.7	14.5

2019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11.9조원으로 전년대비 12.5%(약 1.32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총 구매액의 8.8% 수준으로 법정기준(물품·용역 5%, 공사 3%)을 초과 달성(물품 9.4%, 용역 8.9%, 공사 8.4%)하였다.

표 II-3-3-3 |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구매실적(조원)	2.36	2.60	3.41	4.48	5.49	7.14	8.34	9.91	10.58	11.9
구매율(%)	2.3	3.2	4.0	4.6	4.9	6.0	7.1	8.0	8.6	8.8

또한 2019년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21조원으로 전년대비 18.6%(3천3백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총 구매액의 1.6% 수준으로 법정 구매율(1%)을 초과 달성하였다.

표 II-3-3-4 | 연도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구매실적(조원)	0.21	0.27	0.34	0.68	0.80	1.09	1.32	1.54	1.77	2.1
구매율(%)	0.2	0.27	0.3	0.6	0.7	0.9	1.1	1.2	1.4	1.6

2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 촉진

- 판로정책과 정의채
- 판로정책과 박이방
- 판로정책과 변상준
- 판로정책과 백원현
- 판로정책과 김태선
- 판로정책과 강경완
- 판로정책과 안준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¹⁷⁾’란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현행 체계와 같은 공공구매제도는 단체수의계약제도¹⁸⁾가 폐지 결정된 2006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이 도입되었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제품(물품·용역)에 대해서도 소액입찰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19년에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제조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한 기업 혹은 중소기업제품의 소재 및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대기업 등)과 상생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그 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규정

18)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지정한 물품(공사 포함)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 단체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1965년 도입하여 2006년까지 시행

표 II-3-3-5 | 공공구매제도 도입 경과

시행시기	내 용
2007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008년	- 직접생산 확인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 협동조합(적격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참여 허용
2009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도(2.1억원 미만의 非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위장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2013년	- 소기업간 우선조달계약 제도(1억원 미만의 非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대상에 지방공기업을 추가
2014년	-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한 입찰절차 일시중지 명령제도 도입 - 기술개발제품 종류 확대(9종→13종)
2016년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달성 의무화(중소기업물품의 10% 이상) - 위장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2017년	- 민간보조사업자(국고보조금 100억원 수령기관)의 중기제품 우선구매 권고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 범위(종합공사 20억원→40억원 등) 조정
2018년	-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의 소기업 확인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의 중소기업제품, 여성·장애인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계획 및 직전 연도의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매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 및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6년부터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전건해 왔으며, 2004년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¹⁹⁾」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일정 비율(50%) 이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제시토록 법제화하였다.

2005년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목표 비율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5%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을

19) 「판로지원법」 제정(11.5) 이전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규정한 법률

개정하였으며, 이후 2009년 「관료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목표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 2020년에는 15% 이상으로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3-3-6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추진경과

시행시기	내 용
1996년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입실적 점검
2004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50%) 달성 의무 법제화
2005년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5%) 권장
2009년	-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율 상향(5% → 10%)
2014년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물품용역 5%, 공사 3%) 달성 의무 법제화
2016년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중기물품 구매액의 10%) 달성 의무 법제화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1%) 달성 법제화(권고)
2018년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1%) 달성 의무 법제화
2018년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1%) 달성 의무 법제화
2019년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상생협력법 시행령 제8조 신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1999년 69개 기관에서 2011년 282개 기관, 2012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495개 기관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되어 740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지방의료원 등이 추가되어 관리 대상 구매기관이 837개로 되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주요 지표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9년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105조원으로, 총 공공구매액(135.0조원)의 77.8%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3-3-7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

년도	구분	총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2011년		998,494	677,272	67.8
2012년		1,063,598	719,860	67.7
2013년		1,130,013	787,956	69.7
2014년		1,115,489	780,290	70.0
2015년		1,192,070	854,858	71.7
2016년		1,169,332	861,358	73.7
2017년		1,234,078	922,492	74.8
2018년		1,234,134	939,943	76.2
2019년		1,349,802	1,049,912	77.8

2020년도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과 협의하여 총 구매목표액 133.2조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103.4조원(77.6%),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4.87조원(13.7%)으로 설정하였다.

표 II-3-3-8 | 2020년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

(단위 : 억원, %)

연도	총 구매액	중소기업 제품구매액	구매율	중소기업 물품구매액	기술개발 제품구매액	구매율
2020년	1,331,783	1,034,053	77.6	354,926	48,734	13.7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공공부문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1995년 최초로 도입되고 2006년부터 의무화되었으며,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상이 되는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동 품목을 구매할 실적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에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존재하여야 한다. 경쟁제품은 3년에 한 번씩 지정되며, 현재 경쟁제품

으로 지정된 제품은 204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적용될 경쟁제품은 212개로서 2018년 12월말에 이를 고시하였다.

표 II-3-3-9 | 연도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

(단위 : 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개수(개)	207	207	204	204	204	212

한편, 2010년 이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 중 일부가 기업을 분할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 입찰에 편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 또는 기업 분할을 통해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시행되었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혜택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경쟁제품 지정 시 최근 2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을 유의품목으로 지정하고, 차기 경쟁제품 지정 시까지 독과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쟁제품에서 제외시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3-3-10 | 중기간 경쟁제품의 독과점 현황

구 분	2017 독점	2018 독점	2019 독점
독과점 품목 수(개)	49	59	61

* 독점 기준(공정거래법) : 시장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40억원)이고 상위 1개사가 50% 이상을 의미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통계 가공 자료임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를 통한 낙찰자 결정 방법이 제산 깎아먹기 식의 경쟁을 초래하여 적정이윤을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2006년 중기간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으로서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일정한 가격을 보장(예정 가격의 88%)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며, 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7년에는 신용평가 등급 전수 만전을 부여하는 창업초기기업의 인정범위를 개정하여(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 7년)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우수기업의 경우 신인도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조합참여 허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및 5천만 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체결 허용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2천만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통해 수의계약(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3-3-11 | 연도별 적격조합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적격조합	219	209	210	230	119	139	138	128

2009년 3월에는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상 금액 범위를 종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G2B(국가조달시스템)를 통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추천대상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2019년에 공공기관은 총 370건(98억 원)의 수의계약에 대해 협동조합에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63.9%인 237건(62억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직접생산확인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대기업 혹은 수입 제품 등을 납품하거나 하도급을 통해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1천만 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및 보훈·복지단체 등과 수의계약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로 주요 생산시설·공정, 최소 필요인력 등으로 확인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업이 이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다.

표 II-3-3-12 | 연도별 직접생산 확인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접생산확인	21,432	13,468	19,888	23,959	24,017	28,124	27,395	28,365

한편, 그동안 정부예산으로 지원하였던 직접생산확인 비용을 2018.4월부터 신청기업에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확인신청을 줄이고 예산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초 신청 시에는 확인비용을 면제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서 단가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당하는 제조중소기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조건외의 공사에 사용될 '공사용 자재 지정품목(19년 112개)'을 공급할 경우에는 직접 발주를 통해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공사업체에 관급 제공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6년 국무총리 지시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발주 의무화'가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일괄발주 선호 경향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방식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40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관급자재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3-3-13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사용자재	123	123	127	127	127	112

그러나, 관리인력 부족, 행정비용 증가, 공사품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직접구매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에 따라, 2009년 11월에 「관로지원법」을 제정하면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재난관련 공사, 국가안보와 관련한 공사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예외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구체화하였다.

사.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만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관로지원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의 물품·용역에 대해서도 그 추정가격이 일정금액(20)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동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억원)

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 등이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르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한 기술제품에 대해 각종 인증을 부여하고, 이 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목표비율 지정을 통해 구매를 촉진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취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1996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하면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II-3-3-14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추진 경과

시행시기	내 용
1996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2006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법령에 상향 규정
2009년	민·관 공동투자 R&D, 녹색인증, 우수조달 공동상표 추가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 개발선정품 추가
2015년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추가
2016년	적합성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추가
2019년	연구개발사업 기술혁신인정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추가
2020년	조달청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은 조달우수물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NET제품, CS 제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성공제품의 6종이었으나, 2013년 6월에 민·관 공동투자 R&D(공공부문)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특허권자에 한함)을 추가하여 9종으로 늘었다. 2014년 2월에는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제품으로 중소기업 생산제품,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

과제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을 추가하여 13종으로 늘었으며, 2015년 5월에 ICT융합품질인증제품, 2016년 12월에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적합성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이 추가되었다. 2019년 7월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개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과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이 추가되었으며, 2020년 1월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이 추가되어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중 GS제품,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NET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구매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구매책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기술개발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지표로 반영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는 지방공기업 정부권장정책 평가에도 추가로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규모는 2005년 6천억 원에서 2019년도 5.35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3-3-15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금액	1.68	2.11	2.54	2.62	3.11	3.70	4.52	4.53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성능에 대해 확인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앞에서 언급한 기술개발인증 가운데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II-3-3-16 | 성능인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성능인증	361	364	310	300	387	395	404	402

한편 성능보험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하고 있다. 성능보험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자체 교체 또는 수리가액을 보상하며 서울보증보험,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표 II-3-3-17 | 성능보험 계약 현황

(단위 : 건, 개,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약건	3	2	11	22	13	16	4	14
업체수	2	2	11	9	8	8	4	10
계약금액	912	32	2,767	25,769	13,130	12,220	235	5,900

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창업기업 초기 판로 개척을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본격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2018년 126개 시범구매제품 선정, 60개 공공기관 참여로 268억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하였고, 2019년 194개 시범구매제품 선정, 381개 공공기관 참여로 1,775억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표 II-3-3-18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 현황

구 분	2018	2019	증 감
선정제품	126개	194개	+68개(+54%)
참여기관	60개	381개	+321개(+535%)
구매규모	268억원	1,775억원	+1,507억원(+56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높다 하더라도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진출의 중요 수단으로써 보다 쉽게 공공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기관 평가 지표에 시범구매 실적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를 독려할 예정이다.

차.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제품 납품 및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망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신용평가 등급 등 각종 정보와 기술개발제품 정보가 제공되며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와 공공구매 계획 및 실적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용인원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511천명에서 2017년에는 1,133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입찰정보 제공 건수도 2006년 51천 건에서 2019년 1,614천 건으로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용자들에게 중소기업제품 납품 및 구매 업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자리를 잡았다.

표 II-3-3-19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자 현황

(단위 : 천명, 천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속자수	3,718	4,228	3,408	1,772	1,133	1,123	1,614
신규입찰정보	637	909	919	982	1,031	1,061	1,090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온라인 처리,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카.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및 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과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업무 담당자를 '공공구매지원 관리자'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관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계약의 적절성 검토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3-3-20 |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조사
- 중기간 경쟁입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상담 등

공공구매지원 관리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위반한 입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권고이행 여부를 취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2009년도 부터 모니터링, 시정권고,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11년 이후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률이 90% 이상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98% 이상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3-3-21 | 연도별 공공구매제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이행률(A=C/B×100, %)	91.5	91.3	92.2	97.4	99.1	98.5	99.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적발 건수(B,건)	2,475	2,213	1,480	1,182	673	407	26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시정 건수(C,건)	2,264	2,021	1,365	1,151	667	401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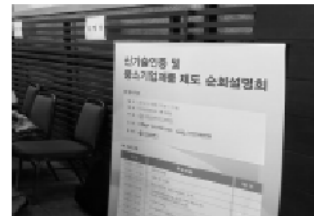
이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 공공기관은 공공구매제도를 자주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연간 23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경영평가 등에 반영(감점)하여 제도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공공구매 촉진대회



제도 순회설명회

3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 판로정책과 박 준 영
- 판로정책과 유 주 현
- 판로정책과 이 지 수

중소기업 제조사의 유통시장 접근성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대기업의 시장 과점화 심화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간한 '2019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매비중은 89.6%로 내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형 유통 업체인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판매망 의존도가 아주 높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장 큰 경영여요인으로 '만드는 것 보다 '팔 곳'을 마련하는 것이 지적된다. 특히, 아이디어 창업 및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유통채널을 확보하지 못해 소비자를 만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견인형 시장조성 판로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진입이 활발하고, '사업화 → 판매 → 이윤 창출 → 투자'로 이어지는 창의성이 보상받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현과 내수경기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선별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을 지원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제품은 "혁신제품 유통 플랫폼(아임스타즈)"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초기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가. 온라인시장진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온라인 유통시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 인력 부족 및 홍보·판촉 등 온라인 시장진입에 필요한 판매 인프라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년 중소기업의 온라인시장 접근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진출 및 발주·배송·CS관리 등 판매를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아임스타즈) 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의 오픈마켓, 종합몰 등 인터넷 쇼핑몰과 시스템 연동함으로써 2019년 12개 온라인몰(네이버,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CJ,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H몰, GS, 쿠팡, 아인쇼핑)에 35,117여개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연계 하였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품개발자(MD)에게 우수 혁신제품 기획 제안, 민간의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의 상품 판매기획전 개최(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방송 지원, V커머스 홍보판매등 실질적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성과를 높이고 있다.

표 II-3-3-22 | 온라인 시장진출 실적('19.12말기준)

구 분	'17년			'18년			'19년		
	매출	횟수	업체수	매출	횟수	업체수	매출	횟수	업체수
온라인 기획전	135억	87회	190개	169억	30회	112개	161억	30회	116개
4대홈쇼핑 방송지원	16억	39회	39개	11억	27회	27개	16억	33회	33개
공영홈쇼핑 방송지원	7.4억	18회	18개	13억	30회	27개	10억	20회	20개
V-커머스 홍보판매	9억	120회	3개	22억	180회	30개	40억	100회	30개
합계	167.4억	264회	250개	215억	267회	196개	229억	183회	199개

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중소기업의 원활한 유통채널 진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전에 시장 검증 및 전시·홍보 등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체 판매장 개설이 힘들거나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입지가 우수한 곳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개설하여 창업 및 초기 혁신제품의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출국장 내 3개소, 갤러리아 등 시내면세점 4개소의 매장을 운영하는 등 유통고객이 많은 곳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1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으로 3633개 업체의 17,000품목을 입점 시켜 11,947백만 원의 매출 성과와 초기제품의 시장검증 및 전시·홍보를 지원하였다.

표 II-3-3-23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아임쇼핑) 운영현황('19년 말 기준)

(단위 : m², 백만원, 개)

구분	오픈일	매장면적	판매액	지원 업체 수	비고	
면세점	인천공항 T1(서편)	12.06.27	76	1,874	91	
	인천공항 T1(동편)	15.11.06	42	1,107	100	
	인천공항 T2(동편)	18.01.18	84	1,745	109	
	갤러리아	15.12.28	50	182	96	'19년 폐점
	SM서울	16.02.04	31	27	36	
	신세계(센텀)	16.03.01	66	154	153	
	신세계(본점)	16.05.18	53	485	185	
	현대(무역센터)	18.11.01	13	354	43	'18년 신설
대형 유통점	현대백화점(판교)	16.11.09	69	728	165	
	신세계백화점(영등포)	17.09.08	52	506	121	
교통시설	화성휴게소(하행)	11.12.01	165	342	149	
	KTX 부산역	13.02.05	42	481	151	
백화점	행복한백화점(목동)	11.03.31	2,313	3,962	2,234	
합계			3,056	11,947	3,633	-

* 상기 업체수 및 품목수의 경우 중복 포함

다.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민간의 대형 유통채널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 판매이후 A/S 문제 해결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자체 A/S시스템을 갖추진 못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은 백화점, TV홈쇼핑 등의 판로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2006년 7월부터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하여 A/S 대응 한계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 A/S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 A/S지원은 공동 A/S콜센터와 전국적 A/S망, 택배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제품의 A/S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판로확대를 꾀하고 있다.

참여 대상기업은 국내공장에서 일반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등 17개 지원제품군에 해당하여야 한다.

표 II-3-3-24 |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추진경과

연 도	내 용
2006년	중소기업공동A/S콜센터 시범운영
2009년	A/S콜센터 사업과 A/S센터사업 통합·운영
2013년	전국 156개 A/S망, 3개 택배센터, 502개사 참여
2014년	전국 193개 A/S망, 1개 택배센터, 708개사 참여
2015년	전국 142개 A/S망, 1개 택배센터, 738개사 참여
2016년	전국 124개 A/S망, 1개 택배센터, 686개사 참여
2017년	전국 126개 A/S망, 1개 택배센터, 539개사 참여
2018년	전국 126개 A/S망, 1개 택배센터, 546개사 참여
2019년	전국 126개 A/S망, 1개 택배센터, 565개사 참여

다만,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의류, 일회·소모성 소비재 등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적은 제품은 제외하고 있다.

2010년부터 총 4,691개 업체가 참여하여 20,015천 건의 A/S 쿨상담과 2,053천 건의 A/S처리를 지원하였다.

표 II-3-3-25 | 중소기업 공동A/S 지원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참여업체수	502	708	738	686	539	546	565
A/S 총콜수	1,974,506	3,431,721	3,584,174	2,947,462	2,624,348	2,183,915	2,239,557
콜수 월평균	164,542	285,977	298,681	245,622	218,696	181,993	186,631
A/S 처리	49,108	182,577	368,302	467,239	344,211	311,696	255,744
예산(억원)	135	90	90	84	63	59	63

또한, A/S역량교육, 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도 향상, A/S대행 처리기관의 생산성 향상, A/S처리 결과의 환류 등 A/S지원 인프라 내실화를 통해 질적 성과창출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라. 공영홈쇼핑(채널명 : 공영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상품판매와 동시에 광고기능까지 수행하는 TV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를 제공하는 좋은 판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재 원제품을 생산하여·판매하는 기업은 TV홈쇼핑 입점판매와 홍보를 가장 선호하며 홈쇼핑 시장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TV홈쇼핑사는 대기업·수입제품과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검증된 기존 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창업 및 혁신기업의 초기제품이나 농수산 식품은 홈쇼핑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 7월 14일, 아이디어 창의혁신제품을 포함하는 중소·벤처 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홈쇼핑’을 개국하였다. TV홈쇼핑업계 최저 판매 수수료율 23%를 적용한 채널이었다. 그 후 공영홈쇼핑은 2018년 재승인 심사에서 3%의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농어민들의 판로지원을 대폭 확대하기에 이른다.

타 홈쇼핑사에 비교하여 공영홈쇼핑은 20번대 하위채널 사용, 대기업·수입제품 판매 금지,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만을 100% 취급하는 등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취급액 기준 총 7,156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며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위한 새로운 판로개척 유통망으로 빠르게 안착해 가고 있다.

표 II-3-3-26 | 공영홈쇼핑 판로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5. 7~12	2016년	2017	2018	2019	합 계
취급 매출액	1,500	5,057	5,828	6,382	7,156	25,923
상품수	789	1,565	1,741	1,589	1,690	7,374

특히 벤처기업 신제품, 기술개발 제품 등 총 2,082개의 창의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여 5,30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창업·혁신기업 사업화 초기제품의 시장진입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제4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1 수출 현황

▪ 글로벌성장정책과 방 지 현

2019년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009억 달러를 기록하며, 3년 연속(2017~2019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6년 995억 달러(+3.4%), 2017년 1,032억 달러(+3.7%), 2018년 1,052억 달러(+1.9%)를 기록하며 2015년 이후 3년 연속 호조세를 달성하였으나, 2019년은 美·中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중화권 수출 부진으로 중소기업 수출 주력품목인 화장품(△1.2%), 합성수지(△13.6%), 반도체(△17.2%) 등의 품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나, 중소기업 수출은 중견 및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나타내며 수출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2%p 증가한 18.6%를 기록하였다.

2019년 수출 중소기업 수는 95,229개사로 전년동기대비 1,067개사(+1.1%) 증가하며 2010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역대 최대 기업수를 달성하였다.

* 수출 중소기업 수는 2010년 통관기준 수출통계 작성 이후 9년 연속 증가세 기록

그림 8 | 2015~2019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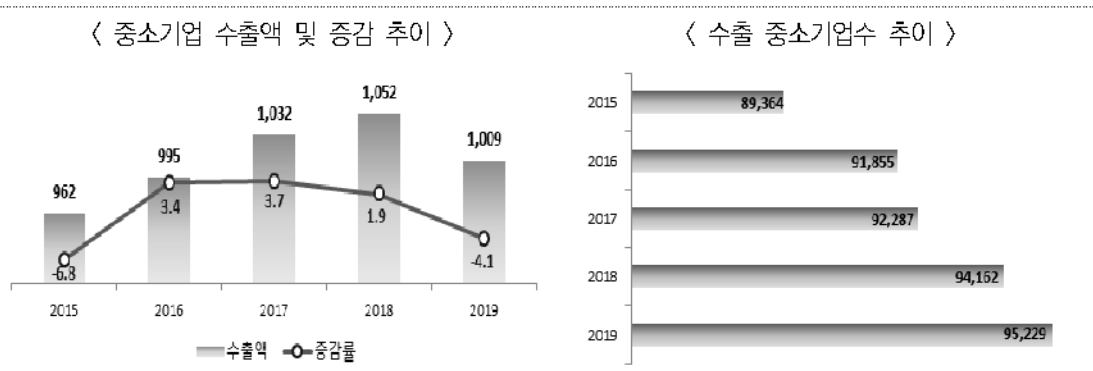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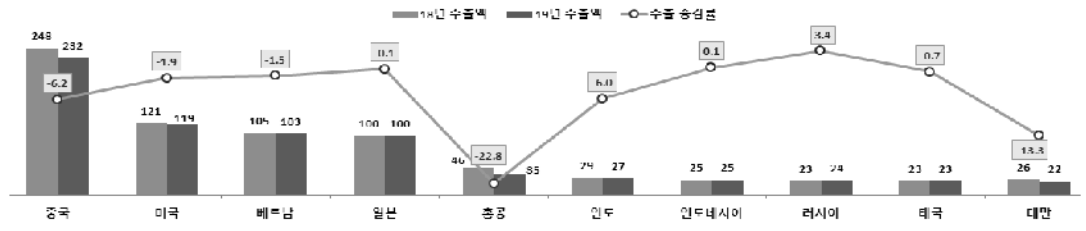


그림 9 | 2019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현황

(단위 :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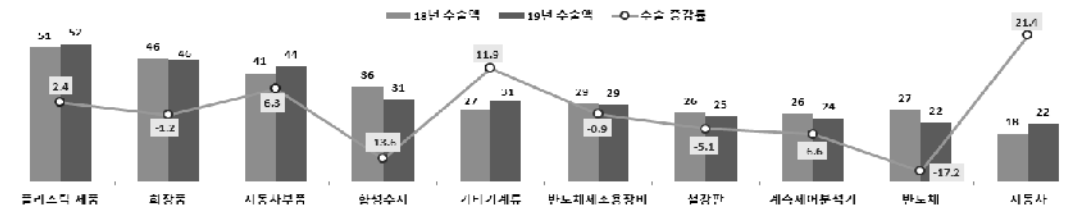


2019년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은 상위 10개 국가 비중이 70.4%(2018년 68.5%)를 차지하였다.

비중 무역분쟁으로 중화권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EU 지역(94억달러, 5.2% 증가), 신북방지역(36억달러, 10.9% 증가) 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중소기업 수출시장이 다변화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10 | 2019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현황

(단위 : 억 달러, %)



* 주 : 증감은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MTI 3단위 기준).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9년도 수출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기타기계류 등 4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화장품,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6개 품목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제품은 중국(+4.8%), 폴란드(+398.7%), 헝가리(+374.9%)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을 본격화하면서 플라스틱제 분리막 수출이 급증하며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5대 유망소비재는 생활용품(+0.5%), 농수산물식품(+5.2%)은 증가한 반면 화장품(△1.2%), 패션의류(△7.7%), 의약품(△1.0%) 수출은 감소하였다.

2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성장정책과 정 미 라
- 글로벌성장정책과 양 동 학
- 글로벌성장정책과 이 상 훈

가. 수출지원기반활용

1)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스타트업 등 수출규모별·역량별에 따라 수출 역량강화 교육, 홍보 및 제품 디자인,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시장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와 수출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1996년에 시작된 동 사업은 2010년까지는 수출 100만불 이하 '수출초보기업'과 내수 기업만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11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지원 대상을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수출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17년부터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선택권 확대를, 민간 수출서비스 공급자간에는 경쟁을 유도하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출바우처 제도는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의 신개념 수출플랫폼으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업, 특허청이 추가되어 5개 부처가 공동 운영체제로 개편되었다.

2019년 중기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은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수출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수출성장사다리 체계란 기업의 수출규모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규모별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역량에 맞는 수출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개별내역사업별로 지원대상 조건이 중복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수출성장사다리 : 내수-수출초보(10만불 미만)-수출유망(10만불~100만불 미만)-수출성장(100만불~500만불 미만)-수출강소(500만불~1,000만불 미만)-수출선도(1,000만불 이상)

이를 위해 2019년에는 4개의 내역사업을 수출바우처사업 1개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하고, 하위 내내역사업을 수출성장사다리별로 구성하였다. 기존 개별내역사업의 지원 조건의 칸막이가 해소되어, 수출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이 사업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책임질 스타트업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바우처를 신설하여 한국무역협회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 제공함과 동시에 해외공유오피스와 해외 테스트베드와 같은 새로운 메뉴 도입을 통해 바우처를 스타트업 기업의 수요에 최적화 하였다.

참가기업은 바우처 메뉴 활용 이외에도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스타트업지원사업에 참가기회를 가졌다.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컨퍼런스 'Next Rise' 전시 참가, 다양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피칭 시리즈 참가 등을 통해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하였다.

표 II-3-4-1 | 2019년 수출바우처사업 개편현황

'18년		'19년		
내역사업	지원한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지원한도
〈신설〉	〈신설〉	수출바우처	스타트업	30백만원
수출성공패키지	20백만원		내수기업	30백만원
	30백만원		수출초보기업	30백만원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10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50백만원
아시아하이웨이	10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80백만원
글로벌강소기업	100백만원		글로벌강소기업	100백만원

수출성장사다리별 지원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서비스 매칭 활성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현지관측전 등 다양한 연계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하였다.

수출비우처사업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간 서비스 매칭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수출 바우처 매칭페어를 개최(19.4.16)하여, 수행기관 90개사 및 참여기업 1,000여개사가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의 서비스 매칭 상담회, 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시책 홍보 및 컨설팅, 수행기관 서비스 PT 등 부대행사를 통해 참여기업에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우수한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수행기관을 선별하기 위한 ‘우수수행기관 경진대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경진 대회에는 총 12개 서비스분야 119개사가 신청하여, 1단계 정량평가와 2단계 외부 전문가 정성평가를 거쳐 최종 11개 서비스분야 27개사가 선정되었다. 최종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수출비우처사업 홈페이지내에서 우수수행기관임을 식별할 수 있는 마크 부여, 서비스 검색시 상위 노출 알고리즘 적용 등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서비스탐색 용이성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판로를 개척하지 못한 소비자 제조 내수기업들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19.11~12월 2개월간 수출비우처사업 참여기업 총 27개사의 샘플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판촉전을 진행하였다. 참여기업에게는 현지홍보자료 제작지원, 타오바오 점포 입점, SNS 온라인 마케팅 등을 총 27개사 85개 품목에 대하여 종합 지원하였다.

사업체계 개편, 서비스매칭 활성화, 해외현지 판촉전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19년 최종 지원한 업체수는 최종 3,022개사였으며, 해당 지원기업들의 수출 증가율은 사업참여 이전년도인 2018년도 대비 10.3% 상승하였으며, 이는 국가전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 대비 14.4%p* 높은 수치로 우수한 사업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II-3-4-2 |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단위 : 달러, %)

구 분	2018년 수출액	2019년 수출액	증감	증가율
스타트업	23,907,300	38,503,421	14,596,121	61.1
내수기업	173,799	38,501,315	38,327,516	22,052.8
수출초보	16,572,694	60,704,258	44,131,564	266.3
수출유망	186,346,790	288,169,758	101,822,968	54.6
수출성장	900,089,045	1,009,966,748	109,877,703	12.2
글로벌강소기업	2,221,154,285	2,258,935,805	37,781,520	1.7
계	3,348,243,913	3,694,781,305	346,537,392	10.3

* '19년도 수출중소기업 전체 수출증가율 : △4.1%

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 또는 지역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년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정해 지역의 우수한 수출기업을 한국형 하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단계별 성장사다리 구축에 노력해오고 있다.

* 수출성장사다리 : 내수-수출초보(10만불 미만)-수출유망(10만불~100만불 미만)-수출성장(100만불~500만불 미만)-수출강소(500만불~1,000만불 미만)-수출선도(1,000만불 이상)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며, 민간 금융기관은 융자 및 보증분야를 우대 지원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요건은 매출액 100~1,000억원,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으로(단, 혁신형기업은 매출 50~1,000억원, 수출액 100만불 이상), 2019년에는 20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자격 유효기간은 4년이다.

2011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9년간 1,243개사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까지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 중 62개사가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성장했고, 글로벌 강소기업의 '19년도 수출증가율(0.9%)도 전체 중소기업 수출증가율(△4.1%) 대비 약 5%p정도 높게 나타났다.

* 선정기업수 : ('11) 81개 → ('12)110개 → ('13) 102개 → ('14) 163개 → ('15) 127개 → ('16) 121개 → ('17) 129개 → ('18) 210개 → ('19) 200개

표 II-3-4-3 |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 산	42	40	32	50	40	60	100	100
지원업체	121	162	160	167	150	176	183	271
수출증가율	9.7	11.7	4.3	1.5	0.6	15.1	12.6	0.9

* 수출증가율은 직전년도 대비 지원년도의 증가율

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1)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동일·유사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목표시장에 대한 진출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조사 등 사전준비, 해외전시회 또는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활동, 현지바이어 국내 초청 등 사후 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50~7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2개 컨소시엄을 통해 총 4,758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35개 컨소시엄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지원 효과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기존 무역 촉진단 사업과 통합해 수출컨소시엄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남방·신북방 지역 진출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수출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표 II-3-4-4 | 수출컨소시엄 파견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외전시회	143회 (2,201)	150회 (2,511)	176회 (2,735)	83회 (1,416)	61회 (1,148)	-
시장개척단	9회 (105)	7회 (76)	24회 (229)	3회 (34)	4회 (38)	-
수출컨소시엄	26회 (358)	36회 (342)	31회 (348)	47회 (577)	59회 (648)	183회 (2,485)
계	178회 (2,664)	193회 (2,929)	231회 (3,312)	133회 (2,027)	124회 (1,834)	183회 (2,485)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2010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동 사업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형 수출 지원 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8,000여개 기업을 지원하여 약 6,200억 원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다.

2013년도부터는 사업내용을 민간 자원의 과제공모형식으로 전환하여 기업 및 업종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대기업의 해외홈쇼핑 플랫폼 활용, 현지 사무공간 및 물류창고 공동 활용 등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였다.

2015년도에는 K-POP 공연과 연계하여 한류블 활용한 중기제품 마케팅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 해외온라인 물에 '한국 중기제품 전용관'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이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원기업수도 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016년도에는 기존 K-POP 공연 뿐만 아니라 한류스타 및 콘텐츠 활용 등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마케팅을 지원하였고 대기업 해외매장 내 상설판매장 지원, 해외거점을 활용한 중기제품 현지화 지원, 해외전시회(Booth in Booth) 동반참여 등을 통해 동반진출 사업영역을 다양화하였다.

2017년도는 대기업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프로젝트 공동수주 및 솔루션 현지화, 투자유치 지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발전·상생할 수 있는 해외진출 과제로 사업유형을 확대하였고,

2019년도에는 BTS 등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K-POP공연, 예능, 드라마 PPL 등으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방식을 다각화하였으며, 온라인 및 V 커머스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COVID-19)영향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5G, 빅데이터 등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도 다각화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3-4-5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

[단위 : 개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류연계	5회(147)	10회(346)	6회(226)	8회(257)	18회(490)
해외홈쇼핑	9회(398)	7회(221)	12회(412)	14회(443)	9회(437)
해외거점 (협의회포함)	34회(617)	22회(819)	27회(612)	53회(489)	81회(938)
계	48회(1,162)	39회(1,386)	45회(1,250)	75회(1,189)	108회(1,865)

3)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2015년 1조 2천억 원 수준이었던 온라인수출이 2018년 3조 5천억 원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 상품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수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 사업은 글로벌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자사몰 등 다양한 온라인수출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을 지원하고, 물류·배송, 통관, 교육 등 온라인수출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① 판매대행 사업

해외 쇼핑몰에 판매계정을 보유한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인력, 예산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하여 제품 등록, 마케팅, 배송, C/S 등 온라인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2,702개사를 지원하여 1,019억 원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표 II-3-4-6 | 온라인쇼핑몰 판매실적 현황

(단위 : 개사 / 억원, '19.12월말 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기업	1,543	1,531	1,524	2,011	2,702
판매실적	433	443	464	610	1,019

② 온라인수출 기업화 사업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계정생성에서 판매실습 및 마케팅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내수기업 2,937개사를 지원하여 1,835개사는 첫수출을, 1,173개사는 1천불 이상의 수출에 성공하였다.

③ 자사몰(독립몰) 육성사업

업종·테마별 전문몰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쇼핑몰 신규 구축,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0개사를 지원하여 442억 원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표 II-3-4-7 | 자사물 판매실적 현황

(단위 : 개사 / 억원, '19.12월말 기준)

구분	2018	2019
지원기업	47	70
판매실적	432	442

④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을 집적하여 배송비를 낮추고 물류 창고 및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신설 사업으로, EMS 대비 약 54% 할인된 단가를 제공하여 490억 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창출하였다.

2020년에는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과 제품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신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4)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WTO의 자유무역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중 무역갈등 등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강화 등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19년 TBT 통보문 역대최대치 기록)

* WTO TBT 통보문 현황 : 2,332건('16년) → 2,580건('17년) → 3,061건('18년) → 3,337건('19년)

또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단키트 등 방역제품 수요 증가와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EU(유럽연합)에서는 의료기기 지침(Medical Device Directive)을 법령(Medical Device Regulation)으로 강화하여 2021년부터 강제 시행 등 인증획득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필수로 획득해야하나,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증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며,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등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0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86건의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II-3-4-8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예산	206.9	132.6	164.6	176.5	106.5	106.5	106.5
지원인증	3,706	3,416	3,001	4,467	2,476	2,811	1,986

앞으로도 해외규격인증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획득 역량을 제고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수출기업 지원 및 해외교류 인프라 확충

- 글로벌성장정책과 김 희 중
- 글로벌성장정책과 김 해 인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1998년 1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도, 경기북부사무소 등 총 14개의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무역투자 진흥회의(2013.5월) 및 대외경제장관회의(2013.5월)를 통해 수출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수출지원기관을 한데 모아 원루프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동 계획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8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청의 5대 광역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단 설치를 시작으로 17년까지 경기, 인천, 울산, 전북 등 11개 지역에 지원단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집점을 확대하였다.

현재 수출지원센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3-4-9 | 수출지원센터 인력 현황('19.12)

(단위 : 명)

구 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계	코트라	지원단		총계
	공무원	전문위원	사무원	파견	중진공			소계		
서울	4	2	1	2	9	-	-	-	9	
부산	5	-	-	-	5	21	3	24	29	
대구경북	4	-	1	-	5	21	6	27	32	
광주전남	2	1	1	-	4	18	3	21	25	
제주	3	-	-	-	3	1	1	2	5	
경기	1	3	1	-	5	42	4	46	51	
경기북부	1	1	1	-	3	19	-	19	22	
인천	3	1	1	-	5	21	4	25	30	

구 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계	지원단			총계
	공무원	전문위원	사무원	파견	코트라		중진공	소계		
대전충남	5	1	2	-	8	26	4	30	38	
울산	1	1	1	-	3	9	2	11	14	
강원	2	1	1	-	4	10	-	10	14	
충북	3	2	1	-	6	12	3	15	21	
전북	2	1	1	-	4	12	3	15	19	
경남	5	1	1	-	7	17	2	19	26	
소계	41	15	13	2	71	229	35	264	335	

표 II-3-4-10 |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단위 : 건, 개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장수출애로	4,862	5,606	4,892	6,408	6,311
수출유망기업 지정·관리	760	744	772	1,077	1,262
수출바우처사업	1,519	1,419	3,380	3,305	3,03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657	1,834	878	1,056	648
글로벌강소기업	167	150	135	183	200

나.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여 현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회계·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에 멕시코시티, 2014년에 중국 시안, 카자흐스탄 알마티, 베트남 하노이, 2016년에 중국 충칭, 칠레 산티아고, 2017년 태국 방콕, 미얀마 양곤에 신규 개소하여 현재 12개국 20개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현재 261개의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3-4-11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현황

(단위 : 개)

지 역	미 국				멕시코	칠레	러시아	UAE	독 일
	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멕시코 시티	산티 아고	모스 크바	두바이	프랑크 푸르트
설치시기	2006.2	1998.9	2004.3	2003.11	2008.3	2016.11	2006.9	2006.11	2000.4
입주규모	19개	18개	10개	22개	9개	9개	8개	11개	15개

지역	카자흐스탄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알마티	도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시안	충칭	호치민	하노이	방콕	양곤
설치시기	2014.11	2004.3	2002.8	2006.5	2003.11	2014.4	2016.12	2004.12	2014.6	2017.12	2017.12
입주규모	7개	15개	17개	22개	14개	7개	8개	15개	15개	10개	10개

현지진출 희망 중소기업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를 통해 현지 초기 시장개척과 정착에 있어 사무공간 및 회의실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기존 입주기업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현지 시장동향과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상호 정보공유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인프라에 입주해 해외 바이어에게 공신력을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 초기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년부터는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유오피스를 설치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협업을 지원하고, 단기 해외출장을 계획 중인 중소벤처기업에게 업무용 사무공간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19년 하반기 세계적 혁신허브 지역인 시애틀, 뉴델리, 텔아비브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스타트업 관련 사업의 체계적·통합 연계 정책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업종 특화 프로그램, 사무공간, 멘토링,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표 II-3-4-12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현황

설치연도	지역	설치유형	진출 분야	진출 전략
'19년	시애틀 (미국)	현지진입형	빅데이터, AI, 항공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대기업 공동 진출 ■ 해외 VC 후속투자 연계
	뉴델리 (인도)	현지진입형	전기이륜차, 폐기물처리, 수질오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리 대규모 투자 및 외국 기업 기술 요청 대응 ■ 이륜전기차 공공 발주, 스마트시티
	텔아비브 (이스라엘)	프로그램형	AI, 어그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전 세계 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 ■ 미국 IR 포함하여 프로그램 구성

2019년 3개소(미국, 인도, 이스라엘)에 참여한 23개사는 투자유치, 현지 파트너사와 MOU 체결(NDA·LOI 등), PCT·라이선스 출원, 합작·현지법인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시장 진입에 성공하였다.

표 II-3-4-13 | 수출인큐베이터 수출실적

(단위 : 개, 천달러)

국 가	지역	개소 시기	수출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미 국	뉴욕	2006.2	11,088	39,713	22,660	51,677	23,800	27,374	42,042	17,192
	시카고	1998.9	31,867	41,250	45,039	25,054	28,947	34,372	41,532	50,446
	워싱턴	2004.3	2,100	14,569	15,319	12,500	7,903	13,180	30,179	8,402
브라질	LA	2003.11	25,023	16,074	47,046	72,389	16,750	113,239	91,043	56,485
	상파울루 (17.07폐쇄)	2004.11	64,213	55,199	48,619	1,101	3,814	0	0	0
독 일	프랑크푸르트	2000.4	31,192	48,256	38,816	36,859	127,733	45,647	79,729	63,984
일 본	도쿄	2004.3	22,156	26,031	28,794	31,415	69,492	50,257	53,948	110,549
	베이징	2002.8	46,192	15,656	36,600	38,125	27,072	766	3,754	2,441
중 국	상하이	2006.5	57,787	76,320	130,795	91,349	14,505	84,786	13,938	33,478
	광저우	2003.11	43,720	14,020	10,842	16,826	17,103	25,557	9,021	2,726
	청두 (17.07폐쇄)	2007.12	8,981	28,305	29,524	96,084	17,376	1,700	0	0
	시안	2014.4	-	-	18,988	6,197	57,550	9,522	6,145	3,318
베트남	충칭	2016.12	-	-	-	-	-	4,812	6,946	2,501
	호치민	2004.12	3,338	16,225	48,843	54,045	36,286	26,629	26,721	32,016
	하노이	2014.7	-	-	13,554	16,048	38,533	28,125	29,942	39,245
싱가포르	싱가포르	2006.8	56,034	21,320	9,192	15,661	34,295	19,631	23,670	113,080
러시아	모스크바	2006.9	4,772	11,973	16,255	26,846	17,284	49,193	15,531	13,928
UAE	두바이	2006.10	9,169	25,142	28,002	30,134	36,798	36,933	42,601	19,459
인 도	뉴델리	2006.11	25,865	7,806	27,427	22,611	981	23,547	28,117	30,033
멕시코	멕시코시티	2008.3	21,184	14,828	16,444	18,818	35,498	10,549	26,413	9,169
카자흐스탄	알마티	2014.11	-	-	-	865	2,641	45,220	55,774	24,917
칠 레	산티아고	2016.11	-	-	-	-	-	1,905	36,481	23,722
태 국	방콕	2017.12	-	-	-	-	-	0	7,073	22,782
미얀마	양곤	2017.12	-	-	-	-	-	0	7,809	11,045
13개국	21개소	-	464,681	472,687	632,759	664,604	614,361	652,944	678,409	660,885

4

국제협력 추진

- 국제협력과 강성국
- 국제협력과 이일준
- 국제협력과 김석동
- 국제협력과 윤지은
- 국제협력과 손송준
- 국제협력과 백안심
- 국제협력과 장은원
- 국제협력과 박윤식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유럽지역 스타트업 진출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국가 및 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교류 추진,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 고위급 교류 등 정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여건과 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스타트업 글로벌화 및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자간 협력으로 APEC, OECD 등 회의체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회원국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진출 기반을 다지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다.

가. 양자협력 활동

정부는 중소기업 진출 국가 및 방식 다변화를 위해 북유럽,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 등에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정상 순방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1) 북유럽 협력

'19년 6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여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한 핀란드 및 스웨덴 등 북유럽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상방문 계기 최초로 경제사절단 구성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북유럽 및 유럽 진출을 확대하는 큰 계기를 마련한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북유럽 순방기간 중 핀란드에서는 양국 정상 참석하에 '개방형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미래를 본다'를 주제로, 혁신성장 포럼, 헤커톤, 쇼케이스, 투자 설명회 등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간 대규모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개최하였으며, 양국 정상 참석하에 중소벤처기업부 - 핀란드 고용경제부간 스타트업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양국 스타트업, 투자자, 연구기관 등 혁신 관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Korea Startup Center 설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같은 순방기간 중 스웨덴에서는 양국 정상 참석하에 한국-스웨덴 소셜벤처와의 대화를 통해 양국 소셜벤처 정책 공유 및 인팩트 투자사 및 소셜벤처 간 교류 협력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향후 양국 스타트업 및 소셜벤처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스웨덴 기업혁신부간 정부간 협력 MOU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20년 Korea Startup Center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2) 신남방 지역 협력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신남방 정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행사로 중기부는 '19년 9월 태국, 미얀마, 라오스와 정상순방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강화 행사를 개최하였다. 태국에서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 동남아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BRAND K"를 국내외 최초로 런칭쇼를 개최하였다. 한편, Borderless Startup, One Eco-system'을 주제로 한-아세안 개방 혁신과 글로벌화를 위한 스타트업 행사 개최, 양국 스타트업 50개사 참석하는 한-태국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스타트업이 태동하는 미얀마 및 라오스와는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가졌다.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를 개최하였다. 동 엑스포는 한-아세안 11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한-아세안의 상생·번영 확대와 공동 창업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을 선포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한-아세안 스타트업 간에 파트너십 확대와 경영노하우 공유, IR피칭 등 상호 교류의 기회 제공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위크, 글로벌 기업의 강연과 패널 토론, 아세안 스타트업 IR피칭,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아세안 혁신성장 포럼' 등을 개최하였다.

한편, 이러한 스타트업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향후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 의장 공동선언문에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하여, 중기부-ACCMSME²¹⁾ 정책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제1회 중기부-ACCMSME 정책대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제1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19년 11월, 캄보디아)하여 '20년에 양측간 정책분야, 기업교류 분야, 공무원 연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하여, 중소기업 화장품 전시회를 중심으로 현장 관람객들이 뷰티 셀럽들과 제품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K뷰티 페스티벌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3) 신북방 지역 협력

신북방 지역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해외 진출 환경 직간접 지원하는 노력도 추진하였다. 러시아 우수한 연구개발 원천기술과 국내 스타트업간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된 한-러 혁신 플랫폼을 통해, 러시아 혁신 스타트업 협력 중추기관인 스킴코브재단과 협력을 통해 국내 6개 스타트업의 현지 인큐베이팅 지원 등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였다. 카자흐스탄에는 정상 순방 계기 시장개척단 등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19.4)하였으며, 양측간 기술교류를 확대 기술교류센터를 개소(19.12.4), 동 순방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카자흐 중소기업공사 간 MOU 체결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 확대 등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교류기반을 구축하였다. 우즈베크과는 중기부-우즈베크 혁신개발부 간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 및 우리 중소기업 12개사가 참여한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한 우리 기업 현지 진출 지원하였다. 몽골과는 몽골 농식품경공업부, 몽골 외교부 차관, 몽골 대통령 영애 등 고위급 면담을 통하여, 한국의 몽골지역 스타트업 기반 구축을 ODA로 지원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되었다.

21) ACCMSME(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는 아세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 등을 논의하는 관련 부처 아세안 고위급으로 구성된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위급 면담을 통한 양국 중소기업 분야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19년에도 핀란드, 스웨덴,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15개국 장·차관급 인사 및 주한 대사와 면담을 통해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2017년 중소기업부 승격 이후 해외 정부와 중소기업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더 중소기업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대비 혁신과 개방이 더욱 중요해져 가는 시점에서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중기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중소기업 디지털 분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나. 다자협력 활동

중기부는 양자뿐만 아니라 APEC, OECD, EU, ASEM 등 다자기구 및 협의체 등과 한국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을 널리 홍보하고 협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1) OECD 협력

OECD는 이사회 및 위원회와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부는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소속의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작업반(WP5MEE)'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관련 이슈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D4SME(Digital for SMEs) 이니셔티브'가 발족하였다. 중소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뉴질랜드·아일랜드 중소기업 주관 부처 장관과 함께 D4SME 이니셔티브 발족을 위한 제1차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회의는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Going Digital Project)' 등 기존 OECD 디지털화 관련 프로젝트가 상세히 다루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집중 조명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여러 집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중기부 장관은 한국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포스코와 텔스타홈텔이 각각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하여 스마트공장 확산 사례를 발표하여 참여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19.4월 중소기업작업반

(WPSMEE) 회의 및 중소기업 프렌즈 그룹 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였으며, 향후에도 선진국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신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신규정책 마련 및 개선에 활용하고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OECD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 및 D4SME 이니셔티브 등 중소기업 분야 OECD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 APEC 협력

APEC 내 중소기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참가하여 APEC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우수 정책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19년 9월 칠레에서 개최된 제25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는 '중소기업 금융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 하에,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창업 정책을 발표하였다. 중기부는 '16년부터 매년 APEC 기금 확보를 통해 APEC 역내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19.10월에는 서울에서는 APEC 회원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부 및 민간 관계자를 초청하여 APEC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AI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혁신 비즈니스 노하우를 소개하였다. '19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포럼', 한국의 중소기업 스마트 정책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기업간 교류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안을 APEC 사무국에 우리측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APEC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을 홍보하는 매우 중요한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3) EU(유럽연합) 협력

'18년 한-EU 정상회담 계기 마련된 EU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중기부 최초로 EU와 '제1회 한-EU 중소기업 정책대화를 개최(214, 서울)하였다. 양측은 처음으로 개최하는 중소기업 정책대화인 만큼, 상호간 정책과 관심사항을 교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양측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정책발표, 중소기업 해외진출, 스타트업 교류협력, 향후 운영방향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양측간

중소기업 정책대화는 2년마다 개최기로 하고 '20년 정책대화는 브뤼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우리측은 한국-EU 중소기업이 EEN²²⁾을 통해 기술협력을 포함, 비즈니스 매칭 등 많은 성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EU측이 추진중인 청년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청년기업가 프로그램²³⁾ 등에 협력의사를 교환하였다. 한편, EU측은 양측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정기적인 정책대화뿐만 아니라, OECD, APEC 등을 통해서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정책대화에서는 스타트업 교류협력, 중소기업 디지털, AI 및 빅데이터 등 정책교류 및 협력을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ASEIC 친환경 협력

한국 중소기업의 친환경 관련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ASEIC²⁴⁾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SEM 친환경혁신센터)을 통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친환경 혁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9년에는 기술연계 후속 프로그램으로 보다 심층화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한국 우수기업 담당자의 강연 및 현지 기업 대상 일대일 코칭 상담회를 진행하였다. 참여국은 베트남, 미얀마, 태국으로, 이 중 한국 방문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태국에는 전시회 및 선진기업 시찰도 제공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기후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메커니즘 연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발굴하였다. UNFCCC의 프로그램 CDM 제도를 활용하여, 친환경연료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배출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범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다.

ASEIC은 2003년부터 시작된 아시아-유럽 환경포럼(Asia-Europe Environment Forum: 이하 ENV포럼)은 아시아와 유럽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논의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ASEIC은 2012년부터 ENV포럼의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고

- 22)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EU를 중심으로 67개국 63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조직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 현재 우리나라(KIAT에서 관련협력 총괄)를 포함 39개 비유럽국가가 가입
- 23) 에라스무스 청년기업가(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프로그램: EU내에서 추진되는 기업가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현재 제3국에는 싱가포르·미국·이스라엘과 운영
- 24) 제3차 아셈정상회의(2010.10. 별기에) 공식인준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된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는 ASEM 회원국 중소기업간 친환경 기술협력을 위해 개도국 대상 컨설팅, 친환경 혁신기술, 글로벌 포럼 개최, 전문가 회의 운영, 자수(ASEI) 개발, 인도네시아 GBC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있다. 아시아-유럽의 5개 기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매년 파트너 기관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연간 사업들을 계획하고 협력을 통하여 연례 콘퍼런스와 정부 대상 정책 워크숍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5개 기관은 ASEIC, 아시아-유럽재단(싱가포르), 한스자이델재단(독일),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일본), 스톡홀름환경연구소(스웨덴)이며 포럼 조정위원회에는 국제기구를 비롯한 아시아 유럽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 연례 콘퍼런스는 소비와 생산에서의 변화 촉발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을 주제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다. 지속가능소비와 생산 관련 라오스 국가 리뷰 보고서와 순환경제를 향한 ASEM의 전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편, ASEIC '19년도에는 제7차 ASEM 중소기업 친환경혁신역량 워킹그룹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ASEM 역내 10개 회원국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한국이 참여한 세미나에서는 에코톤, 포용적 성장, 글로벌 이슈대응력 강화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협력사업들을 논의하고 도출하였다. 캄보디아에서 에코톤(SDG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 공모 대회)을 9월에 개최하고, 5월에 개최된 룩셈부르크 스타트업 부트 캠프의 참여지원도 이루어졌다.

ASEM 회원국들의 친환경 혁신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수립의 근거를 제공하는 친환경 혁신지수(ASEI) 연구를 위하여 '19년에는 지속가능농업과 스마트팜을 주제로 8개 국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8-2019년에 수행했던 공동연구 결과는 국제행사들에 발표 및 보고서 배포가 이루어졌으며 ASEM내 정책 공유와 토론에 활용되었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ASEIC이 운영 중인 그린비즈니스센터(GBC)에서는 '19년에 한-인니 중소기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등 현지정부와 협력을 통하여 한-인니 중소기업 혁신 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한-인니 ICT분야 글로벌 협력 기술교류와 인도네시아 귀환 근로자 및 한인기업 채용 만남의 장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다.

지금까지 ASEIC은 ASEM 조직 내에서 아시아-유럽의 친환경 동반성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 향후 회원국 간 공동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ASEM 중소기업간 친환경 혁신 및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참고

우리나라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가 현황

회의별	일시 및 장소	발표내용	참가자
1차('94.10)	일본 오사카	▪ 중소기업의 5대 애로분야	산자부 장관
2차('95.9)	호주 Adelaide	▪ 금융시장의 효율성 연구 등	산자부 차관
3차('96.9)	필리핀 Cebu	▪ 중소기업의 세계화 여건 조성 등	이우영 청장
4차('97.9)	캐나다 오타와	▪ APEC 중소기업 활동을 위한 기본틀 마련 등	정해주 청장
5차('98.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말련 주도 중소기업 발전계획 채택	추준석 청장
6차('99.4)	뉴질랜드 Christchurch	▪ 역내 경제위기의 극복방안 등	추준석 청장
7차('00.6)	브루나이	▪ 인적자원, 금융,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한 회원국 경험 공유 등	신동오 차장
8차('01.8)	중국 상해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 논의	최동규 청장
9차('02.8)	멕시코 아까풀코	▪ 협력수혜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과 개발	이석영 청장
10차('03.8)	태국 치앙마이	▪ APEC 역내 기업이 사회의 강화 주제로 기업가 정신 등 논의	유창무 청장
11차('04.10)	칠레 산티아고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바람직한 정부정책 논의	김성진 청장
12차('05.9)	대한민국 대구	▪ 중소기업 혁신촉진을 주제로 인적자원 개발 등 논의	김성진 청장
13차('06.9)	베트남 하노이	▪ 무역과 투자를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우수사례 공유	이현재 청장
14차('07.3)	호주 호바트	▪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	이현재 청장
15차('08.9)	페루 FLAK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주제 우수사례	홍석우 청장
16차('09.10)	싱가포르	▪ 중소기업 글로벌시장 접근 및 무역 장벽 제거 지원 주제 우수사례	홍석우 청장
17차('10.10)	일본 기후현	▪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녹색기술	김동선 청장
18차('11.5)	미국 몬타나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김동선 청장
19차('12.8)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그린이니셔티브 결과 보고	송종호 청장
20차('13.9)	인니 발리	▪ 선순환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한정화 청장
21차('14.9)	중국 난징	▪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한정화 청장
22차('15.9)	필리핀 일로일로	▪ 기술창업활성화를 통한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축	한정화 청장
23차('16.9)	페루 리마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혁신	주영섭 청장
24차('17.9)	베트남 호치민	▪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	이상훈 국장
25차('19.9)	칠레 콘셉시온	▪ 중소기업 금융 및 디지털 전환	주철레 한국대사 대참

* '18년도에는 주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사정으로 중소기업 장관회의 미개최

제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절 |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상생협력 촉진

1

대·중소기업간 경영현황

▪ 상생협력정책과 노 진 상

성장성 측면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3.2%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5년 이후 대기업의 수익성이 상승하여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4-1-1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비교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증가율	대기업(A)	0.3	-0.4	-4.7	-1.3	7.9	2.7
	중소기업(B)	5.6	4.4	8.0	8.6	11.0	5.9
	(A)-(B)	-5.3	-4.8	-12.7	-9.9	-3.1	-3.2
영 업 이익률	대기업(A)	4.7	4.4	5.5	6.5	7.6	7.2
	중소기업(B)	3.2	3.1	3.6	3.9	4.0	3.5
	(A)-(B)	1.5	1.3	1.9	2.7	3.6	3.7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전산업)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비 평균 63.4% 수준이며, 2018년 중소기업 임금비중은 대기업 대비 63.8%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2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 기 업	4,583	4,823	5,017	5,131	5,145	5,474
중소기업	2,938	3,008	3,110	3,228	3,351	3,494
중소기업 임금비율(대기업=100 기준)	64.1	62.3	62.0	62.9	65.1	63.8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구.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상용임금, 전산업)

2

기업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 거래환경개선과 이 동 원
- 거래환경개선과 오 상 옥
- 거래환경개선과 박 지 수
- 거래환경개선과 오 유 진

가. 수·위탁 기업간 대금지급 현황

1)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결제 현황

기업 간 거래에서 수·위탁 관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정상적인 대금지급 여부는 자금력이 미약한 수탁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관련한 애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지급 비중을 보면, 현금성 결제비율은 84.4%로 어음결제에 비해 68.8%p 높았다.

표 II-4-1-3 | 위탁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지급 비중

(단위 : %)

연 도	현금성 결제		소 계	어 음
	현 금	어음대체결제		
2011년		79.2		20.8
2012년		73.1		26.9
2013년		77.0		23.0
2014년		75.9		24.1
2015년		76.4		23.6
2016년	74.3	4.7	79.0	21.0
2017년	75.8	5.5	81.3	18.7
2018년	78.6	5.8	84.4	15.6

* 어음대체결제 :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2012~2019)

2018년 어음 납품대금 평균 60일 이내 결제비율은 7.5%로 전년대비 1.5%p 증가 하였으나, 어음분야는 여전히 결제기일이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고 있다.

표 II-4-1-4 | 연도별 어음 납품대금 평균 결제기일

연 도	59일 이내	60일 초과			
		소 계	60~89	90~119	120일 이상
2011년	5.9	94.1	21.5	58.5	14.1
2012년	11.1	88.9	26.1	49.9	12.9
2013년	16.4	83.6	24.9	44.1	14.6
2014년	10.9	89.1	42.1	37.1	9.9
2015년	12.9	87.1	40.1	38.1	8.9
2016년	7.9	92.2	38.6	50.0	3.6
2017년	6.0	94.1	58.3	31.0	4.8
2018년	7.5	92.5	51.4	36.2	4.9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실태조사(2012~2019)

2)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매년 실시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벌점²⁵⁾을 부과한다. 그리고 벌점이 누적되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벌점에 따라 교육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위탁기업의 법령 위반 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²⁶⁾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실태조사의 경우 총 조사대상 12,000개사 가운데 657개사가 법을 위반하였으나,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하고 최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하였다.

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표 II-4-1-5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결과 법령위반기업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업체(개)	5,000	6,000	6,000	6,500	12,000
위반업체(개)	517	596	479	598	657
납품대금 분야	498	593	478	576	646
준수사항 분야	20(1)	4(1)	2(1)	24(2)	12(1)
개선요구	31	19	68	28	13

* () 는 납품대금 분야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업체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표준약관서 사용과 현금성 결제 100% 등을 실천한 기업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신용평가기관(신·기보) 우대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18년 수·위탁 실적에 있는 위탁기업 대상)은 3개사가 선정되었다.

나.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1) 의무고발 요청권 행사

공정거래 분야는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공정위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추가 검토를 통해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의무고발요청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1차의 위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온 대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비율이 낮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으로, 도입 이후 고발비율이 도입이전에 비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09~'13, 8.2% → '14~'19, 16.9%)를 거두고 있다.

2019년 까지 25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고발요청 하였으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 납품대금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 수급사업자, 피해금액, 적극적 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하였다.

앞으로도 법 위반기업이 끼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2) 수·위탁 분쟁조정 지원 활성화

수탁·위탁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의 사전 조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05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위탁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수·위탁거래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

표 II-4-1-6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05~2019)

구분	접수 건수	대금등 미지급	분쟁유형				조정결과			
			발주 기피 중단	대금 감액 인하	수령 거부	기타	성립	불성립*	중단	비대상
2005년	15	12	-	-	-	3	6	6	-	3
2006년	26	22	1	-	2	1	10	15	-	1
2007년	39	30	3	1	-	5	18	21	-	-
2008년	42	30	3	1	-	8	20	19	-	3
2009년	45	36	2	5	-	2	19	24	-	2
2010년	65	50	2	7	-	6	28	33	-	4
2011년	35	32	1	-	1	1	17	18	-	-
2012년	52	40	5	1	-	6	15	34	-	3
2013년	45	30	5	-	-	10	18	23	-	4
2014년	20	12	6	-	-	2	13		7	-
2015년	22	15	5	2	-	-	12	1	9	-
2016년	33	11	5	4	4	9	10	3	20	-
2017년	31	21	1	1	3	5	12	-	19	-
2018년	34	28	3	1	1	1	10	3	21	-
2019년	38	30	3	3	-	2	8	2	28	-
합계	542	399	45	26	11	61	216	202	104	20

* '05~'13년 불성립 : 중단 포함

3)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대기업 등의 갑질 근절을 위해 지역·업종별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확대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체널을 다양화 하고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11.29일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14개소에 설치 하였던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중소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2017년 29개소, 2019년 69개소, 2020년 총 70개소로 확대 설치하였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에로를 상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자문이나 분쟁 조정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이후 2013년 58건, 2014년 513건, 2015년 593건, 2016년 627건, 2017년 779건, 2018년 1,337건, 2019년 1,147건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수·위탁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2019년 도입되어 중소기업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 대상 여부, 조정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가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실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생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 상생협력정책과 노진상
- 상생협력정책과 강민수
- 상생협력정책과 민병철
- 상생협력정책과 이슬기
- 상생협력지원과 장준수
- 상생협력지원과 박준성
- 상생협력지원과 손정아

가. 대중기간 상생협력 추진 배경 및 경과

최근 경제의 화두는 AI, IoT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경쟁력을 강조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이다. 독일, 미국,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각 부처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도태는 대·중소기업의 격차확대로 이어질 것인바,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상생협력 정책을 시작으로 4차례의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켜왔다. “제1차 동반성장 기본계획(‘08.1)”을 통해 협력형 기술개발 확대, 거래관행·결제조건 개선 등 하도급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하였다.

이후 민간합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장치 마련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11.5)”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 왔으며,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4.12)” 수립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파트너 관계 개선 등 한층 성숙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8.5)”을 수립하여 신뢰 구축, 소득주도 성장, 열린혁신 선도 등 3대 전략과 납품단가 제값받기,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공정한 성과배분으로 소득격차 완화, 대기업의 혁신자원 개방 등 9대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2017년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대중소기업이 수직적·폐쇄적 생태계를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전환과 혁신의 주체인 기업들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은 산업 전반에서 상생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상생협력은 핵심기술 자립화, 비대면 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산업구조 재편과 기업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주요 실적 및 성과

(1)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확산

‘자상한기업’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의 줄임말로, 대기업 등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부터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 관련 협단체와 상호 연결하여 대기업의 상생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2019년 5월 ‘자상한 기업’ 1호 네이버를 시작으로 12월 현대·기아자동차까지 총 10개의 자상한 기업을 발굴하여 관련 분야의 민간 협단체와 연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거래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새로운 분업적 협력모델을 선도하였다.

‘자상한 기업’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벤처스타트업 투자,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전환지원 등 ‘자상한 기업’의 업종별 특수성 및 강점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 내용과 방식으로 자발적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의 지평이 기존의 협력사 중심에서 미거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맞아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을 위한 새로운 분업적 상생모델을 구현하는 데에도 자상한 기업이 기여하였다. 또한 AI·미래자동차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20년에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자상한 기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더 많은 ‘자상한 기업’을 발굴하여 상생문화 확산을 기대한다.

표 II-4-1-7 | <자상한 기업 협약체결 현황(2019.12월말 기준)>

대상기업	연결단체	MOU 내용
네이버 (‘19.5.13)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포스코 (‘19.5.2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조원 전략 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투자지원
신한금융그룹 (‘19.6.24)	벤처기업협회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
KB국민은행 (‘19.8.1)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자영업 전용상품출시 등 외식업자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우리은행 (‘19.8.2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전용상품출시 등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소프트뱅크벤처스 (‘19.9.26)	한국벤처투자	시분야 창업 촉진 및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
삼성전자 (‘19.10.11)	중소기업중앙회	소재·부품·장비 등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하나은행 (‘19.11.14)	이노비즈협회, 연세대	소재·부품·장비 기업 수요기술 지원체계 구축 및 이노비즈기업 지원
철도시설공단 (‘19.11.21)	한국여성벤처협회	창업·벤처·중소기업인들의 일·가정 양립 및 창업촉진
현대기아자동차 (‘19.12.18)	한국자동차산업 협동조합	내연기관에서 미래자동차로 자동차 부품전환 지원

(2) 성과공유제 확산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위탁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목표를 미리 합의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나타난 협력활동의 성과를 사전에 계약한 방법으로 상호 공유하는 경영혁신 모델로, 1959년 일본의 도요타(Toyota) 자동차가 고안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7월에 민간기업인 포스코(POSCO)가 중소 협력사와 상생과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공유제와 유사한 BS(Benefit Sharing)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5월 ‘제2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고시를 제정(‘12.4)하여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성과공유제 도입·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까지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도입(‘15)하고, 2018년도에는 지방공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 등록기업(누적)은 2012년 77개로 시작하여 2019년 469개로

확대되었으며, 확인과제(누적)는 2012년 997개에서 2019년 7,419개로 증가하였고, 참여 수탁기업(누적)은 2012년 566개에서 2019년 8,425개로 확대되었다.

'18.6월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배분, 물량내출확대 등 현금성 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였다.

표 II-4-1-8 |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인센티브	내 용
평가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
세제혜택	• 참여기업이 성과공유제 시행 목적으로 성과공유 재원을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수익계약	•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익계약 체결 가능
포상	• 성과공유제 시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우선구매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공공부문)
정부 R&D 관련 우대	• 중기부 및 산업부 R&D 과제 선정평가에 우대 배점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18.11월에 발표하였다. 기존의 성과공유제 외에 기업의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여부 및 유형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수행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정된 내부 자원을 극복하는 새로운 이익공유모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의 3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혁신추진본부를 협력성과혁신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정부는 민간중심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정착·확산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2010년에 신설하였다. 2011년부터 2019년 말 누적 기준 244개 기업으로부터 12,07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71,3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495억 원 지원되었다.

표 II-4-1-9 | 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협약				출연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합계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합계
금액	9,952	2,091	1,682	13,725	8,924	2,044	1,105	12,073
기업	120	46	83	249	120	46	78	244

* 2019년도 12월 말 기준

2017년부터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율 7%에서 10%로 상향(제8조의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100조의32) 등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어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지원이 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기금 사용목적(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을 폐지하고 전면 개방(제8조의3)하여 대기업 등은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기금을 활용한 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 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2017년 11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협력재단에 기금 관리·운영 업무를 추가하고, 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제20조의5)를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제13조의4)하여 생산성 향상, 기술보호, 창업지원, 국내외 판로 등의 사업에도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4)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상생협력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여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정량)’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대기업 협력시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정성)’ +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로 구성되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평가 결과 공표를 통해 우수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를 받는 기업은 2011년 56개사에서 2017년 185개사 2018년 195개사 2019년 214개사 2020년에는 218개사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중견기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2·3차 협력 중소기업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2013년에 중견기업 20개사를 평가대상으로 포함하였고, 2020년 기준 105개로 전체 평가기업(218개사) 중 약 50%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비효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6년도부터 “비효”등급을 신설하여 지수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한 경우에 한해 부여하고 있다. 최우수 및 우수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11 |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

구 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공정위)	동반성장 종합평가 (동반위)
대 상	대기업	1·2차 협력 중소기업 대기업
방 식	대기업별 제출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
주 요 평가항목	① 계약의 공정성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① 거래관계 · 공정거래, 거래조건의 공정, 적정성 ② 협력관계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 복지 인력개발 분야의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③ 동반성장 체제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환경조성 등
	② 법위반 예방 및 범준수 노력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대기업별 실적평가(정량) ④ 상생협력 지원 · 공정한 성과의 배분 ·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 상생협력기금 창립기금 지원 · 국내외 판로지원, 투명한 결제 시스템 운영 등
	③ 상생협력 지원 · 금융(자금)지원 · 기술지원 및 보호 · 인력·채용 지원 · 효율성 증대 정도 · 1·2차 협력시간 상생협력 지원 · 협력사 대상 매입액 적극조정 ·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⑤ (감점)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 성장에 반하는 법위반 행위 등
	④ (가점) CP협약결과, CCM인증, 재협약, 비협약사 대금지급조건 개선, 경영 직·간접 지원 등 (감점)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표 II-4-1-10 |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등 급	기 업 명(가나다순)
최우수 (30개사)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상, 만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유한킴벌리,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호반건설, CJ제일제당, GS건설,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우수 (62개사)	계룡건설산업, 남양유업, 대덕전자, 두산중공업, 롯데마트, 롯데정보통신, 롯데지알에스, 롯데하이마트, 르노삼성자동차, 빙그레,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양사, 세메스, 신세계건설,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오뚜기, 오리온, 웅진코웨이, 유라코퍼레이션, 이랜드월드, 이마트, 제일기획, 카카오, 코닝정밀소재,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케미칼, 풀무원식품, 한국야쿠르트,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양,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상호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홈쇼핑, 호텔신라, 화신, 효성중공업, CJ오쇼핑, GS리테일(GS25), GS홈쇼핑, HSD엔진, KCC건설, LF, LG하우시스, LS산전, SK실트론, SK하이닉스, SPC삼립
양호 (67개사)	가온전선, 경신, 고려아연,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농협유통, 대림산업(최우수→양호), 대우건설, 대원강업, 대한항공(항공우주), 더페이스샵, 데상트코리아, 동국제강, 동원F&B,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알미늄,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롯데홈쇼핑,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매일유업, 부영주택, 삼성물산(패션부문), 상호, 세방전지, 세아베스틸, 신세계인터내셔널, 쌍용자동차, 아성다이소, 이니스프리, 이랜드리테일, 일진전기, 코리아세븐,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태영건설, 평화정공, 풍산, 하림, 하이트진로,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국지엠, 한국프랜지공업, 한샘, 한온시스템, 한화케미칼, 해태제과식품, 현대로템,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화승알앤에이, 휴맥스, 회성전자, BGF리테일, CJ푸드빌, GS리테일(GS수퍼마켓), HDC현대산업개발, LS엠트론,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LS전선, OCI
보통 (23개사)	다스,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볼보그룹코리아, 서울반도체, 성우하이텍, 신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오비맥주, 코리아씨키트, 코스트코코리아(양호→보통),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태광산업, 태평양물산, 파트론, 한국바스프, 한샘(양호→보통)*, 한솔테크닉스, 한화(우수→보통)*, 홈플러스, CJ올리브네트웍스(우수→보통)*, DB하이텍, S&T모티브
미흡 (7개사)	덕양산업, 서연이화, 서연전자, 에코플라스틱,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한솔섬유

*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동반성장위원회

그림 12 |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주무부처	인센티브 내용
기획재정부	•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신청(PQ) 가점 부여
법무부	•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거래위원회	• 최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R&D 사업참여시 우수등급 이상 기업 우대
동반성장위원회	•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5)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민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 28개 기관 평가를 시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평가대상을 총 2차례에 걸쳐 개정, 평가대상을 58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2019년에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계량형 평가지표(18개)를 제시하고 중소 협력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결과를 합산하여 4개 등급으로 발표하였다. 2019년 58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는 대외 공표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비계량 지표로써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표 II-4-1-11 | 2019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

등 급	공기업형	기 관 명(가나다순)	
		준정부형	기타형
우수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남부발전(주) · 한국동서발전(주) · 한국중부발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환경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호 (2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만공사 · 한국남동발전(주) · 한국서부발전(주) ·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조폐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전KDN · 한전KPS(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도로교통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원자력연료
보통 (2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한국철도공사 · 대한석탄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석유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유통 · 주택관리공단

(6)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정보공유는 모든 영역에 있어 활동을 촉진한다.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은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사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DB화하여 자사 협력사 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도 쉽게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 6월 시범오픈 이후 2018년까지 1,722개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었으며, 이 중 66.9%에 해당하는 510개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중소기업에게 개방되어 운영되었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자체 운영하는 상생협력 관련 사이트를 시스템에 연동하여 중소기업이 기업별 협력사 등록절차 및 신규거래 제안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웹 홍보물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생협력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상생누리라는 상생협력 종합 플랫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여 대기업, 공공기관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경쟁력 있는 잠재 협력사를 조기에 발굴하고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표 II-4-1-12 |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 (18.12월말 기준)

(단위:개,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누적)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교 육	139	26.5	82	21.4	222	27.3	443	25.7
판 로	66	12.6	70	18.2	155	19.0	291	16.9
컨 설 팅	95	18.1	22	5.7	61	7.5	178	10.3
기 술	49	9.4	46	12.0	67	8.2	162	9.4
특 허	20	3.8	12	3.1	5	0.6	37	2.1
금 용	71	13.5	36	9.4	58	7.1	165	9.6
창 업	9	1.7	22	5.7	34	4.2	65	3.8
인 력	10	1.9	11	2.9	31	3.8	52	3.0
네트워킹	8	1.5	6	1.6	20	2.5	34	2.0
기 타	57	10.9	77	20.1	161	19.8	295	17.1
합 계	524	100	384	100	814	100	1,722	100

거래 관계에 있어 2차 이하 거래기업이 납품대금 지급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지급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목표로「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발표(14.11.17)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까지 총 운용액은 407조 8,601억 원, 구매기업은 389개(민간기업 323개, 공공기관 66개), 거래기업은 129,165개(1개 거래기업이 여러 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1개로 산정)가 상생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 10개 은행이 상생결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전자조달이용자들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규정된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갖춰야할 기능을 모두 충족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회 등 현장홍보, 홍보자료 발송, 리플릿 배포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II-4-1-13 | 상생결제제도 운용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합계
총 운용액(억원)	245,931	666,643	935,991	1,074,323	1,155,713	4,078,601
구매기업-1차(억원)	242,716	658,026	925,797	1,061,231	1,138,789	4,026,559
1차 이하(억원)	3,215	8,617	10,194	13,092	16,924	52,042

표 II-4-1-14 | 상생결제제도 기업 규모별 실적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민간기업				공공기관	합계	
	상호출자 제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계			
도입기업수(개)	132	157	34	323	66	389	
결제액	구매기업→1차사	3,508,338	443,406	10,708	3,962,452	64,108	4,026,560
	1차 이하	45,889	4,362	112	50,363	1,679	52,042
	합계	3,554,227	447,768	10,822	4,012,814	65,787	4,078,601

(7)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인하여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최대 6년)하거나 시설·품목·수량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1961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근거하여 도입하였고, 2006년부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의 신청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확산되자 중소기업인들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본격화하였다.

2019년 말까지 총 1,004건이 접수되어 980건(97.6%)이 처리되었고, 24건이 진행 중에 있다. 종료건 중 대부분이 자율조정으로 완료(769건, 76.6%)되었고, 정부가 강제조정 권고한 건은 22건(2.2%)이다. 업종별 신청은 SSM이 731건(72.8%)으로 가장 많고, 대형마트가 113건(11.3%)이며, 생활용품판매,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등 기타업종이 160건(15.9%)이다.

2009년 사업조정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신청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대기업의 신업태 출현에 따라 신청업종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표 II-4-1-15 | 사업조정 처리 현황('09.1.~'19.12.)

(2019년 12월 기준)

구분	신청	조정 완료			반려	진행
		자율조정	조정권고	소계		
대형마트	113	89	3	92	21	
SSM	731	562	14	576	141	14
기타	160	118	5	123	27	10
합계	1,004	769	22	791	189	24

표 II-4-1-16 | 연도별 사업조정 처리현황(신청일 기준)

(2019년 12월 기준)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 신청	145	146	127	137	79	94	68	47	69	59	33	1,004
○ 조정완료	117	125	103	93	63	75	57	38	62	46	12	791
자율조정	108	125	103	93	63	72	56	37	55	46	11	769
조정권고	9	-	-	-	-	3	1	1	7	-	1	22
○ 반려	28	21	24	44	16	19	11	9	6	4	7	189
○ 진행	-	-	-	-	-	-	-	-	1	9	14	24

* 해당연도 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

정부의 강제적인 권고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당사자 간에 상생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동반성장 위원회의 합의 도출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권고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까지 총 110개 업종·품목이 권고되었다. 그러나 민간(동반성장위원회) 자율 합의 기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는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정부가 업종·품목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 업체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적합업종 법제화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고, 국회에서 2018년 6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2018년 12월 13일자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2019년 1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2019년 23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해당 업종·품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가스연료 소매업’, ‘간장 제조업’, ‘된장 제조업’, ‘고추장 제조업’, ‘청국장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 8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신청 업종·품목 중 일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단체와의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체결되어 소상공인 보호 및 상생협력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영역 조정 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자생력을 확보하여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업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LPG가스연료소매업, 장류 제조업 등 41개 업종·품목 대상 26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8)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중소기업이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기술침해 등 불공정행위를 당하여 당사자간 합의나 조정·중재 없이 고소·고발 및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부처별로 각각 조정·조사·수사 등을 수행하고 있어 부처간 연계가 미흡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해 조정·중재를 유도하고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9년 6월부터 민관 공동으로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대진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거래공정화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업계 대표 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 당연직 : 중기부 장관(위원장), 중기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특허청 차장(6명)
 위촉직 : 각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 교수, 변호사 등(9명)



출범이후 현재('19년말 기준)까지 총 3회 회의를 개최(분기 1회)하여, 기술침해·불공정거래의 조사·조정·중재에 대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또한, 제2차 회의('19.9월)에서 건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후 총 4건이 연계되어 조정추진중이다.

제2절 협업을 통한 혁신역량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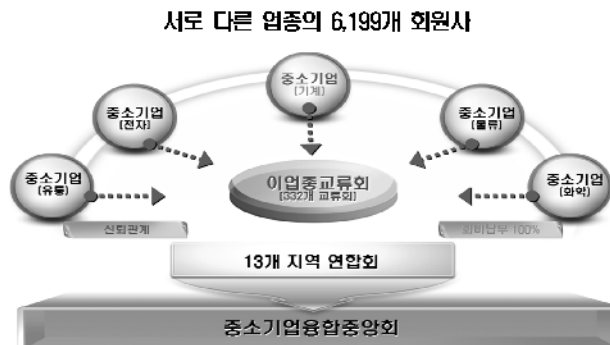
1 중소기업간 협력 유도

- 지여혁신정책과 조 해 지
- 기술정책과 서 유 신

가. 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

1994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 이업종교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교류지원부를 설치하여 이업종교류 지원업무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업종 단위교류회 신규결성 및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CEO포럼 등의 사업을 보조하고 매년 단위교류회 및 참여기업의 교류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전시하는 중소기업융합대전 개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문화조성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3 | 중앙회의 구성 및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 합 회	13	13	13	13	13	13	13
교 류 회	329	332	315	315	301	269	267
회 원 사	7,029	7,141	6,546	6,546	6,078	6,058	6,199

중소기업융합대전은 2004년부터 이업종교류회 소속 기업의 단합과 교류성과 공유를 위해 전국을 순회 개최하였던 중소기업 한마음대회를 2014년 정부의 융합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토록 중소기업융합대전으로 격상시켜 매년 기업 간 교류와 협력활동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 포상 수여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력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4-2-1 |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최기간	6.21	5.22~23	9.4~5	5.21~22	4.22~23	4.14~15	5.12~13	4.26~29	5.15~16	6.10~11
개최지역	대전 충남	제주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대구 경북	울산	강원
참가규모	290	400	550	550	1,100	1,200	1,400	1,560	1,558	1,800

표 II-4-2-2 |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최기간	9.26-27	10.28	10.19	10.23	10.30	10.16-17
개최지역	천안	대전	서울	익산	대전	안동
참가규모	1,500	1,000	1,000	1,000	800	2,000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개회사



전우현 경제부지사 환영사



국민의례



정부포상 수여



협업기업 우수사례 발표



성과전시

2019년부터는 중소기업 간 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간 생산적 교류활동을 통한 협업과제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협업 과제에 대해 비즈니스 모화 지원, 협업 신사업 창출을 위한 협업선도기업 지원, 네트워크형 R&D 이후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기업 지원중심의 사업을 통해 협업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표 II-4-2-3 | 기업지원 사업내용 및 '19년 실적

사업명	주요내용	'19년 지원실적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소그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기술융합 관련 아이디어 및 과제 발굴 ◦ (내용) 워크숍·세미나 등 정보교류 활동과 시장전문가·기술전문가 매칭을 통해 협업과제 및 기술&비즈니스 로드맵 구축 지원 	17개 협업체
협업비즈니스 모델(BM) 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비즈니스모델 및 협업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여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 ◦ (내용) 협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대상 사업모델링, 기술·시장 분석, 사업성 검토, 협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 	10개 협업체
협업선도기업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협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협업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획 등 지원하여 협업선도기업으로 육성 ◦ (내용) 협업을 통한 신사업추진 및 사업고도화를 위해 신규 협업기업 발굴, 협업아이템 발굴, 협업사업기획, 협업사업화 등 신규 협업 추진을 위한 활동비 지원 	5개 협업체
디자인협업 C&BD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기존제품의 디자인 트렌드, 소비자 감성?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 혁신상품으로 개선하는 협업모델 지원 ◦ (내용) 혁신상품 개발의 전주기 협력 및 공급망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을 촉진 	4개 협업체
지자체 신사업발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벤처기업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과 기술융합 촉진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 (내용)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협업R&D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고, 선정된 협업과제에 대한 사업화 지원 	5개 협업체
R&D완료과제 사업화 후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중기부 협력R&D 완료 과제에 사업화 과정을 후속 지원하여, 실질적 R&D 성과 창출에 기여 ◦ (내용) 네트워크형 R&D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3가지 이내 애로사항 권고)해결을 위한 직접(활동)비 지원 	5개 협업체

나. 기술혁신센터 지원

실리콘 밸리는 혁신 창업가, 대학 연구소 등이 잘 어우러져 전세계 혁신창업을 주도하는 창업의 메카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 BT, CT, NT 및 첨단 융합 기술관련 국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하여 첨단 기술단지 조성하여 관련분야 중소기업이 대거 밀집해 있는 곳이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월 판교에 대학·연구기관 전문인력을 집적시킨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산업생태계 중심 R&D 및 인적교류 기반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업 간 또는 대학·연구기관 등과 교류 및 공동 R&D 기획·수행 등을 위해 개방형 사무공간 제공, 기술전문교육, 기술교류회, 기술커뮤니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기술상담 및 특허·법률 상담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력 R&D 연계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표 II-4-2-4 | 협력 R&D 연계지원 실적

(단위: 개)

연도	기계 소재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원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학	지식 서비스	합계
2017	6	5	2	2	1	4	-	20
2018	3	11	3	3	2	2	1	25
2019	6	3	2	3	-	4	-	18

2019년 총 774건의 기술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를 해소하였으며, 기타 교류 프로그램은 총 61회, 2,980명이 참석하였다. 지속적인 협력기관 모집을 통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표 II-4-2-5 | 교류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회, 명)

연도	교육/포럼		세미나/커뮤니티		마켓		네트워킹		합계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2017	8	292	23	927	8	550	6	145	45	1,914
2018	14	363	8	414	3	120	4	593	29	1,490
2019	21	670	27	627	3	166	10	1,517	61	2,980

2

포용적 동반성장 확대

- 정책총괄과 이 경 규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임 영 주

가. 여성기업 육성 정책

1) 여성기업 일반현황 및 정책개요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수는 '17년 기준 약 1,470천개로 전체 기업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분포는 숙박·음식업이 31.1%, 도·소매업이 28.5%로 주로 경쟁포화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6.0% 수준이다.

표 II-4-2-6 | 여성기업 현황

(단위 : 천개사,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기업	3,235	3,354	3,419	3,545	3,604	3,676	3,737
여성기업	1,254	1,306	1,336	1,378	1,394	1,433	1,470
비율	38.8	38.9	39.1	38.9	38.7	39.0	39.3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가공

표 II-4-2-7 | 여성기업 주요 업종별 현황(2017년)

(단위 : 천개사, %)

연도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계
전체기업	745(19.9)	1013(27.1)	302(8.1)	158(4.2)	430(11.5)	1090(29.2)	3,737
여성기업	457(31.1)	419(28.5)	172(11.7)	92(6.2)	88(6.0)	242(16.4)	1,470
비율(%)	61.4	41.4	57.0	57.9	20.6	22.2	39.3

*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가공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원활한 창업 지원과 여성기업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기하고자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정부는 다양한 여성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여성기업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는 내용으로 여성기업법을 개정 시행됨에 따라(20.8)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3년부터 「통계법」에 따라 지정통계로 승인), 국내외 여성기업 관련 통계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 여성기업 지원 정책

(1) 여성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창업보육공간(19년 기준 총 226개실)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여성인력들의 창업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였으며, 유망 여성 창업·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2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여성전용·벤처펀드도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 여성기업 판로 촉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통한 여성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14년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공공구매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년에는 전년 대비 1.32조원(12.5%)이 증가한 11.9조원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여성기업 확인기업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II-4-2-8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 체	111.5	119.2	116.9	123.4	123.4	135.0
여 성	5.49	7.14	8.34	9.91	10.58	11.9
비율	4.9	6.0	7.1	8.0	8.6	8.8

표 II-4-2-9 |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	10,080	10,683	11,723	14,409	19,367
발급	8,153	9,242	10,450	12,541	16,178
누적	19,809	24,337	27,601	31,689	38,549

아울러,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통해 방송 등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에 맞추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수출실무교육, 전문가 컨설팅, 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여성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3) 여성기업 인력 등 지원

2017년부터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 가능한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를 통해 여성기업의 전문인력 부족현상 해소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CEO 등 여성경제인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국내·외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 교육 과정,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과정, 세계여성경제인 대회 등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등도 지원하였다.

아울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여성경제인 DESK(9개 센터)를 설치하여 경영 전략·마케팅·수출 등 분야별 전문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4) R&D, 금융 등 지원

여성기업들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전용 R&D 및 여성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R&D나 정책자금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II-4-2-10 | 여성기업 R&D, 정책자금, 보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전체	여성기업	비율	전체	여성기업	비율
R&D	10,353	509	4.9%	11,268	658	5.8
정책자금	44,150	4,675	10.6%	43,580	4,830	11.1
보증	522,977	31,109	5.9%	779,244	112,303	14.4

(5)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

여성기업 정책 수립 및 진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관련 통계 DB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1) 장애인기업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은 2019년 말 등록 기준으로 총 인구의 5.0%인 262만 명이며,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256만 명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 인구 64.0%에 비해 58.2% 수준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61.5%에 비해 56.7% 수준이며, 장애인 실업률도 6.3%로 전체 인구 4.0%에 비해 약 1.6배 정도 높아 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4-2-11 | 연도별 장애인 현황

(단위 : 만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인구	5,133	5,153	5,170	5,178	5,183	5,184
장애인구	249	249	251	254	258	261
비율(장애인구/총인구)	4.85	4.83	4.85	4.85	4.98	5.03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표 II-4-2-12 | 장애인 경제활동 동향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14년	장애인	2,449	970	39.6	37.0	6.6
	전체 인구	42,453	26,762	63.0	60.8	3.6
2015년	장애인	2,444	922	37.7	34.8	7.9
	전체 인구	42,975	27,211	63.3	60.9	3.8
2016년	장애인	2,441	941	38.5	36.1	6.5
	전체 인구	43,387	27,455	63.3	61.0	3.7
2017년	장애인	2,460	953	38.7	36.5	5.7
	전체 인구	43,735	27,828	63.6	61.3	3.6
2018년	장애인	2,495	922	37.0	34.5	6.6
	전체 인구	44,141	28,184	63.9	61.3	4.0
2019년	장애인	2,526	941	37.3	34.9	6.3
	전체 인구	44,460	28,468	64.0	61.5	4.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2019년 5월 기준)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체수는 9.5만 여개로 총사업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93.2%)이 소상공인이고 평균 기업체 종사자수는 3.47명, 그 중 장애인 종사자는 평균 1.07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8%를 차지하고 있다.

* 기업규모 : 중소기업 6,456개(6.8%), 소상공인 89,133개(93.2%)

표 II-4-2-13 | 장애인기업 업종별 분포

(단위 : %)

구 분	도·소매	개인서비스	제 조	숙박·음식업	기타
분 포	31.3	21.4	16.3	20.8	10.2

자료 : 2019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장애인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일반기업에 비해 크게 높아 장애인기업이 장애인의 소득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2-14 | 장애인 고용률 현황

(단위 : %)

구 분	정부기관 ¹⁾	공공기관 ¹⁾	민간기업 ¹⁾	장애인기업 ²⁾
고 용 률	2.86	3.33	2.79	30.8

주 : 1) 고용노동부, 201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

2) 2019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결과

2)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장애인기업도 더불어 잘 사는 경제실현을 위해 육성해야 할 분야로 2005년 7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2006년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2008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장애인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장애인이 경제 주체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고용·창출의 안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체계적 지원으로 늘어나는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 장애인구 증가(만명) : ('16) 251 → ('17) 254 → ('18) 258 → ('19) 261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 연도>

* 장애인기업수 : ('13) 34,761개 → ('15) 39,536개 → ('17) 39,967개 → ('19) 95,589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실태조사, 2019>

우선 창업교육은 장애 정도와 유형, 경제활동 경력 및 전문기술 보유 여부 등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9년의 경우 170명이 창업컨설팅을 수료하고, 이중 55명이 창업하여(창업율: 32.4%) 전년 대비 약 6% 정도 창업률이 상승하였다.

이 밖에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혁신성장 선도사업(드론, 스마트팜 등)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고, 발달장애인 창업을 위한 누룽지생산 및 버섯제조 등 영농 창업과정을 운영하였다.

* 누룽지 제조과정 신규실시(수료생 26명(발달장애인가족포함), 창업자 8명(2팀))

** 조선대학교 창업자: 드론 자격증취득 11명, 창업자 3명

창업초기 장애인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와 장애경제인의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 CEO 경영혁신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표 II-4-2-15 | 연도별 장애인 창업지원 현황

사 업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맞춤형 장애인 창업교육	기초 635명 특화 229명 역량 112명	기초 633명 특화 168명 역량 183명	기초 719명 특화 262명 역량 136명 재기 40명	기초 790명 특화 351명 역량 95명 재기 36명 수출 34명 폐업 94명	기초 916명 특화 172명 역량 112명 재기 52명 코칭 139명 창업컨설팅 162명	기초 1,077명 특화 114명 역량 137명 재기 32명 창업컨설팅 170명
	장애인기업 CEO 교육/연수/세미나	5회, 200명	4회, 146명	4회, 153명	4회, 162명	8회, 226명
장애인 점포지원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	8개 점포*	32개 점포	35개 점포	43개 점포	32개 점포 90명 (청년 38명)	25개 점포 90명 (청년 30명)

* '14년은 예산이 없어, '11년~'13년도 중 회수된 보증금으로 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인차하여 제공하는 창업전포지원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240개 점포의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그간 지원된 보증금의 상환(회수)되는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 25개 점포를 지원하였다.

그간 창업전포지원을 통해 창업한 사업자의 영업지속률에 대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일반사업체 대비 약 2배가량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II-4-2-16 | 창업점포지원 사업수혜업체와 일반사업체 비교

기 준 연 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창업 연도	점포 수혜자1)	일반 기업2)	창업 연도	점포 수혜자1)	일반 기업2)	창업 연도	점포 수혜자1)	일반 기업2)	창업 연도	점포 수혜자1)	일반 기업2)
2017년	('16)	91.4%	65.0	('15)	87.5%	52.8	('14)	75.0%	42.5	('13)	69.5%	35.6
2016년	('15)	90.6%	65.3%	('14)	75.0%	50.7%	('13)	69.6%	41.5%	('12)	76.2%	33.5%
2015년	('14)	87.5%	62.7%	('13)	82.6%	49.5%	('12)	81.0%	39.1%	('11)	61.9%	32.8%
2014년	('13)	95.7%	62.4%	('12)	81.0%	47.5%	('11)	76.2%	38.8%	-	-	-
2013년	('12)	100.0%	60.1%	('11)	76.2%	47.3%	-	-	-	-	-	-
2012년	('11)	95.2%	59.8%	-	-	-	-	-	-	-	-	-

주 : 1) 창업점포 수혜자('11년 21명, '12년 21명, '13년 23명, '14년 8명, '15년 32명, '16년 35명) 국세청 사업자등록 현황조회

2)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준 연도별 신생기업 생존율(2019.12.12, 통계청)

아울러 2018년부터는 창업초기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초도 물품비,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사업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19년 90명의 창업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청년창업자가 30명(33%)으로 청년 실업을 완화에 기여하였다.

(2) 장애인기업의 자립·성장기반 구축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08년 1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역센터(124개 창업보육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입주 시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판로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3.3㎡당 1만원의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표 II-4-2-17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주요시설	장애인 창업보육실, 강의실, 경영애로상담실 및 회의실, 편의시설 등
주요사업	장애인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 관련 창업부터 판로까지 지원

표 II-4-2-18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현황

지역센터	규모(㎡)	보육실 수(개)	설치일자	지원시설
서울	2,135	14	2008.01	보육실(본관 11개, 별관 3개), 대강당, 회의실, 재단사무처 등
대구	503	6	2008.12	보육실(6개), 회의실 등
광주	527	9	2008.12	보육실(9개), 창업준비실, 대강당, 회의실 등
부산	686	9	2009.05	보육실(9개), 창업준비실, 회의실 등
대전	420	6	2009.07	보육실(6개), 회의실 등
경기	663	8	2010.11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인천	313	8	2012.07	보육실(8개), 회의실 등
경남	298	8	2012.11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울산	429	8	2012.12	보육실(8개), 대강당, 회의실 등
전북	322	8	2013.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강원	310	8	2013.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제주	268	8	2013.12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전남	333	4	2014.11	보육실(4개), 다목적교육장, 회의실 등
충북	326	8	2014.11	보육실(8개), 회의실 등
경북	412	8	2015.12	보육실(8개), 대강당, 회의실 등
충남	370	4	2015.12	보육실(4개), 회의실 등
합계	8,315	124		

(3) 장애인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보 지원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2008년 3월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기업 물품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2016.7월에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 목표 설정 시 그간 전체 구매액의 0.45%로 운영하였던 것을 전체 구매액의 1%로 구매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기업 판로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장애인기업 확인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5개년 연평균 15.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 총 2,520건을 발급하여 2018년 대비 388건 (18.2%) 증가하였다.

표 II-4-2-19 | 연도별 장애인기업 확인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	1,263	1,699	1,746	2,081	2,171	2,533	2,911
발급	969	1,300	1,414	1,764	1,712	2,132	2,520
누적	1,765	2,269	2,714	3,191	3,490	3,839	4,580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은 2016년도에는 1.3조원(1.1%), 2017년도에는 1.5조원(1.2%), 2018년도에는 1.7조원(1.4%), 2019년도에는 2.1조원(1.6%)를 달성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II-4-2-20 |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구매액	7,959억원	10,899억원	13,231억원	15,406억원	17,677억원	20,952억원
공공기관 수	740개	765개	775개	788개	836개	837개

또한 장애인기업에게 국내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여 2018년에는 525개사에서 55,893백만원을, 2019년에는 693개사에서 84,359백만원을 낙찰 받는데 성공하였다.

2018년부터는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출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19년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총 20개사의 장애인기업을 UAE(두바이)와 베트남(호치민)에 각 10개사를 파견하였다. ‘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출상담 기회 제공을 위해 화상상담회로 변경하여 3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UAE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와 SCHS(UAE 장애인기관)와 소진공 수출인큐베이터, DP World 등의 현지 유관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두바이 수출시장 분석 및 수출상담회를 지원하였다. 베트남에서는 한국무역협회 호치민 지부 및 증진공 수출인큐베이터, 호치민 한인상공회 등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시장조사 및 수출 상담회를 지원하였다.

‘19년 수출상담회를 통해 20개사 중 5개사가 수출계약을 이루었으며, 총 135만 \$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해외 구매오퍼 대응 원스톱(One-Stop) 지원 등의 해외 온·오프라인마케팅지원을 20개사에 지원하여 8개사가 수출에 성공하여 150만\$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다.

제3절 지역 중소기업 육성

1 지역 중소기업 현황

- 지역혁신정책과 허 일 록

가. 지역 경제동향

2018년 시도 전체의 지역내 총생산(GRDP, 명목)은 1,900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60조원(3.2%) 증가하였다. 시도별 규모는 경기(474조원), 서울(422조원), 충남(118조원) 순이며, 세종(11조원)이 가장 적었다. 2018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수도권(4.3%)이 비수도권(2.1%)보다 높으며, 수도권의 비중(51.8%)도 비수도권(4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4-3-1 |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 명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전년대비 증가율
			지역내 총생산	비중	
전국	1,743,574,724	1,840,348,850	1,900,006,822	100.0	3.2
- 수도권	879,465,296	944,053,384	984,630,027	51.8	4.3
- 비수도권	864,109,428	896,295,466	915,376,795	48.2	2.1
서울	387,364,432	404,079,600	422,394,886	22.2	4.5
부산	85,536,348	87,835,601	89,726,236	4.7	2.2
대구	53,167,211	54,832,958	56,669,394	3.0	3.3
인천	84,663,335	88,547,364	88,390,043	4.7	-0.2
광주	36,819,006	37,743,917	39,814,505	2.1	5.5
대전	39,335,023	40,537,224	41,187,774	2.2	1.6
울산	74,660,841	75,750,070	75,636,003	4.0	-0.2
세종	9,979,343	10,632,043	11,108,745	0.6	4.5
경기	407,437,529	451,426,420	473,845,098	24.9	5.0
강원	43,078,659	45,511,732	46,981,996	2.5	3.2
충북	59,671,234	65,312,366	69,657,517	3.7	6.7
충남	106,869,144	115,557,697	117,691,807	6.2	1.8
전북	47,879,046	49,348,477	50,967,668	2.7	3.3
전남	71,615,402	73,732,402	76,465,519	4.0	3.7
경북	107,440,609	110,027,724	109,022,995	5.7	-0.9
경남	109,338,189	109,492,183	110,535,700	5.8	1.0
제주	18,719,373	19,981,072	19,910,936	1.0	-0.4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지역소득

2019년 전국 경제활동인구는 28,186천명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경기(7,226천명), 서울(5,319천명), 경남(1,817천명) 순으로 많으며, 울산(596천명), 제주(390천명), 세종(172천명)은 적은 편에 속했다. 세종이 전년대비 13.2%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대구가 1.2% 감소하여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표 II-4-3-2 |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구분	2017	2018	2019		
			경제활동인구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27,748	27,895	28,186	100.0	1.0
- 수도권	13,956	14,038	14,198	50.4	1.1
- 비수도권	13,793	13,858	13,986	49.6	0.9
서울	5,396	5,335	5,319	18.9	-0.3
부산	1,766	1,729	1,741	6.2	0.7
대구	1,291	1,282	1,266	4.5	-1.2
인천	1,607	1,645	1,653	5.9	0.5
광주	766	779	778	2.8	-0.1
대전	791	792	806	2.9	1.8
울산	605	602	596	2.1	-1.0
세종	132	152	172	0.6	13.2
경기	6,953	7,058	7,226	25.6	2.4
강원	811	812	841	3.0	3.6
충북	880	898	908	3.2	1.1
충남	1,174	1,216	1,231	4.4	1.2
전북	944	940	953	3.4	1.4
전남	988	988	999	3.5	1.1
경북	1,488	1,488	1,488	5.3	0.0
경남	1,775	1,801	1,817	6.4	0.9
제주	382	379	390	1.4	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년 전국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시도별 실업률은 서울(4.4%), 인천(4.4%), 대전(4.2%), 울산(4.2%), 순으로 높으며, 전북(2.7%), 세종(2.7%),

전남(2.6%), 제주(2.1%)는 낮은 편에 속했다. 경남(0.8%)과 강원(0.7%), 충북(0.7%)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구가 0.7%p 감소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II-4-3-3 | 지역별 실업률

(단위 : %, %p)

구분	2017	2018		2019	
		실업률(%)	전년대비 증가(%p)	실업률(%)	전년대비 증가(%p)
전국	3.7	3.8	0.1	3.8	0.0
서울	4.5	4.8	0.3	4.4	-0.4
부산	4.6	4.1	-0.5	3.7	-0.4
대구	4.0	4.4	0.4	3.7	-0.7
인천	4.6	4.3	-0.3	4.4	0.1
광주	2.9	3.8	0.9	3.7	-0.1
대전	3.4	4.2	0.8	4.2	0.0
울산	3.5	4.6	1.1	4.2	-0.4
세종	2.3	2.3	0.0	2.7	0.4
경기	3.9	3.8	-0.1	3.8	0.0
강원	2.6	2.9	0.3	3.6	0.7
충북	2.2	2.4	0.2	3.1	0.7
충남	2.8	3.1	0.3	2.9	-0.2
전북	2.5	2.7	0.2	2.7	0.0
전남	3.2	2.8	-0.4	2.6	-0.2
경북	2.8	4.1	1.3	3.9	-0.2
경남	2.9	3.0	0.1	3.8	0.8
제주	1.9	2.0	0.1	2.1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지역 중소기업 현황

1)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18년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경기(854,498개), 서울(774,695개), 부산(270,934개) 순으로 많으며, 제주(57,841개), 세종(14,300개)은 적은 편에 속했다. 2018년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세종이 전년대비 16.1%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표 II-4-3-4 |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단위 : 개, %)

구분	2016	2017	2018		
			사업체수	비중	전년대비증가율
전국	3,672,327	3,732,997	3,809,011	100.0	2.0
- 수도권	1,758,553	1,785,662	1,818,970	47.8	1.9
- 비수도권	1,913,774	1,947,335	1,990,041	52.2	2.2
서울	773,860	775,474	774,695	20.3	-0.1
부산	266,651	269,017	270,934	7.1	0.7
대구	194,387	198,000	198,987	5.2	0.5
인천	179,718	184,450	189,777	5.0	2.9
광주	107,364	109,295	110,343	2.9	1.0
대전	105,013	106,949	108,829	2.9	1.8
울산	77,901	78,671	80,415	2.1	2.2
세종	10,709	12,322	14,300	0.4	16.1
경기	804,975	825,738	854,498	22.4	3.5
강원	122,891	125,869	129,022	3.4	2.5
충북	114,195	115,330	118,798	3.1	3.0
충남	146,792	150,783	156,352	4.1	3.7
전북	131,323	131,505	134,129	3.5	2.0
전남	131,862	134,861	138,161	3.6	2.4
경북	203,144	206,151	211,770	5.6	2.7
경남	248,672	253,485	260,160	6.8	2.6
제주	52,870	55,097	57,841	1.5	5.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사업체수

2018년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24.6%), 서울(22.7%), 부산(6.9%) 순으로 높으며, 울산(2.1%), 제주(1.3%), 세종(0.4%)은 낮은 편에 속했다. 2018년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세종이 전년대비 19.9%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반면, 울산은 (0.1%) 감소하였다. 또한, 2017년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수도권 비중은 52.3%이며, 수도권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2.5%)도 비수도권(2.0%)보다 높았다.

표 II-4-3-5 | 지역별 중소기업 종사자수

(단위 : 명, %)

구분	2016	2017	2018		
			종사자수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5,392,246	15,527,605	15,882,760	100.0	2.3
- 수도권	8,018,404	8,104,239	8,310,289	52.3	2.5
- 비수도권	7,373,556	7,423,366	7,572,471	47.7	2.0
서울	3,599,169	3,575,057	3,612,973	22.7	1.1
부산	1,080,723	1,083,571	1,091,460	6.9	0.7
대구	717,631	722,471	737,658	4.6	2.1
인천	754,599	771,855	791,663	5.0	2.6
광주	429,696	436,530	446,712	2.8	2.3
대전	409,280	415,648	423,034	2.7	1.8
울산	349,643	339,177	338,995	2.1	-0.1
세종	47,732	53,934	64,659	0.4	19.9
경기	3,664,636	3,757,327	3,905,653	24.6	3.9
강원	399,666	412,073	425,588	2.7	3.3
충북	470,699	478,468	495,346	3.1	3.5
충남	604,484	617,878	635,650	4.0	2.9
전북	458,893	456,148	463,776	2.9	1.7
전남	458,297	464,658	481,618	3.0	3.6
경북	747,085	745,626	761,470	4.8	2.1
경남	1,009,956	1,005,148	1,007,408	6.3	0.2
제주	189,771	192,036	199,097	1.3	3.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종사자수

2) 신설법인

2019년 지역별 신설법인 수는 서울(33,023개), 경기(28,801개), 부산(5,349개) 순으로 많으며, 제주(1,405개), 울산(1,370개), 세종(702개) 등이 적은 편에 속했다. 광주, 울산, 강원,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세종이 전년대비 20.6% 증가하여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반면 광주는 가장 큰 비율(2.3%)로 감소하였다. 또한, 2018년 신설법인의 수도권 비중은 60.9%이며, 수도권 신설법인의 전년대비증가율(7.8%)도 비수도권(5.8%)보다 높았다.

표 II-4-3-6 | 지역별 신설법인 수

(단위 : 개, %)

구분	2017	2018	2019		
			신설법인 수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97,549	102,372	109,520	100.0	7.0
- 수도권	58,822	61,894	66,710	60.9	7.8
- 비수도권	38,727	40,478	42,810	39.1	5.8
서울	30,412	32,006	33,023	30.2	3.2
부산	4,748	4,758	5,349	4.9	12.4
대구	3,017	3,056	3,473	3.2	13.6
인천	4,048	4,446	4,886	4.5	9.9
광주	3,302	3,696	3,612	3.3	-2.3
대전	2,205	2,343	2,698	2.5	15.2
울산	1,365	1,386	1,370	1.3	-1.2
세종	568	582	702	0.6	20.6
경기	24,362	25,442	28,801	26.3	13.2
강원	2,096	2,253	2,246	2.1	-0.3
충북	2,463	2,528	2,618	2.4	3.6
충남	3,617	3,536	3,847	3.5	8.8
전북	3,044	3,257	3,371	3.1	3.5
전남	3,338	3,901	3,873	3.5	-0.7
경북	3,713	3,836	3,934	3.6	2.6
경남	3,925	3,965	4,312	3.9	8.8
제주	1,326	1,381	1,405	1.3	1.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3) 벤처기업

2019년 지역별 벤처기업 수는 경기(11,433개), 서울(8,877개), 부산(2,201개) 순으로 많으며, 울산(481개), 제주(211개), 세종(128개) 등이 적은 편에 속했다. 부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경북 지역에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증가하였다. 세종은 가장 큰 비율인 18.5%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2019년 벤처기업수의 수도권 비중은 59.3%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벤처기업수의 전년대비 증가율도 1.2%로 비수도권(-0.5%)과 큰 격차를 보였다.

표 II-4-3-7 | 지역별 벤처기업 수

(단위 : 개, %)

구분	2017	2018	벤처기업 수	2019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35,282	36,820	37,008	100.0	0.5
- 수도권	20,377	21,695	21,952	59.3	1.2
- 비수도권	14,905	15,125	15,056	40.7	-0.5
서울	8,180	8,708	8,877	24.0	1.9
부산	2,240	2,301	2,201	5.9	-4.3
대구	1,689	1,622	1,633	4.4	0.7
인천	1,544	1,680	1,642	4.4	-2.3
광주	834	842	792	2.1	-5.9
대전	1,305	1,426	1,468	4.0	2.9
울산	498	469	481	1.3	2.6
세종	90	108	128	0.3	18.5
경기	10,653	11,307	11,433	30.9	1.1
강원	665	695	713	1.9	2.6
충북	1,014	1,033	1,011	2.7	-2.1
충남	1,304	1,354	1,297	3.5	-4.2
전북	756	769	821	2.2	6.8
전남	753	780	813	2.2	4.2
경북	1,705	1,729	1,671	4.5	-3.4
경남	1,871	1,815	1,816	4.9	0.1
제주	181	182	211	0.6	15.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현황

4) 중소기업 매출액 및 수출액

2018년 중소기업 매출액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26.7%), 서울(23.5%), 부산(6.7%) 순으로 높으며, 울산(1.9%), 제주(0.9%), 세종(0.4%) 등이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의 수도권 비중은 55.3%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소기업 매출액은 울산,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세종이 전년대비 16.2% 증가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표 II-4-3-8 | 지역별 중소기업 매출액

(단위 : 억원, %)

지역별	2016	2017	2018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24,169,863	25,362,164	26,275,351	100.0	3.6
- 수도권	13,267,097	13,931,207	14,540,971	55.3	4.4
- 비수도권	10,902,766	11,430,958	11,734,382	44.7	2.7
서울	5,836,446	5,957,315	6,182,851	23.5	3.8
부산	1,670,689	1,737,779	1,751,208	6.7	0.8
대구	1,026,147	1,065,716	1,097,002	4.2	2.9
인천	1,226,795	1,300,225	1,345,277	5.1	3.5
광주	638,030	674,954	697,730	2.7	3.4
대전	544,614	578,405	593,007	2.3	2.5
울산	516,925	510,601	507,514	1.9	-0.6
세종	81,648	87,593	101,789	0.4	16.2
경기	6,203,856	6,673,667	7,012,843	26.7	5.1
강원	461,575	493,331	513,132	2.0	4.0
충북	776,481	836,258	879,975	3.3	5.2
충남	1,029,946	1,122,542	1,149,083	4.4	2.4
전북	635,045	658,513	677,551	2.6	2.9
전남	605,674	630,242	666,393	2.5	5.7
경북	1,175,186	1,225,150	1,263,328	4.8	3.1
경남	1,500,313	1,555,656	1,589,046	6.0	2.1
제주	240,493	254,218	247,624	0.9	-2.6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액 통계

2019년 중소기업 수출액의 지역별 비중은 경기(31.6%), 서울(25.1%), 부산(7.2%) 순으로 높으며, 강원(0.7%), 제주(0.2%), 세종(0.2%) 등은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수도권 비중은 62.6%로 비수도권(37.4%)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부산,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전년대비 중소기업 수출액이 증가하였고, 전남이 가장 큰 비율(13.6%)로 증가, 제주가 가장 큰 비율(12.8%)로 감소하였다.

표 II-4-3-9 |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액

(단위 : 달러, %)

지역별	2017	2018	2019		
	중소기업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03,209,386,764	105,196,003,174	100,927,597,120	100.0	-4.1
- 수도권	66,667,408,268	67,746,831,788	63,146,414,692	62.6	-6.8
- 비수도권	36,541,978,496	37,449,171,386	37,781,182,428	37.4	0.9
서울	26,552,808,927	27,335,594,362	25,326,144,790	25.1	-7.4
부산	6,774,223,018	6,842,548,610	7,282,216,681	7.2	6.4
대구	3,553,296,808	3,772,688,544	3,345,577,644	3.3	-11.3
인천	5,781,385,422	6,021,696,734	5,970,747,685	5.9	-0.8
광주	929,998,603	957,626,949	945,749,706	0.9	-1.2
대전	1,072,107,291	1,121,331,706	1,087,007,262	1.1	-3.1
울산	1,118,718,848	1,102,151,634	1,240,460,618	1.2	12.5
세종	251,628,469	177,609,114	181,178,458	0.2	2.0
경기	34,333,213,919	34,389,540,692	31,849,522,217	31.6	-7.4
강원	640,332,602	713,526,687	715,720,876	0.7	0.3
충북	2,582,157,407	2,922,760,087	3,061,857,088	3.0	4.8
충남	5,384,040,982	5,170,116,876	4,842,828,108	4.8	-6.3
전북	1,171,211,610	1,261,879,565	1,198,994,015	1.2	-5.0
전남	1,440,057,335	1,230,630,319	1,398,387,826	1.4	13.6
경북	4,935,827,940	5,306,194,322	5,576,930,507	5.5	5.1
경남	6,536,348,003	6,676,626,879	6,735,620,338	6.7	0.9
제주	152,029,580	193,480,094	168,653,301	0.2	-12.8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수출액 통계

2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 기획총괄과 남 현 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19년 4월부터 도입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서, 일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규제 때문에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 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

1)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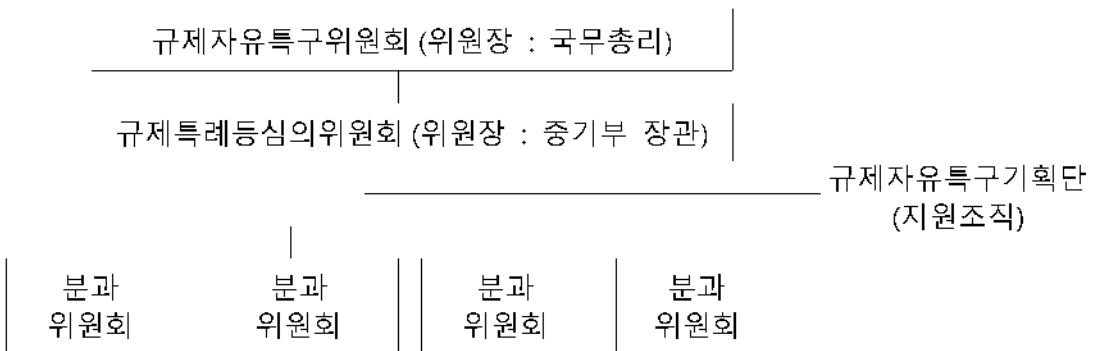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역 혁신사업 육성방안 등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사업 및 전략산업으로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되면 규제특례를 부여 받아 규제의 제약없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한 지역혁신성장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를 지원한다.

2)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체계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사업계획은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검토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규제개혁, 혁신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에 시·도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 연계도 강화된다.

< 규제자유특구 추진 체계도 >



3)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먼저, 규제자유특구에는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기업들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법이 열거되어 있는 특례들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법령정비 될 때 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기회를 갖게 된다.

〈 규제혁신 3종 세트 〉

- * (규제 신속확인)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사업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 * (실증을 위한 특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소관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 (임시허가)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판매할 수 있다.

4)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장치 마련

규제자유특구에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규정하였다.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전략사업을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다.

나. 규제자유특구 시행시 기대효과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혁신성장,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 등의 목적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먼저,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확대,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 발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최근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하여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진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존 규제에 의해 사업 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두차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전국규모로 1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총 84개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혁신성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1차2차 총 14개 특구를 통해 매출 2조 6,000억원, 고용·효과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를 기대하고 있다.

1)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7.23)

1차로 지정된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로 총 58개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1차 특구는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전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통해,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11.12)

2차로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개로 총 26개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2차 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연구, 산업기반 등 혁신성장자원을 활용한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실증특례, 인시허가를 통해 검증된 규제특례는 법령정비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신사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문제간의 균형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3

지역 특화산업 육성

▪ 지역기업육성과 이 철 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시·도별 특화(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에게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와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산업분야 지역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제공, 기업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99년 국민의 정부에서 4개지역 (부산, 경남, 광주, 대구)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02년 이후 13개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되었다. '04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되고, 균특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기업에게 기술개발과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17.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표 II-4-3-10 | 지역산업육성정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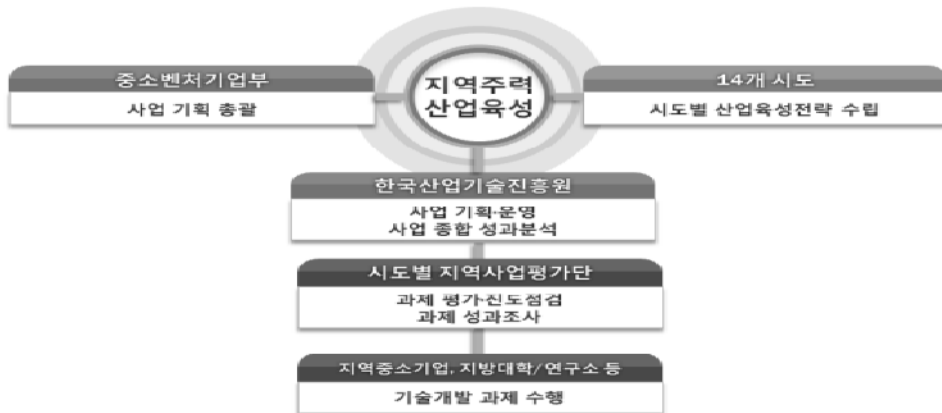
구 분	1999~2002년 (국민의 정부)	2003~2007년 (참여정부)	2008~2012년 (이명박정부)	2013~2016년 (박근혜정부)	2017~ (문재인정부)
시·도	전략산업 : 4개 지역 1단계 (1999~2003년)	전략산업 : 4개 지역 2단계 (2004~2008년) 전략산업 : 9개 지역 1단계 (2002~2007년)	Post 4+9 지역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역연고산업육성	
시·군·구	지역 특화산업(1995년~, 연고산업 중심)				

표 II-4-3-11 | 지역주력산업현황

사도	주력산업	사도	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 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기공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이 지역 경제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기부와 14개 시·도가 협업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과제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종합관리 등을 담당하고, 광역 시·도에 13개 지역사업평가단을 운영, 현장밀착형 과제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사업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림 14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가.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사업은 크게 시·도 단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기업 매출신장을 도모하는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을 발굴하여 기술개발에서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지역 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4-3-12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내역사업별 추진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지원사항
지역특화 산업육성 (R&D)	시도 주력산업	비수도권 시도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국비 2억원당 1명 신규채용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당 연차별 2억원 내외 ▶ 2년 이내 지원 ▶ 지역기업 단독주관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시군구 연고산업	시군구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당 연차별 5억원 내외 ▶ 3년이내 지원 ▶ 대학 등 기업지원기관과 지역기업간 컨소시엄

2018년 12월 연간 지역산업육성 시행계획인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152개 과제에 297억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35개 과제에 148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87개 과제에 47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기업 성장을 통해 725명의 순신규고용과 2,380억원의 사업화매출을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일몰제 도입에 따라 동 사업 또한 '19년부터 일몰을 맞이하게 되어, 지원 예산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성과의 절대적 수치는 감소하였으나, 국비 10억원당 신규고용 창출은 '18년 11.6명에서 '19년 15.3명으로, 국비 10억원당 사업화매출액은 '18년 31.1억원에서 '19년 50.3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표 II-4-3-13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성과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예 산	1,595	1,105	473
순신규고용 (10억원당 성과)	1,436 (9.0)	1,278 (11.6)	725 (15.3)
사업화매출액 (10억원당 성과)	3,088 (19.3)	3,441 (31.1)	2,380 (50.3)

* 순신규고용 : 동 사업 지원을 통해 창출된 신규고용 실적에 사업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정

* 사업화매출액 : 개발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매출액에 사업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정

한편, 동 사업 일몰에 따라 융복합 중심 지역주력산업과 지역스타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후속사업인 “지역특화산업육성+(R&D)”를 기획하였다. '19년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20년부터 '25년까지 총 6년간 1조 3,154억원의 규모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주도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및 지역스타기업 중점 육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은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및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비수도권 48개 주력산업 분야 지역기업에 기술지도, 사업화(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지원, 마케팅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18년부터는 성장성이 높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스타기업’을 지자체 주도로 선정하여 전담 PM매칭을 통한 성장전략 수립, R&D 과제 기획, 기술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화신속지원 및 혁신성장bauer 사업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지역기업의 사업화 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중앙의 지역산업육성정책과 지역의 산업 기획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을 통해 광역 시·도 테크노파크의 기획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과 14개 사도가 함께 연차별 실행계획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4-3-14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내역사업별 추진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지원사항
지역특화 산업육성 (비R&D)	시도기업지원	시도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당 5억원 이내, 기업당 3천만원 이내 ▶ 테크노파크,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기관 활용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	시도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 지역기업 통계, 연구생산장비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 통계관리 및 성과분석 ▶ 기술교류네트워크 운영, 지역연구장비 플랫폼 구축, 비R&D 총괄연계 등

2019년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총 210개 과제에 865억원, 약 4,383개사 대상 6,460여 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순신규고용 1,279명, 사업화매출액 814억원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II-4-3-15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성과현황

구 분	(단위 : 억원, 명)		
	2017년	2018년	2019년
예 산	835	799	865
순신규고용	1,264	1,212	1,279
사업화매출액	802	789	814

지역특화사업육성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 집중육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수요기업에 대한 사전 진단이나 컨설팅 없이 추진됨에 따라 최종 성과물에 대한 수혜기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0년부터는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벤치 마킹하여 사전 기업으로 발굴, 기술 닥터 매칭 등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도록 기술닥터제를 본격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4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R&D

▪ 지역기업육성과 이 철 한

그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제품 사업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견기업 및 고성장기업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대표기업은 부족한 현실이며, 지역 대표기업 부재로 청년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우수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표 II-4-3-16 |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현황

구분	수도권('18)	비수도권('18)
고성장기업 (개, %)	12,179(59.8)	8,194(40.2)
가젤기업 (개, %)	2,970(64.6)	1,630(35.4)

* 자료 : 통계청, 2020 (고성장기업 : 매출성장 20% 이상, 가젤기업 매출·고용 성장 20% 이상)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지역스타기업”으로 지정하여, 전담PM 배치를 통한 기업성장전략 수립 및 사업화, 상용화R&D를 종합 지원하는 지역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매출 400억원 이내 지역 중소기업 중 특성화조건을 만족한 기업을 해당 지자체 주도로 심의하여 연 200개 내외 기업을 ‘지역스타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 중에 있다. 지역기업 혁신성장지원(R&D)은 지역스타기업 전용 R&D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스타기업에 제한 경쟁방식으로 신제품 개발 계획을 공모하고,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가 높은 과제를 선별, 1년간 3억원 내외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표 II-4-3-17 | 지역스타기업 특성화조건

구분	특성화 항목	기준	
고용창출형	청년인재 고용	상시근로자 中 지역청년인재 비중	30% 이상
	지역고용 안정	상시근로자 中 정규직 비중	70% 이상
수출형	수출액	최근 3년 평균 고용 증가율	5% 이상
성장형	매출액증가율(CAGR)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이상
기술혁신형	R&D투자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주력산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1% 이상 지역내 보유

지역기업 혁신성장지원(R&D)는 유망 지역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성장사다리 형태의 사업으로, 전담PM과 지역스타기업이 수립한 기업 성장전략에 따라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사업이다. 기업 성장 및 지역사회 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율 측정할 수 있는 '순신규고용효과율'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다.

'19년 3월부터 사업 공모를 거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된 결과, 116개 지역스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제품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에 총 300억원을 투입하였고, 지원결과, 192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다.

동 사업은 '19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의 내역사업인 ‘지역스타기업육성’ 사업으로 계승되어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성장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국가융복합단지연계 지역기업상용화 R&D

▪ 지역기업육성과 이 철 한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주요기업, 생산 등 주요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수도권 위주 불균형 성장 문제 극복을 위해 현 정부에서는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나, 지역 중소기업의 수준은 매우 낙후한 상황으로,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연구소 및 연구인력은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이며, 기업당 R&D투자도 열악하여 혁신을 위한 동인이 부족한 현실이다.

표 II-4-3-18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지역간 비교

구분	수도권('19)	비수도권('19)
연구소 수(개, %)	25,284(65.0)	13,601(35.0)
연구인력 수(명, %)	132,176(68.7)	60,233(31.3)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9.12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정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R&D' 사업을 기획하여 '19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 중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대성과가 큰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신규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제도와 연계한 일자리 평가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표 II-4-3-19 | 14개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현황

시도	지정 현황	시도	지정 현황
부산	센텀, 문현, 동삼, 북항 일원 등	충북	청주, 증평, 괴산, 충주 일원 등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일원 등	충남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일원 등
대전	유성구, 대덕구, 동구 일원 등	전북	전주·익산·완주 산단, 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일원 등	전남	빛가람동, 나주·신도 산단 등
울산	중구 우정동, 북구 매곡동, 남구 두왕동, 중산동, 달천동 일원 등	경북	김천시, 구미시 일원 등
세종	조치원, 명학, 부강 산단 등	경남	항공MRO단지, 항공국가산단 등
강원	원주혁신도시, 횡성 일원 등	제주	제주시, 서귀포 혁신도시 일원 등

‘19년 사업공모를 통해 상용화 R&D 과제 52개를 선정하여 123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106명의 순신규고용을 창출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중 정규직 비중은 96.2%로 전국 채용인력의 상용근로자 비중(68.6%)* 대비 140% 상향된 성과를 달성하고, 또한 연구직 일자리 비중은 61.3%로 제조업 전체 채용인력의 연구직 비중(11.3%)** 대비 542%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체 채용인력의 상용근로자

**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준, 제조업 채용인원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

동 사업은 ‘20년 128억 규모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사업 2년차에 돌입함에 따라 사업화 성과 창출에 보다 초점을 맞춰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유망기업을 해당 지자체에 유치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낙후도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6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 R&D

▪ 지역기업육성과 이 철 한

지속적인 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의 핵심요소인 기술 인력은 만성적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장에 따라 내부 역량의 한계 극복을 위해 외부로부터 창조적 아이디어와 핵심기술을 조달 받는 개방형혁신 전략이 각광받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의 협력 정도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과의 협업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사업을 '19년 신규 추진하였다.

개방형혁신 바우처 사업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신제품을 개발 중이나 고급인력 등 내부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① 공동협력유형', 다수의 지역기업이 보유한 공동의 기술 에로사항을 지역별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아웃소싱 개발하는 '②문제해결유형', 연구개발서비스전문 기업, 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주관으로 기업수요를 발굴하여, 신제품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③전문기업주도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업 여건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표 II-4-3-20 | 개방형혁신 바우처 지원유형

시도	대상지역
공동협력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추진체계 : 지역중소기업 주관 / 대학,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 수행
문제해결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다수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TP주관으로 해결 ☞ 추진체계 : 지역별 TP 주관 / 지역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전문기업주도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연구개발전문기업 등 주관으로 기업수요 발굴 및 애로기술 해결 ☞ 추진체계 : 연구개발전문기업, ESP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주관 / 지역기업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19년 3월 사업공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결과, 공동협력유형에 58개 과제 102억원, 문제해결유형 14개 과제에 63억원, 전문기업 주도형 21개 과제에 38억원 등 총 93개 과제에 210억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지역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단년 사업으로 기획되어 운영되었으며, ‘19년 사업 지원결과 103명의 순신규 고용실적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동 사업은 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혁신 자원의 우수역량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Time-to-market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R&D지원에 있어 바우처제도를 적용하여 기업의 서비스 선택권과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기업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외부 지원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동 사업은 ‘19년부터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지역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외부 혁신자원의 활용 및 바우처제도는 이후 지역특화산업육성+(R&D)등 지역사업에 계승되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7 지역특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지역특구과 성 대 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04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역특화특구는 직접적인 재정·세제지원 없이 규제특례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 부처의 특구제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가. 지역특구 지정절차

지역특화특구는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협의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표 II-4-3-21 | 지역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나.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현황

지역특구제도가 2004년 도입된 이후 2019년 말을 기준으로 211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나, 14개가 해제되어 총 197개의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3차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 직업교육특구, 거창 송강기벨리 산업특구를 새로 지정하였고 원활한 특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청주 직지문화특구 등이 계획 변경하였다.

표 II-4-3-22 | 연도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계	6	41	72	96	118	132	143	150	151	155	163	172	184	194	196	197	
연도별	지정	6	35	31	25	22	14	11	8	3	5	8	11	16	12	2	2
	해제	-	-	-	1	-	-	-	1	2	1	-	2	4	2	-	1

2019년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개 중 151개가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 전남도, 제주도는 소속된 모든 기초지자체가 특구를 운영 중이다.

표 II-4-3-23 | 지역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구수(개)	13	7	4	3	3	1	0	2	18	14	14	18	14	40	28	15	3

다.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활성화

지역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도 특구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고려하여 지역특구운영성과를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역특구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성과가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하여 특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187개 특구의 '18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성과가 우수한 12개 특구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가 최우수특구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2019년 우수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

▪ 지역기업육성과 김재균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은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산업 침체로 인해 지정된 위기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의 경제회복을 위해 위기지역 기업대상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년 4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되는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동년 5월 울산(동구), 경남(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목포·영암·해남)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8년 6월 위기지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 3개 지역(전북, 전남, 울산)의 위기대응지역 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원기업 컨설팅 및 사업다각화지원을 수행하는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운영하였고, 이후 2019년에는 경남지역을 추가하여 총 4개 지역의 기업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별 신청·접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이로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뒤 평가를 거쳐 사업다각화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공고 접수 시 기업이 제시하고 전문가 진단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다각화지원을 수행하며, 주관기관과 전문가의 1:1 현장밀착형 관리를 통해 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지속 지원한다.

2019년 동 사업 추진을 통해 4개 지역에 지역별 26억원, 총 104억 원(본사업비 64억원, 추경사업비 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306개사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179개사 대상 289건의 프로그램 사업다각화지원 결과, 지역의 순신규고용 159명 및 사업화 매출액 168.8억원을 창출하여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II-4-3-24 | '19년 지원기업 수행 프로그램

지역	지원 기업수(개)	지원프로그램(건)					소계
		시제품제작	특허/인증 지원	마케팅	기술이전/지도	기타	
전북	47	19	7	2	0	28	56
전남	46	29	13	4	0	22	68
울산	44	41	20	10	8	7	86
경남	42	34	12	12	10	11	79
합계	179	123	52	28	18	68	289

표 II-4-3-25 | '19년 사업성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예산	고용 (순신규고용)	사업화매출액
2019년	104*	159	168.8

* 본예산 64억원, 추경

2020년에는 4개 지역 64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총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당면한 중단기 기술에로 진단, 제품개발 지도 등 에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심화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특허·인증·마케팅·공정개선 등 사업다각화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4-3-26 | '20년 사업신청 및 사업다각화 지원 선정기업 현황('20.7월 기준)

지역	신청 기업수(개)	선정 기업수(개)	경쟁률
전북	57	24	2.38 : 1
전남	47	26	1.81 : 1
울산	66	24	2.75 : 1
경남	62	23	2.70 : 1
합계	232	97	2.39 : 1

또한, 수혜기업 대상 양질의 컨설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동차·조선분야 관련 전·후방 연관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협동조합 등 대상 사업다각화,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공동성장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경기 침체 완화 및 조속한 경제회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제절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생태계 촉진

1

소상공인 현황

- 소상공인정책과 최우혁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236천개, 종사자수는 6,424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4.9%, 전체 고용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48천개, 종사자수는 59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0.4%p, 종사자 수 비중은 0.5%p 감소하였다.

표 II-5-1-1 | 연도별 소상공인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체	전체	3,604,773	3,676,499	3,737,465	3,813,723
	소상공인	3,084,376	3,137,700	3,188,006	3,236,238
	비중	(85.6)	(85.3)	(85.3)	(84.9)
종사자	전체	16,774,948	17,051,453	17,294,316	17,711,917
	소상공인	6,065,560	6,202,033	6,365,094	6,424,490
	비중	(36.2)	(36.4)	(36.8)	(36.3)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가공 및 재편

사업체 기준으로 업종별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27.2%), 숙박 및 음식점업(20.2%), 제조업(11.2%) 순이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4.8%), 숙박 및 음식점업(21.3%), 제조업(18.3%) 순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서 생활형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5-1-2 | 2018년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비 중	종사자수	비 중
전(全) 산업	3,236,238	100.0	6,424,490	100.0
도·소매업	880,521	27.2	1,590,482	24.8
숙박 및 음식점업	654,097	20.2	1,365,751	21.3
제조업	363,374	11.2	1,177,194	18.3
기타	1,338,246	41.4	2,291,063	35.6

*자료 : 통계청, 2018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재편·가공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가와 비교해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은 영국(92.2%)과 한국(84.9%)이 높게 나타나며, 미국(73.1%)은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또한, 종사자수 비중은 한국 36.8%, 영국 27.8%, 독일 18.6%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미국은 5.6%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5-1-3 | 주요국의 소상공인 현황

구 분	사업체수(천개)		종사자수(천명)	
	소상공인	비중(%)	소상공인	비중(%)
한국(2018)	3,236	84.9	6,424	36.8
미국(2016, 기업)	4,355,105	73.1	7,139,975	5.6
일본(2014)	3,475	62.7	8,545	14.9
영국(2019, 기업)	5,410	92.2	7,656	27.8
독일(2017, 기업)	2,013	80.4	5,497	18.5

주 : 1. 한국의 소상공인 기준 적용(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

주 : 2. 독일의 경우 'Micro-enterprise'로 명시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중소기업통계

소상공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사업체 수의 46.4%(1,500천개)를 차지하고,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은 27.6%,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은 10.4%,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10.6%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종사자수로는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47.6%(3,058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27.0%, 충청권은 10.4%, 호남권은 10.1%이다.

표 II-5-1-4 |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수·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체	636,666	232,209	173,751	160,833	94,191	92,991	68,989	11,619
(비중)	(19.7)	(7.2)	(5.4)	(5.0)	(2.9)	(2.9)	(2.1)	(0.4)
종사자	1,214,721	457,964	332,241	320,652	185,009	175,464	131,348	23,733
(비중)	(18.9)	(7.1)	(5.2)	(5.0)	(2.9)	(2.7)	(2.0)	(0.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02,964	114,821	102,956	135,388	118,300	123,337	188,733	228,635	49,855
(21.7)	(3.5)	(3.2)	(4.2)	(3.7)	(3.8)	(5.8)	(7.1)	(1.5)
1,522,961	218,287	203,802	265,234	223,165	239,565	366,001	449,067	95,276
(23.7)	(3.4)	(3.2)	(4.1)	(3.5)	(3.7)	(5.7)	(7.0)	(1.5)

* 자료 : 통계청, 2018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서 재편·가공

2002년 621만 명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자영업자²⁷⁾수는 등락을 반복하다 2008년 ~2009년 경기침체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은 561만 명을 기록하였다.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도 2002년 최고 수준(27.9%)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은 21.0%를 기록하였다.

27)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표 II-5-1-5 |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취업자수	자영업자	동기대비 증감비율	고용주	동기대비 증감비율	자영자	동기대비 증감비율
2002년	22,232	6,212 (27.9)	2.3	1,614	4.3	4,598	1.7
2003년	22,222	6,066 (27.3)	-2.4	1,630	1.0	4,436	-3.5
2004년	22,682	6,161 (27.2)	1.6	1,677	2.9	4,484	1.1
2005년	22,831	6,141 (26.9)	-0.3	1,656	-1.3	4,486	0.0
2006년	23,188	6,109 (26.3)	-0.5	1,630	-1.6	4,479	-0.2
2007년	23,561	6,048 (25.7)	-1.0	1,567	-3.9	4,481	0.0
2008년	23,775	6,005 (25.3)	-0.7	1,538	-1.9	4,467	-0.3
2009년	23,688	5,749 (24.3)	-4.3	1,532	-0.4	4,217	-5.6
2010년	24,033	5,643 (23.5)	-1.8	1,515	-1.1	4,127	-2.1
2011년	24,527	5,657 (23.1)	0.2	1,526	0.7	4,132	0.1
2012년	24,955	5,768 (23.1)	2.0	1,570	2.9	4,199	1.6
2013년	25,299	5,703 (22.5)	-1.1	1,533	-2.4	4,169	-0.7
2014년	25,897	5,720 (22.1)	0.3	1,581	3.1	4,139	-0.7
2015년	26,178	5,622 (21.5)	-1.7	1,609	1.8	4,013	-3.0
2016년	26,409	5,614 (21.3)	-0.1	1,584	-1.6	4,030	0.4
2017년	26,725	5,682 (21.3)	1.2	1,608	1.5	4,074	1.1
2018년	26,822	5,638 (21.0)	-0.8	1,651	2.7	3,987	-2.1
2019년	27,123	5,606 (20.7)	-0.6	1,538	-6.8	4,068	2.0

표 II-5-1-6 | 자영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취업자수	자영업자	동기대비 증감비율	고용주	동기대비 증감비율	자영자	동기대비 증감비율
2002년	22,232	6,212 (27.9)	2.3	1,614	4.3	4,598	1.7
2003년	22,222	6,066 (27.3)	-2.4	1,630	1.0	4,436	-3.5
2004년	22,682	6,161 (27.2)	1.6	1,677	2.9	4,484	1.1
2005년	22,831	6,141 (26.9)	-0.3	1,656	-1.3	4,486	0.0
2006년	23,188	6,109 (26.3)	-0.5	1,630	-1.6	4,479	-0.2
2007년	23,561	6,048 (25.7)	-1.0	1,567	-3.9	4,481	0.0
2008년	23,775	6,005 (25.3)	-0.7	1,538	-1.9	4,467	-0.3
2009년	23,688	5,749 (24.3)	-4.3	1,532	-0.4	4,217	-5.6
2010년	24,033	5,643 (23.5)	-1.8	1,515	-1.1	4,127	-2.1
2011년	24,527	5,657 (23.1)	0.2	1,526	0.7	4,132	0.1
2012년	24,955	5,768 (23.1)	2.0	1,570	2.9	4,199	1.6
2013년	25,299	5,703 (22.5)	-1.1	1,533	-2.4	4,169	-0.7
2014년	25,897	5,720 (22.1)	0.3	1,581	3.1	4,139	-0.7
2015년	26,178	5,622 (21.5)	-1.7	1,609	1.8	4,013	-3.0
2016년	26,409	5,614 (21.3)	-0.1	1,584	-1.6	4,030	0.4
2017년	26,725	5,682 (21.3)	1.2	1,608	1.5	4,074	1.1
2018년	26,822	5,638 (21.0)	-0.8	1,651	2.7	3,987	-2.1
2019년	27,123	5,606 (20.7)	-0.6	1,538	-6.8	4,068	2.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준비된 창업 유도

- 소상공인정책과 정길섭
- 소상공인정책과 이종우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전은별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이경우
-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 기업금융과 김성일

가. 소상공인 정보제공

1) 소상공인방송(yestv) 운영

소상공인방송은 생계활동으로 정보습득과 오프라인 교육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 창업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창업·경영교육, 컨설팅, 인식개선 유도, 지원사업 설명회 및 정부 지원정책 및 이슈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 1,450개 전통시장 소식, 이색전포·상인, 청년몰 소개 등을 방송(TV)과 뉴미디어(유튜브, 네이버TV 등)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방송 채널이다.

2012년 1월부터 송출을 시작하여 2019년 연말 기준 KT Olleh tv(255번), Sk Btv (271번), LG유플러스(246번) IPTV 3개사와 전국 82개 권역의 케이블TV를 통해 1일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표 II-5-1-7 | 소상공인방송 실시간방송 송출 현황

구분	회사명	송출사명	채널번호
IPTV	KT	Olleh tv	255번
	SK브로드밴드	Btv	271번
	LG유플러스	U+ tv G	246번
케이블TV	티브로드 (23개사)	(서울)종로중구, 서대문, 광진성동, 동대문, 도봉강북, 노원, 강서 (부산)서부산, 동남, 낙동 (대구)대구, 티씨앤대구, 대경 (인천)서해, 남동, 새롬 (경기)수원, ABC, 한빛, 기남 (충남)중부, 세종 (전북)전주방송	218번

구분	회사명	송출사명	채널번호
	LG헬로비전 (16개사)	(서울)은평, 양천 (부산) 해운대기장, 금정, 중부산, 중앙 (인천)북인천 (경기)나라, 부천김포 (강원)영서 (전북)전북 (전남)호남 (경남)경남, 가야, 마산, 하나	313번 외
	딜라이브 (16개사)	(서울)중앙, 서서울, 용산, 동서울, 중랑, 북부, 노원, 마포, 구로금천, 강남, 송파, 강동 (경기)경동, 경기동부, 경기, 우리	257번
	CMB (11개사)	(서울)동대문, 영등포 (대구)수성, 대구 (광주)광주동부, 광주 (전남)전남 (대전)대전, 동대전, 충청, 세종	168번 외
	현대HCN (8개사)	(서울)동작, 관악, 서초 (부산)부산 (대구)금호 (충북)충북 (경북)경북, 새로넷	426번 외
	개별SO (8개사)	(광주)한국케이블TV광주, (울산)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 (충북)씨씨에스충북방송, (전북)금강방송, (경남)서경방송, (제주)KCTV제주방송, (대구)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인천)남인천방송	각기 다름

(주)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9년도 소상공인방송을 시청한 IPTV 가구는 1일 평균 56,499가구로 2012년 방송 송출을 시작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I-5-1-8 | 소상공인방송 연도별 IPTV 일평균 시청 가구수 추이

(단위 : 가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IPTV	720	6,430	5,855	9,139	15,607	20,789	43,684	56,499

소상공인방송은 중소·벤처, 소상공인의 정책 홍보 수요와 온라인 미디어 성장 추세에 따라 정부지원 정책 및 이슈사항 등을 전달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확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전담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창업·경영 교육·정보 프로그램, 전통시장, 청년몰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개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였다.

표 II-5-1-9 | 2019년 소상공인방송 신규 제작 프로그램

(단위 : 편)

분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편수
소상공인	소상공인 창업명인 특강, 꿈이름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경영과 안전한 점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업종별 검증된 CEO들의 창업 경험, 성공철학·노하우 등을 강연으로 전달	30
	CEO성공요령	성공 CEO가 소상공인 점포를 직접방문하여 환경개선, 점포경영 등 소상공인 점포에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8
	폐업부터 창업까지 알아야 산다	점포 폐업부터 업종전환 소상공인을 위해 올바른 폐업 과정과 재취업 정보, 재창업 업종별 동향 및 창업절차 등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정보 제공	20
	달려라 소상공인, 온라인으로 날개를 달다	경제 불황속에서도 온라인 입점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조언과 성공 비법 전수를 통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인 정보를 전달	10
	소공인, 작은 거인들	세계 제일의 기술을 자랑하는 숙련 소공인부터 혁신형 소공인까지,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소공인들의 노하우와 철학, 가치를 재발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7
	협동조합 다큐멘터리 '미래를 열다 시즌2'	국·내외 협동조합의 우수사례 및 성공요인 분석 등을 통해 내실 있는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	4
	백년가게의 비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도·소매, 음식점 등의 백년가게를 찾아 지속 가능한 가치를 공유	6
전통시장	불공정 거래 해결사	일반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등 거래 행위 유형별 대표사례를 전달하여 피해 예방 및 구제방안을 안내	8
	임현식의 시장 사람들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훈훈한 인심과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를 소개	15
	대배우의 시장한 여행	전통시장의 주요 고객이자 소비 주체인 '중장년층'에게 청년몰의 체험점포, 맛집, 재미요소 등을 '중장년층' 배우들의 체험을 통해 소개	10
	안녕하세요, 청년몰입니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과정과 청년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열정 넘치는 청년상인들의 창업과정을 다큐로 소개	10
중소벤처	다같이 돌아 시장 한바퀴	전국의 수많은 전통시장을 찾아가 넉넉한 인심은 물론, 특색있어 더 즐거운 전통시장의 이모저모를 소개	80
	yestv뉴스	중소·벤처,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 및 이슈사항, 전통시장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	250
	대한민국 벤처기업 사람들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매출 증가를 이뤄낸 국내 우수 벤처기업의 경영비법 및 성공 요인을 소개	10
	중기 R&D우수기업을 말하다	정부의 R&D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업체를 소개하고 지원사업 담당자 간의 토크를 통해 정책의 우수성과 정보 제공	4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중기씨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담당자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소식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보는 정책 대담 프로그램	22
일자 일자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발전방향, 의견을 중소기업 4인 대표자의 강연을 통해 전달	1	

소상공인방송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예비창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TV)외에 방송 홈페이지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네이버 TV, 유튜브 등을 통해 VOD(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이용·전수가 증가하고 있다.

표 II-5-1-10 | 소상공인방송 VOD 이용 현황(유튜브, 네이버TV)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청건수(건)	89,981	46,268	120,261	152,961	272,332	338,764	456,510	2,336,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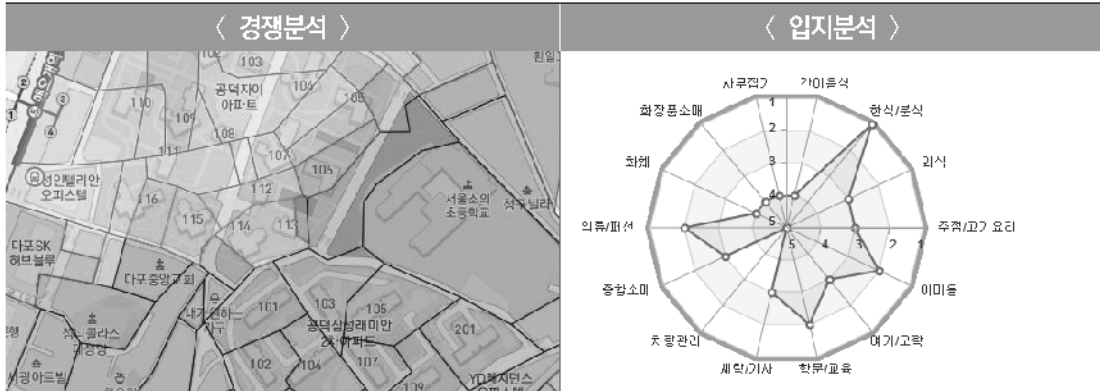
2)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과당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18년 소상공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과정 시 에로사항에서 입지선정이 44%, 업종선정이 33%로 관련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수집·분석이 어려운 상권정보를 16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권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특정지역·업종에 대한 11종의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 특정 전포의 개·폐업 이력을 알려주는 전포 이력서비스와 같은 현황정보와 특정위치·업종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정보를 알려주는 수익분석서비스와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경쟁분석서비스 등의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 상권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



창업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권정보·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2006년 7월 개시 당시 월평균 10,185건에 불과하던 이용실적이 2017년 109만건, 2019년 140만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7.1% 상승하였다.

표 II-5-1-11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용실적 (월평균)	818,860 (68,238)	897,315 (74,776)	1,090,586 (90,882)	1,253,588 (104,465)	1,400,103 (116,675)
증가율	28%	9.6%	21.5%	14.9%	11.6%

* 이용건수 증가율 : (당해건수-전년건수)/전년건수×100

또한 민·관간 공유정보 확대 및 상가업소 조사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상권정보시스템 2019년 이용자의 만족도(5단계척도, '만족'이상)는 89.3%로 대다수의 이용자가 만족을 나타냈다.

표 II-5-1-12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용자 만족도	88.2%	88.5%	88.7%	89.1%	89.3%

2019년에는 예비창업자가 창업역량 및 준비상황을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창업자가진단 설문' 서비스 및 프랜차이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유·수집된 약 240만 건의 상기업소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도에 기여하였다.

2020년도에는 유사 입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입지에 대한 예상 매출 등 출점지 관련 추정 정보를 제공할 서비스를 모델링 할 예정이며,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UI 및 보고서를 인포그래픽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3)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별 맞춤형 정책 및 창업·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인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개편하였으며, 자영업 혜택계산기를 통해 비용·인건비 부담완화, 사회안전망 지원혜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5 | 소상공인마당 기능 개선



또한, SNS(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연동을 통해 간편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여 콘텐츠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2019년 소상공인마당 앱의 다운로드 횟수는 총 23,384건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이용자 만족도(5단계 척도, '만족'이상)는 최근 3년 평균 89.7% 대비 3.4%p를 상회하였다.

표 II-5-1-13 |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용자 만족도	84.5%	90.1%	87.6%	90.0%	91.4%	93.1%

향후에는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웹 접근성 수준을 개선하고, 정보의 적시성 향상을 위해 SMS, 챗봇 등과 연계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 분야 등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교육, 전포경영체험 실습,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하고 생태계 내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6개 지역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舊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한 이래, 2019년에는 경남, 인천, 전북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역에서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교육생을 선발하여 1개월간 150시간 내외의 창업교육을 실시한 이후 창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점포(꿈이룸)를 통해서 상품구입, 재고관리, 고객관리 등을 직접 체험하며 창업 아이템의 검증 및 안정화를 도모하는 창업경영체험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한 이래 2015~2019년간 총 1,754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창업교육과 전포경영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1,28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소상공인창업자금을 1억 원 한도로 용자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교육과 점포체험교육을 이수한 우수 교육생을 별도 심사·선발하여 사업화 보조금을 최대 2천만 원 한도(개인부담 50%)로 지원한다.

표 II-5-1-14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점포 현황('19.12월 기준)

점포명		주소
서울	충무로점	중구 삼일대로4길 9, 라이온스빌딩 1층
	대학로점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 1층
	종량점	종량구 숙선옹주로 6-9, 목동자이아파트상가
	명동점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1층
	마포점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부산	센텀시티2호점	해운대구 센텀동로 35, 센텀SH벨리 107~108호
	범일점	동구 자성로133번길 10, 천일빌딩 1~2층
대구	범어점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6, 범어골드타워 1층
	두류점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4, 두류동빌딩 1층
	삼덕점	중구달구벌대로2191, 소석빌딩 1층
광주	상무지구 1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1층
	상무지구 2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24, 엠씨타워 1층
경기	신동점	영통구 덕영대로 1566, 더판타지움 1층
대전	둔산 1호점	서구 둔산로 59, 아이빌딩 1층
	둔산 2호점	서구 대덕대로 195, 현대빌딩 1층
인천	유성점	유성구 대학교 88, 공동482-2
	부평점	부평구 부평대로 293, 121~125, 127~131호
전북	전주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9-5
경남	창원점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1, 1층(117호,122호)

다.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방안으로 2018년부터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선정하여 성실실패 시 상환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을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하고 있다.

생활혁신형창업 선정자에 대해서는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상권관리·고객 관리 등 성공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18년 4,188명을 선정하여 3,657명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19년에는 1,646명 선정하여 1,356명에게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1,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재창업자가 기존사업 노하우를 통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분야를 신설하여 재기분야 500명, 일반분야 500명을 지원한다

라.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을 운영하고 있다.

PC 외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2018년부터는 플랫폼 기능 개선에 착수하여 2019년 개편된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시 운영하였고, 2019년 동안 교육과정 수료 기준으로 218,990 명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에는 사전 제작되어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콘텐츠를 교육생이 선택하여 수강하는 방식 외에도 강사와 교육생 간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 기능을 추가 개발하였다.

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자금관련 예로는 모든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예 중 하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99년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업체당 7,000만원(일부자금 1억 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2019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성장기반자금은 제조기반 기술의 경쟁력 강화,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제고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14,855개 업체에 7,227억 원을 지원하였다. 경영안정자금은 청년일자리창출,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영으로 해소 등 소상공인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으로 43,607개 업체에 14,818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I-5-1-15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1999~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원업체	208,229	15,128	25,502	29,825	44,233	48,341	64,497	57,624	58,432	551,811
지원금액	53,479	5,050	9,345	10,305	14,939	17,550	22,450	20,575	22,045	175,738

2018년에 자금을 수혜 받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매출액 증가점포 비율은 79.9%로 나타나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소상공인 보증 지원

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현황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으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6개 시·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2019년 한 해 동안 국내경제 안정화를 위해 14조 239억 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소상공인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전체 보증공급의 90%인 12조 6,202억 원을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였다.

표 II-5-1-16 |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 보증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보증	2019년		2018년	
		소상공인보증 비중(%)	총보증	소상공인보증 비중(%)	총보증
업체수	570,247	557,195	97.7	497,304	98.4
금액	140,239	126,202	90.0	120,743	92.6

보증공급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의 보증공급 업체 수(30.5%)와 금액(31.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지원되었다.

표 II-5-1-17 |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타*
보증공급	업체 수	45,781 (8.0%)	113,999 (20.0%)	140,171 (24.6%)	173,940 (30.5%)	96,357 (16.9%)
	금액	18,305 (13.1%)	24,458 (17.4%)	32,569 (23.2%)	44,121 (31.5%)	20,785 (14.8%)
보증잔액	업체 수	84,631 (7.5%)	233,315 (20.6%)	281,049 (24.8%)	348,295 (30.7%)	187,347 (16.5%)
	금액	26,049 (11.3%)	41,862 (18.2%)	55,414 (24.1%)	73,832 (32.1%)	33,027 (14.3%)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보증금액별 보증공급 금액은 3천만원 이하 보증금액이 58.4%를 차지하는 통계 수치를 볼 때, 신용경색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재단의 보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5-1-18 |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계
2018년 금 액	70,955	26,287	12,142	11,358	120,742
비 중	58.8%	21.8%	10.1%	9.4%	100%
2019년 금 액	81,905	34,154	14,258	9,921	140,238
비 중	58.4%	24.4%	10.2%	7.1%	100%

2) 주요 특례보증 제도시행

가) 20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헤드림 특례보증(신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 대상기업 : 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배제 피해기업 지원, ② 경영애로기업 지원, ③ 저신용 영세기업 지원, ④ 관광·숙박업 등 영위기업 지원
- * 시행시기 : 2019년 8월
- * 지원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운전자금(트랙별 상이)
- * 공급실적 : 40,493건, 10,510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나)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신규)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용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경영안정 도모

- * 대상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로서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1~8등급인 중소기업
- * 시행시기 : 2019년 5월
- * 지원한도 : 2억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150건, 48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다)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신규)

음식업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업성과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여로 해소 및 내수경제 활성화 도모

- * 대상기업 : 음식점업 사업자등록 후 가동중으로 ①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고 ②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1년 이상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본 협약보증을 추천 받은 개인사업자
- * 시행시기 : 2019년 8월
-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613건, 160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라) 여성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신규)

여성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여성 경제인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가 모두 여성으로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며, 기보의 「여성기업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거래가 없는 기업
- * 시행시기 : 2019년 10월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141건, 47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마)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Ⅱ(신규)

장기불황,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경영여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저금리 자금지원으로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 후 가동중으로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기업
- * 시행시기 : 2019년 10월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11,068건, 2,731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바)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

수출환경 악화로 경영여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기반 확대

- * 대상기업 :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중인,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예정인 잠재수출 기업
- * 시행시기 : 2016년 7월
- * 지원한도 : 3억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890건, 558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사)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에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에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18.2월)

- * 대상기업 : 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②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③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내 소재 기업
- * 시행시기 : 2018년 2월
- * 공급규모 : 2조원
- * 지원한도 : 본건 최대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46,921건, 16,750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서비스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사회통합 도모위한 확대 운용

- * 대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자활기업
- * 시행시기 : 2018년 2월
- * 지원한도 : 4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684건, 310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자) 장기분할상환 해지 협약보증

창업초기기업(7년이내)에 한해 보증부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운용하여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 사업에 전념토록 지원

- * 대상기업 : 신용보증접수일 현재 업력 7년 이내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기준 6등급(1~6등급)인 개인기업
- * 시행시기 : 2017년 11월
- * 공급규모 : 1,650억원
-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2,613건 / 498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차) 플러스 모바일 보증

생업유지로 지역신보와 금융회사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및 인터넷 기반의 보증지원 제도를 마련

- * 대상기업 :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개인기업
- * 시행시기 : 2016년 4월
- * 지원한도 : 17백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1,548건 / 185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신속한 보증지원으로 경영정상화 도모

- * 대상기업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 시행시기 : 2005년 12월
- * 지원한도 : 7천만원(제조업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9,003건, 3,727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타)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 기업에 대한 경영성장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장애인기업
- * 시행시기 : 2008년 7월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5,089건, 1,447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3) 정부정책과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한 보증지원

중앙회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경기변동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특례보증 및 보증제도 개선으로 2019년 중 14조 238억원을 공급하여 당초 보증공급 목표(13.8조원)를 초과 달성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

피해기업, 여성기업,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해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협약보증을 시행하였다.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경영에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20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해드럽 특례보증'을 실시하였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배제 피해기업, 경영에로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저금리(일시상환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 1.2%, 분할상환의 경우 기준금리 + 1.5%)로 지원하였다.

둘째,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증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하였다. 2018년 150억원 지원규모(누적)에서 취급기준 개정을 통해 2019년 300억원 지원규모(누적)로 확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셋째, 장기불황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저금리의 금융지원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Ⅱ 협약보증'을 시행하였다.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이내 운전자금으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1% 후반대)를 적용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넷째,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용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문체부와 농협은행 협약을 통해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하였다.

4) 고객편의 제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금융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요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가) 행정정보 이용 확대 추진

고객이 보증신청시 재단에 제출하는 국세청 과세정보 6종(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휴·폐업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재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열람 및 출력 가능토록 개선하여, 필수 제출 서류가 기존 8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나) 보증 리스크 축소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헤이 방지를 위한 부분보증 도입 확대

중앙회는 재단의 효율적 보증 운용, 보증리스크 축소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천만원 이하 보증비율을 현행 전액보증(100%)에서 '19년 90%로 축소하였다. 2019년도에는 전체 사업자 보증(일반보증 신규공급 기준) 중 32.6%를 부분보증으로 운용하였으며 향후 부분보증 비중을 더욱 확대('20년 계획 85%)하여 재단의 효율적인 보증운용 및 리스크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다) 지역신보의 제규정(규정, 기준, 요령 등) 표준화 추진

중앙회는 보증업무 및 채권관리 관련 제법령의 지속적 개선으로 급변하는 국내경제, 금융(보증)환경 변화 대응위한 능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재단 현업에 필요한 기준보완 및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9개의 보증규정 5개의 관리규정을 표준화 하였다. 특히, 소액심사 적용대상 금액 확대 및 한도사정 생략대상 보증금액을 확대하여 심사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확보하였다.

라) 창업리스크 경감을 위한 법인기업 연대보증면제 확대

법인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3차에 걸쳐 업무처리방법을 개정하였다. 1차 개정의 경우 이행약정을 위반한 면제인에 한하여 관련인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연대보증 면제자가 무분별하게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2, 3차 개정의 경우 기존 연대보증입보부 보증의 비보증분에 대한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특약을 부여하였다.

〈 법인기업 연대보증 면제 추진현황 〉

- 실제경영자 이외 기업경영에 관여도가 낮은 기타 이해관계인 연대입보 금지('13.8월)
- 창업 후 7년 이내의 법인기업 대상으로 실제경영자 연대보증 면제('17.8월)
- 법인기업의 신규·증액보증에 대하여 실제경영자 연대보증 입보 폐지('18.4월)
- 법인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하여 실제경영자 입보 폐지('19.6월)
- 기존 연대보증입보부 보증(18.4.2 이전)을 기보증회수보증을 통한 입보면제 시, 비보증분(금융회사 책임분담부분)에 대한 금융회사의 연대보증면제를 위한 특약 부여('19.7월)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기존 입보부 보증(18.4.2.이전)을 조건변경(기한연장)시 입보면제 검토하여 입보면제 시, 비보증분(보증부대출 중 금융회사 책임분담부분)에 대한 금융회사의 연대보증면제를 위한 특약 부여('19.12월)

5) 효율적인 재보증제도 운영

가) 재보증의 정책기능 강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및 재기지원 등 중소기업 중점지원 부문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하였고, 신보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을 상향(50%→60%)하여 지역재단의 적극적 보증공급 확대를 유도하였다.

나) 재보증 리스크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영

보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보증한도를 배정하여 지역신보의 연간 보증공급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고액보증(2억원 이상)에 대한 개별약정 심사프로세스를 통해 지역신보 및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소각·매각·채무조정 등 부실채권 3,009억원을 정리하여 성실상환자의 재기지원을 도모하였다.

3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 현 주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 상 호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신 대 순
 - 소상공인정책과 정 길 섭

매년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60~70여만 명으로서 소상공인의 과도한 폐업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중기부는 폐업·한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폐업 소상공인 : ('14) 76.5만 → ('15) 62.8만 → ('16) 61.4만(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가.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이 폐업 부담을 덜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폐업 지원(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과 취업지원(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으로 나뉜다.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총 19,814명(사업정리컨설팅 및 점포철거지원 12,758명, 재기교육 7,056명)을 지원했다.

그림 16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리컨설팅(일반/세무/부동산) • 점포철거지원(점포 철거 관련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용(최대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기교육(면접방법, 취업정보, 취업성공사례, 신용관리 등) • 전직장려수당(조건 충족 시 최대 100만원)

사업정리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세무, 부동산 분야로

나누어 폐업 절차, 자산·시설 처분, 신용 관리, 사업장 양수도, 보증금 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포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요 비용(기업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면접 방법, 이력서 작성, 취업 정보, 취업성공사례, 신용관리 등 취업역량 강화교육(재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임금근로자 전환 촉진을 위해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한다.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하고 취업 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나. 재창업패키지

재창업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비과밀업종으로 재창업하거나 업종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75억원의 예산을 통해 6,412명(교육 5,214명, 멘토링 1,198명)을 지원했다.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및 마케팅, 현장 견학, 상권분석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 후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마케팅, 세무, 창업 절차 등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창업패키지를 통해 8,655명이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업·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 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2007.9.5)되어, 2019년 기준 재적가입자는 122만명(누적가입자는 164만명)이며 12조 156억 원이 조성되었다.

폐업,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부상에 의한 퇴업,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는 대출(납부금액 90%범위 내), 소득공제(연 500만원),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월부금의 150배까지), 수급권 보호(공제금 압류 등 금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소득공제 한도는 '17년부터 기존의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확대한 것으로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상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중은행을 통한 공제제도에 대한 가입유치 대행이 가능해진 2010년 이후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성장하여, '17년 6월 공제출범 10년 만에 누적가입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참고로 일본의 유사제도인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는 100만 명 달성에 15년 소요). 아울러 '17.8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60개 지원센터에서도 가입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폐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 도입되었다. 2019년에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2등급에게 보험료의 50%, 3·4등급에게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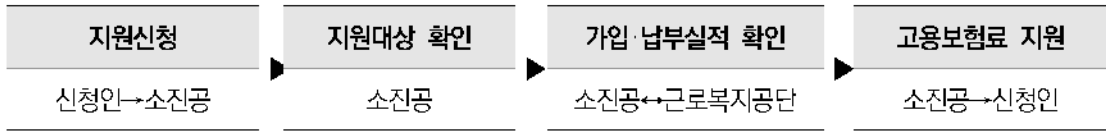
< 2019년 지원 확대 현황 >

구분	'18년	'19년	비고
지원등급	1~2등급 50%	1~2등급 50% 3~4등급 30%	-
지원기간	2년	3년	소급적용

* 2019년 실적 : 총 5,547명, 1,040백만원 지원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납부실적을 확인한 후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환급한다.

그림 17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전년 대비 24.2%(2,999명) 증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통합접수 체계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2절 소상공인·지역업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1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온라인경제추진단 백 승 표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전 은 별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 현 주
 - 지역상권과 한 준 희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 성 동
 - 지역상권과 하 유 경

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ICT 기술 발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와 유통 트렌드가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시장 진출이 처음인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등 판로채널 입점 지원, 동영상 등을 보며 상품을 구매하는 최근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이 있다. 사업초기인 2019년에는 소상공인 1,434명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1,361개시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기회를 제공하였다.

온라인 진출교육 과정은 온라인 시장 진출 역량을 향상하고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쇼핑몰 입점 등 온라인 시장 진출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 후 쇼핑몰 입점 절차 등에 대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였다.

판로채널별 진출 지원은 MD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선별하여 TV 홈쇼핑·T커머스 입점 지원, V-커머스 채널 방송출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및 종합몰 등)에서 기획전을 개설하여 쇼핑몰 메인화면 노출 등 제품판매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소상공인이 1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본인 제품을 스스로 등록 후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가치샵시다)을 구축·운영('19.11~)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 전용 PPL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고, 관련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나.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업종별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 튼튼창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튼튼창업의 경우는 2019년에 신설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민간 교육훈련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등을 활용하여 업종별 전문기술습득 및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하였다.

소상공인 경영교육 프로그램 중 전문기술교육 및 튼튼창업(일부)의 경우는 교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전에 소상공인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민간의 교육훈련 기관을 통해 각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육 바우처의 경우 1인 당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의 90%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소상공인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소상공인 교육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서울, 광주, 대전, 부산, 대구 등 5개 지역에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교육행사 등에 무료로 교육장을 제공하는 한편, 2019년에는 직장인,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전문기술교육 15,575명, 경영개선교육 4,224명, 전용교육장 2,058명, 튼튼창업 프로그램 12,758명 등 총 34,61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교육 참여 후 수료생의 경영역량지수를 조사한 결과 교육 전 100점을 기준으로 교육 후 119.2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영 이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홍보,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개발, 세무·노무·특허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19년도 동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활동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운영하였다. 전문가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5,204건과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상가보증금 및 상가 임대차 등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무료 법률구조 401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또는 2년 이상 매출액 연속 감소 소상공인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 후 신제품·브랜드 개발, 매장 환경 개선 등을 연계하는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 50건을 포함하여 총 5,655건 지원하였다.

표 II-5-2-1 |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예산	90	73	81.8
소상공인 컨설팅	5,171	4,580	5,204
무료법률구조	445	494	401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	499	464	50
합 계	6,115	5,538	5,655

라.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모여 협업하는 협동조합 모델이 일자리·지역균형발전·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개발, 생산, 판매, 공유 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7년째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간 자율적인 조직화 및 협업을 유도한 후, 공동의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인프라 구축과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조합원)의 매출 및 수익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과는 차별화 된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통해 협업 및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소상공인이 협업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7년(2013년~2019년) 간 총 1,565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수혜를 받았다. 2019년에는 공동브랜드·네트워크·마케팅·개발 등 공동사업 지원(256개)과 소셜커머스 입점, 지역판매전 개최 등 판로지원(408개)을 하였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안정적 설립, 조합원 간 유대 강화, 조합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8개 지역을 거점으로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추진함으로써 협동조합 성장에 필요한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II-5-2-2 | 연도별 소상공인협동조합 사업추진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분	예산	실적(3,394개)		성과 지원조합 조합원 평균매출액
		협업인프라	판로	
2013년	347	433	-	11.0% 증가
2014년	246	361	17	12.6% 증가
2015년	240	377	116	12.9% 증가
2016년	188	311	117	12.8% 증가
2017년	193	283	124	12.5% 증가
2018년	250	291	300	13.3% 증가
2019년	252	256	408	성과 측정 중(20.12월 결과 도출)
계	1,716	2,312	1,082	-

협업아카데미는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협업교육을 통해 공동사업 비즈니스모델 수립, 조합실무 습득, 갈등관리를 통한 협업마인드 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별 아카데미 상호간 협력을 통해 협업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였다.

공동사업 지원은 브랜드개발·마케팅·장비·기술개발·네트워크(홈페이지 등) 등의 분야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2~5억 원 한도)의 70~80% 이내를 보조하여 지원한다.

2019년 상반기에는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22회), 지면홍보(9회), 다큐멘터리 제작(YesTV, EBS), 우수사례집 홍보 등을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 사업에 착수하였다.

표 II-5-2-3 |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현황(2019.12월말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신청	498	59	44	73	73	56	14	53	23	36	40	27
선정	277	22	36	28	42	29	6	31	14	20	23	26
지원	256	17	34	27	41	25	5	30	13	17	21	26

하반기에는 조합성장의 기초가 되는 협업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국 8곳에 협업아카데미를 선정하고 협업인큐베이팅(조합설립), 협동조합 실무교육, 갈등관리, 협업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였고,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로드맵 구축과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공동관로 전문교육(42개 조합) 실시, 온라인 판로 확대(V-커머스), 지역판매전을 개최(313개 조합, 7회)하여 조합상품 홍보 및 매출 증대를 꾀하였다.

'19년 7월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3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여하여 소상공인협동조합 정책홍보관을 운영하였고 판매부스에 참여(14개 조합)하였다.

향후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업교육, 판로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 대한한약협동조합 우수사례 〉

- (설립계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제배를 이루어 공동구매 약재의 품질향상과 위탁제조 과정에서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 설립
- (설립개요) 2014년 / 조합원 15명 / 대표자 : 이진경
- (사업효과) 설립 → '19년

(매출)	3.4억 → 42억	(조합원 수)	15명 → 15명
(고용)	4명 → 8명	HGMP 한약재 인증	



마.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과 혁신의지가 있는 골목슈퍼를 현대식으로 육성하고, 시설현대화·정보화에 기반한 조직적 역량 결집으로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 말 현재 총 11,658개의 골목슈퍼를 나들가게로 선정하여 점포 환경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였다. 사업 초기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나들가게에 대해 전문가의 점포운영 종합지도를 바탕으로 POS기기 설치, 간판교체 등을 지원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POS 활용교육, 부진점포 회생지원 등 사후관리 위주로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II-5-2-4 |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 실적

(단위 : 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개점지원	2,302	3,005	4,704	-	517	232	363	254	183	98	11,658
경영지원				1,611	1,807	1,816	734	956	1,200	1,659	9,783
선도지역						6	6	10	3	-	25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들가게 선도지역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사업비의 80%, 최대 12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6개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25개 선도지역이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2018년에 선정된 3개 지역과 2017년에 선정된 기존 10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13개 선도지역이 운영되었다. 이들 선도지역은 지역 상권 특성을 반영한 모델숍 개발, 점포환경 및 경영개선, 전주역량교육, 지역특화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II-5-2-5 | 나들가게 선도지역 선정현황

선정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선정규모	6개	6개	10개	3개
선정지역	서울시 송파구, 부천시, 제천시, 제주시, 포항시, 영월군	서울시 금천구, 안양시, 안산시, 청주시, 전주시, 춘천시	서울시 동작구, 시흥시, 천안시, 충주시, 정읍시, 김제시, 광주시, 김해시, 창원시, 안동시, 원주시	수원시, 광주시 서구, 목포시

한편, 2018년부터는 동네슈퍼의 협업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생적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심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동네슈퍼 체인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해 회원 점포에 대한 경영지도, 점주교육, 상품배송, 공동구매·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체인 사업 운영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지역별로 총 10개의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전국단위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 등 총 2개에 대해 체인사업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심의 동네슈퍼 협업화 성공모델을 육성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바.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프랜차이즈는 개별기업들의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다. 개별 소상공인의 조직화 등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2009년 9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도입,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체계 구축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본격 실시하면서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과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및 연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은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가맹전 20개 미만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 개발과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20개 업체에 대하여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가맹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맹본부의 체계화 수준 및 성장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가맹전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영전 1개와 가맹전 10개 이상 또는 가맹전 20개 이상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브랜드별 평가)이다. 수준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구성되며, 2등급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고 엠블럼(문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우수프랜차이즈로 29개 브랜드를 지정하였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된 브랜드 5개를 명예의 전당에 등록하였다.

또한,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① 가맹본부 및 가맹점 체계화 컨설팅, ② 브랜드 디자인 및 IT 개발, ③ 브랜드 홍보 및 교육 등의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및 관련법규, 마케팅 방법, 해외진출방법 등 가맹본부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2019년에 가맹본부 및 가맹점 관계자 등 636명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표 II-5-2-6 | 수준평가 연계지원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평가결과 지도	○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지도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 I ~ II 등급에 대하여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및 엠블럼 수여
브랜드 재정비 지원	○ 체계구축 컨설팅(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등 지원
가맹점주 교육	○ 브랜드별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시행
홍보 지원	○ 소상공인 방송(yestv) 광고, 박람회 개최시 부스를 운영하여 우수프랜차이즈 홍보, 명예의전당 운영

2019년도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은 기존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수준평가제도 운영과 더불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과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월적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프랜차이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가맹점과 공유하는 체계를 수립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18년에는 10개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지원하였고, '19년에는 15개의 프랜차이즈에 대해 지원하였고 향후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내수시장 포화상태 해소를 위해 코트라와 협업하여 국내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해외로드쇼를 개최하여 현지 투자파트너 상담 및 기업IR을 실시하였고 해외 투자파트너를 국내로 유치하여 투자상담회 및 글로벌 프랜차이즈포럼도 개최하는 등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184개사 지원하였다.

사.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물류비 절감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 건립은 중소기업업자의 유통 물류기능의 공동화와 효율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해오다 200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진행하고 있다.

물류단가 인하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물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도매 배송, 전품, 보관 등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할 경우, 건립비의 일정비율(중앙정부:지자체:민간부담 = 6:3:1)을 지원하였다.

공동물류센터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37개소에 총 85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현재 부산, 제주 등 전국 35곳에서 운영 중이고 김해, 군산 2곳은 건립 중이거나 개소를 준비 중이다.

표 II-5-2-7 | 시도별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2019.12)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2)	1	3	1	1	1	1	8	3	3	5(1)	2	5	3(1)	1

* ()안은 건축 중인 센터 수

표 II-5-2-8 | 건립중인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위 치	연면적	총 사업비				운영주체
			총계	국·도비	지방비	민자	
군산	경암동	9,254	10,000	6,000	3,000	1,000	수퍼조합
김해	풍유동	3,500	9,500	5,700	2,850	950	수퍼조합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는 조합원 간의 공동구매와 제조사 직거래를 통해서 슈퍼마켓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 공급망이 부족한 지방 소재 골목슈퍼의 상품구매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2019년 실태조사 결과, 물류센터 당 평균 매출액은 약 119.5억 원으로 센터 당 평균 회원 수 507명이 물류센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물류센터 이용 소매업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76.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물류센터 이용 사유로는 첫 번째로 일괄구매 가능(39.2%)하다는 점과 다음으로 저렴한 가격(32.5%) 순으로 응답하였다.

아. 백년가게 육성

그동안 소상공인은 사업체·종사자 수 등 양적 측면에서는 확대되어 왔으나 질적 측면에서 불 때 빈번한 창업과 폐업으로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노포(老舗)처럼 우리나라에도 대를 이어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그 성공사례 전파를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바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단일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 운영한 우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백년가게’로 선정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는 백년가게 육성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9년 누적 334곳을 백년가게로 선정하고, ‘백년가게 1호점’ 현판식(18.9)을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서 지역별 현판식을 진행하여 백년가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국내 유명 O2O플랫폼과 유관기관협력을 통한 홍보, 전문가의 집중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성과확산과 개별전포의 역량강화에 기여하였다.

표 II-2-5-9 | 시도별 백년가게 선정현황(2019.12)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334	43	29	15	20	10	10	33	6	26	20	27	21	25	27	20	2

2019년도 선정전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37.0%가 매출·고객 증가효과를 보였으며, 백년가게 육성사업 참여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0.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백년가게 선정자체가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2020년도에는 국민참여 확대 및 예비노포 발굴을 위하여 '국민추천 백년가게'를 도입하고, 기존 음식전업과 도소매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한정되었던 업종·규모 제한을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대표자의 강의활동, 교육콘텐츠 제작·활용을 통해 백년가게의 우수성을 알리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백년가게 대표자 강사활동(예시)



100년 점포 선정기념 현판식(19.12)



백년가게 온·오프라인홍보(예시)

표 II-2-5-10 | 전국 백년가게 지정점포(2019.12)

연번	점포명	소재지	연번	점포명	소재지
1	청해진	서울 강동구	168	영빈관	충북 음성군
2	동신명가	서울 강동구	169	제천식육점	충북 제천시
3	장군식당	서울 노원구	170	단골집	충북 진천군
4	삼거리먼지막순대국	서울 영등포구	171	송애집	충북 진천군
5	창성옥	서울 용산구	172	신화당분식	충북 청주시
6	만석장	서울 은평구	173	남주동해장국	충북 청주시
7	새만포면옥	서울 은평구	174	대동관	충북 청주시
8	형제상회	서울 은평구	175	공원당	충북 청주시
9	선천집	서울 종로구	176	재건갈비	충북 청주시
10	하나로회관	서울 종로구	177	금수장장어구이	충북 청주시
11	신안촌	서울 종로구	178	큰마을영양굴밥	충남 서산시
12	정우상사	서울 종로구	179	큰덕	충남 천안시
13	을지OB베어	서울 중구	180	진주회관본관	충남 천안시
14	명동칼국수	서울 중구	181	만쪽통나무집식당	충남 태안시
15	부산복집	서울 중구	182	개미상회	전북 고창군
16	일송면옥	부산 금정구	183	계화회관	전북 부안군
17	죽도집	부산 기장읍	184	진미식당	전북 익산시
18	동래할매파전	부산 동래구	185	대한서림	전북 익산시
19	협신전자	부산 부산진구	186	늘채음	전북 전주시
20	77돌곰창	부산 사상구	187	탐외국어사	전북 전주시
21	쉐라미	부산 사하구	188	혜화당한약방	전북 정읍시
22	옥미아구찜	부산 수영구	189	정음낙시	전북 정읍시

연번	점포명	소재지	연번	점포명	소재지
23	한국밸브상사	부산 영도구	190	제일스포츠	전북 정읍시
24	(주)국제의료기	대구 달서구	191	금메달	전남 무안군
25	스미센	대구 동구	192	풍미통닭	전남 순천시
26	청신한약방	대구 중구	193	(주)경덕농수산	전남 순천시
27	백초당한약방	대구 중구	194	옥수굴비	전남 영광군
28	알미골	인천 강화군	195	외바우	경북 경주시
29	더리미집	인천 강화군	196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	경북 안동시
30	고려화문석	인천 강화군	197	나드리	경북 영주시
31	부영선지국	인천 미추홀구	198	불로식당	경남 창원시
32	민들레	광주 서구	199	화성갈비	경남 창원시
33	한도안전상사	대전 대덕구	200	봉래식당	경남 창원시
34	동신위생도기	대전 대덕구	201	동승춘	강원 삼척시
35	유일관	경기 가평군	202	함흥냉면옥	강원 속초시
36	대원옥	경기 수원시	203	동아서점	강원 속초시
37	금화상회	경기 수원시	204	진미양념통닭	강원 원주시
38	안일옥	경기 안성시	205	철원막국수	강원 철원군
39	지동관	경기 의정부시	206	메바우명가춘천막국수	강원 춘천시
40	연양불고기	울산 연양읍	207	서울식당	충북 괴산군
41	향원복집	제주 서귀포시	208	동해순대국	강원 속초시
42	뉴욕제과	강원 속초시	209	삼보식육점	충남 서산시
43	도지골등나무집	강원 춘천시	210	한국의상 현필원	충남 예산군
44	대흥상회	강원 평창군	211	송어익집	강원 평창군
45	태백식육점	강원 태백시	212	문창그릇백화점	대전 중구
46	남한산성은행나무집	경기 광주시	213	백제장	경기 광주시
47	장안면옥	경기 안성시	214	영빈루((주)왕기봉)	경기 평택시
48	미진과자점	경남 창원시	215	예산안경원. 조은소리 보청기	충남 예산군
49	동원건어물	강원 강릉시	216	털보아구탕	경기 안산시
50	이방식당	경남 창원시	217	홍능갈비	경기 고양시
51	중앙집	경남 진주시	218	고심통숯불갈비 육전선지국	경남 진주시
52	진해제과	경남 창원시	219	밀로베이커리	경남 창원
53	구백식당	전남 여수시	220	수향	경남 통영시
54	신흥장어	전남 나주시	221	태화루	경남 밀양시
55	상남할인마트 (구.상남슈퍼마켓)	강원 인제군	222	금호	광주시 광안구
56	밀밭베이커리	대구 중구	223	꽃담	광주시 동구
57	마방(마일드치킨)	충남 서산시	224	풍년식당	전남 목포시
58	매향철물(매향상사)	경기 수원시	225	새서울정육점	경기도 광명시

연번	점포명	소재지	연번	점포명	소재지
59	팔부지슈퍼	경기 안양시	226	사론꽃농원	광주시 서구
60	형제돌구이	대전 유성구	227	한국식당	전남 광양시
61	88원당집	부산 해운대구	228	한국진열대산업사	대전 대덕구
62	개미집	부산 중구	229	골다리식품 판매장	충남 아산
63	갑오상회	경기 의정부시	230	화성식육식당	전남 화순군
64	수덕신발	경기 의정부시	231	고려분식	경북 상주시
65	양곡종묘농약사	경기 김포시	232	대남통닭	경북 경주시
66	온천입구기장공방어	부산 동래구	233	부창식육점	부산 사하구
67	선동보리밥	서울 성북구	234	대성암본가초밥집	경북 김천시
68	풍년지물포	경기 화성시	235	대창	대구 북구
69	삼화정	인천 남동구	236	진주당	부산 동래구
70	신포순대	인천 중구	237	산성식당	경북 영천시
71	함흥냉면	인천 부평구	238	덕포식육점	부산 사상구
72	무진장갈비촌	전북 익산시	239	아이러브뮤직	부산 중구
73	복서울식당	충북 충주시	240	아이클럽	부산 중구
74	미락정갈비	강원 정선군	241	이윤순한복	부산 부산진구
75	복추어탕	강원 원주시	242	서울갈비식당	경북 안동시
76	극동청과	서울 영등포구	243	수봉식당	대구 북구
77	시골집	강원 원주시	244	용두식당	경북 김천시
78	고복레냉면	경기 평택시	245	진해식당	경북 울진군
79	민물추어탕	경기 수원시	246	풍기삼계탕	경북 영주시
80	이천용인닭발본점 (구.용인닭발)	경기 이천시	247	고려회관	대전 중구
81	엘지슈퍼	경기 부천시	248	신진방수백화점	부산 동구
82	영광종묘농약사	경기 고양시	249	아씨주단	광주시 동구
83	발안건재	경기 화성시	250	구옹진식당	충남 서산시
84	대한식당	전남 광양시	251	극동제과	대전 중구
85	보곡당	경남 창원시	252	나루터식당	충남 부여
86	전주식당	전남 함평군	253	하영사	서울 중구
87	대동강식당(대동강)	대구 남구	254	명량식당	대전 동구
88	부일산채식당	경북 김천시	255	별천지	대전 동구
89	산호찜갈비(산호식당)	대구 중구	256	보은집	충남 논산
90	숙영식당	경북 경주시	257	남산상회	서울 중구
91	정화네하우스	대구 북구	258	신도리한우촌	충남 계룡
92	은정갈비	충남 아산시	259	충남왕족발	충남 예산
93	창녕집	부산 금정구	260	돌고래식당	부산 부산진구
94	풍년오리박사	부산 금정구	261	마라톤집	부산 부산진구
95	시골집	충남 공주시	262	미도상사	서울 동대문구

연번	점포명	소재지	연번	점포명	소재지
96	진미옥설농탕	서울 송파구	263	고후나비	서울 중구
97	고궁식당	울산 중구	264	정원식당	부산 수영구
98	돈바아천가(구 태능갈비)	인천 중구	265	이화인재상사	부산 부산진구
99	부일사무가구	경남 진주시	266	대문점	서울 영등포구
100	세필즈과자점	인천 서구	267	민부곤과자점	서울 노원구
101	송원	인천 미추홀구	268	동양직물	서울 종로구
102	신동양	인천 중구	269	삼원일식	서울 서대문구
103	전동집	인천 연수구	270	총주상회	서울 영등포구
104	3대원조할매추어탕	전북 남원시	271	통닭정육점	전남 순천시
105	신촌매운탕	전북 남원시	272	석양집	서울 마포구
106	쌍용반점	전북 군산시	273	홍능갈비	서울 도봉구
107	장모육계유통	경남 창원시	274	한길안경원	경남 통영
108	삼성굴비	전남 영광군	275	고궁삼계탕	울산 남구
109	운정식당	전북 군산시	276	대풍옥	인천 강화군
110	남들갈비	충북 청주시	277	형제상회	서울 양천구
111	에펠제화	전남 장흥군	278	덕수갈비	인천 부평구
112	호남종묘사	전남 강진군	279	부일식당	인천 부평구
113	강전사	광주시 서구	280	서창식육점	울산 남구
114	노송식당	충북 제천시	281	현대물텀벙이	인천 동구
115	대장군식당	충북 청주시	282	경방루	전북 남원시
116	거북이안경	광주시 동구	283	매일회관	전북 김제시
117	동아실크	광주시 동구	284	백제가든	전북 익산시
118	삼미족발	충북 청주시	285	백화정	전북 정읍시
119	일미해장국	충북 옥천군	286	성미당	전북 전주시
120	보문각	강원 춘천시	287	용방앗간	인천 부평구
121	조명옥꽃방	전남 해남군	288	신기네정음국밥	전북 정읍시
122	조선옥갈비	강원 태백시	289	한벽집	전북 전주시
123	함흥막국수	강원 속초시	290	한일식당	전북 익산시
124	덕화원	경기 양주시	291	신라식당	충북 보은
125	미락복집	경기 성남시	292	풍미당	충북 옥천
126	봉암식당	경기 안양시	293	가마솔국밥	부산 해운대구
127	송할머니웃닭집	경기 수원시	294	남창문구사	인천 부평구
128	이화회집	경기 화성시	295	강남횃집	울산 울산
129	거구장갈비	경남 통영시	296	고성곰창	경남 통영
130	대동할매국수	경남 김해시	297	남일곰장어	부산 영도구
131	하동집	경남 진주시	298	단골통닭	충남 공주시
132	호동식당	경남 통영시	299	대성민물매운탕	경기도 의정부시
133	(주)대성전자	광주시 동구	300	남문소리사	전북 전주시

연번	점포명	소재지	연번	점포명	소재지
134	중앙서점	전남 순천시	301	신토불이	전북 전주시
135	화정소바	경남 의령군	302	대성식당	전남 여주시
136	경동수산	경북 포항시	303	두꺼비집	경기도 안산시
137	(주)정일푸드(아몬드)	대구 중구	304	똥보냉면	서울 중구
138	덕화상회	경북 영주시	305	만리향	경남 김해시
139	물망초식당	전남 여주시	306	빙글빙글찜갈비	대구시 중구
140	우성대중음식점	전남 강진군	307	부일곰창	경기도 부천시
141	해태식당	전남 강진군	308	부일횃집	경남 통영시
142	경북궁식당	경북 김천시	309	춘포상회	전북 익산시
143	광명반점	대구 북구	310	산울림식당	충남 공주시
144	광월농약농자재건재사	경북 의성군	311	소문난횃집	경남 김해시
145	만물수산	경북 영천시	312	송극	광주시 광안구
146	대구갈비	경북 경주시	313	신사동족발	울산
147	월성	경북 포항시	314	우정식당	경남 양산
148	참깨국수	대구 북구	315	원조석대추어탕	부산 해운대구
149	축산본점식육식당	경북 영주시	316	일미장어	서울 용산구
150	평남식당	경북 포항시	317	짱구분식	제주도 제주시
151	햇남제과점	대구 중구	318	초평정육점	충북 진천군
152	동해루	충남 홍성시	319	판문점	경남 창원
153	황산옥	충남 논산시	320	폭포수식당	경기도 안양시
154	대원상회전통간고등어	경북 안동시	321	할매횃집	경남 창원
155	청림건재사	경북 포항시	322	함흥보쌈	부산 영도구
156	동양인삼사	경북 영주시	323	황산냉면	서울 송파구
157	낙원각	부산 사상구	324	흐르는물	인천시 중구
158	금강보글보글섞어찌개	서울 중구	325	골목냉면	서울 성동구
159	대호정	서울 금천구	326	대방회집	서울 동작구
160	성천막국수	서울 동대문구	327	동강오리	서울 중랑구
161	복화루	인천 부평구	328	삼미육	서울 관악구
162	대일정	전북 정읍시	329	신광주방	충북 충주시
163	유락식당	전북 군산시	330	장원보쌈	서울 강동구
164	금강식당	충북 단양군	331	흥부보쌈	서울 관악구
165	동원가든	충북 제천시	332	한우건축자재	충북 청주시
166	삼원슈퍼	서울 동작구	333	성충문구(상사)	충북 충주시
167	리정식당	충북 청주시	334	신미당	대전 유성구

2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지역상권과 최 용 준
- 지역상권과 손 형 욱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체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36.0만개 사업체에 116.6만 명이 종사하여 전체 제조업 대비 사업체수로는 83.8%, 종사자수로는 28.7%를 차지한다.

제조과정에서 부품 및 반제품 제작 등으로 완제품의 제작에 기여하고 숙련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으나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후화된 시설은 경쟁력을 저해하고 협업부족으로 완제품 생산 및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15년 시행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등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개별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등 소공인 전용사업을 마련하여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1개 시도에서 기계·금속(문래동), 의류제조(범일동) 등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영·기술교육, 컨설팅, 협업공동사업, 작업환경개선 등 236개 사업으로 총 5,026명을 지원하여 참여소공인의 41.4%가 연평균 4.5%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장비, 공동창고, 전시·판매장 등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동기반시설을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지역에 추가 구축하여 총 23개로 확대하였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홍보동영상 제작, 인증획득 등을 참여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261개사에 판로개척을 지원했으며 성과조사 결과 매출액은 16.6%, 고용인원은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2-11 | 소공인 제품 판로확진 지원내역(2019.12월말 기준, 중복제외)

(단위 : 백만원)

구분	디자인 제작	방송 광고	뉴미디어	전시회 참가	온라인 입점	교육/컨설팅	인증 획득	오프라인 입점	해외 배송	합계
선정	237	225	203	148	149	82	75	44	38	261
지원액	1,140	2,034	971	1,081	634	352	267	191	115	6,785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디지털 접목을 통한 공정개선 등 소공인 69개사를 선정하여 제품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노령화로 인한 숙련기술의 사장방지를 위해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PLC 자동제어실무 등 4개 교육과정을 개설, 소공인 58명을 선발하여 교육훈련 및 숙련기술 전수를 실시하였다.

소공인 집적지에 공동기반시설 및 스마트 제조장비, 전시판매장, 온라인 마케팅, 교류 공단 등 비즈니스 복합공간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울 충남 공주, 서울 중랑구 2곳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표 II-5-2-12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현황(2019.12월말 기준)

연번	센터명	집적지	분야	비고
1	서울 을지로 인쇄 센터	중구(쌍림동)	인쇄	'13년 개소
2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3	서울 문래 기계·금속 센터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4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14년 개소
5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	중구(성내동)	귀금속	
6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7	서울 봉익 주얼리 센터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15년 개소
8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	시흥시(신천동)	기계금속	
9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	화성시(팔탄면)	자동차부품	
10	대전 정동 인쇄 센터	동구(정동)	인쇄	
11	대전 상서 금속기공 센터	대덕구(상서동)	기계금속	
12	금산 인삼(식품) 센터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13	대구 노원 안경 센터	북구(노원동)	광학(안경테)	

연 번	센 터 명	집 적 지	분 야	비 고
14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15	부산 범천 가족가방신발 센터	부산진구(범천동)	가족신발	
16	광주 총장로 한복 센터	동구(총장동)	의류봉제(한복)	
17	광주 서남 인쇄 센터	동구(서남동)	인쇄	
18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	전주시(팔복동)	기계금속	
19	서울 반포 섬유 센터	서초구(반포4동)	섬유제품	
20	고양 장항 인쇄 센터	고양시(장항동)	인쇄	
21	부천 신흥 전기장비 센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22	안양 호계 전자부품 센터	안양시(호계동)	전자부품	
23	용인 영덕 전자부품 센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24	인천 송도 기타기계장비 센터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장비	'16년 개소
25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센터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장비	
26	서울 독산 의류제조 센터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27	성남 상대원 제과제빵제조 센터	성남시(상대원동)	제과제빵	
28	청주 중앙 인쇄 센터	청주시(중앙동)	인쇄	
29	전북 순창 장류제조 센터	순창군(순창읍)	장류제조	
30	대구 평리 의류봉제 센터	서구(평리동)	의류봉제	
31	군포 당정 금속가공 센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18년 개소
32	대구 대봉 의류봉제 센터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33	김해 진례 도자 센터	순창군(순창읍)	비금속광물(도자기)	
34	양주 남면섬유제조 센터	양주시(남면)	섬유제품	'19년 개소

표 II-5-2-13 | 공동기반시설 연계형 소상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2019.12월말 기준)

연 번	명 칭	범 위	비 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C24, C25, C29) 집적지구	문래동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기타 제품 제조업(C33) 집적지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16년 지정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가족,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집적지구	성수동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중앙동	
5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천동 기계·금속(C29, C25) 집적지구	대야·신천동	'17년 지정
6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식품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주문진읍 (산업단지 제외)	

연 번	명 칭	범 위	비 고
7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의류(C14) 집적지구	범일동	
8	경기도 양주시 남면 섬유제품(C13)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남면 (산업단지 제외)	
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영덕동	
1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식료품(C10) 집적지구	사천면	
11	강원도 인제군 북면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북면 (산업단지 제외)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의류(C14) 집적지구	독산동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유동, 종암동, 석관동 의류(C14) 집적지구	보문동, 월곡동, 장유동, 종암동, 석관동	
14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금속가공(C25) 집적지구	군포1동	'18년 지정
15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구(C32) 집적지구	가산면	
16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의류(C14) 집적지구	대봉1동	
17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동 인쇄 및 기록매체(C18) 집적지구	서남동	
18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비금속 광물제품(C23) 집적지구	진례면	
1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식료품(C10) 집적지구	순창읍 일원	
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식료품(C10) 집적지구	상대원동	'19년 지정
2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팔탄·청남면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향남읍, 팔탄·청남면	
2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관양동	
23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기타 제품(C33) 집적지구	성내동	

표 II-5-2-14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현황(2019.12월말 기준)

연 번	지자체	집적지구	주요업종	비 고
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일대	섬유제품(C13)	'19년 지정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상봉동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C14)	

제3절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1 전통시장 현황

▪ 시장상권과 전진섭

많은 국민들의 생업 터전인 전통시장은 2018년 현재 전국에 1,437개이며, 점포 21만개, 상인 36.4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전통시장 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12월)

전통시장 실태조사 보고서(2018.12월)에 의하면 17년 대비 전통시장은 13개, 점포는 약 0.5천개가 감소하였고, 상인은 0.4만여명 감소하였다.

표 II-5-3-1 | 연도별 시장수·점포수·상인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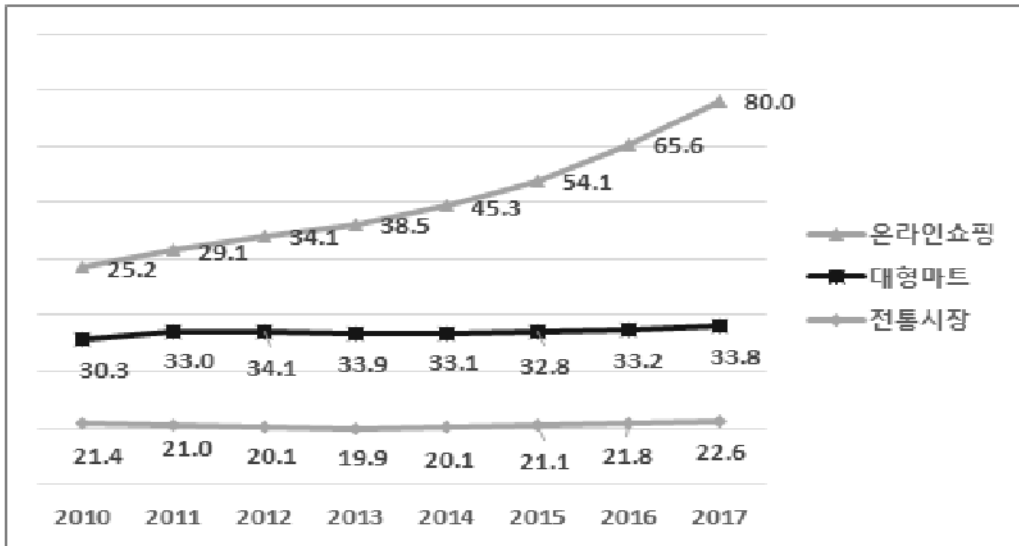
구분	시장수	점포수	상인
2012년	1,347개	194,750개	333,485명
2013년	1,372개	203,036개	334,370명
2014년	1,398개	203,643개	353,070명
2015년	1,439개	207,083개	356,176명
2016년	1,441개	209,193개	368,930명
2017년	1,450개	209,884개	363,660명
2018년	1,437개	205,271개	359,049명

* 2011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미 실시

대형마트·SSM 등 기업형 유통점의 골목상권 잠식, 온라인, 소량·근린형 등 소비 트렌드 변화, 저성장 고착화와 함께 서민층의 소비여력 저하 등으로 2013년까지는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감소세였으나, 2014년 최초로 매출액이 반등하여 2017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60년대) 전통시장 ↘ ('70~'80년대) 연쇄점수퍼마켓 ↘ ('90년대) 편의점대형마트 ↘ ('00년대 이후) 온라인·홈쇼핑·SSM

그림 18 | 유통형태별 매출 추이



* '10년~'14년 대형마트 매출액은 소매업태별 판매액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수치

* 자료 : 온라인쇼핑동향조사(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통계청),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활성화가 양호한 시장이 41.1% (595개), 취약한 시장은 16.5%(239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인조직 활성화, 빈점포 감소, 서비스 향상 등 시장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매출액 상승 등 경영여건이 다소 개선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5-3-2 |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2017년)

전 체	양 호		보 통	취 약	
	A수준 (매우 활발)	B수준 (활발)	C수준 (보통)	D수준 (미흡)	E수준 (침체)
1,450개	152	443	616	203	36
		595	616	239	
100.0%	10.5	30.6	42.5	14.0	2.5
		41.1	42.5	16.5	

2

특성화시장 육성

▪ 전통시장육성과 이왕재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등에 비해 물리적 편의시설도 부족하지만 그간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보다는 주차장·아케이드, 공용시설 등 시설을 비슷한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8년부터 전통시장의 고객흡인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시설·환경 대신 지역 문화와 특산물,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연계하여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살거리·즐길거리가 있는 관광·쇼핑형 전통시장으로 특성화 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의 자원(관광·문화·예술·특산품)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간조성, 관광 상품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2018년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으로 부분 개편하여 신규시장 31곳 및 2~3년차 계속시장 57곳을 지원하였고, 시장의 고유브랜드 개발, 지역관광지와 연계, 스토리텔링 도입 등으로 시장매출 증대 및 고객유인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20곳을 포함한 42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 시장(누적 곳) : ('08~'11) 42 → ('12) 39 → ('13) 71 → ('14) 94 → ('15) 127 → ('16) 149 → ('17) 184
→ ('18) 215 → ('19) 261

2016년부터는 시장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외에 글로벌명품시장, 골목형시장 등 다양한 특성화 지원모델을 추가로 개발하여 전통시장의 유형별·규모별 맞춤형 특성화 지원을 추진하였다.

방한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시장을 글로벌명품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은 유명관광지나 한국적 콘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대상

으로 외국 관광객이 가볼만한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체험 및 명품 거리를 조성하고, 아시장을 개설하며, 외국인 안내·동역·환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3년간 최대 50억 원 지원하며 2015년도 6곳, 2016년도 4곳 등 총 10곳을 육성하였다.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는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시장의 롤모델이자 지역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 협업사업의 기준이 되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특화요소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으로 일부 개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 14곳을 육성하였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은 기반조성사업과 컨설팅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반조성사업은 3대 고객서비스 혁신(편리한 결제, 고객신뢰, 위생청결)과 2대 역량 강화(상인 조직역량, 화재 안전관리)를 통해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대체하여 신설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 34개 신규시장을 선정·지원하였다. 특히 해당사업은 1년간의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곳은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2019년도에 신규시장 30곳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누적 64곳을 육성하였다.

첫걸음 컨설팅사업은 특성화 기반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이 미흡한 곳을 대상으로 기초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시장 원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24개, 2019년에는 31곳을 지원하였다.

표 II-5-3-3 | 2019년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 육성시장 현황(2019.12월 말 기준)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신규	1년차	강원	고성군	고성거진시장	
		강원	영월군	영월종합상가	
		경기	부천시	부천중동시장	
		경기	군포시	산본시장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42곳)		경기	오산시	오색시장	
		경기	수원시	화서시장	
		경기	여주시	한글시장	
		경남	창원시	도계부부시장	
		경북	문경시	문경중앙시장	
		경북	포항시	포항큰동해시장	
		경북	울진군	울진바지계시장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광주	광산구	송정연합시장 (1913송정역,송정매일)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	
		대전	서구	가수원상점가	
		대전	중구	중앙로지하상가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	
		부산	사하구	괴정골목시장	
		부산	동구	부산진시장	
		서울	성동구	뚝섬역상점가	
		서울	구로구	고척근린시장	
		서울	강서구	화곡동본동시장	
		서울	종량구	동부골목시장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울산	남구	울산번개시장	
		인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	
		인천	부평구	부평깡시장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	
		전남	강진군	강진중앙로상가	
		전북	익산시	익산북부시장	
		전북	군산시	명산시장	
		전북	완주군	봉동생강골시장	
		전북	익산시	중앙매일서동시장(연합)	
		제주	제주시	제주중앙지하상가	
		충북	청주시	복대가경시장	
		충북	제천시	제천동문전통시장	
		충북	진천군	진천전통시장	
		충북	청주시	사창시장	
		충북	괴산군	청천전통시장	
		강원	정선군	사북시장	
		경기	부천시	역곡상상시장	
		경기	파주시	금촌통일시장	
		경기	부천시	부천강남시장	
	경남	김해시	김해삼방시장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계속	2년차 (31곳)	경남	창원시	성원그랜드쇼핑	
		경남	창원시	창동통합상가	
		경남	고성군	고성공룡시장	
		경남	통영시	북신전통시장	
		경북	경주시	경주중앙시장	
		광주	남구	무등시장	
		대전	동구	신도곶지락시장	
		서울	금천구	남문시장	
		서울	강서구	송화벽화시장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	
		세종	세종시	전의왕의물시장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인천	미추홀구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인천	계양구	작전시장	
		인천	서구	인천강남시장	
		전남	여수시	여수전통서시장	
		전북	전주시	전주모래내시장	
		전북	전주시	전주신중앙시장	
		전북	정읍시	정읍샘고을시장	
		전북	군산시	군산공설시장	
		충남	서산시	서산동부시장	
		충남	보령시	보령중앙시장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충북	청주시	원마루시장	
		충북	청주시	청주서문시장	
		충북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강원	삼척	삼척중앙시장	
		강원	정선군	정선임계사동팔달시장	
		강원	원주시	원주자유시장	
		경기	파주	문산자유시장	
		경기	수원	수원연무시장	
	경기	부천	부천자유시장		
	경기	양평	양평용문천년시장		
	경기	하남	하남신장시장		
	경남	밀양시	밀양내일아리랑시장		
경남	거제시	거제고현종합시장			
경남	김해시	김해동상시장			
경북	포항	포항효자시장			
경북	고령군	고령대가야시장			
광주	남구	봉선시장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대구	달서구	서남신시장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대전	서구	한민시장			
	3년차 (35곳)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부산	사상구	부산새벽시장	
		부산	영도구	봉래시장	
		부산	동구	자유시장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울산	남구	수암상가시장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	
		인천	서구	가좌시장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	
		인천	남구	석바위시장	
		전북	고창	고창전통시장	
		제주	서귀포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충남	당진군	당진전통시장	
		충남	천안시	천안남산중앙시장	
		충북	진천군	진천중앙시장	

표 II-5-3-4 | 2019년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 육성시장 현황(2019.12월 말 기준)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신규	1년차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계속	2년차	강원	속초시	속초종합중앙시장	
		전남	순천시	순천아랫장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연합)	
		경북	구미시	구미새마을중앙시장(연합)	
	3년차	광주	서구	양동복개상가(연합)	
		부산	북구	정이있는 구포시장	
		전북	부안군	부안상설시장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	
	충북	충주시	충주자유무학시장		

표 II-5-3-5 | 2019년 첫걸음시장 육성시장 현황(2019.12월 말 기준)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신규	기반조성 (30곳)	강원	강릉시	주문진건어물시장	
		강원	원주시	중앙시민전통시장	
		강원	태백시	황지자유시장	
		경기	부천시	부천상동시장	
		경기	안산시	도리섬상점가	
		경기	평택시	통복시장	
		경남	진주시	진주동성상가	
		경남	창원시	가음정시장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	
		광주	동구	금남지하도상가	
		광주	동구	조대장미외거리	
		광주	북구	패션외거리	
		대구	달서구	송현주공시장	
		대구	북구	서변중앙시장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서울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서울	용산구	용산용문시장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울산	동구	남목전통시장	
		인천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인천	부평구	진흥종합시장	
		인천	중구	개항누리길상점가	
		전남	완도군	완도5일시장	
		전북	군산시	삼례시장	
		충남	보령시	한내시장	
		충남	천안시	천안역전시장	
		충남	홍성군	명동상가	
		충북	청주시	내덕자연시장	
		충북	충주시	성서문화외거리상점가	

구분	연차	지역		시장명	비고
		시도	시군구		
컨설팅 (31곳)		강원	홍천군	홍천시장	
		경기	여주시	여주세종시장	
		경기	시흥시	정왕시장	
		경기	과천시	제일쇼핑	
		경기	과천시	과천상점가	
		경기	남양주	남양주장현전통시장	
		경남	양산시	서창시장	
		경북	영천시	금호공설시장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상점가	
		대구	남구	남부시장	
		대전	중구	중촌동맞춤거리상점가	
		부산	동래구	인락상가시장	
		부산	동래구	명장시장	
		부산	동구	수정전통시장	
		부산	동구	성북전통시장	
		부산	남구	용호1동골목시장	
		부산	남구	용호삼성시장	
		부산	중구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부산	사상구	모라전통시장	
		서울	종로구	종로신진시장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서울	구로구	고척골목상점가	
		서울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상점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시장	
		서울	광진구	화양제일시장	
		인천	남동구	구월도매전통시장	
		인천	중구	신포상가연합회	
		인천	중구	신흥시장	
		충북	단양군	매포전통시장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	
		충북	옥천군	옥천공설시장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육성과 편 선 영

대형마트와 SSM의 확산,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아케이드, 진입도로,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여 2019년까지 1,290개 시장에 대하여 아케이드,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국비 2조 2,330억원을 지원하여 5,532건의 시설을 개선하였다.

2019년에는 434개 시장에 아케이드 70건, 고객편의시설 43건, 전기·가스·소방 시설 정비 217건, 기타 노후시설 개선 등에 1,239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II-5-3-6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지원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건수(건)	259	384	330	308	330	390	449	401	392	630
지원금액(억원)	1,572	1,660	1,606	1,430	1,388	805	808	753	788	1,23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의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2년 30%이던 민간부담률을 2004년에 10%까지 인하하였고, 2009년에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5~10%까지, 2011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5년부터는 화장실, 진입로와 같이 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상인부담을 면제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선 지중화사업, 상·하수도,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과 민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을, 2009년에는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을, 2010년에는 공동물류창고와 다목적 광장을, 2013년에는 공동판매장까지 상인 자부담 면제대상을 확대하였다.

전통시장의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아케이드 설치의 경우 사업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료 부담 및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지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15년부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본격 지원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360개 주차장에 5,585억원을 지원하였다.

2019년도에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74곳에 1,443억원, 개량·보수에 8억원, 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27곳에는 공공 및 시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 12억원을 지원하여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 완화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설개선 및 주차장 건립을 완료한 시장은 매출과 고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 100개 시장과 미실시한 10개 시장을 대상으로 매출액이나 고객증가 등을 조사한 결과, 시설현대화를 실시한 시장의 매출이 14.7%가 증가하였고, 고객수는 11.0% 증가하였다. 반면, 미개선 시장의 경우는 매출이 12.5% 하락하였고 고객수는 13.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3-7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성과 평가(2019.12월)

구 분	지원시장	미실시
매출증가점포비율(%)	52.3	11.8
고객증가점포비율(%)	49.0	12.0
상인 만족도(점)	76.5	54.0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및 공영주차장건립은 직접적인 매출증가로 이어져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시장경영혁신 지원

- 전통시장육성과 장 수 환
- 전통시장육성과 전 진 설
- 전통시장육성과 이 왕 재
- 전통시장육성과 권 현 주

아케이드 설치, 주차환경 개선 등 노후 시설 개선 등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인프라 지원과 함께 시장상인의 경영혁신 마인드 제고와 경영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2002년도부터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5-3-8 | 시장경영혁신지원 예산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억원)	369	410	488	747	763	1,593	1,800	1,968	2,149	2,742

가.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시장경영바우처지원은 기존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 서비스 5개 사업을 통합·개편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본 사업은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하고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년도 하반기에 모집 후 중소벤처기업부 13개 지방청에서 지역별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상전가는 5개 사업 부문(마케팅, 교육, 자문,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중 희망 사업 부문을 선택하고, 부여 받은 예산(바우처)을 희망사업부문에 자율 편성(분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에는 121억원의 예산으로 345곳의 전통시장 및 상전가를 지원하였으며, 개별 전통시장 및 상전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 '전통시장 가을축제', '시장경영바우처 컨퍼런스', '시장매니저 직무교육'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기존 5개 사업 부문 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 적용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사업 추진시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상인을 육성시켜 전통시장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5-3-9 |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예산

(단위: 억)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청년상인 창업지원	51	218개 점포	51	178개 점포	51	128개 점포	38	25개 점포	-	-	-	-
청년몰 조성	-	-	127.5	14곳, 258개 점포	142.5	12곳, 203개 점포	157.5	9곳, 135개 점포	37	4곳, 70개 점포 (조성중)	60	3곳, 66개 점포 (조성중)
청년몰 활성화·확장	-	-	-	-	-	-	71.5	24곳	37	6곳	53.5	10곳
청년상인 도약지원	-	-	-	-	-	48개 점포	-	107개 점포	27	222개 점포	20	201개 점포 (지원중)

* 심포수 '20.5월 기준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조성, 청년상인 창업교육, 점포 임차료 및 인테리어 지원,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6년 14개 시장, 2017년 12개 시장, 2018년 9개 시장을 선정하여 청년상인 집적지구를 조성했고, 2019년에는 4곳 시장을 선정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3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청년몰당 지원금액은 점포 20개 기준 15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지원되었으나, 2018년부터 기존의 청년상인들만 입점하던 청년몰 지원

에서 확장되어, 청년몰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년몰 조성 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원금액도 최대 30억 원(매칭비율 동일)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5-3-10 |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예정)	2020년(예정)
지원시장 수	14	12	9	4	3

기 지원한 청년몰의 시장안착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몰의 홍보, 마케팅, 교육 등 S/W중심의 청년몰 활성화지원과 시설개보수, 추가공간조성 등 확장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활성화지원 16곳과 확장지원사업 8곳을 지원했고, 2019년은 활성화지원 3곳과 확장지원 3곳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활성화지원 7곳과 확장지원 3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활성화지원은 1년간 3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며, 확장지원은 1년간 1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5-3-11 |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 분	2018년	2019년(예정)	2020년(예정)
활성화지원	16	3	7
확장지원	8	3	3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 전통 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창업에 따른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20개 시장 218개 점포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1개 시장 178개 점포를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14개 시장 108개 점포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중앙에서 별도 모집하여 45개 점포를 입점 지원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40백만 원이었으며, 2018년에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다.

표 II-5-3-12 |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2018년
지원시장 수	20	21	14	중앙모집
지원점포 수	218	178	108	45

전통시장은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2013년부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표 II-5-3-13 |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예산	450	1,220	2,972	2,972	2,972	2,272	2,458
대상시장수	200	501	773	747	357	382	446**

* 2013~2015년 1차 전체시장 전수점검 완료, 2016~2018년 2차 전체시장 전수점검 완료

** 446개 = 전통시장(433개), 상점가(13개)

2018년부터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설·추진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을 조기에 감지하여 소방관서·상인이 화재를 초기 진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구조 및 특성에 따라 개별점포형과 오픈점포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1점포당 설치비를 국비기준 최대 56만원까지 지원한다. 2019년까지 총 315개 시장, 33,283개 점포대상으로 국비교부 하였다.

표 II-5-3-14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구분	설치내역	지원한도(국비 기준)
개별점포형	○ 개별점포 : 감지기(유·무선) ○ 공용부분 :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 시장당 최대 '56만원 × 신청점포수 산출금액' 이내 (개별점포+공용부분=56만원) * 국비 70%, 지방비 30%
오픈점포형	○ 공용부분 : 감지기(유·무선),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화재피해로 당장 생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도 운영 중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전통시장 상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최대 6천만원 한도 까지 가능하다. 2018년에는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 특약상품을 추가하여 보장범위를 넓히고, 가입기간도 최장 3년으로 확대하였다.

표 II-5-3-15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구분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연 66,000원	연 132,000원	연 198,000원
		연 101,500원	연 203,000원	연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자기부담금 30만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		
	화재벌금	- 추가공제료 : 연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보상 (형법 170조) 1.5천만원 / (형법 171조) 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26,600원(자기부담금 10만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산

상품권은 모든 국민이 애용하는 결제수단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그동안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던 시·도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역적 한계와 편의성 부족으로 유통실적이 비효율에 따라, 시·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통합한 것으로, 전통시장의 매출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왔다.

온누리 상품권은 2019년 1조 6,853억 원이 판매되었다. 상품권 구매자별 현황을 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10.9%,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이 7.7%인 반면, 개인 구매 비율이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절기에 소비가 위축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설명절 상품권 특별할인(5%→10%)을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국민적 인지도가 향상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II-5-3-16 | 2019년도 온누리상품권 주체별 구매비율

(단위 : 억원, %)

공공부문	기업부문	개인부문	계
1,831.8 (10.9%)	1,300.5 (7.7%)	13,720.5 (81.4%)	16,852.8 (100%)

온누리상품권을 처음 발행한 2009년에는 판매액이 105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 판매액은 1조 6,853억 원으로 10년만에 판매 규모가 161배 증가하였으며, 누적판매액은 약 7조 7,463억 원을 달성하였다.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품권 구매 실적 배점을 2011년 0.1점에서 2012년 0.3점, 2013년부터 0.3~0.5점으로 지속 상향 조정하였고, 2012년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10%)를 활용하여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 상품권 지급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온누리 상품권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확대 운영하고 2016년 말에는 8개의 쇼핑몰을 통합하여 쇼핑몰간 상품검색 및 가격비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상품권 도입을 통한 결제 편의성 제고 등으로 고객의 전통시장 유입 및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전통시장의 대표브랜드로 조기 정착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단일 상품권으로써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 전통시장홍보

1)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15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국내 최대의 전통시장 행사이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상품을 전시·홍보·판매하여 전통시장 인지도 제고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한다.

2019 전국우수시장박람회(16회)는 10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3일간, 울산 동천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160개 전통시장 및 유관기관이 참가하였다. 3일간 개최된 박람회에서 관람객 18만 명, 매출액 19.9억 원, 77건의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이 수여되었다.

금년 2020 전국우수시장박람회(17회)는 10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지역상품전시회

지역상품전시회는 지역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을 발굴·소개하여 상품 홍보 및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우수상품 교차전시를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 총 8개 지역에서 지역상품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관람객 46.2만 여명, 매출액 21.6억 원이 발생하였다.

2020년 지역상품전시회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총 9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 6시 내고향

6시내고향 사업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주 고객층이 주로 시청하는 '6시내고향'에 전국 각 지역 전통시장의 매력 및 특화 상품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연중 매주 금요일 18:00~18:55분 동안 방영되었으며, 우리 시장은 처음이지? 등 정규방송 44편, 추석특집,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등 특집방송 2편 총 46편이 제작·송출되었다.

2020년에는 연중 매주 목요일 18:00~18:55분 동안 방영될 예정이며, 정규방송 44편 및 특집방송 2편 총 46편이 제작·송출될 예정이다.

표 II-5-3-17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회, 편)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제작 및 송출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2회 (정규 43편, 특집 4편 등)	총 46회 (정규 44편, 특집 2편 등)

4) 지역민방

지역민방 사업은 지역민간방송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의 편리성, 지역명물, 시장 맛집과 같은 정보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밀착형으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광주(KBC), 경인(OBS), 대전(TJB), 울산(UBC), 강원(G1), 충북(CJB), 제주(IBS), 경남(KNN) 등 8개 민영 방송사를 활용하여 총 215편(정규 196편, 기획 19편)을 제작하여 송출하였고, 2020년에는 경쟁을 통해 9개 내외 지역민영방송사가 총 180회(정규 162회, 기획 12회) 이상 송출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5) 전통시장 홍보모델 발굴사업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중장년층의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청년 등 다양한 신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각 세대를 대표하는 모델을 선발 및 활용하여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홍보모델 선발 과정을 언론 및 인터넷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대국민 흥미유발 및 전통시장 관심도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20년에도 대국민 전통시장 인식 제고를 위해 선발된 전통시장 홍보모델을 대상으로 포스터, 리플렛 등 이미지 촬영 및 전통시장 홍보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

* (2020년) 아동 4명, 청소년 4명, 청년 6명, 장년 4명, 중년 4명, 실버 3명 등 총 25명 선발

6) 시장하시조

기존 지면을 활용한 홍보는 지양하고 유튜브, 블로그 등 파급력이 강한 온라인 기반 홍보 변화를 위해 2020년 신설된 사업으로, 홍보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및 유명관광지를 연계하여 홍보하고, 매출 및 고객 증대 마케팅 성공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벤치마킹을 유도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 촉진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상인대상 정부정책, 주요이슈 등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5

상권 활성화

▪ 지역상권과 하유 경

우리 주변을 보면 특정지역에 많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지하도상가 등을 포함하여 주변 상업지역 점포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상권을 형성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및 대형마트 입점 등에 따른 상권 쇠퇴가 발생하였고, 그간 개별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지원과 주차장, 아케이드 등 시설 기반의 지원 정책은 상권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통시장(상점가)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고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상업지역 중 상업활동이 침체되었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상권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점포수 기준 :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 침체 및 침체 우려 기준 : 구역 내 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액 및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상권 전반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사업으로 해당 구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사업*과 활성화사업**을 모두 지원한다. 이 때 비영리법인 형태의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인·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상권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 활성화 사업(예시) :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등

표 II-5-3-18 | 상권활성화 지원 현황(2016년)

지 역	상권활성화구역명	구역내 시장 및 상점가	점포수 (개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3) :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의정부 청과야채시장 ○ 상점가(5) : 의정부지하상가, 녹색거리, 로테오거리, 행복로, 부대찌개 거리	2,546
경기 성남	산성로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단대마트시장 ○ 상점가(2) : 산성대로, 광명로	2,419
충남 부여	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부여중앙시장, 부여전통시장 ○ 상점가(1) : 석탑로(궁남로)	966
전남 순천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중앙시장 ○ 상점가(6) : 옷장 인접상가, 원도심상점가, 중앙 지하상가, 문화의거리, 황금로패션가, 중앙지하상가	636
울산 울주	언양시장 일원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언양공설시장, 언양종합시장 ○ 상점가(1) : 언양상점가시장	419
부산 해운대	해운대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해운대시장 ○ 상점가(2) : 구남로, 애항길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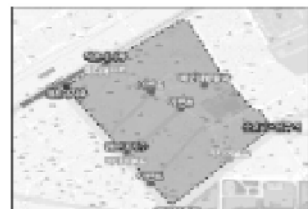
2014년부터 경기 의정부를 비롯한 6개 구역 상권활성화플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구역별 2016년 연평균 매출액이 2015년 대비 8.5% 증가하고, 고객 수도 5.7% 증가를 실현하여, 상권 내 서민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해운대 상권활성화구역

2018년부터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20.)의 핵심 과제로 선정되어 '22년까지 30곳의 대표 상권을 육성·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사업방식 개편을 통해 국비 50%, 지방비와 민간 자부담 비율을 50%로 하여 5년간 총 80억 내외로 지원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권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상인이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상생협약과 사업추진에 대해 1/2 이상 동의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였다.

사업 개편 이후 2019년 12월까지 12곳을 선정했고, 2020년에는 7개 내외의 상권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2022년까지 30곳(누계)의 상권을 선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권으로 육성·관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표 II-5-3-19 | 상권리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현황(2019년)

지 역	상권활성화구역명	구역내 시장 및 상점가	점포수 (개소)
대구 북구	칠성종합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8) : 칠성시장, 대구청과시장, 삼성시장, 칠성전자주방시장, 진·경명시장, 칠성원시장, 본시장	897
경기 수원	수원역전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3) : 역전시장, 역전지하도상가시장, 매산시장	946
전남 강진	강진 중앙로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1) :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413
경남 진주	진주중앙 상권활성화구역	○ 상점가(1) : 중앙로상점가 ○ 전통시장(2) : 진주중앙시장, 진주장대시장 ○ 상점가(3) : 진주청과상점가, 진주로데오거리, 진주중앙지하도상가	1,762
충남 천안	천안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천안역전시장 ○ 상점가(2) : 명동대흥로상점가, 천안역전지하상가	720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7) : 양동건어물시장, 양동경열로시장, 양동수산시장, 양동닭전길시장, 양동산업용품시장, 양동시장, 양동복개상가	1,092
경기 구리	구리시 행복상권 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구리전통시장	643
전북 군산	군산시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공설시장, 신영시장	573
부산 연제구	연제오방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연일시장 ○ 상점가(1) : 연일골목시장	560
강원 정선	정선읍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1) : 정선아리랑시장	415
충남 공주	공주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공주산성시장, 산성시장활성화구역	742
서울 관악구	별빛 신사리 상권활성화구역	○ 전통시장(2) : 신원시장, 관악종합시장 ○ 상점가(1) : 서원동상점가	728

제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상 영

규제는 안전·환경·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피규제자는 통상 규제이행에 따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체력을 줄여 기업의 기술혁신 등 경쟁력 제고와 산업의 자율경쟁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은 민간의 자율적 문제해결능력을 경시하고 순응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규제의 영향은 매우 크다. 규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중소기업에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부담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 및 불공정 경쟁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대응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19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이외에도 경쟁제한평가(공정거래위원회) 및 기술규제영향평가(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영역에 대해 개별부처에서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 차단하는 안정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하여 규제대상 기업수, 규제준수 의무사항,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안모색, 다른 규제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해 규제신설을 최소화하고, 도입 불가피 시 최소 부담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적대안(준수요건, 시행시기 차별화, 일부 업종/지역 적용·면제, 이행수단 차등 등)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규제형평 원칙도 입법화(2018.4.17.)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하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 현실을 반영한 과학적인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중기부가 요청한 규제차등화, 규제유예·면제 등 65건을 해당 부처가 수용해, 규제 피해 약 5천억원을 방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영실적을 보면 (2017.5~12월) 14건 → (2018) 31건 → (2019) 20건이고, 수혜대상 기업 및 금액도 1,986개사, 141억원 → 32,408개사, 1,342억원 → 60,191개사, 2,544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표 II-6-1-1 | 연도별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실적

(단위 : 건)

연 도	평가대상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 영 률
	법령건수	규제건수	제출건수	반영건수	
2009년	376	726	153	61	39.90%
2010년	337	707	40	19	47.50%
2011년	494	1,204	82	37	45.10%
2012년	584	1,433	55	26	47.30%
2013년	308	667	39	19	48.70%
2014년	240	627	42	21	50.00%
2015년	271	575	15	8	53.30%
2016년	84	211	11	6	54.50%
2017년	147	359	34	17	50.00%
2018년	306	649	50	31	56.00%
2019년	580	1161	34	20	58.80%
총 계	3727	8319	555	265	50.1%

표 II-6-1-2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표사례

□ 2017년 : 1,986개 기업 141억 절감

- ① 핀테크 대표 업종인 외환 송금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산 필수인력 요건 완화(5명→3명)를 통해 37개사 50억원 절감
- ② 공인중개사의 임대관리업 겸업이 가능토록 규제완화(자본금, 시설요건 등)하여 1,785개사의 규제 비용 58억원 절감

□ 2018년 : 32,408개 기업 1,342억 절감

- ① 외부감사 대상 편입 기준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감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4,200개의 중소기업 부담액 880억원 절감
- ②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의 핵심기술 내용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기간을 2년 연장(3년→5년)해 6,220개 기업의 307억 절감
- ③ 냉매회수업자의 등록기준 규제를 완화(국가자격증 보유→경력, 양성교육 수료)해 500개사의 규제 비용 150억원 절감

□ 2019년 : 60,191개 기업 2,544억 절감

- ① 과도하게 짧게 설정(5년)된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 의무를 폐지해 940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교체비용 1,335억 절감
- ② 약취 절감표준기술 및 측정기준을 명확하게 한후 방지시설 설치를 도입토록 하여 11,028개 축산 농가의 규제비용 219억원을 절감
- ③ 과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과도한 설비 구축 이후에만 음식물 폐기물의 가축사료 사용을 허용한 규제를 철폐해 215개 업체의 965억 절감
- ④ 난연성능을 표시하는 단열제 표면정보 표시사항 변경시 과도한 표기 규제를 완화해, 발포플라스틱 제조사(118개사)의 규제비용 15억원 절감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 정책평가과 박철우

일자리 창출·경제성장 주역으로서의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정부·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부재로 부처간 협업을 통한 효과적 정책 대안 마련에는 비효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조정 중소기업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중소기업기본법(6월) 및 동법 시행령(12월)을 개정 하였다. 개정 내용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가,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가 포함 되었다. 동 심의회는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심의·조정한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가, 업계 대표 등 30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으로는 중소기업정책 유관 부처 및 위원장이 인정하는 부처 차관급이며, 위촉직으로는 업계대표,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하위위원회인 실무조정회의 구성은 심의회 안전 발굴 및 부처간 실무조정으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 구성은 창업·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각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2019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분기별 1회 총 4회 개최하였으며 15개 안전을 심의·의결하였다.

3

적극행정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임 호 순

코로나19, 비대면 경제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중소기업 정책의 적기 대처가 필요하나 여전히 기존 지침이나 선례 위주의 업무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 벤처, 소상공인, 상생협력 등 정부부처내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기부의 적극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평상시에 바탕을 둔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어 전례없는 조치를 통한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적극행정을 중기부 조직문화로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적극행정 조직문화의 확산, 혁신 및 소통을 위해 “장관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하였다. ‘19년에는 총 3차례 개최를 하였으며 중소기업 정책분야 우수도서를 선정, 저자를 초청하여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중소기업 정책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장관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현황 〉

연번	일자	주요내용
1	'19.5월	“수축사회” 저자(홍성국) 초청 및 수축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등 토론
2	'19.7월	“축적의 길” 저자(이정동) 초청, 혁신 및 적극행정에 대해 직원과 질의응답 소통
3	'19.11월	“패권의 비밀” 저자(김태유) 초청, 브라운백 미팅 형식으로 직원과 소통

둘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우수직원 포상 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및 현장 청중(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발표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총 70개 사례가 접수되어 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하였으며, 분위기 확산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직원 6명에 대해서는 특별승급, 근무평정 및 성과급 최우수등급 부여, 승진가점, 해외 우수사례 연수기회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셋째, 적극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19년)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정 및 위원구성, 직원교육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적극행정 분야 국민체감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기부 전략적 관점에서 주요 과제를 선정, 연중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형 조직 및 프로젝트TF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업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를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가 직접 조사·처리할 계획이며, 적극행정 업무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직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일환으로 전직원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특강, 이러닝 교육 등을 지속추진함으로써 전직원의 적극행정 이해도 향상을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4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 통계분석과 최 준 영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이 호 준
-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임 미 현

현대사회는 정보의 취득 여부에 따라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정보화 사회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무슨 정책이 있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불만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실정이다.

이는 인터넷으로 정책을 알아보려면 일일이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고 어렵사리 홈페이지에 접근해도 지원시책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또 지원시책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워 실제로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공감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정부 지원정책을 인터넷, 전화, 면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의 이해증진과 정책이용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애로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직원을 통해 정책안내, 애로상담을 지원하는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정책포털 '기업마당' (www.bizinfo.go.kr, m.bizinfo.go.kr)을 통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지방청에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정책정보 안내·상담부터 현장방문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인 '기업마당'

인터넷 기반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www.bizinfo.go.kr)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의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중소기업정

책포털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구축된 동 시스템의 브랜드명을 Spi-1357 → 비즈인포 → 기업마당으로 전환하여 대국민 인지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모바일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앱에서도 관심 정책 조회가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그림 19 | 기업마당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화면



PC 기반 웹사이트



스마트폰 사용자 모바일앱(App)

기업마당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app)을 통해 알기 쉽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500여개 지원기관에서 추진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8,708건을 분야별(금융기술인력수출 등)로 구분하여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하였고,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도 3,303건을 안내하였다.

표 II-6-1-3 | 중소기업정책정보전달시스템(기업마당) 정보제공 현황

(단위 : 개, 건)

년도	중소기업지원정보 제공기관					정보DB현황		
	계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유관 기관	계	정책 정보	교육 세미나 전시회 정보
2016년	417	36	17	10	354	9,156	6,620	2,536
2017년	451	36	17	10	388	10,281	7,233	3,048
2018년	481	35	17	9	420	10,882	7,481	3,401
2019년	509	35	17	9	448	11,223	7,920	3,303

또한, 중소기업의 기업마당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지원사업 검색이 가능한 지도검색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지원사업 DATA를 창업기업 등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지원사업 알림 챗봇' 과 같은 모바일 기반 대국민 정책정보 제공서비스 운영을 지원하였다.

기업마당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가 필요한 정책대상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는 15.6만 명을 대상으로 703만 건의 정책홍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기업마당 이메일 수신 설정 회원 등을 대상(45만 명)으로 '희망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4,289만 건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기업마당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2019년 기업마당 방문수가 2018년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누적 가입회원이 13.8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표 II-6-1-4 |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시스템(기업마당) 이용 현황

(단위 : 만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접속수	363	426	442	512	516	855	1,006	1,146
누계 (2006년~)	1,261	1,687	2,129	2,641	3,157	4,012	5,018	6,164

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에게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1357을 누르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상담사와 통화연결이 가능하도록 '전국단위 전화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원정책 안내는 물론 경영애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0 | 1357 중소기업 콜센터(중소기업종합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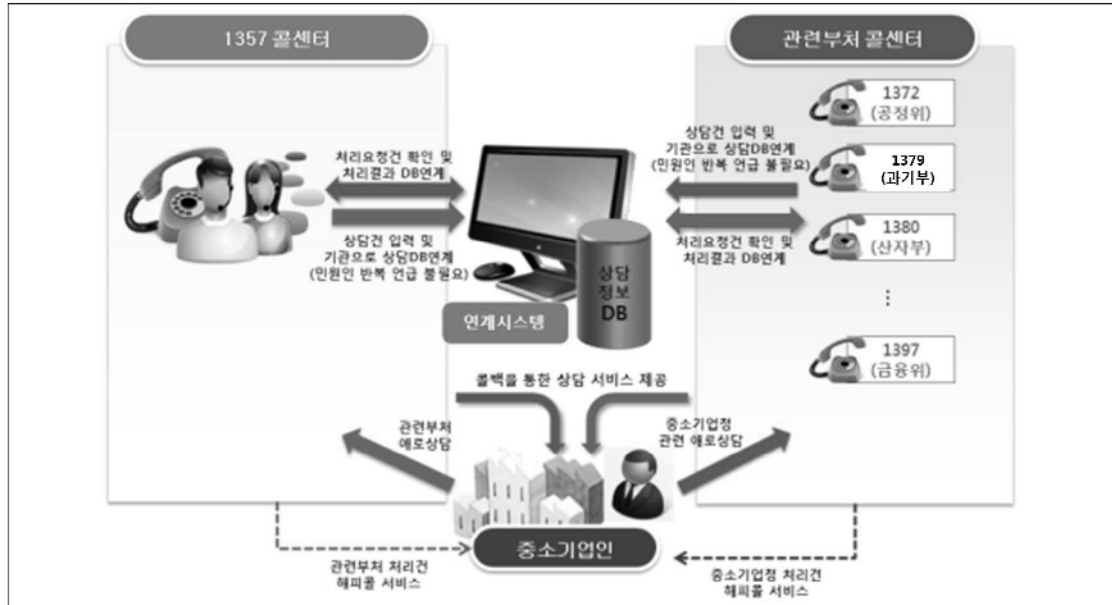
2014년 5월부터 자금, 창업, R&D 등 주요 정책별로 분산되었던 중소기업 관련 6개 기관* 콜센터를 1357 단일번호로 통합하고, 2015년 1월에는 콜센터 업무 공간도 한 곳으로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구축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산학연합회

2015년도에는 무역·금융·조달·특허·고용 등 중소기업 관련 7개 중앙부처 8개 콜센터와 연계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9개 중앙부처 10개* 콜센터 연계를 완료하여 중소기업인이 9개 부처 어느 콜센터로 전화해도 한 통의 전화로 모든 애로 사항에 대해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1357 중소기업통합콜), 산업통상자원부(1381 인증표준콜, 1380 FTA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79 기업공감원스톱지원), 고용노동부(1350 고객지원), 금융위원회(1397 서민금융다모아콜), 조달청(1588-0800 정부조달콜), 특허청(1544-8080 특허고객상담), 국세청(126 국세상담)

그림 21 | One Call 통합 상담 서비스



2019년에는 2012년 9.8만 건에 비해 8배 가량이 증가한 80여만 건의 예로사항 등을 처리하였으며, 매년 1357 중소기업 콜센터의 처리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6-1-5 | 1357 중소기업 콜센터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담건수	97,591	111,662	407,921	517,279	536,020	794,466	885,889	804,093

* 총 누계(2006년~2019년) : 4,802,952건

다.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360만개 중소기업 숫자만큼 중소기업의 예로사항은 다양하다. 특히, 대내외 경제환경 및 경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여건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변동 등 무역환경 변화는 물론 인규피크제, 근로자 정년연장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예로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에로를 적시 지원하고자 지방중기청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상주하면서 기업에로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지원해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수출 등의 기업 경영에로를 상담부터 현장에로까지 해결해 주는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로 비즈니스지원단을 구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6-1-6 | 비즈니스지원단 현황('19)

(단위 : 명)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명장 기능장	기술사	기술 지도사	경영 지도사	공공 기관 경력자	기타	계
57	74	51	53	139	10	499	11	67	99	897	64	377	2,398

비즈니스지원단은 13개 지방청과 5개 사무소(1개 센터 포함)에 상주하면서 인터넷(www.bizinfo.go.kr/link),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방문(지방청) 등을 통해 기업의 예로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다.

표 II-6-1-7 |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실적

(단위 : 건)

구 분	창업 벤처	법무 규제	금융 환위험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경영 전략	기술 특허	정보화 융합기술	생산 관리	마케팅 수출입	계
'19	20,586	4,828	10,834	15,371	13,545	16,929	10,805	3,510	4,688	16,891	117,987
누계 ('09-'19)	198,029	4,828	119,468	15,371	13,545	16,929	10,805	3,510	58,318	16,891	1,086,845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업에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7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6-1-8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실적

(단위 : 건)

구분	창업 벤처	법무 규제	금융 환위험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경영 전략	기술 특허	정보화 융합기술	생산 관리	마케팅 수출입	계
'19	112	21	38	827	61	394	110	26	87	340	2,016
누계 ('09~'19)	1,729	723	484	8,728	664	4,299	1,089	620	1,873	2,958	23,167

비즈니스지원단은 연평균 9만여 건의 전문상담과 2천여 건의 현장클리닉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비즈니스지원단 역량강화
교육(경기지방청)
(19.9.3)



비즈니스지원단 역량강화
교육(전북지방청)
(19.9.6)



비즈니스지원단 성과 공유 워크숍
(19.11.22)

5

중소기업 ombudsman 운영

· ombudsman지원단 김 유 미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정부 소속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규제나 정책에 대해 업계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ombudsman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을 현장 목소리에 근거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근거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두고(개정 '08.12월)하여 2009.7월에 도입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ombudsman을 위촉하며, ombudsman의 업무 활동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회의,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대 ombudsman (이민화 한국기술거래소 이사장, '09.7.16),
제2대·3대 ombudsman (김문경 숭실대 교수, '11.3.17~'17.4.23)
제4대 ombudsman (박주봉 대주·KC회장, '18.2.27~'21.2.26)

중소기업 유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인 유부즈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직제는 2013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정식 반영되었으며 중소기업 유부즈만의 지휘를 받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외에 타 부처·지자체 파견 공무원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직원, 자체 채용한 전문위원 등 총 4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유부즈만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ombudsman은 금융, 기술, 안전, 수출, 인력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매년 5천 여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규제애로 발굴실적은 총 25,832건('19.12월)에 이른다.

표 II-6-1-9 | 규제애로 분야별 발굴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금융	기술	보건	안전	상생	세제	수출	인력	입지	창업	판로	환경	기타
'19 누계 ('09~ '19)	3,225	176	241	342	113	91	181	43	287	495	391	301	237	327
	25,832	1,769	1,834	2,378	785	730	1,030	322	2,106	4,599	2,090	2,602	1,958	3,629

규제애로 처리를 위해 발굴된 규제애로 과제는 13개 분야별로 분류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가 규제애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검토, 조사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다.

표 II-6-1-10 | 규제애로 유형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09. ~ '18년				'19년				{{표시}}누계			
	총계	제도 개선	안내 시정	장기 검토등	총계	제도 개선	안내 시정	장기 검토등	총계	제도 개선	안내 시정	장기 검토등
건수	19,813	3,465	9,444	6,904	5,328	775	2,665	1,888	25,141	4,240	12,109	8,792
비율	100.0	17.5	47.7	34.8	100	14.5	50.0	35.4	100	16.9	48.2	35.0

특히, 중소기업에 파급효과와 타당성이 높은 핵심규제는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작은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장 공감 규제혁신을 실시하여 기업활력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였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ombudsman의 징계감정 건의제도 안내의무화 및 실제 감경사례 창출을 통해 규제혁신의 전제인 적극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6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 재도약정책과 안 병 철

중소기업은 기업경영에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자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기업경영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비롯한 제반 지원을 한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비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조언을 받아 경영전반에 걸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9년도에 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475개의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I-6-1-11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실적

(단위 : 업체,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업체수	1,256	1,098	924	826	1,166	750	475
예산	128	132	125	115	111	91	63

* 컨설팅 기반강화 예산은 제외

기술 및 경영지도사 등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지속성장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체질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이 정책·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컨설팅 분야를 확대하였다. 주52시간제 도입 및 최저임금제 준수를 위한 규제 대응 컨설팅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사전신고를 지원하는 화학물

질등록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보안 취약기업 및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유럽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EU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컨설팅을 신규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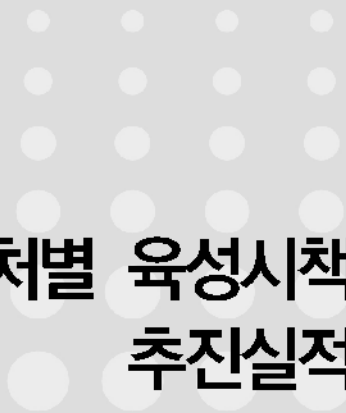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컨설팅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부터 2019년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98%,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3.88%로 기업의 경영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업과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경우 외형적 성장(매출액, 고용인원)뿐만 아니라 체질개선을 통한 내실(영업이익, 노동생산성 등)을 견고히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6-1-12 |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업과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체와의 경영성과 비교

성과 지표	비수진기업(중소제조업 5인 이상, %)			컨설팅 수진기업(제조업, %)		
	2017년	2018년	평균	2017년	2018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5.89	2.92	4.41	40.00	15.95	27.98
영업이익 증가율	4.69	△1.47	1.61	84.56	70.32	77.44
비용 감소율	0.82	△0.65	0.09	0.22	△0.37	△0.08
노동생산성 증가율	2.26	2.71	2.49	23.36	8.93	16.15
고용인원 증가율	6.04	△0.68	2.68	21.28	5.31	13.30

* 자료출처 : 중소기업실태조사(중기중앙회), 중소기업성과분석 보고서((주)리서치랩)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3부

제 1 장 기획재정부

제 2 장 교육부

제 3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4 장 문화체육관광부

제 5 장 농림축산식품부

제 6 장 산업통상자원부

제 7 장 보건복지부

제 8 장 환경부

제 9 장 고용노동부

제10장 국토교통부

제11장 해양수산부

제12장 방송통신위원회

제13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4장 공정거래위원회

제15장 금융위원회

제16장 국세청

제17장 관세청

제18장 조달청

제19장 병무청

제20장 방위사업청

제21장 농촌진흥청

제22장 특허청

제23장 기상청

제1장

기획재정부

□ 혁신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 「창업초기→성장→도약·재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술혁신형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6개월 미만) 2,000개팀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1,328억원, 추경 포함)
 - 창업성공패키지 1,000개팀(922억원), TIPS* 247개팀(247억원)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
 -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이 스타트업에 1억원 투자시 정부가 사업화·해외진출·R&D·엔젤펀드 매칭 등 총 9억원 지원
 - TIPS 지원 종료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Post-TIPS 지원 사업(200억원)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 발굴을 통한 Pre-TIPS 지원 사업(30억원) 신설
 - 창업기업의 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960억원, 추경 포함) 및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전 성공패키지(178억원) 적극 지원
-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 확충
 - M&A·회수펀드(1,400억원), 소셜벤처펀드(700억원) 등 신규 출자 확대
 - * M&A 자금 지원 및 타 펀드가 보유한 주식(지분) 매입 등으로 회수 시장 활성화
 -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규모를 확대(1,700→2,000억원)하고, 일자리창출 촉진 자금 신설(3,000억원)

□ 중소기업 일자리·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창업 중소기업 31개 업종에 대해 5년간 100% 감면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10%, 적용기한 '18→'21년 연장)
-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2→3년) 확대 및 적용기한('20→'21년)을 연장하고, 청년 정규직 고용시 100만원 추가 공제*

* 공제금액(만원) : (수도권 중소기업) 1,000→1,100, (지방) 1,100→1,200

- 중소기업이 '18.7.1.~'19.12.31.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및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 단축) 적용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배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 5% 이상→2% 이상) 및 적용기한 연장('18→'21년)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102개) 투자시 투자액의 10%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20~30%) 적용대상에 4차산업 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적용기한 연장('18→'21년)

* 대상기술 : (현재) 157개 → (추가)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 M&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8→'21년)

* 벤처기업 또는 '배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

** 기술가치금액(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기업 순자산 시가의 130% 초과액)의 10% 세액공제

□ 소상공인지영업자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 상향(500→1,000만원)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18→'21년)
 -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0%→2.6% (기타 사업자) 1.0%→1.3%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매출 2,400 → 3,000만원 미만
 -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18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19년말까지 상향(35~60%→40~65%)
 -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을 (2/101~9/109)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4/104→6/106)
 -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성실사업자 교육·의료비 소득공제(15%) 적용기한 연장('18→'21년)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을 위한 간편결제 구축 지원(60억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1→2조원) 등 소비 촉진
 - * 온누리상품권 예산 : ('18) 730 → ('19) 1,772억원
 - 경영안정자금 0.3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 등 자금지원 강화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폐업 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7,500→20,000명), 재창업(2,800→6,000명) 지원 강화
 - * (지원비율) 1등급 30% → 1·2등급 50%, 3·4등급 30% / (지원기간) 2 → 3년
 -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최대 3년) 적용기한 연장('18→'21년)

제2장

교육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 강화

- 기존 학문(이론) 중심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현장직무능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 및 적용('18.3월)
 -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
 - ※ (전문교과Ⅱ 과목) 전문공통과목 : 1, 기초과목 : 179, 실무과목 : 368
- 정부부처가 관련 분야의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기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 ※ ('16) 8부3청 263교 → ('17) 8부2청 275교 → ('18) 8부3청 320교 → ('19) 7부3청 332교

□ 마이스터고 운영 내실화

- 국가·지역전략산업분야, 중장기적으로 마이스터로 성장가능한 분야의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개입콘텐츠 및 소방 분야, 2교)
 - ※ 마이스터고 지정 실적(누적) : ('15) 47교 → ('16) 48교 → ('17) 49교 → ('18) 51교 → ('19) 52교
- 기계·금속, 전기·전자 산업분야 등 연간 6천여 명의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기반 마련
 - ※ 연간 인력 양성 인원('19.3월 입학정원 기준) : 6,280명

□ 대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및 활성화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고시) 제정('16.3) 및 개정('17.3)*을 통해 현장실습 표준 운영기준 및 절차 확립
 - *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연장 실습시간 제한(1주 5시간 이내), 보험가입 의무화, 실질적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거 등 규정

□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내실화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참여기업이 증가하는 등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참여기업의 높은 만족도 달성

※ 참여기업 : ('17) 2,108개 → ('18) 2,947개 → ('19) 3,135개

※ 취업을 비교('19) : 도제학교 67.5%, 전체 직업계고 33.6%

- 재선정 시 우수학교 및 4차 산업 유망분야 관련학과 우선 선정 등 도제학교 내실화 추진('19~,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 ('19) 2차 사업단(16개 사업단, 59개교) 중 14개 사업단 47교 재선정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대학의 자율성·경쟁력 제고

- 대학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혁신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19~'21)' 실시

- 기존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14~'18)을 대학 전반을 지원하는 일반재정 사업으로 확대·개편

※ 자율협약형(Ⅰ유형) 87교, 역량강화형(Ⅱ유형) 10교, 후진학선도형(Ⅲ유형) 15교 등 97교 선정·지원 (단 후진학 선도형 대학은 자율협약형 87교 중 선정)

-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지정을 통해 지역·대학·산업체 등 연계한 단기 비학위 과정 운영 등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기능 확대

※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프로그램 현황('19.11월) : 운영과정 350개, 참여자 약 4,800여명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17~'21) 추진

- (산학협력 고도화형)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 산학연계 교육과정 등 현장수요 기반 인재양성 및 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협업·지원 추진

※ ('19년) 일반대 55교 2,292억원, 전문대 15교 150억원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LINC+사업과 연계해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선정 대학에 재정지원 및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지원

※ ('19년) 일반대 20개교 240억원, 전문대 44개교 788억원

□ 직업계고 체질 개선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91교, 125개 학과)을 통해 산업 변화에 대응한 직업계고 체질 개선 유도
- 중소기업에 취업의지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장려금(24천명, 1인당 3백만 원)을 신설하여 조기 입직 유도 및 중소기업 근무 유도
-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 고용부 등과 협력하여 직업교육 과정 확대 및 분야 다양화 추진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 ('16) 12,306명 → ('17) 13,119명 → ('18) 14,514명 → ('19) 13,474명

□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 지역사회·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재직자·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대학 30개교* 선정·지원('19)
 - * 일반대(23교) :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아주대, 영산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청운대, 한국교통대, 한라대, 한밭대, 한성대, 호서대
 - ** 전문대(7교) : 군장대, 동의과학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서정대, 성덕대, 송호대
- 다년도 사업(4년: 2+2)으로 개편하고 전문대학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성인학습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연한 폐지, 학점당 등록금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온라인·블렌디드 러닝 등 유연한 수업 방식 적극 활용

□ 계약학과 내실화 및 활성화

- 수업의 질 확보를 위하여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적정 정원기준*(안) 마련
 - 정원기준 부재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을 해당 입학년도 정원의 20/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 6.),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정('18.7.)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19)

※ 5개교 60억원

□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 소정의 자격을 갖춘 대학생 4,893명에게 학기당 대학 등록금 및 취업지원금 200만원 지급('19) (전년 4,611명 대비 282명 증가)

* '20년 추경 편성을 통해 1유형 49.8억 증액

- (중소기업 재직 유도) 중소기업 재직 중 조기 자산형성을 연계지원* 하고 1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의무재직 기간 조정('18)**

* 중소기업 의무재직 기간을 충족한 희망사다리 장학생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고용부 협업)

** 1기업 장기근속 시, 최대 6개월 단축(2년 의무근무를 1년 6개월로 단축)

- (대상자 확대) 신입생 및 계약학과 학생은 중소기업 취업의사 불문 지원불가했으나, 중소기업과 채용 약정을 맺고 계약학과에 진학한 신입생도 장학금 지원('19)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특구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 (특구기술사업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에 이전·출자시키고 기술사업화를 지원
 - * '19년 194개 과제(394억원)를 지원하여, 매출액 1,505억원과 신규고용 969명 달성
- (연구소기업 설립) 출자기술에 대한 사업화 기획 및 기술평가 등을 지원하고, 특구법 등 제도정비를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이 대폭 증가
 - * '17년 520개(신설 181개) → '18년 704개(신설 184개) → '19년 891개(신설 187개)
- (창업 인프라 개선) 창업 교류 공간 운영을 통해 창업 관련 최신정보 공유와 창업자간 교류협업을 촉진
 - * 대덕 네트워크스페이스, 부산 아이큐브, 대구 창업캠퍼스 등 코워킹 지원운영
- (기술금융 지원)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사업화 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 등에 원화한 기술공급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영
 - * 3차-1호('16년, 188억원), 3차-2호('17년, 501억원), 3차-3호('18년, 733억원), 4차-1호('19년, 230억원)
- (글로벌 진출 강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및 마케팅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특구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과 창출
 - * 총 77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투자유치 및 수출계약 등 445만불 성과 창출

□ 중소 벤처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K-ICT 본투글로벌센터 운영) 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향하여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지원부터 해외 진출 관련 전문 컨설팅까지 전 주기적 서비스 제공
 - * '19년 법률·특허·회계·마케팅 등 총 1,853건의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해외 법인설립 12건, 해외 사업계약·제휴 42건, 해외 투자유치 2,391억원, 해외특허출원 134건 등 성과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해외 액셀러레이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ICT분야 스타트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 '19년 더인벤션랩, 블록크래프터스, 빅뱅엔젤스 등 6개 액셀러레이터를 선정·지원하여 총 48개 창업 초기기업의 창업·성장·글로벌 진출을 지원
-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ICT 분야 창의·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 * '19년 32개의 혁신 아이디어 총 1개 신규창업, 28개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 IR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통해 40억원 규모 투자유치 달성

□ 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 전시·수출상담회, 스타트업 IR,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융복합 해외마케팅 행사(K-Global@)를 통해 국내 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우수 사례 및 기술력을 홍보하여 해외진출 판로 확보 및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
 - '19년 미국 실리콘밸리(9월), 중국 베이징(11월) 등 2개 지역에서 K-Global@ 행사 개최(국내기업 72개사, 총 955건 수출상담)

□ ICT 혁신기업 멘토링 서비스 지원

- (ICT 혁신기업 멘토링 지원) 성공·실패 경험을 가진 CEO멘토단의 1:1전담 멘토링, 실전창업교육, 투자역량강화, 선도기업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ICT 분야 초기창업기업 및 재도전, 예비창업자 창업성공을 제고
 - 2019전담멘티 240개사(창업초기기업 142개사, 성장기업 98개사) 대상 3,917건, 오픈멘토링(일반창업자 1,797개사/명) 대상 3,066건 등 총 6,983건의 멘토링 서비스 제공
 - '19년 투자 유치 140건(393.1억 원), 자금유치 291건, 특허 출원·등록 274건, 법인 설립 38건, 고용증대 576명 등 성과창출

□ 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수출지원 성과) 국내 우수 SW·ICT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준비도 제고, 네트워크 확충,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확대 등 해외 진출 전 단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약 49억 원('19년 기준) 규모의 수출지원 성과 창출
 - (수출 준비도 제고) 해외 목표시장에 부합하는 SW 사용자 환경·기능·언어 등의 현지화 및 국내 SW·ICT 기업의 수출마케팅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현지 환경의 언어·문화 분석을 토대로 목표 시장에 맞는 사용자환경 개선, 메뉴얼 제작 등 수출형 SW 현지화 지원(8개 과제)
 - 목표시장 진출전략 수립, 현지 잠재고객 발굴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해외 진출 가능성 제고(국가별 5개 기업, 총 20개 기업)
 - (네트워크 확충) 해외 기술협력 컨퍼런스 개최
 - 미국과 중국에서 ICT·SW분야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첨단기술 교류를 통한 국내기업 현지 진출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 * ('19년 기준) 미국 300여명, 중국 250여명 컨퍼런스 참여

-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확대) 4차산업·SW신산업 분야 해외 시범사업 구축을 통한 수주지원 및 인도, 베트남 거점기반 현지시장 진입지원
 - 해외 시범사업·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구축, 운영 및 평가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레퍼런스 확보 지원
 - 해외거점(인도 벵갈루루,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등)을 기반으로 국내 SW 수출 기업의 현지 시장 안착 및 매출 확대 지원

□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 5G VR·AR 플래그십 프로젝트(계속·신규 7건*·5G 11건**), 산업거점고도화(KoVAC·지역센터 10개소), VR·AR·MR 기업성장(17개사), 5G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등 5G 상용화에 따른 융합콘텐츠 발굴·육성
 - * 해양·건설·복지의료 산업분야(3건) 및 국방·여가·건설(4건) 융합콘텐츠
 - ** 5G 실감미디어(2건), 실감커뮤니케이션(2건), 실감라이프(2건), 융합인더스트리(2건), 공공서비스(3건) 등 11건 발굴
- 5G 기반 고화질·대용량 실감형 AR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아시아 최대 블류스튜디오 인프라(스튜디오·렌더팜·저장장치) 구축('20년부터 운영)
- (지역 VR·AR제작거점 지원센터 10개소) 지역특화산업 연계 VR·AR 융합 콘텐츠 제작(실증)지원을 통해 융합콘텐츠 발굴(75건), 지역기업육성(100개사), 고용창출(245명), 매출향상(114억원)
- VR·AR 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한 KVRF(Korea VR Festival) 2019 개최(기업유치 132개사 344개 부스 참여, 방문수 31,433명) 및 지역과학관 전시·홍보(광주·부산·대전·대구 4개 지역과학관, 32개사 76개 부스 전시, 20,064명 관람)

□ 지역SW산업진흥지원

- (지역SW기업성장지원) 지역 맞춤형 중소SW기업 인력양성, 마케팅, 기술 지원, 네트워크 등 성장 지원(32.50억 원)
 - * 지역SW기업 255개사 지원, 매출 3,801억원, 신규고용 776명, 인증 69건, 특허 131건, 프로그램등록 50건 등

- (지역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에 SW 기술을 적용하여 SW제품의 상용화·국산화·사업화 지원(86.18억원)
 - * 73개 기업지원, 과제관련 매출 147억원, 신규고용 288명, 인증 52건, 특허 81건, 프로그램등록 146건 등
- (신규) 기술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한 서비스개발 및 적용이 가능한 SW융합신서비스개발 사용화 과제 중점지원(41개 과제)
- (계속)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전략산업과 SW융합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수요에 기반 SW특화분야상용화 과제지원(5개 과제)
- (지역SW품질역량강화) SW품질역량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내 중소SW기업 및 관련 프로젝트의 테스트, 컨설팅,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12.68억 원)
 - * SW품질 컨설팅 278건, 테스트 507건, 인증 111건, SW품질 전문교육 1,330명 등

□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지원

- (기술개발) 조선해양 분야 ICT융합 기반기술 및 대·중·소 상생형 응용기술 개발 지원('19년 152.02억 원)
 - (기반기술개발) 조선해양 IoT·빅데이터 기반기술 및 SW개발자 환경 기반 기술 개발 지원(2개 과제)
 - (응용기술개발) Ship/Shipyard/Service 분야에 ICT융합을 적용한 응용기술 개발 지원(22개 과제)
 - * 신규고용 10.7명/10억당(목표 8명/10억당), 좋은 일자리 창출(정규직비율) 90.2%(목표 80%), 사업화 성공률 29.2%(목표 25%), SCT(E) 논문 14건, 특허등록 22건(출원 44건) 등
- (기반조성) 조선해양ICT융합센터 완공('19.11월) 및 ICT·SW 품질·성능 검증 인프라 구축·운영 등 조선해양 ICT융합 클러스터 기반 조성('19년 13.73억 원)
 - * 조선해양ICT융합센터 공정률 100%(목표100%), 시설장비가동률 45%(목표40%) 등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화 수준 향상 지원

-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1,606개사)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242개) 제공(19년 기준)
 - 기업 업종별(제조업, 정보통신업 분야 등) 적합한 클라우드를 추천·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관리 및 보안성 강화 지원(27억 원)

□ ICT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정보통신융용기술개발지원)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ICT 중소기업에 ICT 및 ICT 기반 융·복합 분야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 지원(53개 과제, 255억원)
- (ICT혁신기업기술개발지원)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ICT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통한 ICT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신기술 기반의 협업형 융·복합 혁신기술개발지원(1단계 40개, 2단계 18개 과제, 110억원)
 -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1단계(사전기획 3개월), 2단계(기술개발 18개월) 단계 별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20년도에는 신규로 특허 전문 컨설팅을 일괄 실시하여 수행기관의 사업화 전략 고도화 지원예정
-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ICT핵심기술을 빠른 시간내에 쏠산업 분야에 확산하여 정부예산 투자효율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도모(31개 과제, 118.4억원 지원)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 및 5G, AI 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 : ① 스마트시티 ② 스마트공장 ③ 스마트 팜, ④ 핀테크 ⑤ 에너지산업 ⑥ 드론 ⑦ 바이오헬스 ⑧ 미래자동차

□ 정보보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국내 정보보호업체 제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환경 제공·기술 자문
 - 5G환경에 맞게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고성능 시험환경을 구축을 통한 장비현대화* 및 실습 교육(4회) 수행
 - * 성능계측 장비 5식, 스위치 10식, 라우터 1식, 정보보호제품 6식(방화벽, UTM 등), 서버 17식, 트래픽분 석장비 2식 등 총 41식 도입
 - 테스트베드 이용(152개사), 이용업체 대상 기술자문(667건), 시스템운영교육(5회)
- 해외경험이 부족한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5대 해외 진출 전략거점 및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수출지원(21社, 223.47억원 수출), 스타트업 해외진출(인니/미국 역량강화 프로그램, 상담회) 개최, F/S(3건), 파트너십프로그램(16개국 36명 초청) 진행
 - 해외 5대 전략거점을 통해 현지 사업 및 기업의 진출수요 발굴, 30개국 정보보호 시장동향 및 권역별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
 - * 해외 사업수요 발굴(40社, 179.08억원) 수출지원
- 통합·융합보안 제품 협업개발 지원(5개 과제) 및 정보보호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9개 기업, 24명 지원)
-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선발하여 글로벌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시큐리티 스타트업 R&D 지원(계속과제 5개, 신규과제 5개, 총20억원)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콘텐츠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센터 확장이전을 통한 중소게임기업 육성 및 게임제작, 유통, 수출 지원 강화
 - 예비창업팀(30개) 및 중소게임기업(50개) 대상 게임개발 공간 제공 및 게임 테스트베드·소프트웨어·교육·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 전략시장 및 취약시장* 게임전시회 한국공동관 참가 등 국내게임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한 기업 간 상담기회 제공
 - * 차이나조이(8월), 게임스컴(8월), 동경게임쇼(9월), 슈피엘(10월)
 - 국산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해외 직접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인프라, 상담, 운영(GM) 및 결제 관리, 마케팅, 번역 지원
 - * 온라인게임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지원(16개), 모바일게임 글로벌 유통 지원(30)
- (온라인·모바일 게임 및 첨단 융복합 게임콘텐츠 지원)
 - 온라인·모바일 게임 및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 융복합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인디게임 개발 지원,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 등
 - *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23개),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제작지원(25개),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10개), 첨단 융·복합 게임산업 경쟁력 분석 연구 등
- (애니메이션)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TV시리즈, 극장용 등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 지원, 주요 해외전시시장 참가 등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
 - * TV방송용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32편)과 독립애니메이션 지원(11편), 확장성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7편) 등을 통해 한국 애니메이션의 다양성 확대 노력
 - ** 키즈스크린 서밋, 밍티비, 밍주니어·밍컴 등 해외 주요 애니메이션 시장 한국공동관 운영 및 홍보 지원(95개사 지원), 아시아 국가 간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애니메이션 서밋' 참가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
 -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우수 콘텐츠 발굴·제작지원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제작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 우수 다큐, 드라마(중단편, 연속물) 제작지원(다큐12편, 중단편드라마3편, 연속물드라마2편)
 - ** 방송영상 방송형식(포맷) 육성 지원(방송형식(포맷) 시범프로그램 9편, 방송형식(포맷) 기획안 5편, 방송형식(포맷) 견본프로그램 4편)
 - *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웹드라마, 융합형콘텐츠 등 21개 과제)
 - * 실버문화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교양, 다큐 등 6편)
 - 해외 유력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 또는 한국공동관 운영(8개 시장/ 122개 방송기업 지원), 국내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BCM/5월, 벅스코, BCWW/9월, 코엑스) 등을 통한 중소 방송영상업체 콘텐츠 1:1 투자 상담, 마케팅 등 수출 촉진 지원
 - 수출용·방송콘텐츠 대상 번역, 음성편집(더빙), 종합편집 등 현지화 재제작 지원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81개 작품)
- (문화기술 R&D 지원) 문화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확대 및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 콘텐츠산업 현장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19년 18건 지원)
 - 기업 간 교류협력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교류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콘텐츠(C)와 기술(T) 기업을 위한 오픈특강, 컨설팅, 네트워킹 각 2회 개최
 - 해외전시 지원을 통한 문화기술 해외진출 확대 및 문화기술 R&D 해외시장 판로 촉진을 위해 문화기술 한국공동관 운영
 - * GDC 2019(게임개발자콘퍼런스, '19. 3. 20. ~ 3. 22.) : 상담건수 253건, 상담금액 \$28,300,000
 - * CIITF 2019(중국하이테크페어, '19. 11. 13 ~ 11. 17.) : 상담건수 187건, 상담금액 \$24,683,500

□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 콘텐츠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신규 1,968억 원) 조성 및 완성보증(신규 1,295억 원), 이차보전(이자지원 대출규모 590억 원) 제도 운용을 통한 콘텐츠 제작 자금 조달 확대

- 다양성(독립, 예술 등) 영화제작사 자생력 강화 지원
 - 독립·예술영화 등 제작지원(총 80편 / 60억 원)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을 통해 독립·예술영화 상영기회 확대 및 관객의 다양성문화 접근 증진(독립·예술영화전용관 30개 내외)
 - 개봉예정인 저예산영화의 상영·배급 지원(30편 내외)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 (관광기업 발굴·지원) 혁신적 관광기업을 발굴,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 및 교육·컨설팅, 국내외 홍보·판로개척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2회) 등을 통한 관광벤처기업 발굴(218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 평균 약 2,000만원, 차등 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24회), 관광특화 역량강화 교육 실시(10회), 국내외 홍보·판로 개척 지원(43건)
 - 관광기업지원센터 관광기업 입주지원(41개) 및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5개 프로젝트) 등 안정적인 기업성장 및 협업 환경 조성
- (투자 활성화 지원) 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관광벤처 특별융자, 클라우드 펀딩 등 투·융자 지원
 -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운용('15~'19년 총 1,190억 원, 기금 680억 원 포함), 관광벤처사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19년 20억 원 규모 내)
 - * 제1호 펀드('15년 결성): 총 220억(관광기금 130억, 민간 90억), 제2호 펀드('16년 결성): 총 200억(관광기금 100억, 민간 100억), 제3호 펀드('17년 결성): 총 270억(관광기금 150억, 민간 120억), 제4호 펀드('19.2월): 총 280억(관광기금 170억, 민간 110억), 제5호 펀드('19년 결성): 총 220억(관광기금 130억, 민간 90억),
 - 관광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펀딩 활용·자금 확보 지원(펀딩설계, 콘텐츠 제작·펀딩 수수료 등), 투자자문위원회 개최(4회) 등 후속 투자유치 지원

□ 국내 유망 중소 스포츠기업체 경쟁력 강화

- 스포츠용품 인증 획득 지속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용품 인증 '18년 실적 71건('18년 59건 대비 20.0% 상승)

** 해외 전시회(4회) 참가업체 평균 상담액 314만불, 총 상담액 1,225만불(39개 업체)

-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및 고부가가치 용품 개발을 위한 중소 스포츠업체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

* ('15년) 41개 업체 137억 원 → ('16년) 51개 업체 315억 원 → ('17년) 95개 업체 383억 원 → ('18년) 52개 업체 416억 원 → ('19년) 129개 업체 560억 원

** '생활스포츠 서비스',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 서비스' 등 총 12여개 과제 49억 원 지원

제5장

농림축산식품부

□ 기능성식품산업육성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 연구 지원 및 산업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 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동물시험 및 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임상시험) 40품목,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등록 컨설팅 지원 10품목
 - * 지원규모('19) : 28억 원(국고보조 50~60%, 자부담 40~50%)
 - 기능성 농식품자원 실태조사, 통합DB 구축으로 체계적 산업육성 지원

□ 식품외식종합자금

- 식품가공 업체에 대해 식품의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 국산 원료 매입에 필요한 원료매입에 필요한 자금 등 융자 지원
 - 지원규모('19) : 1,450억원(노후시설 현대화 91억원, 가공원료매입 1,049억원, 외식업체 육성 100억원,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지원 210억원)
 - * 시설자금(연 2~3%, 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연 2.5~3.0%, 2년 상환)

□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식품기업의 식품 위생·안전 및 품질개선 등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 온·오프라인 전용판매관 구축 및 대한민국식품대전 등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 지원규모('19) : 30억 원(식품품질·위생 역량제고 10억원,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10억원, 대한민국식품대전 10억원)
 -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자부담 40~50%),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대한민국식품대전 90%

- 국산원료를 사용하여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종균 보급 등 기술지원*,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 지원규모('19) : 84억 원

* 전통장류, 종균활용 등을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한 소스산업화센터 건립(2.5억원),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20억원),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건립(6억원)

□ 사료산업종합지원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실시하여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사료 원료구매 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융자 지원

- 사업규모('19) : 533억 원(사료원료구매자금 513억원, 시설개보수자금 20억원)

* 지원조건 : 원료자금 융자 80%(2년 거치 일시상환, 3%), 시설자금 융자 70%(3년거치 7년상환)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을 융자로 지원

- 지원규모('19) : 3,386억원(원료구매지원 3,338억원, 수출시설현대화 48억원)

* 지원조건 : 원료자금 융자 80%(고정금리 (2.5~3%)·변동금리 중 택일, 1년 상환), 시설현대화 융자 80%(고정금리 (2~3%)·변동금리 중 택일,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산물전문생산 단지’, 품목별 전문판매조직인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 및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물류비·안전성검사·검역·통관·보험·브랜드 홍보 등 맞춤형 지원 추진

- 지원규모('19) : 725억 원(생산기반 구축 38억원, 판매조직육성 48억원,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 635억원, 농식품수출마우처지원 4억원)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확대

- (맞춤지원) 단계별 서비스 차별화, 연계 강화로 수출 성장사다리 제공
 - * 수출초보기업(신규수출기업화)→수출유망기업(지사화사업)→수출강소기업(월드챔프)
- (지사화사업) 기관별 분산되어 있던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규모 확대**
 - * (진입) 기초마케팅지원 등 → (발전) 신규거래선 발굴 등 → (확장) 수출 및 현지화지원 등
 - ** ('16) 3,273개사 → ('17) 5,198개사 → ('18) 4,828개사 → ('19) 5,017개사
- (해외전시회) 수출 다변화를 위해 신흥시장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조선 등 위기산업 전시회 지원 강화
 - * 신흥시장 진출 지원(비율) : ('18) 55회(45.8%) → ('19) 59회(53.6%)
 - ** 자동차·조선 분야 지원(비율) : ('18) 7건(5.8%) → ('19) 10건(9.1%)
- (수출바우처) 바우처를 부여받은 기업이 지원사업 메뉴판*에서 필요한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자유롭게 수출 마케팅 서비스 이용
 - * '19년(11월) 기준, 1,294개사 6,363개 서비스로 메뉴판 구성
- (월드챔프) Pre/Post 월드챔프를 도입해 전후방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수출 시장 확보 추진
 - * 기업 중심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한국형 하든챔피언 육성('19년 총 251개사 지원)
- (전자상거래) 글로벌 온라인 대표 플랫폼과 유동 준주기형(기업발굴-위젯-마케팅-물류) 수출지원 프로그램 추진
 - * '19년 주요 유통망 : Amazon, Taobao(중국), Rakuten(일본), Qoo10(싱가포르), QVC(독일) 등

- (글로벌 파트너링) GP 상담회 등 중소기업·부품기업 글로벌 맨류체인 진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수출계약 305건(5억불) 달성
 - * GP 상담회 개최 : 종합 6회, 산업별 전문상담회 26회('18년 26회 → '19년 32회)
 - ** 거점 무역관 확대 : ('18) 47 → ('19) 48개소(추가 거점무역관 : 자카르타)
- (무역보험) '19년 중소기업에 대해 56.2조원(중소 35.7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
 - * 중소기업 지원실적(조원) : ('17)47.9 → ('18)52.0(중소 32.2) → ('19)56.2(중소 35.7)
- (FTA 활용) FTA활용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 제고
 - * FTA 활용지원 컨설팅 건수 : ('18) 4,800개사 → ('19) 4,800개사
 - ** 중소기업 FTA 수출활용률 : ('18) 60% → ('19) 60.3%
- (원산지관리)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편의성 개선 및 무료 보급 확대
 - * 원산지관리시스템 무료 보급 건수 : ('18) 35,215개사 → ('19) 41,727개사
- (해외센터) 신남방지역인 인도·필리핀에 해외FTA활용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진출기업 지원 및 바이어 대상 홍보 강화
 - * ('18) 6개국 13개 센터 운영 → ('19) 인도, 필리핀 2개소 신설/ 7개국 15개 센터 운영

□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

- (기술 사업화) 공공연구 등의 최신 R&D, 기업의 수요기술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공급기술-수요기술간 온·오프라인 연계 매칭 지원
 - 혁신기술 보유 우수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자금 등 기술금융을 통한 사업화 지원 확대
 - * '19년 산업기술금융 종합지원(GIFTS) 2호: 운용사 선정(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19.11월) → 1,000억원 지원('20년 상반기 결정완료 및 투자개시)(투자 1,000억원)

-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접점에 있는 테크노파크(TP)와 민간기술거래 기관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 기술이전 지원건수 : ('16) 955건 → ('17) 985건 → ('18) 1,015건 → ('19) 1,184건
- 대기업·공공연구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실시
 - * 기술나눔 추진실적 : ('16) 342건 → ('17) 177건 → ('18) 327건 → ('19) 취합 중
- 신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 *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예산 : ('17) 450억원 → ('18) 420억원 → ('19) 380억원
- 중소·중견기업의 우수기술 확보 채널 다각화를 위해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 가공·홍보하고 최신 기술시장 동향 정보 제공** 확대
 - * NTB 등록기술 가공 및 제공건수(누적) : ('17) 2,000건 → ('18) 3,000건 → ('19) 4,000건
 - ** 등록기술의 이전 여부 및 연구자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편(계속) 특허청, 중기공, 신단공 협력 통한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 제공 추진
- (R&D 국제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확대 지원
 - * 신규과제 지원 : ('15) 36개 → ('16) 54개 → ('17) 48개 → ('18) 57개 → ('19) 51개
- 유레카(EUREKA)* 등 글로벌 R&D 프로그램 참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 * 독일, 프랑스 등 범유럽 기술강국 45개국(한국 포함)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R&D 네트워크
 - ** '19년 유레카를 포함한 다자공동연구에 16개 신규과제 지원
- 민간 중심 국제협력 지원을 위해 ①공공연구소 내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 센터 구축*, ②글로벌 기술협력 지원단(K-TAG)** 확대
 - * '18년 구축된 3개 센터(한자연(자동차), 전품연(반도체/디스플레이), ETRI(ICT융합))에 추가하여 첨단소재 분야(섬유연)를 '19년 지정, 총4개 센터 운영
 - ** 유럽·美·日 거주 한인공학자 네트워크로 국제공동R&D 타당성조사 지원 역할 수행('18년 421명→'19년 461명)

□ 업종별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 (반도체) 성능평가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지원
 - 반도체 등 제조공정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의 성능평가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사업('19년 추경, 350억원)
 - 설계 전문교육 및 현장형 실습을 통한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지속 ('19년 59억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인력양성 사업* 신설
 -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19년 24억원)
- (디스플레이) AR·VR, 차량용 등 異種 산업간 융복합 신시장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확대 지원
 - *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시장활성화 지원사업' ('16~'19, '19년 45억원)
 - 중소·중견기업에 부품·장비 관련 석사급 우수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속 추진('19년 18억원)
 - 對中 수출 확대를 위한 로드쇼, 무역상담회, 한·중 산업 교류회 추진
 - * 수출로드쇼·무역상담회 및 한·중 디스플레이 산업교류회(3, 6, 10월) 등
- (뿌리산업) 주력·신산업 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뿌리기술 R&D 과제 지원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신규 예타 사업 예산 반영
 - * '19년 182억원, 35개 과제(계속 25개, 신규 11개) 지원,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기술개발 예타 통과('19.6월) 및 예산 반영('20년 139억원)
 - 뿌리 스마트융합 특성화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특성화 대학원을 선정·지원하고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통한 우수 외국인력 배출(118명)
 - * 대학원 '19년 19.4억원,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7개교 운영
 -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4개)하고 특화단지에 공동활용 시설 및 혁신활동 (기술 고도화 등) 지원('19, 63억원, 10개)

- (디자인·엔지니어링)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활용(21개사) 및 중소기업의 생산 서비스 활용(12개사) 지원
 - 지역(대구·울산·익산) 중소기업의 제품 제조 전주기에 걸친 설계 엔지니어링 관련 SW·장비 활용 및 기술 지원(지역별 각 6억원)
-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계획 자율성 확대(품목지정형 과제) 및 실증연구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신재생 R&D예산 964억원 지원*
 - * '19년 전체 예산 2,191억원 대비 44% ('18년 예산 860억원 대비 104억 상향 지원)

□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절약 지원

-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용자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은 금리 우대('19년 2,800억원)
 - *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율 : ('17년) 98.6% → ('18년) 98.7% → ('19년) 99.0%
 - ** 분기별 변동금리(최저 1.50~1.75%), 3년거치 5년상환 수준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대상시설(84개 항목)에 지원
- (에너지진단) 중소기업에 에너지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19년, 9.73억원)
 - 에너지사용량 연 2천toe~1만toe 중소기업에 진단비용·30% 지원
 - * 150개사에 6.04억원 지원하여, 연 34천toe의 에너지절감 잠재량 도출
 - 공동제조공정 활용·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진단비용의 70% 지원
 - * 5개 뿌리기업 진단결과 50.2toe 에너지절감 잠재량 도출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수출) 세계일류상품*, 수출도약기업 및 월드챔프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촉진

* 세계일류상품 : ('18년) 784개 품목, 876개 기업 → ('19년) 817개 품목, 917개 기업

** 수출도약기업(142개), 월드챔프기업(256개) 등

- (R&D) 월드클래스 300* 사업과 중소기업 공동 R&D**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R&D, 수출 등 패키지 지원('19년 1,018억원)

** 9개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 공동 R&D 지원('19년 8억원)

- (인력) 중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캠퍼스 스카우트**, 핵심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기업간 미스매칭 해소 지원

*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19.5), Leading Korea, Job festival('19.11)

** 유망 기업이 지방 대학을 직접 찾아가서 채용 설명회 개최 (총 6회)

*** 청년 석·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19년 9.9억원)

- (성장디딤돌) '중소→중견'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세제·고용 등 12개 성장걸림돌 과제 개선 완료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 육아휴직 후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공제기간 확대 등

제7장

보건복지부

□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분야 실용화 성과 창출

- 신약, 재생의료 및 의료기기 등 미래유망 보건의료분야에 전년대비 12% 증가한 458억 원의 중소기업 R&D 투자
 - ※ 첨단의료기술개발(281억 원, 43개 기업), 의료기기기술개발(103억 원, 28개 기업), 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74억 원, 15개 기업) 등 86개 기업 지원
- 신약 해외기술이전, 의료기기 품목허가 및 감염병 진단기기 인증·품목허가 등 보건의료분야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개발 성과 창출

표 III-7-1-1 | 2019년도 실용화 성과

(단위 : 건)

계	신약 해외기술이전*	의료기기 품목허가**	감염병 진단기기 인증·품목허가***
30	4	17	9

* (주)알테오젠 피하주사 원천기술(ALT-B4) 최대 1조 6,190억원 기술이전('19.11) 등

** (주)리브스메드 반도체레이저수술기('19.9), (주)이노테라피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19.10) 등

*** (주)수젠텍, 사회적 약자 대상(노약자 등) 저비용·고민감도 결핵 진단키트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 획득('19.7) 등

□ 보건산업분야 특화 창업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운영

- 보건산업분야의 사업화 유망 R&D부터 인허가, 창업, 판로개척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 강화(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18.3월 개소)
 - ※ '19년 추진실적 : 사업화 유망 창업기업 379개사 관리하여, 1,407건의 전문가 상담 진행, 100건의 사업화 컨설팅 지원 및 창업 3년이내 기업 32개사 선정하여 보육공간 제공

○ 보건산업분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19년 추진실적 : 정기 투자설명회(IR) 7회 운영으로 43개사 발표로 332억원 유치

※ '19년 추진실적 : 우수기술(R&D 성과물) 보유 창업기업에 정부와 민간투자기관(VC)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신설('20년, 10개 내외 기업, 22.3억원)

□ 개방형 실험실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로 창업지원

○ 병원의 우수한 역량 및 인프라 활용을 통한 창업, 기술실용화 활성화 및 병원중심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 '19년 추진실적 : 개방형실험실(고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아주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전남대병원)에서 총 61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병원내 개방형 장비활용 등 지원

※ '19년 추진실적 : 지역 클러스터-병원연계(김해의생명센터, 대전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총 82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클러스터내 시설 장비 지원 및 병원 연계

○ 대한정형외과 등 전문의학회별 통한 창업기업-임상의사 간 교류

※ '19년 추진실적 : 안과 등 7개 학회, 89개 창업기업이 참여하여 임상 의사와 기술·임상 등 자문(142건)

제8장 | 환경부

□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82억원)

-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중소기업장에 대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1,661대)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4.99억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제고토록 계획(6개 업체)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194억원)

- 굴뚝 TMS 부착 사업장 중 중소기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정도관리비, 유지관리비 중 일부를 국비, 지방비로 지원

※ 112개소 설치비 지원, 42개소 운영관리비 지원

□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18억원)

- 중소기업 중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291개소)에 대해 악취저감기술 지원 실시

□ HAPs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3.5억원)

-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76개소 컨설팅)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기술지원(17.7억원)**

- 유증기회수설비 운영 주유소의 운영 방법 및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부적합률, 유증기 배출량 저감(178개 컨설팅)

□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277억원)**

- 환경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패키지화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화 과제(62개) 지원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111억원)**

- 단기간 시장 활성화 및 현장적용이 시급한 분야의 중소기업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사업화 기술개발 과제(26개) 지원

□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17억원)**

- 자연재난(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환경시설의 파괴, 기능정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로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관리 기술 개발 지원(6개)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42억원)**

- 기존 매립·소각·해양매출을 대체하여 발생폐자원을 처리와 동시에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실증시스템 기술개발(3개) 과제 지원

□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56억원)**

- 국가적 환경문제로 대두된 폐플라스틱 및 폐유리병의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단기에 효과적 관리가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15개) 지원

□ 화학사고대응기술개발(36.2억원)

-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발생 대비 VR/AR기반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사고처리 후 폐기물 처리차량 개발 등 계속(6개) 과제 지원

□ 환경개선자금 지원(48억원)

- 기업의 환경투자 촉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총 620억 원 규모, 이차보전)
 - 국내 폐기물처리와 관련, 민간 소각장, 매립장 시설 융자지원

□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34억원)

- 환경산업 성장기반 마련 및 글로벌 국가산업으로 육성 지원을 위하여 중소 환경산업체의 시설개선,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총 455억 원 규모, 이차보전)
 - 중소 환경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위하여 마케팅·홍보 자금 지원범위 확대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1,284억원)

- 중소 재활용업체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장기·저리 자금 대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의 자원화 활성화 및 자원순환 산업체계 구축 촉진
 - 영세재활용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편성 지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111억원)**

- 중소기업 사업화 기반구축·개발촉진·투자유치 사업 지원(48억원)
 - 기반구축(컨설팅 등) 12개사, 개발촉진(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등) 23개사, 투자유치 46개사 지원
-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63억원)
 -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혁신설비 제작·설치 지원(13개 과제)

□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79억원)**

- 국내 유망 환경기술을 해외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실증화사업화를 위한 국제공동사업 지원(23개 과제, 40억 원)
- 성장 잠재력이 높은 환경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추진(13개 기업, 26억 원)
-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12개 과제, 13억 원)

□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총 111억원)**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 제공, 기존 유해성정보 일제조사·제공, 등록 전과정 지원 등 실시

제9장

고용노동부

□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 재학단계 일학습병행 확대를 통한 청년층 노동시장 조기입직 지원
 - ('19년) 7,512개소에서, 38,522명 훈련 참여
- 低지원 低규제 방식 민간자율 일학습병행 실시
 - ('19년) 대한상의모델 606명, 한독상의모델 240명 훈련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운영

- (인증부여) 능력 중심 인재 채용·관리, 재직 근로자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
 -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고용지원금제도 신청시 가점, 명역특례업체 선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 '19년 80개 기업(중소기업 65) 참여, 57개 기업 인증(중소기업 44)
- (참여기업 지원) 인증기관에 HRD 담당자 연수(54명)를 실시하고, 인증 탈락 기관 중 희망기업에 대해 맞춤형 HRD컨설팅(3개 기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확대

-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19년) 2,002천명, 329,791백만원 지원(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 ('19) 209개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198,149명* 훈련 실시

* 대중소상생형, 전략분야 및 지역산업맞춤형 훈련인원 포함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양성·공급,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지원
 - ('19년) 69개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 52백명, 재직 근로자 425백명 등 477백명 직업훈련 실시

□ 우수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우수숙련기술인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수립
 -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수립('12년)에 이어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수립('18.3월)
 - * 우수숙련기술인의 선정분야를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종으로 확대, 국내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및 국제기능 올림픽 경쟁력 향상 방안 등
- 오랜 경험과 고 숙련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을 선정, 중소기업·특성화고 대상 기술전수 및 기업자문(HRD 등) 역할 수행
 - * '19년 지원실적: 중소기업 1,363개소, 특성화고 436개교
- 직업계고, 전문대 등 졸업한 중소기업 CEO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 및 지원(충양일간지 기획보고, 수기집 제작 등)
 - * '19년말까지 총 154명 선정(매달 1명씩)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등 3자가 기여하는 자산형성 사업
 - 임금상한액(월500만원), 최소 근무시간(주 30시간 이상) 규정 등 제도개선 시행
 - * '19년말 청년 98,572명, 기업 41,255개소(누적 청년 250,361명, 기업 72,071개소) 가입
 - ** 만기공제금: (2년형) 1,600만원 = 청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3년형) 3,000만원 = 청년 600만원 + 정부1,800만원 + 기업 600만원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지원

*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건강, 가족, 스트레스 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심리적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

- 300인 미만 기업 및 소속 노동자 대상 12개 분야 온·오프라인 무료 사회·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단위 : 건)

구 분	합계	직무스트레스	조직내갈등	업무과다	건강관리	정서성격	자녀양육부관계	재무관리	법률관계	학업정보	경력개발	양성등	직장내괴롭힘
온라인	1,040	252	118	2	8	253	116	18	123	1	9	7	133
오프라인	12,936	4,945	1,097	113	57	3,685	1,782	689	19	57	245	39	208

□ 고용위기 대응 지역고용촉진 활성화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군산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등 7개 지역

** 137개 사업장, 775명에 대해 6,536백만원 지원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83만개소, 344만명)

*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도·소매, 숙박·음식점, 제조업종'을 주로 지원

→ 10인 미만이 전체 지원사업장의 90%, 도·소매, 숙박·음식점, 제조업이 60% 차지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유지 지원

- (고용장려금) 고용기회 확대, 고용안정 프로그램 운영, 고용유지조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실시한 기업에 장려금 지원

- (고용창출) 취약계층 및 청년 추가고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일자리함께 하기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 지원(253,222명)

- (고용안정)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전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일가정양립 환경 개선, 정규직 전환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지원('19년 44,145명)
- (고용유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31,064명)
- (환경개선) 여성·고령자·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근로시간 단축 등에 소요되는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용자(39개소)

□ 중소기업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 (컨설팅 지원) 중소·영세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전문 컨설팅 2,132건 지원
 - * 근로시간단축·평생학습체계 구축·작업조직/환경 개선·임금 평가제도 개선 등 9개 분야
- (교육 지원) 장시간근로 개선, 임금·평가체계 개선 등 일터혁신 주요 분야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지원을 위한 교육 제공(956명)
 - 중소기업 CEO 대상 혁신 마인드, 경영기법, 사례 등 코칭 지원(45개소)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 대상 요건 확대 <통합>

- (신중년 고용창출) 신중년의 어려운 고용 상황을 반영,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직무를 213개(기존 71개)로 확대하고 지원 강화**
 - *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1년간 지원)
 - ** ('18) 1,159명, 4,067백만원 → ('19) 2,932명, 15,301백만원
- (육아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지원금을 월 30만원(기존 20만원)으로 인상
 - * ('18) 3,820명, 15,663백만원 → ('19) 5,660명, 21,095백만원

□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합>

- (인건비) 사회적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 '19년 7,653명, 72,436백만원 지원
- (사업개발비)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기술개발 및 R&D,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 '19년 811개소, 18,901백만원 지원
- (판로지원) 일반소비자·공공기관 등이 편리하게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별 맞춤형 정보제공
 - * ('19) 888개사, 17,540개 상품, 1,162백만원 매출(www.sepp.go.kr)

□ 중소기업 유해·위험 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중소기업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보조 및 용자 지원
 -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733억원, 7,627개소), ▲산재예방시설 용자 (1,067억원, 662개소)
-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 건강진단 비용 지원
 -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179억원, 50,387개소), ▲특수 건강진단 비용 지원(198억원, 274,794명)

□ 중소기업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및 성과 창출

- 시험장비 및 자금여력이 열악한 중소기업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에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제품의 방호장치·보호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기여
 -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구매 지원금액은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다음 한도 내에서 지원
 - 연구개발자금: 최대 5,000만원/ 시험장비 구매자금: 최대 2,000만원
 - * '19년 지원실적: 350백만원·12개사
 - ** '19년 연구개발 자금지원 효과: 특허출원 2건(보호구 분야 1건 출원 완료, 방호장치 분야 1건 진행 중)

제10장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R&D)

-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9개 업체, 48.1억 원)
 -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통해 우수 기술이전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위험요소 최소화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19개 업체, 101.27억 원)
 -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을 시장 수요 및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신기술 인증 확보 등 지원
-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14개 업체, 49.75억 원)
 - 재난안전, 취약주택, 교통시설물 등 국토교통분야 국민의 생활안전을 담보하는 요소기술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연구 지원
- 서비스 R&D 융합기술 사업화(7개 업체, 37.89억 원)
 - 기존 R&D 시제품 성과에 추가하여 ICT 기반의 유지관리 등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 사업화 확대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해외건설시장 수주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53개사에 전담전문가 파견 컨설팅 96회 지원 등(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운영, 93백만원)
 - * 그 외 전문가 상담지원(17건), 전문가 자문위원 간담회, 해외건설 중소기업 진출지원 설명회(2회) 운영
- 리스크 부담이 큰 신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수주교섭 및 타당성조사 비용 등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57억원)
 - * 프로젝트 입안구상, 금융조달 방안 수립, 경제작기술적 타당성 등 사업성 분석 및 발주 예정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사전조사, 발주처 면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중소기업 물류효율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물류효율화) 중소기업의 물류체계 진단을 통해 개선안 수립 등 물류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제3자물류 컨설팅) 제3자 물류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물류진단, 개선안 수립 등 컨설팅 지원('19, 19개사)
 - (공동물류) 중소기업 간 운송, 보관 등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해 공동화 사업모델, 경제성 등 컨설팅 지원('19, 10개사)
- (해외진출) 물류·화학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하려는 경우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대한상의)를 통해 비용·등을 지원('18, 5건)
 - 글로벌 물류체계 진단·분석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현지동향, 노무·법률 등의 현지정보도 수집·제공(worldlogis.net)
 - *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최대 50% 수준(4천만원 내외)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

□ 친환경물류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다각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를 확대하여 친환경물류 활동 확산
 - * '18. 260개사 → '19. 295개사, 35개사 추가
- 물류·화학 기업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장착 보조금 지원(2,980백만원, 사업비의 30~50%)
 - *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에어스포일러 등 5개 사업에 대해 75개 기업 선정 및 지원
-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우수한 물류·화학기업 21개사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관리, 친환경물류 활동 확산 도모
 - * '19년도 정기점검대상 15개사 점검결과 15개사 유지

제11장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분야 중소기업의 창업·투자 활성화 지원

- 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1개소 추가)* 운영으로 예비창업자·유망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창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
 - *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운영 : ('18) 5개소(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 → ('19) +충남
 - ** 신규 일자리 창출 : ('18) 1,095명 → ('19) 1,338명(22.2% 증가)
- 수산모테펀드 70억원을 출자하고, 일반펀드 2개 운용사 선정하여 총 350억원 규모 결성하여 수산경영체 활성화 도모
- 해양모테펀드를 신규 조성(2개 자펀드, 295억원)하고,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26개사), 투자박람회('19.10) 등을 통해 약 110억원 투자 유치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대상 지원사업 추진('19년 19억원),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실시 등 기술기반 창업지원 기반 마련
 - * 액셀러레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7개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발굴, 맞춤형 보육 실시,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200개 팀 참가(10개 팀 수상)
- 해양수산분야 유망 창업아이템 발굴을 위한 「2019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개최·시상 및 홍보지원·창업프로그램 연계 등 후속지원 추진
- 대통령 경제투어를 계기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수립·발표('19.10) 하여, 해양신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추진력 확보

□ 해양수산 사업화 R&D 지원

- 산업계의 기술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실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미래해양기술개발) 해양 분야 미래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계 요구 기술, 아이디어의 기술개발 지원(11개 계속과제, 45억원)
 - (해양중소벤처지원) 해양 분야 단기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중소벤처 기업의 실용화 기술 개발 과제 지원(15개 계속과제, 34억원)
 -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해양수산 R&D 성과를 토대로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 지원(13개 계속과제, 38억원)
 - (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11개 신규과제, 23억원)
 -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개발된 유망 기술 및 제품의 시장검증 등을 지원 하여 사업화 촉진(9개 신규과제, 20억원)
- 해양수산분야 대표적인 실용화 사업으로 해양기업체의 경쟁력 제고, 해양 산업계 고용창출 확대 기여 등 해양수산 산업 육성
 - '19년 사업화 매출 성과는 49억원 이상 발생하였으며, 해양수산 중소·벤처 기업 62명 신규 고용창출

□ 해양장비 및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전

- (해양장비) 해양공간이용 극대화 및 해양탐사, 해양자원개발 등을 위한 첨단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4차산업 관련 해양 IoT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 대형요트 건조기술 개발, 해양플랜트 운영·서비스 R&D 등(9개 과제, 327.3억원)

-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기반 조성을 위한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 등 해양에너지원별 핵심기술 개발 및 실험장(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4개 과제, 183억원)
- 도서지역 적용 조류발전시스템 개발('19~'21, 54억원) 및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신규 추진('19~'22, 96억원)

□ 수산분야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참여 확대

- 수산업의 혁신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 참여 확대* 및 수산업을 견인할 핵심 기술 확보

* '18년 중소기업 참여 과제 / 금액 : 21개 과제 / 155억원

□ 수산물 수매자금 지원 수혜대상 확대 여건 마련

- 수산물 수매자금 용자를 통하여 수산물 유통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수매 활동 등 지원

* ('17년) 652억원 → ('18년) 652억원 → ('19년) 587억원

- 또한, 기존 대출업체에 유리하게 마련되어 있는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업체의 원활한 참여 여건 마련

* 평가기준 개선('19.下)→ '20.1.1 시행/ (내용) 평가항목 내 가점에 최근 1년간 자금 미사용자 추가

□ 고부가가치 新수산식품 연구개발 본격 추진

- 수산식품 기술개발 R&D를 지원*하고,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간편식·건강식 등 다양한 형태의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R&D) 예산 : ('16) 42 → ('17) 51 → ('18) 72 → ('19) 40억원

** 명란 김스낵, 고등어 간장구이, 연어 햄박스테이크, 한상 재첩국·바지락국 등 제품화 14건

□ 중소 가공·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 용자지원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수출하는 중소기업에 원료의 구매·저장, 가공, 수출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
 - 국내 수산물의 가격안정, 수출업계의 경영안정 및 수출 활성화 도모로 역대 최고 수산물 수출실적 달성

* '19년 지원업체 / 금액 : 118개사/ 1,243억 원

** '19년 수산물 수출실적 : 25.1억불 (전년 23.8억불 대비 5.7% 증가)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 지원

- 고비용·저효율의 연근해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공간 확보와 운영 비용절감 등을 고려한 안전복지형 표준선형 어선 개발·보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 및 중소조선 산업 활로 제공

* '19년 연안 1종(자망) 근해 2종(채낚기, 통발) 표준선형 개발 및 시제선 건조 49.5억원 지원

** 연안복합 시제선 성능 검증시 유류비 절감률 12.1% 달성으로 목표(7%) 대비 173% 초과 달성

제12장

방송통신위원회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방송광고의 어려움을 겪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송출비를 할인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 (방송광고 제작지원)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광고 43개사, 라디오광고 32개사 등 총 75개사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19년)
 - * TV광고 50%(최대 5천만 원), 라디오광고 70%(최대 3.5백만 원) 지원('19년 총 22억 원 지원)
-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 인력과 지식이 없는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 대상기업 중 총 32개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중소기업의 광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송광고 송출비의 최대 70%를 할인하여 '19년 총 257개 중소기업에 대해 990억 원의 송출비 할인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방송사와 협업으로 실시
 - * '17년 232개사(452억원) → '18년 258개사(690억원) → '19년 257개사(990억원)
- (지원효과) '19년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 효과평가 결과 제작지원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20.9%, 직원 수는 평균 27.7%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

□ 중소기업의 위치정보 관련 사업화 지원

-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스타트업 생애주기를 고려한 우수 기업 확대 발굴 및 맞춤형 사업화 지원(3월~12월, '18년 12개 → '19년 20개로 확대)
 - '2019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을 통해 총 129개가 접수되었고, 서류·발표 심사를 통해 총 20개 우수 기업 선정(5~8월)
 - 선정된 우수 기업에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출원, 투자 유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해외 판로 등 후속 사업화 지원 추진(8~12월)
 - * 사업화 성과 : 사업 신고완료(3), 특허출원·등록(17건), MoU(19건), 투자유치(5건) 등
- (맞춤형 컨설팅) 중소·영세 위치정보 사업자가 겪는 법·제도, 기술, 경영 분야별 예외사항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 컨설팅 지원(5~12월)
 - * 맞춤형 컨설팅 수혜 기업 전년대비 107% 증가(67건→72건)
-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암호화,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완비된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및 API 제공, 사업성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1~12월)
 - * 위치정보 관련 API(내비게이션, 지도 등) 5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UI/UX 컨설팅 3건, 테스터 지원 2건 지원을 통한 서비스 개발 지원
 - * 시스템 운영을 위해 모의해킹 1회,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1회,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1회

제13장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소 식품업체의 안전관리인증(HACCP) 지원 강화

- HACCP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55.49억원)
 - 시설 개선 후 HACCP 인증 시 최대 2천만원의 50% 지원
 - * 지원대상 : 소규모(5억원 미만 또는 21명 미만) 식품 및 축산물(HACCP 의무대상에 한함)
- 식품 및 축산물 HACCP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현장 맞춤형 기술상담
 - HACCP 인증 전·후 기술지원 : ('19) 5,537개소
- 소규모 영업장 위해예방관리계획 확대 및 적용지원
 - 신규 영업등록 및 간편식 등 비인증 업체 적용·지원

□ 중소·벤처기업 등 첨단 의료제품 제품화 지원 강화

- 의약품(화학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한 '팜나비 사업' 운영 강화
 - * 주요 실적('19, 누적) : (국산 신약 개발) 38품목, (국산 개량신약 개발) 109품목
 - ** 제품화 지원 품목(누적) : ('15) 5건 → ('19) 26건
- 벤처/입상시험기관/제약기업 등 대상·개발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정보제공
 - * 주요 실적('19): (교육/워크숍) 7회, (정보제공) 국내외 의약품 개발동향 등 제공 6건
- 국내 신약 개발지원을 위한 업체별 개별지원 설명회 개최
 - * 7개 업체, 13개 품목에 대한 신약의 개발현황 소개 및 애로사항 청취
 - ** 개발예정품목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 및 개발단계별 애로사항 사전 컨설팅

○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을 위한 '마중물 사업' 운영 확대

* 제품화 지원 품목(19) : 바이오시밀러 등 유전자재조합의약품 10품목, 첨단바이오의약품 6품목

- 실용화 인박 제품에 대한 '맞춤형 상담' 운영(27회)

- 바이오의약품 개발자 교육(8회), 개발초기 상담 강화를 위한 '규제과학 상담의 날' 운영(143건)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 관련 지침 발간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밀착 지원 강화

○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사업' 등 운영 확대

- 융복합 신개발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을 위한 5개 '범부처 기관간 업무 협약'으로 업무협력 지속 운영

* 과기부(한국연구재단), 산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기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업무협약 체결 갱신(17.7)

- '허가도우미' 운영으로 신개발의료기기 등 집중지원업체 관리

* 총 109개 제품 지원, 허가도우미를 통한 품목허가 31건(세계 최초 특수재질골절합용나사, 국내 최초 로봇수술기 등)

-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으로 전주기 밀착 지원

* 총 94개 제품 지원,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품목허가 11건(세계 최초 골연령측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국내 최초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 심전계 등)

-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운영으로 정보제공 확대

* 해외수출국 정보, 인허가절차, 특허정보 및 1:1 맞춤형 정보 제공(신흥수출유망국 등 19개국)

제14장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업체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제재하기 위해 부당특약 유형별 사례를 제시한 부당특약 고시 제정(부당특약 고시 제정, '19.6월)
-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사유* 추가(하도급법 개정 '19.11월)

* 하도급업체의 책임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업종, 애니메이션 제작업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종 등 3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이 제정하고, 그 외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건설자재업, 전기공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

□ 가맹점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 걸쳐 경영여건 개선

- 창업 시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확인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19.11월)

- 운영 시 점주 비용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차액가맹금에서 로열티로 변화 유도
 -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를 위해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현황 등을 기재 하도록 고시개정('19.2월)
 - 로열티 방식으로 수취기준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 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19.5월)
- 폐업 시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가맹점 폐점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19.1월)

*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

□ 대리점 권익 제고와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여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 실시('19.9월)
 -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업종의 공급업자대리점을 대상으로 시행
- 표준대리점계약서 확대 보급을 통해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
 - 식음료, 의류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완개정하고('19.6월),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19.7월, 12월)

제15장

금융위원회

□ 창업 생태계 조성 추진

○ 투자 중심의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 더 많은 창업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

* ('16) 115건, 174억원 조달 → ('19) 199건, 370억원 조달(112% 증가)

-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19.1월 시행)

- 소규모 음식점이나 이·비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자(최근 2년간 5회/1,500만원 이상 투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투자한도를 확대**('19.1월)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허용

** 적격투자자 : 일반투자자 대비 투자한도가 2배 확대(연간 기업당 500만원, 누적 1,000만원 → 기업당 1,000만원, 누적 2,000만원)

○ 창업실패 시 위험 부담 경감

- 신·기보, 중진공, 신복위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창업 및 신보의 재도전지원*' 사업 활성화

* 「재창업 및 신보의 재도전지원」 사업 : 재기신청자 정책금융기관 채무 최대 75% 감면,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및 신규 자금지원

- '19년 재창업 지원을 포함한 재기지원 신규자금 보증공급은 '18년 신보 공급(약 250억원)의 1.1배 수준인 268억원으로 확대

- '18년 재창업 지원을 포함한 재기지원 신규자금 보증공급은 '17년 신보 공급(약 166억원)의 1.5배 수준인 250억원으로 확대

□ 창업기업 도약 및 성장지원

-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 성장사다리펀드 및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회수펀드인 세컨더리펀드(1조원)를 조성
 - * 성장사다리펀드 3,151억원, 성장지원펀드 6,866억원
- 정책금융 역할 강화
 -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등 총 47.0조원(신보)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대해 신보 보증 확대*
 - * 신보 보증(조원) : ('17) 11.4 → ('18) 11.9(0.5 ↑) → ('19) 12.8(0.9 ↑)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유망기업 지원 강화
 - 기술금융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19년까지 대출 146.3조원 공급(누적)
 - * '16년 58.4조원 → '17년 84조원 → '18년 112.2조원 → '19년 146.3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19.1월)
 -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5~10억원) 1.4% (연매출 10~30억원) 1.6%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19.1월)
 - '19.1.1일부터 6.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19.9월)
 - 카드수수료 개편결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효과*(19.2월) 및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19.9월) 발표
 - *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연매출액 30억~500억원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 '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21.1만개에 대해 714억원의 카드수수료 환급

제16장 국 세 청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 (납세유예)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
 - 자금용동 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 5천만원 → 7천만원('19.9.3. 시행)
 - ** 납기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유예 : ('16) 455천건 → ('17) 429천건 → ('18) 327천건 → ('19) 389천건
- (납세자소통 강화) 납세자의 세무상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납세자소통팀이 전국의 산업단지·집단지·전통시장 등 총 22회의 경제현장을 방문
 - * 산업단지 11회, 전통시장, 7회, 기타 4회
- (영세납세자지원단 활성화) 영세·중소기업 등의 성장지원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뉘세무·회계사를 통한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적극 실시
 -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27,581건 창업자 멘토링 8,329건 폐업자 멘토링 4,241건 찾아가는 서비스 1,981건
-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홍보 실시
 -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통한 설명회(17회) 개최, 상담·홍보(213회) 실시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19천부) 발간·배포

□ 납세자 수요 중심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확대

- (도움자료 제공) 홈텍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통합정보*와 내·외부 과세정보 등을 분석한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

* 납세자 개별분석 + 종합분석(부가을 추이 등) + 공통안내(유의사항, 세법개정 등)

- (간편신고 지원) 모바일 안내문¹⁾ 도입, 모두채움²⁾·미리채움³⁾ 서비스 확대 및 간편신고⁴⁾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고편의 향상

- 1) CI(연계정보)를 통해 우편(서면)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전송하여 적시성 확보
- 2) 소규모 임대사업자(부가), 복수사업장 사업자(소득) 등에 모든 신고 항목 작성, 제공
- 3) 수출실적명세서(부가), 납세자 특성별 인적 공제 자동 분류(소득) 등 추가
- 4)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문답형신고(부가), 종교인소득 전용화면·예상세액비교(소득)

- (신고환경 조성) 신용카드 매출·내입자료 제공주기·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홈텍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

* (주기) 분기 → 매월, (기한) 분기말 다음달 15일 → 매월 다음달 12일

- (중소기업을 위한 책자 발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제·감면 혜택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제도」 책자 발간

□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정기 조사선정 제외
- (간편조사 실시)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간편조사 및 소규모 사업자 사무실조사 지속 실시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내역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한 종사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내역을 모바일로 조회 가능
-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세정협력 강화)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주요국 국세청과 우호관계*를 구축,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전달 및 세정지원 요청
 - * 인도, 태국, 폴란드, 헝가리 등과 청장급 회의 12회 개최
- (성실납세 지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세무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세정 관련 책자 발간
 - * 세무설명회(미국, 중국 등 총 14회) 및 기업간담회(중국, 일본 등 총 25회) 총 39회 실시
- (현지 세무환경 개선) 외국 국세청 직원 역량 교육을 통해 현지 세무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

□ 국내진출 외국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소통강화 노력) 외국상공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령 개정, 세정문화 등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논의
 - * 서울재팬클럽 세무간담회('19.3월) 개최 및 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19.10월)·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19.12월)에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국세청 의견 제출

제17장 | 관 세 청

□ FTA 활용 종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지원

- (수출지원 조직정비) 수출지원 종합대책 추진단 구성(3월, 34개 세관, 170명), 30개 지역 329개 기관(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지원단 구축(5월)
-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총 7,705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여 2,916社 신규 수출(38%), 1,429社 FTA 시장 신규진입 성공(249억원 관세절감)

※ 인증수출자 신규취득(4,427社), FTA-PASS 구축(3,079社), FTA 전문자격 취득(178명) 지원

< 2019년 FTA 활용지원 사업별 성과 >

(단위 : 기업수)

구 분	YES FTA 컨설팅	찾아가는 YES FTA센터	수출 지원팀	YES FTA 전문교육	FTA-PASS 보급	계
지원기업 수	695	1,352	233	2,346 *	3,079	7,705
신규 수출	226	431	64	876	1,319	2,916
FTA신규활용	312	150	25	214	728	1,429
관세절감효과	21억원	38억원	14억원	65억원	60억원	198억원

* '19년 전문교육 총 558회 실시, 2,346社, 6,644명에게 교육제공

- (EODES* 확대) '16.12월 중국과의 EODES 전면시행 이후, 아세안** 및 인도 등 新남방국가로의 EODES 구축 확대 추진 본격화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 (인도-인나-베트남) EODES 구축 실무협상 진행중, (기타국) EODES 구축 제안 및 협의중

□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통관애로(FTA 활용애로) 해소 지원

- (FTA 활용애로* 해소) 新남방·新북방 정책에 따라 우리기업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아세안 등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통관애로 집중 해소

* FTA 활용애로('19년) : [접수] 126건, [해소율] 92.8%, [수출기업 비용절감] 572억원

- (해소 지원활동) 동관규제 다발국가와 ①청장회의 개최, ②인도에 관세관 신규 파견(5월) 및 ③통관제도 설명회 개최(4회), ④현지기동팀 파견(2회)
 - ① 인니, 카작, 러시아, 몽골 / ② 교역량 11위(무역흑자 5위), 大韓 수입규제 2위로 열악, 한국기업 450社 진출 / ③ 국내개최 2회(8월, 서울부산), 해외개최 2회(러시아, 베트남) / ④ 통관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통관 원스톱 지원팀의 인도(1월), 러시아(3월) 파견
- (국제분쟁 해소) HS 국제분쟁대응팀 신설(3월), HS 국제분쟁 지원 안내리플릿 배포, 관세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국제분쟁 적기 해소* 지원
 - * 중소기업 IIS통관애로 해소(5건, 13.5억 원), IIS국제분쟁 분류의견 채택(3건, 43.7억 원)
- (정보제공·홍보) 해외 관세동향과 현지정보 위주의 정보지와 핸드북* 제작·배포 및 주요국 통관환경 연구 책자 발간(12월)
 - * 수입규제 정보지 분기별 배포(3·6·9·12월, 2,500부), 인도 관세 핸드북 발간(7월)

□ 중소기업 AEO공인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전개

- (공인기업 확대) 중소기업 대상 AEO제도·효과 홍보 및 금융지원* 제공으로 중소기업 AEO 공인업체수 ('18) 211개 → ('19) 216개로 증가
 - * 시중은행과 MOU로 AEO 공인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에 저리용자(0.5~1.5%p) 제공
- (유관기관 협업) 공기업(지자체)*, 민간(상생협력기금)**과 협업으로 중소기업에 AEO획득자금이 지원 등 자생적 AEO생태계 조성
 - * 한국서부발전(주)이 거래관계에 있는 26개 중소기업 지원(7.5억, '17~'19)
 - ** 한수원('19.2월) 및 울산광역시('19.5월)와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략적 AEO MRA) 중소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결실익이 큰국가와 新시장국 중심으로 전략적 MRA 체결 및 전면이행 확대
 - * [MRA 전면이행 페루(1월), 터키(3월), 태국(9월) / [MRA 시범운영] 말레이시아(5월) / [MRA 신규체결] 카작(4월), 몽골(9월) / [MRA 액션플랜 체결] 인니(4월), 러시아(6월)
- (AEO MRA 효과) MRA 체결상대국에수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검사비용 축소 등 통관혜택 제공으로 총 1,138억 원대 물류비용 절감효과 발생
 - *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국가(21개국)와 AEO MRA 체결 / 한국(21國)>중국(13國)>미국(12國)

제18장

조달청

□ 조달사업 조기집행 등 경제 활성화 지원

- 역대 최대 조달계약 및 나라장터 거래 실적 달성
 - * 조달계약 : ('18) 39.0조원 → ('19) 45.8조원 / 나라장터 : ('18) 89.8조원 → ('19) 102.8조원
- 사업계획의 60% 이상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경기활력 지원
 - * '19년 조달사업 상반기 집행액 : 24.7조원(상반기 집행계획의 61.8%, 전년대비 12.2% ↑)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시장 판로 지원

- 조달사업 중소기업 지원실적 증가('18년 28.9조원 → '19년 33.4조원)
-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G-PAS(S28)기업 적극 확대
 - * 지정기업 수 : ('13) 95개 → ('14) 200개 → ('16) 341개 → ('18) 538개 → ('19) 663개
 - 수출실적(S) : ('13) 1.3억 → ('14) 2.2억 → ('16) 4.6억 → ('18) 7.3억 → ('19) 7.5억

□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기반 조성

-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 거래실적 증가('18년 128억원 → '19년 490억원)
 - * '19.12월말 기준 4,092개 상품 벤처나라 등록
 - OECD가 뽑은 우리나라 정부혁신 10대 우수사례로 선정('19.8월)
- 혁신시제품 구매 및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 성과 창출
 - * '19년 최초 도입한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에 66개 제품 지정 및 35개 기관 테스트 참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계사업에서 드론 등 2개사 6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공급

28)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업체

□ 공정·상생의 조달사업 운영

- 국민생활·안전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 * 불공정 조달행위 493개사 적발, 245억원 부당이득 환수 결정('17.2월 조사부서 신설이후)
-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로 고용우수기업의 실적 증가
 - * 고용우수기업 MAS 2단계 선정실적 : ('18) 2,582건 5,905억원 → ('19) 8,300건 1조4,021억원
- 시스템 편의 개선 등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대폭 확대
 - * 하도급지킴이 지급실적 : ('17) 9.9조원 → ('18) 17.0조원 → ('19) 27.6조원
-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로 포용적 공공조달시장 조성
 - * 사회적기업 조달실적 : ('17) 1,342억원 → ('18) 1,612억원 → ('19) 2,161억원

제19장 병 무 청

□ 전문연구인력 최대 지원으로 R&D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연구기관 선정 기회 확대로 R&D인력 유입 촉진
 - * 상하반기 연 2회 신청·선정, '19년 350개 연구소 선정
 - ** 중소기업연구소 병역지정업체 현황 : ('17)1,406 → ('18)1,545 → ('19)1,571개
- 전문연구요원 배정·편입인원 확대로 우수 인재 육성기반 조성
 - * 배정인원 : ('17) 855 → ('18) 892 → ('19) 900명
 - ** 편입인원 : ('17) 754 → ('18) 868 → ('19) 886명

□ 산업기능요원 배정으로 중소기업 성장 및 청년일자리 지원

- 특성화고 위주 제도운영, 기능인력 양성 및 고졸 취업 문화 확산 기여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3,624명 우선 배정(현역 배정인원 90.6%)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로 제조·생산분야 인력난 해소
 - 신규 병역지정업체 조기 선정으로 수요 확대(11월 →10월)
 -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전수조사, 채용·취업 정보 집중 제공
- 유관기관 협업 채용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구인구직 매칭 지원
 - 지방중기청·고용청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총 30회)
 - 업체별 채용계획 파악, 「병역일터29」포털 활용·게시(총 1,996개)

표 III-19-1-1 | '19년 중소기업 배정/편입인원

(단위: 명)

배정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	배정	편입	%	배정	편입	%
13,900	11,379	81.9	900	886	98.4	13,000	10,490	80.7

29)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산업기능요원 취업지원 포털사이트(work.mma.go.kr)

제20장

방위사업청

□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 정책수요자를 확대(방산업체 중심 → 국방참여업체, 벤처 및 신규희망업체 포함) 하여 기업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 (방산업체 및 국방참여업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 역량 강화,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부품국산화 및 방산수출 지원
 - (벤처 및 신규희망업체) 방위사업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진입 장벽 완화 및 창의적 아이디어의 Spin-on 지원
- 국방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육성을 위해 '진입 → 성장 및 도약 → 경영안정'의 단계별 지원사업 구축

□ 중소기업 대상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 '19년 핵심부품 국산화 12개 신규과제(개발지원금 58.3억 원)를 선정·지원, 개발 성공 시 약 979.7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 기대
 - * 주관기업 선정 : ('18년) 10개사 → ('19년) 12개사
 - ** 선행특허 침해여부,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개발업체의 지재권 및 개발관리 역량강화 컨설팅 병행
- '13~'19년 총 7개 성공과제로부터 총 179.5억 원 매출이 발생하여 중소기업은 판로 확보, 군은 무기체계 조달·운용에의 리스크* 최소화 달성
 - * 수입제품 단종, 해외정부 수출허가 정책에 따른 반출 불허 등
- 중소기업에 정부조달 수입부품 목록정보 제공 실시('19년 기준 총 80,823품목)

□ 국방벤처기업 및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국방벤처 협약 기업*을 지속 확대하고, 방위산업 정보제공 및 판로개척 지원

* ('18년) 299개사 → ('19년 말) 380개사

표 III-20-1-1 |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현황('19.12월 기준)

센터	설립	협약기업 수	센터	설립	협약기업 수
서울(시류소)	'03.09.(~'19)	25	광주	'13.12.	44
부산	'08.12.	48	구미	'14.03.	54
경남	'09.09.	52	전남	'15.09.	39
전북	'09.09.	32	울산	'19.08.	15
대전	'11.11.	52	충남	'19.09.	19

- 국방벤처기업을 위한 개발비 및 마케팅 지원

- '18년 선정 계속과제(14개) 및 '19년 신규과제(19개)에 개발비 59.3억 원 지원

* 일반과제는 과제별 2년간 최대 3억원, 혁신기술과제는 3년간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가능

- '20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기술소개, 책자 제작·배포, 2019 SEOUL ADEX 등 국방관련 전시 참여, 주관기업 기술·제품 홍보(3회, 31개사) 등 판로개척 지원

- 우수 국방벤처기업 간담회('19.12, 125명)를 통해 기업 보유기술 홍보 및 체계 기업 상담회 실시, 유사 기술분야 협약기업 간 사업교류 및 협력 추진

- '19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선정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협약 체결

- 풍부한 기술개발 경험과 수출가능성, 향후 국내 소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방산중소기업*을 발굴

* '19년 : (주)한국컴포짓(무인정 탑재용 유선드론 및 드론 이착륙 통제시스템 개발)

- 기술개발 성공 시 시장개척 지원을 위한 추가협약(최대 2년) 규정 마련

* 수출마케팅 및 시장개척을 위하여 연도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우수 중소기업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 개발계획의 타당성, 수출시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산 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과제 신규선정
 - * '19년 기뢰부설장치 개조개발, 중동 수출형 K2전차 주요장치 개조개발(컨소시엄) 등 20개 과제 선정
-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벤처기업 인증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가점항목을 추가·신설하는 규정 마련
 -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19.7.)
- 성공/진행과제 대상 수출간담회 등을 통해 청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글로벌 방산업체와 경쟁하여 수출성공사례 도출 추진 중

□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 핵심기술·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연구개발 주관기업 또는 시제품 생산 업체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품목 확대
 - * 제도시행(10년) 이후, 무기체계 단위 또는 부품 단위의 총 47개 우선선정 품목 지정·운영
- 국방분야 R&D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 성공한 부품을 우선선정 품목 후보군으로 마련하여 품목 발굴·지정을 활성화

□ 중소기업 이차보전 용자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용자 지원 확대
 - 국방 신규 진입기업 대상 군수품 매출비중 확인기간을 단축(최근 5년간→3년) 하고,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군수기업의 무기체계 연구개발도 용자지원
 - 고용창출 인원이 증가한 국방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0.1% 금리 우대 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용자지원 추진
- * (18년) 740억원 용자추천 → (19년) 992억원 용자추천(56개사 대상)

-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집목 등 기술·경영·행정·법률 분야 컨설팅
 - '19년 51개사 컨설팅 지원하여, 군납 또는 체계업체와 계약(27건), 기술개발 과제 참여(10건), 국방·항공품질인증 추진 등의 다양한 성과 도출
- * 컨설팅 예산/지원기업 수 : ('18년) 54백만원/ 44개사 → ('19년) 60백만원/ 51개사

□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 강화

- 방산 중소기업 Needs에 맞춘 수출정보를 여러 기관에 발품 팔 필요 없이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
 -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 기관별출처별로 산재된 방산수출정보를 방산수출 기업에 One-stop으로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www.d4b.go.kr)
-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필요정보 조사 후,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개척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외 방산 시장 동향 및 해외입찰정보 제공(주 단위로 신규정보 업데이트)
 -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해외방산시장 심층분석보고서 작성·공유
 - * 분석대상국: 인도, 말련, 미국, 영국 / 수록내용: 국가별 획득전망, 수출가능품목, 현지 방산업체-에이전트 등
 - 믿을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와의 수출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래를 희망하는 해외에이전트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사·제공 중
- 복잡한 방산수출허가 관련 규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국방기술보호 컨설팅 실시
 - * 전반기 : 37개 업체, 132명 인원 대상 실시 / 하반기 : 45개 업체, 110명 인원 대상 실시
- UAE IDEX 등 중소기업관 9회, 코트디부아르 Shield Africa 등 해외전시회 및 서울 ADEX·부산 MADEX 등 국내전시회 참가 100개 기업에 국고 보조금 지원

제21장

농촌진흥청

□ 농업인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 (기반조성)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가공·생산·상품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활력화 도모
 - 사업규모('19)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33개소, 16.5억원)
 - * 창업 사업자 연간 소득 증가율 30.6% : ('18) 32.7백만원 → ('19) 42.7백만원
- (창업보육)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컨설팅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보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가공역량 향상 교육(11회 439명) 및 기술자문단 운영(6분야 30명)
 - 단계별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농업인 창업지원 및 경영활성화
- (시설지원) HACCP 의무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위생수준 향상 지원
 - 사업규모가 영세(1억 미만)한 가공시설 개선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장 운영의 영속성 유지 및 가공제품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 * 시범사업장 매출액 증대 : 19.4%('18년 72.6백만원→ '19년 86.7백만원)
- (상품개발) 국내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 및 지적재산권 확보
 - 시제품개발 482건, 상품화 지원 333건, 특허·상표 등 지적재산권 확보 32건

□ 농가형 가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마케팅 기술 지원

- (판매지원) 농업경영체 유통·마케팅 역량강화 및 온·오프라인 판로확보
 - 사업규모('19) :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 기술지원(10개소, 13억 원)
 - 담당공무원 및 사업참여 경영체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7회, 212명)
 - 민간기업, 정부기관 등과 연계한 가공식품 품평회를 통한 판매지원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활용 교육 및 입점판매(5~12월, 68경영체, 단기매출 188백만원)
 - ** 위메프 등 유통기업 초청 품평회 및 입점판매(4~12월, 81경영체, 단기매출 138백만원)
- (성과홍보) 우수사례·성과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 기여
 - 농식품부 연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 및 시상(8개소)
 - * 경진대회 부문: 농식품부(인증사업자), 농진청(미인증사업자), 우수사례집 제작('19.12월)
 - 농협·민간기업 등과 협업 확대를 통한 우수성과 홍보 및 확산
 - * 농협 MOU과제(가공제품 홍보·판매지원) 협력, 언론홍보 48회(TV, 신문, 농업전문지 등)

제22장

특 허 청

□ (IP-R&D 전략지원)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 중소기업의 R&D 현장에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기업 맞춤형 전략 지원
 - 210개 지원기업 중 182개* 기업에 대해 IP 획득전략 1,003건, 장벽특허 무력화전략 792건, R&D 방향제시전략 843건 등 총 2,997건의 전략도출

* '19년 210개 과제 중 공동 IP-R&D형(14개), 디자인 중심 과제(14과제) 제외

※ 지원현황 : ('17) 185개(129.5억원) → ('18) 210개(147.3억원) → ('19) 210개(147.3억원)

□ (IP-R&D 전략지원)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지원

-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히트 상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품 중심으로 특허, 디자인, 브랜드 융합 전략 및 제품-서비스 융합 전략 제시
 - 특허·제품 및 UX/UI디자인 융합개발 전략 206건,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개발 전략 300건, 특허 전략 374건 제시

※ 지원현황 : ('17) 43개 (43억원) → ('18) 43개(45.5억원)→ ('19) 43개(45.5억원)

□ (IP-R&D 전략지원) IP-R&D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 IP-R&D 방법론 확산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여가부 등과 협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무 중심의 IP-R&D 교육 확대
 - 3개 새일센터*와 MOU 체결, IP-R&D 전략 전문가 교육 실시로 교육수료 51명 중 35명 취업

* 서울과기새일센터, 성남새일센터, 남부새일센터 이상 3곳

- IP-R&D 여름방학캠프를 통한 이공계생 취업지원, 캠프수료 19명 중 2명 취업
- 'IP-R&D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온라인 3125명, 오프라인 637명 수료)
- 지식재산 혁신기업협의회 중심 IP-R&D 자율적 연구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확산 강화 및 IP-R&D 전략 실무 매뉴얼 제작·보급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강화

- (지식재산 금융)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IP 가치평가를 통한 보증·대출·투자 등 7,168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
 - * 투·융자 연계 금융지원 금액(억원): ('16) 3,035 → ('17) 3,679 → ('18) 4,537 → ('19) 7,168
- 특허관리전문회사,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및 IP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2,200억 원 규모의 IP 투자펀드 조성
 -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조성금액(억원) : ('16) 1,100 → ('17) 480 → ('18) 994 → ('19) 2,200
- 민간 중심으로 IP 가치평가기관을 확대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선의의 평가 품질 경쟁체제를 구축
 - * IP 가치평가 기관(개) : ('16) 13(민간 3) → ('17) 15(민간 5) → ('18) 18(민간 7) → ('19) 20(민간 9)
- 금융위와 함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18. 12) 발표·추진
-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특허거래전문관을 증원(9→17명)하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매칭하여 권역·분야별 IP 거래·이전 지원
 - * 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한 IP 유상거래(건) : ('16) 219 → ('17) 364 → ('18) 438 → ('19) 513
 - ** IP 활용 네트워크: ('16) 사물인터넷, 해양바이오 등 6개 → ('17) 이동통신, 전기·화학 등 8개 → ('18) 사물인터넷 등 10개 → ('19) 스마트공장, 기능성 섬유 등 12개
- 중소기업중앙회·ID사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 분야별 특허풀 구축
 - * 중소기업중앙회와 ID社간 특허풀 활용을 위한 MOU 체결('16.7)

-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품질 및 기술적 난제를 단기간·저비용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확대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과제(개) : ('16) 53 → ('17) 59 → ('18) 77 → ('19) 81

-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IP를 제품단위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민간에서 사업화하도록 이전

*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과제(개) : ('16) 20 → ('17) 24 → ('18) 35 → ('19) 18

□ 지역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IP 나래 프로그램) 창업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IP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IP전략 지원

* 지원 기업수(社) : ('18) 425 → ('19) 460

** 세부지원 내역(건) : 특허출원 403, 디자인출원 7, 상표출원 29, 해외출원 32건 등(총 517건 지원)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IP 애로사항을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수시 발굴 및 즉시 해소 지원

* 지원 기업수(社) : ('18) 966 → ('19) 1,471

** 세부지원 내역(건) : 특허맵 341, 디자인개발 187, 브랜드개발 350, 특허기술 홍보영상 112, 해외출원 지원 54, 디자인목업 41, 국내·외 IP컨설팅 386 (총 1,471건 지원)

-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3년간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통한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 기업수(社) : ('18) 510 → ('19) 570

** 세부지원 내역(건) : 해외권리화 860, 맞춤형 특허맵 306, 특허기술홍보영상 118, 디자인 목업 31, 브랜드개발 95, 브랜드&디자인 융합 65, 디자인&특허 융합 39, 디자인 개발 197, IP경영진단 41(총 1,752건 지원)

제23장 | 기 상 청

□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운영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10개사, 50백만원 지원)
 - 세계기상기술엑스포(스위스 제네바/6.5~7) 한국관 9개사 전시부스 운영
 - 국제공동현지화 사업 스페인·피지 진출 지원(2개사, 1억 6천만원 지원)
- 「2019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최(9.25~27, 킨텍스, 108개 기업참가/260부스 전시)

□ 기상산업 날씨경영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역량 강화 지원

- 민간 기상기업의 날씨경영 서비스 개발 지원
 - 기상기업 서비스 개발 촉진 및 날씨경영 솔루션 확충을 위한 수요산업 협업기반 맞춤형 날씨경영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 * 기상정보 활용 건설현장 경보시스템, 산업안전 보건시스템 개발
 - 기업내부 시스템 연동 가능한 날씨경영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원
 - * 기상정보활용 도시가스 수요예측 및 방재시스템, 해양레저 지원 등 4개사 시스템 구축
- 우수 날씨경영 솔루션 및 콘텐츠 유통·판매 지원
 - 마켓플레이스 운영 및 네이버 검색광고 등 홍보 강화
 - * 민간기술, 기상청 보유기술 120건 등록 및 솔루션 사업화 추진을 통한 기상솔루션(5건) 신규계약 체결 완료 및 민간 일자리(2명) 창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날씨경영 확산 교육·컨설팅 운영
 - 날씨경영 인식제고 및 우수기업 확대('12년 43개사→'19년 총 254개사(누적))
 - 날씨경영 전략업종 대상 컨설팅·홍보부스 운영 및 수요기업 대상 기초 교육·상담지원(40건)
 - 일자리 연계형 날씨경영 컨설턴트 양성사업 운영 및 청년취업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정규직 2명)
 - 날씨경영우수기업 혜택 강화를 위한 기업 직접 홍보지원(9개사, 18백만원)

□ 기상기후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
 - 기상기후산업 분야 아이템 발굴 및 시제품 개발 지원(10개팀 지원)
 -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3개팀 지원)
 - * 예비창업팀 사업자 등록 완료(7개사) 및 신규 일자리(31명) 창출
 - ** 지원/창업/일자리(창업률): ('18) 12팀/3팀/14명(25%) → ('19) 13팀/7팀/31명(54%)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 '기획-개발-생산-판로-마케팅'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지원(총 19건)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니즈 반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4회)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협업공간 개선('19.12.)
 - * 예비창업팀 입주 및 창업(1개사), 입주기업 산업재산권(37건) 달성
 - ** 산업재산권 등록: ('18) 24건 → ('19) 31건 / 심화-상시전문 상담: ('18) 95건 → ('19) 96건
-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 전문기관 협약 체결 및 상사·심화 종합전문상담 실시
 - * 기술원 상사상담(68건) 및 전문기관·자문가를 통한 심화상담(28건)

□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지원

- 민간 기상기업 등에서 발굴한 산업융합 및 생활중심 기상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총 38억, 22과제)
 - 농업, 해양,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상융합서비스 솔루션 기술 개발 추진
 - 중소기업 20개 참여, 특허 24건, 저작권 23건, 사업화 13건 등 성과창출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4부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장 기술보증기금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6장 창업진흥원

제7장 한국벤처투자

제8장 중소기업유통센터

제9장 (재)중소기업연구원

제10장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제11장 (주)공영홍소평

제12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13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4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15장 신용보증기금

제16장 금융감독원

제17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8장 중소기업은행

제19장 한국수출입은행

제20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21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22장 한국무역협회

제23장 한국생산성본부

제24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25장 산업연구원

제26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27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제28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29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제30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제31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일반현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인력난 해소 및 청년CEO 육성을 주요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경제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및 맞춤형 수출 지원 강화, 일자리 비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정책자금 융자·출자

정책자금 융자출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2019년 총 15,865개 기업에 43,580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AI, 자율주행기술 등 혁신성장 분야 선별·집중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스마트 제조혁신, 시설투자, 사업전환 등 기존 전통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여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에 기여하였다. 이에 더해, 성장유망기업의 도약을 위한 투융자, P-CBO 등 스케일업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시장 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중심 수평적 상생형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중심 지원으로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였으며,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 및 사회재난(산불, 화재 등)

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선제적 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확대, 재창업 성공지원, 소액 성실상환 연계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였다.

1) 창업기업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 활성화와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8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시작으로 2010년 재창업자금, 2012년 청년 전용창업자금 신설, 2015년 재창업자금은 재도약지원자금으로 변경, 2019년 신시장 진출지원자금에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편입하고,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 주요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대상 일자리 특화자금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였다.

2019년 증진공은 창업기업지원 예산 22,000억원(혁신창업지원자금 14,500억원, 일자리창출촉진자금 4,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억원)을 10,110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표 IV-1-1-1 | 창업기업지원자금 집행실적(2019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혁신창업지원	1,450,000	8,571	2,165,827	6,884	1,450,000
청년전용창업	130,000	2,637	244,556	1,543	130,000
일자리창출촉진	400,000	1,772	567,653	1,652	400,000
개발기술사업화	350,000	1,720	513,439	1,574	350,000
계	2,200,000	12,063	3,246,919	10,110	2,200,000

2)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은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 개선사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09년에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에 통합하였고, 2014년에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2015년 고성장(가젤형)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기업 지원자금을 신설하였고, 2018년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을 신설하고, 2019년에는 혁신성장유망기업과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V-1-1-2 |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실적(2019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혁신성장유망	710,000	1,343	954,989	1,223	710,000
제조현장스마트화	500,000	510	660,739	473	500,000
계	1,210,000	1,853	1,615,728	1,696	1,210,000

3)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 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부터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회생특례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으며 2016년부터 수출금융을 신시장진출지원 자금으로 이관하였다.

표 IV-1-1-3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2018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일시적경영애로지원	208,000	1,131	280,841	1,041	191,652
재해중소기업		81	21,064	74	16,348
계	208,000	1,212	301,905	1,115	208,000

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은 미래성장가치와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 및 스케일업금융으로 나뉜다.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2012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18개사에 2,00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IV-1-1-4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19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이익공유형 대출	22,000	166	34,332	142	22,000
성장공유형 대출	78,000	105	183,700	62	78,000
스케일업금융	100,000			114	100,000
계	200,000	271	218,032	318	200,000

5) 모태조합 출자

유망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하기 위해 모태조합 자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기관) 참여하고 있으며, 부처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펀드 운용될 수 있도록 계정별로 운영('19년말 기준 16개 계정)하고 있다.

표 IV-1-1-5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지원실적(2019년)

(단위 : 억 원)

구분	중진	청년	엔젤	지방	혁신 모험	문화	특허	영화	과기 정통	보건	관광	스포 츠	환경	교육	도시 재생	해양	계
'05 ~'15	11,101	-	2,090	100	-	4,661	1,600	520	1,100	800	130	200	-	-	-	-	22,302
'16	1,000	-	-	-	-	360	-	100	370	-	100	200	-	-	-	-	2,130
'17	5,000	3,300	-	-	-	530	-	180	200	-	150	70	200	120	-	-	9,750
'18	575	-	-	-	4,000	540	200	100	150	-	170	100	130	150	-	-	6,115
'19	2,400	-	-	-	500	630	100	80	150	-	130	100	280	150	200	200	4,920
계	20,076	3,300	2,090	100	4,500	6,721	1,900	980	1,970	800	680	670	610	420	200	200	45,217

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과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IV-1-1-6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실적(2019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50,000	391	77,572	353	50,000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230,000	1,048	340,331	982	230,000
계	280,000	1,439	417,903	1,335	280,000

7) 재도약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은 실패경영인 및 부실징후 기업 그리고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자금으로 업종전환 및 추가, 사업재편, FTA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무역조정)자금과 실패경영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창업자금,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선제적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중진공은 재도약지원자금 예산 2,600억원(사업전환 1,100억원, 재창업 1,200억원, 구조개선 300억원)을 1,291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표 IV-1-1-7 | 재도약지원자금 지원실적(2019년)

(단위 : 개사, 백만 원)

구 분	예 산	신 청		대 여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자금	110,000	278	144,244	276	110,000
재창업자금	120,000	952	185,994	813	120,000
구조개선전용자금	30,000	232	49,740	202	30,000
계	260,000	1,462	379,978	1,291	260,000

8)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경기침체 지속, 저성장 경제환경 하에서 위기 및 실패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바, 경영에로 극복과 원활한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 창구의 필요성에 의해 2014년 서울 재도전 종합지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18개 소가 운영 중이다. 사전 전문상담, 자금지원, 교육, 사후멘토링, 연계지원 등 재도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동적 창업 분위기 조성을 주도하고 있다.

표 IV-1-1-8 | 재기지원 상담실적(2019년)

(단위 : 건)

일반상담		전문상담		상담방식			
항목	건수	항목	건수	방문	전화	출장	합계
경영애로전반	901	신용회복	196	1,628	1,537	57	3,222
재창업자금	2,324	법률상담	72				
재창업교육	367	개인회생, 파산	180				
구조개선전용자금	390						
재기컨설팅	373	-	-				
세무상담	94	-	-				
기타(타사업연계등)	196	-	-				
소계	4,645	소계	448				

나.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성장단계에 따라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을 추진하여 2,493개사를 지원하였고, 지역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마케팅사업에 1,301개 업체가 참여하여 89백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온라인으로는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GobizKOREA)을 활용하여 2019년까지 중소기업 62,793개사의 250,251개의 상품정보를 DB로 구축하였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쇼핑몰)과 협업하여 한류마케팅을 활용한 해외직접판매를 확대하였고,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전용·국제물류상품을 개발하여 578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였다.

해외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MOU체결(10개국 15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9개국 24명), 현지 매칭상담회 및 세미나(10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행사를 주관, 스타트업 컨퍼런스 및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아세안 창업생태계 기반조성에 기여하였다.

1)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역사절단과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과 해외바이어알선지원, 계약실무, 무역협상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중진공은 해외마케팅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해외전시회 16회, 무역사절단 105회, 수출상담회 4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10회 등 총 135회 사업추진을 통해 1,301개사, 89백만불 수출계약체결을 지원했다.

표 IV-1-1-9 |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상담 및 수출계약 실적(2019년)

(단위 : 개사, 건, 백만 불)

유 형	성 과		대 여		
	횟수	참가기업	상담금액	상담횟수	계약체결액
해외전시회	16	227	550	7,975	14
무역사절단	105	833	2,334	10,809	72
수출상담회	4	118	110	219	3
지역특화마케팅	10	123	38	59	-
계	135	1,301	3,032	19,062	89

2) 수출바우처사업

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등 수출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제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와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수출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아시아하이웨이 3개 사업을 수출바우처사업(내수,초보,유망,성장) 1개 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조과정에 필요한 마케팅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수출단계별로 차등하여 최대 8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메뉴판 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율마케팅을 수행한다.

표 IV-1-1-10 | 수출바우처사업 수출 성과(2019년)

(단위 : 개사, 천 원, 천 불, %)

지원기업수	기업당 평균 지원액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2,493	36,241	1,397,342	26.7

3)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 현지에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을 경감해 주고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스스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이 인차하기 어려운 12~20㎡ 규모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1년차 기준 인차료의 80% 정부지원)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정착 지원,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컨설팅 및 상담, 현지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9년 입주업체의 총 수출실적은 약 6억 9,193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입주업체 성과분석 결과, 입주전년 대비 입주년도 평균 수출액이 4.25% 증가

하여 같은 해 중소기업 평균 수출 증가율인 -4.1% 대비 수출액이 8% 이상 증가되는 등 입주기업의 수출성과가 제고되었다.

표 IV-1-1-11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2019년)

(단위 : 실)

지역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		UAE	인도		카자흐스탄		칠레		태국	미얀마	계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광저우	상하이	시안	충칭	도쿄	호치민	하노이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델리	알마티	산티아고	방콕	양곤					
입주규모	18	22	10	19	15	17	14	22	7	8	15	15	15	10	4	6	14	9	7	9	10	10	10	10	276		

4)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국내·외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용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정보 및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외 47개국 92개 협력 네트워크와 중국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표 IV-1-1-12 | 해외협력기반 실적(2019년)

(단위 : 회)

구분	실적	비고
MOU 체결	15회	인니, 카자흐, 러시아 등 10개국 15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	24명	인도, 네팔, 프랑스 등 9개국 24명 교환
매칭상담회 및 세미나	10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 10회
산업협력사절단	2회	러시아, 네팔 등 2회
정상순방외교 경제사절단 참가	4회	말련, 카자흐, 태국 등 6개국

5)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에서 중기부 수탁으로 추진해 왔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이 2017년도부터 산업부 수탁 '해외지사화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중진공, 코트라, OKTA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컨설팅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민간 컨설팅 기업인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해외지사화 사업의 수행사로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42개국 127개사의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지원부터 협력파트너 발굴, 법률자문, 기술수출, 현지법인 설립, 국제조달시장 진출까지 여러 해외진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1-1-13 |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지원실적(2019년)

(단위 : 건, 천 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기업 수	282	235	475	370	370
수출실적	279	272	902	353	(진행 중)
투자유치	14.01	13.1	3.6	-	(진행 중)
현지법인(지사)설립	17	12	11	7	(진행 중)
기술협력 계약체결	10	6	4	5	(진행 중)

* 사업기간: ('18년) '18.1월~'19.8월 / ('19년) '19.1월~'20.8월

6) 해외기술교류사업

해외기술교류사업은 한국과 신흥국 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해외 현지기업에 수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 직접 사업을 통해, 각국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수요·공급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칭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술교류단의 현지파견 및 사후지원을 통해 기술수출을 촉진한다.

'19년 기술교류 협력 국가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4개국이며, 현지 여건, 기술수요, 정부기관의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협력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중이다. 아울러 협력 국가의 수요기술(바이어) 발굴 강화를 위해 인도 현지의 기술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인도 40여명)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표 IV-1-1-14 | 해외기술교류단 운영실적(2019년)

(단위 : 개사, 건)

국 가	회차	주요 테마산업	한국기업	해외기업	상담	방문	MOU
인도(뉴델리)	1	기계·자동차부품	12	51	51	23	4
태국(방콕)	1	섬유·식품	9	44	44	12	4
	2	IT·기계	15	50	50	17	1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	자동차부품·전기	11	82	82	6	7
카자흐스탄 (알마티)	1	섬유·IT	8	51	51	2	14
합 계			55	278	278	60	40

7) 해외유통망진출지원

해외유통망진출지원사업은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고비즈코리아, GobizKOREA)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홍보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위해 플랫폼 내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검색엔진 마케팅 등 온라인 홍보 지원, 후속마케팅을 통한 계약 성사 증대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 제작하는 한편, 62,793개사 250,251개 상품정보를 DB화하여 국내상품 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간의 해외거래 네트워크망 구축을 지원하였다. 또한, 현지시장 타겟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9개 언어를 기준으로 바이어 맞춤형 정보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온라인수출관을 별도로 구축하여 지역별 맞춤형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해외 집중홍보를 위해 106개사 300개 상품으로 글로벌 스타상품 e-매거진을 발행하여 빅바이어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고비즈코리아 우수회원사 28개사를 선정하여 홍콩메가쇼 해외 전시회 대행 참가를 통해 \$500,000 이상 상담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온라인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과 국내 제품의 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 간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온라인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중소기업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 IV-1-1-15 |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지원실적(2019년)

(단위 : 건, 천 북)

세부사업명	상당건수	수출실적
온라인수출관패키지	807	20,169
검색엔진마케팅	50	2,291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100	594
온라인구매오피사후관리	17,099	30,008
후속마케팅 지원	2,174	58,864
합계	20,230	111,926

8)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은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수출 기업을 육성하고, 온라인전시회, 한국형 왕홍 만들기, 공동물류 등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온라인수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7,368개사 중소벤처기업이 190,659천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해외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사업은 아마존, 쿠팡 등 세계 유명 글로벌 플랫폼(쇼핑몰)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국어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글로벌 쇼핑몰 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쇼핑몰 입점부터 판매, 배송까지 일괄 지원한다.

2019년에는 한류마케팅을 활용하여 한류강세국(동남아, 중국, 북미, 일본)의 대표 온라인쇼핑몰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알리바바그룹 티몰(Tmall)과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 중소벤처기업 정품브랜드관(IM STARTICE)을 오픈하였고, 동남아 1위 온라인쇼핑몰인 쇼피(Shopee)에는 K-POP 걸그룹 '여자친구'를 활용한 한류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상품의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표 IV-1-1-16 | 전자상거래수출 시장진출지원 사례(2019년)



다. 인력양성

인력양성사업은 우수인재의 양성·유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식개선, 「인력양성, 「연수, 「성과보상공제 기금」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1-17 | 중진공 인력양성사업 분야(2019년)

구 분	인식개선		인력양성	연수	성과보상공제기금
	중소 인식개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사업목적	구직자 인식개선	우수 중소기업 발굴·지정	중소 인력 유입 촉진	중소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중소 우수인력 장기채직 유도
주요내용	대국민홍보, 교육 및 체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홍보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단기 집합연수 이러닝연수	성과보상금 형태 공제기금 운영

2019년 총 38,303명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추진하였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등의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총 14,151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5개 연수원을 통해 2019년 50,344명, 누적인원 153만명의 연수인원을 달성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구축하여 리닝팩토리 실습장비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1개의 스마트공장배움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 3개소(전주, 창원)의 스마트공장배움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9년까지 121,303명(누적)이 가입하였으며, 2016년에 출범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9년까지 250,361명(누적)이 가입하여 청년과 핵심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1) 연수사업

1982년 중소벤처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지방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32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총 148만여 명 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50,344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21,571명, 지방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리더십)은 14,497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스마트공장 제조분야 전문인력(국정과제)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였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비를 활용한 실험·실습 중심의 기술연수를 강화하였다.

표 IV-1-1-18 | 연수실적(2019년)

(단위 : 명, %)

구 분	2018년 실적	2019년		
		계획(A)	실적(B)	달성률(B/A)
직무역량향상연수	22,695	19,166	21,045	109.8
정책연수	13,373	9,419	11,643	123.6
원격연수	13,160	11,000	17,656	160.5
계	49,228	39,585	50,344	127.2

2)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및 국민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중소벤처기업 취업의시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도 한해 중학생, 특성화고 학생 및 학부모 등 377개교 38,303명에게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제공 및 지역 우수중소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상별로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307개교 15,921명에게 중소기업 체험 및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성화고에 찾아가 지역 우수중소기업에 취업한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50회 개최하였으며, 특성화고 자녀를 둔 학부모 397명을 학교에 초청,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육 및 진로설계 코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2회 중소벤처기업인식 개선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알자 알짜 중소벤처기업!’이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었으며 UCC, 수기 등 78건의 인식개선 콘텐츠가 접수되었다.

전문가 심사를 및 인식개선페스티벌(8.8,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공개심사를 통해 14팀을 선정 및 시상하였으며, 선정된 UCC 작품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하여 10,810회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3)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

국정과제41, 관련,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축소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을 추진하였다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위해 국내최초로 사업주-근로자간 비례성과공유 협약서 등록시스템 및 성과공유 도입증빙자료 제출 창구인 성과공유기업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18.1)하였다. 또한 성과공유기업 확인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18.9.13)하고,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18.12)하여 본격적인 성과공유기업 인증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성과공유기업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성과공유 도입 등 일자리 양·질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일자리평가에 가점을 부여하였고, 일자리 우수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우대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업담당자들의 일자리평가 전수 확인을 위한 전용시스템을 개발하고 67개(2019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기관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는데 노력하였다.

성과공유협약 체결기업 대상으로 63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일자리창출촉진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 외에 병역특례기업 지정 평가지표 우대 적용(3,120개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 우대(762개사) 등 인센티브 제도마련을 통해 성과공유 협약 및 도입을 유도하였다.

성과공유제 도입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 페이스북 이벤트, 유관기관 배너 게재 등을 통해 영상 라인 조회 수 49,325회를 기록하였다.

중소기업에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조성, 중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인재육성형중소기업을 2014년부터 매년지정 지원해오고 있다.

인재육성형중소기업이란 ‘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5항’에 의거 ‘기술능력, 연구 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매년 하반기에 사업공고 후 신청기업에 대해 ①서면평가, ②현장평가, ③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정하고 있으며, 2019년도 224개사 지정,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1,237개사를 지정하였다.

* 연도별 지정 ('14) 100 → ('15) 148 → ('16) 229 → ('17) 376 → ('18) 250 → ('19) 224

지정기업 대상으로 지정서 및 현판을 3년간 제공하고,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연수비용 50%할인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지정기업에 대해서 우수사례집(16개사 수록)을 발간하여 특성화고, 대학교 등 1,491개 학교 및 기관에 2,376부 배포하였고,

카드뉴스 제작(15개),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15개) 등 홍보 콘텐츠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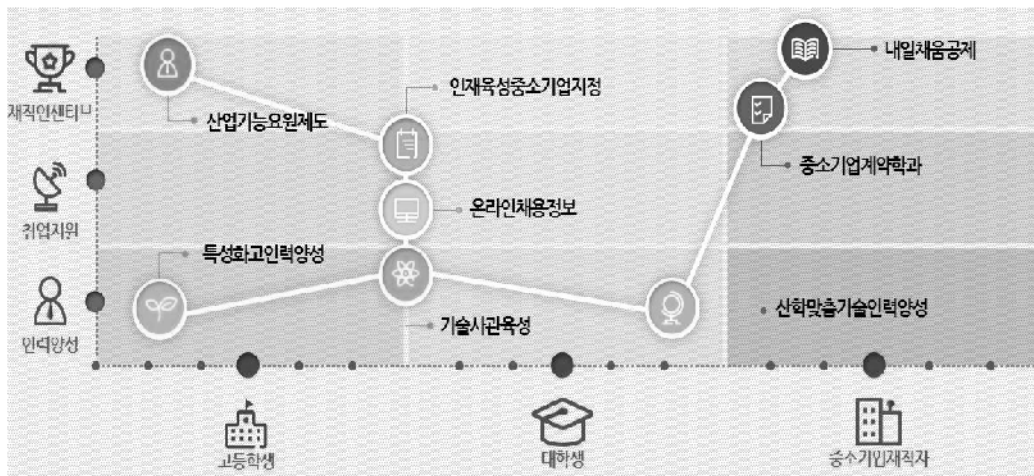
또한, 취업포털사이트 'Job Korea'에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전용채용관'을 개설, 111개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여 구직-구인간 정보 매스매치 해소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성과공유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존경받는 기업을 모두 '사람중심' 기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사람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4)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은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 지원과 특성화고·대학의 우수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일학습 병행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 유입·양성·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표 IV-1-1-19 |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도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015년 4월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이관된 사업이다.

사업이관을 통해서 증진공 인력지원사업 목표인 「중소기업 인력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증진공 사업간 유기적 연계로 채용부터 장기재직 유도, 기업의 역량강화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표 IV-1-1-20 | 이관 전·후 주요 개선 실적

구 분	이관 전	이관 후
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중심의 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진공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능동적 사업 추진 - 지역거점 활용한 사업 연계 및 확대
사업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인력양성사업 개별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방식, 매뉴얼 등 제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효율성을 위한 통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추진 - 체계적인 사업 DB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2019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199개교의 특성화고를 지원하여 3학년 취업대상자 중 12,734명을 중소기업에 취업시켜 중소기업 취업률 30.5%를 달성하였으며, 핵심 프로그램인 취업(산학)맞춤반 과정에 8,469명이 참여하여 5,828명(68.8%)을 협약기업으로 취업연계 하였다.

표 IV-1-1-21 |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2019년)

구 분	추진 실적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99개 특성화고(3학년 취업대상자 수 41,656명)에 중소기업 맞춤형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 수업, 진로지도 및 연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평균 1.4억 내외 지원
기술사관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사업단(1,519명)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2,675백만원 지원 및 관리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개 대학(1,747명)에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을 위해 5,534백만원 지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개 대학, 68개 계약학과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에게 학과 운영비 및 등록금 지원(1,868명, 10,554백만원 지원) 및 관리 ■ 4차 산업 분야 5개 학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4개 학과 등 총 9개 학과 신설

5)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청년층의 기술창업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경기도 안산에서

개교하였으며, 혁신 창업자 육성 강화를 위해 2017년도에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성장까지 3단계 패키지지원 방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18년에는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5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12개 추가 신규 개소하여 총 17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인프라를 확보하였으며,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민간공공협력체계를 도입한데 이어, 2019년에는 우수한 민간운영사 발굴을 위하여 선정방식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민간운영사 성과평가체계를 고도화 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제조융복합 등 기술보유 창업자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창업 네트워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제조융복합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자 선발을 확대하여 제2벤처 붐 확산에 기여하였다.

* 4차 산업혁명 분야 선발인원 : ('18년) 328명 → ('19년) 504명

* 제조융복합 분야 선발비중 : ('18년) 60.1% → ('19년) 71.2%

창업성장 단계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우수 졸업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지원 등을 연계 지원하는 후속연계지원을 통해 졸업기업의 데스크리극복과 혁신성장을 지원하였다.

* 정책자금 432건(536억원), 수출마케팅 257개사, 인력지원(내일채움공제 등) 184개사 지원

또한, 청년CEO의 네트워크 강화 및 신사업 융합 기회 제공을 위해 2018년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총동문회를(2,878명) 결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지역동문회(전국 12개 지역) 구축을 통해 청년CEO 간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자발적 상생협력 등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기반을 조성 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개교 이래 지난 9년간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총 3,815명의 청년CEO를 양성하고, 배출액 32,412억원, 일자리창출 10,312명, 지식재산권 등록 10,163건의 지원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우수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취업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도 8월에 출범하였다. 동 기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는 내일채움공제와 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연계한 신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청년취업에서 장기재직까지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미취업청년과 사업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 재직 시 근로자에게 1,600만 원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 대책(3.15)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공제사업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재직청년 대상 신규사업이 출범하였다. 출범 후, 2019년 말까지 성과보상공제(4개 사업)에 161,182개사 371,664명(누적 기준)이 가입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표 IV-1-1-22 | 공제가입실적(2019년)

(단위 : 개사, 명, 백만 원)

구 분	가입업체 수		가입자 수		공제납입금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내일채움 공제	일반	3,363	18,858	8,856	47,510		
	청년재직자	14,016	26,110	40,874	73,793	499,711	873,199
	소계	17,379	44,968	49,730	121,303		
청년내일채움공제		49,642	116,214	98,572	250,361	1,118,914	1,645,652
합계		67,021	161,182	148,302	371,664	1,618,625	2,518,851

한편, 공(대)기업, 지자체들과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협업모델을 구축하여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2019년도에는

김해시 55명, 포항시 45명, 익산시 43명, 한국항공우주산업 52명, 부산항만공사 17명 등 공(대)기업 12곳과 지자체 8곳이 협력사 및 관내 중소기업의 공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지자체 1곳과 협약체결을 통해 총 135명(73개사)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하였다.

표 IV-1-1-23 | 공기업·지자체와 내일채움공제 간 연계 협업 실적(2019년, 누적)

(단위 : 개사, 명, 백만 원)

구분	협력사 업체 수	지원 인원 수	지원액	
공(대)기업	한국남동발전	73	188	1,128
	한국서부발전	54	165	1,050
	한국가스공사	11	38	228
	한국전력공사	18	50	658
	CJ제일제당	29	53	382
	한국토지주택공사	29	208	1,248
	한국동서발전	11	36	216
	한국수력원자력	21	72	432
	한국수자원공사	23	28	168
	한국중부발전	15	36	216
	한국남부발전	28	70	420
	인천항만공사	8	12	72
	한국항공우주산업('19)	12	52	187
	부산항만공사('19)	8	17	102
	한국가스기술공사('19)	2	2	12
지자체	강원도	219	881	8,556
	대전시	270	594	5,346
	울산시	116	211	506
	충북도	452	646	3,876
	계룡시	12	31	223
	제주도	455	875	9,123
	산청군	6	15	108
	부천시	77	144	604
	김해시('19)	27	64	92
	포항시('19)	22	45	54
	익산시('19)	14	43	123
계	2,012	4,576	35,130	

7)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ne-Stop지원체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구인애로 기업을 발굴하고, 채용조건 등을 확인하여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청년장병 등의 구직자와 맞춤형 취업매칭을 진행한다. 동 사업은 '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상시적으로 중소기업 구인수요 접수에 대응하여 실시간 일자리 매칭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019년도는 구인애로 중소기업을 8,513개사 발굴하여 3,520명의 취업매칭 실적을 달성하였다. '20년부터는 청년(장병) 구직대상자 중 청년장병 대상을 대체복무자(산업기능요원 희망자, 해경·의경)까지 확대하였으며,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검증된 구직인력 공급을 통하여 청년 실업문제 및 중소기업 인력 부족 현상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표 IV-1-1-24 | 중소벤처기업 구인수요 발굴 및 취업매칭 실적(2019년)

(단위 : 개사, 명)

구 분	구인기업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매칭
2017년	1,430	5,821	1,327	1,048
2018년	8,223	21,434	14,082	2,657
2019년	8,513	49,185	33,462	3,520
계(누적)	18,166	76,440	48,871	7,225

라.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제·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 할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근본체질 강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특화형, 규제대응, 정보보안 분야에서 475개 기업을 대상으로 6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R&D 성공기술 및 특허기술 중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을 대상

으로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시장검증 38개사, 시장진화형 기능개선(추가R&D) 20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시장검증 지원을 통해 1,008백만원의 신규매출을 창출하였다.

1)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본체질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9년에는 중소기업간 협업, 사업전환 등 경제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특화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화관·화평법 대응을 위한 규제대응 컨설팅과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및 기술유출·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컨설팅을 신설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컨설턴트 등록기준 개편을 통해 학력위주 등록기준을 경력중심의 등록기준으로 개편하여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켰으며, 교육 접근성 및 효과성을 높인 컨설턴트 대상 e-러닝 윤리교육을 도입하여 컨설턴트 등록시 ‘필수이수’ 교육으로 상시 운영하였고, 저성과 컨설턴트에 대한 등급하향 기준을 마련하여 컨설팅 품질을 제고하고 부실 컨설팅 예방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전수를 평가에 반영(20점)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근로자 성과공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일관지원 방식을 컨설팅사업에 도입하여 정책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19년 사업추진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경영전략 수립 등을 위한 특화형 컨설팅 258개사, 18억원,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주52시간 도입을 대비하기 위한 규제대응 컨설팅 152개사 19.3억원, 유해 화학물질 취급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컨설팅 147개사, 18.2억원, 정보보안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전략수립, 취약점 분석·제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컨설팅 39개사, 4.5억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화학사고 예방, 보안수준 향상 등의 지원성과를 창출하였다.

2)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의 기술개발 부문은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동 산업 전문가의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 연구원과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기존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개발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19년도에는 총 60개 업체가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6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10: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계속과제 2건을 포함하여 총 1,31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 건수’ 및 ‘시제품출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 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및 출원 5.75건, 시제품 출시 5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맞춤형사업화 부문은 기술개발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화 기획, 사업화 지원을 맞춤 지원하는 것으로 ‘17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19년도에는 사업화 기획 6건, 사업화 지원 11건으로 총 17건을 지원하였다.

맞춤형사업화의 성과지표는 지원금액 대비 신규매출액(%)으로 설정하여 관리 하고 있으며 ‘19년도의 성과는 22.2%로 목표대비 111%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3)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정부 R&D 투자효율 개선 및 중소기업의 신규 매출을 창출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R&D 성공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내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이며, 최종 선정기업에게는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공모접수와 KOSBIR* 시행기관을 통한 정부부처 R&D 성공관정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지원하였으며, 대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추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

표 IV-1-1-25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2019년)

(단위 : 개사)

구 분	기술사업화 진단	기술사업화 기획	사업화 지원		합 계
			시장검증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지원기업	253	33	38	20	344

4) 중소기업 재기컨설팅 지원사업

가) 중소기업 진로제기컨설팅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심층진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무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정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퇴출을 유도하여 시장 내 명맥만 유지하는 ‘좀비기업’의 양산을 막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 조기진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9.5억원 예산으로 총 281개 기업에 대해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81개 지원기업 중 212개사에는 “구조개선” 판정으로 수출마케팅, 워크아웃, 자금 등 지원정책을 연계하고 있고 37개사에 “회생지원” 처방을 통해 회생 컨설팅을 연계하였으며 나머지 32개사에는 “사업정리” 처방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폐업을 지원하였다.

표 IV-1-1-26 | 진로제시컨설팅 처방 현황(2019년)

(단위 : 개사)

구분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정리	구조개선 등	합계
지원기업	37	32	212	281

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법원 회생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나 회생절차 비용 조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회생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 조사위원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법원 회생개시신청서 작성, 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 회생절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 57개사, 2014년 65개사, 2015년 51개사, 2016년 55개사, 2017년 90개사, 2018년 92개사 2019년 95개사 등 총 505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율을 제고하고 있다.

표 IV-1-1-27 | 회생컨설팅 지원실적(2013~2019년)

(단위 : 개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원기업	57	65	51	55	90	92	95	505

5) 정책중개

중진공은 2011년부터 기관의 강점인 현장성을 살려, 지역본지부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정책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발굴된 애로사항들을 정책과제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내월 중소기업 유부즈만 등 정부에 정책개선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유부즈만(Ombudsman), 중진공(KOSME)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규제어로 합동 간담회인 S.O.S Talk를 운영하여 2019년에 총 14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중진공은 "정부정책과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간담회와 지역본지부에서 수집한 애로사항 553건을 건의하여 전기차 구동축전지의 안정성 낙하시험 기준완화 등 72건의 규제를 정부시책에 개선사항으로 반영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2019년에는 55건의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해소하였다.

6) 정보제공(간행물 발간)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기술 트렌드, 우수 성공 사례,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의 정보를 담은 월간 『기업나라』를 1979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매월 1일 발간되는 『기업나라』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회비 납부방식의 정기구독 회원제로 운영된다. 연간 회원에게는 정가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주요기사를 엄선해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정기구독 회원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시중 서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를 진행했으며, 인터넷 웹진(nara.kosmes.or.kr)을 통해 주요기사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제고했다.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제공 확산을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포스트'에 『기업나라』 콘텐츠를 서비스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요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대중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한국ABC협회에 부수인증 매체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발행부수에 대한 검증을 받아 정기간행물로서의 대외신뢰성을 높였다.

주요기사를 최신 산업 동향 및 이슈 관련 중소기업 사례를 심층 취재하는 <특집>, <기획>과 함께 4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People & Company>에서는 중소기업 CEO 경영철학과 우수 제품의 탄생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취재하고, <Global>에서는 현지 리포터를 통해 미국, 독일, 중국 등의 해외 경제이슈 및 기술 동향을 전달했다.

또한 <Trend & Solution>을 통해 경영·기술 관련 트렌드를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Culture & Sense>는 문화 관련 기사로 교양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실었다.

보다 다양한 시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코너를 운영(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특집 및 기획 코너에 대한 자료 수집, 취재기업 섭외를 협업하여 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매월 「독자의 소리」 코너에서 관심 있게 본 기사 내용과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독자 모니터링단 설문을 통해 『기업나라』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 신뢰도, 건의사항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전수는 5점 척도 기준 4.25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성공사례’와 ‘지원시책’, ‘제품소개’ 관련 기사에 대한 독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

향후 추진방향

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①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촉진, ②공정경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③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④국민신뢰 경영기반 구축을 중점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불,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주는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1) 정책자금 융자·출자

가)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동력 확보

(혁신성장기업 집중 육성) 혁신성장 유망기업의 데스벨리 극복 및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고성장촉진자금(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DNA(Data, Network, A) 및 BIC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와 안정적 사업화 지원을 위해 미래기술육성자금(3,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신산업 및 소·부·장 지원 강화)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3,000억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융자 제한 및 경영 이상 항목 등 최소 요건의 확인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검증된 유망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설비 신규 도입 촉진 및 제조혁신 견인을 위해 시설자금 위주의 신성장 기반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8,800 → 14,300억원, 5,500억원 ↑)한다.

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 운용

(정책자금 고객 접근성 개선)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공공데이터(재무, 고용, 수출 등)를 활용한 비대면 서류 심사로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형 금융플 도입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자금 접근성을 증대한다. 또한, 업무 자동화 및 AI 응용기술 등을 정책자금 업무(챗봇상담, 전자약정 등)에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민간 협업대출 운영) 정책자금 특성상 한정된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시 정책자금 공급액에 비례한 민간자금 내청형 대출을 추진한다. 우리은행과의 협업대출(정책자금 60%, 민간 40%)을 우선 진행하여 그 운영 효과 등을 검토한 후 타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19년 500억원 → '20년 600억원)하고, 포괄적 네커티브 규제 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및 집중관리기업지정 시 가산금리 적용을 제외하여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다) 정책금융 전문성 강화

(투융자복합금융 지원방식 다양화) 현재 투융자복합금융 지원방식인 전환사채 외에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을 추가하여 기업별 자금조달 니즈 및 투자시장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자금 금융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리스크관리체계 개선) 전사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ERMs)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한다.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지표 상시 모니터링 및 단계별 한계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수출지원 및 글로벌화

가) 수출기업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 자금지원) 내수기업 수출사업화 및 수출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신 시장진출지원자금 예산을 확대('19년 1,800억원 → '20년 2,000억원)하여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다양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해외진출 스타트업(50억원), 전자상거래활용 사업 참여기업(200억원), 브랜드K 인증기업(100억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사업 개편) 수출단계별(내수기업,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성장) 수혜기업 선정절차 개선을 통해 바우처 활용성과를 제고하고, 혁신바우처를 신설(148억원)하여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신산업 영위 기업, 브랜드K 지정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정책목적성 강화 및 혁신성장 수출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나) 온·오프라인 수출지원을 통한 성과 창출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체계 혁신) 수출 BI가 설치된 해외거점별로 주요기능을 특화(혁신성장형, 기술교류형 등 5개 유형)하고,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속도감 있는 수출성과를 창출(20년 지원기업 연간 수출 700백만불 이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정책수요 파악 및 국가별 주요 이슈 공유 등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Linker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해외진출 플랫폼 확장) 베트남 하노이에 제품전시, 판매,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위한 한국제품전용관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신남방 진출의 거점을 구축하고, 중국 충칭에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하기 위한 한국제품전용관을 개관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인프라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20년 상반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 추진 예정).

(온라인수출 활성화) 온라인수출플랫폼(코비즈코리아)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자동 매칭 및 온라인전시회를 통한 상시 제품 홍보 등의 서비스를 2,100개사에게 제공한다. 또한, 북미·중국 등 선진시장은 아마존, 알리미바 등 글로벌 쇼핑몰에 입점하여 제품 판촉을 강화하고, 인도·터키 등 신흥지역은 현지 유력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온라인 수출성과를 제고한다.

다)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전문인력 양성) 청년 및 대학생 200명을 수출마케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수출초보기업과 매칭 후 해외마케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 제공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커머스 특성화대학 운영을 통한 온라인수출 전문인력 및 SNS를 활용하는 1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중소벤처기업 수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류 연계 컨설팅 제공) 수출초보기업의 한류프리미엄을 활용한 효과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한류상황 및 상품경쟁력 분석, 한류활용·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제공하는 한류 연계 컨설팅을 진행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다.

3) 인력양성

가) 혁신성장 선도인력 양성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확대) 스마트공장배움터 2개소를 추가 구축(충청·대구, 3→5개소)하여 제조분야 전문인력 11,000명을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스마트공장을 구성하는 실습장비를 활용한 분야별·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촉진하고, 교육과정 확대(200→277개) 및 장기 교육과정(1개월, 160시간) 신설로 현업적용도를 향상한다.

(신산업 및 소·부·장 분야 교육 강화)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영위 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 인력 양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형 계약학과(경희대-삼성전자 : 소재·부품, 수원대-현대차 : 수소차 등)를 운영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된 문제해결형 연수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나) 중소벤처기업 취업 지원 강화

(AI 면접시스템 활용 확대) 온라인 기반 AI 면접시스템(15만개의 면접질문 DB)을 활용하여 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면접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해소한다. 뿐만 아니라 구직자·구인기업 간 수요를 반영한 기업인력정보센터의 취업매칭시스템을 통해 취업매칭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향상한다.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고 인력양성,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육성

한다. 또한, 취업의지가 높은 취업맞춤특기병 등 취업의지가 높은 청년장병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고, 병무청과의 협업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와 병역특례기업 간 취업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취업 인식개선) 중소벤처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구직자(학생), 부모·교사, 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자별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 견학이나 진로설계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청년장병 희망열차 개최 횟수를 확대('19년 3회 → '20년 6회 이상)할 예정이다.

다) 근로자 복지 향상 및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기업납입금 지원을 위한 공기업, 대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위탁판대기관 및 수행기관 추가를 통한 외부 가입창구 확대 등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활성화하여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와 핵심인력 고용 유지를 견인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기금 운용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 교육복지 서비스(연수원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직무교육, 온라인복지몰, 단체상해보험 등)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근로여건 향상을 지원한다.

(성과공유기업 확산)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정부지원사업(일자리) 평가 시 가점 반영 및 성과공유 인지도 제고와 도입 유도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전파 등을 통해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제2장

기술보증기금

1

일반현황

기술보증기금은 1989년 설립 이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술중소기업에 약 367조 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선도하였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창업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형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기술평가와 연계한 투자, 기술이전 및 보호, 기술 경영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술금융 종합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해오고 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인 기술에 대한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보증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술창업기업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보증 지원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R&D 개발·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중개지원,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기술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촉진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은 혁신기업과 유니콘기업의 성장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혁신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정보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준과 기술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기업혁신을 유도하는 등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고,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술보증

1) 총괄

기술보증기금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예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중점지원분야인 혁신성장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지원 타당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기술보증지원을 집중하여 '19년도에 총 22조 2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보증잔액규모는 기금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전년대비 3,304억 원 감소한 22조 1,122억 원으로 축소 운영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국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경제성장의 핵심 동인인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보증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우수기술 유동화회사 보증 1,558억 원을 발행하여 간접금융시장에 편중된 중소기업 대출이 직접금융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IV-2-1-1 |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총보증공급	222,555	100.0	224,798	100.0	220,020	100.0
기술평가보증	215,783	97.0	219,613	97.7	215,415	97.9
기술혁신기업	213,411	95.9	217,157	96.6	213,037	96.8
지식문화산업	37,192	16.7	40,825	18.2	41,827	19.0
혁신성장산업	26,634	12.0	49,000	21.8	54,852	24.9
수출중소기업	27,734	12.5	27,200	12.1	31,467	14.3
청년창업기업	15,250	6.9	16,261	7.2	16,683	7.6
R&D보증	48,348	21.7	53,138	23.6	55,456	25.2
유동화회사보증	2,609	1.2	1,562	0.7	1,558	0.7
총보증잔액	218,506	-	224,426	-	221,122	-

2) 기술혁신기업 등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체계 강화

기보는 선별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기술혁신기업에 보증지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보증규모가 증가하였고,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① 기술혁신기업 보증

2019년 기술혁신기업에 21조 3,037억 원(총 보증공급의 96.8%)을 공급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② 청년창업기업 보증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문화 확산 등을 통한 국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평가등급별 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등의 노력으로, 2017년에는 1조 5,250억 원, 2018년에는 1조 6,261억 원, 2019년에는 1조 6,683억 원(총 보증공급의 7.6%)을 지원하는 등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3)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 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

기술보증기금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사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혁신성장산업 분류 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혁신성장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혁신성장산업 지원시스템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공공성을 감안한 9대 테마, 46개 분야,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산업 공동기준'에 기반하여 중전 지원 대상을 재설정하고 지원제도를 새롭게 정립한 시스템으로서,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오고 있다.

또한, '혁신성장 공동기준 적용원칙'을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주요 제품, 서비스 및 보유기술의 혁신성장산업 해당 여부를 더욱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V-2-1-2 | 혁신성장산업 보증지원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혁신성장산업 보증공급 실적	2.7	4.9	5.5
총보증공급 대비 비중(%)	12.0	21.8	24.9

4) 기술금융을 통한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

① 기업의 고용환경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술보증기금은 일자리 창출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자리창출 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하여 우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환경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인 '굿잡(Good-Job)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굿잡 보증은 일자리 창출 기업 중 고용·취약계층(비정규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일자리 배려 기업('쉐어링잡')과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기업('점핑잡'),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베스트잡')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쉐어링잡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②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창업보증시스템 개편 및 지원확대

기술창업기업을 업력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신용도가 낮은 창업초기 기업일수록 보증료 감면을 확대하고 보증 비율을 우대하는 등 단계별 창업지원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밖에 창업유형에 따라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첼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 등 4대 창업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 성장 보증」을 통해 10,008개 창업기업에 2조 5,021억 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였다.

또한, 다양한 창업보증 지원제도를 통해 총 12,863개 창업기업에 3조 3,418억 원(전체 신규보증 4조 8,480억 원의 68.9%)을 신규보증 지원하는 등 미래성장 가능성 위주의 기술평가로 기술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창업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③ 대학·연구소 창업지원을 위한 Tech-Valley 지원시스템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창출과 'Made in Korea' 신화 재현을 위해,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우수기술 사업화 플랫폼인 Tech 밸리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최초로 5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포항공대)과 U-Tech 밸리 협약을 체결한 후 61개 창업선도대학과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1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R-Tech 밸리 협약을 체결하여 '19년 말까지 총 257개 기업에 4,602억 원의 Tech 밸리 보증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Tech 밸리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기술 창업기업 등에 최대 30억 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보증연계투자 우선 추천, 마케팅영업전략 컨설팅, 기술특례 상장을 통한 IPO 지원 등의 비금융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④ 도전적 창업을 위한 창업안전망 구축

그동안 기술보증기금은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 완화 및 도전적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17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기조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수는 계속 감소('18년 0.12명→'19년 0.01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19년에는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도 연대입보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보증의 연대보증인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입보면제를 추진 중에 있다. 나아가 법적 변제책임 소멸·완료 채무자와 법적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소각채권 채무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요소를 개선하고, 구상채무 변제 완료기업에 대한 보증은 일반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도전적인 창업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표 IV-2-1-3 | 신규보증의 기업 당 평균 연대보증인 수

(단위 :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64	0.53	0.48	0.12	0.01

5)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산업 선제적 지원 강화

① '4차 산업혁명'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 성장동력분야 지원 강화

경기회복 지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기존 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산업 구조의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미래 주력산업인 新성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인 '인더스트리 4.0 퍼스트 보증(FIRS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ignificant Transformation)'과 '4.0 스마트팩토리 보증'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은 첨단 기술 사업화 기업의 발굴·육성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우위를 선점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4차 산업혁명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대외협약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지원 역량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중소기업을 중점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추진하여 2019년까지 1,047개 기업에 1,789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공사(특별출연), 경상남도(이차보전), 우리·기업·농협·경남은행(보증료지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협약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나. 기술평가

1) 총괄

기술평가는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미래가치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전,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표 IV-2-1-4 | 기술평가의 범위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의 개요 국내의 기술동향 기술개발환경 기술수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규모 및 특성 동업계 현황 시장수요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전망 가격과 품질경쟁력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

기술평가는 평가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표 IV-2-1-5 | 기술평가의 종류

구분	상세내용
기술가치평가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표시
기술사업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등급으로 평가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2) 기술평가 조직·인력의 전문성 강화

기술평가의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19년 말 현재 중앙기술평가원 1개, 기술혁신센터 8개, 기술평가센터 59개를 설치함으로써 특화된 기술평가·금융 영업망을 확보하였다.

표 IV-2-1-6 | 기술평가 운용 조직체계

구분	역할	주요업무
중앙평가원	고도로 전문화된 핵심 평가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난이도 전문기술평가 기술평가 마케팅 기술평가 품질관리
기술혁신센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거래·M&A 사업화 지원 기술평가연계보증(IP, R&D보증 등) 전문기술평가(R&BD 기획컨설팅 등)
기술평가센터	정형화된 기술평가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보증(지식재산보증, R&D보증 등) 정부 R&D 경제성 평가 등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등

한편, 기술평가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실무를 통해 일정 자격과 평가역량을 갖춘 기술평가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확대하고 있다.

표 IV-2-1-7 | 기술평가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금 전체	1,102	1,126	1,156	1,211	1,304	1,362
기술평가전담 인력	552	592	581	605	662	688
박사급 인력	154	168	190	215	239	257

* 기술평가 전담인력 : 박사급인력, 전문직 직급 부여자, 본점 기술평가부서 근무자, 중앙평가원 근무자, 기술평가팀 소속자, 기술평가사 3급이상 자격자

또한, 자체 보유 평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Pool을 구성·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3) 기술평가시스템

기술보증기금은 재무위주의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선별·지원이 어려운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하여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스템(KTRS :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을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

KTRS는 기술사업의 미래 성공가능성 및 기술기반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기술금융에 최적화된 평가시스템으로, 2005년 7월 전면 도입 후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을 실시하여 성장성과 부실률에 대한 예측치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보는 평가목적 및 용도에 따라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평가모형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4) 기술평가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성과

① 국내 지식재산(IP) 금융의 프런티어로서 역할 수행

2006년부터 지식재산(IP) 기반의 선진형 기술금융인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기술가치연계보증 등을 국내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8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식재산(IP) 보증 제도'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술중소기업이 보유(또는 인수)한 우수 지식재산의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증지원을 통해 IP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식재산(IP) 보증은 기술평가보증 절차에 기술가치평가 절차를 더하기 때문에 평가의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높은 평가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과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 기술기업의 금융조달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식재산(IP) 보증지원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하여 IP금융지원 실적을 큰 폭으로 향상시켰다.

특히, AI기반의 '특허평가시스템(KPAS)'을 도입하여 어렵고 복잡한 IP평가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IP등급보증', 'IP패스트보증' 등의 신상품 출시를 통해 IP금융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술가치평가서의 종류를 4가지로 다양화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IP)의 평가체계를 시장 중심으로 개선하여 IP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IV-2-1-8 | 지식재산(IP) 관련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IP보증공급	3,037	6,141	3,874	7,992	4,514	9,363	6,533	13,225
IP가치	2,323	5,278	2,884	6,681	3,344	7,774	3,985	8,883
IP등급*	-	-	-	-	-	-	977	2,366
IP인수	714	863	990	1,311	1,170	1,589	1,571	1,975

* IP등급보증: '19년 2월 신설

② AI기반의 특허평가시스템(KPAS) 개발을 통한 IP금융혁신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부터 고난도, 고비용 구조의 IP평가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AI기반의 특허평가시스템(KPAS)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2017년 9월 AI기술로 특허 등급을 자동평가하는 특허등급평가시스템(KPAS-1)을 구축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KPAS-1을 무료로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직접 자신의 특허 등급을 온라인상에서 산출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2월에는 KPAS-I 기반의 'IP등급보증'을 출시하여 2019년 말까지 우수특허 보유 기업에 2,301억 원의 IP등급 보증을 신규로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8년 12월에 특허의 고유특성과 가치평가 전문가들의 평가패턴을 딥러닝기법으로 학습하여 특허의 가치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특허가치평가시스템(KPAS-II)을 최초로 구축함으로써 3주 이상 소요되었던 IP평가시간을 대폭 축소하였다. 2019년 2월에는 KPAS-II를 기반으로 한 'IP패스트보증'을 출시하여 463억 원의 IP보증을 지원하였고,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IP평가료를 1백만 원 이하로 낮춤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큰 폭으로 축소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특허평가시스템(KPAS)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어렵고 복잡한 IP금융지원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IP금융을 획기적으로 확대(2018년 2,909억 원 → 2019년 5,413억 원, 전년대비 86% ↑)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IP금융을 최초로 개척한 후 2019년 말에 누적 IP 보증 신규지원금액 2조 원을 돌파하였고, 2019년 국내 IP보증의 74.8%를 공급하는 등 명실상부 국내 IP금융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R&D 종합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R&D를 선별하고 R&D 사업화 과정 전주기를 지원하는 「R&D 보증」을 2008년부터 도입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R&D 자금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도에는 R&D종합지원시스템 사상 최대인 5.5조 원의 R&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R&D금융 지원대상을 자체개발 R&D에서 외부기술도입(개방형 R&D)까지로 확대함으로써 R&D성과물(IP)의 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그 공로로 '지식재산위원장(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표 IV-2-1-9 | R&D 보증공급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R&D보증공급	13,860	41,937	17,493	48,348	20,073	53,138	22,330	55,456
개발단계	6,835	10,651	9,171	13,794	9,955	14,364	10,558	14,543
사업화준비단계	749	1,180	820	1,214	802	1,102	662	902
사업화단계	6,276	30,106	7,502	33,341	9,316	37,671	11,110	40,010

다. 기술거래보호

1) 기술거래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의 수요와 공급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 기술이전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온라인 기술유통 플랫폼인 Tech-Bridge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술혁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연 공급기술 약 38만 건과 매년 1,500건 이상의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기업, 연구기관, 기술거래 기관 등의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기술수요와 공급기술을 자동매칭하여 기술을 추천하는 KTMS (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를 통해 기술이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표 IV-2-1-10 | 기술거래, IP인수보증 실적

(단위 : 건, 개, 억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기술수요발굴	1,299	1,411	1,415	1,490	1,559	1,524	8,698
기술이전계약	166	262	534	528	553	619	2,662
이전된 기술	254	456	715	725	737	856	3,743
IP인수보증(신규)	222	247	414	608	593	641	2,725

2) 기술보호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신탁관리, 기술임치업무 및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일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 IV-2-1-11 | 기술거래, IP인수보증 실적

(단위 : 건, 개, 억 원)

구분	내용
기술신탁업무	중소기업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신탁 받아 관리보호하고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업무 (증거지킴이 TTRS*)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발생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기술임치업무	기술임치제도는 기업의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대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비밀을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

* TTRS(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기술거래기록 등록시스템

3) 특허공제사업

특허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적립한 부금을 재원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해외 출원 시 발생한 비용을 대출하여 상호 부조하는 사업으로, 가입기업이 납입한 월별 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환급된다.

가입기업은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5배 내에서 지식재산비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금정식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부금납부 합계액의 90% 이내에서 1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경영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특허공제사업 가입기업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허공제사업은 2019년 8월 사업개시 이후 1,415개의 기업의 가입을 유치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9년 12월 말 기준 수납부금 잔고는 27억 원, 부금총액 잔고는 479억 원 규모이다.

표 IV-2-1-12 | R&D 보증공급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6년			2019년	
	신규(A)	해지(B)	잔고(C=A-B)	목표(D)	달성율(C/D)
가입기업	1,415	6	1,409	1,040	135.5
수납부금	2,677	5	2,672	-	-
부금총액	48,024	135	47,889	-	-

라. 벤처혁신지원

1) 보증연계투자

기보는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05.1월부터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과 연계하여 기보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12.3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12.6월 시행)으로 보증연계투자자가 기보의 고유 업무로 법제화 되었다. 특히 기보는 기관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창업초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인증(또는 신호) 효과를 제공하여 민간의 후속투자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증융자 등 간접금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표 IV-2-1-13 | 보증연계투자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투자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투자대상기업	<p>아래 각 요건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 * 단,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R&D 및 신성장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기 보증기업(또는 보증 승인기업) ▪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15등급 이상의 우수기술기업 * 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등급 T14등급 이상 ▪ 법상 벤처기업(또는 이노비즈기업)
개별기업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당 투자한도는 30억원, 통합한도(보증+투자)는 100억원 (단, 투자금액은 기보가 해당기업에 보증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술보증기금은 '05년 투자제도 시행 이후 '19년까지 293개 기업에 3,098억원을 투자하여 26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14.13%의 누적투자수익률을 실현하였다.

표 IV-2-1-14 | R&D 보증공급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누적('05년 이후)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투자실행	40	430	34	283	33	259	293	3,098
투자손익		48		△25		259		438

2) 보증투자결합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은 투자 전단계에 걸쳐 투자와 결합된 연계형 보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투자 중심의 금융정책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민간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성장자금 후속지원으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있다.

표 IV-2-1-15 | 투자연계보증 개요

구분	투자연계보증	엔젤투자연계보증	투자옵션부보증			
개요	민간벤처캐피탈(VC)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부 대출을 연계지원하는 프로그램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엔젤투자 유치금액의 2배까지 특례보증 지원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보증취급 후 일정기간 경과 시점에 보증부 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			
시행일	2018.6.	2019.7.	2014.5.			
지원대상	벤처투자기관 또는 투자기구에서 투자받은 기술혁신선도형기업(개인투자기관&투자조합 제외)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	설립 후 5년 이내 주식회사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우대사항	보증비율	95%(창업), 90%(비창업)	전액보증(100%)			
	보증료	0.3%p 감면	0.3%p 감면	0.5% 고정		
보증한도	가장 최근일자 벤처투자기관 투자금액의 1/2 이내에서 운전자금보증금액 사정 생략	엔젤투자금액의 2배 (최대 3억원)	10억 원			
보증료	0.3%p 감면	0.3%p 감면	0.5% 고정			
지원실적	업체수	금액(억원)	업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205	2,394	31	63	179	578

* 78개사(액셀러레이터 35개사, 전문엔젤 투자자 43명)로 기보엔젤파트너스 구성

3) 기보벤처캠프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 액셀러레이터 및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 민간과 협업을 통해 될성부른 신생벤처를 집중 보육하고 지원함으로써 성공창업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전국적으로 총 801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1차 서류평가, 2차 PT평가를 통해 최종 105개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금융기관 등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체계를 구축하였다.

4) 창업교육 프로그램

① 기보벤처창업교실

기보벤처창업교실은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전략,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의 체계적인 기술창업 실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한 창업촉진과 창업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2-1-16 | 기보벤처창업교실 추진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횟수	2	2	2	2	2	2
수료자	191	194	128	143	152	113

② 청년·기술창업교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창업가(창업 후 3년 이내 혹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기업가 정신 함양, 기술보증기금 지원제도 소개 등 무료 강좌를 실시하여 청년층의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표 IV-2-1-17 | 청년·기술창업교실 추진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횟수	2	2	2	2	2	2
수료자	191	194	128	143	152	113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일반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전의 소상공인지원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2014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신설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협업·조직화 지원, 전통시장별 특색에 맞는 시설 및 경영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조사 및 정책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및 읍가지원 등이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신사업 아이템 제공, 온오프라인 창업교육(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이버평생교육원), 상권정보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에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이후 종합적인 교육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신설한 이래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신사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변경함으로써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도록 개편하였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이 신사업 아이템 등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유망 영역 등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실습교육, 점포경영체험, 멘토링, 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이다.

설립 이후 2015~2019년간 총 1,754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였고 창업교육, 점포 경영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1,28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88.2%로 나타났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015~2018년(1~9기) 수료생 중 약 72.2%가 창업에 성공하였고, 월 평균 965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2019년 기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전북, 경남 등 전국 9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등에서 150시간 내외의 창업교육을 제공하였다. 창업교육 이수 후에는 9개 지역의 19개 체험점포에서 약 4개월 간 사업모델 검증 및 고객 응대, 서비스 마케팅 홍보 역량 함양 등 실전 창업과 같은 점포경영 실습 교육 및 분야별 전담 멘토링을 지원하였다.

한편, 우수 교육생을 심사·선발하여 사업화 보조금을 최대 2천만원 한도(개인 부담 50%)로 지원하였다.

표 IV-3-1-1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전국 체험점포 현황('19.12월 기준)

점 포 명		주 소
서울	총무로점	중구 삼일대로4길 9, 라이온스빌딩 1층
	대학로점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 1층
	종량점	종량구 숙선옹주로 6-9, 묵동자이아파트상가

점포명		주소
	명동점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1층
	마포점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부산	센텀시티2호점	해운대구 센텀동로 35, 센텀SH벨리 107~108호
	범일점	동구 자성로133번길 10, 천일빌딩 1~2층
대구	범어점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6, 범어골드타워 1층
	두류점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4, 두류동빌딩 1층
	삼덕점	중구달구벌대로2191, 소석빌딩 1층
광주	상무지구 1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84, 상무트윈스빌딩 1층
	상무지구 2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24, 엠씨타워 1층
경기	신동점	영통구 덕영대로 1566, 더판타지움 1층
	둔산 1호점	서구 둔산로 59, 아이빌딩 1층
대전	둔산 2호점	서구 대덕대로 195, 현대빌딩 1층
	유성점	유성구 대학교 88, 궁동482-2
인천	부평점	부평구 부평대로 293, 121~125, 127~131호
전북	전주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9-5
경남	창원점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1, 1층(117호, 122호)

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고급기술이 필요 없는 생활분야 틈새시장의 생활혁신형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생계형 업종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18년 3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발굴·멘토링하고, 성공불용자(최대 2천만 원) 지원 후, 성실실패 시 상환면제로 예비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창업프로그램이다.

2019년에는 총 3,557명이 지원하여 1,646명이 선정되었으며, 1,016명이 창업(사업자등록)을 완료해 성공불용자를 지원받았다.

우수 사례

- 치도(서울 동작구)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의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19년 6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안정화에 큰 도움이 됨



3)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2018년에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개편에 착수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PC 및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상공인이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상시 교육 프로그램(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창업-성장-재기'의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업종별 직무기술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여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경영 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화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이다.

2019년에는 50개 과정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218,990명이 교육을 수료(수료 교육과정 기준)하였으며, 평균 92.0%의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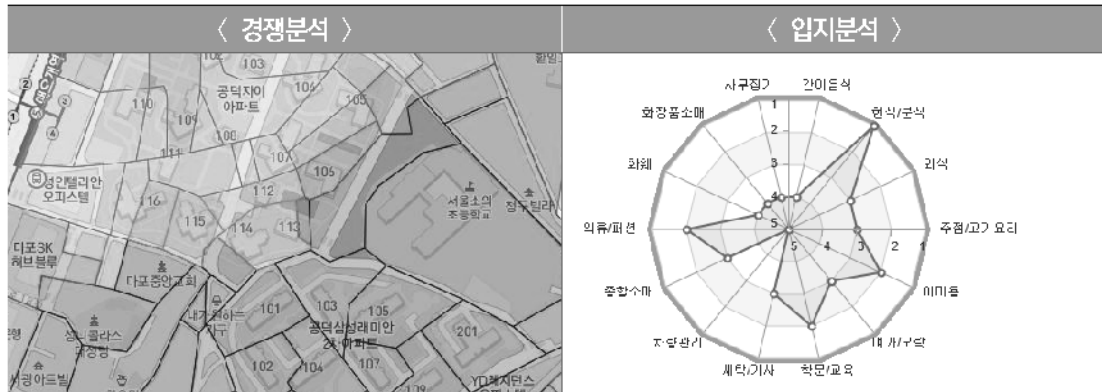
4)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과당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18년 '소상공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과정 시 애로사항에서 입지 선정이 44%, 업종선정이 33%로 관련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수집·분석이 어려운 상권정보를 16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상권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특정지역·업종에 대한 11종의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 특정 전포의 개·폐업 이력을 알려주는 전포이력서비스와 같은 현황정보와 특정위치·업종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 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정보를 알려주는 수익분석서비스와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경쟁분석 서비스 등의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 상권정보시스템 주요서비스



창업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권정보·서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2006년 7월 개시 당시 월평균 10,185건에 불과하던 이용실적이 2017년 109만건, 2019년 140만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7.1% 상승하였다.

표 IV-3-1-2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용실적 (월평균)	818,860 (68,238)	897,315 (74,776)	1,090,586 (90,882)	1,253,588 (104,465)	1,400,103 (116,675)
증가율	28%	9.6%	21.5%	14.9%	11.6%

* 이용건수 증가율 : (당해건수-전년건수)/전년건수×100

또한 민·관간 공유정보 확대 및 상가업소 조사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상권정보시스템 2019년 이용자의 만족도(5단계척도, '만족' 이상)는 89.3%로 대다수의 이용자가 만족을 나타냈다.

표 IV-3-1-3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용자 만족도	88.2%	88.5%	88.7%	89.1%	89.3%

2019년에는 예비창업자가 창업역량 및 준비상황을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창업자가진단 설문' 서비스 및 프랜차이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유·수집된 약 240만 건의 상가업소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도에 기여하였다.

2020년도에는 유사 입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입지에 대한 예상 매출 등 출점지 관련 추정 정보를 제공할 서비스를 모델링 한 예정이며,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UI 및 보고서를 인포그래픽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나.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경영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전문교육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역량강화, 협동조합활성화, 나들가게 성과확산, 중소유통 통합구매,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소상공인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교육은 업종별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 튼튼창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까지 총 624,687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전문기술교육은 신메뉴 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소상공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직접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신 경영 및 마케팅 전략 등 경영개선 교육을 개설·운영하였으며, 2019년에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기술,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전문기술교육 15,575명, 경영개선교육 4,224명, 전용교육장 2,058명, 튼튼창업 프로그램 12,758명 등 총 34,61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한편, 2019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료생의 95.6%가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참여 후 수료생의 경영역량지수를 조사한 결과 교육 전 100점을 기준으로 교육 후 119.2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상공인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주요 권역별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 대전·서울·광주·부산 등 전국 4개 지역에 개소한데 이어, 2010년에는 대구에 개소하여 현재 총 5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은 시·공간적 제약으로 주간에 교육받기 어려운 직장인 및 소외계층(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05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2)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IV-3-1-4 | 소상공인컨설팅 제도 도입 경과

시행시기	내 용
2005년 5월 31일	영세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에 의하여 시범사업 추진
2005년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사업 추진
2006년	자영업 컨설팅사업 추진
2015년	소상공인 역량 Jump-Up프로그램 추진
2016년	소상공인 컨설턴트 등급제 시행

경영 애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홍보,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개발, 세무·노무·특허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표 IV-3-1-5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예산	90	73	81.8
소상공인 컨설팅	5,171	4,580	5,204
무료법률구조	445	494	401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	499	464	50
합 계	6,115	5,538	5,655

2019년도 동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활동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운영하였다. 전문가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5,204건과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상가보증금 및 상가 임대차 등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무료

법률구조 401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또는 2년 이상 매출액 연속 감소 소상공인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 후 신제품·브랜드 개발, 매장 환경 개선 등을 연계하는 역량 전프업 프로그램 50건을 포함하여 총 5,655건 지원하였다.

표 IV-3-1-6 | 연도별 지원성과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증가업체비율	65.2	63.3	65.1	66.7	66.9	58.2
매출증가율	7.1	7.3	7.4	5.8	10.6	8.7

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간 자율적인 조직화 및 협업을 유도한 후 공동의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인프라 구축과 영업활성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조합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협업체” 설립·운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7년차 지원 중에 있는 사업이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의 직접지원방식과는 차별화 된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지속적인 혜택을 누리는 새로운 지원정책이다.

지난 7년 간(2013년~2019년) 1,716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총 3,394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인프라 구축과 판로지원, 조합 간 네트워크 등 공동판로 확대를 지원하였다.

표 IV-3-1-7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개, %)

구분	예산	실적(3,394개)		성과 지원조합 조합원 평균매출액
		협업인프라	판로	
2013년	347	433	-	11.0% 증가
2014년	246	361	17	12.6% 증가
2015년	240	377	116	12.9% 증가
2016년	188	311	117	12.8% 증가
2017년	193	283	124	12.5% 증가
2018년	250	291	300	13.3% 증가
2019년	252	256	408	성과 측정 중('20.12월 결과 도출)
계	1,716	2,312	1,082	-

동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단계)협업목표 및 추진내용이 명확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합을 선정, 공동사업에 필요한 협업인프라 구축비(최고 5억 원)를 차등 지원하고, (2단계) 판로전문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공동판로 확대를 추진하며, (3단계)권역별(8곳) 협업아카데미 지정을 통한 소상공인 간 협업문화 및 협업체 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협업인프라 구축비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홍보), 공동장비구매,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 등)로 구성되며, 지원유형별 사업비를 5억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정부 80%이내 보조)

상반기에는 사업설명회(22회), 방송송출(2회), 지면홍보(9회), 홍보물(35,400개) 및 우수사례집 발간(3,000부) 등을 통한 정책성과 공유 및 정책홍보를 시작으로 협업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조합의 역량에 따라 일반형·선도형·체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심의 등 2단계 선발과정을 통해 정책취지(협업내용 등) 및 성공가능성(실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협업인식제고 교육(29회, 665명 수료)을 연계 지원하여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표 IV-3-1-8 | 지역별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인프라 구축 지원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신청	498	59	44	73	73	56	14	53	23	36	40	27
선정	277	22	36	28	42	29	6	31	14	20	23	26
지원	256	17	34	27	41	25	5	30	13	17	21	26

하반기에는 기존 지원조합들의 신규 판로채널 개척을 위해 소셜커머스, SB광고 등 온라인(48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판매전, 박람회 등 오프라인(327개)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해외수출 희망 조합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12개)을 지원하였다.

또한, 협업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4,502명) 운영 및 협업체별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전문컨설팅(500개), 협업체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네트워크(63회), 신규 협업체 설립을 위한 인큐베이팅(63개)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매출액 증가율,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56개의 일반형(240개), 선도형(14개), 체인형(2개) 협동조합을 발굴하였고,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협업체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최신 소비트렌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20년에는 협업아카데미 확대를 통해 기존 양적 확대 위주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자립적인 조합 운영을 유도하는 등 질적 성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고 규모화 된 협업체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 대한한약협동조합 우수사례 〉

- (설립개요) 2014년 / 15명 최초 설립 / 대표자 : 이진경
- (일반현황) 저품질 수입산 한약재 유입에 대응코자 한약재 유통업계 소상공인 15인이 모여 국내 우수한 한약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유통하기 위해 설립
 - * 매출액 및 고용인원 : ('14) 3.4억, 4명→('19) 42억, 8명
- (성공요인) 한약재 직접가공 및 생산능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안정화 실현, 조합원간 철저한 분업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 정부지원(장비,마케팅)을 통해 전국 2천여 개 한의원 등에 한약재 공급 및 시장 신뢰도 향상



4) 나들가게 성과확산

‘나들가게 사업’은 대기업 편의점 및 SSM의 무분별한 끌목상권 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설현대화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점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658개 끌목슈퍼의 나들가게 전환을 지원하였다.

사업 초창기 시설현대화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나들가게 사후관리와 성과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점포경영지원과’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전환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개³²⁾ 선도지역(26개 기초자치단체)을 선발

32) (2015년) 서울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 충북 제천시, 제주시, 경북 포항시, 강원 영월군
 (2016년) 서울 금천구, 경기도 안양시, 안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강원 춘천시
 (2017년) 서울 동작구, 경기도 시흥시, 광주시 남구,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전북 김제시·정읍시,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 창원시, 강원 원주시
 (2018년) 경기도 수원시, 전남 목포시, 광주시 서구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숍 육성, 점포경영개선, 점주역량강화교육, 지역특화 사업, 조직화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나들가게 선도지역 수혜 나들가게의 매출액증가율은 △3.3%로 전체 나들가게(△11.4%)에 비해 8.1%p 높게 나타나,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 온라인시장의 확대 등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나들가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신규 선정 없이 총 14개 선도지역(사후관리 포함)을 운영할 계획이며, 기 나들가게의 사후관리에 집중하고자 POS활용교육 1,000개, 부실 징후전포 전포맞춤형 컨설팅은 400개에서 500개로 확대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표 IV-3-1-9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개점지원	2,302	3,005	4,704	-	517	232	363	254	183	98	11,658
경영지원	-	-	-	1,611	1,807	1,816	734	956	1,200	1,659	9,783
선도지역	-	-	-	-	-	309	738	884	915	979	3,825

표 IV-3-1-10 | 연도별 지역별 나들가게 전환 지원실적

(단위 : 개, %)

구분	'10년	'11년	'12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개)	비율 (%)
서울	341	408	656	64	16	49	35	17	6	1,592	13.7
부산	135	136	242	24	4	3	4	4	2	554	4.7
대구	139	216	281	10	10	9	8	3	2	678	5.8
인천	150	163	278	15	6	14	6	4	2	638	5.5
광주	92	156	229	31	2	3	5	12	5	535	4.6
대전	70	76	146	15	9	4	4	2	2	328	2.8
울산	93	79	106	9	10	7	0	2	1	307	2.6
세종	2	2	4	-	-	-	1	0	0	9	0.1
경기	370	563	829	66	47	94	69	52	21	2,111	18.1
강원	55	147	274	19	12	29	31	11	2	580	5.0
충북	126	157	233	72	15	20	11	12	4	650	5.6
충남	113	148	171	25	7	7	3	6	2	482	4.1
전북	187	199	329	20	10	30	8	7	6	796	6.8
전남	122	170	207	32	15	19	13	13	13	604	5.2
경북	167	193	312	46	31	49	24	12	11	845	7.3
경남	106	137	295	28	24	15	28	25	19	677	5.8
제주	34	55	112	41	14	11	4	1	0	272	2.3
전국	2,302	3,005	4,704	517	232	363	254	183	98	11,658	100

5) 중소기업 공동구매

정부는 기 지원된 1만개 나들가게 등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소매점포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단체 중심의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복잡한 유통단계의 축소와 조직화된 단체의 구매력을 통합함으로써, Buying-power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물류센터 운영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단체 중심의 공동구매 추진을 위해 배송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2019년 9개 물류센터에 배송장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물류센터의 월평균 매출 3.51%p가 증가하였다. 또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공동구매 및 도매물류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건립된 물류센터 외 기 건립된 물류센터에도 물류센터 전용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인본부 구축 및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조직화·체인화를 통한 동네슈퍼 자생력 제고 및 체인사업 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상품 공급 능력이 있는 지역 슈퍼조합 및 전국단위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인본부 기능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기반조성·체인구축으로 이원화하여 총 10개의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2개의 슈퍼마켓연합회에 대해 차등 지원하여 협업점포 매출이 0.87%p 증가하였다.

표 IV-3-1-11 |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통합 정보시스템 보급 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물류센터수	2	1	7	5	4	3	3

나들가게와 물류센터 간 POS기반의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은 2013년 100여개 점포에서 2019년 12월 기준 1,037개 점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지속적인 POS활용교육을 통한 사용률의 증가로 2019년도 274.5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또한, 나들가게의 안정적인 상품공급처 확보 및 매입가 절감을 위해 물류센터 외에도 11개³¹⁾의 민간 상품공급사를 운영 중으로, 2019년 462억 원 규모의 상품을

33) 나들가게 민간 상품공급사 : (주)나들리테일, (주)나들커뮤니케이션, aT사이버거래소, (주)티एम, 수협중앙회, 코레일유통(주), (주)아신, 대경인터내셔널,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 (주)에스아리아, (주)우린

나들가게에 공급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상품공급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기존공급사 7개 업체 외에 신규 공급사(4개)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그 중 2개사는 가정간편식 분야로 상품 구색 다양성 확보 및 신규 고객 유입에 따른 전포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6)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음식업, 숙박업 등 일부 생계형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과당경쟁 및 수익성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자원제약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성공창업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하거나, 가맹점만 20개 이상을 운영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역량, 가맹점 지원역량, 가맹계약 공정성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가맹본부 특성, 계약특성, 가맹점지원, 관계, 시스템성과 등 5개 범주를 평가한다. 이는 가맹점 보호 중심의 평가체계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맹 본부와 가맹점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생 발전을 지향하는 평가 제도이다. 평가 전수에 따라 가맹본부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맞춤형 연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준평가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42개 업체를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하였다. 2019년에는 39개 브랜드에 대한 수준평가와 641명에 대한 연계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

‘17년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가맹본부-가맹점의 상생발전 기반마련을 위해 시스템 구축, 브랜드디자인·IT환경구축 분야를 지원하였고, '19년 15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다)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

'17년부터 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 중소프랜차이즈 성장지원, 수준평가 연계지원 등을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으로 일원화하였고, 2019년에 5개 유망 소상공인의 시스템 구축, 브랜드디자인·IT환경구축 등을 지원하였다.

다.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과밀업종인 생계형 업종에서 특화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안정적 폐업을 통해 인규근로자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혹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전직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 신규 추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바탕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재기교육 등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단계에서 폐업이후 단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으로 폐업단계에서는 폐업절차, 절세 및 신고사항, 철거 및 원상복구 등 '사업정리컨설팅'과 취업성공 사례, 직업정보 탐색 등 취업기본역량을 제고를 위해 '재기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이후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를 발급하여 전직까지 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수수료 후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소득세별도)까지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업정리컨설팅 4,132명(전포철거비 연계지원 636건 포함), 재기교육 4,026 등 총 8,158건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사업정리컨설팅 8,175건, 점포철거비 4,583건, 재기교육 7,056건 등 19,814건을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요건을 간소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기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하여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준비된 폐업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표 IV-3-1-12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명)

사업실적 \ 사업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예산	38	89	85	95	344
수혜자수	3,701	9,047	7,478	8,158	19,814
전직장려수당 지급	1,254	5,192	5,473	4,049	7,609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1,975	4,446	4,304	2,807	5,274

2) 재창업패키지

재창업패키지는 과밀경쟁업종인 생계형 업종에서 탈피하여 비과밀, 융·복합, 특화, 유망 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의 재도전 여건을 마련하고자 2015년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폐업(또는 예정)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업종에 대한 이론 및 업종 전문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e-러닝교육(10시간)과 업종전문교육(50시간) 등의 재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수료 후 희망자에 한해 멘토링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사업전환 및 재창업 희망자 총 6,412명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폐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표 IV-3-1-13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건)

사업실적 \ 사업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예산	1,050	5,220	5,000	4,000	7,500	
수혜자수 (명)	재창업교육	589	3,002	2,608	2,984	5,214
	멘토링	30	1,250	950	533	1,198
	총합	619	4,252	3,558	3,517	6,412

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7년 국정과제(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에 반영되어 2018년에 신규 도입된 사업이다.

2018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2등급인 자에게 납부보험료의 50%를 지원(2년)하였으나, 2019년에는 지원대상을 1~4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차등(1~2등급 30%, 3~4등급 50%)하였으며, 지원기간도 확대하였다(최대 3년).

2019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1인 소상공인 총 5,547명을 지원하였으며,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폐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향후에도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업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집적지 활성화 및 소공인 경제력을 제고하는 하는 한편, 개별 소공인들에게는 관련 전시·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기술경쟁력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제품 및 기술개발 및 협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소공인특화센터 설치·운영사업은 집적지³²⁾ 소공인에게 특화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운영(소공인 단체, 지자체 산하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집적지 소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6개 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 8개 센터, 2015년 24개 센터, 2016년 36개 센터, 2017년 32개 센터, 2018년 34개 센터, 2019년에는 34개 센터로 확대 운영

34)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특정한 공간에 모여 있는 지역을 의미

하였다. 소공인특화센터 운영을 통해 소공인 상담 및 특화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맞춤형 특화사업, 정책서비스 추천 등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표 IV-3-1-14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명)

사업실적 \ 사업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운영센터수	8	24	36	32	34	34
지원예산	2,800	10,400	14,250	12,440	12,405	13,183
수혜자수	2,233	3,416	4,527	5,614	5,998	5,026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교육 실시 및 지역 중심의 사업 추진 등 현장 직접 지원과 사업 내실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림 22 | 소공인특화센터 우수사례(문래동 소공인특화센터)



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서,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장비실, 전시·판매장 등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 전국 소공인특화센터 관할지역 중 10개 집적지에 공동장비실, 공동 전시장, 공동창고, 교육실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광역시·도로부터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받아 인프라 구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까지 9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기초) 총 23곳의 집적지구가 지정되어 소공인의 공동브랜드 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동전시장을 구축하여 판로를 확보하고 바이어 상담, 수출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공인의 제조공정 단축, 공동구매한 재료를 사용한 비용절감, 정밀장비를 활용한 제품 부가가치 제고 등 소공인의 공정개선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신규로 8개 내외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표 IV-3-1-15 | 2015년-2017년 구축 공동인프라 현황(10개소)

시설명	인프라 구축현황
서울 창신동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장비실·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재단실, 장비실, 전시장, 교육실, 사무실 • (장비) 봉제장비, 연단기, CAD/CAM, 사무집기 등
서울 석관동 의류봉제 소공인 공동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전시장, 상담·회의실, 사무실 • (장비) 전시장비, CAD/CAM, 빔프로젝터 등
대전 정동 인쇄 소공인 공동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동창고, 교육실, 사무실
부산 범천동 귀금속 소공인 공동장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상담·회의실 • (장비) 파괴분석기, 용접기, 3D프린터, 3D캐드 등
부산 범천동 수제화 소공인 제품홍보관·장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전시장, 상담·회의실 • (장비) 전시장비, 촬영장비, 3D프린터, 사무집기 등
서울 봉익 주얼리 소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상담·회의실 • (장비) 용접가가공기, RP 출력기
화성 향남 기타기계 공동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교육실 • (장비) 음향영상장비, 교육용 기구
부천 신흥 전기장비 공동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 (장비) EMI·ESD 시험장비, 쉴드룸 등
대구 성내 주얼리 공동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 (장비) 3D프린터, 레이저가공기 등
전주 팔복 금속가공 공동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공용장비실 • (장비) 머시닝센터, 3차원측정기 등

표 IV-3-1-16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현황(23곳)

집적지구명	분야	선정기관
서울 문래 기계금속집적지구	기계금속	서울특별시
서울 종로 주얼리집적지구	주얼리	
서울 성수 수제화집적지구	수제화	
청주 인쇄출판집적지구	인쇄·출판	
경기 시흥 대야·신천 기계금속집적지구	기계금속	경기도
경기 양주 남면 섬유제품집적지구		
경기 용인 영덕 전자부품집적지구		
부산 범일 의류집적지구집적지구	의류	부산광역시
강원 강릉 주문진 식료품집적지구	식료품	강원도
강원 강릉 산천 식료품집적지구		
강원 강릉 인제 북면 식료품집적지구		
서울 독산 의류집적지구	의류	서울특별시
서울 성북 의류집적지구	의류	
경기 군포 1동 금속가공집적지구	금속가공	경기도
경기 포천 가산면 가구집적지구	가구제조	
대구 대봉1동 의류집적지구	의류	대구광역시
경기 화성 향남읍, 팔탄·정남면 기타기계 집적지구	기타기계	경기도
경기 성남 상대원동 식료품집적지구	식료품	
경기 안양 관양동 전자부품집적지구	전자부품	
광주 서남동 인쇄집적지구	인쇄	광주광역시
경남 김해 진례면 도자집적지구	도자	경상남도
전북 순창 순창읍 식료품집적지구	식료품	전라북도 순창군
대구 성내동 주얼리집적지구	주얼리	

3)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수익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몰 입점, 전시·박람회 참가, 동영상·카탈로그제작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5년 처음 실시하여 전국의 유망 소규모 제조업체 1,462개사(2015년 209개사, 2016년 201개사, 2017년 479개사, 2018 312개사, 2019년 261개사)를 선정·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지원 전과 대비하여 월평균 매출액이 10% 이상(2015년 10.4%→2019년 16.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자사제품을 직접제조하기 보다는 OEM·ODM 생산하거나 아웃 소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신제품을 개발 하여도 판로가 없어 사장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동 사업으로 자사제품의 판로확대를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에는 지원항목별 지원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공인의 수요에 따라 지원한도 총액 내 신청을 지원하고, 사업 수행기간을 확대하여(6개월→8개월) 온·오프라인몰 판매 기간을 확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소공인의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이다.

4)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사업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보유기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공인의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보유 기술제품의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공인의 기술개발 지원의 정책목적성 강화를 위해 지원유형을 4개 분야로 다양화하고 우수 소공인을 우대하였으며, 2017년 ① (대중명품프로그램) 소공인에게 무형문화제, 예술인, 디자이너 등과 연계한 융합 지원으로 무형문화제 전수자(25명)와 예술분야 및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32개사)로 풀을 구축하여 25개사 소공인에 대중명품화를 지원 ② (기술개발 협업 지원)을 통해 소공인간 수익모델 창출(공동·생신활용)이 가능한 협업과제를 지원하여 28개 소공인으로 구성된 10개의 협업과제 개발을 추진 ③ (기술성장프로그램) 기술개발, 생산공정 개선 등 소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28개사 소공인의 과제발굴 및 개발 추진 ④ (생산정보체계구축)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에 자동화·정보화 시스템 활용 공정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20개사를 재고관리·공정연계시스템 구축 지원하여 그 결과, 2017년 85개 소공인을 선정·지원하여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대비 15.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8년 제품기술 향상지원 58개, 생산정보체계 구축 25개, 2019년 기술혁신 12개, 제품개선 52개, 공정개선 5개 소공인을 선정·지원하여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대비 2018년 12.8%, 2019년 15.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에는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작업현장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혁신 전략 및 기술성장 지원을 통한 혁신 소공인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 시장경영혁신지원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마케팅, 상인교육, 온누리상품권, 특성화시장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정적 영업 기반을 확보하고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1)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시장경영바우처지원은 기존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5개 사업을 통합·개편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본 사업은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하고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설계·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전년도 하반기에 모집 후 중소벤처기업부 13개 지방청에서 지역별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상점가는 5개 사업 부문(마케팅, 교육, 자문,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중 희망 사업 부문을 선택하고, 부여받은 예산(바우처)을 희망사업부문에 자율 편성(분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에는 121억원의 예산으로 345곳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지원하였으며, 개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 ‘전통시장 가을축제’, ‘시장경영바우처 컨퍼런스’, ‘시장매니저 직무교육’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기존 5개 사업 부문 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 적용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사업 추진시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전통시장홍보

①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15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국내 최대의 전통시장 행사이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상품을 전시·홍보·판매하여 전통시장 인지도 제고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한다.

2019 전국우수시장박람회(16회)는 10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3일간, 울산 동천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160개 전통시장 및 유관기관이 참가하였다. 3일간 개최된 박람회에서 관람객 18만 명, 매출액 19.9억 원, 77점의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이 수여되었다.

금년 2020 전국우수시장박람회(17회)는 10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② 지역상품전시회

지역상품전시회는 지역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을 발굴·소개하여 상품 홍보 및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우수상품 교차전시를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 총 8개 지역에서 지역상품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관람객 46.2만 여명, 매출액 21.6억 원이 발생하였다.

2020년 지역상품전시회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총 9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③ 6시 내고향

6시내고향 사업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주 고객층이 주로 시청하는 '6시내고향'에 전국 각 지역 전통시장의 매력 및 특화 상품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연중 매주 금요일 18:00~18:55분 동안 방영되었으며, 우리 시장은

처음이지? 등 정규방송 44편, 추석특집,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등 특집방송 2편 총 46편이 제작·송출되었다.

2020년에는 연중 매주 목요일 18:00~18:55분 동안 방영될 예정이며, 정규 방송 44편 및 특집방송 2편 총46편이 제작·송출될 예정이다.

표 IV-3-1-17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회, 편)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제작 및 송출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0회 (정규 46편, 특집 4편)	총 52회 (정규 43편, 특집 4편 등)	총 46회 (정규 44편, 특집 2편 등)

④ 지역민방

지역민방 사업은 지역민방방송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의 편리성, 지역명물, 시장 맛집과 같은 정보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역밀착형으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광주(KBC), 경인(OBS), 대전(TJB), 울산(UBC), 강원(G1), 충북(CJB), 제주(IBS), 경남(KNN) 등 8개 민영 방송사를 활용하여 총 215편(정규 196편, 기획 19편)을 제작하여 송출하였고, 2020년에는 경쟁을 통해 9개 내외 지역민방방송사가 총 180회(정규 162회, 기획 12회) 이상 송출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⑤ 전통시장 홍보모델 발굴사업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중장년층의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청년 등 다양한 신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각 세대를 대표하는 모델을 선발 및 활용하여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홍보모델 선발 과정을 언론 및 인터넷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대국민 흥미유발 및 전통시장 관심도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20년에도 대국민 전통시장 인식 제고를 위해 선발된 전통시장 홍보모델을 대상으로 포스터, 리플렛 등 이미지 촬영 및 전통시장 홍보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

* (2020년) 아동 4명, 청소년 4명, 청년 6명, 장년 4명, 중년 4명, 실버 3명 등 총 25명 선발

⑥ 시장하시조

기존 지면을 활용한 홍보는 지양하고 유튜브, 블로그 등 파급력이 강한 온라인 기반 홍보 변화를 위해 2020년 신설된 사업으로, 홍보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및 유명관광지를 연계하여 홍보하고, 매출 및 고객 증대 마케팅 성공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벤치마킹을 유도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 촉진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카카오프러스 친구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상인대상 정부정책, 주요이슈 등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3)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공동상품권을 발행 및 유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2009년 7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공동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였다. 2009년 200억 발행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2조 74억을 발행해 1조 6,853억을 판매했으며(발행누적 8조 4,271억, 판매누적 7조 7,463억), 소비자 및 상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1,470개 가맹시장과 195천개 가맹점, 취급 금융기관 14곳을 확보하였다. 특히, 전통시장의 신규고객층 유입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2019년 9월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신규 도입하여, 현재 지류상품권(5천원권, 1.3만원권), 전자상품권(5·10만원 기명식, 충전식), 모바일상품권(5천원권, 1.3·5·10만원권)을 발행·공급하고 있다.

표 IV-3-1-18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발행액	200	900	2,400	4,060	5,000	6,360	7,381	10,030	12,850	15,016	20,074
판매액	105	753	2,224	4,258	3,258	4,801	8,607	10,946	10,743	14,916	16,853
가맹시장	739	912	1,021	1,202	1,249	1,284	1,312	1,326	1,330	1,415	1,470
지원예산	10	27	64	149	321	360	732	797	792	1,080	1,768

4) 성과평가 및 실태조사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상인 조직, 매출액 등 일반 및 경영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2018년 전통시장 수는 1,437개로 전년 대비 13개가 감소하였고,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은 5,409만원으로 전년 대비 284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승인 제309002호)

표 IV-3-1-19 | 전통시장 실태조사 연도별 일반 현황

(단위 : 개, 명, 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통시장수	1,347	1,372	1,398	1,439	1,441	1,450	1,437
점포수	194,750	203,036	203,643	207,083	209,193	209,884	205,271
총 상인수	333,485	334,370	353,070	356,176	368,930	363,660	359,049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4,755	4,648	4,672	4,812	4,988	5,125	5,409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가능할 수 있는 주요 척도인 매출액 증감 여부를 정부 지원을 받은 실시시장과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미실시 시장으로 구분해 공표함으로써, 정부지원 사업의 정책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2018년 실시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79,283원이 증가하여 5,424원 감소한 미실시 시장에 비해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20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평가

(단위: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	증감률
실시시장	479,628	558,911	79,283	16.5
미실시시장	263,040	257,615	-5,424	-2.1

바.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 밀집 및 시설이 노후한 상가건물 등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전통시장에 대해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소방·전기·가스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전국 전체 전통시장의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관련 주기적·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상인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는 상인회 및 관할지자체와 공유하여 자율개선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개·보수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및 캠페인 개최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홍보를 통해 상인들의 안전의식 수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도부터는 시장별 안전등급제를 도입하여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른 안전등급(A~E)을 부여하여 개별시장의 취약정도 등 현황 파악 용이 및 D~E 등급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및 협력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전진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3년 단위의 지속적·주기적 전진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거하여 분야별 전진기관의 법정점검과 통합 운영하여 전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안전전진 성과제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자체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였다.

표 IV-3-1-21 |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예산	445	1,220	2,972	2,972	2,972	2,272	2,458
대상시장수	200	501	773	747	357	382	433

* 2013~2015년 1차 전체시장 전수점검 완료, 2016~2018년 2차 전체시장 전수점검 완료

참고 분야별 안전등급 현황

○ 소방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제외*
시장수(개)	9	97	160	70	40	3
비 율(%)	2.3	19.6	36.3	26.6	14.5	0.7

* 시장 미운영, 철거, 점검대상 설비 無, 기존시장과 공동운영 등

◆ 안전등급 기준

- 배점 = 진단 전문가 평가 점수(60%) + 설비별 점검결과 점수(40%)
- 등급별 점수

등급	총점	내용
A	90 이상	설비가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관리상태 우수
B	80이상-90미만	설비가 일부 미흡하지만 전반적인 설비의 신뢰도는 양호한 시장
C	70이상-80미만	설비가 일부 미흡하나 개선을 통하여 신뢰도 회복이 용이한 시장
D	60이상-70미만	설비가 기준에 미달,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일정 수준의 개선이 요구
E	60 미만	설비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상당한 수준의 개선 요구

○ 전기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제외*
시장수(개)	27	374	20	0	0	12
비 율(%)	6.2	86.4	46	0	0	2.8

* 시장 미운영, 철거, 점검대상 설비 無, 기존시장과 공동운영 등

◆ 안전등급 기준배점

- 배점(설비안전도) = 전기적요소(70%) +환경적요소(30%)
- 등급별 점수

등급	총점	내용
A	90 이상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
B	80이상- 90미만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
C	70이상- 80미만	시설물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危害)요소가 일정 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
D	60이상- 70미만	중대한 부적합사항 발생으로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60 미만	중대한 부적합사항 3개 이상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와 사용제한이 필요한 상태

○ 가스분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점검제외*
시장수(개)	133	70	46	51	117	16
비 율(%)	30.7	16.2	10.6	11.8	27.0	3.7

* 시장 미운영, 철거, 점검대상 설비 無, 기존시장과 공동운영 등

◆ 안전등급 기준

- 배점 = 전통시장 내 가스사용 업소(점포)에 대한 부적합 업소와의 비(부적합율)
- 등급별 점수

등급	내용
A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10% 이하로서 주요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
B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10% 초과 ~ 20% 이하인 시설
C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20% 초과 ~ 30% 이하인 시설
D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30% 초과 ~ 40% 이하인 시설
E	가스사용 업소(점포)중 부적합율이 40% 초과하는 시설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내 조기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을 감지하고 소방관서·상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케 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등록, 인정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장 영업점포의 30%이상인 신청·동의 및 민간부담금이 확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전통시장 구조 및 특성에 따라 개별 및 공용부분에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개별 전포형과 건물구조가 개방되어 있어 공용부분에만 설치를 지원하는 오픈전포형으로 구분한다. 총사업비는 개별점포 및 공용부분을 합쳐 1점포당 최대 8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국비 70%와 민간부담금 30%로 구성된다.

2017년 6개 시장에 시범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구축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IV-3-1-22 | 유형별 지원내역 및 한도

구분	설치내역	지원한도(국비 기준)
개별점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점포 : 감지기(유·무선) ○ 공용부분 :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당 최대 '56만원 x 신청점포수 산출금액' 이내 (개별점포+공용부분=56만원) * 국비 70%, 민간 30%
오픈점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부분 : 감지기(유·무선),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노후전선을 정비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등록, 인정시장 및 상권 활성화구역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장 영업전포의 30%이상이 신청·동의 및 민간부담금이 확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개별점포의 노후 전기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점포당 최대 25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국비 50%와 지방비를 포함한 민간부담금 50%로 구성된다.

2019년 신설되어 전통시장 개별점포의 노후된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을 개선하였으며, 전국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를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3)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7년 1월 상품 판매를 개시하여 향후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등록, 인정시장 내 점포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벌금의 특약 상품을 추가해 건물, 시설, 재고자산, 타인의 신체 및 재물 까지 폭넓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상품 보장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가입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장기계약을 도입하였다. 소멸성 상품이며 가입한도는 6천만 원(건물 3천만, 동산 3천만)이다.

표 IV-3-1-23 |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예시(1년 주계약 기준)

구분		2천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A급	연 66,000원	연 132,000원	연 198,000원
	B급	연 101,500원	연 203,000원	연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음식물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1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 30만원		
	화재벌금	- 추가공제료 : 연 100원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보상 (형법 170조) 1.5천만원 / (형법 171조) 2천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26,600원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 10만원		

* 건물구조급수(A/B급) : 건물의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는 등급

* 가입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건물/동산 각 3천만원)

사.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1)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조성, 청년상인 창업교육, 전포 임차료 및 인테리어 지원,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6년 14곳 시장, 2017년 12곳 시장, 2018년 9곳 시장을

선정하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집적지구를 조성했고, 2019년에는 4곳 시장을 선정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3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청년몰당 지원 금액은 점포 20개 기준 15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지원되었으나, 2018년부터 기존의 청년상인들만 입점하던 청년몰 지원에서 확장되어, 청년몰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원금액도 최대 30억 원(매칭비율 동일)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3-1-24 | 청년몰 조성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예정)	2020년(예정)
지원시장 수	14	12	9	4	3

2)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기 지원한 청년몰의 시장안착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몰의 홍보, 마케팅, 교육 등 S/W중심의 청년몰 활성화지원과 시설개보수, 추가공간조성 등 확장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활성화지원 16곳과 확장지원사업 8곳을 지원했고, 2019년은 활성화지원 3곳과 확장지원 3곳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활성화지원 7곳과 확장지원 3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몰 활성화지원은 1년간 3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며, 청년몰 확장지원은 1년간 1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지원되고 있다.

표 IV-3-1-25 | 청년몰 활성화·확장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 분	2018년	2019년(예정)	2020년(예정)
활성화지원	16	3	7
확장지원	8	3	3

3)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 전통 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창업에 따른 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20개 시장 218개 점포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21개 시장 178개 점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14개 시장 112개 점포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중앙에서 별도 모집하여 45개 점포를 입점 지원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40백만 원이었으며, 2018년에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다.

표 IV-3-1-26 | 청년상인 창업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2018년
지원시장 수	20	21	14	중앙모집
지원점포 수	218	178	112	45

4)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청년상인의 경영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VMD, 제품, 포장디자인 개선, 특허법률,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48곳, 2018년 107곳, 2019년 222곳을 지원했으며, 2020년에는 200곳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표 IV-3-1-27 |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정)
지원점포 수	48	107	222	200

5) 청년몰 대학협력

청년몰(전통시장)-대학협력 사업은 대학의 전문인력, 지식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시장 맞춤형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이다. 2019년부터 대상이 청년몰로 한정되어 청년몰의 에로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개편되어 기존 전통시장(2년차) 4곳, 청년몰 8곳을 지원하고 있다.

아. 상권활성화

최근 구도심 쇠퇴와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상권 위축 등의 문제가 개별 시장만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11년 6곳, 2014년 신규구역을 선정해 2016년까지 지원하였다.

이후 지역상권법이 발의되면서 새로운 법에 따른 상권활성화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상권활성화 지원이 일시 중단되었다. 이후 기존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지원을 재개하며, 이전의 지원이 3년간, 30억 원(국비 50%, 지방비 등 50%)로서 사업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 5년간, 80억 원(국비 50%, 지방비 등 50%)으로 확대했으며,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이 붙여졌다.

이에 따라 '18년에는 3개, '19년 9개 구역을 선정하였고, '20년에는 약 7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상권환경개선(거리정비, 주차장 설치 등), 상권활성화(상인교육, 이벤트 등)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와 소상공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IV-3-1-28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곳)

구 분	상권활성화구역		상권르네상스		
	('11년~'13년)	('14년~'16년)	('18년)	('19년)	('20년)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수	6	6	3	9개	7개 예정

* 상권활성화구역 : 서울 마포 도화용강 상점가 활성화구역, 경기 성남 수정로활성화구역, 강원 동해 활성화 구역, 충북 청주육거리·성안길 상권, 부산 동구 조방앞 상점가, 경남 창원 오동동어시장 상권, 경기 성남 산성로활성화구역, 경기 의정부 구도심 활성화구역, 충남 부여도심 활성화구역, 전남 순천 원도심 활성화 구역, 울산 울주 연양시장 일원 활성화구역, 부산 해운대 활성화구역

* 상권르네상스 : 대구북구 칠성종합상권활성화구역, 경기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구역, 전남 강진 중앙로상권 활성화구역, 경남 진주 중앙상권활성화구역, 광주 서구 양동 상권활성화구역, 충남 천안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경기 구리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공주 산성상권활성화구역, 군산 구도심상권활성화구역, 관악 별빛 신사리상권활성화구역, 연세 오방상권활성화구역, 정선 아리랑상권활성화구역

자. 특성화시장



1)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는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시장의 롤모델이자 지역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 협업사업의 기준이 되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특화요소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시장)'으로 일부 개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V-3-1-29 | 희망사업프로젝트(지역선도형) 선정시장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선정수	4곳	7곳	2곳	1곳	1곳
시장명	(서울)수유마을시장연합 (인천)신기시장연합 (강원)정선아리랑시장 (경북)안동구시장연합	(부산)정미있는구포시장 (광주)양동복개업합 (경남)의정부저일시장연합 (충북)충주자유무학시장 (충남)공주산성시장 (전북)부안상설시장 (경북)구미새마을 중앙시장연합	(강원)속초종합중앙시장 (전남)순천아랫장	(충남)서천특화시장	(대구)신매시장

참고 | 지역선도시장 '18~'19년 우수사례

지역사회 상생		(정미있는 구포시장) 지역 특징(육아연령多)을 고려한 부산 최초 공공형 키즈카페 '곰꾸는 다락방' 조성, 어린이 참여 행사(미술대회, 경제체험단) 개최 등 지역 커뮤니티 상생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연계		(공주산성시장) 오랜 역사를 함께한 전통시장과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시장모객을 위한 콘텐츠 개발등으로 문화연계행사 추진, 랜드마크를 조성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의 자원(관광·문화·예술·특산품)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간조성, 관광 상품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2018

년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으로 부분 개편하여 신규시장 31곳 및 2~3년차 계속시장 57곳을 지원하였고, 시장의 고유브랜드 개발, 지역관광지와 연계, 스토리텔링 도입 등으로 시장매출 증대 및 고객유인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20곳을 포함한 42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19년도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에서 도약한 16곳을 포함한 45곳의 신규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표 IV-3-1-30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신규선정 수	4곳	6곳	8곳	6곳	15곳	32곳	23곳	33곳	22곳	35곳	31곳	42곳	45곳	302곳

표 IV-3-1-31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중점지원사항 변경내역

시행시기	내 용
2008년~2009년	시설현대화 사업과 혼합하여 하드웨어 위주
2010년~2012년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장터 공연단, 시장라디오 등 소프트웨어 사업위주
2013년~2017년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ICT 및 디자인 융합 등 휴먼웨어 중심
2018년~	희망사업프로젝트를 도입하여 특성화기반이 확립된 시장에 한해 특성화 집중 지원

참고 | 문화관광형시장 '18~'19년 우수사례

관광 연계		(망원시장) 인근 관광지 망리단길 먹거리 탐방, 성지 순례 코스등의 상생발전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시장 인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발전하는 시장으로 육성
문화 접목		(역곡상상시장) 시장내 만화갤러리를 설치하여 상상만화마을 조성, 부천국제만화축제와 연계한 시장통로 만화 전시회 등 다양한 만화 콘텐츠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고객체험형 시장으로 발전

3) 특성화 첫걸음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은 기반조성사업과 컨설팅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반조성사업은 3대 고객서비스 혁신(편리한 결제, 고객신뢰, 위생 청결)과 2대 역량강화(상인 조직역량, 화재 안전관리)를 통해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대체하여 신설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 34개 신규시장을 선정·지원하였다. 특히 해당사업은 1년간의 사업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우수한 곳은 희망사업프로젝트(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2019년도에 신규시장 30곳을 선정하여 지원 하였다. 2020년도에는 신규시장 30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첫걸음 컨설팅사업은 특성화 기반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이 미흡한 곳을 대상으로 기초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시장 원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24개, 2019년에는 31곳을 지원 하였고, 2020년도에는 2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IV-3-1-32 | 연도별 지원실적

구분	'18	'19	'20	계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34곳 (20곳 도약)	30곳 (16곳 도약)	30곳	94곳
첫걸음 컨설팅사업	24곳	31곳	20곳	75곳

참고 | 특성화첫걸음시장 2019년 우수사례

고객 서비스 강화		(전남 완도5일시장) 상인이 직접 참여하는 5대 혁신 과제 개선 활동을 통해 고객 서비스 수준과 상인 자생력 강화로 카드 결제율 93% 달성, 가격·원산지 표시 90% 달성
결제편의 개선		(경남 마산어시장) 시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격·원산지 안내 및 지역주민 참여유도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100% 달성, 제로페이존 가맹을 90% 달성

차.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체감 및 예상경기를 파악하여 정보수요자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용자 지원업체 사전진단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효과,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1)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별 맞춤형 정책 및 창업·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인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2007년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에는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소상공인마당 자영업 혜택계산기를 통해 비용·인건비 부담 완화계산기, 사회안전망 지원혜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SNS(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연동을 통해 간편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뉴스, 정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였다.

이처럼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일일콘텐츠를 강화하여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마당 앱 '19년 총 23,384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이용자의 만족도(5단계척도, '만족' 이상)는 최근 3년 평균('16년~ '18년) 89.7% 대비 3.4%p를 상위하였다.

표 IV-3-1-33 |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추이(온라인조사)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용자 만족도	84.5%	90.1%	87.6%	90.0%	91.4%	93.1%

2020년에는 정보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웹 접근성 수준을 개선하고, 정보의 적시성 향상을 위해 SMS, 챗봇 등과 연계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2) 소상공인주간 활성화

가) 전국소상공인대회 개최

소상공인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혁신 의지를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07년부터 매년 '전국소상공인대회'를 개최해 왔다.

‘2020 전국소상공인대회’는 2020년 10월 31일, 부산시 일산시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으며,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146건의 포상을 수여하였다. 부대행사로 소상공인 판매관, 체험관, 업종별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행사 참가자들에게 우수한 소상공인업체를 홍보하고, 매출증대와 판로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제 4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소상공인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2020년에는 10월 31일 경상남도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소상공인 주간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추진 예정이다.

나)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소상공인의 우수기술을 발굴 및 전파하고,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업종별 기능경진대회’를 2013년 신규로 개최하였다.

2019년에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맞춤형복, 외식선물포장, 플로리스트, 펫산업, 피부미용, 이용사, 메이크업, 미용사, 분장예술, 제과 등 총 10개 부문과 13개 단체를 선정하여, 업종별로 특화된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6,278명의 소상공인과 일반인이 결선에 참가하고, 약 64,000명의 일반시민이 참관했다. 메인행사로 소상공인 기능경진이 이루어졌고, 부대행사로 업종별 기능전수부스, 작품전시관, 시식·체험·판매관 등이 진행됐다.

2020년에는 10월 30일~31일 경상남도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와의 공동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추진 예정이다.

3)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가)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는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체감경기 및 전망경기를 파악하여 정보 수요자들이 경기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현안 문제 해결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142004호, 2001년)

표 IV-3-1-34 | 기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표본수 변화

(단위: 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상공인	3,200	3,200	2,000	2,200	2,200	2,400	2,400	2,400
전통시장	1,300	1,306	1,000	1,000	1,000	1,300	1,300	1,300

* 기존 각각 실시하던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전통시장 경기동향조사를 2014년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로 통합

* 2017년 소상공인 표본 수는 제조업 추가, 전통시장은 지역별 지수 공표를 위해 각각 증가

소상공인은 제조업, 소매업, 음식전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계형 주요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정보, 경기전반·매출·영업이익·자금사정·원재료조달사정의 체감경기 및 전망경기 등을 조사한다.

전통시장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소매업 및 근린생활 서비스업 등 주요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체 일반정보, 경기전반·매출·영업이익·자금사정·원재료조달사정·구내고객수의 체감경기 및 전망경기 등을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매월 18~22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이다.

표 IV-3-1-35 |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추이

구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19.10	'19.11	'19.12	
소상공인	체감	58.8	61.7	73.3	69.8	69.7	65.6	61.1	59.1	76.4	74.9	69.1	66.4
	예상	80.6	81.4	96.0	95.3	87.0	82.1	80.7	77.4	92.0	96.2	94.2	85.8
전통시장	체감	50.7	59.5	62.4	58.1	64.6	57.0	48.4	42.0	84.6	68.7	76.5	65.4
	예상	82.3	88.0	91.3	91.7	84.5	80.0	73.8	79.2	102.3	93.1	99.8	85.3

나) 소상공인시장 정책조사연구

소상공인시장 정책조사연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본방침 하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도 함께 수행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독립된 정책영역으로의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전담연구센터의 설치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신규 정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분야의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연구’, ‘자영업 삶의 질 개선 연구’, ‘영세자영업자 4대보험 지원타당성 연구’,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연구기관 설치·운영 방안 연구’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동향 분석과 소상공인 영업현장에서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4)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IMF 외환위기 이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용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을 구축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부터 자금의 정책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V-3-1-36 | 연도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원업체	29,825	44,233	48,341	64,497	57,624	58,462	244,520
지원금액	10,305	14,939	17,550	22,450	20,575	22,045	85,819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혜업체 대상 조사결과³⁵⁾,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매출액 증가점포 비율은 79.9%, 고용증가율은('17년 대비 '18년) 8.1%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신규 고용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성장기반자금

성장기반자금은 제조기반 기술의 경쟁력 강화,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2019년에는 14,855개 업체에 7,227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탁 운영하였던 소공인 특화자금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규 운용하였고,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축진자금을 신설하여 장수 소상공인의 재성장 및 재도약을 지원하였다.

표 IV-3-1-37 | 2019년 성장기반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연도	예산	신청		대출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19년	6,800	17,106	11,931	14,855	7,227	106.3

나)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은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 산업위기지역 경영애로 해소,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9년에는 43,607개 업체에 14,818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 자금 지원을 위하여 13,871개 업체에 4,416억 원을 지원하였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감소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소상공인 대상 고용안정지원자금으로 3,680개 업체에 1,523억 원을 지원하였다.

35) 2019년 소상공인 용자사업 성과분석, 비스타컨설팅연구소, 2019.12

또한 자연재해(강원산불, 포항지진, 서울제일평화시장 화재), 사회규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자금 투입으로 2,014개 업체에 1,145억 원으로 신속한 경영복구를 지원하였고,

정부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 조선사 소재지역의 경기악화로 인한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특별경영안전자금으로 5,242개 업체에 1,753억 원을 지원하였다.

사회적 취약계층 경영안정화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영 및 시설자금을 111개 업체에 6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인해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제도전특별자금을 신설하여 537개 업체에 298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IV-3-1-38 | 2019년 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연도	예산	신청		대출		집행률 (금액기준)
		업체	금액	업체	금액	
2019년	12,700	66,478	32,057	43,607	14,818	97.8

다) 소상공인특별자금

영세 소상공인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대출과 대출금 상환을 연동한 대출연동상환자금을 신설하여 115개 업체에 24억 원을 지원하였다.

단, 소상공인의 대출공개 부담, 대출금 자동상환으로 인한 사업비 용통 어려움 등으로 수요가 부족하여 집행에 이रो사항이 있었으며, '19년에는 해당 자금을 폐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영 회복과 안정을 위하여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일반현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2002년 1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06년 동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기반 조성,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R&D사업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기능과 정보화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 보급 확산 및 부합화 지원,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수준평가,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 중소기업분야 R&D 사업 평가관리 기능이 일원화됨에 따라 모든 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따라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었다. 위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유망기술분야 발굴 및 확산, 수요자 중심의 평가관리체계 개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힘썼으며, 사업성 심층평가 확대 및 R&D 성공기업 사업화 지원·성과 확산,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사후조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성과 중심의 R&D 지원 및 관리 강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기준 9,044개 과제에 총 8,861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자생적인 성장,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인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1)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R&D 기획역량 및 자체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R&D 기획역량강화교육, 기획지원 및 외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R&D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R&D 기획지원 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은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으로 해결 및 기술혁신 R&D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18년도 목적예비비로 신규 추진되었다.

① R&D 기획지원사업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성공 가능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사전에 충분한 R&D기획 없이 기술개발에 착수한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동 사업은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제에 대해 기획 전문기관과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등을 분석·진단 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R&D기획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 쏠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구분된다.

R&D기획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7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53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수행 결과 우수과제는 R&D 사업으로 연계(선정)지원, 2017년부터는 희망하는 R&D 사업 신청 시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8년 342개 중 104개, 2019년에는 308개 중 97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고 대상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 가능한 사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일부(제품개선))에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하여 서면평가 면제 또는 가점 등으로 우대한다.

또한, 자체 기술개발이나 융자·보증신청, 기업 IR 등 다양한 분야에 R&D 기획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2020년에는 지원대상 조정 및 지정 기획기관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R&D 기획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외지역 및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교육·코칭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표 IV-4-1-1 | 연도별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2~2007	2008~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획	과제수	1,406	560	153	169	154	204	178	179	342	308
지원	금액	215	165	35	35	40	50	45	50	45	46
R&D	과제수	-	338	85	98	92	82	85	108	104	97
사업	금액	-	1,080	252	337	311	263	245	-	-	-
연계											

* '16년까지는 R&D사업으로 연계(선정), '17년부터는 연계추천(우대사항 적용)으로 변경

한편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2014년 시행이후 2019년까지 총 17,595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87회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4,389명(온라인교육 : 2,565명 포함)이 수료하였다.

2019년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자 만족도 조사결과, 추천 의향도는 86.3점, 전반적인 만족도는 88.0점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4-1-2 | 연도별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교육과정	2016		2017		2018		2019		합계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정규	23	981	29	1,248	26	957	77	1,502	155	4,688
방문형	10	385	6	301	5	194	4	114	25	994
협약설명회	-	-	-	-	4	320	4	165	8	485
IP역량강화	-	-	-	-	2	75	2	43	4	118
세미나	-	-	-	-	1	57	-	-	1	57
온라인	-	1,479	-	2,097	-	2,533	상시	2,565	-	8674
계	33	2,845	35	3,646	38	4,136	87	4,389	193	15,016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소기업은 자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기술애로 해결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외부 고급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박사급 고급 연구개발인력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분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의 기술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 사업은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 등 산학연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공학컨설팅센터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에 국·공립대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던 공학컨설팅센터를 2018년도에는 우수 사립대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기술애로 지원을 강화하였고, 특히, 2019년에는 9개의 공학컨설팅센터(대학 8개, 출연연 1개)로 확대하고 지정범위를 출연연까지 넓힘으로써, 더욱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현장중심의 기술애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IV-4-1-3 | 2019년 공학컨설팅센터별 지원실적

(단위 : 건, %)

구 분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선정과제		
	접수	비율	접수	비율	선정	비율	
서울/경기/강원	인천대	96	12.9	65	12.9	18	10.7
	한성대	53	7.1	28	5.6	16	9.5
	가천대	69	9.3	46	9.2	18	10.7
대구/경북	금오공대	130	17.5	95	18.9	25	14.9
	대구대	48	6.5	35	7.0	18	10.7
부산/울산/경남	창원대	99	13.3	66	13.1	25	14.9
대전/충청	한밭대	97	13.1	63	12.5	18	10.7
호남/제주	전북대	126	17.0	86	17.1	20	11.9
출연연	에너지기술연구원	25	3.4	18	3.6	10	6.0
	총계	743	100.0	502	100.0	168	100.0

2)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

중소기업이 시장 다변화 및 소비자 기호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개선을 통한 신속한 시장 대응이 필수적이나, 다수 중소기업은 자금·인력·설비 등의 부족으로 시장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등의 기술개발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단기간(1년 이하)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공정개선은 공정기술개발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며, 제품개선은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제고를 지원하고, 총사업비의 75%이내를 지원한다.

2015년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대상 전용 R&D를 신설하여,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 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의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조선·IT 등 他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는 뿌리 산업은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로 국내 주력산업 및 신 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V-4-1-4 | 연도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	41,503	30,003	31,160	37,714	36,035	44,383	44,383
지원과제수	674	611	594	680	838	811	791

향후 제품의 품질향상,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존 제품 및 공정에 대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주력 산업의 지속발전 가능성이 확보되고, 전기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기기, 로봇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이 글로벌 시장선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지원규모는 3,733억으로서 일반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디딤돌 창업과제(1,115억 원), 고기술·유망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혁신 창업과제(959억 원), 혁신성장 분야 중 창업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선도형 창업과제(289억 원), 엔젤투자사 등의 투자·보육·멘토링을 조건으로 기술창업팀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1,227억 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8억 원)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였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 초기기업의 정착화와 성장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서 잠재역량을 지닌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도모 및 매출액 증대, 고용창출 등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V-4-1-5 | 연도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원금액(국고)	162,360	188,811	197,627	279,983	373,262	1,202,043
지원기업수	1,230	1,332	1,364	2,257	2,966	9,149

4)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관계는 생산 중심적 상생문화의 형태로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편협한 인식 및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은 이미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본 사업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추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수요처 및 투자기업(정부·공공기관·대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물품 및 신기술·신제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의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 징수 등 주요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수요처의 분야 및 특성에 따라 구매조건부사업 국내수요처과제(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와 구매조건부사업 해외수요처과제(외국정부, 해외기업 등),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R&D투자협약기업)으로 구분하여 구매조건부사업 국내 및 해외 수요처과제는 2년 이내, 5억 원 한도로 민·관공동투자과제는 2년 이내에 10억 원 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사업은 국내외 수요처와 투자기업에서 구매를 전제로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및 국가R&D사업의 사업화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과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여 2019년엔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 하여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에 2021억 원을, 중소기업 R&D 취약 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R&D 촉진을 통해 R&D 사업화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에 88.6억 원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2019년 1,469개 과제에 1,9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2,402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IV-4-1-6 | 연도별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원금액 (국고)	138,620	141,950	156,121	170,235	194,735	801,661
지원기업수	704	699	1,040	1,101	1,469	5,013

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장 및 위상 제고 뒤에는 1997년부터 한결같이 함께 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있다.

수출기업과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중소기업 전용 핵심 기술개발사업이다. 이 중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에 한하여 추경을 지원 받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①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과 VC 투자기업 대상으로 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년간 5억 원 까지 지원하고 있다.

표 IV-4-1-7 | 연도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과제수	1,107	1,029	1,147	1,384	1,085	5,752
지원금액	2,620	2,260	2,394	2,269	1,272	10,815

* 기술혁신개발사업 세속과제 포함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8,041개 과제에 1조 6,996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종료 과제 중 성공판정 받은 수행기업(2,294개)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한 결과, 非 지원기업 대비 수출액 6배, 매출액 1.4배 등 동 사업 지원을 통해 높은 지원성과를 달성하였다.

2020년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도약과제가 신설되었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을 발굴 및 집중 지원(153개 과제, 210억원)을 통해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하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장사다리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단계별 R&D지원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율 도모하도록 전략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6)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인력·장비·기술 등)를 활용한 공동R&D를 통해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R&D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2013년)을 실시한 결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통합되었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는 첫걸음 R&D와 연구역량이 비후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도약R&D사업이 신설되었다.

2017년에는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전략협력사업을 신설하고, 내역사업 개편으로 기존 도약협력의 산연전용, 연구마을 과제를 전략협력으로 편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을 동 사업 내역사업으로 편입하였다.

2018년에는 사업비 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지정회계기관 운영을 통해 사업비 정산 및 사용의 투명성·전문성을 높여 사업관리를 강화하였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2019년 일몰되어, '19년부터는 계속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계속과제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표 IV-4-1-8 | 연도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93~'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예산	9,458	1,389	1,458	1,520	1,382	1,308	1,395	417	18,327
참여기업	36,250	2,041	1,865	2,179	2,082	3,457	4,034	883	52,791

* 2017~2018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과제(수혜기업) 포함

① 첫걸음협력

R&D 초보기업이 산학연협력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활용 하고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정부 R&D를 한 번도 수행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걸음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소기업이 R&D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원하는 사업화 방향으로 R&D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R&D 주관기관을 대학·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하고, 대학·연구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R&D 수행 전반에 걸쳐 에로해결 및 조연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2017년부터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공동R&D를 수행 할 대학·연구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에로를 해결하고자 복수의 기술 내청기관('17년 : 한국산학연합회, 대학산업기술지원단, '18년 : 한국산학연합회, 기술보증기금)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전문가를 복수로 추천하면 기업이 원하는 전문가를 선택한 후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사업일몰에 따른 계속과제 347개 100억을 지원하였다.

표 IV-4-1-9 | 연도별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과제수	898	1,029	902	840	1,048	347
지원 금액	447	532	461	365	387	100

② 도약협력

도약협력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과제수행 조건이 있는 첫걸음협력과 달리 전국에 소재한 대학·연구기관과 협력수행이 가능하며, 매출액 5억 이상 또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면 참여 할 수 있어 산학연협력으로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사업일몰에 따른 계속과제 181개 67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IV-4-1-10 | 연도별 도약협력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비 고
지원	과제수	915	769	893	478	574	'17년 연구마을, 산연전용과제 전략협력으로 편입
	금 액	745	665	819	303	308	

③ 전략협력

전략협력은 산학연협력이 우수한 대학,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산연전용, 연구마을과제)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사업이다.

특히 2014년에는 국가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산업별로 특화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위한 산연전용과제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832억 원, 712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통해 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성과위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체 R&D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이를 집적하는 형태의 연구마을 사업을 2013년 시범운영하여 현재까지 754억 원, 948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한 30개 거전형 연구마을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R&D특성화를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유망 중소기업과제를 신설하였고, 지역별 산업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과제 공고부터 선정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일괄 진행하도록 하였다. 2017년 11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35개 기업에 42억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13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49개 지역 중소기업에게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1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79개 중소기업에게 57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표 IV-4-1-11 | 연도별 전략협력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지원	과제수	490	669	355	'17년 연구마을, 산연전용과제 전략협력으로 편입
	금액	443	594	234	

7) 산학연Collabo R&D 지원사업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학의 연구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 지원하는 산학협력R&D,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지원하는 산연협력R&D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여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1단계(예비연구)를 도입하여 아이디어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R&D를 지원하는 2단계(사업화R&D)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우수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1단계(예비연구) 250개 과제(산학175개, 산연75개)를 지원하여 예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표 IV-4-1-12 | 2019년 산학연collabo R&D 사업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123	250	
1단계	산학협력	86	175
	산연협력	37	75

* 2단계의 경우 2020년 1단계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 후 지원예정

8)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전주기 R&D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도연구기관이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상담과 진단을 지원하고 지원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R&D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사업화R&D 지원의 총 3단계 프로세스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문역량을 가진 3개의 선도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127개 기업진단 후 36개 기업의 R&D과제수행을 지원하였다.

표 IV-4-1-13 |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98.8	163
1단계(기업진단)	1.8	127
2단계(산연협력R&D)	97	36

* 3단계의 경우 2020년 2단계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 후 지원예정

9) 산학연협력 신사업R&D 바우처 지원사업

산학연협력 신사업R&D바우처 사업은 새로운 시장 확대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산학연협력 R&D를 통해 신사업 분야의 기술획득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업력 10년 이상이거나 매출액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분야 외에 새로운 업종이나 분야로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대학·연구기관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 250억원의 예산으로, 126개 기업의 새로운 분야 진출을 위한 R&D수행을 지원하였다.

표 IV-4-1-14 | 산학연협력 신사업R&D바우처 지원현황

(단위 : 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남	전북	충북	세종	합계
2019년	16	41	2	1	24	6	10	9	6	6	4	1	126

10) 연구기반 활용사업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및 장비전문인력과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되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유확산형, 연구집중형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공유확산형은 중소기업이 쉽게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제약 없이 지원하고, 연구집중형은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까지 최대 7천만원 범위내에서 대학·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1,888개 기업에(공유확산1,355개, 연구집중533개) 장비이용 및 장비 전문인력을 지원하였다.

표 IV-4-1-15 | 2019년 연구기반 활용사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지원 금액	지원 과제 수
합계	125	1,888
공유확산형	24	1,355
연구집중형	101	533

11)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은 데이터 저장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 개발과 K-앱시스트 기술개발로 구성된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은 국내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생산설비의 최적화와 연동 등 스마트공장의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 7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 개발 중에 있다. K-앱시스트 기술개발은 현장 작업자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에 따라 제조 숙련자의 노하우 단절이 심각해짐에 따라 숙련기술인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생산최적화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중에 있다.

표 IV-4-1-16 | 2019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지원 금액(국고)	지원 과제 수
합계	3,725	19

12)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지원

지금까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선도 사업이면서 해외수요 확보 및 외화가득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고 실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50%이상으로 추정되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주력산업의 침체, 제조업의 투자 부진, 산업화 진전에 따른 국가 간 기술격차 감소 등 제품생산역량만으로는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유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등 스마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산업의 서비스화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차별화가 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07년부터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상승과 신규 고용 촉진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나, 타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제품 개발 R&D과제가 다수 포함되는 등 서비스 R&D 특성에 적합한 지원이 비효했다.

이에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비스R&D만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업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제품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중소서비스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① 제조업이 생산하는 제조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지원하는 제품서비스화과제, ② 서비스업의 기존 서비스의 개선 및 신규서

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신규서비스창출 과제, ③ 동일한 서비스 업종에 공통 적용 가능한 업종공통서비스 과제를 최대 1년에 2.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대응과 기술창업이 활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5대 중소서비스 전략분야(미디어, 레저, 디지털헬스케어, 전문직, 스마트 금융)를 중점 지원하였다.

아울러, 중소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역량 및 서비스 업종 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획지원의 범위도 숲 세부과제로 확대하여 총 45개 과제에 83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제조기업 및 서비스기업의 新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였다.

표 IV-4-1-17 | 연도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원금액 (국고)	-	-	5,800	8,320	12,133	26,253
지원과제수 (건)	-	-	34	45	74	153

2019년에는 중소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성과 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5대 서비스 전략분야와 4차산업혁명 분야 위주로 과제를 선정(74개 과제, 117 억원)하여 전략성을 강화하였으며,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BM, UX/UI 및 디자인 특허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IP전략수립을 지원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산업간, 이종기술간 융합, 다양한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여 혁신적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였다.

13) 재도전기술개발사업

재도전기술개발사업은 사회적 자산의 사장방지 및 고용창출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 재도전 R&D지원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혹은 예비창업자에 대해 사업화 및 안정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② 민간투자연계 R&D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③ 사업전환 R&D 지원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단순 용자위주 지원을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R&D 지원

2019년도에는 재기 및 사업전환기업 33개사를 대상으로 4,58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도전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17~‘19)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평회 및 투자퍼레이드(IR), 수요에 맞는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유통 채널 진입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R&D사업의 지원성과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기업 요구사항에 맞는 멘토를 매칭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을 기획하여 기업별 만족도는 9.96 수준으로 대체로 우수한 결과를 받았다.

표 IV-4-1-18 | 연도별 재도전기술개발 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원금액 (국고)	-	-	3,800	4,580	4,580	8,380
지원과제수 (건)	-	-	29	34	33	63

14)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R&D)

기술사업화진단(중소기업진흥공단) 후 사업화 유망기업(MC유형 : 기술성 보완 필요기업)으로 추천받은 기업에 한하여 완성도가 부족한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하고 있다.

2019년도에 사업화 유망기업 20개사가 20억원의 지원금액을 지원받았으며, 지원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R&D기획지원사업 멘토링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R&D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팅(교육) 및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표 IV-4-1-19 | 연도별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사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원금액 (국고)	-	-	3,000	2,000	2,000	7,000
지원과제수 (건)	-	-	31	22	20	53

②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적용, 기존 개별지원 체계에서 공동활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3년 경영혁신플랫폼을 구축, 2014년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은 업종·단체별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특화형솔루션과 공정의 구성, 확장, 재구성이 가능한 스마트공장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화형솔루션은 정보화가 취약한 중소기업(조합·단체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시장성이 부족하여 민간에서 개발 보급이 어려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솔루션은 데이터 저장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정보화격차 해소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까지 68개의 솔루션을 구축 및 지원하고 있다.

표 IV-4-1-20 | 연도별 경영혁신플랫폼 기반 정보화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원금액 (국고)	6,906	6,000	3,970	4,000	4,000	4,000	4,000	32,876
지원업종수	7	14	7	4	10	14	12	68

③ 유틸리티성 자원공유지원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유자원 활용·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위기 극복 및 중소기업 스마트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4-1-21 | 2019년 유틸리티성 자원공유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9년(신규)	합계
지원금액(국고)	2,500	2,500
지원기업수	2	2

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12,660개의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스마트공장 기반구축(現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중소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제시를 통해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유도하고 있다.

3)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구축·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있는 컨설팅 기관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에로사항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및 지원성과를 높이고 있다.

4) 지역거점센터 운영(現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지역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를 권역별로 구축하여 현재 보급중인 스마트공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5) 빅데이터 센터 구축

공정·품질 최적화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유통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표 IV-4-1-22 | 연도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지원금액(국고)	59,550	125,572	362,600	547,722
	지원기업수	2,203	2,900	3,843	8,946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지원금액(국고)	2,735	2,389	2,175	7,299
	지원기업수	-	-	914	914
중소기업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금액(국고)	-	2,000	3,000	5,000
	지원기업수	-	250	376	626
지역거점센터 운영(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금액(국고)	-	-	1,500	1,500
	지원기업수	-	-	1	1
빅데이터 센터 구축	지원금액(국고)	-	-	500	500
	지원기업수	-	-	-	-

* '17, '18년 스마트공장 기반구축은 기관운영비

다. 정보화정책 조사연구사업

중소기업 정보화정책 조사연구사업은 대내외 정보화 경영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차별화된 정보화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인 객관적·분석적 자료를 제공한다. 2019년에는 총 4,600개 기업(대기업 300개사, 중소기업 4,000개사, 지원

기업 300개사)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은 전년대비 0.13%p 하락하였다.

표 IV-4-1-23 | 연도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추이

(단위 : 점, 개사)

연 도	중 소 기 업		대 기 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정보화 수준	기업수	정보화 수준	기업수	
2013년	50.18	4,003	67.64	300	74.2
2014년	53.21	3,725	69.10	315	77.0
2015년	55.95	3,614	71.08	300	78.71
2016년	59.97	3,700	72.78	300	82.39
2017년	61.05	3,700	72.92	300	83.7
2018년	67.15	3,700	75.48	300	88.96
2019년	68.73	4,000	77.37	300	88.83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일반현황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000년 설립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한 보증지원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특례보증 및 맞춤형 보증을 통해 총 521만건, 121.6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자금애로 극복 및 경영·생활안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19년에는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기업, 경영애로기업 및 저신용자 등 경기 회복 지연으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헤드립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으며, 「최저인급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과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과 같이 정부시책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도 운영하는 등 총 8종의 특례보증상품을 통해 63,579개 업체에 1조 9,466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다.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파트너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의 행복추구에 기여(기관 미션)하기 위해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사회적 가치 실천 금융', '도전적 창업 생태계 조성', '경쟁력 있는 지역보증제도 구축'로 구성된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12대 전략과제(전략목표별 3가지 전략과제 선정·이행)를 추진하는 등 서민전문 보증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2019년 보증공급 중 업체수 기준 99.6%(568,218건), 공급액 기준 98.4%(138,047억원)을 지원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회는 기관의 미션 및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탄력적 보증지원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강화

2019년 지역신보는 국내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보증공급액을 14조 239억원 지원하였으며, 전체 보증공급의 90.0%인 12조 6,202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였다.

표 IV-5-1-1 | 연도별 총 보증공급 대비 소상공인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보증	소상공인보증	비 중	
2014	업체수	375,150	367,150	97.8
	금액	85,057	74,892	88.0
2015	업체수	448,844	441,160	98.3
	금액	106,386	94,755	89.1
2016	업체수	464,329	456,504	98.3
	금액	111,849	100,564	89.9
2017	업체수	478,419	470,843	98.4
	금액	116,229	105,476	90.7
2018	업체수	497,304	489,287	98.4
	금액	120,743	111,774	92.6
2019	업체수	570,247	557,195	97.7
	금액	140,239	126,202	90.0

업종별 보증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내업이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된 보증대상이 소상공인인 지역신보의 보증특성상 도소내업, 음식숙박업 비중이 54.7%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2 |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기 타 ^{주)}	계
'18년 보증공급	18,998	20,460	26,632	37,031	17,622	120,743
'19년 보증공급	18,305	24,458	32,569	44,121	20,786	140,239
비중	13.1%	17.4%	23.2%	31.5%	14.8%	100%
증 감	△693	3,998	5,739	7,090	3,164	19,496

주)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보증금액별 보증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액 비중이 58.4%로 나타나 보증수혜 고객의 과반이상이 소액보증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5-1-3 | 금액별 보증공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계
'18년 보증공급	70,954	26,288	12,142	11,359	120,743
'19년 보증공급	81,906	34,154	14,258	9,921	140,239
비중	58.4%	24.4%	10.2%	7.0%	100%
증 감	10,952	7,866	2,116	△1,438	19,496

지역신보의 주된 보증대상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공급비중은 90%로 전체 보증공급 대상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증공급이 소상공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V-5-1-4 | 기업규모별 보증공급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계
'18년 보증공급	111,772	7,676	1,295	120,743
'19년 보증공급	126,202	11,845	2,192	140,239
비중	90.0%	8.4%	1.6%	100%
증 감	14,430	4,169	897	19,496

2) 주요 특례보증 제도시행

가) 20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해드림 특례보증(신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 대상기업 : 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배제 피해기업 지원, ② 경영애로기업 지원, ③ 저신용 영세기업 지원, ④ 관광·숙박업 등 영위기업 지원
- * 시행시기 : 2019년 8월
- * 지원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운전자금(트랙별 상이)
- * 공급실적 : 40,493건, 10,510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나)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신규)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경영안정 도모

- * 대상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로서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1~8등급인 중소기업
- * 시행시기 : 2019년 5월
- * 지원한도 : 2억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150건, 48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다)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신규)

음식업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업성과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여로 해소 및 내수경제 활성화 도모

- * 대상기업 : 음식점업 사업자등록 후 가동중으로 ①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고 ②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1년 이상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본 협약보증을 추천 받은 개인사업자
- * 시행시기 : 2019년 8월
-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613건, 160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라) 여성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신규)

여성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여성 경제인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가 모두 여성으로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며, 기보의 「여성기업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거래가 없는 기업
- * 시행시기 : 2019년 10월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141건, 47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마)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II(신규)

장기불황,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저금리 자금지원으로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 후 가동중으로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기업
- * 시행시기 : 2019년 10월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11,068건, 2,731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바) 수출기업 지원 특례보증

수출환경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기반 확대

- * 대상기업 :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중인,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예정인 잠재수출 기업
- * 시행시기 : 2016년 7월
- * 지원한도 : 3억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890건, 558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사)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18.2월)

- * 대상기업 : 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②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③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내 소재 기업
- * 시행시기 : 2018년 2월
- * 공급규모 : 2조원
- * 지원한도 : 본건 최대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46,921건, 16,750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서비스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사회통합 도모위한 확대 운용

- * 대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자활기업
- * 시행시기 : 2018년 2월
- * 지원한도 : 4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684건, 310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자) 장기분할상환 해지보증

창업초기기업(7년이내)에 한해 보증부대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운용하여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 사업에 전념토록 지원

- * 대상기업 : 신용보증접수일 현재 업력 7년 이내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기준 6등급(1~6등급)인 개인기업
- * 시행시기 : 2017년 11월
- * 공급규모 : 1,650억원
-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2,613건 / 498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차) 모바일 보증

생업유지로 지역신보와 금융회사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및 인터넷 기반의 보증지원 제도를 마련

- * 대상기업 :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개인기업
- * 시행시기 : 2016년 4월
- * 지원한도 : 17백만원 이내 운전자금
- * 공급실적 : 1,548건 / 185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재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신속한 보증 지원으로 경영정상화 도모

- * 대상기업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 시행시기 : 2005년 12월
- * 지원한도 : 7천만원(제조업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9,003건, 3,727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타)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 기업에 대한 경영성장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

-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장애인기업
- * 시행시기 : 2008년 7월
-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공급실적 : 5,089건, 1,447억원 (2019년말 누계 기준)

3) 정부정책과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한 보증지원

중앙회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경기변동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특례보증 및 보증제도 개선으로 2019년 중 14조 238억원을 공급하여 당초 보증공급 목표(13.8조원)를 초과 달성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 피해기업, 여성기업,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해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협약보증을 시행하였다.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20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헤드림 특례보증'을 실시하였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배제 피해기업, 경영에로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저금리(일시상환대출의 경우 기준금리 + 1.2%, 분할상환의 경우 기준금리 + 1.5%)로 지원하였다.

둘째,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하였다. 2018년 150억원 지원규모(누적)에서 취급기준 개정을 통해 2019년 300억원 지원규모(누적)로 확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셋째, 장기불황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저금리의 금융지원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Ⅱ' 협약 보증을 시행하였다.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 운전자금으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1% 후반대)를 적용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넷째,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문체부와 농협은행 협약을 통해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하였다.

나. 고객편의 제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중앙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요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1) 행정정보 이용 확대 추진

고객이 보증신청시 재단에 제출하는 국세청 과세정보 6종(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휴·폐업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재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열람 및 출력 가능토록 개선하여, 필수 제출 서류가 기존 8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2) 보증 리스크 축소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부분보증 도입 확대

중앙회는 재단의 효율적 보증 운용, 보증리스크 축소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천만원 이하 보증비율을 현행 전액보증(100%)에서 '19년 90%로 축소하였다. 2019년도에는 전체 사업자 보증(일반보증 신규공급 기준) 중 32.6%를 부분보증으로 운용하였으며 향후 부분보증 비중을 더욱 확대('20년 계획 85%)하여 재단의 효율적인 보증운용 및 리스크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3) 지역신보의 제규정(규정, 기준, 요령 등) 표준화 추진

중앙회는 보증업무 및 채권관리 관련 제법령의 지속적 개선으로 급변하는 국내경제, 금융(보증)환경 변화 대응위한 능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재단 현업에 필요한 기준보완 및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9개의 보증규정 5개의 관리규정을 표준화 하였다. 특히, 소액심사 적용대상 금액 확대 및 한도사정 생략대상 보증 금액을 확대하여 심사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확보하였다.

4) 창업리스크 경감을 위한 법인기업 연대보증면제 확대

법인기업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3차에 걸쳐 업무처리방법을 개정하였다. 1차 개정의 경우 이행약정을 위반한 면제인에 한하여 관련인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연대보증 면제자가 무분별하게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2, 3차 개정의 경우 기존 연대보증입보부 보증의 비보증분에 대한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특약을 부여하였다.

다. 효율적인 재보증제도 운영

1) 재보증제도의 정책기능 강화

중앙회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및 재기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중점지원사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으며, 특례보증의 재보증비율을 상향(50%→60%)하여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를 유도하였다.

2) 재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지원

보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보증한도를 적기 배정하여 재단의 연간 보증공급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고액보증(2억원 이상)에 대해 개별약정 심사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재단 및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의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소각·매각·채무조정 등 부실채권정리를 적극 3,009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 성실상환자의 재기 지원을 도모하였다.

참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

신용보증재단은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공익법인이다. 주요 업무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기본재산의 관리, 구상권의 행사 등이며,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16개의 신용보증재단에서 138개 본·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표 IV-5-1-5 | 지역재단의 지점수 현황(20.3월 기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6	24	13	11	7	7	3	8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4	4	7	11	5	3	7	6

1)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속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재원이며 적정한 대위변제를 위한 준비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표 IV-5-1-6 |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단위 : %, 억원)

구분	출연현황			계(A)	이월 이익금 (B)	기본 재산 (A+B)
	지자체	정부	금융기관 등			
2019년	22,123	7,038	21,489	50,650	△13,685	36,965

2) 지역재단의 신용보증지원 현황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2019년 보증공급은 13조 6,475억 원, 보증잔액은 22조 1,86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밀신용 조사 및 보증심사 전문성 강화로 2.9%대의 비교적 낮은 보증사고율을 기록했다.

표 IV-5-1-7 | 신용보증재단 운영 현황

(단위 : 건, 억원, %, 배)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보증 공급	건 수	536,708	497,304	478,419	464,329	448,844
	금 액	136,475	120,743	116,229	111,849	106,386
보증 잔액	건 수	1,018,259	1,035,658	984,378	910,813	833,213
	금 액	221,865	204,606	191,673	179,713	162,423
보증 사고 순증	건 수	38,294	45,401	39,526	36,407	33,659
	금 액	6,371	6,424	5,634	5,149	4,630
	사고율	2.9	3.1	2.9	2.87	2.85
대위 변제 순증	건 수	28,473	32,947	29,116	25,189	25,116
	금 액	4,564	4,260	3,522	3,160	2,930
	변제율	2.1	2.08	1.84	1.76	1.8
운용배수		6.5	5.8	5.5	5.1	5.0
기본재산		33,897	35,387	34,977	34,970	32,224
재단 수		16	16	16	16	16

제6장

창업진흥원

1

일반현황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창업진흥전담조직(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의거)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기반 창업을 촉진시켜 창업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8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국내외 진출지원, 창업자를 위한 자금·인력·판로지원 및 정보제공, 창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 창업실태 통계조사 및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4본부 16부(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예산은 5,779억 원으로 창업저변확대, 창업사업화 지원,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창업생태계 기반구축 등을 통해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창업 준비부터 도약까지 전주기 창업지원을 통해 7,180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총 4만여개의 유망 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하였다. 또한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약 680만 명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창업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창업저변확대

1)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표적 사업인 비즈쿨(Bizcool)은 학교(School) 내에서 경영(Business)을 배운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교육을 통해 꿈·끼·도전정신·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밖 센터 등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2002년부터 시작하여 17년 동안 3,791개교, 2,055천명을 지원하였다.

특히 평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를 위해 2019년에는 초·중·고·학교 밖 비즈쿨 지정학교(센터) 495개 지원하였고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표 IV-6-1-1 | 비즈쿨 운영실적

구 분	'02~'12	'13	'14	'15	'16	'17	'18	'19
지원예산(A)	216.1억원	45억원	50억원	60억원	83억원	76.65억원	76.65억원	76.65억원
비즈쿨학교(B)	1,027개교	135개교	200개교	412개교	448개교	513개교	561개교	495개교
참여학생수	582천명	116천명	133천명	190천명	247천명	262천명	283천명	242천명
비즈쿨캠프	89회, 8,850명	22회, 1,808명	15회, 1,035명	11회, 585명	19회, 989명	9회, 469명	9회, 417명	6회, 283명
창업동아리	4,622개	830개	1,053개	1,329개	2,092개	2,781개	2,803개	2,468개



청소년비즈쿨 국내캠프



청소년비즈쿨 해외캠프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2) 대학기업가센터

미래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융합 실전형 창업교육(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전국에 9개 대학기업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19년)

9개 대학기업가센터(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양대)에서는 창업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수한 창업전공강좌를 운영하여 대학생의 창업수요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고 있다.

표 IV-6-1-2 | 대학기업가센터 연도별 지원성과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공강좌 수(개)	183	235	264	296	312
강좌수강생(명)	7,614	13,273	17,959	17,255	17,926
창업네트워킹(건)	243	337	558	571	496
콘텐츠제작(건)	69	68	62	58	77

3) 실전창업교육

실전창업교육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사업계획 도출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자 2019년 신설되었다.

‘아이디어 개발 → 비즈니스모델 수립 → 린스타트업’ 단계별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구체화와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BM 구성요소들을 수립 및 변경해 가며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 하였다. 린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교육생 비즈니스모델의 핵심 기능만 최소한으로 구현하고, 잠재고객과 시장 대상으로 반응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표 IV-6-1-3 | 실전창업교육 주관기관 현황

서울	경기	대전, 충청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4	2	1	1	2	1

4) 창업에듀

예비창업부터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지원하는 창업에듀는 '09년 구축되어 '10년도부터 운영되어온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이다.

'16년 온라인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창업과 관련한 핵심 이론 및 실사례를 중심으로 핵심내용만 짧게 구성하는 강의로 신규 개편하고 스마트 기기 등에서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창업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강생들이 필요한 주제별 강좌를 개발 또는 외부 기관과 제휴하였고,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 등의 주제 강좌 305개를 운영하고 있다.

표 IV-6-1-4 | 창업에듀 성과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회원	19,198	14,531	3,620	7,496	8,246	8,021	11,073	10,913	12,347	15,501
방문건수	91,414	70,740	108,601	147,716	178,480	212,693	252,775	186,932	225,683	272,916
수료생 수	3,075	17,017	34,170	54,979	56,143	27,881	40,968	161,192	303,126	360,658

개편 전('10~'16년) 평균 33,462명이던 교육 수료생이 개편 후 '18년 303,126명, '19년 360,658명(개편 전 대비 약 10배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편 시 도입된 기관별 맞춤형 교육서비스인 '패키지 과정'은 첫째 신청 기관이 18개 기관(25개 과정)에서 '19년 95개 기관(154개 과정)으로 약 5.3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표 IV-6-1-5 | 창업에듀 강좌 구성(예시)

〈 강좌 구성 〉

1. 인트로	2. 이론학습	3. 실무학습	4. 아웃트로
주제, 학습목표 안내 창업자 A씨의 고민 ‘투자유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 핵심이론(개념) 설명 전문가 B교수의 강의 ‘투자 프로세스 및 투자유치계획서 작성법 안내’	→ 실사례 위주의 설명 선배창업자 C의 사례 ‘본인의 투자유치 사례 소개 및 노하우(Tip) 안내’	→ 학습 내용정리 전문가 B교수의 정리 (원포인트 레슨) ‘A씨의 고민해결을 위한 핵심정리’

5) 창업경진대회 등 기업가 정신

가) 도전! K-스타트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이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창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창업을 테마로 한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4개 부처(중기부,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도전! K-스타트업” 부처 통합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각 부처별 특성을 살린 예선을 통해 “도전! K-스타트업” 본선 대회 진출팀을 선발하고, 부처별 우수팀이 모여 공개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왕중왕전 수상팀을 선발하여 시상 및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2019년에도 부처 통합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부처별 예선을 통해 본선 대회 진출 152팀을 선발하였고, 공개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왕중왕 20개 팀을 선발하였다.

* 예선대회 : 혁신창업리그(중기부), 학생리그(교육부,과기부), 국방리그(국방부),타부처·민간, 지자체리그(중기부)

* 접수(3,894) : 혁신창업리그(2,406건), 학생리그(738건), 국방리그(521건), 타부처·민간, 지자체리그(229건)

또한 대회 참가자를 주인공으로한 다큐 제작·방송, 네이버 브랜드웹툰(가우스 전자 작가)을 통해 국민들에게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과 창업열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 방송 : 다큐세상 (KBS1, '20.1.24(금) 23:20

아울러 후속연계 프로그램으로 본선대회 진출자 및 수상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보호,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도약패키지 등) 직접(서면평가 면제) 연계를 통한 창업 사업 기반마련을 지원하였다.

표 IV-6-1-6 | 도전! K-스타트업 주요 추진 성과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참가자 수(팀)	6,545	4,055	5,770	3,894	20,264
수상자 수(팀)	10	10	10	20	50
경쟁률 (%)	654:1	405:1	577:1	195:1	405:1



도전! K-스타트업 방송



브랜드 웹툰



왕중왕전·시상식

나)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컴업)

2001년부터 지속된 벤처창업박람회는 2019년 '컴업'으로 행사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스타트업 및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촉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사 컨셉을 전환

본 행사는 민관의 역량을 종합하여 국내 우수 스타트업과 AC·VC 등 투자자, 대기업·증권·중소기업 등의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가 코로나 19로 커다란 변화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컴업이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의 표준모델로 발돋움하기 위해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표 IV-6-1-7 | 행사 참가규모(최근 3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참기업체	263개	100개	4,935개	5,298개
참관객	13,899명	30,740명	21,102명	65,741명



기조연설



스타트업 IR 시상식



전시

6) 조사연구

창업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창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9년에는 4차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 개선방안 연구 등의 정책 자료와 창업기업 실태조사,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14건의 과제(연구과제 : 8개, 창업통계 : 6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과 국내·외 창업 동향 분석 자료는 신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고도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2020년 추진 예정 연구과제는 총 9건(연구과제 : 3개, 창업통계 6건)으로 정책자료 및 창업통계 제공을 위해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표 IV-6-1-8 | 창업조사·연구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예산	700	1,000	950	950	950	950	1,150	6,650
추진과제(건)	19	21	22	15	15	15	14	121

7) K-스타트업(K-startup)

K-스타트업은 창업정보에서 사업 신청 및 선정 사업비 정산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한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등 정부 창업사업을 통합제공 하는 창업포털(www.k-startup.go.kr)이다.

2015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등 117개 기관의 창업 정보의 종합 제공과 수요자 관심분야를 고려한 분류체계 구성 및 맞춤형 간편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하였다.

또한, 창업정보를 온라인 창구로 단일화하여 (에비)창업자가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창업에 관한 이로운 해소를 하였다.

K-스타트업을 통해 창업교육부터 멘토링, 판로·해외진출까지 창업에 관한 제반정보를 One-Way, One-Gate로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수요자중심 UI/UX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사업공고를 메인 상단에 노출하고, 카드뉴스를 하단 배너에 위치하는 등 메인 화면을 개편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부 24 홈페이지와 API 연계를 통해 창업정보 제공 및 K-스타트업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표 IV-6-1-9 | 최근 3년간 K-스타트업 이용실적

(단위 : 건, 명)

구분	총 방문자수	월평균	일평균	회원수
2017년	4,056,319	338,027	11,114	257,844
2018년	4,925,304	410,442	13,494	309,731
2019년	6,835,397	569,617	18,727	366,003

8)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구축·운영

2010년 2월 개통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은 분산되어 운영 중인 법인 설립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창업자들의 법인 설립 시 겪어왔던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등기소, 지방세납부시스템, 국제통합시스템, 인터넷지로시스템, 4대사회보험 연계시스템 등을 통합·연계한 시스템으로 법인설립의 순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V-6-1-10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구축 전후의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 비교

절차	기간	→	절차	기간
① 상호 검색	1		① 법인인감 제작	1
② 법인인감 제작	1		② 상호 검색	3
③ 자본금 확인	1		4대보험 등록	
④ 법인등록세 납부	1		취업규칙 신고	
⑤ 법인설립등기 신청	2		법인 등록면허세 납부	0
⑥ 사업자등록 신청	6		법인등기신청수수료	
⑦ 4대 사회보험 가입	1		③ 4대 사회보험료 납부	4일
⑧ 취업규칙 신고	1			
8단계	14일		3단계	4일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라 무액면 주식발행기능 추가 하였으며, 연계기관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신청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신규 프로세스 개발 등 지속적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법인설립만 지원하던 시스템을 대법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으로 모든 유형*의 법인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2010년 시스템 운영이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48,062명의 창업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을 완료하였다.

표 IV-6-1-11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 건)

구 분	법인설립	전화상담	인터넷접속
2010년	1,005	18,569	206,018
2011년	1,673	35,642	216,548
2012년	2,403	51,406	260,977
2013년	3,021	51,319	322,011
2014년	4,052	58,837	585,574
2015년	5,045	60,369	584,374
2016년	6,048	61,444	567,688
2017년	7,111	52,898	522,403
2018년	8,195	49,656	538,406
2019년	9,509	64,996	993,797
합계	48,062	505,136	4,797,796

9)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재무 상황이 열악한 초기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자의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청년 일자리 대책(18.3)'의 일환으로 '18년 신설되었다.

세무·회계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2개 주관기관(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에 총 14,874개사를 지원하였다.

표 IV-6-1-12 | 2019년 지원대상 선정절차

모집공고	요건 검토	지원대상 확정	협약체결
K-startup 신청	자격, 기타 요건 등 검토	우선 신청자 순으로 확정	3자 협약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

지원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의 바우처를 연 100만원 한도(최대 2년)로 지원하며, 세무·회계 부문은 가장대행 수수료 및 결산·조정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술보호 부문은 기술임치 계약(갱신)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18년에 8,698개사를 지원한 이후 '19년에는 14,874개사로 확대하였고 세무 회계와 기술임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바우처 한도(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나. 창업사업화 지원

1) 예비창업패키지(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제품 개발, 창업교육, 멘토링 등 초기 창업사업화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모집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 하고, 선정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선정하여 최대 1억원 한도로 초기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로 차등 지원한다.

예비창업자는 전용·바우처 계좌·카드를 발급받고, 사업계획에 따라 시제품 개발비, 재료비, 지적권확보비 등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자금으로 협약기간(10 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다.

창업경험이 없는 예비창업 단계임을 고려하여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단계별 창업교육을 운영하고, 창업·경영 전반에 보유한 전담멘토를 예비 창업자와 1:1로 매칭하여 사업계획 컨설팅, 외주업체 추천 등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 서비스를 지원한다.

표 IV-6-1-13 | 예비창업패키지 단계별 창업교육 내용

구분	교육시간	교육시기	운영주체	교육내용
사전교육	8시간	협약체결 전	전담기관, 주관기관	바우처 사용 기준, 부정집행 사례, 시스템 사용방법 등
역량강화 교육	16시간	협약기간 중	주관기관	기업가정신, 회계, 법률, 지재권 등
심화교육	16시간	협약 종료시점	전담기관	마케팅 / 시장조사 / 투자 /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중 창업기업 희망분야 택 1

지원종료 후 우수한 성과(매출, 투자, 일자리 등)를 달성한 졸업기업에 초기창업 패키지·창업 R&D 사업 서류평가 면제, 보증우대,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등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19년에는 추경을 통해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를 별도 신설하여 청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유망 예비창업자 총 2,207명(청년 1,707명, 중장년 500명)을 지원하고 있다. (~'20.8)

표 IV-6-1-14 |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지정현황('19년 기준)

분야	일반	4차산업혁명	소셜벤처	관광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계명대학교 국민대학교 대구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송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도시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2) 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초기창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초기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8년도까지 운영되던 “창업선도대학, 세대융합캠퍼스 및 장년서포터즈, 스마트 벤처 캠퍼스” 사업을 초기단계 창업기업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19년부터 단계별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관기관 선정 시 권역별 1개 이상의 주관기관을 선정, 권역 내 창업기업 의무선발 비율(80% 이상)을 도입하여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협업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창업기업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한다.

표 N-6-1-15 |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현황 (53개)

수도권(23)			비수도권(30)				
서울(12)	경기(8)	인천(3)	충청권(8)	호남권(8)	동남권(7)	대경권(5)	강원권(2)
건국대	가천대	인천대	순천향대	광주대	동서대	계명대	가톨릭관동대
국민대	경기대	환경산업기	충남대	원광대	동아대	경북대	강원대
동국대	단국대	솔원	충북대	순천대	부경대	경일대	
서울과기대	아주대	인천TP	한국교통대	전북대	부산대	대구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밭대	전주대	울산대	경북과학기술원	
성신여대	한국산기대		한남대	조선대	영산대		
송실대	수원노사재단		호서대	전북경진원	부산정보산업진		
연세대	디자인진흥원		대전충경센터	군산대	흥원		
인덕대							
한양대							
르호뭏							
고려대							

‘19년도에는 1,026.8억원(추경 154억 미포함)의 예산으로 53개 주관기관을 통해 858개 기업(추경 220개 비포함)을 발굴 육성하였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하였다.

표 N-6-1-16 |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유형

특화유형	주요 내용
대학·연구소	• 교원·대학(원)생·연구원 창업자를 위한 사업화 지원 등 운영
청년	• 청년창업자 선정,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등 운영 * 청년창업자 :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창업자
중장년	• 세대융합 창업팀 운영,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세대융합 창업팀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특화유형 중 중·장년 분야를 운영하는 주관기관을 선택 ** 세대융합 창업팀 : 중장년(만 40세 이상)과 청년(만 39세 이하)으로 구성
산업	• 특성화 산업분야 사업자 선발, 관련 분야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글로벌	•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타당성 조사, 박람회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투자연계	• 투자유치 계획을 보유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및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판로연계	• 창업아이템의 판로가 필요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제조특화	• 업종이 제조업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제품개선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3)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도약단계(3~7년차)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선정된 창업자에게 사업모델(BM) 혁신, 국내외 시장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을 50억 원 규모로 ‘15년부터 시작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18년 800억원에서 ‘19년도에는 예산이 960억 원(추정포함)으로 증액되었으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될성부른 기업” 발굴·집중지원을 위해 사업화 지원 및 성장 촉진 지원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하고있다.

사업화(최대 3억원)의 경우 R&D연계(2년간, 2+2억원)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이 가능토록 운영하였고, 성장촉진 분야는 최대 1억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수출, 상장, 판로개척 등을 통해 마이너스(-)의 현금흐름을 극복하고 빠른 수익창출과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표 IV-6-1-17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구분	신청	선정	매출	일자리
2015년	513	100	1,197	944
2016년	683	160	985	755
2017년	2,524	813	9,908	6,993
2018년	1,327	441	5,399	3,808
2019년	2,613	435	-	-
합계	7,660	1,949	17,489	12,500

* '15년 : 협약 종료시점, '16년·'17년·'18년 : 연간 기준, '19년 사업 진행 중('20년 10월 최종 성과조사 예정)

그림 23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 지원 절차 〉

선정평가			지원내용		
[1단계] 서류평가	1.5 배수 내외	[2단계] 발표평가	[3단계] 현장평가 (발표평가대 상자의 10%내외)	[사업화자금] BM혁신, 시장진입을 위한 사업화 지원 (최대 3억원)	[후속지원] 유통·수출·상장 분야별 전문교육 및 성장지원 (최대 1억원)

4)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의 기술 기반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 창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12년 신규로 도입되었다. 해외 액셀러레이터³⁴⁾를 활용하여 창업자가 글로벌 진출 초기단계에 해외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현지에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을 양성하고자 함이다.

동 사업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직접 선발하여 해외 현지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피칭대회까지 참가 지원한다.

2012년에 미국, 중국 등 2개국을 시작으로 점차 진출 국가를 확대하여 현재 국내 창업자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6개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러시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총 491개 창업기업을 지원하였다.

34) 해외 액셀러레이터 : 해외에 거점을 두고 창업기업의 멘토링, 창업공간, 초기투자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회사 및 기관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 지원

표 IV-6-1-18 |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성과

(단위 : 억원, 명, 건)

연도	예산	선정	현지진출*	투자유치	매출	고용
2012	31	39	10	88.3	91.4	91
2013	20	28	11	91.1	25.9	30
2014	30	56	25	170.1	260	76
2015	33	62	41	91.5	249.4	235
2016	100	113	76	707.5	296.5	579
2017	33	65	20	101.9	370.3	316
2018	38	70	12	210.9	308.9	347
2019	27.9	58	3	59.7	101.5	85
합계	312.9	491	198	1,521	1,703.9	1,759

* 현지진출유형 : 법인, 지사·사무소, 합식법인

동 사업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491개 창업기업이 1,703억 원 매출액과 1,759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521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스라엘 등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민관협력창업자 육성

1)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액셀러레이터, 초기전문 VC 등 민간이 선별한 유망한 기술창업팀 중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은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 원의(차등 지급) 사업비를 통해 시제품 제작, 국내외 마케팅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다.

2018년에는 우수 졸업 TIPS 창업팀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포스트팁스(Post-TIPS) 프로그램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지방소재의 초기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프리팁스(Pre-TIPS)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2019년에는 통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TIPS R&D 신청 시 창업사업화와 해외 마케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일원화하였다.

표 IV-6-1-19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 육성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예산	5,000	6,000	25,000	53,600	51,900	141,500
지원기업수	45	56	250	365	329	1,045

2)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이 해당 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해 사내벤처팀과 분사 창업기업을 육성하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중견·중소·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운영기업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한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한도의 사업화 자금과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방식의 네트워킹 등을 병행 지원한다.

올해에는 총 3회에 걸쳐 운영기업 19개사를 신규 선정하여 총 59개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업에서 발굴·추천한 45개 사내벤처팀(기업)과 개방형 공고를 통해 55개 분사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분사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개방형 공고를 신설, 非 운영기업에서 육성한 분사창업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2회 공고를 진행, 삼성SDS, SK텔레콤 등에서 분사한 창업기업을 선정·지원하였다.

특히, 2019년 지원 기업 중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키튼플래닛'은 비교적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약 1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롯데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사로부터 약 8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 이외에도 사내벤처팀(기업), 국내외 대기업, 투자사(VC) 등을 연결하는 K.O.I(Korea Open Innovation) 행사 등을 진행하여 성공 분사(Spin-Off) 및 사내벤처 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IV-6-1-20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현황('19.12)

구 분	운영기업명 (59개사)
대기업 (14개사)	현대자동차(주), (주)엘지씨엔에스, 롯데엑셀러레이터, 엘에스전선(주),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엘지유플러스, (주)이노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SK텔레콤(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삼성전자(주), 엘지이노텍(주), (주)우리금융지주
중견기업 (12개사)	(주)하나금융티아이, 주식회사 코맥스, (주)코스콤, 대상주식회사, (주)휴맥스, 디와이오도, (주)한솔교육,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 (주)엔글, 보령메디앙스(주), 한솔피엔에스주식회사, (주)다날
중소기업 (20개사)	(주)삼진엘앤디, 한솔인티큐브, (주)휴넷, (주)인바디, (주)케이엘넷, 헬스투데이(주), 주식회사 매스씨앤지, 주식회사 위지웍스튜디오, (주)프론틱, (주)엔라인, 주식회사플레이오토, 주식회사 현대포리텍, 웅진개발(주), 케이씨글라스(주), (주)에이치나인, (주)씨아이그룹, (주)에프엔가이드, (주)이튜, 주식회사 티제이이노베이션, (주)버티고우게임즈
공기업 (13개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한국가스공사

라. 중소기업 재기지원

1) 재도전 성공 패키지

2015년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사업계획을 보유한 재도전기업인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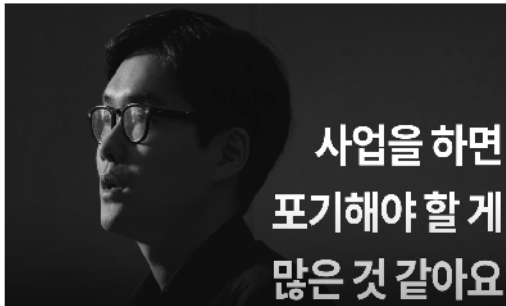
2019년 297개의 재도전 기업을 선발하여 평균 43백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고, 동시에 실패원인 교육 프로그램, 1:1 심층멘토링, 입주공간(R-Camp) 지원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재도전 기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 조정 연계형을 신설하는 등 재도전 기업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도전 인식개선 홍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매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재도전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있으며, 재도전 문화확산 프로젝트·재도전의 날 등 다양한 콘텐츠 생산 및 행사를 개최하여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도전 기업인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며, 재도전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도전 문화확산



재도전의 날

마. 창업생태계 기반구축

1) 메이커활성화 지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구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의 혁신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메이커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창업 토대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을 위해 2017년 11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을 수립·발표한 후 2018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시작하여 ‘19년 현재 전국에 총 126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였다.

2019년 공모를 통해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을 지원하는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60개와 전문 창작활동과 제조창업을 연계 지원하는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3개를 선정하여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시제품 제작, 양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6-1-21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현황('19년말)

(단위 : 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전문형	3	1	-	-	1	-	-	-	1
일반형	22	19	5	5	5	2	7	6	5
구분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계
전문형	-	-	-	1	1	-	-	-	8
일반형	5	7	4	5	7	5	7	2	118

또한 '19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병행하여 메이커 문화의 사회적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메이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 강사, 교사 등 메이커 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679명에 대한 메이커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154개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메이커 동아리 지원과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 기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등 총 166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특히 태백시, 삼척시 등 탄광지역의 도시재생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 폐자원을 활용한 목공체험 등의 교육 운영, 이동형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동형 시제품 제작소” 팸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운영 등을 통해 총 1,930여명에게 메이커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국·지역 단위 20개 메이커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인 메이커 운동 붐 확산을 유도하였다.



메이커 전문가 교육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메이커 밋업데이

앞으로 정부는 누구나 쉽게 메이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디지털 장비 등을 구비한 실험적 제작 교육 공간 뿐만 아니라 창의융합인재의 실전

활동과 참여자 간의 지식·정보가 선순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공간 기능을 갖춘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은 물론 메이커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혁신성장 및 창업저변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을 발굴하고 One-stop 형태의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총 27개 주관기관을 통해 우수 (예비)퇴직자를 발굴하고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는 교육, 공간 및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전국에 7개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27개소까지 확대 설치하여 중장년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맞춤형 기술창업 교육과 입주공간 지원 및 보육을 통해 957개사 창업기업 배출을 했고, 입주공간 지원 및 보육을 통해 매출액 604억 원, 고용 437명을 달성했다. 2019년부터는 중장년 (예비)퇴직자가 축적한 노하우와 역량이 창업생태계 내에서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창업뿐만 아니라 멘토, 투자자 등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표 IV-6-1-22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요성과(2019년)

구 분	창업자수	고용인원	매출액	지식재산권 (특허등록기준)
2017년	보육 : 791명 교육 : 250명	404명	52,200백만원	196건
2018년	보육 : 741명 교육 : 212명	476명	62,084백만원	237건
2019년	보육 : 748명 교육 : 209명	437명	60,397백만원	307건



예비퇴직자 기술창업 인식교육



투자 역량 강화교육



전담인력 통합워크숍

3)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지역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창업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지역 혁신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교육, 네트워킹 등 일반적인 창업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부터 창업기업의 사업 아이템(비즈니스 모델) 및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과 혁신센터의 강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까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기획·편성·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의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 대학, 연구소, 창업지원 유관기관 등 파트너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6-1-23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기관(센터) 명	지역	기관(센터) 명	지역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도 춘천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 성남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	-

4) 1인 창조기업 활성화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자가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대표(공동사업자)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기술 지식 기반 1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1년 법을 제정하고 '19년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

제공 및 전문가 상담·교육·네트워킹 등 원활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09년 전국에 21개의 센터를 지정하였고, '19년 50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2019년 50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1,488개사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1,632건의 경영 자문과 교육 및 세미나(10,533명 참석), 네트워킹 프로그램(34,482명 참석)을 운영하였고, 708명의 고용 창출 및 1,331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IV-6-1-24 | 2019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

년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강원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소계
19	13	2	8	23		2	4	4	1	4	3	2	1	1	3	2	27	50

표 IV-6-1-25 | 비즈니스센터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시행주체
사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데스크 (1인 전용 사무공간, 서비스드오피스) 편의시설(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프린트, 카페 등)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등, 아이템 시장 멘토링 교육,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정보제공 등 	주관기관
교육·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모델(BM) 개발 (사업계획서, 피보팅 등)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네트 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확대 1인 창조기업-우수창업기업 간, 입주-졸업기업간 	전담기관 주관기관

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1인 창조기업에게 맞춤형 마케팅 및 다각적 판로 채널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 준비 지원을 위해 기업당 최대 20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마케팅 세부과제는 멀티미디어, 디자인, 광고 홍보 등 1인 창조기업들의 보유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표 IV-6-1-26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구분	과제	세부 지원 분야
마케팅 지원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CM송제작
	디자인	전자·종이카탈로그, 포장·포스터·제품디자인, 브랜드개발
	광고 홍보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표 IV-6-1-27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요 지원 내용

(단위 : 억원, 개사, 명)

연도	예산	신청	선정	고용
2016	51.9	2,081	463	314
2017	40.0	1,829	437	752
2018	29.0	1,320	279	416
2019	15.0	1,432	150	198

또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활동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혁신제품들이 다각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상품설명회, 구매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마켓 입점 등을 통한 유통채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품설명회·구매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인도네시아, 중국)



온라인 마켓(위메프)
기획전 운영

5) 판교 창업존 운영

판교 창업존은 미래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인프라시설 지원, 보육 프로그램 등 성장 지원을 하는 창업보육공간이다.



관교 제2테크노밸리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보육공간인 ‘창업존’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업기업육 모집·선발하여, '20년 6월 기준 신산업 분야 100여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스타 벤처기업으로의 도약을 향해 노력 중이다.

관교 창업존에서는 입주기업의 빠른 성장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3D 제작보육실, 글로벌 테스트베드, 통·번역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 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제7장

한국벤처투자(주)

1

일반현황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이하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부가 설립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2005년 6월 29일 개소하였다.

모태조합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탈 등이 결성하는 자(了)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이다. 모태조합은 2009년까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천억 원,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재정 4천억 원으로 총 1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결성 이후 기존 출자자의 추가 출자금 납입 및 신규 출자자 참여(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를 통해 2019년말 기준 4조 5,217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운용기간은 30년이며, 회수된 자금은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중소·벤처기업 투자 전용재원 풀(Pool)에 넣어 운영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해졌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운영이외 창업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VC 글로벌 펀드를 2013년부터 조성하였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개소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및 유니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엔젤투자 확대 및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엔젤투자내칭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사업 추진 실적

가. 모태조합 운영을 통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

1) 총괄

모태조합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출자 및 관리를 담당하고,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벤처캐피탈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태조합은 정부가 투자재원은 공급하되 투자 의사결정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시스템으로서 투자에 있어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단년도 예산 배정 범위내 지원방식에서 탈피,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Revolving System)으로 운영됨에 따라 벤처투자 시장에 안정적으로 투자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표 IV-7-1-1 | 모태조합 운영 체계

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조합 출자 및 관리·감독 등 모태조합 자산 관리·운영
자조합 (민간 벤처캐피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캐피탈이 모태조합 출자를 받아 자조합을 결성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에 자금공급 및 출자자에 투자수익 배분
중소·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아 성장

2019년 말 기준 중기부, 문체부 등 총 10개 부처가 모태조합에 출자하였으며, 그 규모는 4조 5,217억 원이다.

표 IV-7-1-2 | 모태조합 조성규모

(2019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부처	계정	'15년 이전	'16	'17	'18	'19	계
중기부	중진	11,001	1,000	5,000	500	2,400	19,901
	엔젤	2,090	-	-	-	-	2,090

부처	계정	'15년 이전	'16	'17	'18	'19	계
문체부	지방	100	-	-	-	-	100
	청년	-	-	3,300	-	-	3,300
	혁신모험	-	-	-	4,000	500	4,500
	소계	13,191	1,000	8,300	4,500	2,900	29,891
	문화	4,661	360	530	540	630	6,721
	영화	520	100	180	100	80	980
	관광	130	100	150	170	130	680
	스포츠	200	200	70	100	100	670
소계	5,511	760	930	910	940	9,051	
특허청	특허	1,600	-	-	200	100	1,900
과기정통부	과기정통	1,100	370	200	150	150	1,970
고용부	중진	100	-	-	75	-	175
복지부	보건	800	-	-	-	-	800
환경부	환경	-	-	200	130	280	610
교육부	교육	-	-	120	150	150	420
국토부	도시재생	-	-	-	-	200	200
해수부	해양	-	-	-	-	200	200
누계		22,302	2,130	9,750	6,115	4,920	45,217

2) 벤처투자 자원 양적 확대

2019년 신규 벤처펀드 조성은 전년(4조 8,208억 원) 대비 14.7% 감소한 4조 1,105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신규 벤처투자액은 전년(3조 4,249억 원) 대비 24.9% 증가한 4조 2,777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5년 연속 투자금액이 증가된 수치이다.

이러한 실적 달성에는 모태조합의 역할이 컸다. 모태조합은 2019년 1조 879억 원을 출자하여 2조 6,909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는 2019년 전체 벤처펀드 조성액 4조 1,105억 원의 65.5%에 달하는 수치이다. 모태조합은 누적 기준으로는 7조 6,793억 원을 출자하여 24조 8,617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표 IV-7-1-3 | 신규벤처펀드 조성액

(단위 : 억 원)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펀드조성액	173,523	38,299	45,932	48,208	41,105	347,067

*2015년 이전은 2004~2015년 자료

표 IV-7-1-4 | 모태조합 출자 계정별 자조합 결성 현황

(단위 : 억 원, 개)

계정별 기업성인비	2015년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조합수	결성액	약정액
중진	255	91,907	18,533	33	18,638	5,315	54	25,585	7,105	31	16,146	3,265	19	7,760	3,038	392	160,036	37,256
엔젤	17	2,660	2,480	2	300	180							4	343	180	23	3,303	2,840
문화	57	12,501	5,163	8	1,831	1,000	7	1,221	574	10	2,036	1,268	11	2,248	1,230	33	19,838	9,235
과기	10	1,991	810	6	1,381	375	2	320	200	2	350	220	2	300	210	22	4,342	1,815
영화	7	1,030	560	1	240	140	2	480	280	1	170	120	1	193	95	12	2,113	1,195
특허	34	9,203	2,747	4	950	640	2	300	200	3	718	270	8	2,696	605	51	13,867	4,462
보건	3	2,850	500	1	1,500	300				1	300	180				5	4,650	980
지방	6	676	300	3	400	200	2	250	140	1	100	60	8	1,014	562	20	2,440	1,262
관광	1	220	130	1	200	100				1	270	150	2	500	300	5	1,190	680
스포츠	2	385	200	1	170	100	2	230	170	1	170	100				6	1,015	570
교육							5	189	120	6	257	150	4	145	106	15	590	376
청년	24	4,681	2,795	7	876	570	21	5,348	2,820	6	1,550	835				38	12,455	7,020
환경							1	420	200				2	435	280	3	855	480
혁신										22	9,209	3,660	29	10,581	3,833	51	19,790	7,493
모험													2	295	200	2	295	200
해양													1	400	240	7	1,840	930
공동*	2	560	200	3	700	390				1	180	100	1	400	240	7	1,840	930
계	418	128,664	34,418	70	27,187	9,310	98	34,402	11,809	86	31,455	10,378	93	26,939	10,879	765	248,617	76,793

* 과기/중진/문화, 문화/과기 및 중진/특허 공동계정 출자 자펀드

모태 자조합은 2019년 3조 615억 원의 벤처 투자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2019년 전체 벤처투자액 4조 2,777억 원의 71.6%에 달하는 수치이다. 모태자조합의 누적 투자금액은 18조 1,753억 원이다.

표 IV-7-1-5 | 신규벤처투자액

(단위 : 억 원)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전체벤처투자액	133,732	21,503	23,803	34,249	42,777	256,064
모태자조합 벤처투자액	91,394	17,410	17,933	24,391	30,615	181,753

* 2015년 이전은 2004~2015년 자료

3) 민간자금 유치

모태조합은 벤처펀드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자금의 벤처펀드 참여를 유도하였다. 모태조합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선두 주자로서 자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블 수행함에 따라, 민간 출자자들이 모태 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모태조합 출자지분에 대한 풀옵션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신규 민간 자금의 벤처펀드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모태조합은 1조 879억원을 출자하여 2조 6,909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2.5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했으며, 누적적으로는 7조 6,793억원을 출자하여 24조 8,617억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3.2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했다. 벤처투자 시장 전체의 민간자금 유입도 2015년 1조 5,058억 원에서 2019년 2조 7,413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4) 취약분야 지원 강화

모태조합은 수익성 뿐 아니라 정책 목적을 보유한 펀드로서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자심사 시 가점부여, 출자한도 및 성과보수 우대 등을 통해 창업초기펀드, 지방펀드, 여성펀드 등 정책 목적 조합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루키리그를 통해 신설운영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으며 창업초기조합에서 최소결성금액의 20%를 지방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투자 확대를 추진했다.

표 IV-7-1-6 | 모태조합 취약분야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조합수	출자 약정액
초기 지원	79	7,296	15	2,040	13	1,330	23	3,009	23	3,085	24	3,180	177	19,940
지방, 여성	16	808	6	350	4	300	3	240	2	120	9	682	40	2,500
계	95	8,104	21	2,390	17	1,630	26	3,249	25	3,205	33	3,862	217	22,440

5) 투자활성화 지원

한국벤처투자는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 만화책을 제작하여 62개 유관기관에 1,356부 배포하였고, 공유오피스(패스트파이브)와 연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투자계약 해설 애니메이션을 함께 제작, 배포하여 19년 온라인 조회 수 3,900회를 달성하였다.

또한, 조선업·재창업기업 등 취약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IR&상담회를 진행하여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였고, 참석기업 중 5개 기업이 80억원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외에도, 벤처시장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MarketWatch를 11회 발간하고, 투자기업 M&A 성공사례, Next Unicorn 소개 등 신규 콘텐츠를 도입하였다.

6) 일자리 창출

한국벤처투자는 일자리 매칭펀드 직접 운용하며 기관투자자와 매칭의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동 펀드는 투자기업의 고용성파에 따라 기업과 매칭투자자에게 펀드 지분에 대한 매입 권한을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다.

2019년 총 27개 기업에 467.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기업은 직전년도 대비 564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투자금 1억원 당 1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나. 중소벤처기업 외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1)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지 네트워크가 뛰어난 해외VC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는 글로벌 우수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해외VC 글로벌 펀드를 2013년부터 조성해오고 있다.

'19년 말 현재까지 Altos Ventures, Legend Capital, Northzone Ventures 등 해외 유명 29개 벤처캐피탈과 2조 9,45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 245개에 5,857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여 누적 모태 약정금액 3,354억 원 대비 약 1.7배의 투자유치 효과를 시현하였다.

표 IV-7-1-7 | 해외VC 글로벌 펀드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펀드 조성액	2,754	4,438	6,268	3,246	5,920	6,831	29,458
모태 출자액	150	507	820	418	822	638	3,354
한국기업 투자액	644	1,580	823	1,100	747	964	5,857

2)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니콘 성장 지원

한국벤처투자는 미국(2013년), 중국(2014년), 싱가포르(2015년)에 해외 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해외 사무소를 통해 국내 기업, 현지 벤처캐피탈, 한국 벤처캐피탈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사무소에서 2018년 총 45건, 2019년 총 88건의 국내기업-해외투자자 연결을 진행하였다.

국내기업 해외투자자 연결 및 해외VC 출자를 통해 2019년 골드만삭스 등 해외투자자에게 총 3,136억원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유니콘 기업 탄생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플랫폼 CB Insights에 국내기업 유니콘 등재 및 기업가치 규모별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9년 5개 신규 유니콘이 탄생되어 누적 11개 유니콘을 배출하였다.

다.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창업초기기업 육성

1) 엔젤투자매칭펀드를 통한 창업초기 기업 투자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 100억 원 규모로 출범한 엔젤투자매칭펀드가 2019년말 현재 16개 1,92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표 IV-7-1-8 |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펀드 조성액	1,300	100	520	-	-	1,920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일정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의 방법으로 신주에 투자한다. 펀드의 투자대상은 총 기업가치가 70억 원 이하인 창업초기 기업이다. 2019년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는 총 101건, 129억 원의 매칭투자가 집행되었으며, 누적기준으로는 717건, 856억 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대상기업 평균고용증가율은 5.09%로 중소기업의 명수기준 고용증가율인 0.9%대비 높은 고용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IV-7-1-9 |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 집행현황

(단위 : 억 원, 개)

구 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투자건수	254	120	113	62	67	101	717
투자금액	324	148	119	60	76	129	856

2) 엔젤투자자 육성 기반 구축

한국벤처투자는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는 엔젤투자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전문엔젤제도(관련 매뉴얼 제정 및 확인업무 수행)를 운영하고 있으며 엔젤클럽 활동실적 확인을 통해 엔젤클럽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엔젤투자자 회수 지원을 위해 833억 원('16. 4월, 6월, '18. 10월, '20. 3월) 규모의 엔젤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엔젤투자자 회수 지원을 위한 엔젤구주거래 정보망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엔젤투자자수는 '14년 7,060명에서 '19년 21,17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엔젤투자 금액 또한 '14년 905억원에서 '19년 3,74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IV-7-1-10 | 엔젤투자자 및 전문엔젤 수 누적 현황

(단위 : 명, 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엔젤투자자	7,060	9,468	12,536	14,827	17,857	21,176
전문엔젤	11	36	93	150	126	148
엔젤클럽	117	146	178	189	215	230

표 IV-7-1-11 | 엔젤투자 현황(소득공제 기준)

(단위 : 억원, 명, 건, 개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투자액	905	1,844	2,193	2,623	4,796	3,749
투자건수	1,254	2,877	5,175	8,019	15,618	14,060
기업수	231	413	441	506	843	822

* 공식적인 엔젤투자 규모를 '소득공제기준'으로 작성, 3년 주기의 통계

제8장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

일반현황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종합마케팅 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995년 12월 21일에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조직은 3본부 9실·3단 1센터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판로지원 채널 및 기능별로 백화점사업단, 홈쇼핑사업단, 마케팅지원실, 공공구매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사업단은 목동판매장(행복한 백화점)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사업단은 홈쇼핑사(GS, CJ, 홈&쇼핑, 공영홈쇼핑 등)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케팅지원실은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 강화 지원, 발굴·연계시스템운영, 온·오프라인 기획전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개최, 공동A/S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중소소모성자재 납품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구매지원센터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능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실은 소상공인 홈쇼핑 진출지원 교육, 상품보완 및 컨설팅,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V-커머스 활용지원 등 소상공인의 신규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 판로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혁신성장 통합유통플랫폼’을 목표로 신규 판로지원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제 7홈쇼핑인 공영홈쇼핑(15.7 개국)을 설립하는 등 사업추진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유통 시장 진출 및 판로지원 확대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높은 시장 진입장벽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On / Off-Line 판로지원 및 전시·홍보지원 등 중소기업 종합 마케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중소기업 백화점(목동판매장) 운영

1999년 12월 3일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목동 판매장(행복한 백화점)을 개점하여 2019년까지 총 2만 5천여 개 업체에 대해 1조 4,017억 원의 판매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간 백화점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아이디어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HIT500 PLAZA(550평)'를 '아임쇼핑(700평)'으로 확대·개편('15.10)하여 2,493개('18.12) 업체의 우수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입점업체는 초기 창업기업(창업사관학교, 창업·벤처기업), 우수 중소기업(인증·특허상품), 기관 및 지자체(지역특화사업, 장애인지원센터 등), 공동브랜드 등 세내기 기업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입점 중소기업에게는 낮은 수수료 지원, 매장 판매사원 인건비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 판매전 및 상담회 등을 통한 대형유통채널 연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목동 판매장에 입점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수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 등 공식성 기획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 IV-8-1-1 | 백화점(목동판매장) 판매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 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판매지원액	11,279	620	624	552	469	473	14,017
지원업체수	12,106	2,636	2,968	2,410	2,493	2,646	25,259

* 정책매장(4층) 개편 현황 : ('11.8) 90평 → ('12.3) 350평 → ('12.9) 550평 → ('15.10) 700평

2)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IM Shopping) 확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유통센터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민간시설 등과 연계하여 신기술·벤처·창업·수출 우수중소기업 등 단일매장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초기·영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전용판매장(IM Shopping)의 판로지원 효과 증대를 위하여 낮은 판매수수료, 판매사원 및 인테리어 비용지원, 타 유통망 연계 등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8-1-2 |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IM Shopping) 운영 현황 (2019년)

구 분	오픈일	매장면적	지원상품수
인천공항(서편)면세점	'12. 6. 27	76㎡(23평)	1,018개 품목
인천공항(동편)면세점	'15. 11. 6	42㎡(13평)	1,014개 품목
인천공항(T2)면세점	'18. 1. 18	84㎡(25평)	1,263개 품목
갤러리아면세점	'15. 12. 28	50㎡(15평)	482개 품목
SM서울	'16. 2. 4	31㎡(9평)	552개 품목
신세계면세점(센텀)	'16. 3. 1	66㎡(20평)	763개 품목
신세계면세점(본점)	'16. 5. 18	53㎡(16평)	827개 품목
현대 무역센터점	'18. 11. 1	13㎡(4평)	179개 품목
신세계백화점(영등포)	'17. 9. 8	52㎡(16평)	524개 품목
현대백화점(판교)	'16. 11. 9	69㎡(21평)	408개 품목
KTX 부산역사	'13. 2. 5	42㎡(13평)	788개 품목
화성휴게소(목포행)	'11. 12. 1	165㎡(50평)	832개 품목
행복한백화점 4층	'11. 3. 1	2,313㎡(700평)	13,277개 품목

3) 홈쇼핑 판로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다양한 판로지원을 위해 6대 홈쇼핑사(GS, CJ, 현대, 롯데, NS, 홈&쇼핑) 및 공영홈쇼핑사, T-커머스사(K쇼핑, SK스토아, 신세계 쇼핑, 쇼핑엔티, W쇼핑)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2019년까지 4,644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 2,227억 원의 홈쇼핑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8-1-3 | 홈쇼핑사업 판매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 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판매지원액	16,671	2,529	3,136	3,594	3,163	3,134	32,227
지원업체수	2,779	283	373	361	406	442	4,644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인 공영홈쇼핑(최대주주), 홈&쇼핑(3대 주주)에 주요주주로 참여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홈쇼핑 유통망 진입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마케팅 판로 지원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온·오프라인 유통망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강화 지원, 발굴·연계시스템운영, 온·오프라인 기획전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개최, 공동A/S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판로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1) 마케팅역량강화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마케팅전략수립, 제품개선, 홍보 등 맞춤형 마케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2) 발굴·연계시스템(www.imstars.or.kr)운영

발굴·연계시스템이란, 중소기업 상품을 모아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로 판로를 연계하는 통합유통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종합 판로지원 시스템을 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간소화·표준화하고,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 유통 MD와의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3) 온라인시장진출

국내 온라인쇼핑몰 연동에 기반을 둔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몰 통합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진입 및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전에 필요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 활용을 위한 제품 홍보동영상 제작, 홈쇼핑시장 진출을 위한 TV홈쇼핑 방송, 온라인쇼핑몰 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다.

4) 정책매장 운영

입지가 우수한 곳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하여 창업 및 아이디어 혁신기업의 초기 제품에 대한 시장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유통시장으로의 진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5) 오프라인 기획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을 진행,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 및 대형유통업체 입점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6) 대한민국 마케팅 Fair

정부포상, 바이어 초청 상담회, 판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판로 개척 분위기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기회를 부여, 중소기업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7)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중소기업의 에로사항인 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A/S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A/S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 A/S센터는 기본적인 고객 응대부터 불만 해결, 사용법 안내 등 각종 소비자 민원사항을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A/S 서비스망 구축 지원을 통한 A/S대행 처리와 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A/S역량강화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다.

8)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제품품질 인증 중심의 국가주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형성된 신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확대 등 판로개척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9)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대기업 MRO사에 비해 열악한 여건으로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배양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내 '중소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표 IV-8-1-4 | 마케팅 판로지원사업별 주요 지원현황 (2019년)

사업명	주요 지원현황
마케팅역량강화	◦ 마케팅전략수립, 브랜드개발지원, 매체홍보, 빅데이터 분석·활용, 제품 개선 지원 중 기업 '자율선택형' 패키지식 지원 : 54개사
발굴·연계시스템 운영	◦ 우수제품 DB발굴 성과 : 3,071개 제품
온라인시장진출	◦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V-커머스 등 183회 / 199개사 지원
정책매장 운영	◦ 13개소, 2,350개 기업의 17,000여개 품목의 제품 판매지원
오프라인 기획전	◦ 대형유통망, 팝업스토어, 지자체 및 기관 등 현대, 롯데, 신세계 등 87회 / 536개사 / 3,813개 제품 지원
대한민국 마케팅 Fair	◦ 217개사 참여, 327부스, 구매상담회 747건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 총 565개 중소기업의 A/S 인프라 및 A/S역량강화(교육)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 39개 중소기업에 '브랜드K' 사용권한 부여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중소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 총 983개 중소납품업체 지원

다. 공공구매지원 기능 수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판로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제품 등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지원제도를 기존 '한국산학연합회'에서 이관('19.10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와 혁신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여 통해 구매 가능한 제품을 선정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부담 없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창업기업 및 초기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환경을 구축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활성화를 통해 시범구매 선정제품 구매실적이 '18년 268억원에서 '19년 1,775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성능인증 제도(EPC)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은 신청 요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다른 기술개발제품에 비해 공공판로 초기기업 등의 접근이 수월한 특징이 있다. 성능인증 취득 시 3년간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이 되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표 IV-8-1-5 | 공공구매지원제도 제도별 주요 지원현황 (2019년)

제도명	주요 지원현황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 선정 제품 194개, 구매 제품 192개, 구매금액 1,775억 원
성능인증	◦ 신규 신청제품 674개, 신규 인증서 발급건수 253건

라. 소상공인 신규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 홈쇼핑 진출지원교육, 상품보완 및 컨설팅,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TV 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소상공인제품 판매전, 1인방송 플랫폼 구축운영, 1인 방송 아카데미 운영, V-커머스 활용지원,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규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소상공인 홈쇼핑 등 진출지원교육 운영

홈쇼핑 및 민간 온라인 커머스 시장 진출을 희망하거나 홍보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T-커머스 포함), V-커머스 채널별 입점을 위한 사업준비 기본과정 및 절차 등 교육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규 채널 진출관련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 상품보완 및 컨설팅 운영

전문가 지원을 통해 제품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 디자인 개선 및 소비자 반응조사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진출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3)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국내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통한 온라인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쇼핑몰에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개설·판매을 지원하고 및 쇼핑몰 메인화면에 기획전 노출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제품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4) TV 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TV홈쇼핑 및 T-커머스 채널을 통해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TV 홈쇼핑 및 T-커머스 채널에 소상공인 제품 판매 전용 방송시간 확보 후 방송준비 및 입점비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5) 소상공인제품 판매전

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소내전 등 기존 유통 채널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O2O 마켓을 운영하여 판매 촉진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6) 1인방송 플랫폼 구축운영

우수한 소상공인제품을 선정하여 판매하는 소상공인 전용 판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소상공인 상품 전용판매 플랫폼 운영 및 영상기반 온라인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7) 1인 방송 아카데미 운영

1인 방송을 통한 제품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품을 판매해줄 1인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1인 방송 상품판매에 필요한 콘텐츠 기획·제작, 쇼호스트 교육 및 '소상공인제품-1인 크리에이터' 배칭을 지원하고 있다.

8) V-커머스 활용지원

온라인 영상기반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제품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휴 쇼핑몰 채널 내 소상공인 V-커머스 전문관을 개설하여 영상콘텐츠 제작 및 상품 홍보판매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의 영상기반 판매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9) 해외 온라인몰 입점지원

해외 온라인몰 입점 및 해외 플랫폼에 영상송출을 통한 홍보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쇼핑몰에 소상공인제품 전용관 개설·판매 및 입점홍보영상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 판로채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8-1-6 |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사업 별 주요 지원현황 (2019년)

사업명	주요 지원현황
소상공인 홈쇼핑 등 진출지원 교육 운영	◦ 총 1,114명 교육지원
상품보완 및 컨설팅 운영	◦ 총 30개 업체 상품보완 및 컨설팅지원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 총 463개 업체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 총 124개 업체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소상공인제품 판매전	◦ 총 389개 업체 판매지원
1인방송 플랫폼 구축운영	◦ 가치샵시다 플랫폼 구축완료('19.12월)
1인 방송 아카데미 운영	◦ 총 320명 교육지원
V-커머스 활용지원	◦ 총 304개 업체지원
해외 온라인몰 입점지원	◦ 총 51개 업체지원

제9장

(재)중소기업연구원

1

중소기업연구원 개요

중소기업연구원(KOSBI, <http://www.kosbi.re.kr>)은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경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기관 운영의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1993년 7월 1일 재단법인 중소기업진흥재단 부설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2004년 7월에는 조직 확대 및 연구 인력증원과 함께 독립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으로 재편되었으며, 2015년 들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대·중소기업 협력관련 사업 등의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 중이다. 주요사업은 크게 연구사업, 조사평가 및 교육사업으로 나뉜다. 연구사업으로는 국민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 제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조사평가 및 교육사업에는 중기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효율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규제영향평가센터 운영 등이 포함된다.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정책 연구 분야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의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비전 및 대안 제시와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4년 7월 이후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이분과 현장의 균형감각을 배양하는 등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현장성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기관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1) 정책연구

정책연구 사업의 주된 목적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과 연구·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주요 국정과제 관련 기본과제 연구를 포함하여 총 38개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결과물은 중장기 정책 수립 등 정책개선에 폭넓게 반영된 바 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연구원은 자체 및 중기부 연구과제 제안을 토대로 정부 정책방향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 성과의 질과 정책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표 IV-9-1-1 | 2019년 정책연구 추진 현황

연번	보고서명
1	중소기업 정책 60년사(2차년도)
2	지역 중소기업지원사업이 기업생존에 미치는 영향 분석(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을 중심으로)
3	M&A를 통한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4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 연구
5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6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7	미세먼지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8	의류 라벨같이 실태조사 연구
9	총합특구(일본)분석을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발전방안 연구
10	중소기업 사업승계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11	국내외 벤처투자 제도 비교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2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의 성과분석 및 협력 운영방안 연구
13	기능 상실 전통시장 구조개선 추진방안 연구
14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15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16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7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서비스 센터 운영 방안 연구
18	중소기업의 한류 해외마케팅 활성화 방안
19	벤처출신기업의 성과분석
20	소상공인 통계기반 구축 방안
21	규제자유특구 세제지원 방안 연구
22	벤처기업 차등결권주식 제도에 관한 연구
23	중소기업형 남북경협 정책과 과제
24	중소기업의 북방경제협력 및 진출전략 연구
25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26	중소기업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27	재도전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용 방안 연구
28	지역 중소기업과 관련한 부처별 지원정책 현황분석
29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이탈리아 및 독일 비교 중심)
30	해외시장진출 지원체계 연구
31	B2B 중심의 다자간 상호신용 시스템 : WIR과 Sardex를 중심으로
32	미국 중소기업 법체계와 지원제도 연구
33,34	중소기업육성 3개년 계획수립 연구
35	수출해외진출지원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36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37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한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38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이슈 대응 및 규제개선 연구

2) 현안연구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진단·제언 및 학술연구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안연구의 주요 결과물(발간물)로는 「중소기업 포커스」, 「KOSBI 경제동향」, 「중소기업 정책연구」 등이 있다.

가) 중소기업 포커스

「중소기업 포커스」(연 29건 발간)는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적기 분석을 통해 시사점 또는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외부기관의 보고서 활용도 제고를 지향한다. 2019년에 포커스 발간절차를 확립하여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VIP 북유럽 순방에 선제적 대응,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미나에 활용된 사례 등은 주요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또한 674건의 언론보도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IV-9-1-2 | 2019년 『중소기업 포커스』 발간 현황

연번	제 목	연번	제 목
1	이스라엘 창업생태계의 전환과 정책 시사점	16	중소기업 제안서 보상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	중소기업 R&D 투자 현황과 전망	17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3	구독경제의 현황 및 시사점	18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4	싱가포르 중소기업 정책과 시사점	19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 극복
5	디지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재도약	20	기업의 한 유형으로서 영리형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6	최근 영세사업체 고용의 특징 분석	21	일본 수출규제의 대·중소기업 공급망 측면 영향분석
7	상권 주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방향	22	온라인 거래의 특징 및 시사점
8	자영업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23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9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24	혁신활동 분석을 통한 메이커스페이스 발전방안 : 전문랩을 중심으로
10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25	재창업 중소기업 실태와 사회적기업 모델을 활용한 재도전
11	노동 4.0, 인더스트리 4.0의 촉매	26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 내부역량 개방공유 확산방안 마련
12	스웨덴·핀란드의 혁신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27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활용한 정보 mismatch 해소방안
13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	28	국내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사례와 향후의 진출전략
14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 효과 분석 및 시사점	29	2020년 중소기업 경기 전망
15	소상공인 뉴스기반 체감지수	-	-

나) KOSBI 경제동향

『KOSBI 경제동향』(연간 12회 발간)은 중소기업 관련 통계 데이터의 생산·가공·분석을 통해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300개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 수익률 등 실질 경영환경을 조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패널조사”, 경기종합지수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매월 작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 업종별 부가가치 분석”, “해외중소기업 통계현황” 등이 있다.

다) 중소기업 정책연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학문적 개념 확립과 논리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발간된 '중소기업 정책연구'는 중소기업 맞춤형 학술연구지로서 기존 학회지와 차별화된다. '2021년 KCI 등재(후보)지 선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술지 발행규정을 제정하고, 심사요건을 강화하여 학술지 정책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표 IV-9-1-3 | 2019년 『중소기업 정책연구』 주제 및 논문 구성 현황

구분	호별 연구 논문 구성 현황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비대칭과 재무적 제약에 따른 보유현금가치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 창업기업의 기술사업 추진역량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기술개발 집약도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철학없이 성과없다 : PSBP 기반 매개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혁신 과정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활용 방법론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지능정보기술 분야 조세지원 방안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내 기술혁신과 수출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업규모별 영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여부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핵심 디지털 기술의 이용과 중소기업의 중요소생산성 기술혁신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환전환우선주 정책 제안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특성 연구 : 신용보증을 받은 차주를 중심으로
〈3호〉	

3) 연구기반 구축

정책 DB 콘텐츠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연구의 인프라 환경 구축 등이 포함된다. 관련 주요 과업으로는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DB 업데이트(수시),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발간(월간), 웹진 발행(주간), 주요국 정책브리프(연간), 이슈별 해외 중소기업 정책 심층 분석 보고서(연 2회) 작성 등이 있다.

가) 정책 DB 내실화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비교 및 해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주요국(미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의 중소기업 관련 정의, 법령, 정책지원 기관 현황, 정책 정보 등을 조사·정리하여 가시성이 제고된 정책 핸드북 형태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정책 연구 자료의 지속적 등록을 통한 정책연구 DB 내실화 작업도 꾸준히 수행 중이다. 그 결과 2019년 정책DB 접속자수 188,192명(18년 대비 10.1% 증가), 정책정보 다운로드 건수 36,600건(18년 대비 2.6% 증가)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 정책동향 브리프 e-letter

중소기업 정책 관계자 및 유관기관 정책 수요자 등에게 정책동향 정보를 월 1회 제공하고 있다. e-letter와 같은 경우는 14,600여 명의 회원에게 온라인 형태로 격주 간격 발송된다.

다) 연구포털 개선

연구행정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단순 업무망 기능에서 나아가 연구과제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였다. 과제정보, 참여율, 성과 및 회계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4) 정책 공유

중소기업 정책의 당위성 확보 및 연구교류 기반 확대,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집단지성 활용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책공유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정책 공유 사업의 경우, 크게 정책연구회와 학술 세미나 등으로 구분된다.

가) 정책연구회

정책연구회는 분과별 시의적절한 현안이슈를 선정하고 이슈에 대한 정책관계자들 간의 정보공유 및 토론이 핵심이다. 2019년에는 15개 분과(중기정책 60년사, 창업분과/ICT, 생산성/기술혁신, 재기지원, 중소기업 ODA, 동북아 경제협력, 지역 중소기업, 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청년 일자리 활성화, 중기 혁신지원, 글로벌 통상, 동반성장, 정책 협력 네트워크, 신사업 기술, 브라운백 미팅)에 걸쳐 총 36회를 실시했다.

나) 학술세미나

분야별 전문기관과 공동 포럼·세미나 개최를 통한 대외기관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학술세미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9년에는 총 27회를 수행하여 학술세미나를 활발히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유관기관 중심의 공동세미나에서 확장하여 국회의원, 연구회, 위원회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외연을 확대할 수 있었다. 특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관련 국제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해외전문가를 초청하고 규제혁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전략 공유 세미나인 'KOSBI 글쎄?'를 9차례에 걸쳐 개최하면서 세미나에서 유의미한 사례를 정책연구 과제 수행 및 성과로까지 연계하고자 했던 것이 주요 추진 방향이었다.

표 IV-9-1-4 | 2019년 학술세미나 수행 실적

일 자	행 사 명
'19.05.14(화)	중소기업 혁신제고 방안 세미나(중소기업 주간 행사)
'19.05.24(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법제 개선 방안
'19.05.24(금)	2019 춘계공동학술대회-기술경영 경제학회 中 중소기업연구원 특별세션
'19.05.28(화)	최저임금 정책토론회(경제·사회적 효과를 중심으로)
'19.08.20(화)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토론회
'19.08.26(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19.10.15(화)	Korea-ASEAN Workshop on Startup Policy and Cooperation
'19.11.04(월)	제5차 상생협력포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19.11.15(금)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위한 지역규제혁신 국제세미나
'19.11.20(수)	대구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발전방안 포럼
'19.11.22(금)	지역혁신생태계 현재와 미래 방향
'19.11.25(월)~26(화)	한-아세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19.12.04(수)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고용 정책과 중소기업
'19.12.09(월)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의 성과와 과제
'19.12.12(목)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 과제
'19.12.12(목)	2019 4차 M&A 자문기관 워크숍
'19.12.13(금)	부리업종·지역 전통산업 기반 중소기업 현황과 향후 과제
'19.12.23(월)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정책토론회
'19.03.13(수), 04.17(수), 05.22(수), 06.19(수), 07.17(수), 08.28(수), 09.18(수), 10.23(수), 11.13(수)	제10~18회 KOSBI 글쎄!(글로벌 강소기업 세미나)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평가 및 교육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평가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효율화, 규제영향평가 등이 있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중소기업연구원은 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및 지원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을 구축·운영 중이다. 분석 대상 사업에는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이상인 사업들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지원 사업 정보를 구축하였다. 초기 중기청 및 중앙부처 일부 사업에 대한 지원이력 구축에서 시작하여 분석범위를 준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사업까지 확대하였고, 나아가 수요자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력 정보의 신뢰성이 기존에 비해 크게 제고되면서 2019년에는 관리대상 사업을 1,035개(내역사업 기준 1,600개)로 보다 확대하였으며, 253만개 기업, 694만 건(623조 원)의 지원이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상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총 8,313건(사업공고)을 제공하였고, 정책 페이지뷰(Page View) 1억 9천만 건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조회수가 11.4%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기업마당 방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1,664만 건, 누적 가입회원수 13.8만 명을 기록하였다.

표 IV-9-1-5 | 통합관리시스템 정책정보 제공건수/페이지뷰 및 기업마당 활용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제공건수	7,233건	7,481건	8,313건
페이지뷰	141백만 건	176백만 건	196백만 건
방문수	1,006만 건	1,145만 건	1,664만 건
누적 가입회원수	10.8만 명	12.1만 명	13.8만 명

2)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통합관리시스템의 객관적 자료와 현장 전진 등을 통한 지원효과, 운영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개선 및 효율화 방안 도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10개 부처 90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혜기업의 매출고용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13개 부처 75개 사업에 대한 창업 지원사업 심층분석을 진행, 재정효율성 및 정책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중기부와 사전협의체를 거치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전 부처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 해당 정보 분석 결과를 각 수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 일조하였다.

3) 규제영향평가사업

중소기업연구원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분석서 작성) 및 총리훈령(제638호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위탁업무를 수행 중이며, 이는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분야별(6개 분야 : 국토해양, 환경·금융, 산업안전, 재정·R&D, 경제고용, 보건·식의약 분야) 전문가 자문과 규제동향 파악 등 관련 연구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2019년 규제영향평가사업 결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야기하는 신설·강화규제 총 1,039건을 평가하여 31건의 개선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중 12건이 규제 심사 과정에 반영되었다. 아울러 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회 안전에 상정된 4건의 규제 이외에 부처 수용 8건, 대안마련 4건 등 총 12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10장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1

일반현황

(사)한국산학연합회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3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 사업」의 시작과 함께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1998년 1월 중소기업청의 허가과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산학연컨소시엄전국협의회」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3월에 현재의 명칭인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로 변경하였다.

협회는 대전에 소재하여 1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개의 지역협회와 1개의 연구기관협회를 보유한 전문성과 독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산학연 협력 관련 국내 유일한 기관이다. 협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협력 교류 지원, R&D 기술전문가 매칭, 민간주도의 산학연 협력을 위한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유휴 연구시설·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산학연협력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산학연 협력 문화조성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지원정책과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산학연 Collabo R&D

산학연 Collabo R&D 사업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종료 이후 협력 R&D의 중요성과 역할 확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작된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프로그램으로 자체 역량만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학·연구소 등 외부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매칭기관인 한국산학연합회,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 및 전문가의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학연합회는 기술력 제고 및 신제품 개발 등 에로기술 해결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개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소속의 전문가와의 매칭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주체인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의 공동 네트워크 기관으로서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매칭서비스는 3만여명의 과학기술인력 DB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인 '산학연 플러스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2019년 기준 107개의 중소기업이 협회의 매칭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술전문가를 추천받아 예비연구 과제를 기획하였다.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협력 R&D 수행기반 확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상시 매칭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매칭기관과의 공동 협조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나. 연구기반활용

연구기반활용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을 강화하

고자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공유확산형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를 지원하고, 연구집중형은 공유확산형을 수행한 중소기업 중 심도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의 활용이 필요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를 지원한다.

한국산학연합회는 동 사업의 관리기관으로서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발굴을 위해 연구장비활용(ZEUS이용) 설명회 및 연구기반활용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총 지원규모는 13,644백만 원이며, 이 중 공유확산형이 2,426백만원, 연구집중형이 10,120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174개 운영기관을 통해 9,260대 연구장비를 등록하였으며, 1,888개 중소기업이 원활한 연구개발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서비스 20,097건을 지원하였다.

표 IV-10-1-1 | 연구기반활용사업 실적 현황(2019년)

(단위: 개, 백만 원)

구 분	예산	참여기업	주관기관	지원건수	장비대수
'19년	13,644	1,888	174	20,097	9,260

다. 뿌리기술 맞춤형 코칭사업 운영

뿌리산업은 자동차, 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최근에는 로봇, 바이오, 반도체 등 신 산업을 위한 기반으로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뿌리기업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여 기능·기술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우며, 단순노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2019년 3.3억 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하여 국내 뿌리기술 전문가(대한민국 병장 등)를 활용하고 기술전수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뿌리기술 맞춤형 코칭 사업을 추진하였다.

뿌리기술 코칭은 6대 뿌리기술 분야 코칭전문가의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뿌리 기업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술 코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 내 자발적인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고, 숙련 기능·기술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뿌리기술 코칭에 참여한 기업들은 불량개선, 공정개선, 신제품개발 등의 기술적 성과와 작업시간 단축, 생산성향상, 생산단가절감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등 높은 만족도와 함께 20년도 동 사업의 재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협회는 본 사업의 품질 유지를 위해 뿌리기술 전문가의 기술지도 역량에 초점을 두고 전문가 스کیل업 교육을 실시하여 교수법 및 컨설팅 역량 향상,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표 IV-10-1-2 | 2019년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실적

사업명	지원내용	실적
뿌리기술 맞춤형 코칭	기술전문가가 기업·학교에 방문하여 기술 전수	기업 50개사

라.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R&D Life-Cycle 전 주기 이해증진 및 기획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코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은 2 Track(Track 1-협회, Track 2-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운영하여 Track 1(교육)을 통해서도 기업의 R&D기획력 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Track 2(코칭)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R&D 에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효율적 R&D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R&D 사업화'를 핵심 주제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핵심주제 외의 수요자 니즈도 반영하여 방문형교육과 협약설명회 교육, IP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였으며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해 주말교육 및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며 2019년 279회의 교육·코칭을 통해 3,298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IV-10-1-3 | 2019년도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 운영현황

(단위 : 명, %)

		구 분	교육회차	교육수료	만족도
Track1	정규 교육	기본과정	37회	803	87.9
		수행과정	20회	403	88.4
		사업화과정	20회	296	89.9
	방문형 교육		5회	114	88.0
	협약설명회 교육		4회	165	83.9
	IP역량강화 교육		2회	43	93.7
소 계			87회	1,824	88.0
Track2	교육		20회	855	-
	코칭		172회	619	-
소 계			192회	1,474	-
총 계			279회	3,298	-

마.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

한국산학연합회는 대학·연구기관의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R&D기관(대학·연구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능력 등을 배양하는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원활한 산학연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화된 역량 검증을 위해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산학연합력 코디네이터 자격취득 준비를 위한 종합교육과 자격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으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교육 수료자 323명, 자격 취득자 96명을 배출하였다.

표 IV-10-1-4 | 2019년 산학연합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운영현황

(단위 : 명)

시행년도	구 분	교육과정	시 작 일	종 료 일	수료인원
2019	상반기	종합교육	2019-05-07	2019-05-09	77
		보수교육	2019-06-13	2019-06-14	83
	하반기	종합교육	2019-10-23	2019-10-25	111
		보수교육	2019-12-05	2019-12-06	52
합 계					323

표 IV-10-1-5 | 2019년 산학연합력 코디네이터 자격시험현황

(단위 : 명)

시행년도	구 분	시 행 일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2019	상반기	2019-07-06	78	69	20	28.9%
	하반기	2019-11-16	143	126	76	60.3%
합 계			221	195	96	49.2%

바.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공공기술이전 로드쇼는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확보한 우수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고자 2013년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간의 협업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이전 기술을 기반으로 추가 R&D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이후 사장되고 있는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을 연계하는 공공기술이전 로드쇼는 현재 과기정통부-농림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특허청 등 6개 부처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2013년 사업 개시 이후 꾸준히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홍보 및 참여 독려 등 로드쇼 행사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산학연플러스 시스템을 통해 418건의 공공 우수기술을 공개하였다.

표 IV-10-1-6 |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개최 실적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1차)	하반기(2차)	상반기(1차)	하반기(2차)	
일 자	5.12	11.23	5.24	10.19	11.7
장 소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주 최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특허청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특허청		과기정통부·농림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특허청
발굴기술	462건	986건	372건	689건	418건
상담기업	36개사	58개사	30개사	78개사	22개사
매칭건수	23건	43건	18건	33건	9건

제11장

(주)공영홈쇼핑

1

일반현황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고, 공정한 유통거래 선도 및 상생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상법' 제4장에 의거하여 2015년 3월 5일에 설립되었다. 2015년 7월 14일에 채널명 '아임쇼핑'으로 개국 후, 2018년 11월 1일에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책임 의지를 담아 '공영쇼핑'으로 채널명을 변경하였다.

공영홈쇼핑의 조직은 4본부 12실 4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과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기능 및 채널별로 중기상품실, 식품상품실, 마케팅실, 온라인실, CCM센터, 방송기술실, 방송제작실, 디자인아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6개 홈쇼핑사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로만 100% 판매방송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사 홈쇼핑 대비 평균 10% 이상 낮은 20% 판매수수료율로 운영하고 있다. ('18. 4월부터 판매수수료율 20% 시행)

TV 채널 중심에서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3 스크린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사업 및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직매입 판매·해외 수출 등의 다양한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상생·협력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상품개발에서부터 입점·홍보 지원 및 창업 상품의 명품화 육성까지 초기 창업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중소기업 제품 및 우리 농수축수산물만의 판로지원기능 수행

공영홈쇼핑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높은 시장 진입장벽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TV 채널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로지원 및 상품개발·홍보지원 등 중소기업 종합 마케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TV홈쇼핑'공영쇼핑'채널 운영

2015년 7월 14일 중소기업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개국 후 2019년까지 총 7,523개 상품에 대하여 2조 5,923억 원의 판매 지원을 하고 있다. 다른 홈쇼핑사 대비 10% 이상 낮은 최저 판매수수료율로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며 상생협력의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IV-11-1-1 | 공영쇼핑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 분	2015년 (7.14~12.31)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농축수산물	
판매지원액	912	588	3,023	2,034	3,339	2,489	3,319	3,063	3,481	3,675	25,923
지원상품수	415	384	933	645	1,039	720	949	700	974	764	7,523

'공영쇼핑' 채널 운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만을 100% 판매방송 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수익보다는 상생협력·지역발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영 최우선 순위 목표로 하고 있다.

2) 창업·벤처기업 제품들의 시장 진입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기술력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높은 시장 장벽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벤처기업들의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들을 개국 후 5년간 2,006개 발굴하여 5,306억 원의 판매 지원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용 판매 프로그램 방송 및 일반 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통해 판매방송 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표 IV-11-1-2 | 창의혁신 제품 판매지원 현황

구 분	2015년 (7.14~12.31)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판매지원액	148억원	592억원	916억원	1,631억원	2,019억원
지원상품수	76개	284개	508개	552개	662개
편성비중	9.6%	12.7%	21.9%	28.3%	33.0%

* '19년 창의혁신제품 편성비중 목표 25%로 8%p 초과달성함

표 IV-11-1-3 | 판매지원 중인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창의혁신 상품들

구 분	주 요 내 용
스타트업 상품	◦ 창업초기(창업 5년 이내) 기업 상품
벤처기업 상품	◦ 벤처기업 등 신기술 개발 상품
정책지원 상품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육성 상품 * 창업지원, R&D지원, 마케팅지원, 자금지원 대상 상품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기업 상품	◦ 정부기관 인증기업 및 인증기업의 상품 *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굿디자인 인증, NET인증, NEP인증 등
국제규격 인증 상품	◦ 국제·해외 규격 인증 상품 * ISO, CE, FCC, UL 인증 등 / 국내·외 발명대전 수상 상품
각종 특허 상품	◦ 특허출원 및 등록,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의장등록 등 ◦ 기술 또는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상품
문화창달 상품	◦ 국내 지자체 축제, 관광지 등과 연계한 문화여행 상품 ◦ 국내 농·어촌 체험 및 문화 체험상품
전통시장 상품	◦ 전통시장 연계판매 상품
사회적기업 상품	◦ 사회적 기업 생산 공익 상품
국가기술이전상품	◦ 국가기술 사업화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생산한 상품 ◦ 농업기술원 등의 기술이전을 통한 상품 등
소비자 추천 상품	◦ 소비자 아이디어 공모 상품, 크라우드 펀딩 상품
기타 창의혁신 상품	◦ 기능 또는 디자인 등 창의혁신성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상품

3) 중소기업 제품들의 명품화를 위한 우수 상품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집중 판매홍보를 통해서 5년간 514개의 우수 상품들(연 취급 매출액 10억 원 이상)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 있다.

표 IV-11-1-4 | 우수상품 판매지원·육성 현황

(단위 : 개)

구 분	10~20억	20~30억	30~50억	50억 이상	합계
2015년	22	1	0	0	23
2016년	87	23	9	1	120
2017년	79	27	10	3	119
2018년	77	16	16	7	116
2019년	74	37	15	10	136
소계	339	104	50	21	514

4) 온라인 채널(인터넷·모바일) 육성을 통한 판로지원의 확대

TV홈쇼핑 채널의 판매방송 편성시간의 물리적 제약과 성장률이 둔화되어 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판로지원 확대를 위하여, 2015년 10월 12일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였다. 외부 제휴 확대 및 광고 활성화로 연간 약 1,600억 원 채널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화면개선·소비자 이용편의 제고·프로모션 강화·상품 확대 등의 집중 육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판로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표 IV-11-1-5 | 온라인 채널의 판매지원 현황

구 분	2015년 (10.12~12.31)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판매지원액	69억원	579억원	1,010억원	1,505억원	1,633억원
운영상품수	7,564개	57,337개	335,079개	339,849개	460,109개

나.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공영흡소핑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상품개발·마케팅 코칭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및 상생협력을 위해 5년간 33개의 정부기관·지역자치단체·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품발굴·지역특산물 홍보·마케팅 지원·판로확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표 IV-11-1-6 |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현황

체결일	업무 협약처	체결일	업무 협약처
'15. 8. 31	농협 중앙회 전북지역본부	'17. 2. 20	강원도
'15. 10. 2	서울산업진흥원	'17. 5. 12	충주시
'15. 10. 13	충청북도	'17. 7. 11	충청남도
'15. 10. 29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17. 7. 21	한국농어촌공사
'16. 1. 26	산림조합중앙회	'17. 8. 21	파주시
'16. 1. 2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7. 11. 9	인제군
'16. 4. 28	경상북도	'18. 1. 2	대한상공회의소
'16. 5. 10	경기도	'18. 8. 3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6. 5. 25	제주테크노파크	'18. 10. 19	경상북도
'16. 6. 17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18. 11. 29	담양군
'16. 6. 20	창업진흥원	'19. 1. 31	Kotra
'16. 7. 15	제주도	'19. 6. 27	한국미라클피플사
'16. 9. 9	소상공인진흥공단	'19. 7. 1	아리랑국제방송
'16. 10. 19	하동군	'19. 7. 17	전라남도
'16. 11. 3	경주시	'19. 9. 9	군포시
'16. 11. 9	경상남도	'19. 11. 26	공정거래위원회
'17. 2. 6	양산시		

'19년 중기부 및 농림부·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우수상품 발굴 확대를 위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13회의 입점 설명회를 진행하고, 박람회 등 전시관을 운영하여 상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책기관과 협력하여 상품품평회에서 39회의 마케팅 코칭 등을 지원하였다.

2) 기획 판매방송 프로그램의 고정 운영을 통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방송품질 개선 및 차별화된 테마 등을 개발하여, 공영쇼핑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면서 마케팅이 필요한 상품들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12개의 고정 판매방송을 운영하였으며, 특별 기획전 등을 운영하여 상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IV-11-1-7 | 고정 판매방송 프로그램 운영 현황('19년 생방송 기준)

(단위:백만원)

프로그램명	판매방송 횟수	주문실적	주요상품
우리는한국인	16회	2,303	최정원컬렉션, 도마슬김치 등
TV하나로마트	57회	6,362	제주방단호박, 임금님이천쌀 등
TV 행복한백화점	25회	3,388	발렌타인칼링사파리, 골든더크티셔츠 등
센언니의뷰티쇼	24회	3,744	쥬얼라인(엘리자베스, 오로라) 등
어랍쇼	68회	8,487	국내산오징어, 영광군굴비 등
공영푸줏간	8회	601	제주토종까막돼지, 돼지모듬세트 등
해피하우스	45회	7,906	엑스런닝머신, 블루밍비데 등
상생정보통	33회	1,859	문경오미지벨리청담, 홍천장 등
놀라운쇼핑서프라이즈	18회	1,778	이라벨르침구, 서산어리굴젓 등
뷰티상사	15회	1,674	신강식기을양상블, 선진링크 등
스타일#	25회	3,912	베네시마씨원피스, 엔드로제코트 등
창의혁신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52회	3,496	부여왕대추, 베디스박수납침대 등
합계	386회	45,510	

* '19년 특별기획 원데이 판매방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특별기획
판매방송 프로그램

○ 수산인의 날(3/27), 슈즈앤박람회 특집전(5/10), 쌀데이(8/16),
인삼대축제(10/11), 김장데이(11/4), 가차삼시다 특집전(12/26)

3

향후 추진방향

가. 기관 고유의 공공성 제고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 및 우리 농축수산물의 100% 방송판매 편성과 업계 최저 수수료율 20%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강화하여 중소기업들이 시장 진입부터 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인큐베이팅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 첫걸음기업의 시장진입 촉진

첫걸음기업들의 홈쇼핑 진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혁신 제품들의 초기 판로 개척의 디딤돌 역할 수행하여 중소·창업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첫걸음기업들의 방송 최소 횟수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판매방송 편성비중을 '20년 50% 목표로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한다.

* 첫걸음기업 : TV홈쇼핑 및 공영홈쇼핑에서 방송 판매 경험이 없는 생산업체

2) 벤더 납품거래 구조개선

민간 벤더 거래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일부 대형벤더 거래 집중현상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과도한 벤더 수수료율 적용 및 납품대금 지급 지연/미지급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들을 방지하고자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직거래 편성비중을 '20년까지 60% 편성 목표로 하며, 민간 벤더사를 통한 홈쇼핑 입점 행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직거래 비중 : ('17년) 41% → ('18년) 49.6% → ('19) 63%

나. 비즈니스 모델 리뉴얼을 통한 흑자전환 시도

1)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추진

TV채널 성장이 정체되고 온라인채널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며, 온라인 매출 중 모바일 비중이 '15년부터 인터넷(웹) 비중을 추월하는 상황 속에서

공영홈쇼핑은 차별화된 라이브 커머스를 추진하고 있다. 생방송 이원화 방송, 라이브호스트 지원, 라이브콘텐츠 교육, 공공콘텐츠 운영 등 차별화된 상품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반 지원을 통해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추진하고자 한다.

2) 방송 품질 개선 및 방송 차별화 시도

미디어월 도입 및 C스튜디오 활용을 통한 슬림화, 단순화, 고급화된 세트운영을 추진하여 화면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들에게 상품정보 전달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브랜드K 론칭 방송', 'MBC 같이편당' 등과 같이 중소기업 상품 발굴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송 차별화 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3)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공영홈쇼핑은 2019년 소비자중심경영(CCM), 환경경영, 정보보호 인증 획득 및 고객만족도평가(B등급)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였다. 전화응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상담 가이드 추가 개발 및 운영으로 상담품질 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하고 고객 응대 만족도를 향상하고 있다. 또한, 홈쇼핑 7개사 중 '18년 방송평가 1위로 책임 있고 건전한 홈쇼핑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자 한다.

제12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일반현황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장애인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장애인 창업 촉진 및 기업 육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장애인의 경제 참여율을 제고하고 비장애인과의 상생협력 및 공존 실현에 기여하고자 '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조직은 2본부 7개 팀 1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기업육성사업은 센터운영,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장애인 창업육성의 3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 창업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우수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및 창업보육실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 참여 기회 확대, 판로(수출 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장애인기업제품 인식개선 및 우선구매 활성화 등 장애인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 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 비장애인과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장애인 창업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정부는 경제주체로서 장애인의 위상을 정립하고 장애인기업을 통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은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인식 개선 및 창업저변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08년부터 운영되어온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은 연평균 2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IV-12-1-1 | 연도별 창업교육 수료생 수

(단위 : 명)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교육수료생	187	181	241	834	864	953	976	984	1,157	1,400	1,553	1,530

'19년의 경우 창업컨설팅을 총 170명이 창업컨설팅을 수료하고, 이중 55명이 창업하여(창업율: 32.4%) 전년 대비 약 6% 정도 창업률이 상승하였다.

* '18년 창업컨설팅이수자 162명, 창업자 43명(26.5%)

이 밖에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혁신성장 선도사업(드론, 스마트팜 등)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고, 발달장애인 창업을 위한 누룽지생산 및 버섯제조 등 영농창업과정을 운영하였다.

* 발달장애인 특화교육현황: ('18년) 1개 과정, 17명 수료(5명 창업), ('19년) 2개 과정, 36명 수료(12명 창업)

표 IV-12-1-2 | '19년 혁신성장 선도사업 기술교육 현황

연번	기 관 명	기술 아이템	교육 신청	교육 수료	달성률 (%)	창업자
	소계		93	90	92.7%	22
1	한국선진학교*	누룽지(발달장애인)	13	13	100%	2
2	안동진명학교	곤충/버섯(발달장애인)	10	10	100%	4
3	국립공주 대학교	스마트팜(곤충창업)	40	38	95%	2
4	조선대학교**	드론 자격증	30	29	97%	14*

* 누룽지 제조과정 신규실시(수료생 26명(발달장애인가족포함), 창업자 8명(2팀))

** 조선대학교 창업자: 드론 자격증취득 11명, 창업자 3명

'20년에는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팜웨어, 드론촬영, 크리에이터(신규) 과정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교육

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지원을 기존 17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여 교육과정이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발굴·포상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총 11개의 아이템(20년부터 예비창업자 쿼터제 운영)에 대한 시상 및 포상을 하며, 수상자에게는 장애인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 시 우대 지원한다.

‘18년부터는 모의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의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은 전문평가단을 통한 창업아이템의 가상투자 방식으로, 대상자별 IR자료를 구축·검토하는 모의투자 방식을 통해 아이템의 가치를 평가하여 창업아이템의 시장성과 사업성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다.

그림 24 | 모의크라우드 펀딩 자료



모의크라우드펀딩 평가 홈페이지 사진

기업별 투자현황 결과자료

‘20년에는 모의크라우드 펀딩 결과를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여 시장성과 사업성 검증을 강화하고, 전수 산정 기준을 기존 5구간에서 6구간으로 확대하여 보다 세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3)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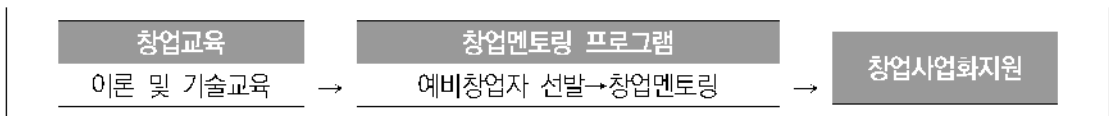
‘18년 신설 사업인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초기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배장 모델링,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비용에 최대 10백만 원, 청년(만 39세 이하)장애인의 경우 20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며,

‘19년은 90명의 창업자 중 청년창업자는 30명(33%)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수요 건증이 가능하였다.

특히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과 연계되어 교육에서 컨설팅, 창업까지의 패키지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통합 창업지원을 수행하였다.

그림 25 | 창업지원 프로세스



‘19년의 경우 창업연령에 대해 차등 지원을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창업자 전원 최대 20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기존 6개월의 창업유지기간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창업에 취약한 환경인 저소득장애인에게 가점(2점)을 부여하여 성평등 및 성인지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4) 창업보육실 운영

사업 공간 등 창업인프라 지원을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특화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총 124개 보육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장애인 기업만 입주 가능하다.

입주 시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 판로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3.3㎡당 1만원의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표 IV-12-1-3 | 창업보육실 현황

지역센터	규모(㎡)	보육실 수(개)	지원시설
서울	2,135	14	보육실(본관 11개, 별관 3개), 대강당, 회의실, 재단사무처 등
대구	503	6	보육실(6개), 회의실 등
광주	527	9	보육실(9개), 창업준비실, 대강당, 회의실 등
부산	686	9	보육실(9개), 창업준비실, 회의실 등
대전	420	6	보육실(6개), 회의실 등
경기	663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인천	313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경남	298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울산	429	8	보육실(8개), 대강당, 회의실 등
전북	322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강원	310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제주	268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전남	333	4	보육실(4개), 다목적교육장, 회의실 등
충북	326	8	보육실(8개), 회의실 등
경북	412	8	보육실(8개), 대강당, 회의실 등
충남	370	4	보육실(4개), 회의실 등
합계	8,315	124	

나.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1) 수출 및 판로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은 민간(해외) 및 공공판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9년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총 20개사의 장애인기업을 UAE(두바이)와 베트남(호치민) 각 10개사를 파견하였다. '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출상담기회 제공을 위해 화상상담회로 변경하여 3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UAE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와 SCHS(UAE 장애인기관)와 소진공 수출인큐베이터, DP World 등의 현지 유관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두바이 수출시장 분석 및 수출상담회를 지원하였다. 베트남에서는 한국무역협회 호치민 지부 및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호치민 한인상공회 등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시장조사 및 수출 상담회를 지원하였다.

‘19년 수출상담회를 통해 20개사 중 5개사가 수출계약을 이루었으며, 총 135만\$의 수출계약액을 달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해외 구매오피 대응 원스톱(One-Stop) 지원 등의 해외 온·오프라인마케팅지원을 20개사에 지원하여 8개사가 수출에 성공하여 150만\$ 달성 수출금액을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판로지원사업은 국내외 입찰정보 제공 시스템, 공공판로(입찰 및 MAS)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입찰정보 제공 시스템(판로지원시스템)은 공공기관의 납품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1순위 애로사항인 입찰정보 확보의 어려움(‘19년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을 해소하고 있다. 판로지원 시스템은 나라장터 외 학교장터, 정부투자기관, 해외입찰정보 등을 총망라해서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년 판로지원시스템의 입찰정보 제공을 통해 발생한 낙찰 건수는 693건이며, 총 낙찰 금액은 843억 원에 달한다.

또한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은 입찰참여 희망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입찰 및 MAS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19년에는 다수공급자 계약(MAS)컨설팅을 40개사에 지원하여 30개사가 물품 등록을 하였으며, 입찰컨설팅 40개사 지원을 통해 19개사가 낙찰에 성공하여 총 11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2)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지원은 장애인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국내인증획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내권리화의 경우, 특허 1,000천원, 실용신안 700천원, 상표/디자인 3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권리화의 경우 특허(PCT, 개별국) 3,000천원, 상표(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2,500천원, 디자인(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2,800천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19년 지식재산권 지원은 해외권리화는 10건이며, 국내권리화는 69건(디자인 4건, 상표 8건, 실용신안 2건, 특허 55건)을 지원하였다.

인증획득지원은 국내인증획득 관련 비용의 최대 80%, 3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ISO인증(3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7종), 조달가점 법정 의무인증(9종), 기업인증(3종)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년 국내인증 지원은 총 45건을 지원하였다.

시제품제작지원은 초기단계 기술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제작비용의 최대 90%,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목업 분야, 시제품 금형분야로 나뉜다. '19년은 총 24개사(제품디자인 및 목업 11개사, 금형 13개사)를 지원하였다.

3) 장애인기업등록 및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우선물품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에 의거, 공공분야에서 장애인기업 물품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조건 및 비율을 1%(의무사항)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시장에 대한 판로 기반을 조성하였다.

표 IV-12-1-4 | 장애인기업 등록절차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6년 전체 116.9조원 대비 1.3조원(1.1%), '17년 전체 123.4조원 대비 1.5조원(1.2%), '19년 전체 134.9조원 대비 2.0조원 (1.6%)을 달성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V-12-1-5 | 연도별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공공구매	1,169,311	1,234,078	1,234,134	1,349,802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13,231	15,406	17,677	20,952
총액 대비 비율	1.1	1.2	1.4	1.6

또한 장애인기업 등록업체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선구매제도 활성화가 예상된다.

표 IV-12-1-6 | 등록 장애인기업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록 장애인기업 수(개)	3,096	3,467	3,839	4,580

제13장

중소기업중앙회

1

일반 현황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 균등과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62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 말 기준 573개 협동조합(51,514개 업체)과 40개 중소기업 관련단체(610,972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조직화, 협동조합 운영지도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 중소기업 국제협력기반 구축 및 수출 지원, 산업별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 중소기업 인력 및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가. 중소기업 조직화 및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창출, 생산,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경제적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기업간 협업,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 결과 2019년 18개 협동조합이 신규 설립되고 협동조합 기능을 상실한 10개 조합을 해산 조치하여 951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표 IV-13-1-1 |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 합 회	24	23	23	23	23
전 국 조 합	222	229	228	224	226
지 방 조 합	339	327	325	323	313
사 업 조 합	356	354	366	373	389
계	941	933	942	943	951
조 합 원 수	72,119	71,648	71,902	72,031	71,886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 2건이 입법 완료되었다. 1) 인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2) 조합과 연합회가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법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후 최초 수립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정책, 인프라, 자금, R&D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나. 협동조합 운영지도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조합원 관리, 총회 개최, 예·결산,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등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및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의 회계·세무, 규정 제·개정 등 일반운영과 공동사업운영 등을 현장밀착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설치(2002.5)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준비조합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19년까지 2,698개 조합에 3,950회 방문하여 협동조합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하였다. 이외에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54개 조합이 업종별 특성 및 환경,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9년부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타 조합의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부문은 종합대상과 8개 부문별 대상(공동구매, 공동판매, 일자리창출, 해외시장개척, 유통물류, 사회공헌, 특화사업, 신규부문)으로 나뉘며, 많은 협동조합들이 수상 조합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합발전과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표 IV-13-1-2 |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지원 현황

(단위 : 회, 개)

구 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도횟수	2,423	344	384	369	430	3,950
지도조합	1,787	211	230	205	265	2,698

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협동조합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기반자금 내 협동화자금을 활용하여 2019년 11개 조합, 43억 원을 추천하였다.

표 IV-13-1-3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자금) 추천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07~'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추천조합	162	4	6	3	11	186
추천액	1,319	22	25	25	43	1,434

또한 공동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자원 및 인력부족으로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3년 1월 중소기업 DMC타워에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지원센터에 입주한 협동조합은 임차보증금,

임대료, 비품 등을 지원받으며, 최대 5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2015년 9월 강원지역, '16년 1월 제주지역, '19년 3월 전북지역 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 13개, 강원 3개, 제주 2개, 전북 3개 조합이 입주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신보기보, 기업은행은 구매물량이 적고 현금, 신용, 담보 등 구매력이 부족하여 높은 원부자재 단가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용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참여기업의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은 참여기업의 소요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보증재원을 매칭 출연하여 총 900억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22년까지 총 6,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표 IV-13-1-4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특징

구분	중소기업	협동조합
신보 보증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법상 최고 운용배수 적용(20배수) → 보증발급 확대 - 보증비율 90% 이상(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 - 5년간 보증수수료 0.3%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업은행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수수료(대출금리) 0.5%p 자동감면 -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발생 -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

라. 협동조합 단체표준제도 운영지원

협동조합의 표준화 역량 제고 및 단체표준 효율적 운영·관리·감독을 위해
 ▲단체표준·인증 정보 제공, 기업의 신청에서 조합의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를 ONE-STOP으로 지원하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 구축·운영 ▲협동조합 시험원
 공평성확보를 위한 연구 ▲신규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19년 협동

조합 17개 지원) ▲단체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단체표준 인증단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연 1회) ▲단체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단체 표준심의회와 분쟁협의위원회를 운영('19년 제정 69개, 개정 36개) ▲적부확인 미실시 단체표준 중 활용도가 없는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한 정비('19년 적부확인 1,109개)를 실시하였다.

표 IV-13-1-5 | 단체표준 등록 및 인증현황('19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구 분		조 합	비영리법인	합 계
등록	단체	68	70	138
	표준수	636	3,124	3,760
인증	단체	36	14	50
	보유표준수	347	477	824
	인증표준수	207	79	286
	인증업체수	3,046	936	3,975
우수	단체	15	2	17
	인증품목	77	10	87

3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현안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부진,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더 나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발굴 및 건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및 정책건의, 각종 동향조사와 현안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우리경제 활력 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환경을 조성하였다.

가. 중소기업 경영애로 발굴 및 정책건의

1) 중소기업 지원시책 개발 및 건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영애로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이 더욱 시의성 있게 정부부처에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금융·세제 및 규제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건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고용·투자 등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건의하였으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업종 확대 등 다수 과제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포함해 총 340건의 정책건의를 발굴·건의하였다.

2) 중소기업 정책 관련 토론회 등 회의 개최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부처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대표 등 국회 및 정당 대표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 방안을 직접 건의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생산적 협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2회 개최하였다.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고자 중소기업 금융연구회를 2회 개최하였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개혁연구회는 3회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안을 이슈화하고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중소기업 관련 통계 생산

원부자재 구매, 설비투자, 기술개발투자, 제품판매, 수·위탁 거래, 인력, 재무구조 등 중소제조업 및 건설업, 서비스업의 연간 경영실태 전반을 파악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20,000개사)와 기술개발투자, 기술인력 등 기술개발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3,800개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본통계와 중소기업 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노무비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1,300개사)를 2회 실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신속히 파악하여 업계의 경영계획 수립과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3,150개사)를 배달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별, 기업규모별, 시도별로 가공하여 '2019년 중소기업현황'을 발간하였고, 중소기업의 현 위상과 경제발전 공헌을 정확히 알리고 중소기업 정책지표로 활용하고자 '중소기업 위상지표'를 발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정책개발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지표'를 발간하였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중소기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를 발간하였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장에로를 발굴하기 위하여 2019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예로 실태조사(500개사),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예로 실태조사(502개사),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800개사), 추석자금 수요조사(800개사), 소상공인 경영예로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500개사)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와 자금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정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300개사),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269개사), 일본 정부의 對한국 수입 제한 우려에 대한 수출중소기업 의견조사(306개사) 등을 실시하여 대일(對日) 무역 악재에 대한 인식 파악 및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2019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500개사), 2019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500개사), 최근 환율상승 등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애로현황 조사(300개사) 등을 조사하여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각종 부담금을 파악하고,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외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307개사),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303개사),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500개사) 등 총 28건의 정책기획조사를 통해 각 분야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접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공정거래질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1)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공정경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자 조사·연구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대정부·국회에 건의하는 등 정부 정책에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는 힘을 모아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하도급거래시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 등 법령·고시 개정을 이루어냈다. 특히 지

속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를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당장청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19.12월)이 발표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V-13-1-6 | 주요 정책건의 반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법령·고시 등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거래시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6.19) ○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7.16) ○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11.20)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교육 실시,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개최를 통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하도급법에 의거, 하도급법 특별교육 수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지역별로 6회에 걸쳐 협동조합·중소기업 임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법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의 감경 조치를 완료하였다.

공정경제 하에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2)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정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신뢰성 있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평가대상 기업확대 로드맵 수립에 기여하고, 동반성장주간 기념식(19.11)을 개최하여 동반성장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9.1), 대·중소기업 거래시 신용평가서 요구관행 실태조사(19.10),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19.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상도 전망조사(19.12) 등을 통하여 동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한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민관합동

TF 회의 및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에 연중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동반성장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중소기업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도입을 건의하여 '11년 제도 도입 이후 '13년 상생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19년까지 적합업종 110개 업종·품목 합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현행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강화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18년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관련, 협동조합단체 대상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안내 및 신청을 지원하는 한편 실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9년 23개 업종이 신청, 이 중 8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4) 우수 중소기업 유통판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S)홈쇼핑과 공동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TV홈쇼핑 방송 입전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소재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하는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19년 91개사를 지원, 총 26.8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본부에서 진행하는 '상품추천위원회'를 통해서도 40개사가 총 18.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대형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증진코자 백화점협회와 상생소통 협의체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입점 확대 및 판로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온라인쇼핑 협회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공정화를 위한 토론회(3회) 등을 개최하여 유통업계의 바람직한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였다.

라.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1)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아세안(베트남 하노이 소재) 사무소를 통하여 아세안(ASEAN) 시장 진출 중소

기업 지원,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민간 대사 제도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지역 진출 확대 등 중소기업의 시장다변화를 위한 K-BUSINESS DAY(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4월, 8월)하는 한편, 업종별 전문단체·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전시회 단체한국관 파견, 현지 바이어 내칭상담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여 총 183개 사업, 190.5억 원 규모로 지원하였다.

2) 해외 정부 및 기업인 네트워크 구축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맞춰 말레이시아·캄보디아(3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4월), 태국·미얀마·라오스(9월) 등 10개국에 4회에 걸쳐 중소기업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현지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정착 이로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동시에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한편,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라오스·말레이시아, 인도, 러시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통상정책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베트남 무역진흥청 청장(2월), 주한아르헨티나 대사 내방(5월), 주한 포르투갈대사(6월),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10월), 주한일본대사(12월) 내방 등 해외 각국 정부 및 중소기업인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중소기업진흥공단·하노이 시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12월에는 하노이에서 백두포럼을 개최, '한국과 베트남, 상생과 번영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베트남 기획투자부 방문, 하노이 시장 간담 등을 통해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으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베트남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3) 통상현안 정책기능 강화 및 환경변화 대응

중소기업 수출촉진 간담회(2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7·8월), 중소기업

수출여건 및 정책과제 조사(1월), 중소기업 중국 시장 진출 애로 조사(4월), 일본 수입업체 수입선 다변화 의견조사(9월), 관세행정 애로 및 개선과제 조사(10월) 등을 실시하여 대정부 건의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통상현안 이슈에 대해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국제통상포럼을 4회 개최하였다. 아울러 수입급증 및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무역구제 절차를 진행시 필요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4)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남북경협시대 준비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관심도 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정보실(중소기업중앙회관 10층)에는 남북경협 관련 신문과 전문자료 등을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하였다. 그 외에도, 북한 투자를 위한 관련법 설명회 등 중소기업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성공단기업 경영현황 및 전망,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소기업계 대북진출의사 등 현안 발생 시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미국과 UN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국 하원 아태소 위원장 간담, LA 부시장 간담과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 모델’의 후속 연구로 ‘남한 중소기업의 북한 7대 지역 진출전략’ 연구를 수행하여 향후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지역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문가의 학술진단을 통해 남북경협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에 공유하고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현안 공유 및 정보교류를 위한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이슈 발생 시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경협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전문가 집단과의 의견교류 및 향후 전망을 토의하였다.

마.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장기간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16.9)를 도입한 이후 ‘17년부터 ‘19까지 명문장수기업 총 14개사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승계 정책토론회(‘19.3),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구성(‘19.5), 기업승계 실태조사(‘19.12), 명문장수기업 탐방(‘19.10), 장수기업 희망포럼 개최(‘19.11), 명문장수기업 모범사례집 발간·배포(500부) 등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차세대 CEO 스쿨을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 및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바. 중소기업뉴스 발간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제도, 신기술신경영과 업계동향 등 경영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하여 연간 48회 중소기업 뉴스를 발간하고 있다.

주요 보도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현장르포 및 주요현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대안, ‘정부 노동정책 관련 이슈제기 및 업계 예로’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회 41,000부의 신문을 배포하고 있다.

4

산업별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가. 산업정책 개발 및 업종 경쟁력 제고

1)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건의, 입법화 추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4개 산업·특별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각 산업의 현장으로 수렴, 업계 현안과제 및 에로사항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이슈 선전과 선제적 대응정책 개발을 추진하였다.

표 IV-13-1-7 | 산업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원료자문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부리산업위원회
기획정책위원회	남북경협위원회	농식품산업위원회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소상공인정책위원회	비금속광물위원회
중소기업우수상품추천위원회	공정경제위원회	신산업위원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표준원가위원회	전통제조업위원회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국방조달위원회
공공구매위원회	물류산업위원회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
노동인력위원회	유통산업위원회	문화경영위원회

2)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중심 혁신성장 생태계 확산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굴 및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해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신산업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중소 제약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방안 및 중소

제조업 공정·생산 실시간 관리 방안 이슈리포트 발간,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단국대학교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활동을 지속하였다.

産·學·研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제고 방안,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중소제조업 4차 산업혁명 대응실태 조사' 실시 및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확산 계획, 국제표준 기반 스마트공장 표준모델 개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계획' 등을 논의하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신산업위원회」는 ICT, 헬스케어, 콘텐츠 3개 산업 분과로 나누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간담', '기획재정부와 면담 및 연구용역 실시', '국회 여야 3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토론회 개최' 등 활동을 지속하여 각각 '관계부처합동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전시산업 공공용역 대가 합리화 방안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중소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지속적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작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기존 삼성전자와 더불어 포스코가 신규 참여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원하였고, 선정기업 CEO를 초청하여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벤치마킹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별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때 겪는 자금난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유사 업종 기업이 공동 구축하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과 우수사례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였고, 스마트공장 수요기업이 쉽게 공급기업(IT) 정보를 찾고,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다.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부담완화 및 규제순응도 제고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확보 등을 해야 함에 따라, 컨설팅 업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높은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했다. 이에 정부가 직접 시험자료를 생산·배포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이후,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 등록 지원 예산을 당초 111억에서 464억으로 5배 가량 확대하였으며,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19년 59종 → '20년 500종), 중소기업 등록 전 과정 지원('19년 60종 → '20년 570종)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조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중 연 제조·수입량 1톤 미만에 대해서는 시험자료 제출생략 특례를 적용하였다.

아울러,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 1. 1일) 이후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5년간('19. 12.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7월, 11월)」결과,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취급시설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업장이 43%를 차지했으며, 72%가 취급시설 기준이 가장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언론보도를 실시하여 환경부, 국회 등과의 간담회를 총 12회 개최하고, 경제5단체 및 중단협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화관법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 결과, 환경부는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한 사고 위험·우려가 있는 경우 대안을 적용하는 '취급시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5.27)하였으며,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고, 심사기간을 단축(90일→30일)하는 등의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라.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방안 연구,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하였고, 산업별 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현장애로를 발굴하였다.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분야별 정책 토론회(3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대안 개발, 골목상권 활성화 및 동반성장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정책건의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 내실화, 자영업 지원 정책체계 정비, 자동차·물류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개정 등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33건의 사업조정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사업영역보호 및 자생력 강화의 기틀을 조성하였다.

마. 중소기업 전문 연구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수행 등을 위해 2019년 9월 KBIZ중소기업연구소를 신설하여 현장 기반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리포트 및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 및 교섭력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적정대가 기준 산출 및 지속적인 활용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단가 결정현황 조사 및 표준원가특별위원회(4회)를 운영했다.

5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운영

중소기업자간 상호부조에 의하여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여건 조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공제사업기금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 등의 출연금 및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1998년 정부출연 중단 이후에는 각종 홍보 강화, 가입 촉진 캠페인 활동 및 경영상담사의 가입유치 활동 등 재원 확충을 위한 가입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19년 12월말 현재 17,421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총 5,656억 원의 재원이 조성되었다.

표 IV-13-1-8 | 공제사업기금 조성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공제부금	정부출연금	이익잉여금 등	계
조성액 (비 중)	4,086 (70.8)	1,400 (25.8)	170 (3.4)	5,656 (100.0)

공제사업기금은 부도매출채권대출(제1호 대출,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 어음·수표대출(제2호 대출, 어음 및 수표의 결제 지원에 따른 도산 방지),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 대출, 외상 매출금 회수 지원 및 단기운영자금 부족 지원) 등 3종류가 있다.

총 대출금액의 98.6%인 4,197억 원(2019년 대출액 기준)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금융지원시스템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IV-13-1-9 | 공제사업기금 대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부도대출채권 (1호대출)		어음·수표 (2호대출)		단기운영자금 (3호대출)		매출채권담보 (4호대출)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이전	12,958	6,770	227,925	52,271	74,466	27,815	117	31	315,466	86,887
2016	26	18	1,649	436	5,182	2,907	-	-	6,857	3,361
2017	25	17	1,456	397	5,294	2,968	-	-	6,775	3,382
2018	32	28	1,370	400	6,409	3,499	-	-	7,811	3,927
2019.12	9	10	1,149	337	6,959	3,909	-	-	8,117	4,256
계	13,050	6,843	233,549	53,841	98,310	41,098	117	31	345,026	101,813

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하여 대출이자의 일정부분(1.0~3.0%p)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3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실시하여 2019년 총 1,748개 업체에 약 15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하였다.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이다. 2007년 9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되어 2019년 말 현재 가입자는 1,224,621명이고, 부금 12조 156억 원을 조성하였다.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시중은행·상담사·홈페이지(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납부 공제부금은 월 5만원~100만원까지이고,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부금전액과 적립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제금의 압류가 금지되며, 2017년부터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납부부금은 전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분기 변동)을 적용하고, 또한 가입 후 2년간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9년 말까지 폐업 또는 사망사유로 313,563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조 2,632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고, 운전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14,290건 4조 3,203억 원의 공제계약대출을 지원하였다.

표 IV-13-1-10 | 연도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건수 및 부금조성 현황(누계기준)

(단위 : 건, 억원)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건수	부금액
881,205	61,500	251,266	23,832	271,781	29,486	237,167	33,258	1,641,421	148,076

다. 중소기업 이행보증공제 운영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이행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중소기업보증공제」는 2019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2,009개 업체에 81,373건의 공공조달계약에 대해 보증증권을 발급하여 약 6조 1,492억 원을 보증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민영보험사 및 업종별 공제조합이 보증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음에 따라 보증기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으나,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증증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공급 독과점이 개선되는 등 보증 소비자인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저렴한 비용과 편리한 이용절차 및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조합원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신용을 공여하는 자율적 금융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IV-13-1-11 | 중소기업보증공제 운영현황(2019.12.31, 누계기준)

(단위 : 개사, 건, 억원)

이용업체 수	증권발급 건수	보증 금액
2,009	81,373	61,492

* 이용업체 수의 경우, 중복업체 제외

라. 중소기업 손해공제 운영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각종 위험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손해공제(파란우산공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손해에 대해서는 화재·재산종합·기업종합공제·간편실손화재공제, 배상책임 손해에 대해서는 영업배상책임·근로자재해·건설기계안전공제, 생명·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단체상해공제의 8가지 공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손해공제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대비 10~25% 저렴하게 공제료를 받고 있으며, 단체적 가입 추진을 통하여 중소기업 일부 위험업종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인수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IV-13-1-12 | 연도별 손해공제 가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29	2,681	1,378	2,875	1,618	3,286

마.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 운영

2002년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라 1999년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와의 PL단체보험 계약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별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PL사고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PL대책 수립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표 IV-13-1-13 | 연도별 유효계약 보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166	12,671	4,071	12,436	3,911	11,753	3,776	12,176	3,980	11,243

6

중소기업 인력 및 판로 지원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1)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의 인재양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1997.4.16)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년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 입주 후에는 벤처기업 및 글로벌기업 등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였고, 2016년부터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발맞춰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도모하였다. 그 외 지원시책 연계 교육, 공공기관 신규 교육 등의 수주를 통해 2019년 연 16,874명이 수료하였다.

표 IV-13-1-14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교육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협동조합 임 직 원	지원시책 연계교육	맞춤형 교육 등	계
2017년	2,386	1,738	4,126	8,250
2018년	2,714	1,296	4,061	8,071
2019년	2,607	8,956	5,311	16,874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행정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으로 외국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현장인력을 지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인력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면 전수제 시행, 3년 취업기간 만료 후 출국 없이 다시 고용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1년 10개월), 취업기간 동안 사업장변경이 없었던 근로자는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재입국특례자제도(구 성실근로자제도),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한 재입국제도, 숙련전문인력(E7) 양성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제도, 숙식비 사전공제 방안 마련 등 중소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여 반영해 왔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생산성을 감안한 합리적 인급 적용,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 지원, 유통업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판로지원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 유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건의, 주요 공공구매 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교육,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홍보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유도함으로써, 2019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총액 135.0조원 중 77.8%인 105.0조원이 중소기업제품으로 조달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구매 실적 대비 11.7% 증가된 규모이다.

2020년 구매목표는 837개 기관에서 총구매 133조 2천억 원의 76.9%인 102.4조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표 IV-13-1-15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구매실적			2020년 구매목표		
	총구매 (A)	중소기업 (B)	비중 (B/A)	총구매 (C)	중소기업 (D)	비중 (D/C)
총괄	135.0	105.0	77.8	133.2	102.4	76.9
물품	45.8	36.9	80.6	45.3	35.6	78.6
공사	61.3	46.6	76.0	60.9	46.0	75.5
용역	27.9	21.5	77.1	27.0	20.8	77.0

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2016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후 2018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한·지명경쟁 조항 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반영하였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한 결과 약 638억 원(납품요청금액 기준)의 조달 규모가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2019년말 기준 269개 세부제품에 대해 총 62개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한 소기업 수주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운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관련정보를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쌍방향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기업(여성기업, 장애인 기업)확인서 발급,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신청·발급,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 공공구매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13-1-16 | 구매정보망 등록 현황

구 분	2019년	등록 누계
중 소 기 업	12,763개 업체	220,200개 업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2,631명	48,909명

구매정보망을 통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정착되면서 공공조달시장 참여 희망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으며, 2019년은 28,511건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표 IV-13-1-17 | 공공구매론 이용 실적

구 분	2019년	19년 이전 5년 평균
신청 업체	1,218개 업체	1,534개 업체
대출 신청 금액	1,413억원	1,672억원
대출 실행 업체	934개 업체	1,176개 업체
대출 실행 금액	1,028억원	1,180억원

공공구매론은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부터 구매정보망에서 신청 및 대출진행이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제공 3년간 3,254개 업체에 3,279억 원이 지원되었다.

* 2017년 기업은행의 대출 기준 강화에 의해 대출을 감소

표 IV-13-1-18 | 직접생산확인 주요연혁

구 분	주요내용
200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시작
2010	10. 21부터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2011	유효기간 변경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폭 감소
2012	2010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발급 대폭 증가
2016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고도화 완료로 이용자 편의 개선
2017	1000여개 직접생산확인 상세 기준에 대한 전산화 작업 완료
2018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유료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2007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운영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2010.10.21일부로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2016.2.1.일부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시스템을 개편하여,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를 구성하고 업무처리속도 및 메뉴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표 IV-13-1-19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5년 이전누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총 누 계
업체수	166,404	28,124	27,395	28,365	28,511	278,799
제품수(세부품목)	822,773	121,057	112,119	118,996	106,696	1,281,641

4) 지방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운영

지방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2003년 4월 16일 대구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을 연면적 4,673㎡(1,413평) 규모로 개설하였으며 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쉬메릭) 제품과 특화상품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우수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7

중소기업 위상 제고 및 사랑나눔문화 확산

가. 중소기업 사기진작 및 위상 제고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2019.1.09)를 개최하여 약 760여명의 전국·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함께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국무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참석하여 함께 신년하례의 시간을 나누었다.

중소기업 주간행사(2019.5.13~17) 기간 동안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소기업 관련 106건의 행사가 개최되어 수천 명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등 중소기업들과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30회를 맞이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는 43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해 포상식이 거행되었다.

13주년을 맞이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2019.6.26.~29, 제주도)은 ‘초연결 시대와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중소기업 CEO 및 동반자 등 669명이 참여하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미래 비전과 경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명품 강연이 마련되었다.

나. 중소기업 사랑나눔문화 확산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의 심시일반 나눔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복지 증진사업, 내수 살리기와 연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취업준비생 진로캠프, 저소득 중소기업 가족을 대상으로 나눔콘서트 개최 등 범 중소기업계를 대변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였다. 설, 추석에 복지시설 185곳을 선정하여 온누리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을 지원하여 내수살리기와 소외계층 지원을 함께 도모하였으며, 군경부대 위문, 중소기업·소상공업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총 16억여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휴가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민관광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내수 관광시장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에게 쉼의 시간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진로캠프를 최초로 진행하였고, 나눔몽클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계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연말에는 문화공연의 기회를 얻기 힘든 저소득 중소기업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초청하여 나눔문화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계 우수한 물품을 기부받아 바자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4월 9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에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추진하며 이재민을 위한 지원에 동참하였으며, 10월 경북지역의 태풍피해를 입은 복지시설 5곳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 재난재해 현장에도 앞장서며 중소기업계 사랑나눔을 실천하였다. 추수시기에 재단은 2013년부터 1사1촌의 연을 맺은 충북 장재리마을의 특산품을 구입하여 17개 지역아동센터에 배분하며 농어촌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계가 사회공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단이 구심점이 되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난만의 특화된 사회공헌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행복한 증기씨’ 대학생 블로그 운영진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발전시키고 전국 15개 콘텐츠 제작 동아리와 연계, 총 105명이 활동하는 대외활동으로 확대시켜 기존 블로그 외에도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문 콘텐츠 제작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였다.

‘제10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IDEA 공모전’을 개최하여 포스터·동영상·수필·지도자보고서 이상 4개 부문 총 204편의 작품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46편을 시상하였다. 수상작품은 본회 로비 및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전시되었으며,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진로교육 활용을 위한 기관 등에 배포되었다.

‘중소기업역사관’ 내 중소기업 역사(1950~2000년대), 국내 강소기업 등을 소개하고 장수기업의 물품을 전시하여 당해 방문자수 13,875명 기록하였으며, 누적 방문자 수는 92,260명을 달성하였다.

라. 지방 중소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5개 공제사업센터에서는 지방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지역특화산업 실태조사, 정책 건의 및 애로파악을 위한 각종 회의, 자금·기술 및 인력 등에 관한 종합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발굴하고 건의집을 발간 및 전달하는 등 지역 핵심 이슈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 총 481건의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달하였다.

제14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일반현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4년 12월 27일 설립되었으며,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통해 명실 공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기업간 협력사업 추진

1) 공동투자형 기술개발(구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

2008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투자기업으로 참여하는 기금매칭형 R&D사업을 시작하였다.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수요가 있는 R&D 과제에 투자할 자금을 사전에 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한 후,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이 일정기간 구매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향후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재단은 77개 투자기업과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6,533억 원을 조성하였고, 946개 과제 총 4,571억 원을 집행하였다.

표 IV-14-1-1 |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협력기금 조성 현황

구 분	협력펀드	투자기업명
민 간 (56)	4,671억원	경창산업, 국제종합기계, 네이버, 뉴프릭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대상, 대우조선해양, 동양물산기업, 디아이씨, 렉스코, 롯데마트, 루멘스, 르노삼성자동차, 미래나노텍,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성림첨단산업, 세하, 아이즈비전, 아진산업, 에스에너지, SFA반도체, SK텔레콤, LS엠트론, 엠씨넥스, 오텍캐리어, 웅산, 웅진에너지, 이래에이엠에스, 이엘케이, 인성정보,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진영지앤지, 케이엠더블유, 크루셀텍, 토탉, 파워로직스,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필옵틱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백종합건설, 한솔테크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휴맥스,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NS홈쇼핑, 스템코
공 공 (21)	1,862억원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재단은 지속적인 투자기업 발굴을 통해 기금조성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사업의 투자기업 관리기관으로서 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 기금집행을 위한 사업수행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은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하고도 해외진출에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공동의 수출활동을 지원한다.

주요 동반진출 과제유형은 글로벌 국내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거점형”, 국내 TV홈쇼핑사의 해외플랫폼을 활용한 “해외홈쇼핑 연계형”, 글로벌 한류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판촉전, 수출상담회, 스타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한류연계형”으로 구분된다.

해외거점활용 지원사업은 대·공기업이 갖고 있는 글로벌 거점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수주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거나, 해외유명전시회에 대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공동부스(Booth in Booth) 형태로 지원한다.

해외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은 국내TV홈쇼핑사가 보유한 12개국 23개 채널에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해외 홈쇼핑사 MD³⁵⁾들과의 미팅을 통해 현지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 제품 수출전략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류연계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외국인들에게 한국 제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관련 대기업과 협업하여 KCON³⁶⁾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 비즈니스 기회창출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14-1-2 | 해외동반진출 지원 현황(2019년도 말 기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주관기업 과제수(개)	65	48	39	45	75	108	380
지원중소기업수(개)	1,142	1,162	1,386	1,250	1,189	1,865	7,994

3)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사내벤처팀의 분사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업(대·공·중견·중소기업)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여 추천하면, 정부와 운영기업³⁷⁾이 1:1로 자금을 마련하여 팀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사업화를 지원한다.

재단은 '18년부터 '19년까지 40개의 운영기업을 선정하여 총 94개의 사내벤처팀을 지원하였고 이 중 68개 사내벤처팀이 독립분사 또는 사내사업화에 성공하였다.

표 IV-14-1-3 | 사내벤처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 선정 현황(2019년도 말 기준)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계
운영기업	12	6	11	11	40
사내벤처팀	34	19	12	29	94

35) Merchandiser의 약자로, 유통기업군에서 판매할 제품의 구매, 추천 등을 수행하는 직무

36) CJ&M이 해외에서 주관하는 K-pop문화연계 콘서트, 컨벤션, 콘벤츠의 약자

37) 운영기업이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 내국 법인으로 사내벤처제도를 정부와 함께 운영할 기업

4)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운영

본 사업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참여기업과 함께 1차 및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한다.

정부와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협력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8년간 총 167개 컨소시엄, 1,353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

표 IV-14-1-4 |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사업 참여 현황(2019년도 말 기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누적)
컨소시엄 수(개)	10	12	18	16	20	22	30	39	167
중소기업 수(개)	125	143	121	108	159	163	198	332	1,353

사전 진단을 통한 맞춤형 혁신과제 수행으로 부가가치생산성은 16% 달성, '12년 대비 10.4% 증가하였고, KPI 개선율과 과제 목표율을 초과 달성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나.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성과공유제 확산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공동협력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모델이다. '04년 포스코에서 최초 도입 후 민간자율로 실시하고 있으며 '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12년 4월부터 성과공유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확인제 운영 이후 '19년 말 기준으로 성과공유제 등록기업은 총 469개, 등록 과제 16,292건, 확인과제 7,419건, 참여 수탁기업은 8,425개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표 IV-14-1-5 | 성과공유 확인제 현황 (2019년도 말 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등록기업(개)	170	51	49	23	103	73	469
등록과제(건)	4,859	1,860	2,077	2,079	2,338	3,079	16,292
확인과제(건)	1,303	1,009	993	1,281	1,351	1,482	7,419
참여 수탁기업	2,430	1,057	894	1,196	1,192	1,656	8,425

재단은 제도확산을 위해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기업에게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운영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업종별 협의회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舊 동반성장 투자자원) 운영·관리

2010년 정부는 민간중심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정착·확산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2011년 삼성전자가 출연한 1,000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 말 누적 기준 244개 기업으로부터 1조 2,07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71,3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495억 원이 지원되었다.

표 IV-14-1-6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개, 2019년도 말 기준)

구분	출 연				지 원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합 계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등	합 계
금 액	8,924	2,044	1,105	12,073	7,869	1,855	771	10,495
기 업	120	46	78	244	52,867	6,955	11,485	71,307

2019년 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일몰 예정이었던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출연금의 10%)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활동 촉진을 지원하였다. 법인세 공제 일몰 연장에 따라 2019년 연간 출연금 2,006억 원 조성되어 2년 연속 2,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였다.

상생협력기금에서 약 32%(3,943억 원)을 차지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은 출연 기업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으로 2019년 말 기준 기금 2,006억 원 중 1,383억 원(68%)이 조성되었다.

한편, 2019년 상생협력기금은 기존 연구개발, 생산성향상 중심의 지원에서 임금, 복지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여건 개선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 정책 추진에 따라, 출연기업이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에 동참하였다. 대표적으로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자녀장학금, 건강보조, 휴양·문화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사례가 발굴되었다.

표 IV-14-1-7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2019년도 말 기준)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임금·복지	-	5	5	10	40	23	29	612	862	1,586
비중	0.0%	1.5%	0.6%	0.8%	2.8%	1.6%	1.9%	33.3%	50.2%	15.1%
연구개발 등	134	328	783	1,281	1,403	1,417	1,486	1,224	853	8,909
비중	100.0%	98.5%	99.4%	99.2%	97.2%	98.4%	98.1%	66.7%	49.8%	84.8%
총 지원금액	134	333	788	1,291	1,443	1,440	1,515	1,836	1,714	10,495

3)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본 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사 간 상생협력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협력사 외 비거래 중소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별 자율적 상생협력 활동 및 협력사 등록절차를 안내하여 상생협력 종합 플랫폼(상생누리)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표 IV-14-1-8 | 지원 범위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19.12월말 기준)

구분	지원 범위	등록	
		건수	비율
협력사 지원	기존 협력사	989	27.8%
계열사 오픈	기존 협력사+계열사 협력사	42	1.2%
부분 오픈	기존 협력사(%)+미거래 기업(%)	203	5.7%
전체 오픈	모든 중소기업	2,329	65.4%
	합 계	3,563	100.0%

표 IV-14-1-9 |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등록 현황(2019.12월말 기준)

부 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누적)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교 육	139	26.5%	82	21.4%	222	27.3%	596	32.4%	1,039	29.2%
판 로	66	12.6%	70	18.2%	155	19.0%	251	13.6%	542	15.2%
컨 설 팅	95	18.1%	22	5.7%	61	7.5%	153	8.3%	331	9.3%
기 술	49	9.4%	46	12.0%	67	8.2%	152	8.3%	314	8.8%
특 허	20	3.8%	12	3.1%	5	0.6%	23	1.2%	60	1.7%
금 융	71	13.5%	36	9.4%	58	7.1%	202	11.0%	367	10.3%
창 업	9	1.7%	22	5.7%	34	4.2%	62	3.4%	127	3.6%
인 력	10	1.9%	11	2.9%	31	3.8%	59	3.2%	111	3.1%
네트워킹	8	1.5%	6	1.6%	20	2.5%	41	2.2%	75	2.1%
기 타	57	10.9%	77	20.1%	161	19.8%	302	16.4%	597	16.8%
합 계	524	100%	384	100%	814	100%	1,841	100%	3,563	100%

4) 상생결제제도 운영

2차 이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14.11.17)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까지 총 운용액 407조 8,687억 원, 구매기업 394개(민간기업 328개, 공공기관 66개), 거래기업 200,355개가 상생결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 9개 은행이 상생결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상생결제의 정의(제2조의 제8호 의2) 및 협력재단의 제도 운영 업무(제20조제2항제8호)를 추가하였으며,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 의무화(제22조제5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IV-14-1-10 | 상생결제제도 운영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총 운용액(억원)	245,931	666,643	935,991	1,074,323	1,155,800	4,078,688
구매기업-1차(억원)	242,716	658,026	925,797	1,061,231	1,138,876	4,026,646
1차 이하(억원)	3,215	8,617	10,194	13,092	16,924	52,042

표 IV-14-1-11 |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

[소관부처] 정책명	상세내용
[산업부] '14. 11. 17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 계획 중점과제	2.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3. 중소기업의 수입 안정화를 위한 결제제도 혁신 -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 지출 구축 및 확산
[공정위] '15. 1. 13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 선을 통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방안	4.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 대기업 신용을 활용한 '상생결제시스템*'의 자율 확산을 통해 2 ~3차 협력사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를 지원
[관계부처합동] '15. 12. 16 2016년 경제정책방향	2-1 기초가 튼튼한 경제 ⑤ (대·중소기업 상생)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하 고 대·중소기업간 원활한 자금순환 유도 - 대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에 대한 상생결제시스템공제 신설(결제대금의 0.1~0.2%)
[공정위] '16. 4. 7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2. 직불 유형 □ 하도급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①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 결제시스템(산업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시 운영)' 등 대금직 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 등이 있음
[공정위] '17. 6. 28 하도급 지급 보증면제 지정고시(제 2017-8호)	○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대금지 급보증 면제 요건 중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시스템으로 지정 고시됨
[기재부] '17. 12. 1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조특법 제7조의4제1항)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중기부] '18. 9. 21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상생협력법 제2조의제8호의2) 상생결제 정의, (제20조제2항제8호) 협력재단 업무 추가, (제22조제5항)상생결제 의무화, (제27조제 3항 및 제4항) 포상 및 세제지원 등 신설 및 개정
[관계부처합동] '19. 12. 16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	2.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① 상생결제 활성화

5) 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정하여 동반성장 관련 다양한 행사 집중 개최하고 있다.

표 IV-14-1-12 | 연도별 동반성장 주간 개최 현황(최근 5개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최일자	'15.11.10(화)	'16.11.1(화)	'17.11.1(수)	'18.10.31(수)	'19.11.6(수)
개최장소	더플라자호텔 (시청역)	인터컨티넨탈코엑스(삼성역)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동반성장 주간 행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을 시상함과 동시에 대기업·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공공기관의 특성과 경영여건을 반영하여 경영목표에 부합한 자율적 동반성장 협약 체결 및 이행 지원하고 있다.

표 IV-14-1-13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시상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실적(2019년도 말 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합계
동반성장 포상(점)	127	45	44	51	56	323
동반성장 협약식(건)	25	10	11	28	32	106

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1)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위탁 받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이나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공정거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근거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V-14-1-14 |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현황(2019년도 말 기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사전분쟁조정(건)	20	22	33	31	34	38	178
법률상담·자문(건)	303	391	449	548	731	667	3,089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4.11)에 근거 '기술보호 전담 기관'으로 지정(14.12)되어,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유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합상담·신고센터, 전문가 현장자문, 기술자료 임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기술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 인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횟수와 참여인원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 임직원 및 예비창업자 대상으로도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AIP)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지원 사업 브로슈어, 기술보호 가이드, 피해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기술탈취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영화관, G버스 등 오프라인 및 젊은층을 타겟으로 온라인(SNR, 페이스북, 인스타) 매체활용 홍보도 추진하였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침해사건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상생조정위원회('19.6출법) 및 실무협의회에 안전을 제안하고 있으며, 상생법, 기술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14-1-15 |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 지원현황(2019년도 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기술보호 상담·자문	3,134	617	4,672*	5,929	6,545	6,772	27,669
기술자료 임치	16,623	8,562	9,467	9,216	9,522	9,378	62,768
기술분쟁 조정·중재	-	22	17	19	19	21	98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54	43	44	34	46	55	276
기술보호지원반	-	-	-	-	24	30	54
법무지원단	-	-	-	-	60	47	107

* '16년도부터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보안·법률상담 지원건 대폭 증가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합업종부)

본 제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년 9월)의 일환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합의 도출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확장자제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324개 업종·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신청하였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총 120개 업종·품목을 합의·권고(최초 합의·권고 기준 적합업종 110개, 시장감시 3개, 상생협약 7개) 하였다. 2019년에는 최초 합의·권고 후 3년이 경과한 3개 업종·품목(적합업종 2개, 상생협약 1개)을 재합의하고, 상생협약 기간이 도래한 24개 업종·품목에 대해 상생협약을 연장하여 체결하기로 합의를 이끌었다.

표 IV-14-1-16 |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권고 현황(2019년도 말 기준)

신청접수 (a+b+c+d)	진행중 (a)	합의·권고(60) (b)			해제 (c)	철회·반려 (d)
		적합업종	시장감시	상생협약		
324	1	10	2	48	60	203

4) 생계형 적합업종 (적합업종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민간 자율 기반의 한시적 권고로 운영되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고,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18.6.12)·시행('18.12.13) 되었다.

2019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23개 업종·품목을 접수하였으며, 신청·접수된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8개 업종·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였다.

표 IV-14-1-17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현황(2019년도 말 기준)

구분	업종·품목명
제조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가스연료 소매업」
서비스업	「간장 제조업」, 「된장 제조업」, 「고추장 제조업」, 「청국장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5)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본 사업은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품목별 공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의 영세한 업종·품목의 중·소상공인이 공정·제품·경영 개선, 원가·비용절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업종·품목 공동의 자생력 확보가 가능한 26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IV-14-1-18 |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현황(2019년도 말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과제수	11개	20개	11개	15개	26개

* '19년도 이후 지원예산 확대로 지원과제 수 증가

제15장

신용보증기금

1

일반현황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

신보는 1976년 6월 설립 이후 신용보증,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 경영지도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지난 40여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유동과 국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시장의 급격한 신용 경색을 차단하고,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경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19년에 신보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기업환경조성을 위해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별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 등 함께 잘사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신보는 총 49.1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여 국가경제기반 강화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역대 최대 규모인 20.1조원의 신용보험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망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1.8조원의 산업기반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신용보증

1) 2019년도 기본방향 및 신용보증현황

가) 2019년도 기본방향

신보는 2019년 주요 추진과제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 성장 지원',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나) 신용보증현황

2019년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업과 고용창출·유지 기업 등 중점정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기반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창업기업·설비투자보증 등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총 53.6조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2019년 말 기준 보증잔액은 52.2조원이다.

표 IV-15-1-1 | 최근 3년간 신용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보증잔액	508,463	505,317	522,161
총보증공급	473,951	470,550	490,878
보증업체수	206,794	207,912	209,765

2) 추진과제별 주요 추진 실적

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① 스마트공장 지원 활성화

제조업 영위기업의 혁신성장 유도를 위해 스마트공장 관련 시설투자, R&D,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지자체·금융기관 등과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내용을 확대하였다.

② 해외진출기업 단계별 지원제도 확충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준비단계부터 국내복귀단계까지 단계별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구 분	준비단계	실행단계	복귀단계
단계별 지원 방안	사전 준비자금 (판로개척, 업무제휴 등)	투자자금·사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 등)	지원대상 확대 및 유관기관 협업 확대

③ 대표성 있는 혁신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글로벌 혁신기업 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전담조직을 통해 밀착 지원하였다.

* 총 12개 기업을 선정하여 크레딧라인 750억원 설정 및 신규보증 101억원 지원

④ U-CONNECT 프로그램 도입

혁신스타트업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플랫폼과 투자유치 성공 이후 지속성장을 위한 연계지원 보증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결합하여 다른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차별화한 U-CONNECT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⑤ Start-up 성장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우수 Start-up의 집중 육성을 위해 '말굴 단계부터 지원성과 측정'까지 성장이력을 관리·분석하는 'Start-up GRAM*'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GRAM : Start-up GRowth Analysis & Monitoring system

⑥ 마포 청년혁신타운(MIT)조성

창업 보육공간 지원을 통한 우수 청년인재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구(舊) 마포 사옥을 활용한 청년혁신타운*을 조성(리모델링)하였다.

* 정부의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18.8.9.)'에 따라 혁신창업기업들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창업보육 전문공간으로 조성

구분	준비단계
창업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의 입주공간과 지원시설·지원기관 등의 개방공간을 균형 있게 구성한 '개방형 혁신공간'으로 구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혁신타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금융·비금융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신용보증, 신용보험, 연계투자, VC 연계투자 등 - (비금융) 경영자문, 기술자문, IPO, M&A 등

나) 지속가능 성장 지원

① 연대보증 폐지 지속 추진 및 정착

기(既) 보증기업에 대한 전진적인 연대보증 면제를 통해 연대보증제도 폐지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고, 책임경영심사 도입 이후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심사 체크리스트 및 평가지표의 보증 부실 감소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법인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사전 부실 예방을 위해 '책임경영진단탐'을 신설하여 기업에 대한 밀착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② 주력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동차산업은 부품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0.7조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을 신규 공급하였고, 조선업은 중소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신상품(제작금융)을 도입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였다.

③ 기업 성장단계 등을 고려한 재기지원 체계 구축

위기기업의 부실예방 및 재도약 지원을 위한「중소기업 맨류업 프로그램」및 회생기업의 성공 재기 견인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기업 성장단계와 채무자의 환경을 고려한 재기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④ 재도약·재도전 지원 활성화

재도약·재도전 프로그램 지원기업에 대한 비금융지원(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재)실패 방지 등 성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실패기업의 재도전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재도약·재도전 지원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다) 포용적금융 활성화

①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가치 실현기업을 판별하고 사회적금융협의회(신보, 신협, 중진공 등 17개 기관) 및 민간 지원기관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를 도입하였다.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는 기업철학, 사회적서비스 제공, 사회환원, 구성원 만족도 및 평판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경영역량, 교육, 운영활동, 재무활동 등을 통해 기업운동을 평가한다.

②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확대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고용창출·유지 기업 및 고용의 질 우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보증심사체계를 개편하였다. 특히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서비스 부문 영위기업 등 일자리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하였다.

③ 제3자 연대보증채무 정리 추진

기업경영과 무관한 제3자 단순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감면을 확대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사회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단계적 정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신용보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거래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거래안정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의 신규 거래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도입 첫 해인 1997년에 어음보험 업무를 개시한 뒤, 2004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대상을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한 매출채권보험을 시행하였고, 2015년 보험 가입 대상기업을 일부 부적합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2019년 보험 가입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모든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2019년 신용·보험 인수총액은 총 20조 1,442억원으로 연간 목표 20조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보험 수요에 맞춰 전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9년 주요 개선 사항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모든 중견기업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역할을 강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영안전망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기업수요에 부응하여 계약자 보험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매출액 규모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험한도를 부여하였고, 계약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등 보험 제도를 고객중심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신상품(B2B Plus+보험)을 도입하고 비대면 온라인 보험 상품을 확대하는 등 보험사업 역할 강화에 노력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 역할을 확대하였다.

표 IV-15-1-2 | 신용보험 보험 인수 및 보험금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수총액	162,764	179,873	196,977	201,605	201,442
보험금지급	561	732	574	786	765

다. 산업기반(인프라)신용보증

신보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주요업무로는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민간투자제도의 연구·개발, 금융컨설팅, 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등이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19년 총 7개 사업에 1조 8,102억원의 보증 공급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질적인 면에서는 사업재구조화를 돕는 유동화회사보증, 저리자금으로의 리파이낸싱보증을 각각 5,480억원, 4,000억원 공급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절감 및 이용자 편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그 밖에 위험분담형방식(BTO-a, BTO-rs) 등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BTO-rs 방식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5,000억원의 보증 공급하는 등 민자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표 IV-15-1-3 | 보증승인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보증승인	20,286	20,832	18,102
보증잔액	98,536	105,539	111,559
사 업 수	8	11	7

라.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용보증기금은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 6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라 함)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완성보증은 문화상품 제작기업이 콘텐츠 제작 완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제작기업은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완성보증 도입 첫 해인 2019년 전담조직 신설, 전문 평가를 위한 내부규정 제정 등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총 35건의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150억원의 완성보증을 공급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 총 20개 기업에 대하여 35건의 제작 프로젝트에 150억원의 완성보증을 공급하였고, 프로젝트의 완성 가능성과 흥행성을 외부자문과 내부평가단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고 발생과 채무불이행 없이 안정적으로 완성보증 계정을 운용하였다.

또한, 문화콘텐츠 장르별로는 방송/드라마에 74억원, 영화에 31억원, 공연에 25억원, 애니메이션에 13억원, 게임에 7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표 IV-15-1-4 | 장르별 문화산업완성보증 신규보증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드라마	영화	공연	합 계
금 액	7	13	74	31	25	150
비중(%)	4.7	8.7	49.3	20.7	16.6	100.0
건 수	1	2	19	7	6	35
비중(%)	2.9	5.7	54.3	20.0	17.1	100.0

제16장

금융감독원

1

일반현황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現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금융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유도

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2019년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746.7조 원이며, 전년 말 대비 증가 규모는 50.4조 원이다.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모두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 비중은 2018년 45.1%에서 2019년 45.3%로 늘어났다.

표 IV-16-1-1 |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조 원)

구 분	2017년 말	2018년 말(A)	2019년 말(B)	증감(B-A)
중소기업 자금지원	655.5	696.3	746.7	50.4
중소법인대출	366.6	382.5	408.3	25.8
개인사업자대출	288.9	313.8	338.4	24.6

2) 관계형금융

관계형금융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이 양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량정보 뿐만 아니라 비계량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여신, 지분투자, 비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 대출금리 측면과 기반산업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19년 말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취급 실적(잔액기준)은 9조 413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 4,728억 원 증가하는 등 기존의 재무정보 위주의 대출취급 관행에서 벗어나 비재무정보를 폭넓게 활용하는 새로운 대출취급 프로세스로 정착되었다. 특히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대부분 단기자금 위주로 취급되는데 비해 관계형금융은 모두 3년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고 평균대출금리(2019년 말 3.35%)도 전체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3.51%)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비중이 36.7%로 기반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

1) 금융애로 상담 등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 금융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자금지원제도와 경영·금융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2018년 5월에 조선업, 한국GM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는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불안정이 우려되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특별상담반을 설치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10월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중인 각종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배포하였고,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020년 2월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영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금융 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만기연장, 원금 및 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 119'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프로그램으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기 전에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실적이 우수한 은행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중 지원건수는 12,861건으로 전년(12,193건) 대비 668건(5.5%) 증가하였으며, 제도 도입(2013년 2월) 이후 2019년 말까지 총 3만 7,453명(채무액 5.6조 원)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여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었다.

3)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중소 납품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2017년에 마련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결제원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담대 이용정보를 집중 공유하였고, 구매기업의 미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판매기업의 연쇄부도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납품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기회수 및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단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5월에 금융결제원 B2B업무규약 시행세칙과 각 은행 외담대 약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5월까지 180일에서 90일로 단계적 만기단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7장

대한상공회의소

1

일반현황

대한상공회의소는 1884년 한성상공회의소 창립 이래 우리나라 상공업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해왔다. 전국 18만 대중소 상공인을 대변하는 국내 대표 종합경제단체로서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세계 190여 개국 상공회의소와 글로벌 연계망을 바탕으로 범세계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가산업 발전과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정부 정책 제언, 경제현안 조사·연구, 국제통상 진흥 등의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공모전과 시상식 개최를 통해 기업인의 지위 향상 도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조직은 6본부 및 32개 팀과 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연구소를 비롯하여 '규제개선추진단', '민관합동투자지원단', '혁신성장유부즈만 지원단', '산업혁신운동중앙추진본부' 등 정부와의 협력 사업에서 민간 대표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경영지원 활동

1) 코참경영상담센터

경영에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해 연간 약 15,000건의 경영에로 관련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실무 에로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영애로 관련 상담 방법은 전화, 온라인, 방문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서울시 25개구 상공회에 상주하는 전문위원을 통해 상담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하여 상담할 수 있다.

〈2019년 경영상담 실적〉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창업/경영	무역/관세	특허	총합계
4,954	4,405	2,110	2,311	1,035	457	15,272

2) 계약서 검토 서비스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난해한 계약서를 전문가가 검토하고 조언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서비스 분야는 크게 4개 영역으로 경영 일반, 노무, 무역, MOU 등으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 야	주 요 내 용
경영일반	구매, 공급, 납품, 용역 등 관련 계약서
근로	채용, 연봉계약 등 관련 계약서
무역	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 등 관련 계약서
MOU	업무협약

검토위원은 대한상회가 위촉한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계약서를 검토 지원하고 있다.

3) 정부지원제도 활용 지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별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 하다. 또한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원시에도 사업계획서를 비롯하여 여러 문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지원을 하다 신청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 경영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여 기업에게 알맞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고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사업계획서 작성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제도 활용 컨설팅'을 서울시와 함께 운영 중에 있다.

2018년 첫 시행을 하였으며 60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참여 중소기업들은 R&D, 마케팅, 창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최종 20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선정 기업들은 자금지원부터 역량강화 교육 등의 기회를 얻었다. 2019년에는 64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신청 준비 중에 있다.

4) 올댓비즈 (allthatbiz.korcham.net)

'올댓비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기업판결·판례, 경제·경영 리포트, 입지정보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집결한 정보제공 포털사이트이다.

지난 2016년 첫 오픈한 이후 정부지원제도, 경영 최신정보 제공 서비스와 더불어 '경영상담', '계약서 검토 서비스' 등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 중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 창구 역할도 겸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약 1만여 건이 정보를 게재하여 제공하였으며, 올 해도 6천 건이 넘는 정보를 기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정보 제공 현황〉

정부지원 제도	경제경영 리포트	기업지원 정책동향	기업판결 판례	입지정보	민간 서비스
7,978건	571건	444건	554건	573건	22건

5) 중소기업정책협의회

대한상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2018년 9월 14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중소기업간의 만남을 정례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정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관련 각종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대한상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휴양/여행/건강검진/자기계발/경조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 :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서비스 분야> : 휴양소/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이용 방법>

- welfare.korcham.net에서 기업관리자 회원가입
- 회원가입 승인 후 전체 임직원 정보 등록
- 임직원 아이디 자동발급 및 개별 이용

다.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예정자, 재직근로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9개 개발원에서 실업자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1) 실업자를 위한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탁받아 취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교육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실업자 대상의 기계, 전기, 전자 등 뿌리산업분야와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등 4차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실업자 양성훈련 실적('93년~'19년)〉

(단위 : 명)

구분	수료 인원	취업		자격증 취득	
		인원	%	인원	%
계	61,217	49,430	80.7%	44,022	83.3%
2년	26,332	23,007	87.4%	22,833	86.7%
1년	26,490	20,549	77.6%	21,189	80.0%
1년미만	8,395	5,874	70.0%		

2)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재직근로자의 직무 능력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약 기업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훈련과정의 설계 및 운영지원과 고용유지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실적('93년~'19년)〉

(단위 : 명, 8II)

구 분	계	컨소시엄	사업주위탁
인 원	876,742	558,702	318,040

3)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지원

산업인력 부족 등으로 근로자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과정의 설계, 사내훈련교사 역량지원, 컨설팅 및 행정지원을 실시하였다.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지원 실적('18년~'19년)〉

(단위 : 개사)

구 분	훈련 안내 및 상담	직능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현장훈련지원
참여기업	757	92	93	84

라. 기 타

1)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제품 결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3자(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제조업자가 PL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해보험사에 개별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최대 40% 저렴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PL보험 혜택 〉

- 단체보험 할인적용 및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최대 40% 보험료 할인
- 손해보험사와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 서비스 제공

- 가입업체 입장을 최대 고려한 신속한 사고처리
- 온라인 접수시스템(모바일 포함) 도입으로 편리한 보험료 안내
 -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 가입대상 〉

- 완성품·부품의 제조, 공급 및 판매업체
- 수출·수입업체, 명의표시 판매업체, OEM업체
-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 등

〈 가입품목 〉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 : 가전, 생활용품, 의료기기, 식품 등
- 서비스용역 : 승강기, 정수기, 주차시설 등 설치, 해체 및 유지보수작업

〈 가입절차 〉



* 참여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지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 문의처 〉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Tel.02-6050-3875~8 / Fax.070-7614-3422)
- E-mail :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2)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은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전수하여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를 제고하고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대기업 출신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400명을 선발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3개월간 파견하여 2개사씩 총 800개사를 지도

할 예정이다. 기업에 파견된 스마트 마이스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된 사업 계획 수립, 구축과정 지도, 구축 후 운영성과 제고 및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을 수행한다.

3)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 운영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는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 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한 기업이며, 지원 내용은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하고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 및 로드맵을 제시한다.

4)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대기업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는 17개사가 출연하여 313개 중소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 '20년 사업개요 : 사업규모 140억원(민간출연 90억원, 정부지원 50억원)

또한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총 92억의 정부지원을 통해 130개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제18장

중소기업은행

1

일반현황

중소기업은행(이하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 8월 1일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으로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유의 할인, 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등의 발행,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 국고대리전 / 지급승락, 정부·한국은행 및 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초기인 1960~70년대에는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시설재 도입과 원자재 구입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선진화된 경영 기술 지도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중점 수행하였다. 1980~90년대 들어서는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조 속에서 중소기업 창업과 신기술 기업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 균형 성장에 기여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 '비울 때 우산을 씌워주는 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2017년 「IBK동반자금융」 체계를 구축, 성장 금융(Scale-up), 재도약금융(Level-up), 선순환금융(Cycle-up)의 중소기업 모든 성장단계를 지원하여 '강하고 탄탄한, 혁신은행'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IBK기업은행은 2019년 말 기준 자산 345조 원(신탁자산 포함), 당기순이익 1조 4,017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 잔액 금융권 최초 160조 원 돌파, 영 The Banker紙 선정 글로벌 100대 은행 진입, 2018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A등급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자금조달

2019년 말 IBK기업은행의 자금조달 잔액은 2018년 말에 비하여 25조 8,471억 원 증가한 294조 7,737억 원을 기록했다.

자금조달 잔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예수금이 2018년 말 대비 8조 3,567억 원 증가한 113조 9,881억 원을 기록하였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114조 8,750억 원으로 12조 910억 원 증가, 차입금은 28조 6,041억 원으로 2조 1,442억 원 증가, 자본은 21조 5,006억 원으로 1조 4,297억 원 증가하였다. 그밖에 기타 재원은 15조 8,059억 원으로 1조 8,256억 원 증가하였다.

자금조달의 잔액별 구성비는 예수금 38.7%, 중소기업금융채권 38.9%, 차입금 9.7%, 자본 및 기타 부문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1-1 |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말		2019년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잔 액	구성비	
예수금	105,631,409	39.3	113,988,099	38.7	8,356,691
중소기업금융채권	102,784,070	38.2	114,875,021	38.9	12,090,951
차입금	26,459,950	9.8	28,604,145	9.7	2,144,195
(정부 및 기금)	(15,573,743)	(5.8)	(16,936,736)	(5.7)	1,362,993
(한은 등 기타차입)	(10,886,207)	(4.0)	(11,667,409)	(4.0)	781,202
자본	20,070,917	7.5	21,500,591	7.3	1,429,674
기타	13,980,249	5.2	15,805,882	5.4	1,825,633
합 계	268,926,594	100.0	294,773,738	100.0	25,847,144

나. 자금공급

2019년 중 IBK기업은행은 공급액 기준으로 2018년 중 대비 6조 2,991억 원 증가한 73조 3,87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이 중 대출금 공급액과 투자 공급액이 각각 6조 2,571억 원, 420억 원 증가하였다.

2019년 말 대출금 잔액은 2018년 말 대비 13조 3,415억 원 증가한 206조 426억 원, 투자 잔액은 1,580억 원 증가한 1조 3,042억 원을 기록했다.

표 IV-18-1-2 | 자금공급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공급			잔액		
	2018년 중	2019년 중	증감액	2018년 말	2019년 말	증감액
대출금	667,482	730,053	62,571	1,927,010	2,060,426	133,415
투자	3,397	3,817	420	11,462	13,042	1,580
합계	670,879	733,870	62,991	1,938,472	2,073,468	134,995

1) 지원대상별 대출현황

2019년 중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금대출로 55조 9,123억 원을 공급하였고 44조 7,674억 원을 회수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말 중소기업자금대출 잔액은 2018년 말 대비 11조 1,449억 원 증가한 162조 7,274억 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79%를 차지하였다.

가계자금대출은 14조 5,189억 원이 공급되었고 12조 4,875억 원이 회수되면서 잔액은 35조 4,009억 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17.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및 공공기타 대출은 2019년 말 기준 7조 9,143억 원을 기록하였다.

표 IV-18-1-3 | 지원대상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말		2019년중		2019년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중소기업자금	151,582,461	78.7	55,912,328	44,767,412	162,727,377	79.0	11,144,916
가계자금	33,369,467	17.3	14,518,941	12,487,498	35,400,910	17.2	2,031,443
대기업 및 공공기타	7,749,116	4.0	2,574,026	2,408,858	7,914,284	3.8	165,168
계	192,701,044	100.0	73,005,295	59,663,768	206,042,571	100.0	13,341,527

2) 재원별 대출현황

2019년 중 재원별 대출 실적을 보면 금융자금은 66조 7,416억 원을 공급하고 54조 9,422억 원을 회수하였다. 기금 및 재정자금은 5조 8,239억 원을 공급하고 4조 4,791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외화자금은 4,399억 원을 공급 및 2,425억 원을 회수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재원별 대출금 잔액은 금융자금이 188조 428억 원으로 총 대출금의 91.3%를 차지하였고, 기금 및 재정자금이 16조 3,861억 원으로 8%, 외화자금이 1조 6,137억 원으로 0.8%를 차지하였다.

표 IV-18-1-4 | 재원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말		2019년중		2019년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금융자금	176,243,446	91.5	66,741,568	54,942,166	188,042,848	91.3	11,799,402
기금및재정자금	15,041,273	7.8	5,823,876	4,479,091	16,386,058	8	1,344,785
차관자금	-	-	-	-	-	-	-
외화자금	1,416,325	0.7	439,851	242,511	1,613,665	0.8	197,340
합계	192,701,044	100.0	73,005,295	59,663,768	206,042,571	100.0	13,341,527

가) 금융자금대출

IBK기업은행의 대출금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금융자금대출의 2019년 말 잔액은 188조 428억 원으로 2018년 말보다 11조 7,994억 원이 증가하였다. 잔액 구성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금대출이 145조 6,959억 원으로 총액의 77.5%,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은 42조 3,469억 원으로 총액의 22.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V-18-1-5 | 금융자금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말		2019년 중		2019년 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중소기업자금	136,041,407	77.2	49,904,567	40,250,075	145,695,899	77.5	9,654,492
일반자금	40,202,039	22.8	16,837,001	14,692,091	42,346,949	22.5	2,144,910
합계	176,243,446	100.0	66,741,568	54,942,166	188,042,848	100.0	11,799,402

나) 기금 및 재정자금대출

2019년 말 현재 각종 기금 및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의 잔액은 16조 3,965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조 3,487억 원 증가하였다. 잔액 구성을 살펴보면, 온렌딩자금이 6조 2,39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38.1%)을 차지하였으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3조 2,691억 원(20.0%), 해외온렌딩자금이 2조 4,526억 원(15.0%), 지방구조조정자금이 1조 9,448억 원(11.9%),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이 6,521억 원(4.0%), 환경정책자금이 4,170억 원(2.5%)순이다.

3) 용도별 대출현황

2019년 중 IBK기업은행의 용도별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운전자금으로 47조 6,605억 원, 시설자금으로 19조 876억 원을 공급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운전자금 잔액은 2018년에 비해 6조 5,834억 원 증가한 125조 4,500억 원이고, 시설자금은 6조 4,651억 원 증가하여 80조 5,926억 원을 기록하였다.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운전자금이 2018년 말 61.6%에서 2019년 말 60.9%로 감소한 반면 시설자금은 38.4%에서 39.1%로 증가하였다.

표 IV-18-1-6 | 용도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말		2019년 중		2019년 말		증감액
	잔액	구성비	공급	회수	잔액	구성비	
운전자금	118,866,567	61.6	47,660,538	41,077,128	125,449,977	60.9	6,583,410
(금융자금)	(112,014,171)	(58.1)	(44,270,889)	(39,136,177)	(117,148,883)	(56.9)	(5,134,712)
(기금및재정자금)	(6,611,062)	(3.4)	(3,333,207)	(1,919,514)	(8,024,755)	(3.9)	(1,413,693)
(외화대출금)	(241,334)	(0.1)	(56,442)	(21,437)	(276,339)	(0.1)	(35,005)
시설자금	74,127,485	38.4	19,087,648	12,622,539	80,592,594	39.1	6,465,109
(금융자금)	(64,522,283)	(33.4)	(16,753,026)	(10,381,344)	(70,893,965)	(34.4)	(6,371,682)
(기금및재정자금)	(8,430,211)	(4.4)	(2,013,794)	(2,082,702)	(8,361,303)	(4.1)	(△68,908)
(외화대출금)	(1,174,991)	(0.6)	(320,828)	(158,493)	(1,337,326)	(0.6)	(162,335)
(차관자금)	(-)	(-)	(-)	(-)	(-)	(-)	(-)
합계	192,994,052	100	66,748,186	53,699,667	206,042,571	100.0	13,048,519

주 : ()내는 운전 및 시설자금의 재원별 구성

4) 산업별 대출현황

2019년에는 광업을 제외한 산업별 대출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019년 말 산업별 잔액 및 비중 변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년 말에 비해 4조 2,445억 원 늘어난 95조 9,769억 원을 기록했지만 비중은 46.6%로 다소 하락하였다. 한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018년 말 대비 2조 7,045억 원 증가한 27조 6,70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비중은 0.4%p 증가한 13.4%를 차지했다.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2019년 말 잔액은 2018년 말 대비 2조 5,882억 원 증가한 23조 9,789억 원을 기록하였고 비중은 11.1%에서 11.6%로 0.5%p 상승했다.

표 IV-18-1-7 | 산업별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말		2019년말		증감액
	잔 액	구성비	잔 액	구성비	
농업·임업 및 어업	217,760	0.1	249,225	0.1	31,465
광 업	207,040	0.1	202,180	0.1	△4,860
제 조 업	91,732,366	47.6	95,976,885	46.6	4,244,519
(음식료업)	(3,606,000)	(1.9)	(3,935,783)	(1.9)	(329,783)
(섬유, 의복 및 가죽)	(5,600,173)	(2.9)	(5,653,317)	(2.7)	(53,144)
(목재, 나무제품 및 가구)	(1,193,729)	(0.6)	(1,275,914)	(0.6)	(82,185)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	(3,393,404)	(1.8)	(3,516,842)	(1.7)	(123,438)
(석유·화학물·고무·플라스틱제품)	(14,287,314)	(7.4)	(15,143,501)	(7.3)	(856,187)
(비금속광물제품)	(2,706,914)	(1.4)	(2,803,703)	(1.4)	(96,789)
(제1차금속)	(5,677,287)	(2.9)	(5,840,559)	(2.8)	(163,272)
(조립금속제품, 기계및장비)	(52,893,623)	(27.4)	(55,130,677)	(26.9)	(2,237,054)
(기타제조업)	(2,373,922)	(1.2)	(2,676,589)	(1.3)	(302,66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491,255	1.3	2,678,658	1.3	187,403
건 설 업	5,405,879	2.8	5,791,520	2.8	385,64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4,965,625	13	27,670,157	13.4	2,704,532
운수·창고 및 통신업	6,501,299	3.4	7,047,744	3.4	546,445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21,390,704	11.1	23,978,857	11.6	2,588,15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419,650	3.3	7,046,435	3.4	626,785
기타(개인대출)	33,369,466	17.3	35,400,910	17.2	2,031,444
합 계	192,701,044	100.0	206,042,571	100.0	13,341,527

주 : 은행계정 총대출금 잔액 기준 (개인대출은 카드로 제외)

5) 투자 현황

2019년 중 IBK기업은행은 2018년 중에 비해 420억 원 증가한 3,817억 원을 투자하였다. 일반 부문에 대한 투자는 2018년 중 대비 752억 원 증가한 2,275억 원을 공급하였고, 문화콘텐츠 부문은 73억 원 증가한 333억 원을 공급하였다. PEF는 2018년 중 대비 405억 원 감소한 1,209억 원을 공급하였다.

한편, 잔액 기준으로는 일반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2018년 말에 비해 1,576억 원 증가한 7,687억 원을 기록하였고, 문화콘텐츠 부문은 28억 원 증가한 640억 원의 잔액을 기록했다. 반면, PEF는 2018년 말 대비 다소 감소한 4,715억 원을 기록하였다.

표 IV-18-1-8 |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공 급			잔 액		
	2018년 중	2019년 중	증감액	2018년 말	2019년 말	증감액
일반투자	1,523	2,275	752	1,523	2,275	752
문화콘텐츠	260	333	73	260	333	73
PEF	1,614	1,209	△405	1,614	1,209	△405
합계	3,397	3,817	420	3,397	3,817	420

주 : 간접투자는 실행금액 기준

다. 주요 정책금융

1) 시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은 12조 5,575억 원을, 창업·성장 초기기업 지원자금은 23조 9,247억 원을 공급하였으며,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6조 2,552억 원을 공급하였다. 또한 유망 서비스업 지원자금은 7조 6,675억 원을 공급했으며, 부품생산 중소기업지원자금은 5조 8,093억 원을 공급했다. 기술개발자금은 3조 239억 원을 2019년 중에 지원하였다.

표 IV-18-1-9 | 사책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중		계획 대비
	계획	공급액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	110,000	125,575	15,575
창업·성장초기기업 지원자금	200,000	239,247	39,247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153,000	162,552	9,552
유망 서비스업 지원 자금	50,000	76,675	26,675
부품생산 중소기업지원자금	45,000	58,093	13,093
기술 개발 자금	22,000	30,239	8,239

2) 온렌딩자금에 의한 지원

온렌딩자금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게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수출기업, 지방소재기업, 창업·벤처기업지원,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등의 용도로 연중 2조 5,368억 원 공급되었으며, 2019년 말 잔액은 6조 2,396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온렌딩자금은 해외사업 수주 및 수출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원한 자금으로 연중 1조 4,056억 원 공급되었으며, 2019년 말 잔액은 2조 4,526억 원이었다.

표 IV-18-1-10 | 온렌딩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년 말 잔액	2019년 중		2019년 말 잔액
		공급	회수	
온렌딩자금	5,623,151	2,536,808	1,920,322	6,239,637
해외온렌딩자금	1,940,108	1,405,594	893,125	2,452,577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의한 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지원, 재도약지원, 신성장기반 조성 등에 연중 7,343억 원을 공급하였다.

표 IV-18-1-11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년 말 잔 액	2019년 중		2019년 말 잔 액
		공 급	회 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092,760	734,318	557,971	3,269,107

라. 주요 추진업무

1) 지속가능한 혁신은행 경영체계 구축

가)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개최

IBK기업은행은 2019년 3월 을지로 본점에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국회의원, 금융인,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확대 등 금융의 혁신 방안을 담은 정책과 비전이 발표되었다. 선포식에 앞서 마련된 기업은행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문화콘텐츠 투자, 동산담보 확대, 창업기업 지원 등 기업은행의 다양한 혁신금융 사례가 소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행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 줄은 몰랐다”며 직원들을 격려했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행사를 통해 IBK기업은행은 혁신금융의 선두 주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그림 26 |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19.3월)



나) 동반자금융 강화

IBK기업은행은 2017년 8월, ‘중장기 중소기업지원 로드맵’인 『동반자금융』을 선포하였다. 동반자금융이란,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소해주는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의 성장금융(scale-up), 재도약금융(level-up), 선순환금융(cycle-up)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017년은 '동반자금융 선포 원년'으로서,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2018년은 '동반자금융 정착의 해'로서 은행과 고객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공사례 창출하였다. 2019년은 '동반자금융 혁신의 해'로서 IBK창공 3호의 부산 개소, 디지털경영지원 플랫폼 BOX 오픈, 인도네시아 통합은행 출범 등을 이루어내며, 기존 은행의 업무영역을 넘어 혁신은행 IBK로서 은행과 고객이 상호연결된 확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림 27 | IBK동반자금융



표 IV-18-1-12 | 2019년 동반자금융 주요 추진 실적

성장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지원 Line-UP」 강화 (초저금리 대출, 성공의 법칙 패키지) □ 「IBK형 창업육성플랫폼」 안정화 (IBK창공 3호 부산 개소) □ 혁신성장 지원 PEF 설립 (1,265억원)
재도약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 혁신성장기업 지원 고도화 (신성장혁신기업 4백억원 투자) □ 디지털경영지원플랫폼 BOX 오픈 (정책자금, 판로개척, 비대면대출 등) □ 글로벌 네트워크 안정화·본격화 (인도네시아 통합은행 출범 등)
선순환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it 및 체질개선 지원 고도화 (1,230억원 Exit PEF 2호 설립) □ 중소기업 M&A지원 확대, M&A 전과정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다) 금융권 최초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BOX」 출시

「BOX」란 'Business Operation eXpert'의 줄임말로,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을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하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형 B2B 플랫폼으로 지난 2019년 8월 출시하였다.

2017년 11월 중소기업 CEO 2,218명 대상 ‘경영니즈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금융과 함께 판로개척, 인력관리 등 비금융 영역에서도 국책은행인 IBK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IBK기업은행 「BOX」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영’을 유도하여 리소스의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는 한편 은행 측면에서 디지털 경영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중소기업 고객 심층정보를 기반으로 수요자 친화적 금융모델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8 | IBK BOX



2) 중소기업금융 지원 강화

2019년 말 현재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1조 원 증가한 161.9조 원으로, 은행권 최초로 160조 원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시장점유비도 22.59%를 기록, 압도적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림 29 |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점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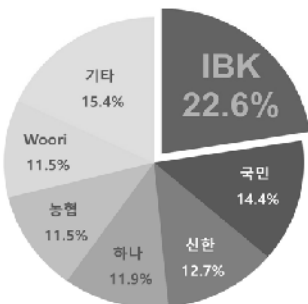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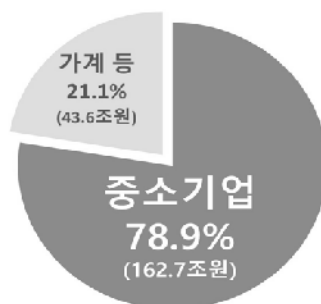


그림 30 | IBK기업은행 중기대출 비중



특히, 국가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자금 촉진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설비투자펀드’와 ‘환경·안전 설비투자펀드’를 5.5조 원 규모로 출시 ('19~'21년, 3년간)하여,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R&D 과제 성공기업을 지원하는 '중기부 R&D 사업화자금대출', 부품소재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한 '부품소재 기업 혁신지원대출' 등을 출시해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위기대응반'을 신속히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국 영업전에서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에 대한 실시간 집계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특별지원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예로기업 경영컨설팅 실시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3) 창업초기 성장기업 지원

가) 성장 초기기업 금융지원 강화

IBK기업은행은 창업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자금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창업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5년간 총 100조 원의 자금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전행 차원의 창업자금 지원 노력으로 2019년에는 연간 공급목표 20조 원을 초과한 23조 9,247억 원의 자금을 창업기업에 지원하였다.

나) IBK창공(創工), 금융권 대표 창업육성플랫폼으로 자리매김

IBK창공(創工)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예로사항을 능동적·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창업육성플랫폼으로, 사무공간 무상지원, 투·융자 연계, 1:1 맞춤형 멘토링 및 액셀러레이팅, 국내·외 Demo-day 및 투자유치 지원, 판로개척 등 他 육성기관과 차별화된 국내 최고의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IBK창공(創工) 육성 프로그램'은 BM특허를 취득('19.10월), 58년간 축적된 기업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권 최초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명실상부 창업생태계 내 최고의 창업육성 모델로 인정받았다.

2017년 12월 'IBK창공(創工) 마포' 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1월 'IBK창공(創工) 구로'에 이어 2019년 5월 'IBK창공(創工) 부산'을 추가로 개소하여 연 120여개의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기틀 마련하였다. 특히 'IBK창공(創工) 부산'은 해양 거점도시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스타트업을 추가로 육성하며,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Out-Bound)과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시장 진입(In-Bound)을 동시에 지원하는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IBK창공(創工)을 통해 2019년 말까지 총 119개의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였으며, 투·융자 등 금융지원 495억 원, 멘토링 및 컨설팅, IR 등 비금융서비스를 1,392회 지원하는 등 금융권 대표 창업육성플랫폼으로 위상을 견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그림 31 | IBK창공 주요 서비스

 <p>투자 및 융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기업 대상 IBK금융그룹 투자 검토 · 국내외 Demo-Day 및 IR 설명회 지원 · 글로벌 투자유치 진행 · 국/영문 IR자료 제작 지원 · 특허 매출성공 연계 지원 	 <p>판로개척 및 마케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행 거래 중소·중견기업 대상 판로 지원 · 글로벌 제휴은행의 거래기업과 매칭 ·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지원 · 국내외 박람회 및 컨퍼런스 참가 지원 · 제품/서비스 홍보 및 디자인 지원
 <p>교육 및 멘토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형 엑셀러레이팅 교육 프로그램 · 전문기관의 산업별 전문가 멘토링 · IBK 기업은행 내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p>사무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창공(創工) 내 업무공간 제공* · 선별기업 중 입주 희망기업 ※ 프로그램 종료 시 퇴소
 <p>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컨설팅 서비스 제공* * IP(특허), 회계, 세무, 법률 등 · 지적재산권 현황조사 및 권리화 자문 	 <p>H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ONE JOB」* 무료 채용공고 * IBK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문취업포털 · 우수 인재 소개 서비스 제공

4)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가) 중소기업 맞춤 일자리창출 사업 선도

IBK기업은행의 일자리창출 사업은 공유가치창출형(CSV)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난 해소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제적 효용을 제고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2만 명 이상 취업자 수 달성을 목표로 '신일자리창출 10만 명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2019년 총 4차례 채용박람회를 개최, 우수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 탐방 및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총 600억 원 규모 '일자리 채움펀드' 지원 대상을 여신 비거래 기업으로 확대하여, 채용직원 1인당 50~100만 원 수준의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문 헤드헌터가 수수료 없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선별·추천하는 'IBK스카우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31건의 헤드헌팅 매칭에 성공하여 전문인력 채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부담 완화에 일조하고 있다.

표 IV-18-1-13 | 일자리창출 사업 실적

신일자리창출 10만명 프로젝트	□ 2019년 중 21,024명 취업자 수 달성 ('18~'19년 누계 취업자 수 42,071명)
채용박람회	□ 면접 지원자 약 4,950명 중 1,875명 1차 면접 합격 (합격을 37.9%)
일자리 채움펀드	□ 2019년말 기준, 668개 기업에 4,847백만원 지원

나)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탈 「i-ONE JOB」 성공적 정착

기존 취업포탈 'Job World'을 대신하여 출범한 新플랫폼 'i-ONE JOB'으로 데이터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i-ONE JOB-IBK BOX' 연계 시스템 구축, 전용 채용관 신설, 신규 콘텐츠 개발과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전문 포탈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5) 기업인 명예의 전당 운영 및 중소기업 교류의 장 마련

가) 기업인 명예의 전당 운영

IBK기업은행은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기업을 일으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인들을 기리기 위해 2004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쳐 36명의 기업인을 헌액하였으며, 2019년에는 개인용 온열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주)세라젠 이환성 회장을 헌액하였다.

나) IBK최고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우수기업 CEO들과의 교류를 통해 거래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1993년 「IBK최고경영자클럽」을 창립했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의 경영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경영전략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조찬세미나와 강연, 회원사 모범시원 선발 등 회원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중소기업 CEO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명품 클럽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 IBK여성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인 여성 CEO들의 기업 활동을 돕고 교류와 친목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12년 「IBK여성경영자클럽」을 창립했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의 효율적인 지식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경영전략세미나 및 조찬강연, 우수기업 탐방 등 여성경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여성 경영인들의 비전과 리더십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 CEO 모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라) IBK미래경영자클럽

IBK기업은행은 젊은 경영인들과 가업승계 예정자들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차세대 경영자로서 필요한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2005년 「IBK미래경영자클럽」을 창립했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2회 경영전략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선진기업 탐방, 조찬세미나 등 회원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경영인들의 새로운 교류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6)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선도

IBK기업은행은 글로벌컨설팅펌 출신 경영컨설턴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50여명의 전문가를 보유한 금융권 최대 규모의 컨설팅 조직을 갖추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전략관리, 인사노무관리, 생산관리 등을 포함하는 경영컨설팅 및 가업승계, 세무/회계, M&A, 법률, 그린, 특허 컨설팅 등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으로 해결과 성장지원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기업 성장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고객맞춤형 & 가치창조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총 7,731개의 중소기업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였다.

그림 32 | IBK 컨설팅 지원 분야

	경영 경영전략 경영관리 인사 및 조직 노무관리 생산관리		법률 법률 리스크진단 법률상담 계약서검토
	기업승계 경영권 이양 절세전략 검토		특허 특허 창출지원 특허 보호검토 특허 활용자문
	세무회계 세무진단 법인전환 재무진단		그린 에너지관리 탄소배출권 상쇄배출권
	M&A 가치평가 기업매칭 M&A협상		창업 벤처 이노비즈 인증 연구소설립 자금조달 사업타당성 검토

7) 기술금융을 통한 혁신금융 구현

기술금융이란 재무정보 이외에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2014년 7월 기술금융을 시작, 2019년 말 은행권 총 지원액의 30.7%인 63조 3천억 원을 지원하여, 선도은행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2019년은 기술금융 신용비중을 확대하여 기술금융의 본질을 추구하는 「IBK형 기술금융」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담보와 재무실적 위주의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우수기업에 신용대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IP담보대출 활성화로 혁신금융의 확산을 선도하였다.

또한 「IBK 테크기업」 선정을 통해 성장가능성 높은 기술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투·융자 등의 금융서비스와 기술자문 등 비금융서비스를 우선 지원하였다.

8) 기업고객 디지털금융 강화

가) 기업고객 창구업무 디지털화 구현

2019년 기업고객 창구 업무 디지털화 구현을 위해 비대면 여신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비대면 전자약정 서비스와 비대면 서류제출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고객이 여신 약정 시 창구 방문 없이 기업 뱅킹 內 비대면 전자약정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으로 약정서 작성이 가능해 졌으며, 여신 상담 시 필요한 서류 발급, 제출을 기관이나 은행 방문 없이 기업뱅킹 비대면 서류제출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나) IBK알파브리핑 출시

2019년 3월 경영정보서비스 IBK 알파브리핑을 출시하였다. IBK 알파브리핑 서비스는 전 은행 계좌정보, 전 카드사의 카드지출,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등 경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선별하여 i-ONE뱅크(기업) 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기업 특화 서비스이다. 중소기업 대표자는 개략적인 경영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IBK기업은행은 매출/매입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타행 대비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 옴니채널 기업상품 추천서비스

고객의 관심 상품을 영업점, 고객센터, 기업뱅킹에서 서로 공유하여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옴니채널 서비스도 구축하였다. 기업뱅킹 상품 바구니 기능을 개발하여 고객이 직접 등록한 관심 상품과 영업점 직원이 추천한 상품을 조회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라) e-branch VINA 출시

2019년 12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베트남 현지 법인과 한국의 모기업을 위한 베트남 전용 통합 자금관리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의 자금관리 에로사항 해소를 위해 베트남 숲 은행 계좌관리, 보고서, 모기업 자금 모니터링 등 기능을 제공하였고, 타행거래 핵심 우량 기업 유치 및 향후 타 국가로 확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33 | e-branch VINA



제19장

한국수출입은행

1

일반현황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되었다.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해외 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 산업과 해외자원개발산업 등 국민경제에 긴요한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국가 수출촉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장의 실패와 불균형 성장의 보완에도 힘쓰고 있다. 상업금융 제공이 어려운 대외거래 관련 리스크를 수용하여 국가 수출 진흥에 기여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으로 국가경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수은은 그동안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전통적인 수주산업의 업황 약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위하여 혁신성장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신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 중이다.

수은은 대출, 보증 및 투자의 형태로 거래기업 앞 여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대출 51조 4,066억 원, 보증 8조 4,014억 원, 투자 1,081억 원 등 총 59조 9,161억 원의 금융을 지원하였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중견기업 여신지원 현황

수은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역량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 앞 여신지원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여 왔다. 2014년 수은법 개정 당시 제18조(업무)에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업무 분야로 명시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의무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지원으로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앞 여신지원 규모는 확대되어왔다. 2019년에는 은행 전체 여신 중 약 44.8%인 26조 7,989억 원을 중소·중견기업 앞 지원하였고, 전체 여신 대비 중소기업 앞 여신은 10조 6,511억 원으로 전체 여신 대비 17.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V-19-1-1 | 중소·중견기업 여신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은행 전체 여신	797,287	819,408	691,998	608,750	578,506	598,080
중소기업 여신 (비중)	75,561 (9.5%)	74,887 (9.1%)	82,603 (11.9%)	92,835 (15.3%)	98,340 (17.0%)	106,511 (17.8%)
중견기업 여신 (비중)	188,841 (23.7%)	191,978 (23.4%)	154,570 (22.3%)	155,547 (25.6%)	142,595 (24.6%)	161,478 (27.0%)
은행 전체 대출	579,208	602,152	567,839	513,601	487,454	514,066
중소기업 대출 (비중)	73,599 (12.7%)	73,214 (12.2%)	81,230 (14.3%)	91,519 (17.8%)	97,720 (20.0%)	105,536 (20.5%)
중견기업 대출 (비중)	170,441 (29.4%)	171,802 (28.5%)	140,560 (24.8%)	146,989 (28.6%)	133,845 (27.5%)	152,258 (29.6%)

수은은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운용을 통해 대기업 대비 담보력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담보제공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2019년 중소·중견기업 앞 대출 중 신용대출 지원 비중은 97.5%로, 지원한 대출 대부분을 신용으로 취급하였다.

나.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강소기업(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중견기업육성 프로그램이다.

표 IV-19-1-2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개사, 억원,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선정	-	4	-	7	4
선정(인증)취소	41	37	8	9	9
육성기업	282	249	241	239	234
금융지원 금액	93,901	81,601	72,702	68,059	74,129
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 지원	1,343	1,047	1,032	844	872

수은은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앞 급리우대 및 수출실적 인정한도 확대 등의 우대지원을 제공하고 제품개발, 생산, 해외판매에 이르는 기업의 글로벌화 가치 사슬 전 범위에 걸쳐 필요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다.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은 중개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대출 프로그램이다. 중개 금융기관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정책자금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2015년 4월 도입되었다.

2019년 말 기준 14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온렌딩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3조 184억 원의 온렌딩 자금을 중소기업 앞 지원하였다.

표 IV-19-1-3 | 해외 온렌딩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개사,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중개 기관수	10	11	14
지원 금액	18,731	24,265	30,184
중소기업 지원 금액	18,551	23,439	25,308

라. 상생금융 프로그램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협력 거래에 대하여 금리우대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립적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거래 형태에 따라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상생자금대출로 나뉘며, 2019년 총 2조 9,886억 원의 상생금융을 지원하였다.

- *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 * 상생자금대출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표 IV-19-1-4 |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상생금융 지원금액	24,656	18,520	29,886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8,079	7,799	8,324
상생자금대출	16,577	10,721	21,562

마. 수출단계별 지원제도 (여신제도팀, 변동사항 없음)

수은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부터 경쟁력 있는 수출 중견기업의 육성까지 기업의 수출규모 증가에 따른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정부 선정 수출유망 내수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환위험관리 설명회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수출기업화를 위한 맞춤형 비금융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2)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 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초보 중소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수출실적의 100%까지) 등 금융서비스와 환위험관리 설명회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출초보졸업 중소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 불 초과 10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초보 중소기업 요건을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이다.

4) 중견전환가능 중소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앞 우대지원 지속으로 업체가 피터팬 증후군 없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매출액 규모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다.

바. 환위험관리 서비스 (히든챔피언팀, 변동사항 없음)

수은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대외거래에 따른 환위험관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금융서비스

수은은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중소·중견기업 대상) 또는 '외화 ↔ 여타 외화(중소기업 한정)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유선을 무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선물환 거래를 체결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가치변동을 방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 비금융서비스

대기업 대비 환위험 변동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은은 환위험관리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환위험관리 필요성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주기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20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일반현황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거 1962년 6월에 설립되었다.

1995년부터 무역과 투자의 상호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KOTRA에는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지원기능이 추가되었다. 2003년부터 무역, 투자 분야의 노하우를 활용한 연수교육을 담당하였으며, 2008년에는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를 위한 Contact KOREA기능을 수행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단위 무역·투자·인재유치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여 왔다. 또한 2009년 10월부터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3년부터는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청년의 해외창업·취업 지원 업무를 수행중이다. 최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ICT, 콘텐츠, 서비스, 의료·바이오, 친환경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분야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OTRA는 2020년 7월 현재 국내 6개 본부와 84개국 127개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국내외에서 무역·투자·인재유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1) KOTRA 지사화 사업

지사화 사업은 해외무역관에 소속된 전담직원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사화 사업을 통하여 수출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바이어 조사, 현지 출장 지원, 인증취득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사화 사업은 참가기업별 전담직원이 현지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마케팅 노하우 축적이 가능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바이어와 지리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언어, 시차 등을 극복할 수 있어 유용한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V-20-1-1 | 지사화사업 연도별 주요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사화 업체 수(개사)	2,818	3,273	3,506	3,444	3,584
수출 성약 실적(백만불)	1,672	2,956	3,348	2,711	2,414

2) 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KOTRA는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워 직수출에 따른 물류비 과다 지출 및 신속한 납품 시스템 부재로 수출확대에 애로가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물류 인프라 지원을 위해 현지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 물류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물류 기업과 협력하여 통관, 입·출고, 보관, 포장, 배송, 반품지원 등 맞춤형 물류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물류비 절감과 신속한 납품 등이 가능하다.

표 IV-20-1-2 | 해외 공동물류센터 연도별 주요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참가기업수(개사)	575	202	202	146	176
수출성약실적(백만불)	650	565	361	160	168

3)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www.buykorea.or.kr)

KOTRA는 B2B 사이트인 바이코리아를 통해 국내기업에게는 해외 바이어 오피를 공급하고, 해외 바이어에게는 한국기업의 상품정보를 홍보하여 국내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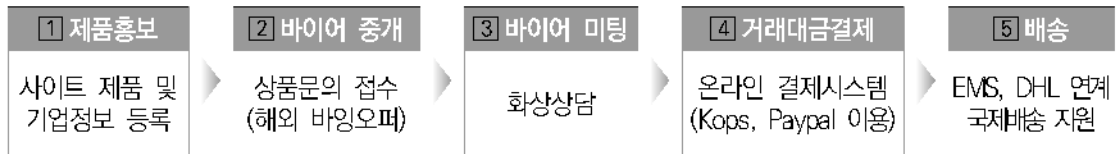


표 IV-20-1-3 | buyKOREA.or.kr의 서비스 제공 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수출상품 등록	- 계정당 1개 상품 등록이 원칙으로 유튜브(YouTube)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이어오피 조회	- KOTRA 및 해외 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피 검색 가능
인콰이어리 수발신	- 관심 오피에 대한 인콰이어리 발송 기능과 해외 바이어로부터 등록상품별 인콰이어리 수신 기능
수출대금 결제	- 바이코리아 상품정보에 대해 해외 바이어는 수출거래대금을 온라인상에서 결제 가능 (별도 계약 필요) * KOPS 카드결제 (VISA, MASTER, JCB) * PAYPAL (IBK 기업은행 페이고스 가입 필요)
수출상품 발송	- EMS, DHL 할인혜택 이용 가능(별도 계약 필요, 할인율은 변동 가능)
비즈니스행사	- KOTRA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
온라인 전시관	- KOTRA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전시관 운영
해외기업정보	- 기업당(연간 2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
화상상담	- 바이어와 국내업체간 화상상담 지원

KOTRA는 바이어 구매 오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바이코리아 회원 가입 전 해외무역관이 바이어의 진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코리아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위해 원거리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 및 테마 별로 중소기업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온라인전시관도 운영 중이다.

참고로 바이어 및 국내 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이트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바이어용 사이트(www.buykorea.org), 셀러용 사이트(www.buykorea.or.kr)

표 IV-20-1-4 | 바이코리아 사이트 운영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순방문자수(천명)	13,030	13,604	11,493	15,682	11,014
페이지뷰(천회)	89,652	98,770	120,542	126,470	84,364
바이오피 등록 건수(건)	19,109	21,745	23,691	24,798	27,312
신규 상품 등록(건)	24,776	28,591	22,315	20,111	18,725

4)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한국 상품(및 서비스)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업체와의 1:1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OTRA의 광범위한 해외 조직망을 활용, 한국제품 수입을 희망하는 세계 유수의 바이어와의 수출구매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바이어를 상대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20-1-5 | 해외 마케팅 추진성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최횟수(회)	71	75	73	69	92
참가 바이어(개사)	4,190	4,572	3,313	3,232	3,653
참가 국내업체(개사)	11,269	12,316	8,832	8,116	8,083
계약추진액(백만불)	15,286	62,549	12,738	11,520	27,150

5)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KOTRA와 지자체,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무역사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시장 조사,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및 사후 A/S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IV-20-1-6 | 무역사절단 최근 추진성과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파견횟수(회)	174	184	209	218	205
선진/신흥	35/139	34/150	45/164	52/166	49/156
파견업체(개사)	1,465	1,577	1,779	1,925	1,777
수출상담액(백만불)	6,336	8,307	12,336	5,504	9,172

6)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무역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유망 무역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무역관을 통해 유력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주선, 시장정보 제공 등 다양한 해외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비지원(총 참가 직접경비의 최대 50% 지원)과 행정서비스 지원(전시 부스 임차 및 장치, 전시품 운송 및 현지통관 등), 전시마케팅 교육, 그리고 바이어 대상 현지 홍보 등 박람회 관련 마케팅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표 IV-20-1-7 | 전시회 한국관 참가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시회 참가횟수(회)	113	124	140	183	120	120	136
참가업체(개사)	2,416	2,469	2,806	3,538	3,149	2,924	2,865
상담액(백만불)	7,486	7,110	7,241	9,284	8,963	8,684	9,543

7) 국내 전시회 바이어 유치 지원사업

탄탄한 생산기반과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의 전시회를 선정하여 연간 26여 개 국내 전시회의 해외 바이어와 참가업체의 유치 및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0-1-8 |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지원 사업 결과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횟수(회)	29	28	24	26
방한 바이어(개사)	1,658	1,491	1,255	1,232

8)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개별 기업의 요청에 맞는 기초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로 사업 파트너 조사, 항목별 시장조사((구) 맞춤형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서비스가 있으며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은 연간 6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표 IV-20-1-9 | 해외시장조사서비스 제공 건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파트너연결(건)	4,438	3,992	3,410	3,211	2,767
항목별시장조사(건)	1,612	1,921	1,413	1,460	1,255
원부자재공급선조사(건)	121	109	136	187	125
해외수입업체 연락처확인(건)	1,133	875	854	620	541
합계(건)*	7,304	6,897	5,813	5,478	4,866

*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건) 제외

9) 해외 비즈니스 출장 사업

세일즈 출장과 투자환경 조사 출장으로 구분되는 유료사업으로 해외 세일즈 출장은 거래선 확대를 위해 개별출장을 시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잠재 바이어와의 상담주선을 지원한다. 해외 투자환경 조사 출장은 투자 진출을 위한 조사 출장을 시행하는 기업을 위해 투자대행기관, 현지 로펌 등과의 상담주선을 지원한다.

표 IV-20-1-10 | 해외비즈니스출장 사업 제공건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일즈출장(건)	223	191	213	303	207
투자환경조사출장(건)	11	27	28	36	32
합계(건)	234	218	241	339	239

10) 개별 방한바이어 수출상담 지원

한국제품 수입 수요가 있는 해외 바이어가 개별 일정으로 방한하는 경우 국내 적적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고 통역을 포함한 수출전문위원들의 밀착 상담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표 IV-20-1-11 | 개별 방한 바이어 지원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바이어 지원(건)	229	212	144	172	174

나. 전략산업별 해외 마케팅 지원

1) ICT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ICT 기술을 중심으로 융합 산업이 성장하면서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분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KOTRA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혁신산업 분야 사업 확대, 맞춤형 지원,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으로 우리 IC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상시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혁신산업 분야로 주목받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 및 국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정보 제공, 국내외 ICT 분야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스마트팜 세계 시장 트렌드 보고서, 주요국 5G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국내 기업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F),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SCEWC) 등 국내외 주요 전시회 참가도 지원하였다.

또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개최된 GMV(Global Mobile Vision)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ICT 분야 B2B 전시상담회로서, 매년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투자가 400여 개사가 참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개최하고 있는 K-Global@ 사업은 미국(실리콘벨리)·중국(베이징) 등 세계 주요 IT 시장에서 매년 진행되며, 기술 및 정보교류, 1:1 비즈니스 상담, 제품전시, 스타트업 IR 등 국내 ICT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K-Global@ 사업에 매년 국내기업 70여 개사, 현지 바이어·투자가 300여 개사가 참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IT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내 ICT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감염병으로 인한 비즈니스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바이코리아(buyKOREA) 내에 「ICT 온라인 특별관」운영을 통해 온라인 상품전시, 화상상담, 인콰이어리 발굴을 지원하였다. 스마트제조·로봇 분야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K-Robo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보안 분야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대표적 정보보안 전시회(RSA) 한국관 참가를 지원하고 있고, 현지 기업의 구매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KOTRA 본사에는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ICT 글로벌 멘토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중국·일본에는 현지에 IT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에 필요한 거점구축(법인 설립, 사무공간 등) 및 현지화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2) 지식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KOTRA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뿐 아니라 의료, 프랜차이즈 등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분야, 혁신서비스 분야(VRAR, 에듀테크 등)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KOTRA 서비스산업실은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및 서비스 해외 거점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여 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돕고 있다.

에듀테크, 콘텐츠, 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온라인 상담회 및 사절단을 통해서 해외 서비스 바이어와 진출 및 수출 상담을 확대하고 있다.

3)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KOTRA에서는 차세대 수출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산업(의료기기, 제약, 병원 서비스 등)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1:1 상담을 진행하는 수출상담회의 경우,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와 연계한 ‘글로벌 의료기기 상담회’와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의약품 상담회’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 유망 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한다. (2019년 252개사 초청)

또한, 분야별 유망전시회에 대한 한국관 참가와 더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전략시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의료사절단도 파견한다. 2019년에는 중동, 중남미, 동유럽, 동남아,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을 위주로 8회에 걸쳐 사절단을 파견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및 제약업계 유망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인 ‘수출 전문 기업 육성사업’, 바우처 보유기업은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메디스타 이니셔티브’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및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 지원은 국내외 상담회 및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서비스 등으로 지원 중에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오프라인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바이오 코리아 온라인 특별관을 구축하여 상품을 해외 바이어에 홍보하고 화상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친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KOTRA는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동남아,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략시장의 유망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발주처(바이어) 정보, 입찰 및 수주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이래 글로벌 환경, 에너지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전 세계 유망프로젝트 발주처와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기업과의 1:1 상담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내기업의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수주시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9년에는 CIS·동유럽, 중국, 미국 지역에 환경프로젝트 수주시절단을 파견, 환경 산업 진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 및 수주 활동을 지원했다.

5)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해외시장 진출 지원

KOTRA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에서 발굴되는 각종 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수주단 파견 및 플랜트 수주지원센터(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KOTRA는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 727개사 2,114여 명을 회원사로 하는 해외수주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의 63%는 중소기업이다. 수주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하는 프로젝트 정보를 수시로 전파한다. 또한, 업계 정보교류와 해외 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수주협의회 수요포럼을 분기 1회 개최한다. 이 밖에도 해외수주협의회 소속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외 수주 예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현지 파트너사 조사, 프로젝트 정보, 입찰, 세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예로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4월에는 국내 최대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상담회인 ‘Global Project Plaza 2019’를 개최했다. 국내기업의 개별적 접근이 어려운 글로벌 유력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 국내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사의 해외 수주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우리 기업 중에는 금융조달 경험과 실적 부족으로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단순 도급형 프로젝트 위주 수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는 'MDB 프로젝트 플라자 2019'를 개최, 다자개발은행 투자 담당자와 발주처를 국내로 초청해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에게 소개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다자개발은행의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6) 일반물자 정부 간(G2G) 교역 지원

2012년 페루 지능형 순찰차 800대의 정부 간(G2G) 거래가 계기가 되어 2014년 1월 21일 대외무역법에 「정부 간 수출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KOTRA는 정부 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되었으며 일반물자에 대한 정부 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GtoG 교역지원단을 신설하였다.

KOTRA는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기업과 함께 외국 정부에 물품 용역을 유상으로 수출하는 계약 당사자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무역 방식을 통한 수출 먹거리 창출 사업으로 외국 정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해외 무역관, 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관로를 지원하며, 거래 가능 주요 품목 유형으로는 특수 목적 차량 및 운반 장비, ICT, 각종 인프라 및 관련 운용시스템 등이 있다.

2019년 KOTRA는 페루 친체로 신공항 총괄관리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국공항공사, 도화엔지니어링, 건원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하고, 국토부, 해외건설협회와 KOTRA가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인프라 분야에서 최초의 G2G계약을 성사시켰다.

또한, 정부 간 수출계약제도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 간 수출계약제도, 무역보험, 국제계약 시 유의해야 할 법무 사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정부 간 거래관리실은 정부 간 거래 프로젝트 발굴, 외국 정부와의 계약 협상 및 체결 과정 지원 등 정부 간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7)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KOTRA는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무역관에 조달 진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 정부 및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와 정부 조달 벤더 초청 1:1 상담회 개최, 조달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해외 사절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6개 해외 공공 조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조달시장 진출 정보수집, 사업기회 발굴, 현지 조달 벤더와의 파트너링, 벤더 등록 지원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

KOTRA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부품공급, R&D, 기술제휴 수요를 발굴하고, 대응 가능한 국내 소재부품(중간재) 중소중견기업을 매칭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국내외 권역별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링 기회를 논의하는 종합 상담회를 개최하며, 국내 행사로 GP Korea를 연다.

GP사업은 2010년 시작 이후 총 803회 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148건의 정부 R&D를 지원하였다.

표 IV-20-1-12 | GP사업 계량 실적 현황

연 도	GP상담회(회)		참가기업(개사)		R&D지원 (건)	R&D지원 (억원)
	종합	전문 (핀포인트)	해외기업	국내기업		
2010년	8	9	322	715	1	22
2011년	14	5	549	706	12	89
2012년	3	20	133	382	16	96
2013년	6	52	249	835	28	77
2014년	12	74	507	1,352	31	92
2015년	8	115	783	1,161	20	90
2016년	12	116	697	1,275	15	57
2017년	14	111	996	1,605	15	63
2018년	8	108	979	1,487	5	23
2019년	6	102	1,343	2,125	5	25

다. 중소기업 수출 애로해소 및 글로벌 역량 강화

1)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기업의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Level)을 진단하여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기업요청 시, 수출전문위원이 역량진단에 참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선 컨설팅 및 방문 컨설팅을 하고 있다.

표 IV-20-1-13 | 글로벌 역량진단(GCL테스트) 제공 건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진단기업(개사)	5,521	9,115	7,906	7,758	9,903

2) 이동 KOTRA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결 지원을 위해 전국 13개 지역(서울, 경기, 경기 북부, 인천, 부산, 경남, 대구·경북, 울산, 대전 충청,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에 찾아가는 수출 상담 서비스인 이동 KOTRA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 진단(GCL)과 연계 각 기업의 역량과 수출단계에 맞는 해외거래선 발굴, 수출지원 사업 안내, 계약서 검토, 기타 수출 애로 해소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20-1-14 | 이동 KOTRA 서비스 제공 건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방문 기업(개사)	2,303	2,703	3,304	3,770	3,910	4,015
방문 건수(건)	-	3,098	4,169	4,601	4,823	4,712

3) 온·오프라인 무역투자 상담센터(Trade Doctor)

무역투자 상담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전 세계 지역 담당 전문위원이 전화, 내방, 온라인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20-1-15 | 온오프라인 무역투자상담 서비스 제공 건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무역상담(건)	26,081	27,501	27,829	30,582	30,219
투자진출상담(건)	11,955	11,476	10,304	11,344	10,855
합계(건)	38,036	38,977	38,133	41,926	41,074

4)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은 국내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 여건상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으로 제한적인 내수시장에 치중하고 있으며, 수출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전이 쉽지 않다. 이러한 내수 중소기업을 위해 퇴직 무역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무역 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1년간 1:1로 밀착 지원하고 있다.

표 IV-20-1-16 |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 업체 지원현황

구 분	참가기업 수	2018 성약 기업수	2019 성약 기업수
내수기업	3,000개사	1,333개사	1,370개사
초보기업	1,200개사	670개사	837개사
계	4,200개사	2,003개사	2,207개사

* 공사 전체 신규 수출기업수(개사) : 2,745개사(신규 수출기업화사업 1,370 + 기타 공사 마케팅 1,375)

* 초보기업이란 전년도 소액수출(전년도 실적 US\$ 10만)기업으로 수출중단 방지 지원

5) 강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기업 중심의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기존 월드챔프 육성사업과 수출도약중견기업 육성사업을 통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는 부족한 해외네트워크를 KOTRA에서 보완하고, 참가기업별 제품특성, 수출 성숙도, 현지 시장 상황 등 글로벌 현황진단을 거쳐 기업별 맞춤형 해외 진출 로드맵을 수립 후, 최장 5년에 걸쳐 참가기업과 KOTRA 수출전문위원, 그리고 KOTRA 무역관이 삼각 체계를 구축, 공동으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

2019년 기준 월드챔프 252개사 및 수출 중견 141개사가 참가하여, 사전에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조사, 해외 전시회 참가, 단독 로드쇼 개최, 현지 마케팅 인력

운용, 광고 등 현지 마케팅 활동을 실시했다. 참가기업은 수출확대, 해외 진출, 해외 거래처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체계적인 시장개척 방법을 습득하여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높일 수 있다. KOTRA는 향후 국내 강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접근방식 고도화에 맞춰 지원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IV-20-1-17 | 로드맵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지원유형

마케팅 전략(목표)	세부 마케팅 활동
영업망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마케팅 인력 발굴 및 운영 지원 • 현지 유통망 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리점(딜러)계약 영업활동 지원)등
맞춤형 시장조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겟 시장조사 또는 시장정보 보고서 구입 지원 • 관련 산업 DB 확보 • 타겟 바이어 발굴 및 텔레 마케팅 실시 • 현지 타겟 고객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등
마케팅 활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전시회 및 연계 행사(패키지) : 전시회 참가 지원 및 단독 IR, 기술설명회, 신제품 런칭쇼 등을 연계하여 패키지화 • 현지 세미나, 로드쇼, 시연회 등 개최 • 현지시장 Test Marketing 사업 • 유력 바이어 방한초청사업 등
홍보 활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홍보, 광고 대행사 발굴 • 스폰서십 마케팅 • 유력 전문지&매체 광고 • 문화 마케팅 사업 • 수출 위한 각종 판촉물 및 홍보물 제작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 Supply Chain 진출 사업 • 해외유망 기업 M&A 지원 사업 •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투자유치 사업 • 글로벌 기업 관계자 방한 초청 사업 등
현지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법인 설립 & 공장 설립 관련 사전 타당성 법률/컨설팅 • 합작 파트너 발굴 지원 • 인증 및 특허, 상표 등 등록 및 획득 지원

6)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KOTRA가 운영하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수출 품목의 다양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과 생산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참가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인증 로고 사용과 함께 해외 홍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방법은 우선 우리나라가 해외시장 점유율의 5% 이상, 상위 5위 이내인 품목 중, 세계시장규모가

연 5천만 달러 이상(국내시장 규모의 2배 이상)이거나 수출 규모가 연 5백만 달러인 상품을 세계일류상품(현재일류)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의 생산기업 중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또는 수출점유율이 1위(또는 동종 상품 중 30% 이상)인 기업을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현재일류)으로 인증한다. 아울러 향후 7년 이내 세계일류상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하여 후보군으로 육성하고 있다. 매년 5~7월 신규 품목과 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3~4개월간의 검증을 거쳐 11~12월경에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2019년도 기준으로 817개 품목 917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금융, 컨설팅 등의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라. 중소기업 해외투자 진출 및 국내복귀 지원

1) 해외투자 실무가이드 및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발간

해외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무적 도움을 주기 위한 해외투자 실무가이드를 국가별로 발간한다. 2020년에는 인도, 캄보디아 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필리핀, 몽골, 미얀마, 브라질 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할 예정이다.

격년으로 발간되는 디렉토리 자료는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로서 각종 공공기관, 연구단체, 학교, 기업 등으로부터의 이용도가 높고 각종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에는 세계 편, 동남아·대양주 편, 중국 편이 3권으로 발간되었으며, KOTRA 해외시장뉴스 사이트에 기업 목록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기업의 연락처 등 상세정보는 파일 또는 책자 형태의 자료 구입을 통해 가능하다.

2) 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조사단 파견

우리기업이 적절한 해외투자 후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며,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투자조사단을

파견한다. 2019년에는 총 7회에 걸쳐 수요가 높은 미국, 베트남, 중국 등의 투자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2019년에 한-아세안(ASEAN) 정상회담 연계로 아세안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투자조사단의 경우, 2016년 이래 미얀마, 인도네시아, 케냐, 에티오피아 등지로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특히, 2019년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의 신흥방국가로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기업들은 투자설명회 및 현지투자조사단 참여를 통해 국가별 투자절차, 인센티브, 시장 동향,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우리기업들의 해외투자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4년 KOTRA 베이징무역관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2020년 기준 중국 6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광저우, 선양), 베트남 3개소(호치민, 하노이, 다낭), 아시아지역 7개소(자카르타, 마닐라, 뉴델리, 양곤, 방콕, 프놈펜, 첸나이), CIS지역 3개소(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울란바토르), 유럽지역 3개소(바르샤바, 프랑크푸르트, 부다페스트), 중남미지역 2개소(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등 15개국 2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전문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센터별 자문회계, 노무, 변호사 상담 지원 등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운영과 관련된 예외 해결 상담과 이슈 대응 세미나 개최를 통한 현지 경영지원, 현지정보 발굴 및 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진출기업의 내수관로 시장개척을 위한 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병행하며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을 지원한다.

4)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이슈가 많은 주요국가에 설치,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및 예외사항 해결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데스크이다. 현재 중국 6개소(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미국 2개소(LA, 뉴욕),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각 1개소로 총 9개국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식재산권 상담, 지식재산권(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출원비용 일부 지원사업,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사업 등이 있다. IP-DESK 미소재 국가에 대해서는 20개국*에 한해 법률자문(출원지원 및 분쟁대응),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 IP-DESK 미소재 20개국 :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표 IV-20-1-18 |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 유형

종류	세부내용
지식재산권 법률상담	• 해외 진출(예정)기업에 대한 현지 지식재산권 법률 애로 상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 현지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50%한도)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현지 지식재산권 (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70%한도)
해외 지식재산권 설명회	• 현지 단속 공무원 등 대상 한국 유명상표 설명, 진품 식별 방법 등 교육 • 현지진출 한국기업 대상 현지 지식재산권 제도 및 진출 시 유의사항 안내
해외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 해외 주요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및 지식재산권 유관 기관 교류 활성화 •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한 현지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직접 전달

5)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내복귀 의향기업 발굴, 국내복귀 종합상담, 신청접수/심사 등 국내복귀 전(全) 과정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 등 8개국 소재 KOI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구조조정(매각, 양도, 축소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만 달러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투자지원을 위해 입지/설비 보조금, 고용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 신청 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유관기관연결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업이 국내복귀 단계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6) 글로벌 M&A 지원사업

KOTRA는 해외 M&A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3.2월 ‘글로벌 M&A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하였다. 2020년 기준, 해외 M&A 거점무역관(43개소)이 구축한 현지 부티크 및 자문사 네트워크를 통해 유망 M&A 매물을 발굴하고,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KOTRA는 해외 M&A 매물 발굴, 현지 법·제도 조사를 포함하여 M&A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친 매수 자문을 직접 수행한다. 특히,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매물 발굴에 강점이 있으며 M&A 실사 수행기관 발굴도 지원한다. 그 외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딜 소싱 설명회·상담회도 개최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글로벌 M&A 지원사업’ 참가를 통해 해외 생산거점·영업망 확보, 원천기술 및 IP 확보, 신사업 발굴 등의 경영목표를 단시간 내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표 IV-20-1-19 | 글로벌 M&A 지원사업 절차

① M&A 팀에 사업 참여 신청(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② M&A 팀 전문가와 개별 면담으로 지원내용 수렴 → ③ 비밀유지협약 체결 → ④ 연간 딜 지원 → ⑤ 사후 관리

마. 글로벌 시장정보 제공 및 교육

1) 해외시장정보 조사·전파

KOTRA는 84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 산업·상품정보, 통상현안, 경제 동향, 마케팅 정보 등 수출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취업·창업 등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KOTRA 해외시장뉴스 포털(news.kotra.or.kr)을 통해 생생한 해외시장 동향을 전파하고 있으며, 세계 84개 국가의 경제·산업 동향, 수입규제제도, 투자환경, 출장 시 유의사항 등 각 국가별 심층 정보를 담은 국가·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수요 및 현지 여건변화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국가별 진출환경, 시장분석,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수록한 권역별·국별 진출전략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경제 및 시장 조망, 권역별 이슈 전진을 위한 세계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가 발생할 경우, 현지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조사·전파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산업과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를 매년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포털(news.kotra.or.kr)과 함께 뉴스레터, 무역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다음 등 국내 유력 포털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책 형태로 보고서를 유통하는 등 고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KOTRA 해외시장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2)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KOTRA는 해외에서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광저우, 다롄, 톈진, 하노이, 호치민, 뉴델리, 첸나이, 자카르타, 방콕, 마닐라, 중남미(멕시코시티)등 7개국 15개 지역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우리 진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 상시 상담, 현지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기능별(통관·회계·법률 등), 산업별(유동·농식품·IT·서비스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V-20-1-20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역

국가	지역	설치사유
중국	베이징	· 中 수도 소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상하이	· 동부연안 경제중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칭다오	· 中 물류중심지,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전체 진출기업의 30%)
	청두	· 中 서부 내륙시장 진출 거점도시, 내륙개발 확대로 최근 소비 수요 급증

국가	지역	설치사유
	광저우	· 中 최대 경제중심지(GDP 중국 1위) 한-중 교역 핵심 거점
	다롄	· 中 동북 3성 경제 중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톈진	· 中 한중교역 물류 중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베트남	하노이	· 베트남 수도 소재 지역, 북부 물류 거점도시
	호치민	· 베트남 경제 핵심지역, 남부 물류 거점도시
인도	뉴델리	· 인도 수도 소재지이자 거대소비시장,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첸나이	· 인도 남부 경제 중심지, 국내기업 투자 진출 거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수도 소재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태국	방콕	· 태국 수도 소재지로 아세안 물류거점 도시,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수도 소재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중남미	멕시코시티	· 중남미 경제 핵심 국가, 중남미 광역센터 기능

3) 경제외교 활용포털 웹사이트 / 모바일앱

VIP 해외 순방/국민 방한 시 국가 간 합의사항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외교로 창출된 비즈니스 기회를 우리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외교 종합정보 DB를 구축, 2014년 2월 경제외교 활용포털(舊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을 오픈하였다.

경제외교 활용포털은 2013년 이후 진행된 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 내용(MOU) 등 경제외교 종합정보와 경제사절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외교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정부 부처 및 수출 지원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해외 비즈니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경제외교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성과사례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제외교 및 경제사절단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1월, 경제외교 활용포털 모바일앱이 출시되었다.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상시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정상회담 종합정보, 후속 조치·사업, 경제사절단 및 순방 연계 각종 경제행사, 해외시장정보, 경제외교 기업 활용 사례 등을 우리 기업들이 모바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KOTRA 아카데미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글로벌 지역 전문인력 육성과정,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교육과 지방소재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지방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KOTRA가 쌓아온 해외 마케팅 및 투자유치 노하우를 고객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며, 2019년 기준 총 136회 과정을 운영하였고, 교육생 3,749명이 강의를 수료하였다.

표 IV-20-1-21 | 교육과정 운영 현황(2019년 기준)

과정명	주요내용	횟수	고객수
국가별 과정	- 신홍시장의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전략 과정 *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	43회	938명
산업별 과정	- 산업별 해외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 과정 * 화장품, 자동차 부품, 생활, 유아, 식품, 의료기기, 유통 등	31회	539명
기업역량별 맞춤형 과정	- 수출 초보, 유망, 중견기업 대상 역량별 맞춤형 교육과정 * 수출 첫걸음 과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등	26회	946명
FTA 전문인력 양성과정	- 기업의 FTA 활용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 과정 * 대학 FTA강좌, FTA 활용컨설팅교육 등	9회	819명
해외 심화연수	- 교육 및 무역수출 통합형 해외연수 * 글로벌 기업 본관 주재 특강, 개별상담, 해외무역관 서비스 제공	7회	103명
글로벌 CEO아카데미	- 중소·중견기업 CEO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과정 * 주요 국가별 시장진출 전략, 분야별 맞춤 강좌 등	1회	25명
기타교육 과정	- 지방 맞춤형 교육과정, 외국인투자유치전문가 양성과정 등	19회	379명
총계(기타과정 포함)		136회	3,749명

바. 외국인 투자유치

1) 투자유치 정보 포털 운영

Invest KOREA는 국내 투자유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IK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를 운영하고 있다. IK 홈페이지는 메인 및 10개 광역시도별 투자유치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문, 영문, 중문, 일문 4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모바일 웹(영문)도 별도 제공하고 있다.

IK 홈페이지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의 투자여건 및 투자유치 기회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FTA 활용정보, 한국 투자환경, 외국인투자기업 성공사례, 유망산업, 투자가이드, R&D 정책정보 등 투자 관련 제반 정보와 한국정착을 지원하는 정주 여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 및 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수요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지원 및 관련 다양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FDI 국민경제기여 부분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 대한투자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KOTRA 내에 설치된 Invest KOREA는 국가 투자유치 전담기구(IPA)이다. Invest KOREA는 각종 대한 투자 상담서비스 및 투자유치활동과 36개의 해외 투자유치활동 무역관에서 현지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2019년 233억 달러(신고기준)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KOTRA의 Invest KOREA 조직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대상 지역별로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투자가 실현될 때까지 해외무역관·본사·중앙/지방정부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밀착 지원하고 있다.

Invest KOREA는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아 범정부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한 국가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로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무역

관·본사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유망 잠재투자가 발굴에 주력한 결과, 2018년 총 2,760건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관리하였으며,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표 IV-20-1-22 | 연도별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건)	1,891	2,010	2,108	2,207	2,380	2,760

3)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방한 투자사절단 지원

Invest KOREA는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한국진출과 사업 활동을 위한 활동을 연중 수행하고 있다. 유망 잠재 투자자와 투자 유망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해외에서 투자전담관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발굴된 유망 투자유치 프로젝트는 해외무역관 투자전담관과 함께 본사의 투자유치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전담으로 지정되어 한국진출에 따른 법인설립, 공장 부지 물색, 인센티브 설명 그리고 유관단체 면담 등 방한 활동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방한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입지부터 행정 수속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vest KOREA는 투자유치 IR과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 한편 투자유치 테스트포스팀(TFT)을 파견하고 투자가를 방한 초청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겟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IR, 지자체 및 투자유치 유관기관 연계 해외 IR 및 라운드 테이블, 실무 TFT, 지자체 수요에 의한 투자유치단 파견은 2019년 86회를 수행하였다. 한편, Invest KOREA에서는 2019년 방한 투자가 284건을 지원하였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처리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한다. 1999년 10월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개소 이래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53건, 2019년 말 기준 332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세무·회계, 노무, 지적권, 법률, 인증, 환경 등 분야별 홈닥터가 상주한다.

홈닥터는 현장방문, 상담, 온라인, 이메일 등을 통한 1:1 맞춤형 무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영 자문, 나아가 법규 및 행정 관련 고충 해결 지원을 수행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소그룹·분야별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정보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여 정부 입법·의원입법 사전단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 모기업의 고충 현안 발굴 및 증액투자 유도를 위해 해외 모기업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표 IV-20-1-23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유형별 동향 (5개년)

년 도 별	처 리 현 황		처 리 유 형 ²⁾		
	건 수	증감률(%) ¹⁾	제도개선	행정처리	기타처리
2015년	462	6.0	14	111	337
2016년	409	△11.5	16	106	287
2017년	291	△28.9	12	92	187
2018년	269	△7.6	7	107	155
2019년	332	23.4	22	233	77

주1) 전년대비 증감률

주2) 처리유형은 정부 기관의 법규개정을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를 수반하는 “행정처리”, 자문제공 등 자체 인력을 통해 해결하는 “기타처리”로 구분됨

5) 외국인투자 종합행정지원서비스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Invest Korea Plaza, IKP)에 위치한 투자종합상담실(Investment Consulting Center, ICC)에는 KOTRA 전문위원과 함께 8개 중앙정부 부처, 8개 지자체, 2개 유관기관에서 파견 나온 21명의 공무원 및 직원이 투자신고부터 법인설립, 비자발급 등 각종 민원처리, 조세·법률·노무·인센티브 등 분야별 전문컨설팅, 생활정착지원 등 외국인투자 전 과정에 걸쳐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으며,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유턴 기업을 위한 지자체별 입지 및 인센티브 정보 등을 제공한다.

표 IV-20-1-24 | 투자종합상담실 종합행정지원서비스

관세	국세	입지	외투 신고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비자	생활	환경	유턴기 업	운전 면허	로컬 데스크
현물출자 확인서 발급/ 관세상담	사업자 등록 및 조세상담	맞춤형 입지지원/ 공장별립 상담	외투신고/ 등록/변경	법인등록 절차안내/ 법률상담	조세 및 인센티브 상담	노무 상담	비자발급/ 갱신/변경	생활상담/ 현장동행 서비스	환경 관련 인허가 상담	지자체 입지/ 인센 티브 정보 제공	운전 면허 교환 발급	지자체 입지 지원/ 지역정보/ 제증명 발급 안내
관세청	국세청	산단공	KOTRA 전문위원	법제처/ KOTRA 전문위원 (변호사)	KOTRA 전문위원 (회계사)	고용부/ KOTRA 전문위원 (노무사)	법무부	KOTRA 전문위원 (영어, 중어, 일어)	환경부	8개 지자체/ 산단공	도로 교통 공단	8개 지자체/ 새만금 개발청

6) Invest Korea Plaza 운영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Invest Korea Plaza, IKP)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사무실 임대 및 각종 행정 지원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가 전용 인큐베이팅 시설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다. IKP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가 전용 사무실(7~9층)과 KOTRA 투자종합상담실 지자체 투자유치 유관기관 은행 등이 입주하여 IKP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잠재 외국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관 시부터 2019년 12월까지 IKP 외국인 투자가 전용 사무실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205개 업체이며 그중 183개 기업이 IKP를 졸업하였고, 39억 달러의 투자신고 실적을 나타냈다.

표 IV-20-1-25 | IKP 인큐베이터 이용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규업체(개사)	21	6	12	16	10
졸업업체(개사)	12	16	11	12	9
투자신고액(US\$ 천 달러)	132,947	113,290	96,639	70,307	20,187

7) 산업별 투자유치활동 전개

Invest KOREA는 국내 제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혁신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4차산업 혁명 관련 기술 보유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복합리조트, 문화콘텐츠, 물류 등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외국인투자유치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별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동체계를 구축하였다.

2019년 한 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전략 및 중점산업별로 3개 분과 16개 분야 총 64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Invest KOREA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자문위원은 Invest KOREA의 국내 투자유치 유망프로젝트 발굴사업에서 심사 및 평가하고, 잠재투자자의 심층적 인콰이어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IK 자문단과의 분야별 투자유치 간담회를 통하여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 방안, 바이오 헬스 케어, 미래형 자동차, 기능성 화학소재, ICT 분야의 투자유치 현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체계 구축을 위하여 IK 자문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사. 해외 전문인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1) 해외 전문인력 발굴·공급

KOTRA 해외취업팀은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 발굴, 인터뷰 주선, 이력확인, 고용추천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글로벌 인재 발굴 서비스

해외전문인력 DB가 구축되어있는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포털사이트 (contactkorea.kotra.or.kr)에 글로벌 인재 발굴을 신청하면 해외무역관을 통해 적정 인재를 발굴, 의뢰 처에 인재정보를 제공한다.

표 IV-20-1-26 | 글로벌 인재 유치지원 절차

- ① 인재발굴 신청 → ② 해외무역관 인재 발굴 → ③ 인재정보 송부 → ④ 채용 인터뷰 →
⑤ 이력확인 → ⑥ 고용계약 체결 → ⑦ 비자추천

2019년에는 107개 기업, 165명의 글로벌 인재 채용을 지원했다.

나) 해외 전문인력 고용추천서 발급

글로벌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특정 활동 비자(E-7)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추천서 신청은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포털사이트(contactkorea.kotra.or.k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20-1-27 |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 ① 발급 대상 여부 확인 → ②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③ 1차 서류 검토 → ④ 이력 확인
→ ⑤ 외부심사 → ⑥ 홈페이지에서 고용추천서 다운로드 → ⑦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2019년도에는 151명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지원하였다.

2) 해외 일자리 창출

KOTRA 해외취업팀은 해외무역관을 통해 양질의 글로벌 일자리를 발굴하여 한국 청년 인재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0-1-28 | 국내인력 해외취업 지원 절차

- ① 해외기업의 국내인력 구인수요 발굴 → ② 월드잡플러스(<https://www.worldjob.or.kr/>)에 구인
공고 게시 → ③ 해외 취업희망 구직자 모집 → ④ 서류합격자에 대해 면접 알선

가) 해외 구인수요 발굴

16개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한국인재에 대한 구인수요가 있는 해외 구인 처를 발굴하고 있다.

* K-Move 센터(16개소) : 뉴욕, LA,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싱가포르, 자카르타, 호치민, 하노이, 시드니, 베이징, 홍콩, 두바이, 멕시코시티

나) 국내외 해외취업 박람회

(국내) 양질의 해외기업을 초청하여 국내 구직자와의 1:1 면접기회 제공하는 글로벌 일자리대전(연 2회)을 개최한다.

(해외) 현지 유학생, 국내 청년을 대상으로 현지 기업, 진출기업과의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다) 핀포인트 채용 설명회 및 상담회

해외 구인기업의 채용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구직자와의 채용 설명회 개최 및 1:1 면접, 필기시험 등을 지원한다.

라)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국별 취업카페 및 멘토단 운영을 통해 해외 취업 정보를 전파하여 해외취업자의 현지 정착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다.

아. 신흥국 상생 협력 기반 구축

1) 글로벌 CSR 사업

KOTRA는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도와 기업 인지도를 제고하고, 현지 사회문제 해결과 인력 육성에 기여하여 신흥국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글로벌 CSR 사업에 관심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 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며, KOTRA는 참가 기업에게 사업의 기획·실행, 홍보,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KOTRA 사업 신청 ▶ 사업영역소개 ▶ 국제개발협력 ▶ KOTRA CSR ▶ CSR 게시판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csr@kotra.or.kr로 송부하면 된다.

표 IV-20-1-29 | 주요 사업내용 및 '19년 실적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19년 실적
우리기업의 해외 CSR 활동 지원	A형 자사제품·서비스 체험형 CS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우리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적 바이어나 소비자가 체험 및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 ◦ (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스마트 위치를 제조하는 스타트업 기업 D사는 문맹률이 가장 높고 전자기기 사용률이 높은 케냐를 대상으로 점자기기를 기부하여 현지 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수출성과 창출 	47개 사업
	B형 해외 기술·경영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우리 기업·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신흥국 정부나 발주처를 대상으로 공유하여 네트워크 구축 ◦ (예시) 철도 시설 건설, 관리의 기술력을 보유한 H사는 약 3년간 인도네시아 철도발주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도 설계 기술을 전수하여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 	60개 사업
	C형 상생 가치 창출형 CS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 가치 창출 ◦ (예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특산품인 코코넛 설탕을 개발, 가공 및 판매를 지원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자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의 원료 공급처 확보 및 상품 다양화 	6개 사업
	D형 유휴 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한국의 시험·인증, 연구개발, 제품생산,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 장비와 운영 경험을 신흥국에 제공 ◦ (예시) K 연구원은 미얀마의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해 고성능 현미경 등 유휴 장비 (12대)를 미얀마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하고 시험인증 시스템 전파 	6개 사업
	D형 유휴 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D형 사업 종료 후 2년 이내, 1회 한하여 사후관리 활동을 통해 기존 유휴 장비의 활용도 제고 ◦ 2018, 2019년 D형 사업 수행기관 신청 가능 	신규사업

2)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OTRA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무역투자진흥정책 및 경제발전경험을 협력대상국과 공유함으로써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협력국의 수출 진흥,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문과 비즈니스 연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협력국에 친한국적 제도 수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윈-윈(win-win)형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에콰도르, 모잠비크, 브라질, 페루, 인도 등 총 5개국, 5개 사업에 대해 KSP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별 정책자문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IV-20-1-30 | 2019년 KOTRA KSP 사업 주요국 수행내역

국가명	수행 내용
에콰도르	◦ (자문주제) 에콰도르 수출 역량 강화 및 대아시아 수출 증진 지원
모잠비크	◦ (자문주제) 모잠비크 운전면허교육 시스템 현대화
브라질	◦ (자문주제) 브라질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개선
페루	◦ (자문주제) 페루 파나맥스급 및 포스트파나맥스급 선박제조 관련 시설 구축 및 현대화
인도	◦ (자문주제) ADB 인도 항만 운영 개선을 위한 기술 강화 사업

제21장

한국무역보험공사

1

일반현황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우리나라 수출·수입 보험제도를 전담 운영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 중지 등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입보험은 국내 수입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수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적기에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출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정부에서는 1968년 수출보험법 제정 후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효율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신규보험종목 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수출보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1992년 약 1조 8,000억 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2019년 말 기준 155조 8,342억 원을 달성하였고 국내 수출의 약 20%를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1조 9,69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보험으로서의 공신력도 크게 증대되었다. 2010년에는 수출보험법 개정(2010.7.6자 시행)을 통해 공사명칭을 '한국

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중요물자 수입 거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및 수출기반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를 추가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거래 지원 및 중요 광물이나 원유 등 수입이 불가 피한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공사는 총 18개 국내지사³⁸⁾ 운영을 통해 권역별 중소수출기업 전담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지방수출기업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수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 16개 해외지사 운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지원과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확대

공사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상경영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중소·중견수출기업의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세계경기 침체 및 보호무역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확대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인수실적은 2018년 52조원, 2019년 56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16,770개, 2019년 20,060개의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공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대외경쟁력 확충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2008년 인수실적 18.6조원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수 6,952개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표 IV-21-1-1 |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소·중견기업 인수실적	478,818	519,663	562,276

38) 16개 국내지사 및 2개 출장소

나. 중소기업 육성방안 시행

공사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이행 및 신규 수출기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전용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선정기업, 자금부족으로 수출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 희망 및 초보 기업 육성을 위한 무역보험 혁신지원방안'을 통해 한도 우대, 보험(보증)료 최대 50% 할인 및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이용(최대 10회限)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다. 무역보험 아카데미 운영

2009년부터 중소수출기업 및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석자 특성에 맞는 제도 해설과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강사진 확충을 통해 무역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수출 예비/초보 기업에 대한 교육강좌를 추가하여 잠재 수출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 IV-21-1-2 | 무역보험 아카데미 운영 내역

(단위 : 회, 개사)

구 분	2018년	2019년
개최횟수	19	23
수료자수	423	608

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보험(증)료 지원사업 확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보험(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험(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소수출기업이 수출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 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부터 전년도 수출실적 US1,000만 이하인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증)료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2019년 650백만 원, 업체당 수혜한도는 연간 200만 원이다.

또한 무역협회와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직수출실적 US\$3,000만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중이다.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의 2018년 예산은 총 200백만 원이고 업체별 수혜한도는 100만 원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IV-21-1-3 | 보험(증)료 지원 운영내역(서울시 및 무역협회)

(단위 : 백만원, 개사)

구	분	2018년	2019년
서울시	지원금액	500	650
	중소기업 수출보험(증)료 지원	수혜업체수	1,014
무역협회	지원금액	107	104
	중소중견기업 Plus+ 보험료 지원	수혜업체수	560

* 단체보험 지원 포함

마. 무역보험 컨설팅 서비스 제공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이행 지원을 위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분야별(금융(무역보험), 수출입, 법무, 회계) 컨설턴트가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바.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 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의 제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금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수출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매입) 제도 운영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수출자가 외국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류 매입을 통해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지급하는 제도이다.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유사하게 수출기업이 물품 선적 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를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대출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수출신용보증(선적 후)이 중계무역 거래를 제외하고 지원하는데 비해,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중계무역을 포함한 모든 수출거래가 보증대상이 된다. 또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가 보증서 발급 후 수출(대출)통지를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비해, 수출신용보증(매입)은 통지절차가 없어서 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수출신용보증(매입)은 은행에 대한 면책조항 축소로 수출신용담보력이 강화되었으며, 단기수출보험과의 연계 가입의무가 없다. 다만 결제기간이 1년 이내인 거래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3)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제도 운영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는 중소기업들이 수출거래에서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의 손실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단기수출보험(선적후)와 비교하여 해외 수입자 신용평가 의무가 생략되는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가입 후에도 통지절차 등이 생략되어 관리가 용이하다. 기업은 보험 가입 시 등록된 수입자(50개사 이내)와 보험계약기간동안 이행한 수출 거래에 대해 최대 100백만 달러까지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하나의 수입자당 최대 손실보장 금액은 30만 달러 이내) 보험계약 갱신 및 보험료 납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환변동보험 제도 운영

환변동보험(일반형)은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금액 또는 수입을 통해 유출되는 외화금액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이다.

수출거래의 경우,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다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을 수출기업에게 보상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수입거래의 경우, 수출거래와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손실을 보상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기업의 이익을 회수하게 된다.

환변동보험(옵션형)은 공사는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환율 하락시 하락분의 전액 또는 일정수준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율상승시 발생하는 환수금이 부담스러운 영세수출 기업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공사는 환변동보험 제도를 통해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투기적 환헤지 수요 차단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정적 실행지 유도를 위해, 공사는 유관기관, 컨설팅사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지방 주요지역에서 설명회 개최 및 개별기업 1:1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IV-21-1-4 |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및 환차손 보험금 지급내역

(단위 : 억원, 개사)

구 분	2018년	2019년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7,748	9,101
보험금 지급액	47	63
보험금 지급업체수	196	209
대 기 업	-	-
중소·중견기업	196	209

5) 지방자치단체 보험(증)료 지원

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조를 통해 보험(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관별로 연도별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장 위치, 수출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내 수출중소기업에게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보험(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으로 지원기관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종목에 차이가 있다. 공사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지원받고자 하는 수출중소기업은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6) 무역협회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무역협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2009년부터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 U\$3,000만 이하 중소기업 중 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업체별 연간 수혜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기존 수입자 및 신규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에서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위험이 증가하고 환율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대금미회수 위험과 환변동 위험을 커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업무협조를 통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이다(업체별 대표 수출품목 기준 HS-Code 제1~22류, 24류(농식품), 수산물·입산물·연초류 제외).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 보험이며 종목별 한도는 업체당 각각 연간 4,000만원이다.

8) 산림조합중앙회 보험료 지원사업

공사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입산물 수출(목재, 석재류 제외)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연간 1,000만원이다.

9)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대행 사업

공사는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해 회수대행서비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외미수채권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중소

기업 수출자는 공사의 대외채권추심대행 상담 서비스를 통해 미수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볼 수 있다.

대외채권회수 노하우가 풍부한 국외보상채권부에서 동 사업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별로 협약을 맺은 해외추심기관 및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회수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0)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기업Plus+) 단체보험 운영

공사는 단체(유관기관, 지자체, 협회 등)의 구성원인 회원사 중소기업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무역협회·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10개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이며, 중소기업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거래에서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통상 5만 달러 범위 내). 이와 관련,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총당, 중소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1) 기타 중소기업 우대제도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대기업의 부보율이 95%(중견기업은 97.5%)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부보율을 100%로 우대함으로써 대금미회수 발생 시 중소기업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 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한은 2~3개월로 대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한 3~4개월에 비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가지급 비율이 보험금액의 60%이내(중견기업 70%)인데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가지급 비율은 80% 이내로 우대하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은 전 보험종목에서 10~20%의 보험료 환인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추가로 보험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도 책정 시에도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22장

한국무역협회

1

일반현황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진흥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우리나라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경제단체로서, 회원사(무역업체)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센터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주요 회원사는 수출입을 하는 무역업체들이 있으며, 현재 무역업체 대다수가 협회에 가입하여 각종 무역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회원사 수는 창립 초기 105개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7만 4,000 여 개의 무역업체들이 협회와 함께 하고 있다.(‘20.5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무역 현장 지원

서울사무소 및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통한 수출입
기업 실무 지원

- 무역애로 건의, 무역실무 상담
- 무역현장 자문 서비스,
- 통번역 지원, FTA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바이어-셀러 매칭, 수출상담 주선을 통한
국제 비즈니스 지원

- 해외 전시회/ 국가관(지자체관) 참가 지원
-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주요 역할

무역정보 제공 및 전자상거래 지원

수출입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B2B/B2C 온라인 플랫폼 운영

- KITA.net
- tradeKorea
- TradeNAVI
- Kmall24

무역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 수행

심도있는 연구를 통한 우리 무역의 방향성
제시 및 정책 방안 마련

- 산업/ 시장/ 최신동향 무역연구서 발간
- 민간 통상협력 활동
- 무역통계 작성

2

회원지원 프로그램 현황

가. 회원 혜택

KITA 수출바우처 서비스

혜택소개

업체별로 필요한 수출 부대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50~100만원)
 · 수출 단계별로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비용을 선집행한 후 90% 환급(자부담 10%)
 *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는 100% 정산 가능

(1) 수출준비

① 외국어 통·번역 이용료

- 한국무역협회 통번역서비스 센터에서만 이용 가능
- 이용가능 언어 : 영어, 이릅녕, 중국어, 불어, 독일어 등 18개 언어
- 서비스 범위 : (번역) 무역서신, 수출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등 (통역) 전시회, 공장방문, 국제전화 등
- 바우처 지원금 협회 직접 정산, 나머지 업체부담금만 별도 정산

②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홍보동영상 제작비

③ 수출상품 광고비

④ 무역아카데미 On/Off-line 강의 수강료

(2) 시장개척

⑤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 지정 이용기관 : KOMPASS, KOREA, EC21

⑥ 해외바이어 신용조사비

- 지정 이용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⑦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이용료

- 지정 이용기관 : Alibaba, EC21, KOMPASS, Amazon, eBay
- 이외 이용 희망 시 사전협의 필수

⑧ 코엑스 주차비

(3) 바이어 발굴

⑨ 수출 운송비

- * ①, ⑤, ⑥, ⑦은 지정 이용기관에서만 정산 가능

· 연차별 바우처 지원 한도

구분	로얄	골드	실버
	(회원가입 21년이상)	(회원가입 11 ~ 20년)	(회원가입 10년이하)
지원 ①기본	90만원	70만원	50만원
사항 ②추가*	10만원	10만원	10만원

* KITA 멤버십카드를 발급한 기업에 한해 年 10만원 추가 지원

세부내용

신청절차

① (회원사) 예산 배정 신청(온라인) → ② (무역협회) 예산배정 → ③ (회원사) 서비스 이용 후 비용 지체 집행 → ④ (회원사) 정산 신청 및 증빙제출(온라인) → ⑤ (무역협회) 정산금 지급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

혜택소개	수출마케팅과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에 대출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자금용도	① 수출마케팅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해외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 홍보/시장조사 등 ②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국내, 해외) 혹은 완제품(국내) 구매		
세부내용	• 융자금리 : 연 2.75% • 융자기간 : 3년(2년 거치 후 年 4회 균등 분할상환)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가입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		
	로얄 (회원가입 21년이상)	골드 (회원가입11 ~ 20년)	실버 (회원가입 10년이하)
	3억원	2.5억원	2억원
신청절차	① (회원사) 융자추천 신청(온라인) → ② (무역협회) 추천업체 선정 → ③ (회원사) 은행에 추천서 제출 및 융자심사 → ④ (무역협회) 심사 통과 시 은행에 자금 전달 → ⑤ (은행) 회원사에 대출 실행 * 융자 신청 전 주거래은행 여신한도에 대한 사전 확인 권장 ※ 신청가능 은행 : 기업,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씨티, SC제일,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수출단체보험료 지원

혜택소개	무역보험공사 수출단체보험(중소중견플러스, 수출안전망) 가입시 보험료 지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플러스 : 전년도 수출실적 3,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수출안전망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수출보험 2종 중 선택하여 가입		
세부내용	구분 연간 보상한도 보험료	중소중견플러스 5만 달러 200달러	수출안전망 2만 달러 20달러
	지원액	로얄(21년이상) 골드(11~20년) 실버(10년이하)	100%(전액 지원) 100%(전액 지원) 80%(업체 부담금 4만원)
신청절차	① (회원사) 수출단체보험 신청(온라인) → ② (회원사) 자부담금 입금 → ③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청약 → ④ (무역보험공사) 심사 및 결과안내 → ⑤ (무역협회) 탈락업체 자부담금 환급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무역아카데미 교육 수강료 할인

혜택소개	무역 실무 단기교육 수강 시 수강료 20% 할인						
세부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개설 강좌</th> </tr> </thead> <tbody> <tr> <td>무역실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기초 단기속성 과정 - 무역 심화과정(신용장, 운송/통관, 관세환급, 수출입 리스크 관리 등) - FTA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과정 - 전문가 과정(화장품/ 의류섬유/ 식품 / 기계 / 자동차 부품 등) - 창업과정 </td> </tr> <tr> <td>무역마케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전략 & 실무 과정 (브랜드 마케팅, 수출마케팅 실습, 비즈니스 협상, 환위험관리 등)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진출전략 과정 - 비즈니스 외국어 과정 </td> </tr> </tbody> </table>	분야	개설 강좌	무역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기초 단기속성 과정 - 무역 심화과정(신용장, 운송/통관, 관세환급, 수출입 리스크 관리 등) - FTA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과정 - 전문가 과정(화장품/ 의류섬유/ 식품 / 기계 / 자동차 부품 등) - 창업과정 	무역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전략 & 실무 과정 (브랜드 마케팅, 수출마케팅 실습, 비즈니스 협상, 환위험관리 등)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진출전략 과정 - 비즈니스 외국어 과정
	분야	개설 강좌					
무역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기초 단기속성 과정 - 무역 심화과정(신용장, 운송/통관, 관세환급, 수출입 리스크 관리 등) - FTA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과정 - 전문가 과정(화장품/ 의류섬유/ 식품 / 기계 / 자동차 부품 등) - 창업과정 						
무역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전략 & 실무 과정 (브랜드 마케팅, 수출마케팅 실습, 비즈니스 협상, 환위험관리 등)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진출전략 과정 - 비즈니스 외국어 과정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 tradecampus.com						

트레이드벤처플라자 입주

혜택소개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2층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신청자격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일 또는 협회 회원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 경과한 회원사														
세부내용	<p>· 사무공간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장소</th> <th>구분</th> <th>개수</th> <th>면적(㎡)</th> <th>월 이용료(원, 부가세 별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트레이드 타워(2층)</td> <td>1인실</td> <td>13</td> <td>4.95~7.59</td> <td>148,500~227,700</td> </tr> <tr> <td>2인실</td> <td>4</td> <td>7.92~10.56</td> <td>273,200~364,300</td> </tr> </tbody> </table>	장소	구분	개수	면적(㎡)	월 이용료(원, 부가세 별도)	트레이드 타워(2층)	1인실	13	4.95~7.59	148,500~227,700	2인실	4	7.92~10.56	273,200~364,300
	장소	구분	개수	면적(㎡)	월 이용료(원, 부가세 별도)										
트레이드 타워(2층)	1인실	13	4.95~7.59	148,500~227,700											
	2인실	4	7.92~10.56	273,200~364,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간 : 1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최대 1년 연장 가능) · 비용 : 12개월 이용료 및 관리운영예치금(선납) ·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사무기기 및 인터넷 무료 이용 가능 - 업무보조 서비스(우편물 수취, 내방객 안내 등) · 모집방법 : 공개 경쟁 및 심사를 통한 입주사 선정 · 모집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참석

혜택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회원(유료) 가입 후, 매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조찬회에 참석하여 강연 청취 경제·인문사회·과학 등 분야별 경영지식 습득 및 참석 기업 대표 간 네트워킹 가능 강연 참석 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호텔의 조찬 식사 제공 * 개최 장소는 변동 가능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찬회 연회원에 가입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 조찬회 연회원은 무역협회 회원제와 별도로 운영되며, 협회 회비 완납사만 가입 가능 일시 : 매월 중·하순경 07:20 ~ 09:00 (年 10회, 8월/12월 제외) 																					
세부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조찬회 회원 구분</th> <th>비용</th> <th>대상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연회원 (10회 참석)</td> <td>개인회원</td> <td>20만원</td> <td>1명</td> </tr> <tr> <td>법인회원</td> <td>50만원</td> <td>3명</td> </tr> <tr> <td rowspan="3">1회 참석</td> <td>협회 회원사</td> <td>10만원</td> <td>1명</td> </tr> <tr> <td>협회 비회원사</td> <td>20만원</td> <td>1명</td> </tr> <tr> <td>협회 신규회원사*</td> <td>무료</td> <td>2명</td> </tr> </tbody> </table> <p>* 협회 신규회원사는 가입 연도에 한해 1회 무료참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찬회 연회비 중도환불 불가 	조찬회 회원 구분		비용	대상인원	연회원 (10회 참석)	개인회원	20만원	1명	법인회원	50만원	3명	1회 참석	협회 회원사	10만원	1명	협회 비회원사	20만원	1명	협회 신규회원사*	무료	2명
조찬회 회원 구분		비용	대상인원																			
연회원 (10회 참석)	개인회원	20만원	1명																			
	법인회원	50만원	3명																			
1회 참석	협회 회원사	10만원	1명																			
	협회 비회원사	20만원	1명																			
	협회 신규회원사*	무료	2명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비즈니스센터 이용

혜택소개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서울 삼성동) 내 위치한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 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 & 코엑스 1층 이용시간 : 09:00~18:00 (월~금, 공휴일 제외) 이용시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장소</th> <th>이용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회의실 (10개)</td> <td>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td> <td>2인실 1개, 4인실 2개, 6인실 1개, 8인실 1개</td> </tr> <tr> <td>코엑스 (1층)</td> <td>4인실 4개, 8인실 1개</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이용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사무기기</td> <td>PC(인터넷 포함), 복사기, FAX, 화상회의 장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또는 현장신청 (단, 온라인 사전예약자 우선 이용) 	구분	장소	이용범위	회의실 (10개)	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	2인실 1개, 4인실 2개, 6인실 1개, 8인실 1개	코엑스 (1층)	4인실 4개, 8인실 1개	구분	이용범위	사무기기	PC(인터넷 포함), 복사기, FAX, 화상회의 장비
구분	장소	이용범위											
회의실 (10개)	트레이드타워 (지하 1층)	2인실 1개, 4인실 2개, 6인실 1개, 8인실 1개											
	코엑스 (1층)	4인실 4개, 8인실 1개											
구분	이용범위												
사무기기	PC(인터넷 포함), 복사기, FAX, 화상회의 장비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KITA 멤버십카드 이용 (신용/체크카드)

혜택소개	연간 사용실적에 따른 회비 대납 혜택이 있는 회원사 전용 법인카드 (신용/체크, 연회비 없음)			
구분	현대카드 (VISA/Master/ Unionpay)	IBK기업은행 (BC/VISA/Master)	KB국민카드 (VISA/Master)	하나카드 (VISA/Master)
공통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엑스몰 주차할인(연간 15회, 1일 1시간) * 현대카드 추후 도입 예정 - 인천공항 ↔ 한국도심공항 리무진 요금 2,000원 할인 - 인터컨티넨탈호텔(그랜드/코엑스) 객실 10%, 레스토랑 식음료 15% 할인 - 코엑스 주최/주관 전시회 무료입장 			
포인트 적립	신용 0.2%, 체크 0.4%	신용 0.2%	신용 0.1%	Master 0.2% Visa 0.1%
무역협회 회비지원	연간 실적 천만원부터 차등 지원	연간 실적 3천만원 총족 시 전액 지원	연간 실적 천만원부터 차등 지원	연간 실적 3천만원 총족 시 전액 지원
호텔	-	호텔예약 최대 10% 할인	해외호텔 7~8% 할인	국내 특급호텔 객실, F&B 할인
렌터카/ 항공	카셰어링 딜카 5% 할인	Hertz 최대 10% 할인	국제선 항공권 5% 할인	Hertz, AVIS 렌트카/항공권 할인
인천공항 라운지	年 3회 (마티나, 스카이허브)	-	年 2회 (마티나, 스카이허브 등)	VISA - 무료(PP카드), Master - 年 2회(아시아나)
발렛파킹	月 3회 (호텔·인천공항)	-	-	月 3회 (호텔·인천공항)
여행자 보험	최대 8억원	최대 3억원	최대 1억원 * 항공권/패키지상품 결제시	최대 6.5억원(VISA)
기타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 법인카드영수증 무중빙 경비처리 도입비면제 (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25원 할인 - 공항 운송서비스 (ZIMZOM) 25%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정보 지원서비스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 휴/폐업 조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면세점, 워커히면세점 최대 15% 할인

* 카드사별 이용혜택은 추후 변경가능

혜택소개	① (회원사) 온라인 신청 → ② (무역협회) 카드사에 신청서 전달 → ③ (제휴 금융기관) 전화상담 → ④ (회원사) 제휴 금융기관 방문하여 서류제출 → ⑤ (제휴 금융기관) KITA 멤버십카드 발급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 전화 현대카드(1577-0100) IBK기업은행(1566-2566) KB국민카드(1588-1688) 하나카드(1800-1111)

KITA 회원 할인서비스

혜택소개

수출 부대비용 절감을 위한 무역 관련 서비스 제휴 할인

유형	제휴업체	할인혜택	
국제특송	Fedex 코리아	전세계 배송비 최대 60% 할인	
	DHL 코리아	전세계 배송비 최대 60% 할인	
	우체국 EMS	전세계 배송비 최대 33% 할인	
	순펑 익스프레스	중국 배송비 20% 할인	
	중앙통역번역센터	번역비 최대 58% 할인	
통번역	팬트랜스넷	번역비 30% 할인	
	에버트란	번역비 30% 할인	
	플리토	번역비 최대 15% 할인	
	호텔패스	호텔예약 최대 77% 할인	
	현대해상	해외출장/여행보험료 20% 할인	
	출장 (항공/호텔/보험/로밍)	레드캡투어	항공권 최대 20% 할인
		(주)와이드모바일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대여 20% 할인 (와이파이도시락)
		익스피디아	호텔예약 최대 9% 할인
	정보보안 / 클라우드	다우데이터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 최대 20% 할인
		보안1번지	정보보안 서비스 10% 할인

해외인증	한국경영정보	인증컨설팅 수수료 최대 20% 할인
	CCIC KOREA	자료 심사비 최대 10% 할인
특허/지적재산권	특허법인 이룸리온	국내 대리인수수료 20% 이상 할인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국내 대리인수수료 20% 할인
시험/검사/포장	(주)인테크CNS	수출포장비 최대 10% 할인, 출장비 및 운송비 5% 할인, 위험물포장 취급수수료 5% 할인
신용정보/대금회수	NICE 신용정보	접수비 최대 73%, 성공보수 수수료 최대 32% 할인
	NICE D&B	기업신용조사보고서 최대 22% 할인 글로벌 기업식별코드 DUNS 번호 발급 수수료 최대 20% 할인
	NICE평가정보	기술, 기업, 개인신용평가 20% 할인
범용 공인인증서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50% 할인
외환수수료 우대	KB국민은행	각종 수수료 최대 80% 할인 및 면제
지식정보	SERI CEO	SERI CEO/PRO 2개월 무료수강, 연회비 20% 할인

* 최신 제휴현황은 홈페이지 참조

이용절차	① (회원사) 온라인 신청 → ② (제휴사) 회원사 상담(전화, e-mail) → ③ (회원사) 제휴 할인 서비스 선택 및 이용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혜택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에서 1:1 타겟마케팅 후 발굴된 관심 바이어에 대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바이어는 제품 특성 및 현지시장수요 등에 따라 발굴이 어려울 수 있음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대상 : 회원사 중 tradeKorea.com 기업회원 신청조건 : 1회 신청 당 3개 지역(年 최대 3회) 신청지역 :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전 국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대상 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절차	<p>① (회원사) 트레이드코리아 영문페이지 회원 가입 → ② (회원사) 영문 상품 등록 → ③ (회원사) 트레이드코리아 국문페이지 접속 → ④ (회원사)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선택 → ⑤ (무역협회) 해외바이어 발굴 결과 안내</p>

My Trade - 맞춤형 무역정보 서비스

혜택소개	우리 회사 수출입 정보에 대한 분석 서비스 및 맞춤형 무역정보 제공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회사 수출입 실적을 품목/국가별로 조회 가능 국내총생산(GDP), 인구, 신용도, 수입규모, 점유율 통계정보에 기반한 종합 유망시장 추천 관심 시장별 세율/규제, 전시회, 해외오피 정보 등 제공 검색 품목과 관련된 국내 수출 유관기관 지원사업, 교육정보, 멘토링 서비스 등 맞춤형 추천서비스 제공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 메인화면 내 추천서비스 아이콘 클릭

나. 무역상담

TradeSOS 무역실무 상담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실무 분야별로 국내 최고 전문가와 실시간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가능 - 무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 수출입 절차, 관세율, 계약체결, 대금결제, 해외인증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전문 답변 청취 			
	상담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 membership.kita.net ※ 방문상담 가능 		
세부 상담분야	구분	상담요일	상담시간	컨설턴트
	수출입절차/신용장/대금결제	월~금	09:00~18:00	전문 상담역
	통관/관세환급/HS분류	월~금		관세사
	무역분쟁 대응	월		국내 변호사
	국제계약/클레임	화~목		국제 변호사
	세무/회계	수		공인회계사
	외환/환리스크	목		외환 전문가
	해외규격/인증	월~금		인증 전문가
전자상거래	목	글로벌 파워셀러		
인사/노무	온라인	공인노무사		

TradeSOS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서비스 소개	수출 30년 경력의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무료 1:1 컨설팅 제공	
상담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 포털 : membership.kita.net	
세부 상담분야	해외마케팅	· 해외시장 진출전략, 해외거래선(바이어) 발굴, 바이어 상담 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전반적으로 상담
	무역실무	·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 운송/보험/통관, 대금회수, 무역 클레임 상담 · 무역실무 현장교육
	무역지원제도 안내	· 무역금융, 환변동보험, 신용조사 등 · 무역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경영자문	· 경영컨설팅(재무, 인사, 회계, 경영전략 등) ·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무역애로의 상담 및 해결

TradeSOS 무역 애로사항 건의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유관기관 협의 및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해결 지원 · 접수, 검토, 처리경과, 완료 등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애로/건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 membership.kita.net ※ 방문상담 가능 												
이용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1단계</th> <th style="width: 25%;">2단계</th> <th style="width: 25%;">3단계</th> <th style="width: 25%;">4단계</th> </tr> </thead> <tbody> <tr> <td>애로 접수</td> <td>(무역협회) 애로 검토</td> <td>(무역협회) 조치 및 애로해소</td> <td>(무역협회) 결과 공유</td> </tr> <tr> <td>온라인, 콜센터, 간담회 등을 통한 무역 현장 애로 접수</td> <td>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방안 검토</td> <td>협회 자체해결, 유관기관 협의, 대정부 건의 등 실시</td> <td>건의 기업/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및 건의내용 공유</td> </tr> </tbody> </tabl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애로 접수	(무역협회) 애로 검토	(무역협회) 조치 및 애로해소	(무역협회) 결과 공유	온라인, 콜센터, 간담회 등을 통한 무역 현장 애로 접수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방안 검토	협회 자체해결, 유관기관 협의, 대정부 건의 등 실시	건의 기업/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및 건의내용 공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애로 접수	(무역협회) 애로 검토	(무역협회) 조치 및 애로해소	(무역협회) 결과 공유										
온라인, 콜센터, 간담회 등을 통한 무역 현장 애로 접수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방안 검토	협회 자체해결, 유관기관 협의, 대정부 건의 등 실시	건의 기업/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및 건의내용 공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서비스 소개	수출 경력 30년 이상의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집중 멘토링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수출 달성까지 밀착지원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거래선 발굴, 수출 계약, 이행 등 수출에 필요한 제반 실무 * KOTRA,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
이용절차	① 참가신청 → ② (무역협회)서류검토 → ③ (무역협회)현장방문 → ④ (무역협회)결과안내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kita.net

FTA 컨설팅 및 정보제공 서비스

서비스 소개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FTA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교육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0 · 온라인 : FTA종합지원센터 fta1380.or.kr · 내방 : 트레이드타워 3층 FTA종합지원센터 (서울 삼성동)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세부 지원사항</th> </tr> </thead> <tbody> <tr> <td>방문 컨설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사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맞춤형 종합 컨설팅 실시 · 서류 및 증빙 관리, 검증 대응방법 등 사후관리 지원 · 원산지 사후검증 수검기업 현장방문 컨설팅(소명자료 작성 지원 등) </td> </tr> <tr> <td>FTA 교육</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대응 등 FTA 활용 관련 교육 개최 </td> </tr> <tr> <td>FTA 정보 제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별·품목별 수출 및 수입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정보제공 · FTA 협정문, 연구·조사자료, 정책자료, 최신뉴스 등 정보제공 </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 지원사항	방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사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맞춤형 종합 컨설팅 실시 · 서류 및 증빙 관리, 검증 대응방법 등 사후관리 지원 · 원산지 사후검증 수검기업 현장방문 컨설팅(소명자료 작성 지원 등) 	FTA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대응 등 FTA 활용 관련 교육 개최 	FTA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별·품목별 수출 및 수입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정보제공 · FTA 협정문, 연구·조사자료, 정책자료, 최신뉴스 등 정보제공
분야	세부 지원사항								
방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사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맞춤형 종합 컨설팅 실시 · 서류 및 증빙 관리, 검증 대응방법 등 사후관리 지원 · 원산지 사후검증 수검기업 현장방문 컨설팅(소명자료 작성 지원 등) 								
FTA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대응 등 FTA 활용 관련 교육 개최 								
FTA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별·품목별 수출 및 수입 관세율, 원산지기준 등 정보제공 · FTA 협정문, 연구·조사자료, 정책자료, 최신뉴스 등 정보제공 								

수출업 운송비 할인 및 컨설팅 서비스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물류 협력업체를 통한 물류비 할인 · 수출입 물류 관련 모든 상담 제공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물류비 할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협력업체 이용 시 우대요금 적용 (포워딩, 3자물류, 내륙운송) · 운임 및 각종 물류요금 견적 서비스 </td> </tr> <tr> <td>전화/이메일 상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적정성 검토 및 물류애로 상담 </td> </tr> <tr> <td>방문컨설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수출입 물류 컨설팅 제공 <p><주요 컨설팅 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 물류 체계 진단 및 효율화 2) 수출입 운송비 절감 3) 전반적인 수출입 물류 절차 4) 창고 이용 효율화 및 부대비용 절감 </td> </tr> <tr> <td>수출입물류 정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항공 시장운임 정보 (매월 시장참고가격 공개) </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물류비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협력업체 이용 시 우대요금 적용 (포워딩, 3자물류, 내륙운송) · 운임 및 각종 물류요금 견적 서비스 	전화/이메일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적정성 검토 및 물류애로 상담 	방문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수출입 물류 컨설팅 제공 <p><주요 컨설팅 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 물류 체계 진단 및 효율화 2) 수출입 운송비 절감 3) 전반적인 수출입 물류 절차 4) 창고 이용 효율화 및 부대비용 절감 	수출입물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항공 시장운임 정보 (매월 시장참고가격 공개)
구분	세부내용										
물류비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협력업체 이용 시 우대요금 적용 (포워딩, 3자물류, 내륙운송) · 운임 및 각종 물류요금 견적 서비스 										
전화/이메일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적정성 검토 및 물류애로 상담 										
방문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수출입 물류 컨설팅 제공 <p><주요 컨설팅 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 물류 체계 진단 및 효율화 2) 수출입 운송비 절감 3) 전반적인 수출입 물류 절차 4) 창고 이용 효율화 및 부대비용 절감 										
수출입물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항공 시장운임 정보 (매월 시장참고가격 공개) 										
이용안내	한국무역협회 물류포탈 : shippersgate.kita.net										

다. 해외시장 개척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소개	구분	지원사항
	국내 전시회 개최	· 국내에서 국제 전문전시회 개최를 통한 수출 기업 제품 홍보 및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지원
	글로벌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 전 세계 유망 바이어와 국내에서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해외 마케팅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지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해외 현지에 사절단 파견을 통해 현지 시장 정보 조사, 교류협력 및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기회 제공

* 전시회/상담회 일정은 연중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일정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

서비스 소개	구분	지원사항
	Fortune 500 Connect	· 해외 대/중견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복합쇼핑몰 테스트 베드 사업	· 국내외 복합쇼핑몰에서 스타트업의 제품/솔루션에 대한 시연 및 테스트 지원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 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최대 3,0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이용안내	국내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 국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innobranh.com) · 스타트업브랜치(startupbranch.kita.net)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exportvoucher.com)

tradeKorea - 국내 최대 온라인 B2B e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年평균 830만명 방문 및 64,000건의 인콰이어리 접수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매칭 지원 · tradeKorea 가입 후, tradeKorea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상품 무료 홍보 가능 																
신청자격	tradeKorea 기업회원 * 개인회원은 일부 서비스만 이용가능 국내 tradeKorea 회원 전용 무료 수출지원 서비스(kr.tradeKorea.com)																
세부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세부 지원사항</th> </tr> </thead> <tbody> <tr> <td>바이어DB 타겟마케팅</td> <td>무역협회 보유 185만 개 바이어DB 접속하여 직접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td> </tr> <tr> <td>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회원사 전용)</td> <td>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td> </tr> <tr> <td>영문 홈페이지 제작</td> <td>tradeKorea 도메인활용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 지원</td> </tr> <tr> <td>해외바이어 구매오피</td> <td>해외바이어 소싱정보를 공개하여 매칭 희망 국내기업 공개모집</td> </tr> <tr> <td>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td> <td>매월 3개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소싱지원 (IKEA, Watsons 등)</td> </tr> <tr> <td>샘플 소액결제 서비스</td> <td>샘플 주문 간편 결제 지원</td> </tr> <tr> <td>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td> <td>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하나은행 외환수수료 할인</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 지원사항	바이어DB 타겟마케팅	무역협회 보유 185만 개 바이어DB 접속하여 직접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회원사 전용)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	tradeKorea 도메인활용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 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해외바이어 소싱정보를 공개하여 매칭 희망 국내기업 공개모집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매월 3개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소싱지원 (IKEA, Watsons 등)	샘플 소액결제 서비스	샘플 주문 간편 결제 지원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하나은행 외환수수료 할인
분야	세부 지원사항																
바이어DB 타겟마케팅	무역협회 보유 185만 개 바이어DB 접속하여 직접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후 거래제안서(C/L) 발송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회원사 전용)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	tradeKorea 도메인활용 미니사이트 무료 제작 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해외바이어 소싱정보를 공개하여 매칭 희망 국내기업 공개모집																
빅바이어 상시거래알선	매월 3개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소싱지원 (IKEA, Watsons 등)																
샘플 소액결제 서비스	샘플 주문 간편 결제 지원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 외환결제시 하나은행 외환수수료 할인																
서비스 신청	www.tradeKorea.com																

Kmall24 - 한류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정보 노출 및 B2C 판매 · 간편 회원가입, 해외PG 결제수단 적용 등 해외 판매 최적화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all24 입점가입 회원 (Kmall24.co.kr 에서 입점신청) <사이트 특징>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입점비, 운영비 등 없음(단, 정산수수료 0.5% 발생) · 이베이, 티몰 글로벌, 쇼피 등 해외 오픈마켓 연계 지원 · 간편 회원가입 및 해외결제로 해외 고객 대상 판매 최적화 · 중문사이트(kmall24.com.cn) 운영으로 중국고객 타겟 가능 <주요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마케팅 및 모바일 판매 지원 · 상품 검수, 리패키징 물류 서비스 지원 · 외화(달러, 엔화 등) 정산 서비스 · 고객문의 응대지원(CS)
서비스 신청	kmall24.co.kr

라. 무역정보

국제 무역/통상정보 제공

	· 무역과 관련된 각종 연구 보고서 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주요 서비스</th> <th>보고서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국내외 무역현안/이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 · 중동 불안이 국제유가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td> </tr> <tr> <td>수출입 동향 분석/전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수출입 동향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 2020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 </td> </tr> <tr> <td>유망 수출산업/시장 연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출이 유망한 산업 및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 · 세계로 뻗어가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 · 신남방지역 무역 및 서비스분야 진출 방안 </td> </tr> </tbody> </table>	주요 서비스	보고서 예시	국내외 무역현안/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 · 중동 불안이 국제유가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수출입 동향 분석/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수출입 동향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 2020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 	유망 수출산업/시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출이 유망한 산업 및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 · 세계로 뻗어가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 · 신남방지역 무역 및 서비스분야 진출 방안 			
주요 서비스	보고서 예시											
국내외 무역현안/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 · 중동 불안이 국제유가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수출입 동향 분석/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수출입 동향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 2020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 											
유망 수출산업/시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출이 유망한 산업 및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 · 세계로 뻗어가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 · 신남방지역 무역 및 서비스분야 진출 방안 											
서비스 소개	· 통상 정보 제공, 현안 분석 및 컨설팅 실시											
	<table border="1"> <thead> <tr> <th>주요 서비스</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통상리포트 발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통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보고서 발간 · 미국 철강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 확대 · 영국 조기총선 결과 및 향후 브렉시트 논의 전망 · 기업의 통상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통상전략 2020 </td> </tr> <tr> <td>뉴스레터 발송</td> <td>○ 해외 로펌·지부·학술지 및 외신 정보 선별 후 정리하여 제공</td> </tr> <tr> <td>교육·컨설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교육과정 개설 운영 - 통상 실무 공무원 과정, 수출기업 통상실무, CEO 대상교육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통상·산업 통합전략 컨설팅 제공 </td> </tr> <tr> <td>수입규제 정보제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정보 제공 ○ 전문가 그룹(회계, 법률)과의 연계를 통한 심화 컨설팅 제공 ○ 수입규제 관련 종합 대책 마련 및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수입규제협의회 사무국 운영 </td> </tr> </tbody> </table>	주요 서비스	세부내용	통상리포트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통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보고서 발간 · 미국 철강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 확대 · 영국 조기총선 결과 및 향후 브렉시트 논의 전망 · 기업의 통상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통상전략 2020 	뉴스레터 발송	○ 해외 로펌·지부·학술지 및 외신 정보 선별 후 정리하여 제공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교육과정 개설 운영 - 통상 실무 공무원 과정, 수출기업 통상실무, CEO 대상교육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통상·산업 통합전략 컨설팅 제공 	수입규제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정보 제공 ○ 전문가 그룹(회계, 법률)과의 연계를 통한 심화 컨설팅 제공 ○ 수입규제 관련 종합 대책 마련 및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수입규제협의회 사무국 운영 	
	주요 서비스	세부내용										
통상리포트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통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보고서 발간 · 미국 철강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 확대 · 영국 조기총선 결과 및 향후 브렉시트 논의 전망 · 기업의 통상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통상전략 2020 											
뉴스레터 발송	○ 해외 로펌·지부·학술지 및 외신 정보 선별 후 정리하여 제공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교육과정 개설 운영 - 통상 실무 공무원 과정, 수출기업 통상실무, CEO 대상교육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통상·산업 통합전략 컨설팅 제공 											
수입규제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정보 제공 ○ 전문가 그룹(회계, 법률)과의 연계를 통한 심화 컨설팅 제공 ○ 수입규제 관련 종합 대책 마련 및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수입규제협의회 사무국 운영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t.kita.net) 											

K-stat -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61개국 수출입 통계를 품목별, 국가별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공하는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 한국, 북한 및 중국·미국·일본·EU(28개국)·호주·캐나다·아세안·중남미 등 총 61개국 무역통계 DB 보유 - 세계무역통계, 해외부품소재통계 등 주제별 무역통계 DB 보유 - 순위통계, 매트릭스통계 등 맞춤형 분석형 통계정보 제공
이용안내	<p>stat.kita.n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무역통계의 품목별/국가별 통계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사에게만 제공

온/오프라인 무역 자료 이용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 전자도서관 : 무역협회 및 유관기관 발간자료를 전자책(eBook) 형태로 무료 제공 · 정보자료실(회원사 전용) : 무역 관련 4만여 권의 온/오프라인 자료에 대한 무료 열람 제공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전자도서관 (ebook.kita.net) · 방문 : 트레이드타워 6층 603호(서울 삼성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약 필수(문의 : 02-6000-5109) * 운영시간 : 14:00~18:00(월~금, 공휴일 제외)

마. 무역교육 및 인력매칭

무역실무 단기 교육과정

과정소개	· 무역실무 분야별로 온/오프라인 실무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분야	세부 교육과정
	기초무역실무	정규무역실무, 신입사원 무역실무, 무역실무기초 단기속성, 초스피드 무역스타트업 등
	무역실무심화	신용장, 운송/통관, 수출입리스크관리, 관세환급 등
	마케팅 · 외환	브랜드 마케팅, 수출마케팅 실습, 비즈니스 협상, 환위험관리 등
수강안내	비즈니스 외국어	영문 이메일 작성기법
	FTA	FTA종합무역실무, FTA원산지관리, FTA사후검증 대응전략 등
	주력산업 전문가과정	화장품/의류섬유/기계부품/자동차부품 수출 전문가 양성과정
	해외시장 진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외시장진출 전략과정 등
* 협회 회비 완납사의 경우 단기 교육과정 수강료 20% 할인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 무역아카데미 e러닝(cyber.tradecampus.com)		

무역 자격시험

시험소개	· 국제무역사 1급/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무역 업무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역 지식을 검증 - 특전 : 주요 무역상사, 금융기관 등 인사고과 가점 부여, 무역협회 주관사업 모집, 선발 시 가점부여 등 - 일정 : 1급 연 2회(2월, 8월), 2급 연 1회(9월) 실시
시험안내	· 외환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기업의 환위험관리 및 파생금융상품 실무전문가 양성 - 취득방법 : 외환관리사 자격 취득과정(54시간) 이수 후, 과목별 평가시험 최종 합격 시 자격증 수여 - 일정 : 연 3회(3월, 5월, 10월) 실시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 tradecampus.com

무역 인력양성 및 구인/구직자 매칭

과정소개	· 분야별로 특화된 무역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분류	프로그램명	세부 교육과정																		
	취업연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국내</td> <td>무역마스터 과정</td> <td>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글로벌 무역 전문인력 양성</td> </tr> <tr> <td rowspan="3" style="background-color: #cccccc;">해외</td> <td>SMART Cloud IT 마스터 과정</td> <td>ICT 지식 및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IT 인재 양성</td> </tr> <tr> <td>베트남 글로벌 마스터 과정</td> <td>베트남 현지 교육을 통한 전문가(중간관리자) 양성</td> </tr> <tr> <td>KITA 일본취업 학교 과정</td> <td>일본취업 맞춤형 교육 및 잡매칭을 통한 일본전문가 양성</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실무역량</td> <td>글로벌무역인턴십</td> <td>무역 실무 및 글로벌 감각을 갖춘 청년무역전문가 양성</td> </tr> <tr> <td></td> <td>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td> <td>산·학·관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무역 전문인력 양성</td> </tr> <tr> <td></td> <td>무역캠프 (대학생·특성화고)</td> <td>실제 무역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화 체험 프로그램</td> </tr> </table>	국내	무역마스터 과정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글로벌 무역 전문인력 양성	해외	SMART Cloud IT 마스터 과정	ICT 지식 및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IT 인재 양성	베트남 글로벌 마스터 과정	베트남 현지 교육을 통한 전문가(중간관리자) 양성	KITA 일본취업 학교 과정	일본취업 맞춤형 교육 및 잡매칭을 통한 일본전문가 양성	실무역량	글로벌무역인턴십	무역 실무 및 글로벌 감각을 갖춘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산·학·관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무역 전문인력 양성		무역캠프 (대학생·특성화고)	실제 무역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화 체험 프로그램
국내	무역마스터 과정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글로벌 무역 전문인력 양성																			
해외	SMART Cloud IT 마스터 과정	ICT 지식 및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IT 인재 양성																			
	베트남 글로벌 마스터 과정	베트남 현지 교육을 통한 전문가(중간관리자) 양성																			
	KITA 일본취업 학교 과정	일본취업 맞춤형 교육 및 잡매칭을 통한 일본전문가 양성																			
실무역량	글로벌무역인턴십	무역 실무 및 글로벌 감각을 갖춘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산·학·관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무역 전문인력 양성																			
	무역캠프 (대학생·특성화고)	실제 무역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화 체험 프로그램																			
신청안내	· 수출기업 구인/구직자 매칭을 통한 무역인력 취업 알선																				
	사업명	주요 지원사항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포털(잡투게더) 운영 - 각종 취업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글로벌 무역인력 채용박람회 개최 																			
	해외 일자리 지원사업(K-Move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해외취업 지원센터(K-Move센터) 운영 -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국가별 채용공고 검색 지원 -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 및 화상면접 지원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잡투게더(jobtogether.net)																					

글로벌물류 최고경영자 과정(GLMP)

* Global Logistics Management Program for CEO

과정 소개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과 공동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물류전문 최고경영자 과정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혁신/투자/경영전략 및 정책 트렌드 강의, 국내/해외 연수, 부부동반 특강, 총동창회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 물류분야 전문가와 고위 공무원, 언론인, 문화계 인사를 총망라하는 1,200여 명 원우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과정안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바. 수출입 실적 증명 및 활용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소개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24시간 온라인 발급								
발급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실적인정 대상</th> </tr> </thead> <tbody> <tr> <td>수출입실적증명서</td> <td>· 물품의 직수출/직수입</td> </tr> <tr> <td>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증명서</td> <td>· 용역 : 경영 상담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운수업, 문화사업, 관광사업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성물, 전자서적 등</td> </tr> <tr> <td>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 물품 수출실적</td> <td>·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 보세구역 내의 지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실적인정 대상	수출입실적증명서	· 물품의 직수출/직수입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증명서	· 용역 : 경영 상담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운수업, 문화사업, 관광사업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성물, 전자서적 등	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 물품 수출실적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 보세구역 내의 지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구분	실적인정 대상							
	수출입실적증명서	· 물품의 직수출/직수입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증명서	· 용역 : 경영 상담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운수업, 문화사업, 관광사업 등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성물, 전자서적 등							
외국인 외화영수부 국내수출자 공급 물품 수출실적	·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 보세구역 내의 지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발급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서비스 소개	<p>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 부여</p> <p>* 근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24조</p>				
신청요건	<p>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p> <p>* 무역협회 회원가입 시 무역업고유번호 자동 부여</p>				
필요서류	<table border="1"> <tbody> <tr> <td>온라인</td> <td>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파일첨부)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td> </tr> <tr> <td>방문</td> <td>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내방자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td> </tr> </tbody> </table>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파일첨부)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방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내방자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온라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파일첨부)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방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내방자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 * [회원/업무지원]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참조 · 방문 :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서울 삼성동) 및 국내지역본부 				

무역분야 추천서 - 해외지사 설치인증/ 외국인 비자발급 추천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체의 해외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해외지사 설치 인증 추천 · 외국인력 채용을 위한 외국인 비자 발급 추천 · 무역업체가 해외바이어 초청 시 외국인 비자 발급 추천
발급 대상	<p>공통 조건 :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한 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업체 - 10만 달러 이상의 취소불능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 · 해외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인 비자(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력 채용 시) 연간 수출실적이 10만달러 이상인 업체 * 대상 외국인 : 무역관련 전공(경제, 국제통상,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또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해외바이어 초청 시) 연간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업체
발급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기타 증명서 발급

서비스 소개	회원사 또는 협회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								
발급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92 1234 821 1274">구분</th> <th data-bbox="821 1234 1213 1274">발급 증명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2 1283 821 1421">회원/회비 증명서</td> <td data-bbox="821 1274 1213 1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회원증 발급(국/영문) · 회비납부영수증(입금표) 발급 · 단기과징 수수료증 · 온라인(ICTC) 수수료증 </td> </tr> <tr> <td data-bbox="392 1421 821 1577">무역아카데미 증명서</td> <td data-bbox="821 1421 1213 15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 2003년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온라인 발급 가능 </td> </tr> <tr> <td data-bbox="392 1577 821 1656">기타 확인증</td> <td data-bbox="821 1577 1213 16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국민은행 외환수수료 우대확인증 · 수출의 탑 수상확인증 </td> </tr> </tbody> </table>	구분	발급 증명서	회원/회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회원증 발급(국/영문) · 회비납부영수증(입금표) 발급 · 단기과징 수수료증 · 온라인(ICTC) 수수료증 	무역아카데미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 2003년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온라인 발급 가능 	기타 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국민은행 외환수수료 우대확인증 · 수출의 탑 수상확인증
구분	발급 증명서								
회원/회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회원증 발급(국/영문) · 회비납부영수증(입금표) 발급 · 단기과징 수수료증 · 온라인(ICTC) 수수료증 								
무역아카데미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 2003년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온라인 발급 가능 								
기타 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국민은행 외환수수료 우대확인증 · 수출의 탑 수상확인증 								
발급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회원국 중 APEC 가입 19개국 방문 시 별도의 비자 없이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는 카드 발급 · 가입국 공항 내 전용 수속레인(Fast Track) 이용
발급 대상	<p>기업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수출입실적 또는 해외 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해외건설업면허를 득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등 <p>개인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적이며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상용 목적으로 비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APEC 회원국 4회 이상 방문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출국 금지 또는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발급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ABTC업무포털 (http://abtc.kita.net)

ABTC 19개 가입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상성회원 (Transitional Member)

 미국	 캐나다
--	---

*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며, 공항에서 전용 수속레인(Fast Track)만 이용가능

신청절차	<p>서류제출(신청기업) 서류 검토 및 추천(무역협회) 발급심사(법무부) 국가별 승인(APEC 19개국) 카드발급 신청(신청기업) 카드발급(무역협회)</p>
발급 수수료	장당 3만원
카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신청안내	한국무역협회 ABTC업무포털 (abtc.kita.net)

사. 우수 무역기업 시상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수출유공자 포상

시상 소개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기여한 업체 및 수출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							
시상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의 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대상 : 연간* 각 탑 해당금액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실적산정 기간 : 전년도 7월 1일 ~ 당해연도 6월 30일 - 종류 : 백만 불/천만 불/억 불 등 총 44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종류</th> </tr> </thead> <tbody> <tr> <td>백만 불대(4종)</td> <td>1, 3, 5, 7백만불</td> </tr> <tr> <td>천만 불대(5종)</td> <td>1, 2, 3, 5, 7천만불</td> </tr> <tr> <td>억 불대(35종)</td> <td>1~9억불(9종), 10~90억불(9종), 100~900억불(매 50억불 단위, 17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유공자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대상 : 수출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등 - 종류 :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구분	종류	백만 불대(4종)	1, 3, 5, 7백만불	천만 불대(5종)	1, 2, 3, 5, 7천만불	억 불대(35종)
구분	종류							
백만 불대(4종)	1, 3, 5, 7백만불							
천만 불대(5종)	1, 2, 3, 5, 7천만불							
억 불대(35종)	1~9억불(9종), 10~90억불(9종), 100~900억불(매 50억불 단위, 17종)							
신청기간	7월 중순 ~ 8월 중순(예정)							
신청안내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membership.kita.net)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시상

시상 소개	신기술 및 아이디어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한 우수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 공동 주관
시상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대상 : 무역업체 CEO · 시상 주기 : 매월 1명(8월, 12월 제외) · 선정 기준 : 연간 수출실적 500만 불 이상 달성한 업체 중 수출증가율, 사회공헌활동 등 공적사항을 고려
신청안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공지사항 참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온라인 무역협회 서비스

1)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KITA.net

주요 서비스

- 무역뉴스, 연구보고서, 무역실무매뉴얼 등 각종 무역통상정보 조회
- 해외무역 통계, 해외부품소재 통계, 맞춤분석 통계 등 무역통계 조회
- 협회 사업, 공지사항, 국내외 지역본부 등 협회 관련 소식 조회

이용안내

- PC버전 : 국문 서비스 kita.net / 영문 서비스 kita.org
- 모바일 앱 : Smart KITA (iOS, Android 지원)

2) 회원 업무 종합안내 업무지원포털

주요 서비스

- 무역 애로사항 건의, 무역실무 상담 등 각종 전문상담/컨설팅 이용
- 수출입실적, 회원/회비, 아카데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협회 지원사업 및 회원 전용 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이용안내

- 한국무역협회 업무지원포털 membership.kita.net

3) 국가무역 정보포털 TradeNAVI

주요 서비스

- 최신 관세율/무역규제 정보 조회, 무역정보 안내지도 이용
- 키워드/HS코드/국가/업종별 무역정보 통합검색 이용
- 특정 국가/업종 관련 무역 보고서 조회

이용안내

-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navi.or.kr

4)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주요 서비스

- 세계 61개국 수출입 통계를 품목별/국가별로 조회
- 세계무역통계, 해외부품소재통계 등 주제별 무역통계 조회
- 순위통계, 매트릭스통계 등 맞춤 분석형 통계 이용
- * 해외무역통계의 품목별/국가별 통계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사 전용으로 제공

이용안내

- K-stat stat.kita.net

나. 수출입 단계별 제공 서비스

① 무역정보 수집	② 수출 준비	③ 상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
<p>해외 시장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 TradeNAV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해외 시장정보 - 국제 무역/통상정보 - K-st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p>기업 맞춤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 Tr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회사 수출입 정보 조회 및 유망시장 추천 <p>무역실무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회계 세무 - 품목별 수출입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 [무역통상정보] 참고 	<p>무역 실무교육 및 인력 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아카데미 교육 수강료 할인 - 무역인력 양성 및 구인/구직자 매칭 <p>수출입 부대비용 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수출바우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번역, 홍보물 제작 등 - KITA 멤버십카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 법인카드 - KITA 회원 할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특송, 해외출장, 인증 등 <p>자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 - 수출단체보험료 지원 	<p>해외시장 개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 해외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상담회, 무역투자자문단 등 <p>온라인 마케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B2B 마켓플레이스 - Kmall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온라인 쇼핑몰
	<p>④ 계약 체결 및 수출</p> <p>수출입 상담/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SOS 무역실무상담 - TradeSOS 무역 애로사항 건의 <p>▶ 수출입 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SOS 무역현장 자문 서비스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FTA / 물류 활용 컨설팅 	<p>⑤ 수출입 실적 활용</p> <p>증명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실적증명서 <p>편의서비스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 무역분야 추천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지사 설치인증 추천 * 외국인 비자(사증) 발급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ABTC) 발급 <p>우수 무역기업 시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의 날 수출의탑 및 수출 유공자 포상 - 한국인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시상

제23장

한국생산성본부

1

일반현황

한국생산성본부는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32조에 의거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컨설팅사업, 교육훈련사업, 지수사업, 조사연구사업,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법의 개발 및 보급사업, 생산성향상을 위한 정부위탁사업, 아시아생산성기구(APO)와 관련되는 정부업무의 대행, 공장자동화·사무자동화·공장관리합리화·물류합리화에 관한 연구·컨설팅·교육훈련·기술개발 및 설비의 책임감리,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 발급, 정보시스템 감리 및 평가 등 정보화 진흥사업, 생산성향상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증발급 사업, 생산성향상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시청각교재, 정기 간행물, 도서 등의 제작·발간 및 각종 정보자료의 개발 보급,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기술조사 및 연구용역,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상담·교육사업, 생산성회원제도의 운영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및 전문요원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9본부(단·소·실), 32센터·팀, 4지역본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문안로에 소재하며, 경기도 이천의 연수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다년간에 걸쳐 우리 산업 현장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산성경영체제 보급과 산업혁신운동, 대·중소기업간의 생산성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컨설팅 방법론 제시와 고품질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산업 체질 강화와 새로운 생산성 제고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국가생산성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등 정책과제 지원은 물론 글로벌 생산성 향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컨설팅/교육/자격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규 모델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 및 인력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생산성향상 사업

1) 국가 생산성대상,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한국생산성본부는 1962년 생산성상을 제정하여 경영의 발전과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표창하고 있다. 국가 생산성대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요구되는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소개하여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혁신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제고 및 근로자의 참여도모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측정된 경영, 평가된 경영, 체계화된 경영 기법을 보급·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생산성향상의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국가적 생산성 의식의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포상하고 기업 및 소속단체에서 생산성 향상운동과 경영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영자 및 인직원을 추천받아 생산성 향상 유공자로 선정·포상하고 있다.

표 IV-23-1-1 | 생산성 향상 유공자 시상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성대상·유공자 포상(사·명)	78	81	77

2) 생산성관련 조사·연구 및 경영생산성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는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전략, 인금정책의 기초가 되는 노동생산성통계와 상장기업의 노동생산성분석 등을 분기별로 편제·발표하여 생산 효율화, 기술투자, 성과배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케 하고 있으며, 외국선진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보급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서비스업 지역별 노동생산성, 서비스업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제조업 지역별 노동생산성, 기업 단위 노동생산성 장기 시계열 DB 구축 등 총 5종의 생산성 연구를 세분계 실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에 힘쓰고 있다.

표 IV-23-1-2 | 생산성 통계 발간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성 통계 발간(종)	6	6	11

3)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경영체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등급인증제도의 보급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경영시스템의 생산성 혁신역량 수준을 진단·인증하고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PMS인증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는 이상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원과 역량수준을 감안,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에 집중하여 진단함으로써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23-1-3 | 생산성경영체제 보급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PMS보급·확산 기업(사)	181	195	202

4)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대기업이 핵심파트너로 육성할 1·2·3차 협력사에 대해 경영·제조현장·기술 등 입체적 현장진단, 혁신환경 조성, 제조혁신방법 제공, 기술기반 구축,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생산성향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26개 컨소시엄, 296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 생산성향상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5) 산업혁신운동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부터 자발적인 동반성장의 기치아래 현장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참여 중소기업의 생산성혁신활동을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형 제조혁신방법론(KIPS)모델을 제공함과 더불어 인력지원 등 산업혁신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산업혁신운동은 2019년부터 2단계(5차년)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으며, 2단계 1차년(6차년)에 한국생산성본부는 157개 기업을 지원하여, 참여기업들의 낭비 제거와 원가절감, 품질개선 및 인직원의 혁신의식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둬으로써 산업생태계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6) 일터혁신 지원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우리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 극대화를 위하여 다년간에 걸쳐 임금·평가체계 개선, 노사협력, 작업환경 및 근로 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 일터혁신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터혁신컨설팅을 통해 2019년 한해 292개 기업에게 550개 컨설팅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노사파트너십 기반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7) 4차 산업혁명 아젠다 제시

한국생산성본부는 차세대 생산성 향상 기반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산업 전반에 보급·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에는 각계 전문가 및 중견·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혁신 성장 등 정책 아젠다는 물론 AI(인공지능), 사물지능화, 블록체인을 주제로 북클럽을 운영함으로써 다가오는 산업 변화와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바 있다. 2020년에도 신기술, 일자리, 미래 대응 전략 등 경영과 정책 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북클럽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나. 컨설팅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1958년 현대적 경영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영 컨설팅을 시작한 이래 선진이론을 도입·정착시켜왔고, 인사/조직, 전략, 성과 측정 등에 대해 전략수립에서 관리시스템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신력을 바탕으로 객관성이 요구되는 공공분야 컨설팅을 비롯 제조현장 합리화, 품질관리, 에너지효율화 컨설팅에서 나아가 데이터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업특성과 최신 경영 트렌드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정책 및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정책연구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으며, CS전략수립, CS측정모델구축, CS경영시스템구축 등의 고객만족 컨설팅과 기업 및 제품 브랜드 전략, 브랜드체계 전략 수립 등의 브랜드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글로벌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글로벌 탄소 에너지경영 인증제도, 사회적 가치, DJSI지수 발표 및 지속가능경영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IV-23-1-4 | 컨설팅 지원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컨설팅지원(건)	930	956	957

다. 교육훈련 사업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인력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인적 자원의 고급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이론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과정을 도입, 제시하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품질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경영관리, 생산품질, 정보화 등 직무기능분야별로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교육과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관리능력 및 조직개발 등 주요 테마별 주문식 교육인 수탁교육, 인터넷, 우편통신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인 스마트러닝 교육 등의 과정을 두어 교육하고 있다.

표 IV-23-1-5 | 교육 및 훈련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개/수탁교육(회)	6,158	6,077	5,988
스마트러닝교육(명)	32,561	29,681	21,602

라. 아시아생산성기구(APO) 협력 사업

생산성향상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개발을 목표로 아시아생산성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 APO)와 상호협력사업을 통해 각국의 생산성관련 정보 및 인적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이를 국내기업 등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APO 회원국간의 경험 및 정보를 상호교류하기 위해서 매년 수차례의 APO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사례를 회원국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인바운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표 IV-23-1-6 | 세미나 개최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국내 주관 APO 프로그램(개)	5	4	3

마. 정보기술자격검정 사업

기업종사자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처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정보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대적 흐름과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자격, SW코딩 자격,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인증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서비스업 및 개인의 정보화생산성 향상이라는 정책과제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IV-23-1-7 | 정보기술자격인증 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ITQ 등 자격인증(명)	1,061,779	1,069,879	1,124,665

제24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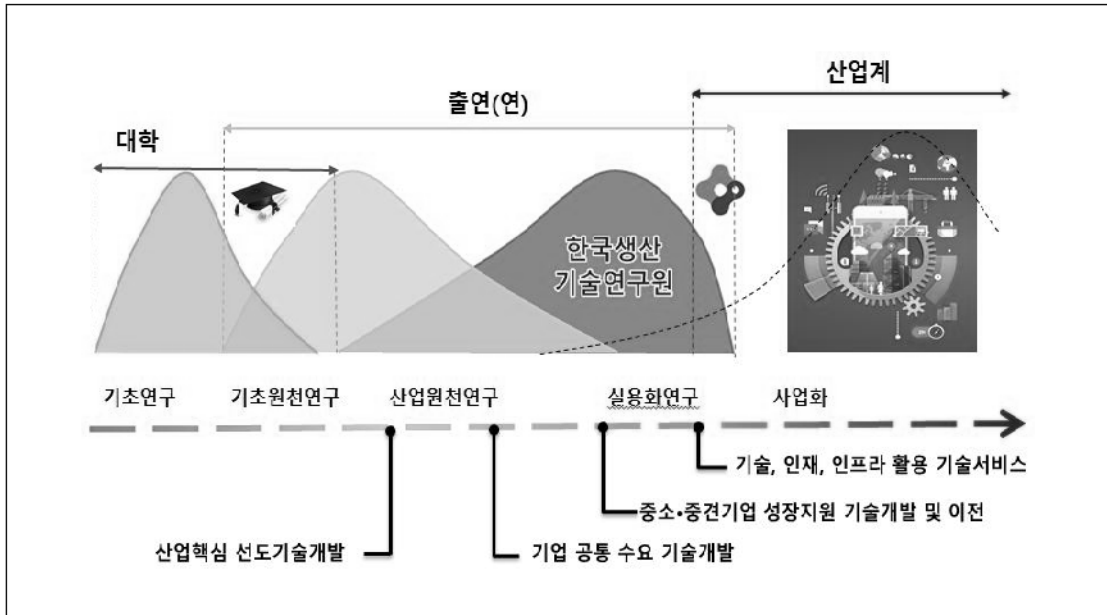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1989년 국가에서 설립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다.

그림 34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 연혁



3대 중점 연구영역(청정·융합·뿌리)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지역 분산형 기술 지원 및 지식기반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한다.

그림 35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역할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제조·지역·기업·시장혁신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강화

1) 생산기술 기반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

중소·중견기업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고려한 수요기업 제조공정 지능화 및 산업특화 지능제조 플랫폼화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생산현장 중심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 지역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지원

지역별 본부 체계를 적극 활용한 지역 미래산업 육성 핵심기술 산업화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지역 특화산업 유관 기업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기업맞춤형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 및 시장혁신 지원

원 보유 핵심 생산기술을 국내외 목표시장에 타겟팅하여 실용화하기 위한 수요기업 성장단계 및 진출시장 맞춤형 기술이전·사업화를 강화하고 있다.

그림 36 | 제조·지역·기업·시장혁신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강화



나. 기관 3대 중점 연구영역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기업지원 연계

1) 제조업 재도약 실현을 위한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뿌리기술 고도화 및 산업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혁신기술개발을 통해 주력산업 및 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제조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 생산현장의 지능화와 친환경 제조혁신을 위한 청정생산시스템 기술개발

제조현장 생산공정의 통합 및 최적화·지능화를 구현하고, 청정기술 실용화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 신재생 에너지 기술적용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생산 시스템 효율화·친환경화를 지원하고 있다.

3) 미래 신산업 창출 및 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한 융복합 생산기술개발

기업 현장의 신시장 창출 니즈에 대응하여 섬유소재 및 지능형 로봇 등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성과를 활용 확산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다. 정부정책 대응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체제 정비

1)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산업 정부정책 대응

프로젝트 조직으로 운영하던 '소부장생산기술추진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여 '소재부품장비기술전략단'을 신설(20년 4월)하고, 관련 핵심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 및 소부장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제조혁신추진단'을 '스마트제조혁신전략단'으로 개편(20년 4월)하여 제조공정 기반 지능화 기술 노하우를 현장적용 기반으로 핵심기술화하고, 주요 산업별 지능 제조 플랫폼 대표 성공모델 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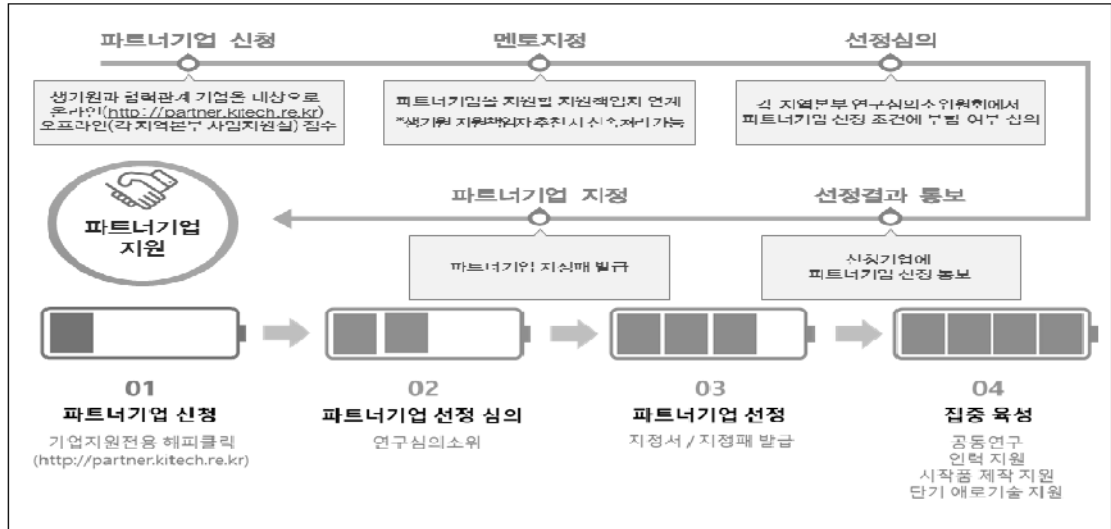
1) 파트너기업 제도 운영

연구원과 협력관계를 통한 동반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현장에로 기술 수요파악 및 정책반영, 연구원의 개발기술 이전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생기원 - 파트너기업」으로 지정, 파트너기업에게 연구원의 기업지원 활동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V-24-1-1 | 한국생산기술연구원-파트너기업 운영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신규기업	376	271	292	
전체기업	3,633	3,780	3,829	

그림 37 | 파트너기업 선정절차 및 내용



2)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 운영

중소기업 기술애로 접수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전용 상담창구인 “중소기업 테크컨택센터”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기업생산현장의 문제들을 상담하고 효율적으로 찾아주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38 |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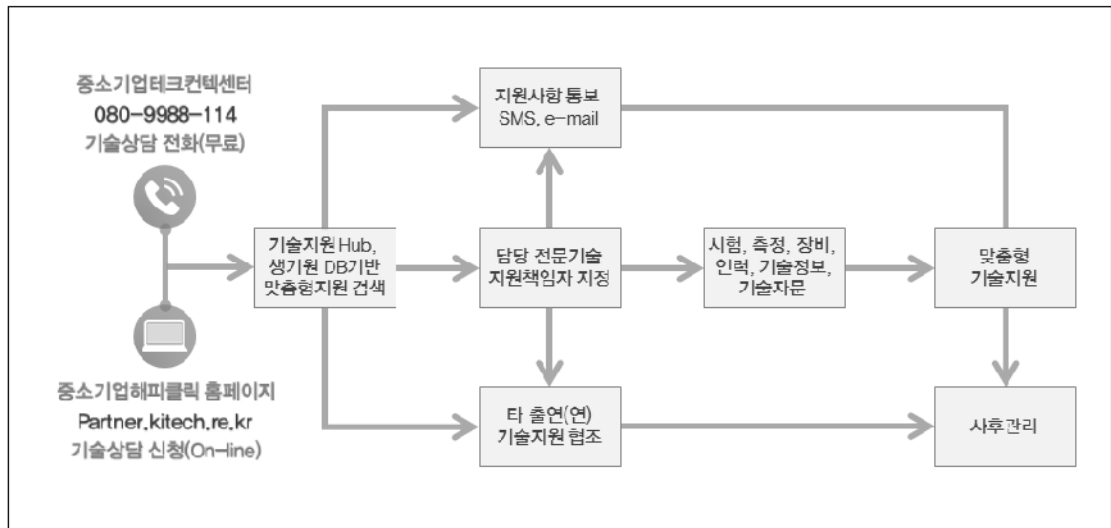


표 IV-24-1-2 | 맞춤형(기술지도/상담) 지원 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기술지도 수	4,131	4,016	5,383	
기술상담 수	697	562	1,045	

3) 공동R&D지원

지역 중소기업과의 커뮤니티채널(파트너기업 교류회, 중소기업테크컨넥센터, 중소기업 해피클릭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 기술 수요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기업 매칭 R&D 등을 수행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시까지 박사급 연구원이 전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IV-24-1-3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R&D지원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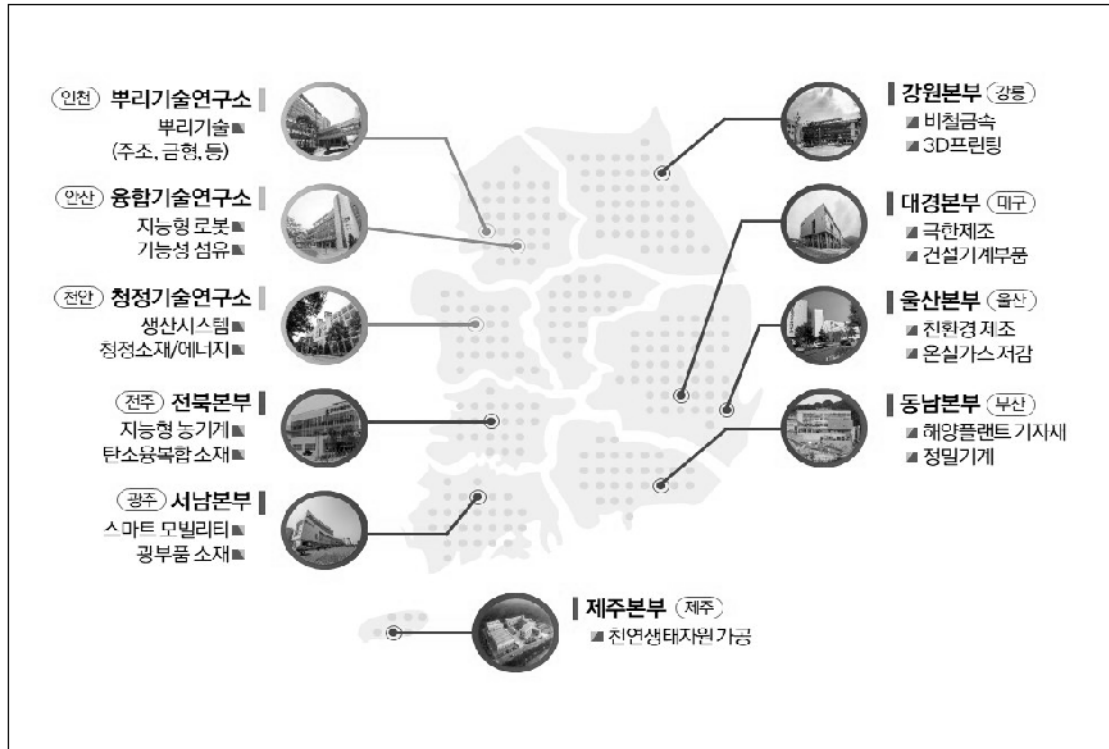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파트너기업 수요대응 생산기술 지원사업	파트너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접수받아 생기원 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Go Together Program 사업	파트너기업, 대기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기업주문형 R&D 사업	기술사업화 가능한 기업 맞춤형 수요기술을 조사하고, 생기원 연구책임자와의 매칭을 통한 상용화 R&D 발굴·지원 * "생기원 보유 원천기술"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스펙으로 최적화하여 생산적용 가능기술로 제공

표 IV-24-1-4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기술 현황

지역	인천	경기	충청	서남	대경	동남	강원	울산	전북	제주
주요 기술	부리 산업 기술	융합 생산 기술, 지능형 로봇, 섬유	생산 시스템, 그린 공정 소재	동력 부품, 광관련 기반 기술	극한 제조 기술, 건설 기계 부품	해양 플랜트 기자재, 지능형 정밀 기계 부품	비철 금속 기반 소재 공정	제조 현장 ACE화, 기후 변화 대응 기술	농기계 특화 기술, 친환경 응용접 공정	천연 생태 자원 가공

* 광역경제권 지역본부 내에 특화보유기술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그림 39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조직 및 기술분야 현황



4) 인력지원

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중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핵심 애로사항인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기업에 장기(3년 이상) 파견하여 핵심R&D 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V-24-1-5 | 공공연 연구인력 지원 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지원인력수(명)	49	47	41	
지원기업 수	49	47	41	

나) 기업현장출장 지원

파트너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지원 책임자가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수행을 통해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40 | 기업현장출장 신청절차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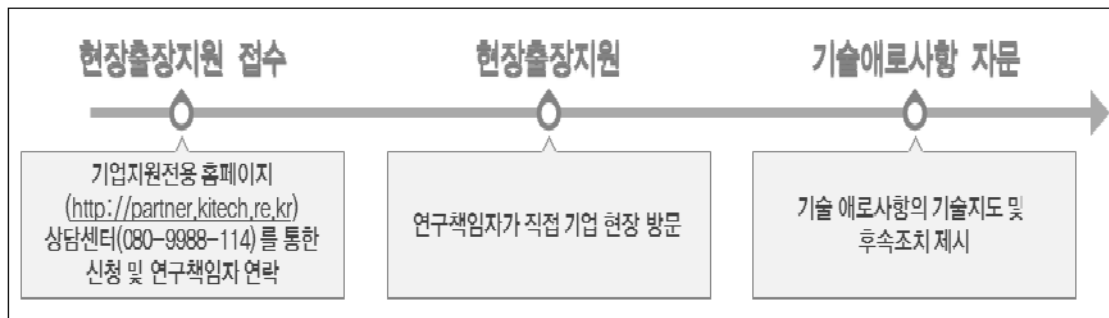


표 IV-24-1-6 | 기업현장출장 지원 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지원 건 수	1,580	1,193	1,316	
지원기업 수	476	384	398	

5) 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Rental Lab.)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 연구공간 입주 및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근접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4-1-7 | 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입주기업 수	5	9	20	· 기술 및 공동연구개발 지원 · 연구공간 및 연구인프라(장비, 시설 등) 활용지원

6) 장비 활용 지원(개방형 실험실)

연구원 보유 장비를 연구소 및 본부 44개 개방형 실험실에 배치하여 연구장비 등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개방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 이용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4-1-8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방형 실험실 현황(44개)

지역본부	개방형 실험실
뿌리기술연구소 (12)	재료물성분석/재료시험 공용실험실, 주물기술지원 공정실험실, 화학분석 공용실험실, 뿌리기술분석평가 공용실험실, 도금기술지원 공정실험실, 디지털제조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소재·표면분석 공용실험실, 열처리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용접접합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정밀금형기술지원 공정실험실,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공용실험실, 소성가공기술지원 공정실험실
융합기술연구소 (6)	유해물질 화학분석 공용실험실, 정밀측정 공용실험실, 산업용섬유 공정실험실, 섬유시제품 공정실험실, 의류기술지원 공정실험실, 패키징기술센터 공정실험실
청정기술연구소 (4)	에너지설비성능인증 공인실험실, 스마트자동화 공정실험실, 음향진동 공용실험실, 지능형청정소재 공용실험실
서남본부 (5)	초정밀 측정 및 재료물성분석 공용실험실, 나노기술집적 공정실험실, 에너지환경(RoHS) 공용실험실, 정밀 금형TRYOUT 공정실험실, 정밀모터시험.분석 공용실험실
동남본부 (5)	융합플레이팅 공용실험실, 클린에너지 공용실험실, 주물기술지원 공용실험실, 첨단하이브리드 공용실험실, 초정밀기공 공용실험실
대경본부 (7)	바이오메디칼기술센터 공용실험실, 성형기술/첨단장비지원 공용실험실, 시스템설계기술지원 공용실험실, 건설기계부품시험평가지원 공용실험실, 고령주조기술지원 공용실험실, 항공부품 환경시험평가 공용실험실, 전자파(EMC) 공용실험실
강원본부 (1)	비철금속 공용실험실
울산본부 (2)	친환경청정기술 공용실험실, 울산뿌리기술지원 공용실험실
전북본부 (2)	농기계신뢰성 시험연구센터 공용실험실(김제), 탄소경량소재 공정실험실(전주)

표 IV-24-1-9 | 개방형실험실 장비활용 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술지원 (장비활용)	시험/검사/분석	43,337	45,067	43,589
	시작품제작지원 등	17,184	18,737	11,972
	소 계(건)	60,521	63,804	55,561

7)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시장수요에 기반한 생산기술의 산업화·실용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IP 시스템 고도화(온라인 IP 마켓 구축 등), R&BD 관련 사업 확대(예산 증액) 등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기관 비활용(휴면)특허 중 활용가치가 있는 특허를 선별하여 연구원 너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소액) 양도하여 기술이전에 따른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표 IV-24-1-10 | 기술이전 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이전건수	229	240	232

8) 기술커뮤니티 지원

기술분야별, 지역별, 업종별 유사기술·산업중심의 산·학·연간 기술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보유기술 및 노하우의 확산 거점을 마련하고, R&D성과공유, 기술수요발굴,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의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41 | 기술커뮤니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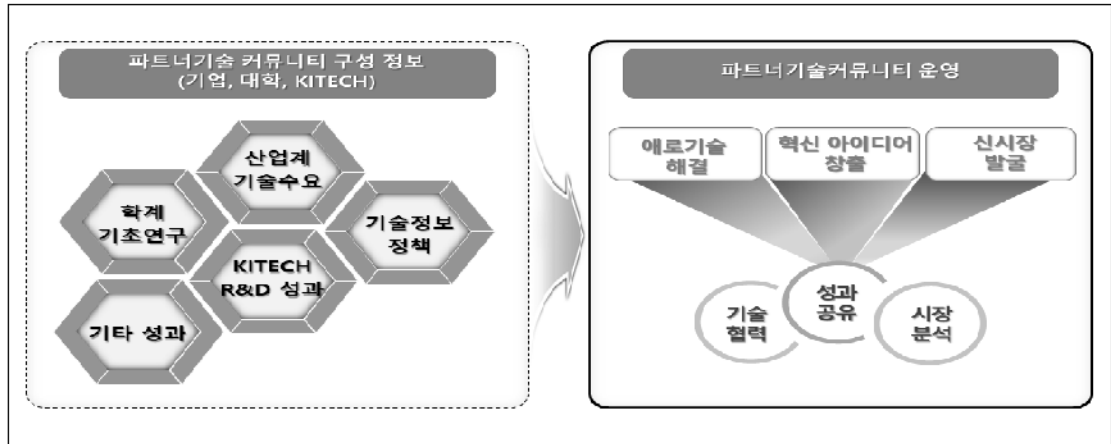


표 IV-24-1-11 | 기술커뮤니티 운영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기술커뮤니티 구성	51	31	32	
참여기업 수	662	451	454	

제25장

산업연구원

1

일반현황

산업연구원(KIET)은 국내외 산업·기술,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정부의 경제/산업/중소기업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산업연구원은 그동안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우리 산업과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 연구 분야를 시의적절하게 변화시켜 왔다.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해소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전략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조직은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를 비롯하여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등 7본부 2센터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는 중소·벤처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조사·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연구는 창업, 금융, 기술, 인력, 판로, 동반성장, 글로벌화,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에 집중하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중소·벤처기업정책 분야별 주요 연구실적

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성장 기반 구축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의 연구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였다.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중소기업의 중장기 발전비전 및 세부전략 수립, 중소기업 종합 지원체제 구축 및 정책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물로는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전략 및 시책방향,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체제 개선방안, 21세기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평가 등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향후 바람직한 좌표와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육성전략(도전과 혁신 도약의 길), 중소기업 지원 체제 발전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여러 부처에서 복잡다기하게 추진되면서 지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사업을 수행하였다. 중소기업 관점에서 정부 규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추세 둔화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 성장 둔화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였다. 제조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발전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융합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및 경쟁력 실태분석, 중소기업 성장장벽 유형과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진단·분석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이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체제의 한계와 중소·중견 기업의 신성장 동력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9년에 수행한 대표적 연구로는 수요 독점적 대·중소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 혁신, 혁신성장 지향형 기술사업화의 효율적 지원 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역량의 정책 적용 방안, 장수 중소기업의 경영특성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60년사 정책사례 연구 등이 있다.

2) 혁신형기업 및 창업 정책에 관한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엔진인 벤처기업 육성과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인 일자리 창출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정책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오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지방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창업환경 분석,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수급구조 분석 등이 있다.

특히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진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을 제고방안, 기업가정신의 발현 실태 및 과제,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와 정책과제, 고성장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시사점,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기술창업기업의 지방 입지촉진 및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창업원의 다양화 및 창업 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성 지식·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윈스튜프 온라인 창업시스템의 국제비교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내실화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 원동력인 벤처기업의 재도약 가능성을 진단하고, 벤처생태계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함과 아울러 벤처 기업정책의 진화과정과 공과를 살펴본 후 미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국벤처 정책 20년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은 혁신창업 활성화에 있으며, 혁신창업은 벤처 창업을 주축으로 하는 일자리 대책이라는 전제 아래 창업정책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역 창업 혁신 생태계 스코어보드 지표개발 및 정책제언, 스타트업 파크 조성방안 연구,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역량 분석과 생존율 제고 방안,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 청소년 비즈쿨 장기발전 방안 수립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3)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금융활성화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구조적·만성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력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금융 분야의 주요 연구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방안, 중소기업의 소매금융 이용 활성화 방안,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성과 및 발전방안, 벤처캐피털산업의 구조변화와 발전과제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금융기관 자금 간 지원방식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자금과 일반 금융기관 자금 간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사업 성과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수급 예외요인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 고용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광양만권 중소기업연수원 유치 타당성 확보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고성과 작업제도의 활용 실태와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방안, 고급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활용과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정책의 성과 및 과제, 중소기업 고용변화의 세 가지 논점과 향후 정책과제, 경력경로 연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부족 해소방안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 인력 및 질 좋은 인력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4)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심화와 후발개도국의 빠른 추격이라는 틈바구니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성화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과제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구조 및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실태 및 발전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형화와 정책적 시사점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 R&D 특성분석 및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R&D 특성과 혁신역량을 규명하고 정책대상의 합리적 설정과 함께 혁신역량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따른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결정요인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기술적 혁신 성과와 상업적 혁신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KOSBIR 제도와 운영상 나타나는 과제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R&D자금 지원과 중소기업계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최근 수년간 세계 최고 대비 75% 내외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측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기술수준 측정방식 개선방안, 중소기업기술 통계조사 패널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간 협력기술개발 활성화 및 성과제고 방안,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5)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관한 연구

최근 심화 추세를 보이는 기업 간, 업종 간,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강화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실태 및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조사연구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 등이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으로 상호 간 이해가 대립된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구매조건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이분과 논리, 동반성장지수 구성요소에 관한 예비연구 등을 수행하여 동반성장에 관한 이분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개발,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및 개편 방안, 대·중소기업 간 공급사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주요 산업별 대·중소기업 성과 및 거래구조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동 번영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대·중소기업 산업 연관표의 작성과 분석, 성과공유제 확산 시행효과 분석,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방안, 동반성장 자율평가제 평가체계 구축 방안,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원인 분석, 대·중소기업 불균형 개선 및 상생협력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등 동반성장에 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켰다.

6) 지방화·글로벌화에 관한 연구

지방화·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지역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중소·벤처기업의 중국 진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방안,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방안,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의 중소기업 파급영향 및 정책수요 조사·분석,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실태와 시사점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와 강소기업 육성방안 연구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 수출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수행하였다.

글로벌화에 부응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 실태 및 전략적 육성방안, 뉴노빌 하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특성과 정책방향, 혁신기업의 중국진출전략, 중국 일대일로 대응정책 등을 연구하였다.

한편,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FTA 유망품목 선정 체제 구축 및 정책과제, 혁신기업의 중국 진출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새로운 글로벌 수출환경에서 기존 수출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점검해보고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지원 효율화 방안,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구축방안,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중소 지식서비스 기업의 수출 실태 분석 및 정책적 육성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7) 시의성 있는 주요 현안과제 연구

산업연구원은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현안문제를 진단하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현안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일자리대책 종합 평가,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융합화와 신사업창출 촉진방안, 중견기업 육성방안, 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정책과제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원으로서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6차 산업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9988에 도달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평가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함과 아울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기업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에 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와 촉진방안,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제구조의 역동성 강화,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실태와 발전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과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에너지이용·효율성 제고 방안,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수출영향 및 정책방향, 현장 경험을 통해 본 중소기업의 AI 발전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나. 국내외 주요 지원사업

1) 싱크탱크로서의 대정부 지원업무

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과 업무 연계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토론회, 포럼, 간담회 개최를 통해 축적된 연구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정책수요가 높은 연구과제는 사전 기획에서부터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정책 관계자를 참여시켜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개최되는 각종 중소기업 관련 위원회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한 대표적 연구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사전조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전략, 중소·벤처기업의 문제와 개선대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현황 점검 및 과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지식재산권 기본계획 수립, 창업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기업활력촉진법 상의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 시행계획 검토, 창업정책 관련 정책제언 등 다수가 있다.

2) 중소·벤처기업 정책 수립 관련 의견수렴

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중소·벤처기업 대표, 관련 조합 및 협회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중소·벤처기업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협의회 또는 토론회로는 중소기업 경영성과 장기 부진의 원인과 대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6차 산업화 정책과 창업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구조변화 실태와 정책과제, 창업정책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3) 국내외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지식 공유를 위해 상호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연구포럼에 유관기관 및 대학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중소·벤처기업 연구를 위한 지적 기반의 확대와 함께 전문가 네트워크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지식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외국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EDCF)의 일환으로 후발 개도국의 경제 관련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연수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또한 OECD, APEC, ASEM, G20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관련 국제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중소·벤처기업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 사례 등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중소기업 관련 연구 결과를 영문으로도 발간하고 있다.

주요 발간자료로는 Experiences of Korean SME Policies, Development and Policy Issues of SME Scope, Finance Mechanisms for the New Industry Growth,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Global SME and Policy Implications, Comparison of Technology Innovation Patterns Depending on the Innovative Capability of SME and Policy Implications, High-growth SME's Job Creation Performance and Its Implications, R&D Support Policy and Its Strategic Direction in Korea, Measures to Promote Youth Start-ups 등이 있다.

최근에는 What Factors Lead Korean SMEs to become Global Hidden Champions?,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Korean SMEs and their Implications, Policy Considerations for SME Globalization in the Creative Economy, Status of Convergence among SMEs and Policy Implications, Status of Women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Current Statu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Policy Tasks, The Status of SME Structural Change and Policy Tasks, The Status of SM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Policy Tasks, The Status of Start-up Policy and Tasks 등을 발간하였다.

제26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일반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며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정보연구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가 통합되어 2001년 1월에 설립되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의 정보은행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산업발전 및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 체제 구축
- 지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화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지원
- 정보의 종합유통체제 구축운영
- 정보의 분석·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의 연구개발 및 자문
- 국내외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 동향의 조사·분석·예측
- 과학기술 연구망 등 글로벌 첨단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관련 기술 개발·지원
- 초고성능 컴퓨팅 기반 구축·운영 및 관련 기술개발·지원
- 과학기술분야 정보보안체계 구축·운영 및 지원(신설 2014. 10. 21)
-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 지방 과학기술 진흥 및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 정보관리·유통시스템 보급 및 정보인프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 부대사업, 지역정보화 체제 구축·운영,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과학기술정보·데이터 구축

1) 과학기술정보 수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분야 핵심학술지, 학술회의자료, 연구개발보고서, 특허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16개국 405개 기관과 과학기술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글로벌 과학기술정보의 지속적 연계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454개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을 통하여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구축

국내외에서 수집한 각종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기술 문헌정보를 국내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신속·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및 구축하고 있다.

표 IV-26-1-1 | KISTI 정보서비스 보유자원 현황

(2019. 12. 31. 기준)

구 분	보 유 량	비 고
국내외 과학기술 논문	97,300,254건	국내외 학술지, 학술회의 수록논문, 학위논문
국내외 특허정보	38,635,475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
연구보고서	329,982건	국가연구개발보고서, 분석리포트
과학기술 동향	49,010건	글로벌동향브리프, 동향지식지
저널/프로시딩	389,693건	국내학회 저널, 해외 인쇄 및 전자저널, OA저널
연구자/연구기관 정보	1,210,679건	연구자/연구기관 정보 및 연구실적
합 계	137,915,093건	

3)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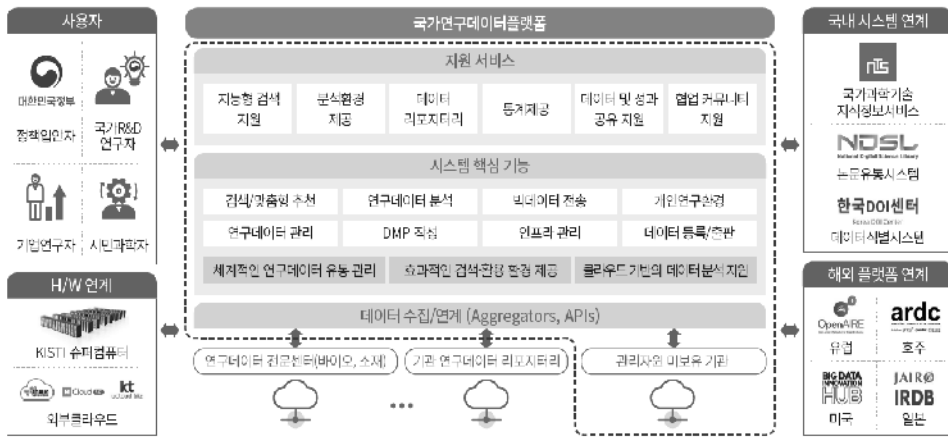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kisti.re.kr)은 연구데이터³⁹⁾의 중요성과 가치가

39)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와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정의)

증가되고 연구데이터의 공유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발견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연구데이터 데이터셋(유발과제, 생산자등의 메타데이터 및 파일)을 등록하여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국내외 연구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외 연구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42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서비스 개념도



또한 클라우드 분석환경(CPU/GPU 등 계산자원 지원)을 제공하며 워크플로우 및 CLI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기능 제공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별 연구데이터의 원활한 공유·활용을 지원하여 커뮤니티 기반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은 국내 전문센터와 출연연, 해외 선진 연구데이터 플랫폼(OpenAIRE(유럽), ARDC(호주) 등)과의 연구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가 연구데이터플랫폼의 데이터 기반을 확보한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연구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표 IV-26-1-2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주요 제공 연구데이터 (2019.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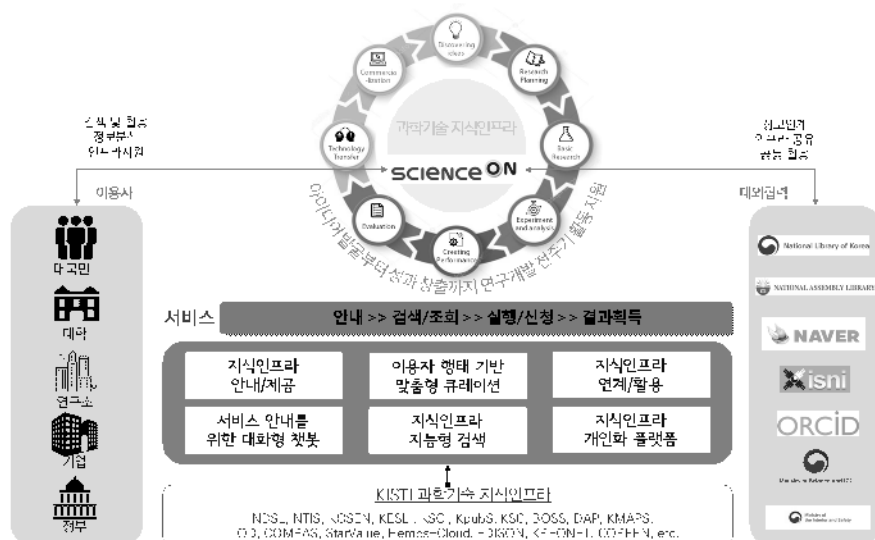
구분	내용
국내 연구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시설장비 : 거대 현미경 관측 데이터(2셋) - 인체영상 데이터(317셋), 도시환경 IoT 데이터(2셋) • NIA 인공지능 데이터(4셋) ※ 특허/법령/일반상식/이미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 조사 결과 데이터(751셋) • 한국표준연구원 참조표준데이터(52셋)
해외 연구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AIRE EU 연구데이터(약 163만 셋) • ARDC 호주 연구데이터(약 25만 셋)

나.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융합·연계 서비스

1) ScienceON(사이언스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 국가R&D정보, 연구데이터, 슈퍼컴퓨팅 자원, 정보·데이터 분석 기능 등 다양한 과학기술 지식인프라를 하나로 융합·연계하여 연구 전주기에 필요한 KISTI의 전체 정보와 기능을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 7월 현재 ScienceON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주요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30종(300여 개 기능)에 대한 안내·검색·활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3 | ScienceON 서비스 개념도



ScienceON은 여러 지식인프라를 전문정보활용, R&D정보활용, 공유협업, 인프라 자원 이용 등으로 분류하여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객의 소속이나 직종 유형, 연구 분야, 연구단계 등에 맞게 가장 적합한 한 인프라를 추천해주는 '맞춤형 서비스', 고객이 미처 몰랐던 서비스를 먼저 제시해주는 '선제적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현재 활용하는 인프라의 선후행 관계에 있는 일련의 기능들을 묶어 연계성을 강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R&D를 수행하는 전체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특히 R&D 활동 전주기의 연구목적별(동향조사, 기획, 실험, 평가, 사업화 등)로 차별화되어 서비스 되는 KISTI 개별 지식인프라(또는 서비스)의 핵심고객 전체를 ScienceON의 잠재 핵심고객으로 설정하여 개인 연구목적형 시나리오 기반 정보 활용, 데이터 분석, 컴퓨팅 자원 기반 실험환경을 연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ScienceON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www.ndsl.kr)과 검색기능을 융합하여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자들이 어제 어디서나 과학기술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 및 특허, 동향정보,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758개 학·협회와 700여개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보컨소시엄(KESLI)을 운영하며 국내 학계 및 기업들이 국내외 최신 동향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수집 및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V-26-1-3 | NDSL 정보 제공 유형별 서비스 내용

유 형	서비스 내용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논문 KISTI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사업에 참여한 학술지/ 프로시딩 KESLI에 포함되는 국내 전자저널 · 해외논문 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SLI에 포함되는 해외 전자저널(Elsevier, Wiley, Science, Cell, IEEE 등) -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 260여 기관에서 소장한 인쇄 /전자저널 -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목차정보를 구축한 저널 -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저널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 제공하는 핵심저널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EE 발행한 해외 프로시딩 - 영국국립도서관에서 구축한 해외 프로시딩

유 형	서비스 내용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허 (1948년 이후 공개/등록, 약 3백만건 이상) · 미국, 일본, 유럽 특허, WIPO 특허 (1976년 이후 공개/등록) <p style="text-align: center;">+ ↓ 검색 ~ 원문입수까지 한 번에 가능</p>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 연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이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으로부터 인쇄 또는 전자로 납본, 수집된 연구보고서 - 2009년 이후: 국가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보고서, 각 부처·청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전자원문을 제공받은 연구보고서 · 분석리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SEN 분석리포트 - ReSEAT 분석리포트(2004~2017) - KISTI MARKET REPORT(2011~2017) - iCON 지식리포트
저널/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I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사업에 참여한 학술지/ 프로시딩 - KESLI에 포함되는 국내 및 해외 전자저널 (ScienceDirect, Springer, IEEE, ACM 등) - 국내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 500여 기관에서 소장한 인쇄/전자저널 -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서 목차정보를 구축한 저널 -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저널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 제공하는 핵심저널 · 프로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I의 학술정보 공동활용사업에 참여한 프로시딩 - IEEE 발행한 해외 프로시딩 - 영국국립도서관에서 구축한 해외 프로시딩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정보 · 연구자의 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실적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정보 · 연구기관의 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실적

2)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국가R&D사업 기획에서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R&D사업에 관련된 17개 부처·청과 연계하여 사업과제정보, 인력정보, 연구시설장비정보, 성과정보 등을 한 곳에서 서비스 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www.ntis.go.kr)이다. 2008년 3월 31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림 44 | NTIS 서비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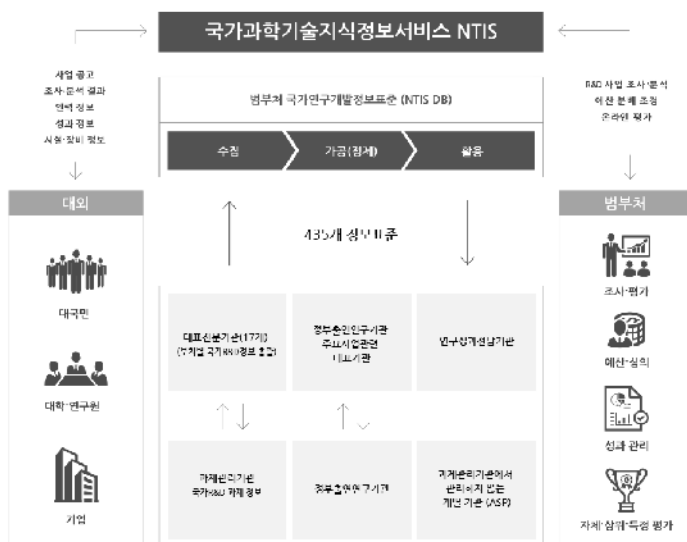


표 IV-26-1-4 | NTIS 주요 제공 정보

(기준 : 2019년 12월말)

구 분	건 수
국가R&D과제(2002년~)	77.3만 건
국가R&D사업 참여 인력 및 평가위원 정보	22.9만 건
연구시설·장비정보	10.9만 건
성과정보(논문, 특허 등)	논문 98만 건, 특허 41만 건 등 (총 562만 건 : 성과물 포함)

NTIS 서비스 개시 후 기업 회원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가입 회원 12만 명 중 33%인 약 4만 명이 기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2018년 12월 말 기준). 기업 회원은 NTIS 서비스 가운데 사업공고, 인력, 특허, 기업지원 R&D정보 등에 관한 수요가 많다.

기업지원R&D정보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기업이용자의 국가R&D 과제 참여를 위한 기반지식습득, 협업을 위한 연구자·연구기관 탐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용자 관심정보 기반의 국가R&D 맞춤형 정보 패키지 제공을 통해 기업이용자의 과제 기획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국가R&D수행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아 탐색할 수 있도록 국가R&D참여기관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국가R&D참여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정보와 기관이 수행한 과제정보와 성과정보등을 별도로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NTIS 맞춤형교육」 및 「NTIS 이용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정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e-Asia Award 2011, UN 공공행정상 2012,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 2015,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장관표창 2017, WIISA(세계정보 기술서비스연맹) 공공부문 Winner 수상 2018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다. 중소기업 정보지원 사업

1) 연구용역 및 사업타당성분석

연구원 자체의 정보분석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유망 아이템 발굴, 기술기획을 위한 산업·시장 분석, 보유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술 가치평가 등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기술 기획 및 사업화 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방법론을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사업은 주로 기업이나 연구계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경영활동, 정부의 과학 및 산업·기술정보,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타당성분석 사업인 R&D기획지원 사업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시장성분석, 사업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수립 등의 종합적인 R&D 기획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고, 해당 기업의 기술·경영능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체의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하고 신규시장 진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나 타 기관의 소장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공동 분석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2) 산업·기술동향정보 연구

정보분석 연구를 통해서 특정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연구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연구보고서는 산업·기술 전반의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국내외 산업·기술동향 및 특정기술의 개발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유망아이템 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CTO를 핵심고객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기술 조사, 유망아이템 발굴, 사업화 평가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선진 기술·제품·산업동향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한다. 또한, KISTII가 축적한 분석역량과 데이터 자원을 결합한 인사이트를 담아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산업 트렌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보고서(KISTII DATA Insight)를 발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기술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도입 및 국내우수기술의 해외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교육과 중소기업의 R&D 기획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산업·시장에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 요구되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경영기법과 정보시스템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술사업화 정보조사·분석업무의 고도화를 꾀하여 고부가가치 고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KISTII는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자원 및 분석역량을 활용하여, 유망아이템과 관련된 분석형 정보, 통계 데이터 기반의 산업·시장 정보 및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웹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산업·시장정보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단순정보지원에서 지식정보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망아이템 지식베이스시스템(BOSS, <http://boss.kisti.re.kr>)은 글로벌 벤처 캐피털 투자, M&A동향 정보로 중소기업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기술, 시장, 제품, 기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분석된 KISTI가 발굴한 유망 사업화 아이템 정보와 함께 아이템 발굴 및 추천을 지원한다.

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지원 플랫폼(SMART K2C, <http://smark2c.or.kr>)은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성장 하는데 필요한 기술사업화 전 과정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데이터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한 개별 중소기업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이다.

산업·시장 분석 시스템(KMAPS, kmaps.kisti.re.kr)은 산업·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공공 통계정보를 연결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재 산업·시장에 대한 규모, 경쟁환경, 미래 수요 등의 분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술가치평가 시스템(STAR-Value, www.starvalue.or.kr)은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정보와 기업 재무정보, 특허정보, 기술수명주기 정보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웹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산학연 간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쟁정보시스템(COMPAS, <http://compas.kisti.re.kr>)은 기술경쟁 현황의 손쉬운 파악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 또는 관심을 두고 있는 기술의 경쟁자와 경쟁기술을 손쉽게 분석하고, 기회와 위협요인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기회발굴시스템(TOD, <http://tod.kisti.re.kr>)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포착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기술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제품과 기술의 기회, R&D혁신활동의 출발점을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 기존의 단순정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정보와 인텔리전스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축적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중소기업 근접지원 및 협력

KISTI는 정보분석서비스와 시스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신기술 탐색부터 기술이전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의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각 지역별 대학, 산업체, 국공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약 1만 2천여 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ASTI를 통해 지역기반 협력커뮤니티를 구축·운영하여 지역협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R&D 활동을 개선시켜 기술경쟁력을 갖도록 ASTI 소속 중소기업들에게 R&D 기획지원, 맞춤형 정보분석, 기술가치평가,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패밀리기업 300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지원, R&D 기획지원 등을 추진했다. 사업화 전주기에 걸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시키고, 출연연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5)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Modeling and Simulation) 기술지원사업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및 장비부족을 극복하고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연구장비 활용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인력, 장비, 예산 등 자체 자원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제품기술개발을 위한 M&S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고급 전문인력과 슈퍼컴퓨팅 자원 및 해당 분야 해석 기술 등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신기술 개발, 제품 성능 향상 등을 돕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서는 CAD/CAE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물리적 제품 제작 및 실험을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의 제품 제작(Modeling) 및 공학해석(Simulation)으로 대체함으로써, 실물 시험 횟수를 최소화하여 제품개발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기관의 주요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등의 수탁사업의 형태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61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표 IV-26-1-5 |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사업 현황

(기준 : 2019.12.31 현재)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중기청 사업	-	-	-	48	42	30	5	25	14	11	-	3	2	1	-	1	182
산업부 사업													8	5	6	-	19
KISTI 주요 사업	슈퍼컴 M&S	-	21	25	-	-	-	15	23	16	42	42	37	29	18	21	289
	단순 기술지원	24	-	-	-	-	10	-	24	1	-	-	-	-	-	-	59
	기타사업										4	-	4	3	1	-	12
합계	24	21	25	48	42	30	15	40	61	28	42	45	47	38	25	22	561

* 슈퍼컴 M&S : 슈퍼컴퓨팅 기반 Modeling & Simulation을 통한 제품개발 컨설팅(장기)

** 단순 기술지원 : 제품설계 및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문, M&S 교육 등 단발성 기술지원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 회원 기업 및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설계 과정에서의 에로기술에 대한 슈퍼컴퓨팅 기반의 공학해석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중소기업들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다양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자체 인력 및 인적 네트워크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첨단 고급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제품 개발, 기술경쟁력 확보,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ANSYS·FLUENT·CFX·ABAQUS 등의 다양한 구조 및 열유체 해석 소프트웨어들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문 해석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체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설계를 도와준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성능이 검증된 공개프로그램 및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서 쉽게 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맞춤형 M&S 소프트웨어(HEMOS)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가시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가상 품평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공학해석 전문 기업이나 250여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 및 자문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담당자들이 첨단 기술개발 장비인 슈퍼컴퓨터 및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한 HEMOS-Cloud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들은 자동차, 선박, 건축 및 생산 설비, 생명공학, 반도체, 항공우주,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지원 수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제품 개발 시간을 약 51.7% 단축하고 제품 개발 비용을 약 56.8% 절감한 동시에 매출을 약 82%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6여 년 간의 슈퍼컴퓨터 활용기반 제품설계 시뮬레이션 지원으로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매출증대는 총 1,500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중소기업에서의 고용 창출도 약 500여명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 IV-26-1-6 | 중소·중견기업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사업 현황

(기준 : 2018.12.31 현재)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중기청 사업	-	-	-	48	42	30	5	25	14	11	-	3	2	1	-	181
산업부 사업													8	5	6	13
KISTI 주요 사업	슈퍼컴 M&S	-	21	25	-	-	-	15	23	16	42	42	37	29	18	250
	단순 기술지원	24	-	-	-	-	10	-	24	1	-	-	-	-	-	59
	기타사업										4	-	4	3	1	11
합계	24	21	25	48	42	30	15	40	61	28	42	45	47	38	25	514

* 슈퍼컴 M&S : 슈퍼컴퓨팅 기반 Modeling & Simulation을 통한 제품개발 컨설팅(장기)

** 단순 기술지원 : 제품설계 및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문, M&S 교육 등 단발성 기술지원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설계 과정에서의 이로기술에 대한 슈퍼컴퓨팅 기반의 공학해석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중소기업들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다양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자체 인력 및 인적 네트워크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첨단 고급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제품 개발, 기술경쟁력 확보,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ANSYS·FLUENT·CFX·ABAQUS 등의 다양한 구조 및 열유체 해석 소프트웨어들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문 해석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체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설계를 도와준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성능이 검증된 공개프로그램 및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서 쉽게 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맞춤형 M&S 소프트웨어(HEMOS)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가시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가상 품질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공학 해석 전문 기업이나 250여명으로 구성된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 및 자문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담당자들이 첨단 기술개발 장비인 슈퍼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슈퍼컴퓨터 활용 환경(ezSIM)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2013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기존의 ezSIM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한 HEMOS-Cloud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들은 자동차, 선박, 건축 및 생산 설비, 생명공학, 반도체, 항공우주,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지원 수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제품 개발 시간을 약 51.0% 단축하고 제품 개발 비용을 약 55.6% 절감한 동시에 매출을 약 30%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0여 년 간의 슈퍼컴퓨터 활용기반 제품설계 시뮬레이션 지원으로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매출증대는 총 1,500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중소기업에서의 고용 창출도 약 500여명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27장

한국디자인진흥원

1

일반현황

가. 설립목적

한국디자인진흥원(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은 국내 유일의 국가 주도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디자인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정책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디자인 산업기반을 조성하며, 디자이너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디자인을 통한 국민행복과 산업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 주요사업

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디자인 비즈니스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우수 디자이너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및 실무디자이너 교육 지원, 디자인, 기술 융합 상품 기획 플랫폼개발, 디자인 해외진출 지원 및 신홍시장 개척 비즈니스 교류,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디자인개발지원, 디자인코리아페스티벌 및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등 진흥사업, 기타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정부의 연구, 위탁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다. 조직 및 예산규모

- 1) 조직현황 : 3본부 12실 6팀 2센터 1사무국(정원: 181명, 현원: 170명)
- 2) 예산규모 : 44,294백만원(2019 결산, 매출액 기준)

2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디자인전문회사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1)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지원은 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육성하여 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92년 시행 그간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2019년 말 기준 7,800여 개 사 기업이 전문회사로 신고 되어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을 이룬 산업규모에 비해 디자인 산업의 기반을 체계화하고 디자인전문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 마련 등 디자인 전문회사의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자인산업 고도화에 맞는 신고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전문 기관에 위탁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전문회사의 수요에 맞춰 단계 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글로벌 디자인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요건은 신고분야별 디자인 전문 인력 1인 이상이며, 종합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전문 인력 3인 이상,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직전 3개연도 평균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회사의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억압적 규제가 되지 않도록 2017년 10월 신고요령 확대 개정을 통하여 1인 기업도 신고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표 IV-27-1-1 | 연도별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실적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회사 수(누계)	4,023	4,604	5,228	5,458	5,610	6,582	7,852

또한, 우수디자인기업의 발굴·선정을 통해 디자인기업의 역량강화를 장려·육성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으며 국가 디자인 산업발전과 국가 브랜드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형화·전문화된 디자인기업의 부재에 따라 정부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리딩 디자인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을 통해 우수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집중 발굴, 지원하고 디자인 비즈니스 창출 극대화를 위한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표 IV-27-1-2 | 연도별 우수 디자인 전문회사 선정실적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회사 수	35개사	30개사	39개사	32개사	20개사	20개사

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홍보디자인 및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분야	외국어종이카탈로그, 외국어전자카탈로그, 외국어동영상, 외국어포장디자인, 외국어모바일앱, 외국어홈페이지, 쇼핑몰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3) 중소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에 경력디자인인력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과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구 분	지원내용
지원유형	인력지원(디자이너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지원인력	전문학사학위이상의 디자인 인력
지원기간	협약일(지원인력 근무시작일)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원규모	정부예산 범위 기업당 1명 이내, 40개사 내외
지원금액	디자이너 노임단가에 근거하여 직급별 50% 지원

나. 국내 디자인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1)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2019 (DKfestival 2019)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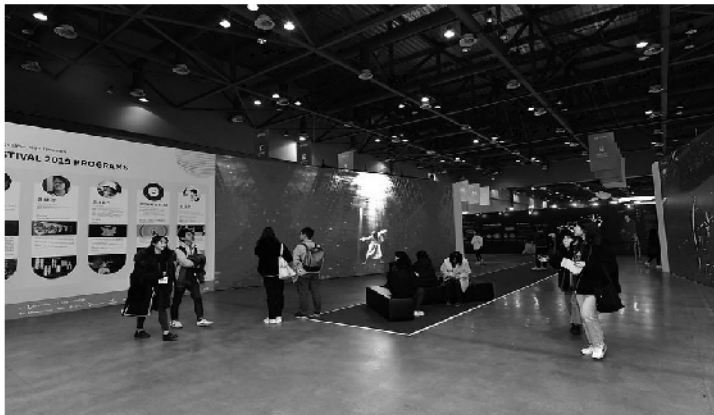
진흥원은 국내기업의 디자인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 디자인 트렌드를 공유하며, 기업의 비즈니스 창출 및 우수디자이너 채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유일의 디자인 종합박람회, 디자인코리아 행사를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디자인코리아는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을 구현하고 디자인산업의 역량을 증대코자 하며, 범국민적인 디자인 행사로 문화 가치확산 및 국내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2019'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디자인 중심의 콘텐츠 전시 및 바이어 매칭과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 정보가 제공되며, 세계 18개국 56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11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 중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및 다양한 기업 대상 부대행사 등을 구성하여 참가 기업을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장을 마련했으며, 전시 기간 중 약 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그림 45 | 2019 디자인코리아 전시장 전경



▲ DKfestival 2019 인트로 및 전경



▲ DKfestival 2019 Key visual

다. 디자인 저변확대를 위한 디자인문화 확산

1)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사업은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선정·홍보함으로써 기업의 디자인 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상품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디자인 선정 제도이다.


외관구성, 사용목적, 재료사용, 상업생산 등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제품디자인 외 6개 분야의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에는 GD 마크가 부여된다. 1993년도부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신설하여 우수디자인에 대한 국내 최고 상격 시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6년에는 호주표준청과 양국 간 굿디자인 상호인정 MOU를 체결하여 선정상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2013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를 신설하는 등 선정 범위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 중이거나 당해년도 출시 예정인 상품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상품은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지정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조달품목으로 등록) 시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하며 국내·외 전시 참가를 통한 홍보기회 제공 등 각종 우대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그림 46 | 2019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전시장면 (2019. 11. 06)



▲ DKfestival 2019 Award zone

그림 47 | 2019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주요성과 

▲ Grand Prize 열지전자(주) 올레드 TV ▲ Gold Prize 쉐퍼시스 플레이웍스 ▲ Gold Prize 세이브앤코 세이브 프리미엄 콘돔 / 세이브 오버나잇 러브 키트

표 IV-27-1-3 |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품(전체)	1,222점	1,349점	1,120점	1,146점	875점	1,041점
선정	478점	520점	443점	472점	339점	420점

2)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1966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로,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디자인 컨셉과 혁신이 편견 없이 디자인 자체로만 평가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이다.

출품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프로 디자이너에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매년 약 2천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참가한다.

세계화를 위한 해외 심사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1차 심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출품부분도 32개 세부 카테고리로 다양한 디자인의 참여 기회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수상작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 디자인 비즈니스 행사 '디자인코리아 2019'에서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최고의 영예인 그랜드 프라이즈(GRAND PRIZE)에게는 '대통령상'과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 외에도 수상자들에게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디자이너스 파티 개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상자들의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고 있다.

표 IV-27-1-4 |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출품 및 선정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품 수	1,408점	1,421점	1,439점	1,703점	1,769점	1,640점
선정 수	308점	262점	252점	293점	257점	227점

그림 48 | 우수디자인상품선정 &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시상식 및 전시 (2019. 11. 22)



제28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

설립목적 및 기능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영역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며,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여성경제인의 능력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이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일반현황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는 1971년 10월에 설립된 대한여성경제인 협회가 전신으로,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당시 여성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7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 협회는 본회와 전국 17개 지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사는 2,600여개이다. 또한 센터는 전국 17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협회는 '여성기업의 성공을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경영능력 향상 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기업 제품 판로 확대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여성경제인단체와의 교류 협력, 여성경제인을 위한 제도와 시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자료 및 통계의 조사 수집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여성창업 촉진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TV홈쇼핑 입점지원, 인증브랜드 '여움',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을 수행 중이다. 넷째,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여성경제인DESK 운영,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 주 요 사 업 ▶

- 여성창업촉진지원 :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
-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TV홈쇼핑 입점지원, 인증브랜드 '여움',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 여성경제인DESK 운영,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조사연구

3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가. 여성창업 촉진 지원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여성창업경진대회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확장,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등이 있다.

1) 여성창업경진대회

가) 개요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창의적이며 우수한 창업아이템 발굴로 여성의 창업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할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창업자이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총 32명의 우수 팀에게 시상 및 포상을 하며 수상자에게 상금 및 투·융자 연계 지원(최대 3억 원), 여육 인증 및 휴쇼핑 입점우대, 수출지원 등의 판로지원과 1년간 창업보육실 무상입주(전국 17개 센터 226개 보육실)를 지원한다.

표 IV-28-1-1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 등 우수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단체(팀) 및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기업 창업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 및 포상 대상(1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2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각 500만원 우수상(3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4명) : 신한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2명) 우리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2명) 특별상(2명) : IBK기업은행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 입상(20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및 상금 각 30만원 • 수상자 지원내용 엑셀러레이팅 추천, 투융자 연계 지원, 홍보, 교육 및 네트워킹, 판로마케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전국 17개 센터, 226개) 입주 우대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3

나) 현황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사업계획 공고, 지역별 참가업체 모집, 서류 및 발표 심사, 시상식, 결과보고 및 사후 관리로 진행된다. 홍보는 SNS, 블로그, 인터넷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여성경제인의 날에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표 IV-28-1-2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프로세스



2019년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는 총 1,147팀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486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52팀이 참가하여, 전체 참가자 중에서 약 64% (2019년 기준)가 서울 및 경기도에서 참가하였다.

표 IV-28-1-3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역별 참가 현황(2019년도)

(단위 : 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합계
참가수	486	68	65	43	64	63	15	15	252	21	17	33	5	1,147

다) 성과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참가팀 수는 2017년 400팀, 2018년 933팀, 2019년 1,147팀으로 배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상자는 67팀으로 지난 3년간 수상팀의 약 93%가 창업하였다.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은 대부분 검증된 아이템을 가진 기술창업으로 현재 일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 창업보다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표 IV-28-1-4 | 여성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성과

(단위 : 개)

구 분	연도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참가팀수	400	933	1,147
수상팀수	12	25	30
창업업체수	8	25	29

2)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가) 개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창업보육 공간·정보·인프라 제공을 통해 여성의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경제인이며, 여성기업 창업보육시설 및 전문가 컨설팅, 각종 인증획득 지원, 판로지원과 정부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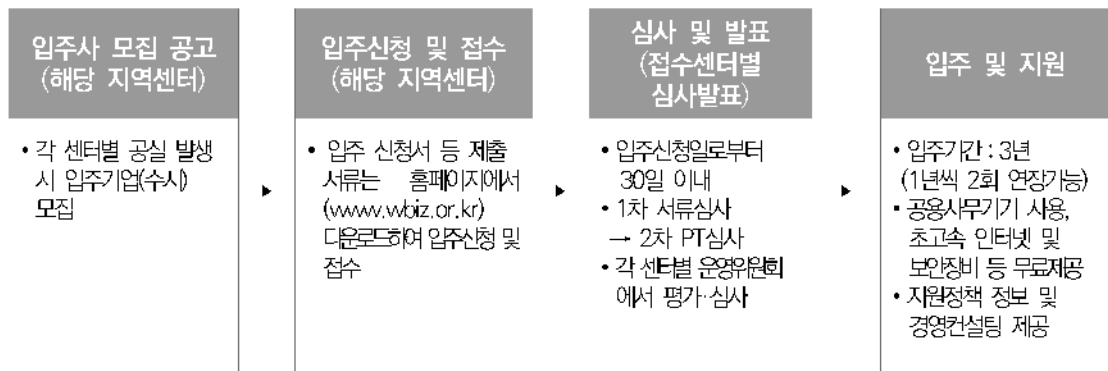
표 IV-28-1-5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센터 입주기업 및 여성경제인 •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지원시설(회의실, 사무집기, 인터넷, 보안장비 등) • 경영, 회계/세무, 재무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비,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마케팅 및 판로지원 • 중소기업 지원정책·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성공 여성CEO와의 네트워킹 등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93

나) 현황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보육실 운영,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성공한 여성 CEO와의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 유망업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교육·훈련·연수, 경영 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보육센터 입주 입주사 모집 공고, 입주신청 및 접수, 심사 및 발표, 입주 및 지원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28-1-6 | 센터의 창업보육실 입주프로세스



현재 전국 1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총 보육실 226개 중에서 193개의 보육실이 입주된 상태로서, 지역적으로는 인천센터의 보육실수가 1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대구/경북, 울산, 충북이 각각 16개, 경남과 제주, 광주, 경기북부가 각각 15개 순으로 각 지역 센터 내에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입주한 업체의 업종은 IT, 패션 및 생활용품, 일반제조, 뷰티, 섬유 의류, 출판광고 등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입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육실 입주 여성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28-1-7 |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현황

(단위 : 개, 2019년 12월 기준)

구분	보육실수	입주 업체수	보육실 입주여성기업 주요 업종
중앙	9	9	방송/드라마 세트 디자인 응용 2차 저작물, 여행용기방제조, K-Food플랫폼, 크렌징화장품, 3D건축정보 data 모델 서비스, LED방열판, 에너지관리S/W개발 등
서울	16	16	관절인형 제조,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디언어 리모델링, 집화, 화장품, 광고, 전자상거래, 출판기획, 방향제 탈취제, 친환경 도시락 제조, 펫 액개발, 등
부산	10	8	디퓨저제조, 건강 기능식품, 소형전자제품 제조, 생활소품, 악세서리·장신구 등
대구/경북	16	14	한지공예, 천연염색, 의료기기, 산업용 부품 및 장비, 계량기 등
광주	15	10	응급키트케이스, 미술교육 콘텐츠, 시각디자인, 인쇄, 출판, 약기 제조 등
대전	10	9	의류제조, 출판·편집디자인, 콘텐츠 제작,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 화장품원료개발 등
인천	17	14	비누꽃다발제조, 생화꽃다발(글래스운영), 유아용품, 수제화, 반려동물 제품, 화장품, 웹사이트 구축, 데코레이션 시트 등
울산	16	14	한복제작, 클레이 콘텐츠 개발, 자동차 정비플랫폼 개발, 광고기획·영상제작 등
강원	13	11	간판, 광고디자인, 집화, 생활가전제품, S/W개발 공급 등
경기	11	9	S/W개발 공급, 지식 서비스, 캐릭터 제품 디자인, IT S/W개발 등
경기북부	15	15	친환경침구, 과학교육콘텐츠, 친환경 수용성 난연제, 피규어제작,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주사구역 무인단속시스템, 캐릭터봉제 완구 등
충북	16	15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인테리어소품, 캘리그라피, 공연·예술학교 교육지원 등
전북	12	10	공예, 의류잡화, 건물위생관리업, DIY한지조명 등
강남	15	12	시스템 응용S/W 개발, 교육연구개발, 천연비누, 홈페이지 제작 등
제주	15	8	판촉물 제작, 영상촬영 서비스, 식품 제조,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등
충남	10	9	전자상거래, 아동복 대여, 방향제, 가방, 광고물제작 등
전남	10	10	다시마 가공식품, 영상제작, 디자인(광고물제작), 친환경캔들, 향안농산물 등
합계	226	193	-

다) 성과

입주여성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17년 17.1%, 2018년 19.4%, 2019년 19.8%로 매년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입주업체의 만족도는 92.0점(2017년), 86.0점(2018년), 90.0점(2019년)으로, 약 90.0점 정도의 평균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28-1-8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단위 : %,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업체평균 매출액증가율	17.1	19.4	19.8
입주업체 만족도	92.0	86.0	90.0

3)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가) 개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이며, 연 2.0% 이자율에 최대 1억 원까지 전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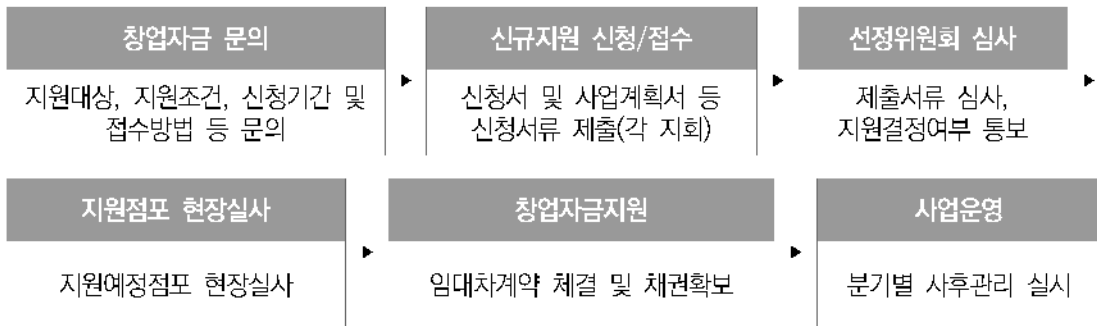
표 IV-28-1-9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요건: 저소득계층(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및 신용등급 1~7등급 이내 * 지원제외대상: 주점업, 사치·향락업종 예비창업자, 신용관리대상자,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 등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억원, 연 2.0% 이자율, 최대 6년(연장 2회 가능)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3

나) 현황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7개 지회 및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지원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최종 선정되는 자에 한해 창업자금(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기간 내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사업운영사항 개선, 대출증대 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림 49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1999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2019년까지 저소득 여성가장 총 71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신규지원자 9명, 기존 지원자 중 기간연장 신청자 12명에게 지원하여 총 21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IV-28-1-10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성과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7년 지원인원	2018년 지원인원	2019년 지원인원
신규지원	22	14	9
기간연장	9	12	12
합계	31	26	21

나.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사업

여성경제인 혁신역량강화 사업은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국제회의 파견 지원 사업 등이 있다.

1)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

가) 개요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여성기업 특성에 맞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여성CEO MBA 교육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성CEO 및 임원이며, 강사료, 교재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또한 교육 내용을 여성경영자의 교육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여성기업의 역량강화 및 글로벌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8-1-11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전국 여성CEO 및 여성임원
지원사항	• 강사료, 교재비 등 • 교육횟수 및 시간 : 총 8회, 약 24시간
교육내용	• 전문AMP 운영기관과의 협력 및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여성기업에 특화된 공동과정을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나) 현황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은 매년 경영트렌드를 반영하여, 여성CEO의 교육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여성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며, 입학식/수료식 전국 통합행사를 통해 여성

경제인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절차는 지역별 신청자 모집단계, 교육실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행된다.

그림 50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프로세스



2006년 4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전·충남)으로 시작하여 2019년 현재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28-1-12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개최 현황

(단위 : 개, 주)

구 분	연도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개최지역 수	16	16	14
지역별 개최기간	12	12	12

개최 지역별로 참가자 수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연 1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 특히 참가자 수가 많았는데, 서울 45명, 경기북부 44명, 인천 40명 순으로 참가자 수를 보였다. 2018년은 기존 여성CEO MBA 교육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AMP 1기로 새롭게 운영하였는데, 서울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42명, 경기 41명 순으로 참가자 수를 보였다. 2019년 역시 서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북 25명, 경기북부 25명 순을 보였다.

표 IV-28-1-13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지역별 개최 내역

(단위 : 명, %)

지역		2017년	2018년	2019년
수도권	서울	45	124	63
	경기	38	41	22
	경기북부	44	25	25
	인천	40	18	21
대구/경북 (‘17, ‘18 통합운영)	대구	32	34	19
	경북	32	34	25
대전/충청	충북	35	24	21
	대전	30	30	20
	세종충남	26	24	16

지역		2017년	2018년	2019년
광주/전남/전북	광주	38	23	-
	전남	32	24	-
	전북	32	20	24
부산/울산/경남	부산	26	29	9
	울산	26	14	-
	경남	32	42	16
강원		32	20	-
제주		30	37	14
합계		538	529	295

다) 성과

교육 수강생 수는 2017년 538명, 2018년 529명으로 연도별 목표치인 500명 이상의 수강생을 확보하였고, 2019년의 경우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강료 인상으로 전체 수강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교육 효과와 수강생들의 만족도 면에서는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 수강생 만족도는 2017년 93.5점, 2018년 83점, 2019년 90점으로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도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V-28-1-14 |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교육사업 성과

(단위: 명, 점, %)

구 분	연도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교육 수강생수	538	529	295
교육 수강생 만족도	93.5	83.1	90.0

2)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가) 개요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전국 여성경제인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여성CEO로, 강사료 및 교재비 등의 참가비를 지원하며, 초청강연, 정책토론회, 경영애로 상담, 네트워킹 등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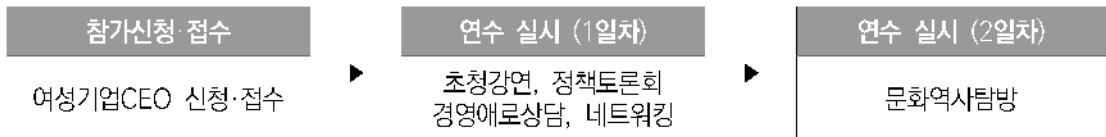
표 IV-28-1-15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여성CEO
지원사항	• 강사료, 교재비, 숙박료 등 참가비
연수내용	• 초청강연, 정책토론회, 경영애로 상담, 네트워킹 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99

나) 현황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강연을 비롯하여 1박 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기업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상담 및 정책건의를 위한 여성경제인 DESK를 운영하였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여성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림 51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의 참가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년의 경우 개최지역 행사장 최대 수용가능 인원내 맞추어 참가자 수가 조정되었다. 매년 전국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표 IV-28-1-16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사업 성과

(단위: 점)

구분	연도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참가자 수	951	1,037	800*
개최지역	평창	부산	청주

* '19년도에의 경우, 개최지역의 행사장 최대 수용가능 인원내 맞추어 참가자수 조정

다.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

여성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 TV홈쇼핑 입점지원, 공동브랜드 '여움' 운영 등이 있다.

1)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가) 개요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은 수출초보 여성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동 사업은 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교육을 지원하며 수출유망기업 및 글로벌기업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초석 마련을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표 IV-28-1-17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업화: 컨설팅, 홍보물제작, 해외마케팅 등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유망 전시회 참가 및 전문바이어(B2B) 매칭 수출교육: 무역실무,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등 해외 마케팅 교육 실시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4

수출기업화 사업은 수출초보 및 수출도약 여성기업의 수출단계별에 맞춰 1:1 컨설팅,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집중 강화하여 수출유망기업화 촉진을 유도한다. 또한 유관기관의 수출전략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한다.

표 IV-28-1-18 | 수출기업화 사업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수출초보기업) 예비 수출기업 및 전년도 직수출액 10만불 미만인 여성기업 (수출도약기업) 전년도 직수출액 10만~50만불 미만인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전문가의 1:1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DESK 전문위원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 (홍보물 패키지 제작, 해외시장조사, 해외규격인증, 해외지사화 참가비 등)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여성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들이 거래되는 해외 유력 전문전시회(B2B) 참가 지원을 통해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신규 거래선을 개척 및 확대하여 수출여성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글로벌 최신 트렌드와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의 글로벌 시장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표 IV-28-1-19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수출유망 여성기업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신규 거래선 개척 및 확대 • 최신 글로벌 트렌드와 수요를 파악하여 해외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수출교육은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특정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전략 교육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표 IV-28-1-20 | 수출교육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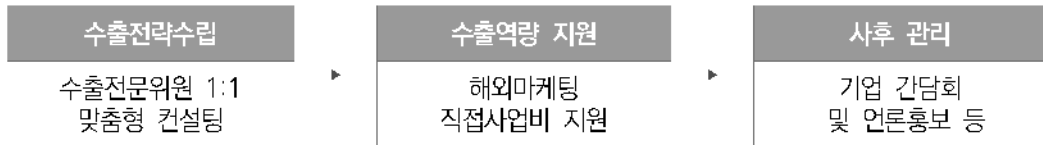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여성기업 대표 및 실무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초보 무역실무 교육 • 유망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별 마케팅 교육

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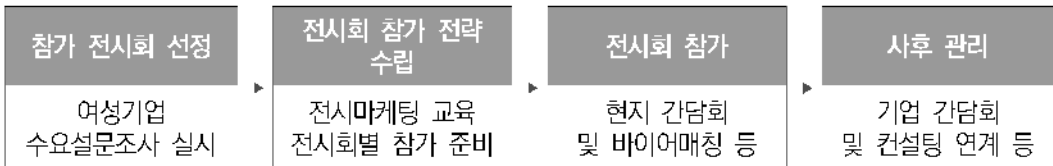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은 여성기업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첫 수출과 수출 유망 기업으로의 도약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 기업화를 위해 1:1 컨설팅 및 현지마케팅 지원을 실시하며, 여성기업 특화품목별 해외 유망 전시회를 발굴, 참가 지원으로 수출희망 여성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예비수출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을 위해 무역실무·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과 해외규격인증 교육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그림 52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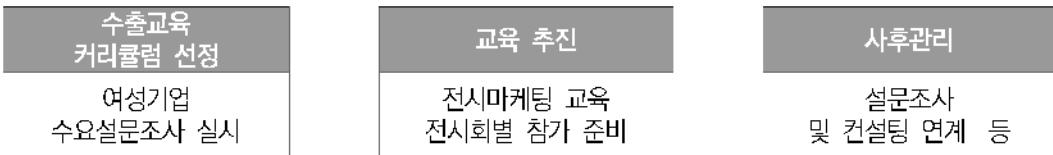
① 수출기업화



② 해외전시회 참가



③ 수출교육



특히, 각 사업 추진 전 여성기업 대상으로 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성기업의 수요와 수출단계에 적합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다) 성과

신규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은 2019년에는 20개사를 지원하였고 이 중 12개사(60%)가 총 240,000달러 수출에 성공하였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2019년 태국(방콕), 중국(심천, 상해) 총 3개 지역 전시회에 24개사 참가를 지원하여 14,500천 달러 수출상담 및 38,000달러 수출에 성공하였다. 또한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마케팅 교육을 3회 실시하여 계획(90명)대비 65% 증가한 149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표 IV-28-1-21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 목록

구분	'19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전시회명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태국 방콕 비온드뷰티 아세안 미용 전시회 (6개사 지원) • '19년 중국 심천 선물용품&생활용품 전시회 (10개사 지원) • '19년 중국 상해 식품 전시회 (8개사 지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 개요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여성기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경쟁입찰 시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IV-28-1-22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지원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다.

나) 현황

여성기업 확인접수는 온라인(www.smpp.go.kr)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접수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검토 후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그림 53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프로세스



다) 성과

여성기업 확인제도에 따른 발급건수는 2017년 10,450, 2018년 12,541, 2019년 16,178건으로 2018년 대비 약 29%가 증가하였다.

표 IV-28-1-23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 성과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확인서 신청건수	11,723	14,409	19,367
확인서 발급건수	10,450	12,541	16,178

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지원

가) 개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여성기업 확인제도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확인서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 전자입찰 실무교육과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안내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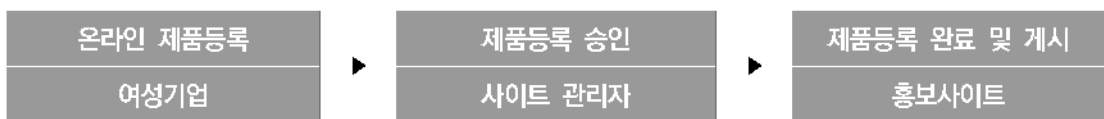
표 IV-28-1-24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체 공공구매 업무 담당자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대상 전자입찰 실무교육 제공 공공기관 구매설명회 개최 안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나) 현황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및 구매 지원사업은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과 여성기업 대상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제공하여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한다.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지원사업은 온라인 제품등록, 승인, 완료 및 게시 등 총 3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입찰 실무교육은 입찰방법 및 입찰실습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4 | 여성기업제품 홍보사이트 운영



다) 성과

공공구매 제도 홍보사업을 통해 여성기업의 전자입찰 실무교육 수강생이 으로 전년에 비해 385% 증가하였다.

표 IV-28-1-25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지원사업 성과

(단위: 개)

구분	연도별 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전자입찰 실무교육 수강생	183명	97명	374명

* 2018년부터 실습교육과정이 추가되어 전산교육장 수용인원에 맞추어 교육진행에 따라 전년대비 53% 수강생 감소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은 2015년 119.2조원, 2016년 116.9조원, 2017년 123.4조원, 2018년 123.4조원, 2019년 135조원이며 그 중에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액은 2015년 7.14조원, 2016년 8.34조원, 2017년 9.9조원, 2018년 10.58조원, 2019년 11.9조원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6.0%, 7.1%, 8.0%, 8.6%, 8.8%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2019년 기준 전년대비 구매실적이 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공공기관 제품 구매에 있어서 여성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표 IV-28-1-26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연도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구매액	119.2	116.9	123.4	123.4	135.0
여성기업제품구매액	7.14	8.34	9.9	10.58	11.9
구매비율	6.0	7.1	8.0	8.6	8.8

자료: 공공구매종합정보, 중소기업 공공구매실적

4) TV홈쇼핑 입점 지원

가) 개요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제품을 발굴하여 TV홈쇼핑 입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한 여성기업을 선정하여 홈쇼핑 입점 교육, 제품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상품품평회를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인서트 영상제작비, TV홈쇼핑 입점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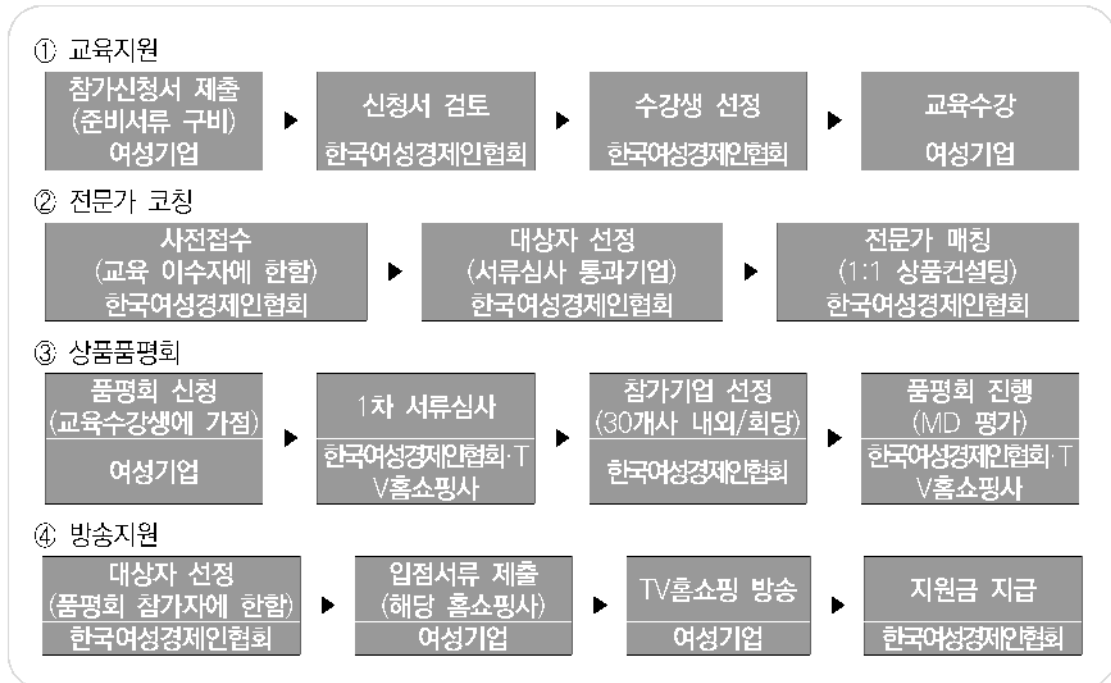
표 IV-28-1-27 |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규모	• 여성기업 200개
지원 대상	• 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여성기업
지원 내용	• 홈쇼핑 입점교육, 전문가 코칭, 홈쇼핑 방송수수료, 인서트영상 제작비 등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여성기업확인서, 제품소개서, TV홈쇼핑 입점희망 신청서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jin.kim@wbiz.or.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나) 현황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방송에 필요한 홈쇼핑 방송프로세스, 제품카테고리별 상품전략 교육 및 전문가 코칭을 통해 방송에 적합한 상품으로 리뉴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방송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품평회를 거쳐 최종 지원 업체를 선정한다. 지원금 중 방송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해당 TV홈쇼핑사에 지급하며, 여성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는 영상제작비 지원금은 방송 송출이 완료된 후 각 기업별로 협회의 지원금 지급절차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그림 55 | TV홈쇼핑 입점 지원 프로세스



다) 성과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2017년 처음 시작한 지원사업으로 3년간 582개사가 교육 및 품평회를 통해 홈쇼핑 및 제품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았고, 53개사가 115회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참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10.1% 상승에 기여하였다.

표 IV-28-1-28 | TV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성과

(단위 : 개사, %)

구분	내용								
	2017			2018			2019		
	목표 기업 수	지원 기업 수	목표대비 기업 지원률	목표 기업 수	지원 기업 수	목표대비 기업 지원률	목표 기업 수	지원 기업 수	목표대비 기업 지원률
홈쇼핑 입점교육 및 품평회 방송 지원	200	206	103	150	231	154	150	163	107
문의처	15	16	106.7	16	22	137	15	16	107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3								

5) 인증브랜드 '여움'

가) 개요

인증브랜드 '여움'은 일반 국민들에게 여성 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현재는 인증브랜드 초기 사업화 단계로 품질은 우수하나 자체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제품을 보유하여 지원이 필요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중소기업 회원사가 대상이다. 사업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전체 여성기업인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표 IV-28-1-29 | 인증브랜드 여움 운영 추진내용

구분	2017	2018	2019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업체(회원사)모집 • 일반소비자 대상 홍보 • 국내 유통채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업체(회원사)확대 • 국내 및 수출 유통채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업체(회원사)확대 • 국내 및 수출 유통채널 확대 • 국내외 판로지원사업 설명회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움몰: www.yeoum.co.kr • 여움 홍보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B1 개관 (2018년 3월)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24 		

나) 현황

2016년 인증브랜드 ‘여유’ 개발 이후 1기와 2기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여유 3기가 선정되었다. 연 1회 정규 모집 외 상시 모집도 받고 있다. ‘여유’에 선정된 기업은 기수에 관계없이 활동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여유몰과 여유 홍보관에 입점 가능하다.

그림 56 | 인증브랜드 선정절차



다) 성과

인증브랜드 ‘여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배너 광고를 통해 홍보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여유몰로 유입시켰다. 2017~ 2019년 3년 연속으로 ‘여유 브랜드잔’을 개최하였고, ‘여유 브랜드잔’을 통해 참여 업체가 대형 마트에 입점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온라인으로는 여유몰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의 MD와 벤더들이 ‘여유’에 선정된 기업의 상품을 론칭하기 위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여유 홍보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약70개사의 상품이 전시 중에 있다.

6)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가) 개요

국제회의 한국 대표단 파견 지원 사업은 각 국가별 정책 공유 및 세계 여성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각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한국 여성 대표단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성 기업 대표이며 회의 참가비, 차량 임차료, 통역비 등 공통경비를 지원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공식회의 및 세미나, 워크숍, 현지 여성 단체와의 간담회 참가를 통한 네트워킹 형성이며 전 세계 여성경제인 간담회, APEC 여성경제포럼(APEC-WEF), 세계여성경제인 대회(FCEM) 등 국제회의의 참가를 지원한다.

표 IV-28-1-30 |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여성기업 대표
지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참가비, 차량임차료, 통역비 등의 공통경비 지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식, 본회의 및 세미나 등 공식행사 참가 - 주제별 워크숍 참가 및 발표 - 네트워킹 런치 및 만찬 참가를 통한 해외여성경제인과 교류 - 주최국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 참여
2019년 참가지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아랍-아프리카 투자포럼(이집트, 카이로) - 기간 및 인원 : 2019년 9월 29일 ~ 10월 2일 / 16명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나) 현황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은 공식회의에 참가하여 국가별 여성지원 정책을 공유하며 주최국과의 업무협약(MOU) 및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한다. 절차는 참가자 모집단계, 파견 준비단계, 대표단 파견단계, 결과보고단계로 수행된다.

표 IV-28-1-31 |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 프로세스



국제회의의 한국대표단 파견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여성기업과 지원정책을 공유, 벤치마킹하여 국내 여성기업에게 도입하고 수출협력 등의 우호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이 필요한 기업에게 유용한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 성과

2019년은 처음으로 아랍-아프리카 포럼에 참여하여 유럽, 아시아, 중동지역의 29여개국가 여성기업 대표들과 교류하고, 전시부스 참여 및 현지 바이어들과의 B2B 미팅을 진행하였다. 2017년은 APEC 여성경제포럼과 FCEM 세계여성경제인 협회 총회에 참석하였고 2018년도는 FCEM 세계여성경제인협회 총회 및 대만여성

경제인협회 간담회(대만, 타이페이)를 개최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가 증가하고 있다.

표 IV-28-1-32 | 국제회의 한국대표단 파견 성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실적		
	2017년	2018년	2019
참가자 수	18	17	16
파견회의	FCEM 제65회 회의 APEC 제22회 회의	FCEM 제66회 회의 대만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	2019 아랍-아프리카 투자포럼 -

라.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재정비 지원사업은 여성경제인DESK운영,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여성기업 연구조사 등이 있다.

1) 여성경제인 DESK 운영

가) 개요

여성경제인 DESK는 여성경제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애로와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해결하기 위한 창구의 필요성을 제기(2014.12, 대통령 주관 '여성기업인 초청 오찬간담회')하여 여성기업 정책건의 전용창구로서 '여성경제인 DESK'를 설치하였다. 지원대상은 예비 여성창업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예비 여성경제인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경제인이다.

표 IV-28-1-33 | 여성경제인 DESK 신청 및 상담 분야

구분	내용
창업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 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입	마케팅·수출입

나) 현황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들은 9곳에 거점을 두고 전국 17개 지역센터에서 여성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그림 57 | 여성경제인 DESK 프로세스

단계	수행 방법	비고
여성기업 (신청)	▶ 정책아이디어 및 현장경영 애로사항 신청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	여성기업
↓		
여성경제인 DESK 접수 (해당지역 센터)	▶ 정책건의 및 현장 경영애로, 규제 신청접수	17개 지역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접수
↓		
전문위원 상담 (센터 방문 또는 기업)	▶ 분야별 전문위원 상담 및 해결	-
↓		
관계부처 협의 및 해결	▶ 미결과제 접수 및 해결 ▶ 정책건의 및 현장 경영애로, 규제 개선 및 부처협의, 필요사항 이관해결	중소벤처기업부
↓		
결과 안내 (여성경제인 DESK)	▶ 처리결과 종결 및 회신	-

다) 성과

여성경제인 DESK는 ① 중앙·강원, ② 인천·서울, ③ 경기, ④ 충북·세종충남, ⑤ 대전·전북, ⑥ 광주·전남·제주, ⑦ 대구경북, ⑧ 부산·울산, ⑨ 경남으로 총 9개의 거점지역을 두고 있으며, 각 거점지역에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상담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IV-28-1-34 | 연도별 여성경제인 DESK 상담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담건수	1,066건	1,766건	1,874건	2,241건

2)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운영 (<http://www.iljarahub.or.kr>)

가) 개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물리적인 제약 없이 전문적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과 매칭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프로젝트 등록부터 완료까지 단위별 1:1로 전담 관리하여 초기 상담 및 조율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경력검증을 통해 인재 추천 및 전문분야별 비즈니스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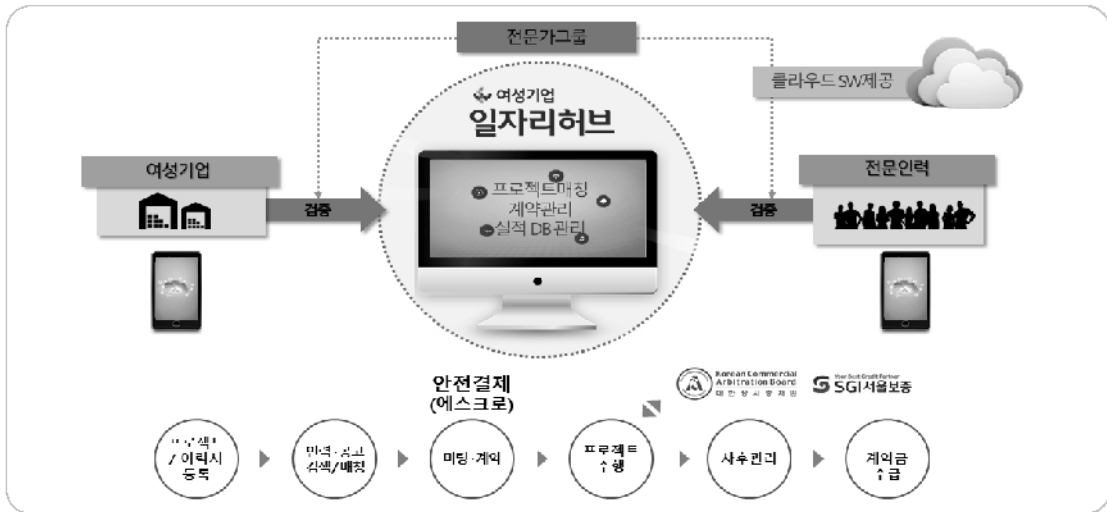
표 IV-28-1-35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개요

구분	내용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인력을 물리적 제약 없이 합리적 비용으로 매칭하여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등 유연한 업무환경 제공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주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이 인력 검증 및 인재 추천 등 자문 컨설팅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Escrow),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 안전결제 지원 업무용 SW를 클라우드 방식 (SaaS)으로 제공하고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수행평가, 경력증빙, 경력개발 등 사후관리 ※ 일자리허브 참가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혜택 : IBK기업은행 대출금리 추가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등
참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 : 중소·벤처·초기창업 여성경제인 전문인력 : 전문가·경력자, 개인·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등 ※ 주요분야 : 디자인 / IT개발 / 홍보마케팅 / 수출무역 / 회계재무 / 인사총무 등
참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플랫폼(www.iljarahub.or.kr) 회원가입 여성기업 : 회원가입 및 프로젝트 등록 전문인력 :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02-369-0963, E-mail. iljarahub@wbiz.or.kr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 www.iljarahub.or.kr

전문 인력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이 프로젝트 계약부터 완료까지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 및 경력관리 프로

그램을 통해 기업 및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여성기업회원이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일자리허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전문인력을 검증하여 계약에서 전문인력의 프로젝트 수행 후 안전결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시 업무용 S/W와 클라우드를 제공함으로써 재택근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인력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58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개념도



나) 현황 및 성과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2017년 11월 3일 여성경제인의 날에 분칭되어 전국 설명회, 유관기관·단체⁴⁰⁾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지도를 확산하였다. 2018년에는 백업 솔루션 도입 및 모바일 실시간 관리 기능 확대로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법률·회계·인사·디자인·경영 등 12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144명)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여성기업회원-전문인력간 맞춤형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기업 회원은 보다 쉽고 빠르게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전문인력은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구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회원 926개사 및 전문인력 회원 3,658명 가입, 1,330건의 프로젝트 등록 및 323건을 내칭하였다.

40) 여성경제단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여성가족부 중앙새일센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여성번호사회, 인쿠르트(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등

표 IV-28-1-36 | 2019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성과

구분	기업회원 수	전문인력 수	프로젝트 수	매칭 수
성과	926개사	3,658명	1,330건	323건

그림 59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3)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가) 개요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여성경제인 및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보, 여성기업 관련 통계 자료 제공 등 여성기업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였다. 효율적 운영·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의 경영지원 및 창업여성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카테고리별 정보 분류·업데이트를 통한 사이트 이용자의 정보 취득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향상 되었다. 포털시스템 최적화로 온라인 사업 등록·신청 및 여성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현황파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2014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제도(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 여성기업 제품 구매)의무화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만을 홍보할 수 있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사이트를 구축하여 여성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 IV-28-1-37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여성경제인 및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여성창업자
지원내용	• 포털사이트를 통한 사업 지원 및 경영정보
문의처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통한 여성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확대 • 중소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76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41

나) 현황

① 여성기업 제품 판로확대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의무화⁴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웹사이트를 구축 하여 온라인 마켓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경제인의 판매채널 다변화 및 여성기업 제품 홍보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1,619여개의 업체가 상품 등록 및 홍보를 하고 있다.

② 그 외 다양한 여성기업 정보

여성기업 통합 DB구축 및 검색시스템 도입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유형별, 생산 제품별, 산업분류 등을 통한 여성기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내 인트라넷 구축으로 통합로그인,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일정관리, 설문조사, 전자결재, 문서함, 주소록 관리, 회계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60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홈페이지



41)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4. 1.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967호, 2013. 7. 30., 개정)

다) 성과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3개년 추진 프로젝트로서, 1차년도(12년)에는 통합망 기반 구축단계, 2차년도(13년도)에는 통합망 고도화 단계, 3차년도(14년)에는 통합망 운영·개선 사업단계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대내 통합시스템인 사내인트라넷과 기업정보관리, 지원사업관리 부문, 대외 통합시스템, 여성기업지원정책정보, 온라인 기업 마케팅, 민원처리, 여성기업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고, 2013년도에는 포털사이트 업데이트 및 지원사업관리 기능개선을 위해 창업, 교육, 여성가장창업자금, BI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시스템,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구축, 그룹웨어와 결제 연동 가능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하도록 구축하고, 통합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2014년도에는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업데이트로 여성기업 제품 등록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기업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다. 2015년도에는 공공기관의 DB연계 개발로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콘텐츠를 보강하고, 사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개발로 운영 환경이 개선 되었다. 2016년도에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여, 사용자 접근 및 편의성을 증대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여성기업 종합 정보포털 DB 서버 업데이트를 통한 사이트 안전성 및 보안성이 향상 되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여성기업종합 정보포털 회원 수는 23,024명이며,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사이트에 등록된 여성기업 수는 1,619개, 등록 제품 수는 14,634개 이다.

4) 여성기업 조사연구

가) 개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를 위해 여성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여성기업 관련 통계생성·관리 및 여성기업 정책기반 자료 제공, 정기조사를 통한 여성기업 현황 제시 및 연구보고서 발간이다.

표 IV-28-1-38 | 여성기업 여성경제연구소 운영

구분	내용
소개	•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를 위해 여성경제연구소 운영
주요목적	• 여성기업 관련 통계생성·관리 및 여성기업 정책기반 자료 제공 • 정기조사를 통한 여성기업 현황 제시 및 연구보고서 발간
주요성과	• (여성기업 조사연구) 여성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관련 동향 분석 등 종합적 연구 및 조사 수행 - (정기과제) 여성기업 백서, 여성기업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여성기업 관련통계 자료집 - (수시과제) 여성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 여성기업 애로 실태조사 - (이슈연구) 여성기업 이슈브리프, 여성기업 동향 브리프 - (통계구축) 수출 여성기업 DB, 공공구매 실태 DB - (정책공유) 세미나, 토론회 개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02-369-0900

나) 현황

여성경제연구소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관련 동향 분석 등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연구보고서 체계를 정비하여 정기연구, 수시연구, 연구용역으로 나누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경제인들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하고 있다.

다) 성과

보고서 발간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8건이었다. 2018년부터 성과관리를 세분화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연구·용역보고서 6건, 이슈·동향브리프 15건을 발간하였으며, 토론회 및 세미나는 2회 개최하였다.

표 IV-28-1-39 | 여성경제연구소 실적

(단위: 건)

구분	연도별 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고서발간 수	8	8	연구·용역 보고서	이슈·동향 브리프	토론회· 세미나	연구·용역 보고서	이슈·동향 브리프	토론회· 세미나
						10	15	2

* '19년도의 경우, 예산 범위에 따라 보고서 수 조정

제29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1989년 7월부터 전국각지에서 결성되기 시작한 민간주도의 중소기업이업종교류그룹을 대표하기 위해, 1994년 11월 23일 전국 이업종 교류연합회로 창립하였다. 이후, 1994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5조 및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5년 6월 중소기업청의 허가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6월 (사)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로 명칭을 변경, 2009년 3월 (사)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로 명칭을 변경, 2011년 11월 현재의 명칭인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 융복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융복합화를 이끌어 왔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13개 지역연합회와 267개 융합교류회(6,199개 중소기업)를 회원으로 하여 이업종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으로 중소기업간 부족한 경영 및 기술자원의 공유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고, 국내 기업 간 교류 협력을 넘어, 해외 한인기업인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강화사업, 중소기업간 네트워크기술 개발사업 사전기획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중소기업간 교류 및 협력활동 지원

가. 개방적 지원체계 구축

1994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 이업종교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교류지원부를 설치하여 이업종교류 지원업무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업종 단위교류회 신규결성 및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CEO포럼 등의 사업을 보조하고

매년 단위교류회 및 참여기업의 교류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전시하는 중소기업융합대전 개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문화조성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29-1-1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합회	13	13	13	13	13	13	13
교류회	329	332	315	315	301	269	267
회원사	7,029	7,141	6,546	6,546	6,078	6,058	6,199

중소기업융합대전은 2004년부터 이업종교류회 소속 기업의 단합과 교류성과 공유를 위해 전국을 순회 개최하였던 중소기업 한마음대회를 2014년 정부의 융합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토록 중소기업융합대전으로 격상시켜 매년 기업 간 교류와 협력활동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수여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력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29-1-2 |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최기간	6.21	5.22~23	9.4~5	5.21~22	4.22~23	4.14~15	5.12~13	4.26~29	5.15~16	6.10~11
개최지역	대전 충남	제주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대구 경북	울산	강원
참가규모	290	400	550	550	1,100	1,200	1,400	1,560	1,558	1,800

표 IV-29-1-3 | 중소기업 융합대전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최기간	9.26-27	10.28	10.19	10.23	10.30	10.16-17
개최지역	천안	대전	서울	익산	대전	안동
참가규모	1,500	1,000	1,000	1,000	800	2,000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개회사

전우현 경제부지사 환영사

국민의례



정부포상 수여

협업기업 우수사례 발표

성과전시



R&D 기술어로 상담회

해외시장 진출 및 적정기술 상담

융합컨퍼런스 토론회

나. 교류·융합 기반의 혁신적 성과 창출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의 개방·공유 기반 네트워킹 전략을 통해 혁신 역량을 확충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은 치열해지는 경쟁과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동종 또는 이업종 기업 간 경영·기술 정보교류를 통해 구축된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협력을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전문화를 추진하면서 보완적인 기능을 보유한 기업과 역할을 분담하고, 자원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하나의 사업체 처럼 경영활동을 하는 협업으로 위험과 성과를 분담하여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도입, 협업자금 융자지원 등을 실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협업 승인제도를 협업 선정으로 완화하여 사업신청·선정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협업 지원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제품개발·생산·디자인·판매 등에서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업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여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시제품 제작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에서 기업 간 핵심 역량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을 위해 '교류→사업기획→R&D→사업화' 등 단계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표 IV-29-1-4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승인수	5	48	31	13	15	33	24	19	23	18	13	18	14
참여 기업수	15	111	75	32	34	72	80	47	54	42	29	59	31

2019년부터는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한 성과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간 생산적 교류활동(협업과제발굴 소그룹)지원을 통한 협업과제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협업 과제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화 지원, 협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업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획지원, 네트워크형 R&D 이후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협업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중심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IV-29-1-5 | 기업지원 사업내용 및 '19년 실적

사업명	주요내용	'19년 지원실적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소그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그룹을 구성하고, 구성원 간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기술융합 관련 아이디어 및 과제 발굴 ○ (내용) 워크숍·세미나 등 정보교류 활동과 시장전문가·기술전문가 매칭을 통해 협업과제 및 기술&비즈니스 로드맵 구축 지원 	17개 협업체
협업비즈니스 모델(BM) 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교류 활동을 통해 발굴된 협업과제에 대하여, 비즈니스모델 및 협업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여 공동사업화 성공률 제고 ○ (내용) 협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평가·선정하여 사업모델링, 기술·시장 분석, 사업성 검토, 협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 	10개 협업체
협업선도기업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협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협업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획 등 지원하여 협업선도기업으로 육성 ○ (내용) 협업을 통한 신사업추진 및 사업고도화를 위해 신규 협업기업 발굴, 협업아이템 발굴, 협업사업기획, 협업사업화 등 신규 협업 추진을 위한 활동비 지원 	5개 협업체
디자인협업 C&BD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기존제품의 디자인 트렌드, 소비자 감성·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 혁신상품으로 개선하는 협업모델 지원 ○ (내용) 혁신상품 개발의 전주기 협력 및 공급망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을 촉진 	4개 협업체
지자체 신사업발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벤처기업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과 기술융합 촉진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 (내용)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협업R&D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고, 선정된 협업과제에 대한 사업화 지원 	5개 협업체
R&D완료과제 사업화 후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중기부 협력R&D 완료 과제에 사업화 과정을 후속 지원하여, 실질적 R&D 성과 창출에 기여 ○ (내용) 네트워크형 R&D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3가지 이내 애로사항 권고)해결을 위한 직접(활동)비 지원 	5개 협업체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협업 활성화지원,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소그룹 지원, 협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 R&D완료과제 사업화 후속지원 등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단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융합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중소기업 성장한계 애로사항 해결과 상호 간 시너지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체를 대상으로 R&D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기업 간 협력 사업이다.

그림 61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협력 유형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전기획지원은 기술개발 실효성 검증을 위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2단계 R&D사업에 진입하도록 아이디어 구체화와 수평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 R&BD 사업계획서 도출, 공동개발기관 매칭, 상호협력 표준계약체결 등을 지원한다.

표 IV-29-1-6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지원 현황

구분	지원기업	협업체 구성						상호협력계약서 및 공증추진	비고
		3개	4개	5개	6개	7개	합계		
2017년	61개	30	11	2	2	1	46	61개	
2018년	32개	20	4	5	2	1	32	32개	
2019년	37개	23	5	6	2	1	37	37개	

사전기획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구축부터 사업화 전략 수립까지 R&D 및 사업화 전단계를 포괄하는 협업기획 추진을 통해 R&D 기간을 단축시키고 기술개발 이후에 빠른 상용화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표 IV-29-1-7 | 네트워크 기획지원 프로그램 구성

구분		주요내용
네트워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핵심역량 분석을 통한 협업체 구성 네트워크 밸류체인 구성 및 네트워크 구성 기업의 적격여부 검토
환경 분석	기업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제품 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기업역량분석 종합
	시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 분석 의견 종합
기술 분석	해외시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국 결정, 국가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기술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기술개요, 기술현황 및 전망, 기술수명주기 분석, 핵심기술 분석, 기술의 위치 분석, 기술 분석 의견 종합
	지적재산 전략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분석, 지적재산 확보 전략,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 지적재산권 방어 전략
경제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상매출액 분석, 예상원가 추정, 수익성지표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략 수립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기술개발 전략(기술개발정도 및 사업화일정, 일정별 결과물), 인력운용, 개발 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수립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환경-기업환경(기술, 인력, 생산)-시장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해외진출전략수립
네트워크 협력 계약 체결/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주체별 도출 성과물에 대한 정의 및 표준계약에 따른 합의사항 도출 (공증지원, 수익배분 방안 등)

앞으로도 협업기반 개방적 혁신 R&D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 진출, 연구개발 리스크 분산 및 기간 단축, 개발비용 절감 등의 기업 간 협력사업의 기술개발 성과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기획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적 역량을 통해 기술융합의 중소기업의 협업성공 모델 창출에 이바지 할 예정이다.

3

중소기업 인력 지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15년 5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고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동관리협의회로 지정받아 특성화고 산학맞춤반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인력공동관리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졸업예정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중소기업 사이에서 인력 채용에 관한 내개활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현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19년도에 17개교 465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269명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데 일조하였다.

'19년도 공동교육프로그램 교육



아울러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에게 기업의 시설견학 및 회사소개를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CEO 및 직원 특강을 통해 기업의 비전, 인재상을 소개하여 특성화고 졸업 후 진로·미래설계를 돕기 위해 특성화고 2개교 총 63명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19년도 현장학습 진행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서울, 경기권과 지방 특성화고 간의 참여기회 안배와 프로그램 참여 학교 17개교 취업 담당 선생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생들이 취업 전 취업희망 직종 및 직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 미래 경력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 해소 및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2018년부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현장 인턴 및 취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 뉴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였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구직자를 모집하여 전문교육(2개월)을 실시한 후 기업과 교육수료자 간 인턴배정으로 인턴근무(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 해당기업은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최대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에서 담당할 업무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교육과 함께 조직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교육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를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기업에 안정적인 적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20명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3명을 정규직 채용 연계를 지원하였다.

표 IV-29-1-8 |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18~'19년)

구분	교육	인턴	취업
2018년	62명	41명	28명
2019년	54명	32명	20명

4

중소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생태계 구축 지원

가. 중소기업 간 교류 및 협력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산하 전국의 13개 연합회는 매년 1회 융복합기술 개발 및 융합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융합플라자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말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회원사의 제품과 기술홍보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 간 교류 및 협력문화 조성 및 확산을 기하고 있다.

2020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롯데리조트부여에서 개최된 리더 합동 워크샵에서는, 주영섭 前 중소기업청장의 ‘초변화의 시대 기업혁신’ 관련 주제로 발표 시작으로 중소기업간 융합교류 30주년 기념과 Vision 2030 선포 등 재도약의 비전제시와 우수사례 발표 및 토의를 통해 우수 운영사례 발굴하고 확산의 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리더합동 워크샵



리더합동 워크샵



리더합동 워크샵

나. 중소기업 간 협력생태계 구축 지원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 및 혁신을 통해 지식·기술 융합 및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회원사의 회원수 확대와 더불어 해외 판로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연합회 설립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외 중소기업이 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제30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일반현황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는 200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 및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2001년부터 시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 INNOBIZ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 기술 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3의2)

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기업) 간 상호교류 및 경영,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이노비즈 인증제도 운영, 정부 위탁사업 수행(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이노비즈기업의 국내외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본회, 경기 판교 소재)과 전국 9개(강원, 경남, 광주전남, 대구 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 전북, 충북, 제주) 지역협회를 보유하여 지역 이노비즈기업의 애로해결 및 정책지원 등 현장 밀착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일자리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민간 최초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전국 최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을 달성하는 등 이노비즈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3년 일자리 창출 국무총리 표창, 201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2015년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 2017년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중국(헤이룽장성) 대표사무소, 2016년 한-이란(테헤란) 기술교류센터, 2017년 한-베트남(하노이) 기술교류센터, 2018년 한-인도네시아(자카르타) 기술교류센터 설립 등 해외 거점도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힘을 쓰고 있다.

2

사업별 추진실적

최근 전 세계는 혁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제품부터 기획·개발·생산·서비스까지 기업 내 모든 활동이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부합하는 기업이 바로 '이노비즈기업'이다.

이노비즈기업은 2001년 약 1,000여개에 불과했지만 참여정부('03~'08년) 시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단계 육성' 정책기조 하에 본격적으로 발굴·육성되어 2019년 현재 18,000여개 규모의 거대 기업군*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은 285조원을 기록, 국내 실질 GDP(1,807조원)의 약 16%를 차지하며 같은 해 삼성전자(244조원, 13.5%)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줬다.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단계 이상 총 30만 9천여 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이노비즈기업 수 변화추이 : ('01) 1,090개사 → ('06) 7,183개사 → ('11) 16,944개사 → ('16) 17,708개사 → ('17) 18,091개사 → ('18) 18,093개사 → ('19) 18,345개사

**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총 누적 309,694개) : ('10) 32,009개 → ('11) 30,744개 → ('12) 33,898개 → ('13) 37,367개 → ('14) 30,264개 → ('15) 32,638개 → ('16) 34,259개 → ('17) 35,660개 → ('18) 18,607개 → ('19) 24,248개

또한, 일반 중소제조기업 대비 3배 이상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중소기업 수출액의 약 46%를 차지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이노비즈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회는 다양한 정부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 이노비즈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1) 혁신형기업(이노비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혁신형기업(이노비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은 이노비즈기업의 발굴과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①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종합 정보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이노비즈기업 발굴·선정 등 관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② 이노비즈넷 운영·관리,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기술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시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활동을 유도하여 정부사업 참여 시 혜택을 주는 ④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매년 직전연도 12월 말 기준의 이노비즈기업 중 2,000개의 표본을 추출하고 기술혁신, 수출현황 및 예로서항과 지원정책 평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재무현황 등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일반 중소기업, 대기업 등과 비교를 실시하고 있다.

표 IV-30-1-1 | 2019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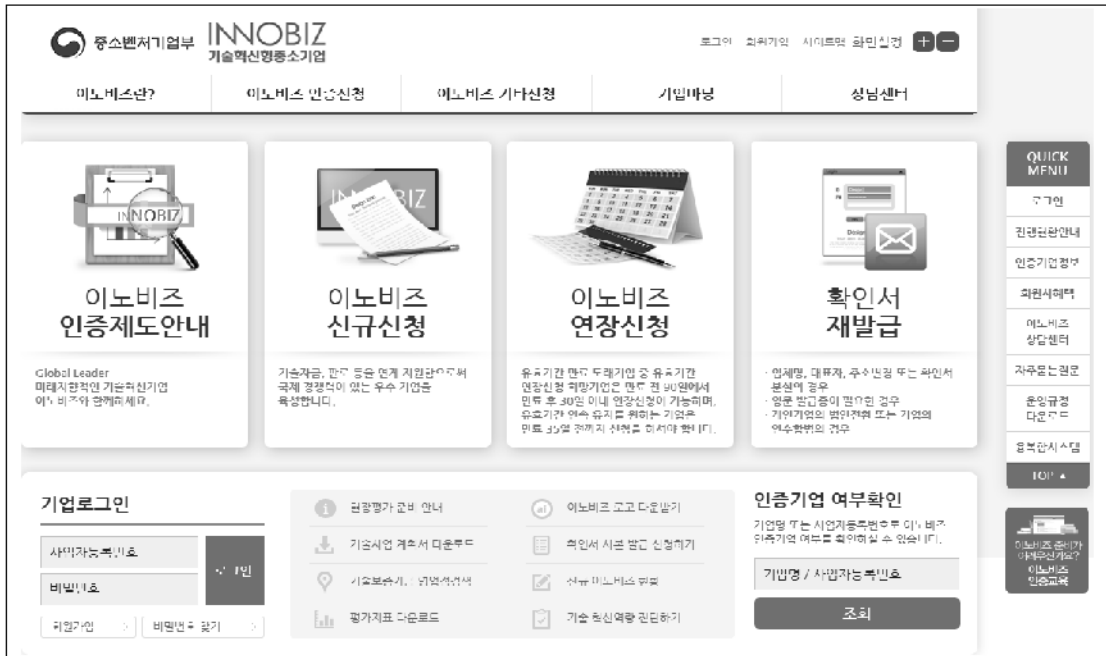
구 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종사자	평균 수출액*	수출기업 비중	평균 R&D 투자비율
결과 값 (18.12기준)	157.6억원	6.6억원	43.1명	77.7억원	55.7%	3.17%

* 간접수출 포함, 수출액은 1억 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조사

② 이노비즈넷 운영·관리

이노비즈넷 운영·관리는 2004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이노비즈기업 선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노비즈기업 신청 및 평가, 확인서의 (재)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상담원 배치, 관련 유관 기관(기술보증기금,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담당자 업무 협조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62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화면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2000년부터 기술혁신 관련 전시회와 포상을 위해 매년 정부 주도로 개최되어 왔는데, 2005년부터는 이노비즈협회 등 민간이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라는 슬로건 하에 8.26(월)~8.28(수) 3일간 COEX 3층 Hall C에서 개최되었다.

첫날 개막식 주요 참석자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 중소기업 임직원 등이 7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전시규모는 147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61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또한, 2019년 포상규모는 기술혁신 및 기술인재 분야 훈·포장 등 185점(정부포상 49점, 기관표창 136점)이 수여되었고, ‘스마트공장으로 품질혁신 컨퍼런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세미나’ 등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각종 부대행사도 진행하였다.

그림 63 | 2019년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주요 스틸컷



④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이 경영혁신 관련 교육 참가 및 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사업 가점(마일리지 500점 당 가점 1점)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마일리지 시스템(www.millige.or.kr)을 운영하여 참여기업 관리, 교육기관 및 과정 등록, 가점 활용 안내 등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영혁신 활동 및 신규 교육기관 심의를 비롯하여 제도개선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표 IV-30-1-2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운영 실적('14년~'19년)

사업연도	참여기업	적립기업	활용기업	교육기관	교육과정
2014년	163개사	0개사	0건	32개	722개
2015년(누적)	1,002개사	793개사	3건	43개	2,289개
2016년(누적)	8,084개사	5,818개사	50건	49개	3,928개
2017년(누적)	12,325개사	8,113개사	112건	52개	4,859개
2018년(누적)	18,307개사	13,368개사	181건	55개	5,755개
2019년(누적)	22,352개사	15,789개사	250건	60건	6,206개

2)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은 전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외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용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클라우드 시장 확산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본 사업은 2017년 시작으로 현재까지 341개 공급기업의 622개 클라우드 제품을 선정하여 4,356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30-1-3 |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의 지원 실적('17년~'19년)

구 분	서비스 등록 실적		도입 실적		비고
	공급기업 수	클라우드 서비스 수	대상	도입실적 수	
2017년	101개社	177개 서비스	산업단지	1,200개	
2018년	105개社	203개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1,550개	
2019년	135개社	242개 서비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1,606개	

3)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데이터 구매 비용 또는 가공 (일반/AI)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데이터 공급 및 수요기업 발굴,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촉진 등 데이터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데이터 가공 기술을 보유한 공급 기업이 수요기업 이용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 후 제공하고,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수요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

특히, 2019년 이노비즈협회는 전국 17개 수행기관 중 '스마트팩토리' 분야를 맡았으며, 기업당 4,500만원을 지원하는 일반가공 바우처 사업으로 50개사를 지원하였다.

나.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16년 7월부터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의 3자가 적립을 통해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되며, 청년 재직자가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청년납부금(300만원)과 정부지원금(1,300만원) 등 총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3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청년납부금(600만원)과 정부지원금(2,4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협회는 참여기업의 편의성 증대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사업 운영 및 참여기업 관리’를 위한 전용시스템을 독자 개발·운영하고 있다. 참여기업이 본 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련 알림 및 공지, 서류 제출 등을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기업별 참여단계 및 지원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총 3,842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을 달성했으며, 본회 및 5개 지회와 함께 전체 운영기관 169개 중 전국 최대 규모로 사업을 운영, 앞으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표 IV-30-1-4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6년~'19년)

구분	추진 목표	추진실적								합계
		본회	강원	경남	대구 경북	대전·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2016년	1,040명	518명	25명	240명	62명	158명	-	37명	-	1,040명
2017년	3,483명	2,230명	187명	232명	228명	240명	220명	177명	124명	3,638명
2018년	7,873명	4,377명	440명	550명	492명	770명	660명	584명	-	7,873명
2019년	3,776명	1,323명	-	410명	521명	600명	444명	544명	-	3,842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실시

2)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18년 6월부터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촉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정부·기업·청년의 3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납입해 5년 이상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3,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청년은 월 최소 12만 원 이상 60개월 납입(5년간 720만원), 기업은 월 최소 20만 원 이상 60개월 납입(5년간 1,200만원)하게 되며, 정부가 3년간 총 7회 1,080만원을 적립해주는 구조이다.

특히, 본 사업은 기업의 납입금 전액을 비용(일반연구·인력개발비)으로 인정하고, 공제금 수령 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마련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노비즈협회는 본회를 비롯, 전국 8개 지회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총 1,538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을 달성했다.

표 IV-30-1-5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적('18년~'19년)

구분	추진 목표	추진실적									합계
		본회	지회								
			강원	경남	대구 경북	대전·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2018년	900명	629명	60명	-	182명	500명	119명	148명	80명	-	1,718명
2019년	1,900명	675명	43명	66명	110명	250명	110명	158명	47명	79명	1,538명

* 2019년도부터 경남, 부산울산지회 사업 신규 시작

3) 이노-마이스터 장학사업

이노-마이스터 장학사업은 체계적인 기술인력 육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마이스터고 3개교(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의 우수 기술인력을 우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 기업에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10년 국립마이스터고 이관(교육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NH농협은행, 이노비즈협회, 국립마이스터고 3개교가 2011년 8월 기업육성자금 및 장학지원에 관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으며, 매년 이노비즈기업에 우수 국립마이스터 고교생 100여명 규모를 채용연계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총 688명의 채용연계 및 장학금 지급을 진행했으며, 우수한 고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IV-30-1-6 |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실적(1기~8기)

참여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합계
추진목표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70명	70명	740명
채용연계수	80명	85명	65명	90명	84명	86명	99명	99명	688명

* 1기('13.2월졸업), 2기('14.2월졸업), 3기('15.2월졸업), 4기('16.2월졸업), 5기('17.2월졸업), 6기('18.2월졸업), 7기('19.2월졸업), 8기('20.2월졸업)

4)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 협의회

이노비즈협회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인 인력공동관리 협의회로 지정받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우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인력공동관리 협의회는 전문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전국 각지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구인기업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인력 채용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특히, 협회는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까지 7년째 수행 중이다. 2019년에는 9개 학교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장 견학, 공동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이노비즈기업에 우수 기술기능 인력 채용연계를 위하여 현장 실습기업과 선도기업(교육부) 발굴 등 특성화고등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200여개 특성화고등학교 역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표 IV-30-1-7 |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실적('13년~'19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추진목표	100명	100명	100명	100명	80명	80명	60명	620명
채용연계	100명	100명	104명	94명	82명	82명	61명	623명

5)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이노비즈협회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현장 인턴 및 취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 뉴딜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구직자 모집 → 전문교육(2개월) 실시 → 기업과 교육수료자 간 인턴 내칭 → 인턴근무(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의 순서로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인턴기간 동안 인건비(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동 사업의 경우는 기업에서 담당할 업무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조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교육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를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입사 후 기업에 안정적인 적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24명을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6명을 정규직 채용연계 했다.

표 IV-30-1-8 |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17~'19년)

구분	교육	인턴	취업
2017년	24명	14명	14명
2018년	51명	38명	29명
2019년	49명	22명	33명
합계	124명	74명	76명

* 취업의 경우 인턴 과정 없이 정규직 채용연계도 진행

6) 기능경기대회 참여인력 채용연계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19년 하반기부터 특성화고 우수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 취업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여 기업과 구직자 간 직무 중심의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기능경기대회 및 상업경진대회에 참여한 특성화고 우수 기술인력을 전문 취업 코디네이터가 진로 상담부터 취업 역량강화(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 포트폴리오 지도 등), 기업추천까지 1:1 맞춤형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관, 기업·조직·직무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 비즈니스 매너 등 soft-skill(소프트스킬) 함양을 위한 MBI(Mind & Behavior Innovation) 교육을 진행하여 조직 적응력 향상을 도왔다.

2019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으로, 특성화고 우수 기술인력 105명을 대상 코디네이터의 취업 컨설팅과 매칭 등을 통해 총 82명(78%)을 채용 연계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다. 이노비즈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1)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이노비즈협회는 해외기업과의 기술 융·복합 활성화 및 기술수출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혁신 및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기술교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이노비즈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교류 국가 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독일, 덴마크,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① 해외 기술교류단 파견 기회 제공 ② 통역, 현지 차량 등 기술수출 활동 지원 ③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전문가 진단 ④ 현지 기업과의 교류 성과 달성 가능 기업의 경우는 별도 평가를 통해 수출지원 컨설팅 등 사후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동 사업은 일반적인 상품무역을 지양하고, 고부가가치의 성과 창출이 가능한 기술교류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것이 특징이다.

2016년 6월 한-이란 기술교류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17년 베트남, 2018년 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가 차례로 설립되었고, 현재 총 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개도국을 중심으로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표 IV-30-1-9 |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실적 ('14년~'19년)

구 분	교류실적			
	기술교류단	협력기업매칭	금전계약성과	성과금액(억원)
2014년	50개사/5회	20건	1건	2.4
2015년	43개사/3회	32건	2건	25.8
2016년	101개사/8회	34건	4건	2.5
2017년	161개사/12회	108건	3건	9
2018년	172개사/18회	119건	12건	47
2019년	183개사/17회	166건	16건	78.6
합 계	710개사/63회	479건	38건	165.3

* 기술교류를 통해 베트남 진출을 결정하고 2015년 현지 공장설립 투자한 2건, 108억 원 별도

2) 한-러 혁신플랫폼

한-러 혁신플랫폼 사업은 한-러 정상회담('18.6월)에서 '한-러 혁신 플랫폼' 협력 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2019년부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협력, 창업 교류 등 혁신 분야별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러시아 정부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한 스콜코보 혁신센터와 협력하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① 한-러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② 현지 진출을 위한 단기보육(소프트랜딩) 참여, ③ 현지 투자유치 활동 등이 있다.

그림 64 | 한-러 혁신플랫폼 우수사례

◎ '19년 러시아 진출지원 5개사 중 5개사 모두 진출 성공

■ (한) 웨코(WECO)-(러) Optosystems. Ltd.

- * 스킴코보 주관 소프트랜딩(단기보육) 과정 참여
러시아 법인설립 및 스킴코보 입주 완료('20.2)
- *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통해 Laser 마이크로 장비 및 배터리 분야 사업화 추진. 2년 이내 10억 원 이상 매출과 수출 증대 목표



3) 한-인니 자동차부품 미래선도 기술협력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19년 9월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자동차 부품 기업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① 인니 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발굴, ② 인니 자동차 부품 기관 및 관련 부처와 국내 공급기업 간의 교류 지원, ③ 한-인니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④ 양국 기업 간 교류를 통한 사업화 및 기술협력 유형별 제공 등이 있다.

4)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로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Target)시장 파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노비즈협회는 2008년부터 매년 3~4개의 해외전시회 한국공동관 구성 및 파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 인도네시아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등 총 3개 전시회에 24개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했다.

표 IV-30-1-10 | 해외전시회 이노비즈 공동관 지원 실적('19년)

전시명	일자	장소	품목	참가규모
20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19.11.20~ 11.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플라스틱 성형기계, 플라스틱 금형 등	8개사 9개 부스
2019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	'19.08.14~0 8.16	베트남 하노이	베어링, 나사, 금속 등	9개사 10개 부스
2019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19.05.07~ 05.09	미국 라스베이거스	건축, 주택	7개사 8개 부스

5) 글로벌연수사업

글로벌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인 인적 자원 개발 및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노비즈협회는 본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성공적인 중소기업 모델인 '이노비즈 인증제도'를 2019년부터 3년간('19년~'21년) 페루에 수출하는 '페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전수사업'을 실시한다.

급변 사업은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해외수출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이노비즈인증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평가지표분석, 자가진단 실습, 한국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현황 등의 전문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제도 구축 워크숍 실시를 통해 페루형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액션플랜 수립을 지원하며, 경제·문화체험, 현장 방문 학습 등도 진행한다.

2019년 10월에는 페루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약 3주간 이노비즈 인증제도 전수를 위한 전문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6) 중국 동북3성 정책관리자 초청사업

중국 동북3성* 정책관리자 초청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 한-중 국제협력 관계 강화 및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이다.

* 지린성(길림성), 헤이룽장성(흑룡강성), 랴오닝성(요녕성)

'19년에는 중국 동북3성 정책관리자 및 농업인리더 20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간담회, 국제협력 전문가 특강 및 제도 구축 워크숍, 현장 방문 학습 등을 진행하였다.

그림 65 | 글로벌 연수사업 및 중국 동북3성 정책관리자 초청



제31장

한국인터넷진흥원

1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현황

지역의 열악한 정보보호 현황을 개선하고자 지자체와 연계하여 2020년 현재 전국 10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식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인식제고 활동과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현황 〉



2

2019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추진방향

가.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전문교육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지역 학계·산업계와 협업을 통한 정보보호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구, 인천, 울산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매년 개최하는 '정보보호 전문 컨퍼런스'가 있다. 정보보호 전문가의 보안강연부터 패널토의, 보안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400여명이 참석하는 큰 규모이 행사이다. 해당 컨퍼런스를 통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기초 가이드 역할도 제시하고 있다.

정보보호 전문교육은 중소기업 재직자 및 정보보호 관련학과 대학생에게 무료로 지원하며, 초급과 중급수준으로 교육을 분류하여 참석인원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2019년도까지 총 6,415명의 인원에게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는 교육 분야를 더욱 세분화하여 지원자들이 더욱 폭넓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주요 운영 실적〉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 정보보호 전문교육	-	1,210명	1,419명	952명	1,299명	1,535명
○ 정보보호 세미나	9회	45회	90회	79회	85회	96회

나.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기술서비스 지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3대 주요 기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보보호 현장컨설팅으로써 정보보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시스템·네트워크 등 ICT 전 분야에 대한 기본적 취약점 점검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웹 취약점 점검으로써 기업이

보유한 홈페이지에 대한 주요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지원한다. 마지막 서비스는 민감정보보호 조치로써, 기업이 보유·관리하는 고객정보 또는 기업의 민감 정보에 대한 관리를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위 서비스 외에도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수행 중이다. 지역 전략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내재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과 지역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생협의체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의지가 있으나 예산·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어려운 IC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700만원 상당) 및 컨설팅 결과조치를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비용(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주요 운영 실적〉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 정보보호 서비스	254건	1,433건	3,295건	3,665건	4,003건	4,974건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100건	485건	969건	1,030건	1,119건	1,366건
웹취약점 점검	130건	620건	1,280건	1,553건	1,663건	1,918건
기업 민감정보보호 조치	24건	328건	1,046건	1,082건	1,221건	1,690건
○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	-	-	-	195건	265건

다. 2020년도 추진방향

금년도부터 중소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진단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도에는 총 500개社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700만원 상당) 및 보안 솔루션 도입비용(최대 800만원)을 지원하고, 추후 수요에 맞게 지원 목표 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혜기업들의 피드백을 받아 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연차보고서 작성자 및 연락처

과 제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1부 중소기업 일반현황 및 경기동향			
1장 중소기업 일반현황 1. 중소기업 일반현황 2. 중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통계분석과	고건호	042-481-6853
2장 중소기업 경기동향 1. 업종별 동향 2. 분야별 동향	통계분석과	고건호	042-481-6853
2부 중소기업 육성시책			
1장 혁신 창업·벤처국가 조성			
1절 민간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1. 신설법인 현황	통계분석과	고건호	042-481-6853
2. 창업저변 확대			
가. 창업교육	창업촉진과	신우진	042-481-3982
나. 기업가정신	창업촉진과	신우진	042-481-3982
다. 도전 K-스타트업	창업촉진과	김도연	042-481-4535
라.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촉진과	고종현	042-481-4553
3. 기술 창업 활성화			
가.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술창업과	김창호	042-481-4414
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기술창업과	손희찬	042-481-8947
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술창업과	김혜인 김도연	042-481-6815 042-481-4535
라.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기술창업과	원미연	042-481-3991
마.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기술창업과	이윤희	042-481-8914
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기술창업과	원미연	042-481-3991
사.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창업생태계조성과	이화정	042-481-1691
4. 창업지원 인프라 운영			
가.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기술창업과	원미연	042-481-3991
나. 창업보육센터(BI) 운영	창업촉진과	전상우	042-481-4524
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역기업육성과	김성재	042-481-1676
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청수	042-481-1692
마. 메이커 활성화 지원	창업생태계조성과	한광석	042-481-4580
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촉진과	고종현	042-481-4553
5. 1인 창조기업 활성화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창업촉진과	전욱재	042-481-1629
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촉진과	전욱재	042-481-1629
2절 벤처열기 확산을 통한 혁신벤처국가 실현			
1. 벤처기업 육성 및 성장			

과 제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가. 벤처기업 성과	벤처혁신정책과	김성훈강 성원 성홍석	042-481-4494 042-481-4425 042-481-1639
나. 벤처기업 지원현황 (인력, 글로벌화, 여성벤처 활성화)	벤처혁신정책과	성홍석 김태완	042-481-1639 042-481-1635
2. 벤처투자 현황	투자회수관리과	신규호	042-481-4422
3. 벤처투자 확대			
가. 모태펀드 운영	벤처투자과	이권재	042-481-1649
나. 엔젤투자 활성화	투자회수관리과	서정남	042-481-4487
4. 회수시장 활성화	벤처투자과	이주창	042-481-3974
3절 재도전 환경 조성			
1.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가. 재창업교육	재도약정책과	박정은	042-481-4475
나.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재도약정책과	박정은 엄충섭	042-481-4475 042-481-8965
다. 경영위기기업의 발굴 및 회생 지원	재도약정책과	김현희	042-481-4356
라.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촉진 및 FTA 피해기업 구제	재도약정책과	안병철	042-481-4530
2. 재도전 친화적 제도 개선			
가. 연대보증 폐지 등 실패부담 완화	재도약정책과	안병철	042-481-4530
나. 신속한 회생 지원	재도약정책과	김현희	042-481-4356
다. 신용회복 및 불요한 신용정보 관리 체계 개선	재도약정책과	엄충섭	042-481-8965
2장 고용 친화적 중소기업 성장촉진			
1. 근로자 임금상승 및 근로환경 개선			
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영	인력육성과	여운상	042-481-4465
나. 성과공유제 도입 및 확산	일자리정책과	최 승	042-481-4365
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인력육성과	황진아	042-481-4424
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일자리정책과	장상만	042-481-4469
2.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인력육성과	김종길	042-481-4369
나. 기술사관 육성	인력육성과	김정대	042-481-6811
다.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인력육성과	김정대	042-481-6811
라.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인력육성과	황진아	042-481-4424
마.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인력육성과	김정대	042-481-6811
바. 국립 공업고등학교 육성	인력육성과	김종길	042-481-4369
사.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	인력육성과	이은숙	042-481-4493
아. 중소기업 인식개선	일자리정책과	최 승	042-481-4365
자.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인력육성과	한지연	042-481-4471
3장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1절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1.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기술정책과	정진관	042-481-4432

과 제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2.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과	오보연	042-481-4452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1)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기술개발과	황조인	042-481-4445
2)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지원	기술개발과	정해진	042-481-4442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기술개발과	정해진	042-481-4442
4)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	기술개발과	조무근	042-481-4401
5)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기술개발과	조무근	042-481-4401
6) 공장·품질 기술개발사업 지원	제조혁신지원과	조영미	044-865-9848
7)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기술개발과	이태민	042-481-6867
8) 산학연 Collabo R&D 지원사업	기술개발과	김범철	042-481-4582
9)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 협력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과	김범철	042-481-4582
10) 산학연협력 신사업R&D 바우처 지원사업	기술개발과	김범철	042-481-4582
11) 연구기반 활용사업	기술개발과	김범철	042-481-4582
12)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기술개발과	김범철	042-481-4582
3.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			
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기술개발과	조무근	042-481-4401
나. 소재·부품·장비 상생협력의 촉발(상생모델 발굴)	상생협력정책과	강민수	042-481-6835
4. 스마트 공장 확산			
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제조혁신지원과	염정수	044-865-9619
나. 민간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제조혁신지원과	염정수	044-865-9619
다.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제조혁신지원과	염정수	044-865-9619
라.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제조혁신지원과	염정수	044-865-9619
5.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확대	기술정책과	정진관	042-481-4432
나.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기술정책과	서유신	042-481-4496
다. 뿌리중소기업 육성	제조혁신지원과	신정대	044-865-9846
6.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기술보호과	정세환	042-481-4393
가. 중기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기술보호과	이행로	042-481-4549
나.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제조혁신지원과	권태용	044-865-9618
2절 혁신금융 공급 및 금융안전망 강화	기업금융과	최호성	042-481-4586
1. 금융시장 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기업금융과	윤성웅	042-481-4382
2. 정책자금 지원	기업금융과	윤성웅	042-481-4382
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의 및 운영 현황	기업금융과	윤성웅	042-481-4382
나. 2019년 정책자금 운용성과	기업금융과	윤성웅	042-481-4382
3. 신용보증 공급	기업금융과	최호성	042-481-4586
	벤처혁신정책과	여현구	042-481-4485
가. 보증지원 규모 확대	기업금융과	최호성	042-481-4586
나. 창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	기업금융과	최호성	042-481-4586

과 제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4. 매출채권보험 운용	기업금융과	최호성	042-481-4586
가.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기업금융과	최호성	042-481-4586
나. 고객 중심의 제도 혁신	기업금융과	최호성	042-481-4586
다. 보험사업 역할 강화	기업금융과	최호성	042-481-4586
3절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판로정책과	김태선	042-481-4468
2.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국내 판로 촉진	판로정책과	정익채	042-481-4466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판로정책과	김태선	042-481-4468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정책과	변상준 강경완	042-481-4434 042-481-4546
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판로정책과	변상준	042-481-4434
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조합참여 허용	판로정책과	강경완 안준기	042-481-4546 042-481-8918
마. 직접생산확인제도	판로정책과	안준기	042-481-8918
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판로정책과	강경완	042-481-4546
사.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제도	판로정책과	박이방	042-481-8919
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판로정책과	백원현	042-481-4569
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판로정책과	백원현	042-481-4569
차.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판로정책과	안준기	042-481-8918
카.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및 모니터링	판로정책과	김태선	042-481-4468
3.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판로정책과	박준영	042-481-4483
가. 온라인시장진출	판로정책과	유주현 이지수	042-481-8950 042-481-4377
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판로정책과	유주현 이지수	042-481-8950 042-481-4377
다.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판로정책과	유주현 이지수	042-481-8950 042-481-4377
라. 공영홈쇼핑(채널명 : 공영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판로정책과	박준영 이지수	042-481-4483 042-481-4377
4절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1. 수출 현황	글로벌성장정책과	방지현	042-481-4473
2.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가. 수출지원기반활용	글로벌성장정책과	정미라	042-481-3980
1)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성장정책과	정미라	042-481-3980
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성장정책과	정미라	042-481-3980
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1) 수출컨소시엄 사업	글로벌성장정책과	양동학	042-481-4484
2)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양동학	042-481-4484
3)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글로벌성장정책과	이상훈	042-481-4355
4)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글로벌성장정책과	정미라	042-481-3980

과 제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3. 수출기업 지원 및 해외교류 인프라 확충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글로벌성장정책과	김희중	042-481-3965
나.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글로벌성장정책과	김혜인	042-481-6815
4. 국제협력 추진	국제협력과	강성국	042-481-8903
가. 양자협력 활동	국제협력과	장은원	042-481-1660
나. 다자협력 활동	국제협력과	장은원	042-481-1660
4장 더불어 발전하는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1절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상생협력 촉진			
1. 대·중소기업 간 경영현황	상생협력정책과	노진상	042-481-4387
2. 기업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거래환경개선과	이동원	042-481-1614
가.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결제 현황	거래환경개선과	박지수	042-481-8958
1)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결제 현황	거래환경개선과	오유진	042-481-4395
2)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거래환경개선과	박지수	042-481-8958
나. 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1) 의무고발 요청권 행사	거래환경개선과	오상욱	042-481-1668
2) 수·위탁 분쟁조정 지원 활성화	거래환경개선과	이동원	042-481-1614
3)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거래환경개선과	이동원	042-481-1614
3.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상생협력정책과	노진상	042-481-4387
가. 대중기간 상생협력 추진 배경 및 경과	상생협력정책과	노진상	042-481-4387
나.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주요 실적 및 성과			
1) 자생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 확산	상생협력정책과	정의경	042-481-3981
2)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협력정책과	민병철	042-481-3959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상생협력정책과	강민수	042-481-6835
4)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상생협력정책과	강민수	042-481-6835
5)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상생협력정책과	민병철	042-481-3959
6)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상생협력정책과	박순홍	042-481-3942
7)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상생협력지원과	장준수 손정아 박준성	042-481-3993 042-481-3971 042-481-4529
8)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거래환경개선과	문다홍	042-481-8963
2절 협업을 통한 혁신역량 발전			
1. 중소기업 간 협업 유도			
가. 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정책과	조혜지	042-481-1617
나. 기술혁신센터 지원	기술정책과	서유신	042-481-4496
2. 포용적 동반성장 확대			
가. 여성기업 육성 정책			
1) 여성기업 일반현황 및 정책개요	정책총괄과	이경규	042-481-4376
2) 여성기업 지원 정책	정책총괄과	이경규	042-481-4376

과 제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1) 장애인기업 현황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임영주	042-481-4566
2)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임영주	042-481-4566
3절 지역 중소기업 육성			
1. 지역 중소기업 현황			
가. 지역 경제동향	지역혁신정책과	허일록	042-481-1699
나. 지역 중소기업 현황	지역혁신정책과	허일록	042-481-1699
2.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기획총괄과	남현재	042-481-9713
가. 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	기획총괄과	남현재	042-481-9713
나. 규제자유특구 시행시 기대효과	기획총괄과	남현재	042-481-9713
다.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기획총괄과	남현재	042-481-9713
라. 향후 계획	기획총괄과	남현재	042-481-9713
3.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기업육성과	이철한	042-481-1678
가.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기업육성과	이철한	042-481-1678
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지역기업육성과	이철한	042-481-1678
4.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	지역기업육성과	이철한	042-481-1678
5. 국가융복합단지연계지역기업상용화(R&D)	지역기업육성과	이철한	042-481-1678
6. 지역기업개방형혁신바우처(R&D)	지역기업육성과	이철한	042-481-1678
7. 지역특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지역특구과	성대현	042-481-1603
가. 지역특구 지정절차	지역특구과	성대현	042-481-1603
나.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현황	지역특구과	성대현	042-481-1603
다.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활성화	지역특구과	성대현	042-481-1603
8.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역기업육성과	김재균	042-481-1679
5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1절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생태계 촉진			
1.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정책과	최우혁	042-481-3989
2. 준비된 창업 유도			
가. 소상공인 정보 제공	소상공인정책과	정길섭 이종우	042-481-4491 042-481-3983
나.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전은별	042-481-3957
다.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이경우	042-481-4490
라.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전은별	042-481-3957
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042-481-3988
바. 소상공인 보증 지원	기업금융과	김성일	042-481-4385
3.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가.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현주 송상호	042-481-8997 042-481-3952
나. 재창업패키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현주 송상호	042-481-8997 042-481-3952

과 제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신대순	042-481-4596
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정길섭	042-481-4491
2절 소상공인지역업 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1. 소상공인 성장 지원			
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온라인경제추진단	백승표	042-481-6880
나.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전은별	042-481-3957
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현주	042-481-8997
라.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역상권과	한준희	042-481-1633
마. 골목슈퍼의 자생력 제고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성동	042-481-4583
바.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이경우	042-481-4490
사. 중소유통공도매물류센터 건립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성동	042-481-4583
아. 백년가게 육성	지역상권과	하유경 한준희	042-481-4335 042-481-1633
2.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지역상권과	최용춘	042-481-4576
3절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1. 전통시장 현황	전통시장육성과	전진섭	042-481-8930
2. 특성화 시장 육성	전통시장육성과	이왕재	042-481-4547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육성과	편선영	042-481-4563
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육성과	편선영	042-481-4563
4. 시장경영혁신 지원			
가.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육성과	장수환	042-481-4517
나.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전통시장육성과	이왕재	042-481-4547
다.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을 국산상품권으로 확산	전통시장육성과	권현주	042-481-3958
라. 전통시장홍보	전통시장육성과	전진섭	042-481-8930
5. 상권 활성화	지역상권과	하유경	042-481-4335
6장 규제·행정 혁신 및 기업애로 지원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규제개혁담당관	이상영	042-481-8943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정책평가과	박철우	042-481-6855
3. 적극행정	혁신행정담당관	임호순	042-481-8932
4. 정책정보 제공 및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가.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인 '기업마당'	통계분석과	최준영	042-481-6861
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고객정보화담당관	이호준	042-481-8940
다. 비즈니스지원단 운영	고객정보화담당관	이호준	042-481-8940
5.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옴부즈만지원단	김유미	02-730-2476
6.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재도약정책과	안병철	042-481-4530

〈정부 부처〉

목 차	과명	담당자	연락처
제3부 부처별 육성시책 추진실적			
제1장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재홍 사무관	044-215-4232
제2장 교육부	기획담당관	박수현 주무관	044-203-6652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이병수 주무관	044-202-4427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김민정 주무관	044-203-2213
제5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유정윤 주무관	044-201-2139
제6장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김수진 서기관	044-203-4365
제7장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해외의료사업과	박주은 주무관 최미량 주무관	044-202-2307 044-202-2898
제8장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최신우 사무관	044-201-6706
제9장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김동형 주무관	044-202-7030
제10장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양두석 주무관	044-201-3257
제11장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차석근 주무관	044-200-5122
제12장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김기호 주무관	02-2110-1322
제13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이수연 주무관	043-719-1414
제14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홍수진 사무관	044-200-4585
제15장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이혜진 주무관	02-2100-2867
제16장 국세청	법인세과	권승민 국세조사관	044-204-3323
제17장 관세청	FTA집행과	김성숙 주무관	042-481-3284
제18장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정상현 주무관	042-724-7050
제19장 병무청	산업지원과	이현미 주무관	042-481-2815
제20장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김세리 주무관	02-2079-6449
제21장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진영 농촌지도관	063-238-1019
제22장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이시호 주무관	042-481-5052
제23장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류두희 주무관	02-2181-0854

〈중소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4부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활동			
제1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혁신실	오명석	055-751-9285
제2장 기술보증기금	미래혁신연구소	문정훈	051-606-7378
제3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래기획팀	김세은	042-363-7584
제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기획실	변준혁	042-388-0216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영전략실	박채린	042-480-4018
제6장 창업진흥원	기획조정실	한은수	042-480-4382
제7장 한국벤처투자	기획관리팀	김현우	02-2156-2177
제8장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획조정팀	강원구	02-6678-9133
제9장 중소기업연구원	경영기획실	김인혜	02-707-9869
제10장 (사)한국산학연합회	경영기획실	김민준	042-720-3341
제11장 공영홈쇼핑	경영기획팀	류효림	02-6350-8769
제12장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획조정팀	송민근	02-2181-6564
제13장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	박주현	02-2124-3032
제14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진성룡	02-368-8781
제15장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장경필	053-430-4115
제16장 중소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이현호	02-6322-5109
제17장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기획팀	석지은	02-3779-6268
제18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획혁신팀	고다연	02-3460-7065
제19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기획팀	김예슬	02-399-7059
제20장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	임지훈	02-6000-5194
제21장 한국생산성본부	기획조정실	이재욱	02-724-1012
제22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기전담지원실	동승화	041-589-8315
제23장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양현봉	044-287-3171
제24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획실	손해원	042-869-0787
제25장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이성수	031-780-2146
제26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민형	02-369-0922
제27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신민정	042-331-0577
제28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정책기획본부	김정석	031-628-9686
제29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정철윤	02-6050-3454
제30장 금융감독원	서민중소기업지원팀	이기원	02-3145-8415
제31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총괄센터	복재준	061-820-1329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 발행일 | 2020년 8월

|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 발간등록번호 | 11-1421000-000002-1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우 35208)

| 문 의 |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문의를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556)로
연락바랍니다.
